춘천기독교 120년사

1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 **이수형**(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편집위원장 : **오의석**(순복음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동정(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집 필 위 원 : **노성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김동정(가톨릭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오의석(순복음조은교회 담임목사)
김 훈(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병철(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최상도(춘천성시신문 편집장)
김상철(전 강원소방본부 행정과장)
임대형(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집 위 원 : **최재훈**(꿈꾸는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총 괄 편 집 : **임대형**(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일러두기 |

– 편찬목적

본 책의 편찬목적은 춘천기독교120년의 역사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춘천기독인들과 시민들에게 춘천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춘천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선조들의 믿음을 교훈 삼아 기독인들의 믿음과 복음 전파에 이바지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 성시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또한, 학계의 연구자에게는 춘천기독교연구와 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서술 원칙

- 본 책은 1898년 춘천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 된 이후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와 내용을 서술하였다.
- 본 책은 편찬에 앞서 편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담하였으며, 별도의 감수와 윤문을 거쳐 내용의 충실을 기하였다.
- 이 책은 제1편 기독교의 한국 · 강원도 전래와 발전, 제2편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제3편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제4편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제5편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제6편 춘천의 사회단체 등 총 6편 46장으로 구성하였다.
- 글은 학술서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장은 간결하고, 내용은 정확하고 평이하게, 누구나 쉽게 읽고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 원고는 각주를 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부득이한 경우 각주를 활용하였다. 각주와 집필자 명, 참고문헌은 원고 뒤에 일괄하여 제시하였다.
- 본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와 고유명사 등은 원어를 괄호 안에 넣었다.
- 집필내용과 학술용어는 분야별 집필자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용어 사용이 다르므로 필자의 견해를 존중하되, 원고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감수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실에서 수정 · 보완하였다
- 이 책의 본문에 인용된 원문을 번역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였으며, 원문 제작 당시의 관용어나 제도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 본문의 내용과 사진은 각 교회의 교회사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삽입하였으며, 각종 기관, 단체, 협의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논문과 언론 및 매체를 통한 자료도 참고하여 기술되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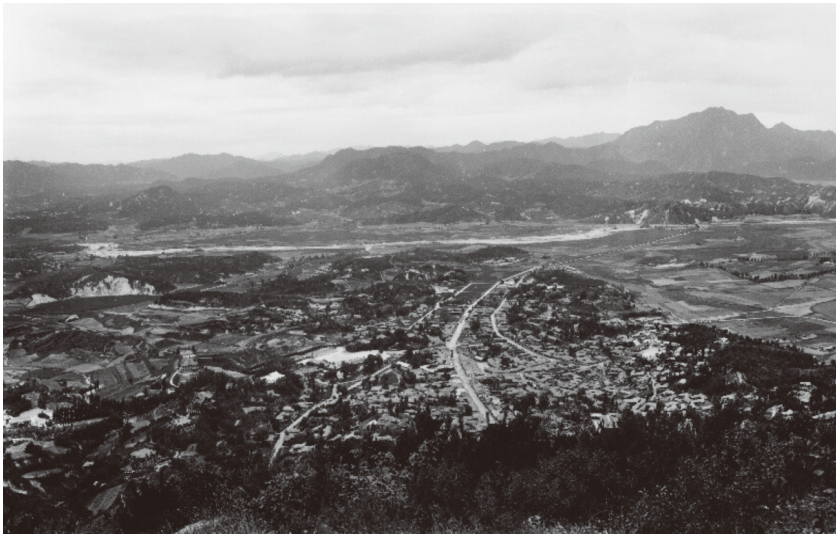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1919년 춘천시가



강원도청 항공사진(1970년대)



이덕수 전도사(1858~1910년) 묘소



춘천중앙감리교회 모습(1925년)



춘천중앙감리교회 루이스 선교사 부부와 신자들(1929년)



구세군 춘천소대 개영식 기념사진(1937년)



소양성결교회 목조건물(1950년대)



동부장로교회 판자집으로 된 47평의 임시예배당
(1952년 7월 7일 준공)



춘천중앙성결교회 재건 10주년 기념사진(1955년 3월)



춘천성광장로교회 성경구락부 1회 졸업기념(1954년 3월 15일)



대한성공회 춘천교회 성탄절 사진(1957년 12월 25일)



후평교회(현 신성감리교회, 1950년대)



춘천제일장로교회 헌당식 및 김길용 · 원익환 장로 장립기념(1960년 6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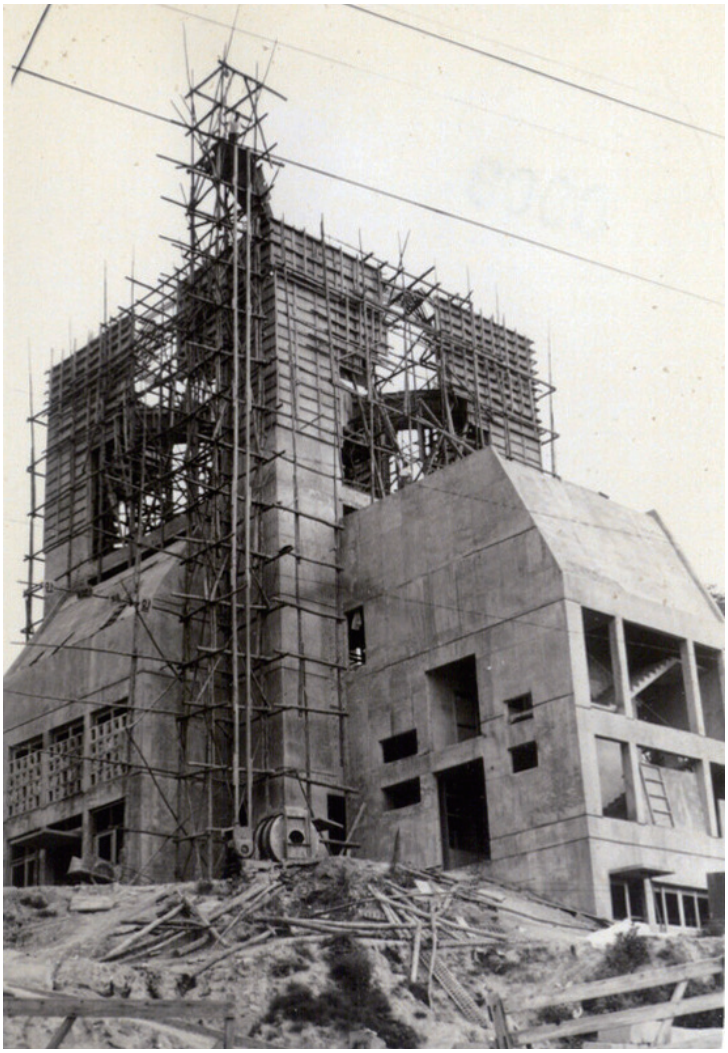
춘천YMCA 세계기도회 기념(1964년 11월 9일)



YWCA 창립총회(1966년 3월 17일)



동원감리교회 1회 부흥회 기념, 강사 이문규 목사(1969년 10월 24일)



춘천중앙감리교회 아폴로예배당(1972년)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홍보모습(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공동주최한 춘천시 전도대회
(1972년 7월 31일~8월 4일)


春川 聖市化운동 傳道대회

참된 近代化운동 앞장

全國信徒 5천명 참석 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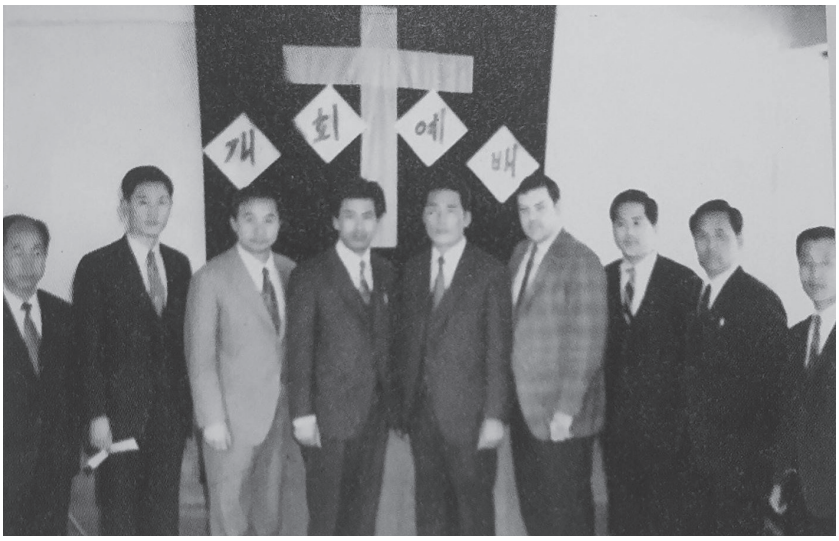
流行性 結膜炎 극성

製氷業 일제수사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기사(강원일보 1972년 8월 1일)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2022년 8월 13~15일)



순복음춘천교회 창립예배 기념사진(1972년 4월 3일)



순복음춘천교회 전도부흥회(강원도민회관, 1972년 7월 10~15일)



춘천시민복음화 선교대회(1988년 6월 17~29일)



춘천지역선교대성회(1994년 9월 4~6일)



임택창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취임식(1996년 10월 1일)



조남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장 취임식(1996년 10월 1일)



제1기 춘천아버지학교(2004년 11월 6일)



춘천직장선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2004년 11월 7일)



십자가 평화대행진(2005년 3월 12일)



부활절연합예배(2005년 3월 27일, 구 춘천시청 앞 광장)



춘천CBS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2004년 12월 14일)



월드비전 강원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11월 16일)



춘천월드레져대회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2010년 9월 1일)



춘천월드레져대회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2010년 9월 1일)





강원CBS 개국(1995년 운교동)과
강원CBS 새사옥 전경(2019년 11월 12일 준공, 춘천 남면)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글로벌 선교센터 개원예배(2021년 5월 25일)



성탄 구세군 냄비 시종식(2021년 12월 3일, 춘천명동 입구)



춘천기독교 120년사 집필착수 감사예배(2021년 12월 23일, 순복음 춘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3.1절 연합예배(2022년 3월 2일,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성시화 50주년 기념 홀리바이크(2022년 7월 2일)



춘천 천전리 소망마을 해비타트 사무실(2022년 7월 8일)





성탄트리점등식(2022년 12월 3일)



성탄트리점등식(2022년 12월 3일)

Contents

제1편 기독교의 한국 · 강원도 전래와 발전

제2편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제3편 춘천기독교 교단별 역사와 발전

제4편 춘천의 기독교 기관과 활동

제5편 춘천의 선교단체 및 협의회 활동

제6편 춘천의 사회단체

30 **춘천기독교120년사 인사말**
이수형 목사(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장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31 **춘천기독교120년사 발간사**
오의석 목사(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종교분과)
김동정 교수(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학술분과)

33 **춘천기독교120년사 축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지태성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제1편 기독교의 한국·강원도 전래와 발전

40 제1장 기독교의 한국 전래와 선교사의 역할
40 1절 기독교의 한국 전래
51 2절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69 제2장 한국 기독교 교파의 선교지역 분할과 확산
69 1절 여러 나라·교파 교회의 선교지 분할협정
72 2절 선교지 분할협정과 강원도 선교

78 제3장 기독교의 강원지역 전파
78 1절 강원도 역사 개관
86 2절 기독교의 강원 전파와 발전
93 3절 선교사들이 본 강원도 산하와 사람들

제2편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112 제1장 광복과 격동 속의 춘천기독교
112 1절 광복의 감격과 혼란 속의 춘천기독교
153 2절 6.25전쟁과 춘천기독교
167 3절 전화복구와 예배당 건축
193 4절 춘천지역 교회 활동과 개척

211 제2장 춘천기독교의 성장과 발전(1960~70)
211 1절 춘천지역 교회의 성장
274 2절 춘천기독교의 성시화운동
292 3절 춘천지역 교회와 활동

327 제3장 춘천기독교의 부흥과 발전(1980~90)
327 1절 한국기독교 선교100주년과 춘천지역 교회 성장
395 2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범과 발전
422 3절 춘천지역 교회의 교회개척과 국내외선교

457 제4장 21세기 춘천기독교의 역할과 미래
457 1절 2000년대 춘천기독교 개관
468 2절 춘천지역 교회의 21세기를 향한 비전
520 3절 춘천성시화운동
575 4절 춘천지역 교회개척과 선교 및 봉사

인 사 말



이 수 형 목사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장

1898년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창립되면서 춘천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 된 이후, 올해로 어느덧 1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존 교단별·교회별 역사 편찬은 있었지만 시·군을 아우르는 기독교 역사 전반과 교단·기관·협의회·사회단체 전반을 다룬 역사 편찬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필요는 절감하면서도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선뜻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16년 『춘천기독교120년사』 발간을 위한 첫 준비모임을 가진 이후 추진이 되는 듯하였으나 예산 문제,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1년 9월 강원도와 춘천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편찬위원회 및 집필위원회가 구성되고 발간 일정 조율, 가목차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춘천기독교120년사』라는 두 권의 책으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는 춘천기독교사 시리즈 작업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춘천기독교120년사』는 춘천의 기독교 도입부터 발전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춘천의 역사와 함께 호흡해 온 기독교를 정리하고, 기독교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거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기독교 역사 속에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믿음의 유산을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영적 거울과 신앙적 교훈으로 삼는 뜻깊은 사역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오신 춘천기독교 역사의 기록인 『춘천기독교120년사』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뒤따르며, 그 찬란한 역사의 바탕 위에서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춘천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은 그동안 수많은 자료와 원고를 정리하고 역사적 평가, 사회적 영향력 평가 등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씨름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편찬위원들과 집필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장 이 수 형

발 간 사



오 의 석 목사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종교분과

1898년(춘천중앙감리교회 창립) 춘천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1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춘천기독교120년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간되어서 드디어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춘천기독교120년사는 제가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총무였던 2013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노성호·임대형 선생과 만나면서 춘천기독교 역사 정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우리의 바람처럼 척척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 집필진 문제, 무엇보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의 기독교 역사 전체를 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21년부터 다시 춘천기독교120년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연구진을 다시 조직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체계적인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본격적인 집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예산 지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채워주었던 성도들의 발자취이며,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춘천기독교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를 선도하는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로지 책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 임대형 집사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노성호 집사님, 그리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춘천기독교의 모든 소통과정을 힘써 도와준 김훈 목사님, 그리고 이 책을 위해 피눈물을 써 내려간 연구원님들,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편찬위원, 집필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종교분과) 오 의 석

발 간 사



김 동 정 교수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학술분과

1898년(춘천중앙감리교회 창립) 춘천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현재 120여 년이 되었습니다. 120여 년 동안의 춘천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현대를 살아가는 춘천 기독교인들에게 영적 거울이 되고 신앙적 교훈이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 있는 120여 년의 춘천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역사와 문화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국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오늘날의 영적부흥을 이룩한 믿음의 교훈을 춘천의 성시화와 열방으로의 복음에 적용하여 영적성장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춘천지방에 무스(J. R. Moose) 선교사와 이덕수 전도사 사역이 시작된 이후 1907년 춘천지방(1910년 9월 춘천·양구·홍천구역으로 분할)의 교세는 무려 48개 교회에 입교인 202명, 학습인 1,814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최고로 확산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여 춘천에만 감리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 5개 교단에 20개 남짓 교회가 있었으나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와 박해로 교회는 거의 문을 닫은 채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도 교회들은 재건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순교하거나 납치당한 교역자들이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구세군 6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학살당한 기독교인은 849명, 피랍된 사람은 177명 등 희생자가 총 1,0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 초 한국교회는 12~15만의 성도와 900여 명의 목회자,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소실된 교회 267개, 파괴된 교회 705개로 합계 972개 교회가 소실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춘천·춘성군에는 피난민과 전재민이 17,388세대, 85,801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춘천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피난민과 전재민 그리고 월남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교인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기독교는 곧 신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교육을 주도하였고 병·의원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 더불어 교회를 중심으로 갖가지 서구 생활문화를 배우게 하며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춘천의 기독인들은 1972년 7월 31일~8월 4일 춘천성시화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성시화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에 1978년에는 춘천·춘성을 합쳐 7개 교단의 교회 수는 83개소, 교직자 수는 159명, 교인 수는 14,361명으로 춘천 인구 130,000명의 11%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춘천기독교연합회와 홀리클럽,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어 그 맥을 이었고 2022년 춘천성시화운동이 희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춘천에는 감리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그리스도의교, 순복음, 루터교, 독립교단 등 10여 개의 교단과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전개된 파란만장한 춘천 기독인들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8명의 목회자와 역사교수·학자 등을 동원하여 1,100여 쪽 분량의 원고를 집필하였고 동시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과 도표를 함께 편집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발간된 이 책을 통하여 춘천 기독인들이 믿음의 뿌리와 그 과정 속의 교훈을 거울삼아 미래를 향한 도약을 소망해 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과 정신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6편 4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강원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 의장님, 춘천시장님과 춘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수형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님, 지태성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님, 편찬위원, 집필위원 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획에서 편찬에 이르기까지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춘천기독교120년사』 상·하권을 편집, 수정 및 보완에 심혈을 기울인 임대형 연구원과 김훈 사무총장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집위원장(학술분과) 김 동 정

축 사

김 진 태
강원도지사



춘천기독교 역사를 총 망라한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천기독교 120년사는 1898년 춘천중앙감리교회 건립 이래 기독교의 성장과 교회를 빛낸 인물 등 춘천기독교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으로 집필에서부터 발간까지 정성을 쏟아주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수형 목사님을 비롯해 집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기독교는 120년간 격동의 근현대사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춘천 기독교인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투쟁한 독립 운동가였으며, 해방이후 좌우이념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우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국가가 해내지 못한 교육과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고아, 어르신, 군경유가족을 돌보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이후 1972년에 펼쳐진 춘천성시화운동은 춘천을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범죄 없는 청정도시, 신앙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자 춘천시민 10만 명이 대동단결한 시민운동으로, 총력적인 전도대회를 통해 그 명성이 대한민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동의 120년 근현대사를 함께한 춘천기독교인의 헌신과 활약은 강원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빛나는 미래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6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해서는 120년간 춘천 기독교인이 보여줬던 시대정신이 필요하며 이제 그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120년간 춘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춘천 기독교인들이 내년 강원특별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사회 다방면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강원도지사 김 진 태

축 사

육동한
춘천시장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한낮에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에 여름이 다시 온 듯했으나,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한가운데임을 알려줍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 춘천의 자랑이 될 춘천기독교120년사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 순간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비폭력 평화운동부터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까지, 거대한 흐름 속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기독교계의 공헌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춘천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 중심의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 성시화운동이 개최되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가치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과 선교의 길임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춘천의 기독교는 춘천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뿌리를 찾는 일입니다. 체계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문화유산 발굴은 인문학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이번 『춘천기독교120년사』 출간은 우리 춘천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고, 그 신앙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더구나 이 작업이 이전에 없었던 시·군을 통합하는 기독교 역사편찬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자랑스러운 작업임이 틀림없습니다.

내년 2023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춘천시와 춘천기독교의 시대정신은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과 그 길을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춘천기독교120년사』 출판을 축하드리며, 오늘을 위해 헌신해 주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수형 이사장님과 편찬과 편집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시장 육동한

축 사



권 혁 열
강원도의회 의장

춘천기독교 역사를 총망라한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을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빠른 근대화를 이끌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나라 역사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며, 많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깊은 산과 바다에 접해 있어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인 분들의 사랑과 은총은 산속 깊이, 해안가 깊숙이 퍼져 세상을 더욱 따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거치며 둘로 나뉜 강원도는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손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 온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용과 화합, 그리고 사랑의 종교로 도민 곁에 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2023년 6월 11일이면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게 무한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120년간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이번 발간이 강원도 교회문화 전파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는 기독교인분들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강원도의회 의장 권 혁 열

축 사



김 진 호
춘천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춘천기독교 120년 출간이 어느 때 보다도 뜻깊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태풍, 장마 그리고 장기화 된 코로나19 등 매우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침체로 어렵고 소외 받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교우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시의회 의장 김 진 호

축 사



지 태 성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원도 춘천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어느덧 120년이 흘러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춘천성시화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춘천기독교 120년사가 산고 끝에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천기독교 역사와 문화의 귀중한 자산이요, 유산인 『춘천기독교120년사』가 출간되기까지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기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춘천지역의 교회와 교단,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는 『춘천기독교120년사』라는 귀중한 자료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기독교 신앙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돼 더욱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발간된 『춘천기독교120년사』가 춘천과 강원도, 그리고 한국교회에 기독교 문화의 창달과 보급에 기여하게 됨을 기대하며, 이 귀한 자료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회복하는 사역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지 태 성

제 1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기독교의 한국·강원도 전래와 발전









제1장 기독교의 한국 전래와 선교사의 역할 40
1절 기독교의 한국 전래 40
2절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51

제2장 한국 기독교 교파의 선교지역 분할과 확산 69
1절 여러 나라·교파 교회의 선교지 분할협정 69
2절 선교지 분할협정과 강원도 선교 72

제3장 기독교의 강원지역 전파 78
1절 강원도 역사 개관 78
2절 기독교의 강원 전파와 발전 86
3절 선교사들이 본 강원도 산하와 사람들 93

제1장
기독교의 한국 전래와 선교사의 역할[1)]



1절 기독교의 한국 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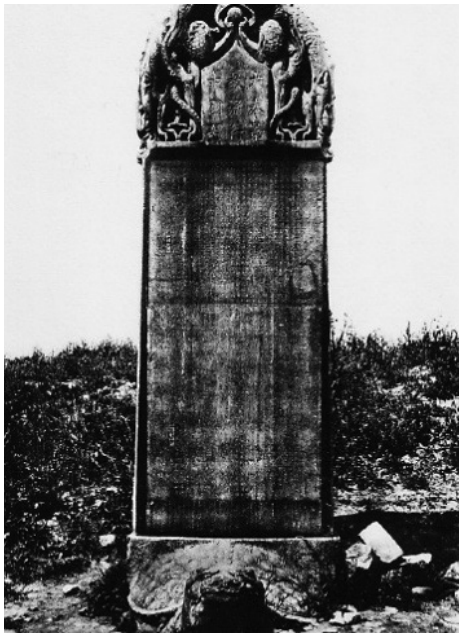
1. 기독교의 전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알려진 때가 언제였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얻기 힘들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 이 땅에 이미 복음의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역사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소급되는 설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른바 '경교(景敎)의 한국 전래설'이다.

경교란 네스토리우스파(Nestorianism) 기독교의 중국 한자음 명칭이다. 서기 431년 에베소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어 로마에서 추방당한 네스토리우스파는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동방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당시 동서 무역로였던 비단길을 따라 네스토리우스파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한 것은 635년의 일로 당나라 정관(貞觀) 9년이었다.

알로펜(Alopen 阿羅本)을 단장으로 한 선교단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하

1) 윤경로, 『새문안교회 100년사』(새문안교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회역사편찬위원회, 1995)를 참조하였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
(아하스페르츠의 단상 블로그)

여 태종의 환대를 받았다. 태종은 장안에 네스토리우스파 선교단을 위해 대진사(大秦寺)란 사찰을 짓고 전속 승려 21명을 배속시켰다.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처음 페르시아에서 왔다 해서 페르시아의 한자음을 따라서 파사교(派斯教)로 불렀으며 로마제국을 상징하는 '대진'(大秦)을 붙여 대진경교(大秦景教)라 불리기도 하였다. 이후 200여 년간(AD 600~800) 네스토리우스교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상당한 교세로 발전했다.

그 무렵 우리나라가 당나라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신라 초기(7~8세기)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당시에 경교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에, 당시 중국 내에서 위세를 떨치던 경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보다 확실한 접촉은 조선시대 임진왜란(1592~1598) 중에 이루어졌다.

1549년 예수회 창설자의 한 사람인 프란체스코 사비에르(Francesco Xavier)가 일본에 도착하여 선교에 착수, 많은 영주(領主)를 교인으로 받아들였다. 예수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반(反)종교개혁 운동으로 일어난 천주교 신앙운동의 결과로 창설된 선교단체이다. 이들 예수회는 우세한 서구 문물을 일본에 전달하며 지배층과 백성들


가고시마에 있는 하비에르 상륙비(장상인의 일본 산책 블로그)

에게 호응을 얻었는데 '기리시단(切支丹 또는 吉利之丹)'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임진왜란 중 선봉장으로 한국을 침략한 왜장 고니시(小西行長)가 바로 기리시단 다이묘(大名)였다. 고니시 휘하에 있던 소오(宗義智), 아리마(有馬信), 오오무라(大村喜前), 마츠우라(松浦鎭信) 등 장군들도 역시 기리시단이었다. 고니시는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휘하 장병들의 신앙지도를 위해 본국에 있던 예수회 신부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를 불러들였다. 세스페데스는 1593년 12월 27일 웅천(熊川)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성직자가 되었다. 그러나 고니시와 경쟁 관계에 있던 불교도 장군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방해로 1595년 6월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2년 뒤인 1597년 3월 다시 한국을 찾은 세스페데스는 1년 6개월 동안 왜군 진중에서 종군 사제로 활약하였으나, 일본군의 종군 사제였던 만큼 조선에 대한 선교 활동은 기대할 수 없었다.

2. 천주교의 수용과 박해



마테오 리치(위키피디아)

일본 선교에 성공한 예수회는 바로 이어 중국 선교에 착수했다.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선구자였다. 1582년 중국에 도착한 그는 서양 문명의 이기(利器) 제작을 통해 중국인들의 호감을 샀고 1601년에는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들어가 신종(神宗)으로부터 선교사 체재 허락을 받았다.

리치 이후에 들어온 예수회 선교사들도 같은 선교정책을 갖고 우선은 시계·지도·망원경·분수대 같은 이기들을 제작하는 한편 서구 과학을 내용으로 담은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찍어 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얻어가면서 천주교 교리를 담은 책들을 조심스럽게 찍어 내기 시작했다. 1603년 북경에서 간행된 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가 그 대

표적인 저술이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업적, 서양의 이기들과 한역서학서들이 한국에 유입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전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7세기 초부터 꾸준히 유입된 한역서학서들은 한국인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천주교 신앙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초기에 유입되어 읽힌 대표적인 한역서학서들로는 『천주실의』를 비롯하여 『칠극(七克)』, 『직방외기(職方外氣)』, 『교우론(交友論)』, 『진도자증(眞道自證)』, 『서학범(西學凡)』, 『천학초함(天學哨艦)』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역서학서를 통해 서구의 문명과 함께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실체를 접하게 된 한국 유학자들은 첫째, 벽위(闢衛)의 입장에서 적극 배격하는 태도, 둘째 유교의 기본 교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서양의 이기(利器)들을 수용하자는 태도, 셋째 서학을 전면 수용하려는 입장 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그 중 서학파라 칭하는 근기(近畿) 지방의 남인 계통 유학자로서 이벽(李檗)·권일신(權日身)·이가환(李家煥)·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정약종(丁若鐘)·이승훈(李承薰) 등은 서구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천주교 신앙과 윤리를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승훈 신부
(『가톨릭신문』 2017년 12월 17일자)

1783년 가을 동지사의 일행으로 북경에 들어간 이승훈은 그곳에서 북천주당의 그라몽(Louis de Grammont) 신부에게 1784년 2월에 세례를 받고 그해 봄에 돌아왔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보고 온 천주교회의 직제를 모방해 한국인 교인들끼리 주교·사제 등을 맡아 교회 조직을 갖추었으니 소위 모의교회(模擬敎會) 또는 가성직(假聖職) 시대의 천주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의 인도 없이 한국인들의 구도(求道) 행위에 의해 자생적 교회로 시작되었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며, 이는 개신교의 교회 창설도 같은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의 역사는 수난과 순교의 역사였다. 천주교가 수용된 영·정조 시대 이후 대원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박해사건이 10

여 차례 있었다. 1785년 봄 이승훈을 비롯한 천주교인들이 서울 명례방 김범우(金範寓)의 집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정부 관리에게 체포되어 김범우 등이 죽임을 당한 을사추조적발(乙巳秋曹摘發) 사건을 필두로, 1791년 교인 윤지충(尹持忠)·권상연(權尙然)이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워버린 일로 체포되어 순교한 신해교난(辛亥敎難), 1795년 주문모를 체포하려는 정부에 대항하여 윤유일(尹有一)·최인길(崔仁吉)·지황(池璜) 등이 스스로 목숨을 희생시킨 을묘교난(乙卯敎難) 등이 초기에 당했던 소규모 박해였다. 그 후 1801년 순조의 즉위와 함께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한 신유교난(辛酉敎難)으로 천주교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이후에도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금압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교회를 재건하려는 천주교인들과 이를 분쇄하려는 정부 당국 사이의 갈등과 마찰은 계속되었고 1846년에는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金大建)이 순교한 병오교난(丙午敎難)이 일어났고, 1866년 대원군에 의한 병인교난(丙寅敎難)이 일어난 이후 10년에 걸쳐 외국인 신부 9명과 남종삼(南鐘三)·홍봉주(洪鳳周)·장주기(張周基) 등 8,000여 명이 순교하는 한국 천주교 최대의 박해가 일어났다.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1886년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종식되었다.



김대건 신부
(『경북매일』 2020년 3월 18일자)

1784년 이승훈이 한국인 최초로 영세를 받음으로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한국 천주교는 박해와 수난 속에서 자라났는데 이와 같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 역사는 천주교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개신교의 한국 선교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었다.

3. 개신교 선교사 귀츨라프의 내한과 토마스 목사의 순교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최초의 인물은 독일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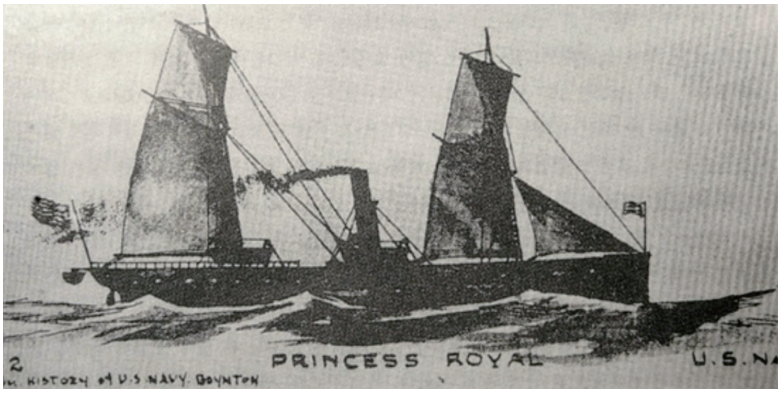
귀츨라프 선교사(물길손길 블로그)

귀츨라프(K.F. Gutzlaff)였다. 그는 네덜란드선교회 소속으로 자바·수마트라·싱가포르에서 활약하였고 태국어·중국어·일본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적인 선교사였다.

그는 1831년 이후 마카오에 머물면서 중국의 개신교 개척 선교사 모리슨(R. Morrison)과 함께 중국 선교에 전념하던 중 1832년 7월 동인도회사 선박을 이용, 황해도 백령도 부근과 충청도 홍주 고대도(古代島)에 상륙하여 지방 관리를 통해 통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정부에 보내는 한편 가지고 간 한문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감자 심는 법, 포도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또 한국인 선비 양씨(梁氏)의 도움을 받아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거부와 타고 온 선박 사정으로 1개월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귀츨라프의 한국 방문 후 33년 후인 1866년 영국인 목사 토마스(R. J. Thomas)가 평양 대동강가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토마스는 런던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1863년에 중국 상해에 도착한 후 산동성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그곳에서 김자평(金子平)·최선일(崔善一) 등 한국 천주교인들을 만났고 이후 그들과 교류하는 중 관심이 서서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865년 9월 한문성경을 가지고 선편으로 연대(煙台)를 출발, 한국 소래 해변에 잠시 내렸다가 옹진 해변 용호도(龍湖島) 부근 자라리(紫羅里)에 도착하였다. 그는 두 달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민들에게 한문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 한국어를 익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까지 가려고 시도했지만, 폭풍 때문에 무산되고 만주를 거쳐 북경으로 돌아갔다.

그의 두 번째 한국행은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m)호를 타게 되면서였다. 역시 다량의 한문성경을 가지고 1866년 7월 29일 천진을 출발하여 백령도를 거쳐 장산곶, 석도, 장사포를 들러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만경대까지 올라갔다가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와



제너럴셔먼호(물길손길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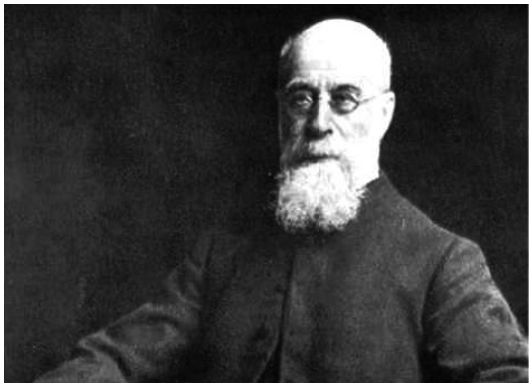
평양 관군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관군의 포로가 되어 평양감사 박규수(朴珪壽)에게 끌려가 대동강가 쑥섬에서 처형당했다.

토마스 목사의 죽음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개신교의 첫 순교 사건이다. 비록 그는 한국 선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순교의 흔적은 훗날 선교의 자유가 선포된 후 우리나라에 온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가 뿌린 한문성경은 그것을 주워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실체를 알게 해주었고, 후에 개신교의 평양 선교가 이뤄졌을 때 평양교회의 중심인물이 그들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복음 선교의 상징성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또한 그의 순교를 계기로 영국교회 특히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한국 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4.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한국 선교

중국에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1807년의 일이다. 영국의 런던선교회 소속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마카오를 거쳐 광동에 도착한 이후 런던선교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파견하여 중국 개신교 선교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1829년에 미국 해외선교협회 파송으로 브리지먼(Elijah Coleman Bridgman)이 도착한 이후 미국의 장로교·감리교·침례교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였다.

185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몇몇 항구를 외국인들에게 개방했는데 만주의 입구인 영구(營口)도 이 무렵 개항되었다. 이를 계기로 만주 지역에도 선교사 주재가 가능해졌다. 만주 선교도 영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되었는데 만주의 첫 개신교


John Ross(김영재, 『한국교회사』)

선교사로 번즈(William Chalmers Burns)가 있었고, 잉글랜드장로교회 소속의 의료선교사 헌터(J. M. Hunter)와 와들(H. Waddel)이 부임했으며, 1873년에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의 로스(John Ross)가 영구에 도착했다. 이처럼 만주 선교는 잉글랜드·아일랜드·스코틀랜드장로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스코틀랜드성서공회는 1863년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을 중국 지푸에 파송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토마스 목사의 한국 방문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푸·천장대 등지에서 한국인 상인·동지사 일행과 천주교 교인들을 만나 한국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또 1867년 만주 봉황성의 고려문(高麗門)을 방문하여 한국인 상인들에게 성경을 팔기도 했는데 그의 고려문 방문은 1866년 순교한 토마스 목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 데 있었지만, 이 같은 경험을 통해 한국 선교에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1872년 8월,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 선교사로 로스가 지푸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만주 영구로 보내기로 하고 로스에게 한국인과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비록 윌리엄슨 자신이 직접 한국 선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토마스 목사를 지원한 점이나 로스를 영구에 파송하여 후에 만주에서의 한글성경 번역사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은 높이 평가될 만하다.

만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옛날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건너가 집단 한인촌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이곳은 한·중 양국 교류의 중심이 되었고 특히 봉황성(鳳凰城) 아래 있는 고려문은 양국 간의 합법적인 교역(交易)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었기에 이곳에는 한국 상인들의 왕래가 잦았다. 특히 의주 출신의 상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첫 개신교 교인들이 나오게 되었다.

1867년에 윌리엄슨이 이 고려문을 방문한 이래, 1872년 겨울, 영구에 도착한 로스는 이듬해 영구 지역을 순회하였고 1874년 10월에 처음으로 고려문을 방문하

였다. 로스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한문으로 된 성경을 팔며 전도하려고 하였으나 한·중 양국관리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교역현장에서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다.

5. 성서 번역과 한국 최초 수세자들

로스의 첫 번째 고려문 방문은 한국인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갖는 것으로 끝났으나 1876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친 두 번째 고려문 방문에서 한국인 통역자를 만나게 되었다. 의주 출신으로 압록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 물건을 다 잃고 상심에 빠져 있던 이응찬(李應贊)을 만난 것이다. 중인(中人) 계층 출신의 이응찬은 로스의 중국인 하인 소개로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로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한국어 선생이 되었다.

로스는 선교 중심기지를 남만주 중심인 봉천으로 옮기려고 하여, 영구 지역을 그의 매제되는 매킨타이어(John McIntyre)에게 맡기고 우장(牛莊)으로 옮겨갔다. 그 후 로스는 1877년 우장에서 한국어 말본인 A Corean Primer를 발행했다. 1백 쪽에 달하는 이 책은 상해에서 인쇄된 것인데 평북 사투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응찬 등 서북 한인들이 이 일에 깊게 관계했음을 알 수 있다. 로스는 계속해서 이성하·김진기·백홍준 등 이응찬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과 팀을 이뤄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대략 1877년경부터 시작된 성경 번역사업은 1879년 5월 로스가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귀환함으로써 일시 중단되었으나 그가 본국에 돌아갈 때 이미 복음서와 사도행전 및 로마서의 번역 원고를 가져갈 정도로 많은 진척을 보였다.

이때 매킨타이어가 한 큰일은 한국인 4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다. 그는 만주 영구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1876년경 번역에 종사하고 있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매킨타이어는 조선인 학자 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이야말로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 바로는, 장차 거두어들일 풍성한 수확의 첫 열

매들이다. 아직은 조선이 서방 세계와는 전혀 단절된 나라이긴 하지만 머지않아 고립된 상태가 풀어질 것이며 천성적으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덜 사악하고 종교적 경향이 농후한 민족이므로 그들이 일단 기독교에 접촉하게 되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6년전 국경에 가서 한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중국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여유도 없어 내게 조선어를 가르칠 선생조차 초빙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 사태가 많이 변해 작년에 4명의 조선인에게 세례를 줄 정도까지 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식있는 자들이며 그 외에 11명이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2)]

이 글에 의하면 "장차 거두어들일 풍성한 수확의 첫 열매들"로 4명의 한국인에 대한 세례가 매킨타이어에 의해 베풀어졌으며 그들 외에도 11명의 원입(願入) 교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세례받은 4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 확실치 않으나 매킨타이어 자신의 보고서와 한국측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이응찬과 백홍준(白鴻俊)이 들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응찬은 이미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로스가 영국으로 간 후 매킨타이어를 도와 성경 번역을 하다가 신앙을 고백한 후 세례를 받았다. 한편 백홍준은 그의 부친이 로스에게 받은 한문성경과 한문으로 된 전도문서 『훈아진언(訓兒眞言)』을 고향에서 읽고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어 의주 친가들과 함께 스스로 로스를 찾아갔다. 그러나 로스는 마침 본국에 가고 없어 대신 매킨타이어를 만나 3~4개월 함께 생활하며 번역과 교리공부에 전념하다가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 백홍준의 소개로 서상륜(徐相崙)·서경조(徐景祚) 형제가 만주로 건너가게 되었고 로스가 귀환한 1881년 이후에 서상륜만이 세례를 받았다.

서상륜은 그 후 계속 로스와 함께 봉천에 머물면서 성경 번역 마무리 작업을 도와 1882년에 우리말로 된 최초의 '쪽복음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과 『예수성교요안내복음』을 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봉천에서 인쇄

2)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선교잡지 The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1880.



서상륜 장로
(김영재, 『한국교회사』)

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은 백홍준·서상륜·최성균 등 매서인을 통해 국내 유입되었고, 그 결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평안도와 황해도, 서울 지역에 상당수 '세례 지원자'가 생겨났다. 1883년과 1884년에는 『사도행전』·『마가복음』·『마태복음』, 1885년에는 『로마서』·『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에베소서』가 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887년 『예수셩교젼셔』 즉 신약성서 전권이 완간되었는데, 흔히 『로스 번역 성서』(Ross version)라고 불린다.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1882년 10월, 신사유람단 일행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이수정(李樹廷)이 일본에 유학하던 중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1883년 4월 도쿄 로게츠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역시 미국 성서공회 일본지부 총무인 루미스(Henry Loomis)의 지원을 받아 성경 번역에 착수하여 1885년 초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가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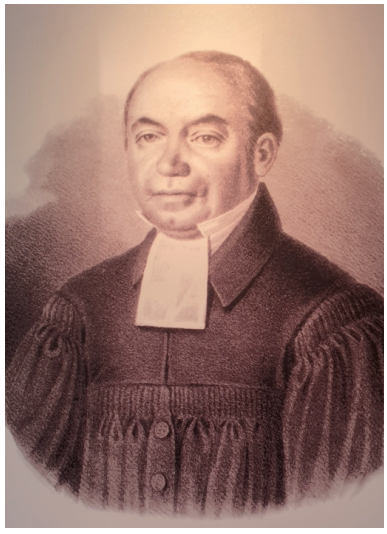
그해 4월 5일,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의 짐 속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들어 있었다. 개척 선교사가 피선교지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근대 세계 선교 역사에 희귀한 예'를 연출한 것이다. 이수정은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 교회에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미국에서 발행되던 선교 잡지에 실림으로 그는 미국 교회에 '한국의 마게도니아안(Macedonian of Korea)'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만주와 일본에서 개종한 토착 교인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것을 국내에 갖고 들어와 전도하여 세례를 받으려는 개종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서구 국가 선교사들이 내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한국 선교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같은 시기 국내 정치도 수구적 폐쇄 정책에서 개방과 개혁 쪽으로 변하였다. 특히 '쇄국정책'의 상징이었던

대원군의 퇴진(1873년) 이후 진보적 혁신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876년 일본과 수교를 하였고, 이어 미국(1882년), 영국·독일(1883년), 이탈리아·러시아(1884년), 프랑스(1886년) 등 서구 국가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서구 국가 선교사들의 내한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이다.

2절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
(김영재, 『한국교회사』)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 선교의 사자(使者)' 귀츨라프였다. 그는 독일 북부 퓌리츠(Pyritz)에서 경건주의 신앙을 가진 장인(匠人)의 아들로 태어나 독일 경건주의운동의 발상지였던 할레(Hall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1826년 네덜란드 선교회(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의 파송을 받고 동남아 자바(Java)의 바타비아(Batavia)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던 영국 회중교회 선교사 월터 메더스트(Walter Henry Medhurst)의 제안에 따라 태국 선교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고 이후 중국으로 넘어갔다.

1831년 6개월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이 여행의 성과 때문이었다. 조선 여행은 인도를 식민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동인도회사가 중국에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무역권을 독점한 이후, 동양의 여러 나라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

어졌다.

중국, 조선, 일본, 대만 등지의 교역을 트기 위한 항해를 준비하던 동인도회사는 귀츨라프에게 통역, 선목(船牧) 등의 자격으로 승선을 요청했고 그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귀츨라프는 조선에 오는 첫 선교사로서의 기록을 남겼다. 동인도회사의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호는 1832년 2월 중국 마카오를 떠나 산동해안을 두루 항해하고 7월 한국 서해안 황해도 백령도 근처 섬에 상륙하였다. 선원들은 이 섬사람들과 필담을 나누며 관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귀츨라프 일행은 그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 충청도 홍주목만(洪州牧灣) 불모도(不毛島)에 도착한 후 고대도(古代島) 안항(安港)에 예인되었다. 선원들은 관리를 통해 국왕 순조에게 통상을 원한다는 청원서를 보냈는데, 이때 선장 린제이의 권고에 따라 귀츨라프가 전도용으로 갖고 온 한문성경 두 권과 서양포(西洋布), 시진표(時辰表), 천리경(千里鏡) 등의 선물을 함께 보냈다.

서울에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귀츨라프는 조선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관리들의 감시가 소홀할 때 섬에 상륙한 그는 섬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다. 귀츨라프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한국 교회사와 역사에 뜻깊은 일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가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일이었다.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생각이 있었던 그는 배에 올라온 홍주목사 이민회(李敏會)의 서생(書生) 양씨(梁氏)에게 한자로 주기도문을 써주고 한글로 그 옆에 토를 달아 주기도문을 번역하였다.

또 한 가지 일은 그가 섬사람들에게 감자 씨를 주면서 그 심는 법과 재배 방법을 가르쳐 준 일이다. 그는 선원들이 식품으로 가져온 감자를 가져다가 해안에 둔적을 만들어 100여 군데 심어주면서 한문으로 재배법을 써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섬사람들은 외국의 식물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국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다행히 이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 처음에 마령서(馬鈴薯)라 불리던 감자가 충청도 일대에 퍼져 나갔다.

8월 서울에서 통역관을 대동하고 특사가 내려왔는데, 그는 조선은 중국 황제의 허락 없이는 외국인과 통상이나 교역을 할 수 없으니 즉시 물러가라고 엄하게 말하였다. 또한, 선장이 국왕에게 보낸 선물과 성경도 함께 되돌려 보내왔기에 선장과 귀츨라프는 조선과의 통상 협력 시도를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한국 선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 첫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첫 서양인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1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직접 접할 기회를 얻어 중국에 귀환한 후 여러 편의 한국어에 관한 글을 발표하여, 후에 한국에 올 선교사들의 어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여행담을 정리, 책으로 발간하여 서양 사회에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3)]

2.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Alexander Williamson(위키피디아)

알렉산더 윌리엄슨은 1855년 중국에 와서 그리피스(John Griffis) 등과 함께 상해에서 선교 활동을 했으나 건강 악화로 귀국하였다가, 1863년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중국 지부 총무로 다시 파송되어 산동성 지푸(芝罘)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곳을 내왕하던 조선 상인들과 청나라에 왕래하는 사절단들을 만나면서 조선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조선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조선 조정의 박해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조선 선교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윌리엄슨은 조선 선교에 관심을 있던 토마스(R. Thomas)를 성서공회 직원 자격으로 일하게 해주고, 1865년 9월 한국을 방문하는 그에게 다량의 한문성경을 주면서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선교 역사에서 빼놓

3) 귀츨라프는 2차 선교 여행 후 이때 배운 한글을 1832년 11월에 모리슨이 편집자로 있는 '중국의 보고'(The Chinese Repository)라는 잡지에 소논문 형태로 "한글에 대한 소견"(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을 발표하였다.(김윤환, 「제1회 한국선교(칼 귀출라프) 188주년 기념대회 개최」, 『보령뉴스』 2020.7.9자).

을 수 없는 공헌을 한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매킨타이어(John McIntyre)가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윌리엄슨의 조선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 때문이었다. 비록 그는 직접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토마스와 로스 등을 통해 조선 선교의 기반을 다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3.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본격적으로 선교하기 이전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찾다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땅에 귀한 피를 뿌린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 목사였다. 그는 1840년 9월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 런던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보다는 선교에 뜻을 두고 중국으로 떠난 그는 산동성 지푸에서 윌리엄슨을 만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웠으며, 우연히 조선에서의 박해를 피해 목선을 타고 산동성으로 피난 온 천주교 신자를 만나 그들에게서 조선 천주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된 후 조선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조선 선교의 기회를 엿보던 중 마침 조선으로 가는 배 한 척을 만난 그는 윌리엄슨이 제공해 준 많은 양의 한문성경을 가지고 1865년 9월 조선의 서해안으로 출발하였다. 그는 황해도 연안의 용호도 부근에 도착하여 약 두 달 반을 머물면서 섬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는 한편, 조선말을 배우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1866년 북경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북경대학 학장 서리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조선 선교에 집중되었다.


Robert Jermain Thomas
(김영재, 『한국교회사』)

이때 조선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가했던 병인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중 프랑스 공사관에서는 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로즈(P. G. Rose)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극동함대를 출동시키기로 하고 이미 조선의 서해안을 여행하고 돌아온 토마스에게 안내자 겸

통역으로 동승을 청하였으나, 이 계획은 인도차이나에서의 폭동으로 취소되었다. 이후 미국인 프레스톤(Preston) 소유의 상선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가 많은 물건을 싣고 조선에 상업을 위해 떠난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1866년 7월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하여 조선으로 다시 향했다.

약 일주일 후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착하여 계속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양으로 항진하였다. 배가 머무는 곳에 문정관(問情官)이 와서 목적지와 항해의 목적을 물었고, 토마스는 서툰 우리말로 통역을 맡았다. 문정관들은 무역하러 왔다는 선원들에게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물러가라고 하였으나 셔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항진하였다.

무역선답지 않게 중무장을 하고 있던 셔먼호가 계속 진입해 오자 조선에서는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셔먼호 선원들이 문정을 하러 온 중군(中軍) 이현익(李玄益)을 억류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보이자 강변의 병졸들과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고 활과 화승포를 쏘기 시작하자, 이에 셔먼호에서도 위협을 느껴 소총과 대포를 쏘았다. 이런 와중에 홍수로 불었던 대동강 물이 줄어들고 서해의 썰물로 물이 급격히 줄어들자 셔먼호는 강바닥에 좌초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평양감사 박규수(朴珪壽)의 명에 따라 신탄선(薪炭船)을 보내 셔먼호를 불태웠다. 배에 불이 번지자 선원들은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왔는데 이때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선원들을 칼로 쳐 죽였다. 토마스 목사도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어 성경 몇 권을 품고 헤엄쳐 나왔으나 퇴교(退校) 박춘권(朴春權)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는 조선 초기선교 역사에서 최초의 기독교 성직자 순교자가 되었다.

4. 각 교단의 조선 선교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 내한 이전에 스스로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세자(受洗者)도 생겨났다. 그러나 본격적인 한국 기독교 선교는 해외 선교사들의 입국에서 비롯되었고 한국에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것은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의 입국으로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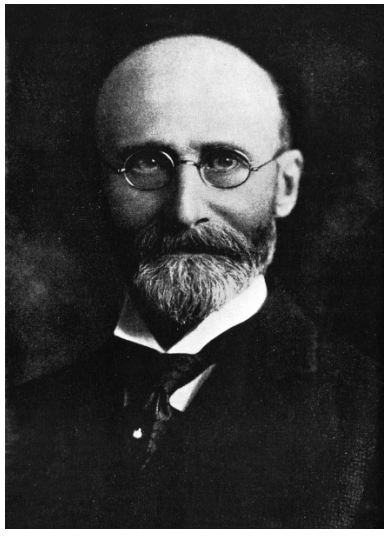
1)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의 개신교, 특히 언더우드를 파송한 북장로회 선교부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82년 이후였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제너럴셔먼호 사건(1866)과 뒤이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미국 정부가 함대를 강화도에 상륙,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신미양요(1871)로 점차 미국 사회에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도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쇄국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親政)이 시작되자 대외정책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어 서방 여러 나라와도 국교를 맺게 되었는데 그중 제일 먼저 미국과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미수호조약의 결과 1883년에 초대 주한 미국공사로 푸트(Lucius Harwood Foote)가 내한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같은 해 7월에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사로 보빙사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이들 보빙사 일행은 9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기차 편으로 뉴욕을 거쳐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 기차여행 중에 미국 북감리교 목사이자 교육자인 가우처(John Franklin Goucher)를 만나게 되었다. 가우처는 이 낯선 동양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고 선교의 가능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가우처는 1883년 11월 우선 2천 달러를 뉴욕에 있는 미국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에 보내 한국 선교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선교사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직접 타진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에 내한하여 7월 8일까지 머물면서 당시 외무아문(外務衙門)에서 일하던 승지 김옥균(金玉均)의 알선으로 학교와 병원 사업은 해도 좋다는 국왕의 윤허(允許)를 받아 냈다. 매클레이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본국에 알렸고 이에 따라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는 한국에서의 학교와 병원 사업을 할 선교사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선교사를 한국에 먼저 파송한 선교부는 미국 북장로회 측이었다. 한국 정부의 선교 윤허 소식은 곧 언론매체를 통해 미국 교계에 알려졌고 미국 북장로교회측은 서둘러 한국 선교를 준비하였다.

1884년 9월 한국에 기독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하였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영세를 받은 때로부터 100년이 지난 해였다. 따라서 1884년


Horace Newton Allen
(서울시 50플러스포털)

은 한국 기독교 선교의 기점이 되는 해가 된다. 기독교 첫 선교사의 영예를 얻은 사람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의사 알렌(Horace Newton Allen)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 선교사의 이름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미국공사관 공의(公醫) 자격으로, 1884년 9월에 내한하였고 이로써 미국 북장로회의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

알렌은 1858년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었다. 그는 대학 시절 미국 전역을 휩쓴 제2차 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 188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10월 상해에 도착한 알렌은 다른 의료선교사들의 권고에 따라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884년 9월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이틀 후 서울에 입성한 그는 미국공사관에서 의사로 임명되었는데, 공개적인 선교 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당시 형편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일자리였고 합법적으로 조선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길이기도 했다. 미국공사 푸트(Foote)는 고종에게 알렌을 공사관의 의사로 소개하였으며, 그가 극적으로 조선 왕실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 이때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甲申政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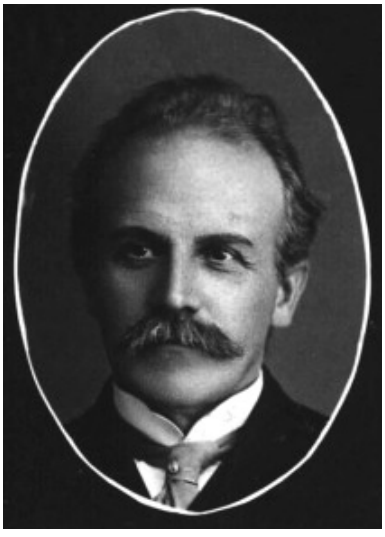
1884년 12월 갑신정변 당시, 수구파의 거두이며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전신에 칼을 맞아 생명이 위독할 때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함으로써 서양의 뛰어난 의술을 왕실과 고위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알렌과 왕실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알렌은 곧 고종의 시의(侍醫)로 임명받았고, 민영익을 구해 준 대가로 참판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이 일은 앞으로 전개되는 기독교 선교사역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득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알렌은 이후 의사로서 병원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궁중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1885년 4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의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이후 광혜원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제중원(濟衆院)'으로 바꾸었으며, 많은 환자가 몰려들자 몇 차례의 이전 끝에 구


구리개 제중원, 1887년(김영재, 『한국교회사』)

리개(銅峴)로 옮겨왔다. 제중원은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에 선교사들이 때를 기다리던 곳이었고, 합법적으로 체재할 수 있는 거처이며 활동의 장이기도 하였다. 이 제중원은 후에 세브란스병원이 되었다. 바로 이 같은 정황에서 첫 복음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내한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1859년 7월 19일에 영국 런던에서, 존 언더우드(John Underwood)와 엘리자베스 그랜트 메리(Elizabeth Grant Maire) 사이의 6남매 중 넷째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존은 발명가이자 사업가였다. 등사용 잉크, 타자기 잉크리본 등을 발명했고 직접 공장을 운영했다. 이러한 사업 재능은 맏아들인 존(John T.)에게 전수되어 미국에서 유명한 타자기 및 잉크 제조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Horace Grant Underwood
(박영철 목사의 블로그 교회사 인물)

언더우드 가문에 있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버지 존의 외조부인 알렉산더 워(Alexander Waugh) 박사였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에딘버러대학을 졸업한 후 런던의 웰즈 스트리트 회중교회 목사로 시무한 그는 1790년대 성공회, 장로회, 침례회, 감리회 및 회중교회 등의 연합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795년 유명한 런던선교회가 창설될 때 멤버로 참여하였다. 그는 12인으로 구성된 실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어 런던선교회의 선교사 파송과 선교정책에 깊이 간여하였고, 28년간 이 선교회의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또 영국성서공회의

해외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1804년부터 그 일에 참여하는 등 알렉산더 워 박사의 초교파적 선교 활동은 언더우드 가문에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쳤다.

호러스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빴지만 주일 오후 시간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교회학교에서 보냈다. 그러나 그가 여섯 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와 동생, 할머니가 같은 해 사망했을 뿐아니라 아버지의 사업까지 동업자의 배반으로 실패하는 큰 시련이 찾아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신대륙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개척할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호러스의 나이 열 살, 즉 1869년 그는 두 살 위인 형 프레더릭 윌즈(Frederick Wills)와 함께 프랑스 볼로뉴에 있는 소년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으나, 그들 형제는 그 안에서 개신교 신앙을 그대로 실천했고 그 점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운 후,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가족들과 합류했다. 뉴저지에 있는 뉴더햄에 정착한 후 아버지는 다시 잉크공장을 차렸고 점차 자리가 잡혀갔다. 뉴더햄에는 네덜란드개혁교회 교인들이 많았는데 언더우드 가족도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 그러던 중인 1874년 12월 전 가족이 개혁교회에 등록하였다. 따라서 언더우드 가문의 교파가 회중교회에서 개혁교회로 바뀐 것이다.

그의 가족은 그로브교회에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인 메이븐(Maben) 박사는 호러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다른 식구들은 잉크공장 일에 매달렸으나 호러스는 학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 그는 저지시티에 있는 해스브루크 소년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였고 메이븐 박사에게서 대학 입시를 위한 특별 교수를 받아 1877년에 뉴욕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때 그는 뉴더햄에서부터 뉴욕까지 7마일을 걸어서 통학했고 밤 자정까지 공부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근면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던 1881년 아버지가 세상을 뜸으로써 또 한 번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자식들에게 본을 보였고 "경이로운 신앙과 열심을 가졌던 기독교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신앙 유산은 호러스에게 전수되었다. 그해에 뉴브런즈위크(New Brunswick)에 있는 네덜란드개혁신학교(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는 목회자로서, 나아가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언더우드가 선교사 꿈을 갖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였다고 한다. 그가 열네 살 되던 해에 인도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학, 신학교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졌는데, 처음 그가 가려고 했던 선교지는 인도였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동안에도 선교사로서의 훈련에 목표를 두고 향후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1년여 의학을 별도로 배우는 등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신학교 재학 중에 뉴브런즈위크에 처음으로 구세군이 들어왔는데 낯선 그들의 전도 방법이 개혁교회 풍토에 어울리지 않았으나 언더우드는 흥미를 갖고 그들의 전도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그들 속에 들어가 찬송을 부르며 전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 일기 시작한 선교 운동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그는 선교지를 한국으로 바꾸었다. 1882년 말에서 1883년 초에 이르는 겨울, 뉴브런즈위크신학교 학생 가운데 선교사를 자원한 학생들의 모임이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 이 모임의 한 회원이었던 울트만스(Altmans)가 한국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는 1882년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1,200~1,300만 되는 인구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앞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 미국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 누군가 갈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러던 그가 한국을 선교지로 결정한 것은 꼭 1년간의 고민 끝이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그가 소속된 개혁교회 본부에 2차에 걸쳐 한국 선교 청원서를 냈으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으며, 이어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에도 같은 요청을 두 번씩 냈으나 이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결국 그는 미국에서 목회자로 일하거나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언더우드가 다시 한국 선교의 마음을 정하고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를 찾았을 때는 총무가 바뀌어 있었다. 훗날 한국 선교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엘린우드(Frank Field Ellinwood) 박사가 총무로 부임하여 그를 맞이하였다.

이미 엘린우드 앞에는 브루클린의 평신도 맥윌리엄스가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보낸 1,250달러가 있었다. 이로써 언더우드의 한국 선교는 현실로 구현되었다. 그

때가 1884년 7월 28일로, 선교부가 상해에 있는 알렌에게 한국 파송을 허락한다는 전보를 보낸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후 1884년 봄에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해 여름 한국 선교사로 정식 임명받았다.

한국 선교사가 된 언더우드는 그해 여름을 영국에서 보냈다. 그의 친척들 가운데 에드워드 존스(Edward Jones)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런던선교회 임원이었다. 그를 통해 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1866년의 토마스 목사 순교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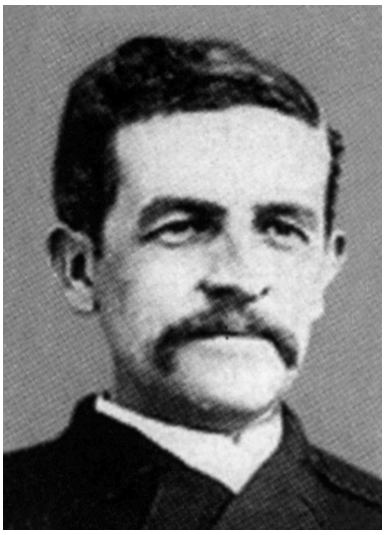
1884년 11월에 언더우드는 네덜란드개혁교회(Dutch Reformed Church) 계통 뉴브런즈위크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시카고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12월 16일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약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주로 헵번(J. C. Hepburn) 선교사 사택에 머물면서 미국성서공회의 루미스(Henry Loomis)에게서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이수정도 만났는데 이수정은 그의 한국어 선생 노릇까지 하였다. 1884년 12월 4일의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도 만났다.

한편 주한미국공사 푸트(Foote)로부터 한국의 정치 상황이 정변으로 평온치 못하므로 입국을 연기하라는 개인적인 충고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귀중한 동지를 만났으니 그는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갖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였다. 이 둘은 한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란 칭호를 함께 받으며 둘 사이의 돈독한 우정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26세 청년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는 1886년에 고아원을 겸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경신학교의 전신이다. 언더우드의 공로 중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자기가 설립한 경신학교 대학부에서 출발시킨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이었다. 이 학교는 한국 교육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연세대학교'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자 자신의 집으로 14명의 신자를 초청해서 1887년 9월 14일 정동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 교회는 점차 발전해 정동에서 신문내로 옮겨 새문안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다.

2) 미국 북감리교회



Henry Gerhard Appenzeller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는 1858년생으로 언더우드보다 한 살 위였다. 독일·스위스계로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했는데 본래 개혁교회 교인이었으나 18세 때 중생(重生)을 체험한 후 3년 뒤에 감리교회로 교적을 옮겼다. 프랭클린마샬대학에 재학할 때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며 1882년에 드루신학교에 입학하면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883년 가을 하트포드에서 전 미국 신학생 수양회가 열렸는데 이때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러도 자신의 신학교 대표로 참석했다. 이 모임은 해외선교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만나거나 친교를 맺지는 않았지만, 한국 개척 선교사가 될 신학생 후보는 하트포드에서 처음 함께한 셈이었다.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아펜젤러 역시 첫 선교 대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선교지로 결정하였던 동창생 워즈워드(J. S. Wadsworth)가 개인 사정으로 한국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아펜젤러가 대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1884년 9월 그는 미국 북감리회 해외선교부 총무 리드(J. M. Reid)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갈 것을 요청받고 고민 끝에 한국을 택하여 그해 12월 20일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결혼한 지 3일 만이며 미국 북감리회 해외선교부에서 의사인 스크랜턴(W. B. Scrnaton)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고 목사 안수를 준 지 16일째 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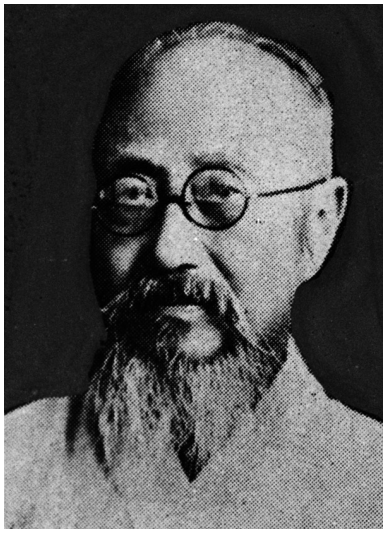
아펜젤러는 1885년 2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인과 함께 일본에 도착하여 1개월여를 머물면서 매클레이를 비롯한 일본 주재 선교사들과 한국인 망명객들을 만나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등 언더우드와 같은 체험을 하였다.

이처럼 별개의 선교본부에 의해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1885년 3월 31일 나가사키를 출발, 한국을 향하였고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1885년 4월 5

일 오후 3시에 마침내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아펜젤러는 성서를 번역하였으며(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 감리교 인쇄 출판소를 확장하여 각종 선교잡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1885년 8월 3일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선교에 힘쓰는 한편 1895년 정동교회를 설립했다. 1902년 6월 11일 전남 목포에서 모이는 성서번역출판위원회에 참석차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중 뜻하지 않게 짙은 안개로 아펜젤러가 탄 배와 다른 배가 충돌하여 배들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때 아펜젤러는 함께 승선했던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한 후 순교하였다.

3) 미국 남감리교회


윤치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미국 북감리교회는 일찍이 1885년 언더우드가 입국할 때 아펜젤러가 같이 입국하여 선교가 시작되었지만, 남감리교회의 선교는 약 10년 후인 1896년에 시작되었다. 남감리교회의 조선 선교 시작에는 윤치호(尹致昊)의 공이 컸다.

윤치호는 1881년 어윤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1883년 초대 주한 미국공사 푸트의 통역이 되어 귀국하여 통리기무아문에 등용되었던 개화파 지식인이다. 1884년 12월 4일에 발생한 갑신정변에 그의 아버지 윤웅렬(尹雄烈)이 연루되고 김옥균·서재필·서광범 등 주모자급 개화파 지도자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윤치호도 일본을 거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남감리회 선교부가 운영하던 중서서원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어 1887년 4월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윤치호는 미국 애틀란타 에머리(Emory)대학교 총장 캔들러(W. A. Candler)의 주선으로 에머리대학에 유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밴더빌트(Bandervilt)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공부를 마친 윤치호는 다시 상해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조선에서 고위 관료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1895년 귀국하여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사업을 주도했다.

윤치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남감리회 계통 대학이나 교회를 순방하며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강연으로 모은 돈 2백 달러를 에모리 대학 캔들러 총장에게 맡기며 한국 선교비로 써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선교적 열정이 대단했다. 이러한 열정을 지닌 그였기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의정부 참의, 학부와 외부 협판 등의 직책으로 정부 관리직을 맡아보면서도 미국 남감리회에 한국 선교를 계속 요청했던 것이다.

마침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남감리회는 이미 선교기지를 건설한 상하이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선교 후보지를 찾고 있었기에 1895년 10월 윤치호의 요청에 응답하여 중국에 있던 헨드릭스(Hendrix) 감독과 리드(C. F. Reid) 목사를 한국에 보내 선교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들이 도착한 시기는 명성왕후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살해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직후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1주일에 걸친 선교 탐사 여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연회를 개최하고 있던 미감리회 회원들의 열렬한 환영과 격려를 받았고 또 그들이 알현한 고종에게 좋은 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이와 같은 방문단의 긍정적인 보고를 토대로 남감리회는 한국 선교를 결정하였다.

드디어 1896년 5월 리드가 한국 개척 선교사로 정식으로 임명받고 서울에 도착해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 남감리회는 미국 북미감리회와 함께 한국 감리교회 선교의 한 축을 맡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C. F. Reid 선교사(『춘천중앙교회사』)

비록 둘로 나뉘어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 선교를 추진했지만, 미국 북감리회보다 10년 늦게 들어온 남감리회는 북감리회의 도움을 받으며 교회 개척사업, 교육 사업, 의료 사업을 펼치면서 성장하였다. 처음에 한국은 교회 행정상으로 남감리교회 중국선교연회의 '조선지방'에 속하였으나 그 다음해 중국선교연회에서 독립하여 '조선선교구'가 되었다. 리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미국 북감리회의 스크랜턴은 리드가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고 자신과 함께 일하던 한국인 조사 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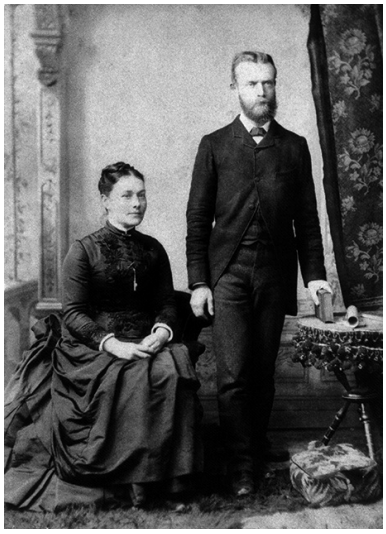
현·김흥순을 리드에게 보내 남감리회 최초 매서인 겸 전도인이 되게 하였다.

김주현·김흥순의 활동으로 1897년 5월 2일 경기도 고양읍에 남감리회의 첫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캠벨(W. P. Campbell) 부인이 내한했을 때도 먼저 와 있던 스크랜턴 대부인이 자기 교인을 보내주어 캠벨의 전도 부인으로 활약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서울과 파주, 마천, 적성, 연천, 문산 등지에 남감리회의 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남감리회는 짧은 기간 동안 서울·개성·원산 등지에 선교기지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다.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1901년의 통계에 의하면 서울, 송도, 원산의 3개 구역을 형성하여 자립 교회가 26개처, 세례인 407명, 학습인 492명을 기록할 정도였다. 남감리교회는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통합될 때까지 사역을 지속하였다.

4) 호주 빅토리아(Victoria)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조선에 선교를 시작한 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그다음을 이어 조선에 선교의 기초를 닦았다.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목사가 출석했던 멜버른(Melbourne)의 모교회와 그 지역의 지교회들이 조선 선교를 위해 힘을 모아 데이비스와 그의 여동생 메리(Mary T.)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호주장로교회의 첫 한국 선교사로 한국 선교의 문을 연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와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 (크리스찬리뷰)

1889년 10월 서울에 도착한 데이비스목사 남매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조선에서 활동할 지역을 탐사하기 위하여 이미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서울이나 서북지방은 피하고 아직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남부지방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여독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몸으로 여행을 강행하던 그는 천연두에 폐렴까지 겹쳐 조선에 도착한 지 6개월 남짓 된 1890년 4월 세상을 떠났다.

데이비스가 조선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한 호주교회는 조선 선교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

기 시작하였고, 1891년 매케이(J. H. Mackay) 부부, 멘지스(I. B. Menzies) 등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경남지방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이후 아담슨(A. Adamson) 목사가 부산 초량에 자리를 잡고 거제, 마산 등지로 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1891년 부산진 선교지부가 창설되었고, 1909년 마산에 세 번째 선교지부가 아담슨 목사에 의해 창설됨으로 경남지방은 호주 장로교회의 선교구역이 되었다. 호주 선교부는 사회사업과 교육 사업에 치중하면서 선교 영역을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각처에 교두보를 확보해 나갔다.

5) 미국 남장로교회

미국 남장로교회의 조선 선교는 북장로교회보다 늦은 1892년에 시작되었다. 시카고 매코믹(McComick)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테이트(L. B. Tate)는 조선에 선교사로 떠날 결심을 하였으며, 1892년 2월 테이트와 그의 누이 매티(Mattie. S. Tate), 리니 데이비스(Linnie Davis F.) 등과 함께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아 조선 선교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서울에서 1년여를 지내면서 조선어를 수업하고 전라도 지방 선교를 위해 내려갔다.

1893년의 선교부는 테이트와 전킨(William McCleery Junkin)을 호남지방의 중심 도시였던 전주에 항구적인 선교부 설립을 위해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일차 방문을 하였으며, 1895년 2월 테이트와 레널즈(William D. Reynolds)가 전주에 와서 선교사들이 거처할 집과 대지를 구입하여 이 지역 선교의 거점을 확보하였다. 1904년 9월 남장로교회 선교부는 광주를 선교본부로 정하고 전라도 일대의 선교를 관장하였다.

남장로교회도 다른 선교회와 마찬가지로 전도사역을 위시하여 의료 사역도 병행하였다. 군산에서는 다니엘스(T. S. Daniels)가, 전주에서는 매티 잉골드(M. Ingold)가, 광주에서는 요셉 놀란(J. W. Nolan)이, 목포에서는 포사이드(W. H. Forsythe)가 진료소를 세우고 사역하였다. 이외에도 각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 사업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겸하여 많은 결실을 얻었다.

6) 침례교회의 선교

한국에 침례교회가 시작된 것은 캐나다 사람으로 침례교인이었던 말콤 펜윅

(Malcolm. C. Fenwick)에 의해서였다. 정규 교육도,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그는 해외선교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1889년 한국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한동안 어학 공부를 하다 신학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펜윅은 1893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클레렌던침례교회(The Clarendon Street Baptist Church)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 그는 이 교회에서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는데, 이 교회의 집사이자 실업가였던 딩(S. B. Thing)이 펜윅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 '엘라 딩 기념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선교단에서는 첫 사업으로 폴링(E. C. Pauling)목사 부부와 가들라인(Amanda Gardeline)을 조선에 1차로 파송하였으며, 곧이어 스테드먼(F. W. Steadman)목사 부부와 애클스(Sadie Ackles), 엘러(Arma Eller)를 파송하였다. 이들은 당시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충청도 공주와 강경 지방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폴링 선교사 일행은 일신상의 이유로 미국으로 귀환하였고, 남은 이들도 후원회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더이상 선교사역을 계속할 수 없어 6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감하고 1890년 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엘라 딩 선교회의 조선 사역은 끝이 났고, 그들이 남긴 교인들과 선교사역은 1896년 한국순회선교단의 책임자로 함경도 원산에서 선교하던 펜윅이 이어받았다. 그는 1900년 남감리교회 선교사이자 개성 호수돈여학교 교사인 하인즈와 결혼하여 조선에서 33년간 생활하다가 1935년 원산에서 숨을 거두었다.

7) 성공회(聖公會, The Church of England or Anglican Church)

영국교회 즉 성공회의 조선 선교는 1880년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쇼(A. C. Show) 신부가 영국교회 외국복음보급회(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에 조선의 선교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시함으로 시작되었고, 1884년 조선과 영국이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영국교회의 조선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885년 11월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 Society) 소속의 울프(H. J. Wolfe)가 중국 후주(Foochoo)로부터 두 중국인 전도사를 대동하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교회선교회의 사역은 189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재정난과 코르프(C. J. Corfe) 주교가 내한하여 영국교회선교를 서울과 제물포에서 시작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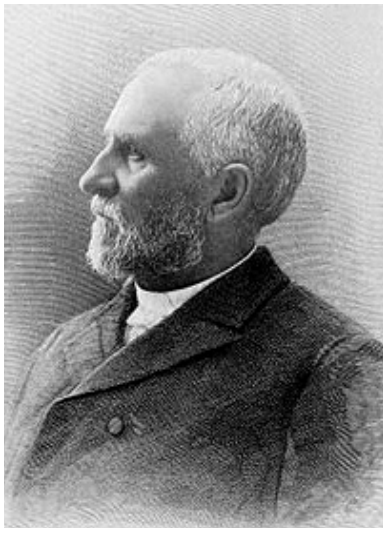
으로써 끝을 맺었다.

이즈음 1887년 북중국에서 선교하던 스콧(Scott) 주교와 일본에서 선교하던 비커스테프(Bickerstaph) 주교가 조선을 방문하여 다시 조선 선교를 역설하면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즉시 조선 선교 시작을 호소하였다. 1889년 11월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 벤슨(Benson)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코르프(Charles. J. Corfe)를 첫 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는 7명의 사제와 2명의 의사를 대동하고 1890년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첫발을 들여놓았으며, 1892년 9월 첫 성공회 성당을 건축하였다. 또한 제물포 건너편의 강화도는 성공회 선교사들에게는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어 이곳에 선교사역을 집중함으로써 선교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이 외에도 1896년 기독동신회(프리머드형제파), 1898년 캐나다 장로회, 1907년 동양선교회(후의 성결교회), 1908년 구세군, 1909년 일본 조합교회 등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한국에는 서구 여러 나라 교파교회(Sectarian Church) 소속 선교사들이 들어와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협력하며 한반도의 복음화를 추진하였다.

제2장
한국 기독교 교파의 선교지역 분할과 확산[4)]

1절 여러 나라·교파 교회의 선교지 분할협정


John Livingston Nevius(위키백과)

19세기 말 서구 여러 교파 교회들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 여러 교파, 여러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하였고,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이 중첩해서 경쟁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함으로 효율도 떨어지고 토착민들에게 좋은 인상도 심어주지 못했다.

또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선교사들은 대개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사람들로서 열정 하나만을 갖고 현지에 왔지만, 선교 사역이란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경험 없는 젊은 선교사들이 생소한 선교지에서 어

4) 이덕주, 『춘천중앙교회사 1898~2006』, 춘천중앙교회 역사출판위원회, 2007, 김남균, 「기독교와 강원」, 『강원도사 8, 일제강점기』,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김동정, 「개신교와 강원」, 『강원도사 19, 교육 종교』,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7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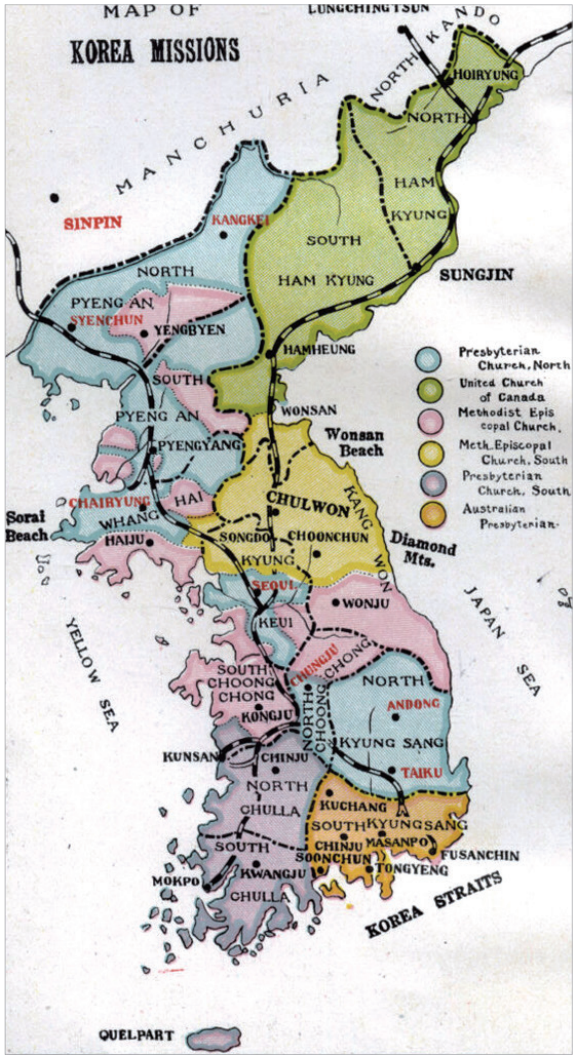
떻게 선교를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깊게 느낀 사람은 언더우드였다. 그는 본국 해외선교부에 경험 많은 선교사로부터 선교의 경험과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미국 북장로교회는 네비어스(John Livingstone Nevius)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1890년 6월 한국에 온 네비어스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선교전략과 방법론을 강론하였는데 이것이 '네비어스 선교 정책'이었다. 네비어스는 자치(自治, Self-Government), 자립(自立, Self-Support), 자전(自傳, Self-Propagation)의 3자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과 원조를 받지 않고 자기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전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 선교 정책은 한국에 나와 있던 선교회 간에 협력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네비어스가 한국에 오기 1년 전, 선교회 간에 협력을 위한 기구가 발족되었다. 1889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와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 사이에 '장로교선교연합공의회'(The United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를 조직하였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1892년 미국 남장로교회가 한국에 진출하자 남·북 장로교회는 1893년 1월 조직을 쇄신하여 이름을 '장로회 정치를 쓰는 미션공의회'(The Council of Mio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라고 하고, 이를 생략하여 '장로교 공의회'(The Presbyterian Government)라고 하였다.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의 각 총회에서는 1893년 4월 선교지에서는 양 선교부가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는 선교정책을 지향하도록 결의하였으며, 후에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이에 가입하였다.

처음 이 기구는 단지 협의체에 불과하였으나 1901년부터 한국교회 대표들이 참가하면서 1907년 노회가 조직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가 되었다. 이 공의회가 실행한 여러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선교지 분할이었고, 이는 네비어스 선교정책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선교세칙을 만든 일이었다.

이렇듯 선교지 분할정책은 예양협정(禮讓協定, Comity Arrangement)으로, 먼저 여러 장로회 선교회 간에 이루어졌는데 같은 장로교회가 동일한 지역에서 중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한국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



보라색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미국남장로교 선교지역, 노란색의 경상남도는 호주선교지역, 하늘색의 경상북도, 서울, 평안남북도는 미국북장로교 선교구역, 연두색의 함경남북도는 캐나다선교부 구역이며, 분홍색과 노란색의 서울, 충청도, 강원도는 미국감리교 선교구역이다.
(『전주대신문』 1019년 5월 24일자)

어 선교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되었다. 이 안에 의하여 북장로교회는 평안도·황해도·경기도·경상북도를, 남장로교회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캐나다 장로교회는 함경도 지역을 담당하여 선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13년에는 북장로교회가 담당하던 경남지방과 부산을 호주 장로교회에 넘겨주었다.

이 선교지 분할정책은 교파의 장벽을 넘어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선교회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의 선교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그 활동 범위가 북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한 지역에서 두 선교회가 동시에 선교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자, 언더우드는 1888년 이러한 선교 사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선교지를 분할하자는 안을 북감리교회 선교부에 내놓았으며 1892년에 합의되었다.

즉, 장로교의 4개 선교부(미국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장로회, 캐나다장로회)와 감리교의 2개 선교부(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한반도 전체를 지역별로 나누어 선교를 담당하되 인구 5천 명 이상 되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 소도시마다 전담 선교부를 두어 선교를 전담하고 다른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를 보내거나 교회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신사

협정'을 맺은 것이다.

선교부 사이의 '선교지역 분할협정'(regional comity)은 189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09년에 완결되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북장로회는 서울과 평양,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부, 경상북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부를 담당하였고, 남장로회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는 부산과 경상남도를, 캐나다 장로회는 원산과 함경남북도를 맡았으며 미감리회는 서울과 평양,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일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및 강원도 일부를, 남감리회는 서울과 원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각각 맡게 되었다.

2절 선교지 분할협정과 강원도 선교


George Heber Jones(위키피디아)

강원지역에 최초로 발을 디딘 외국인 선교사는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와 존스(George Heber Joness) 목사였다. 그들은 1888년 8월 지역 순방차 강원도 원주에 왔으며 이것이 강원도 기독교 전래의 효시가 되었다. 이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호기심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기독교 서적과 약을 팔았다. 1892년 6월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는 인구 5천명 이상인 지역에는 두 교파가 함께 선교하고, 그 이하의 지역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기존 교파의 선교구역으로 하자는데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강원도 지역 전역은 거의 감리교회가 도맡아 선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감리회는 원주에 선교부(mission station)를 두고 횡성·평창·영월·정선 등 강원도 서남부 지역과, 강릉에 선교부를 두고 삼척·울진·평해 등 강원도 동남부 지역을 맡았다. 한편 남감리회에서는 춘천에 선교부를 두고 양구·화

천·홍천·인제 등 강원도 동북부 지역과 경기도 가평을 관할하였고, 철원에도 선교부를 두고 지경터·김화·평강·이천·통천 등 강원도 서북부와 경기도 연천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선교지역 분할협정이 체결되기 전 장로교회에서도 강원도 선교에 착수하여 상당한 결과를 얻었다. 장로교의 강원도 선교는 북장로회에서 주도하였는데, 원산 가는 길목인 철원 쪽에 힘을 기울여서 1890년대 말부터 토착 매서인들이 경기 북부지역을 거쳐 철원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 그 결과 철원읍에 교인이 생겨나 1900년 세례 입교인 2명, 학습인 20명으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처음 설립된 장로교회다. 이 교회는 서울 승동교회를 담임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웰본(Arthur Garner Welbon)과 무어(Samuel Forman Moore) 선교사가 관리하였는데 처음엔 황해도 배천과 강원도 철원을 묶어 관리하다가 1902년부터 배천은 무어가, 철원은 웰본이 나누어 맡아 웰본은 철원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독립 구역으로 삼아 관리하였다.


Arthur Garner Welbon
(한국기독교사연구소)

북장로회의 철원 선교는 성공적이었다. 웰본은 1902년 강원도에 "세례교인 42명, 학습인 50명이 있으며 70명이 교리공부를 하고는 있음"과 "1년 사이에 세례 교인이 33명이나 늘었고, 철원읍 외 11곳에 교인 모임이 생겼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1903년에는 철원읍에 선교부지를 마련하였다. 철원읍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역에 교회가 18개, 세례교인 71명, 학습인 52명을 포함, 전체 교인이 225명에 이르렀고, 1907년에는 54개 교회가 있어 1년 동안 860명이 세례 문답을 받고 그 중 108명이 합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265명이 학습인 명부에 올랐다. 이처럼 철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장로회의 강원도 선교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북장로회의 철원 선교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907년 북장로회와 남감리회 선교부 사이에 선교지역 분할협정이 이루어져 북장로회는 철원 지역을 남감리회에 넘겨주고 대신 남감리회가 맡았던 원주 지역 선교를 이양받기로 한 것

이다. 두 선교부가 원주와 철원을 주고받은 셈이다. 남감리회는 이미 철원읍에서 가까운 지경터와 김화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었던 터라 철원읍과 연천까지 선교지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선교부 결정에 따라 철원 선교를 주관하던 웰본은 1908년 원주로 옮겨가 원주읍 동쪽 언덕에 20에이커 되는 선교 부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웰본은 원주 선교를 다시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1909년 가을,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선교구역 분할협정에서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중부지역이 미북감리회 선교구역으로 확정된 때문이었다. 결국 이 결정에 따라 웰본은 원주를 떠나 경북 안동으로 옮겨갔다.

북감리교 서울본부에서는 북장로회로부터 1909년 10월 원주지역을 이관받자 즉시 데밍(C. S. Deming)을 파송, 지역 전체를 답사하게 하였으며, 1910년 노블(W. A. Noble), 1911년에는 레퍼트(R. R. Reppert)를 파송하여 원주·강릉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도록 하였다. 북감리교회에서는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선교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회 발전은 가속화하였다.

북장로회에서 북감리회로 이양할 당시 원주 선교부 내 교회는 모두 40여 처에 교인은 세례 입교인 69명, 학습인 75명 등 총 6백여 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원주 교인'들은 북장로회 선교의 결과라기보다는 2년 전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던 남감리회 선교의 결과였다. 그리고 남감리회의 원주 선교는 춘천 선교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강원도 선교는 남감리회가 개척하여 미감리회와 나누어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909년 이후 장로교회는 강원도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감리교회의 두 선교부가 강원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1909년 한반도 선교지 분담도
(한국기독교사연구소)

남감리교의 강원도 선교는 두 가지 갈래의 길을 따라 시작되었다. 먼저 고양과 파주, 문산을 거쳐 임진강을 따라 고량포와 적성 그리고 연천

을 거쳐 김화까지 이르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곧바로 춘천에 이르는 경로였다. 남감리교에 의한 강원도 선교는 최초의 연례보고서가 1899년에 제출되었으므로 최소한 1898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bert Alexander Hardie
(한국기독교사연구소)

남감리교가 조선에서 원산 다음으로 선교의 인연을 맺은 곳은 김화의 지경터(地境垈)이다. 당시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 선교사는 원래 캐나다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왔으나, 1898년 5월 남감리교 선교부로 이적하여 원산에 거주하면서 강원도를 다니며 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하디가 강원지역의 선교사업을 할 때 옆에서 도움을 준 인물이 매서인 겸 전도인인 윤성근이다. 그는 1896년 리드(C. F. Reid)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며 '살아있는 성경주석서'라고 불릴 만큼 성경에 능통하였다. 동해안 일대를 하디와 함께 다니기도 하고 혼자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였다. 하디 선교사는 매서인(賣書人)들의 활동을 통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한 곳이 '지경터'였고, 하디의 1901년 보고에 의하면 지경터에는 이미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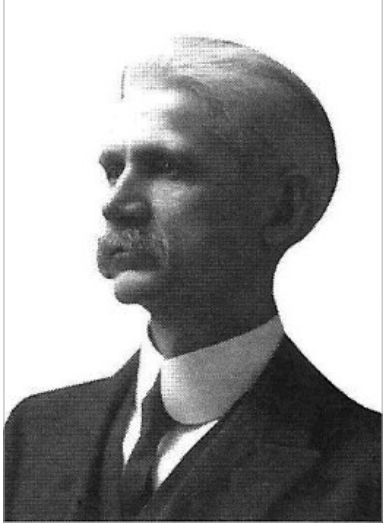
1901년 3월 하디 선교사는 강원도 김화군 지경터에서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12명이 더 세례를 받았으며, 새로운 공동체가 지경터에서 10리 떨어진 새술막에 조직되었다. 이렇게 해서 63명의 학습인과 입교인 27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하디와 윤성근은 1901년 강원도를 다섯 번이나 순회하며 교회를 세웠으며, 강원도 영동지역에 9개의 기도처를 가지게 되었다.

강릉에서는 명국성, 서광호, 박치순, 박승화, 김치만, 안택영, 윤메리, 김도영, 이은혜, 이내이 등 많은 사람들이 하디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명국성은 명주동 자신의 거처 8칸을 제공하여 임시 기도처로 삼았다. 강릉교회의 초기 교인은 40명 정도로 3년 동안 하디와 윤성근은 선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교인들이 증가하지 않았고 출교되거나(8명) 사망하고(1명) 원산으로 이주(4가족)하였다.

하디 선교사로서는 뼈아픈 경험이었으나 이 일은 1903년 시작된 원산의 부흥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05년 남감리교의 통계를 보면 지경터는 독립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교세도 세례교인 51명, 학습인 75명에 주일학교 네 곳에 학생 56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 후 지경터 구역은 1908년 남감리교 한국지방회가 서울·송도지방회, 춘천지방회로 분리될 때 서울·송도지방회에 소속되었고, 1909년에는 지경터 구역이 너무 커져 3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1910년 이후 지경터는 하나의 지방회를 조직하여 서울지방회로부터 독립하였고, 1912년 '강원서지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910년 이후부터는 지경터지방회에 속해 있던 철원지역이 춘천과 함께 강원도 지역의 선교 거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철원은 본래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구역이었으나 1907년 선교구역협정을 통해 남감리교 구역으로 확정되었던 곳으로, 철원에 정주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3.1운동 이후로 1920년 7월에 의사인 앤더슨(Albin Gerfield Anderson) 부부와 여선교사 어윈(C. Erwin)이 처음으로 철원에 정착하였다.

춘천이 선교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1897년 10월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조선 남감리교 서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다. 다음 해인 1898년에는 리드 선교사의 도움으로 나봉식과 정동렬이 춘천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중앙감리교회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 이후 1902년 이덕수 전도사가 춘천시 봉의동(당시 아동리)에 초가 다섯 칸을 매입하여 사랑채 두 칸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전동활동을 시작하였고, 춘천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당시 교인 수는 세례교인 1명과 성인 7명, 어린이 3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Jacob Robert Moose
(『춘천중앙교회사』)

강원도 지역의 본격적인 선교는 1904년 춘천이 서울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구역을 이루면서 시작되었다. 1904년 연회에서 무스(Jacob Robert Moose) 선교사를 파송하여 새로 독립한 춘천구역과 지경터 구역을 맡아보게 하였고, 이

당시 아직 춘천에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 서울에서 왕래하며 선교하였다. 무스 선교사가 독립구역으로 낸 첫 보고에 의하며, 당시 춘천에는 세례교인이 있는 작은 그룹이 8개 있었으며, 그 외에도 학습인과 세례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자들이 있는 그룹들도 여러 개 있었다고 한다. 이 그룹들 가운데 50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는 곳도 있다는 보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춘천의 곳곳에 이미 신앙공동체 형식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구역의 선교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교세가 급속도로 성장해 가게 되어 무려 2년 사이에 교회가 약 10배 정도 늘어나고, 학습인은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를 타고 춘천에서 소년매일학교가 시작된 것은 1909년 9월이었다. 교사가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에서 13명의 학생들로 시작되었고, 다음 해 6월 38명이 되었다. 소녀들을 위한 소녀매일학교도 세워졌는데, 캠벨(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부인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학교 건물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에서 처음 설립된 여학교로 초기 교사는 송도에서 초빙하였다고 한다.

제3장
기독교의 강원지역 전파[5)]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10년이 지난 189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유독 강원도만큼은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었다. 강원도는 외국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 끝이었다. 그런 강원도 선교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맡기로 하였다. 다른 선교부보다 10년 늦은 1896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남감리회 선교부는 서울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선교활동을 전개하던 중 1897년 12월 연래회에서 강원도 선교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이듬해 봄 김화와 춘천에 전도인을 파송함으로 마침내 강원도 선교의 막이 열렸다.

1절 강원도 역사 개관

1. 강원의 역사

인류 문화는 자연을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자연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

5) 이덕주, 『춘천중앙교회사 1898~2006』, 춘천중앙교회 역사출판위원회, 2007, 김남균, 「기독교와 강원」, 『강원도사 8, 일제강점기』,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3, 김동정, 「개신교와 강원」, 『강원도사 19, 교육 종교』,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7을 참조하였다.



해동지도 강원도 부분(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강원도는 일찍부터 산국(山國)으로 불렸다.[6]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 서로 나누어 있고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고산준령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적의 82%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반도의 큰 강들이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흘러간다. 금강산과 설악산에 근원을 둔 작은 물줄기는 무수한 지류들과 만나서 합치며 북한강을 형성하여 강원도 서북단을 굽이굽이 돌아 흐르며 그 유역에는 크고 작은 들판을 형성하고 춘천, 가평, 청평을 지나 양수리로 흐른다. 또 오대산과 태백산에 근원을 둔 작은 물줄기는 수많은 지류를 합치면서 굽이굽이 휘돌아 흘러 크고 작은 들판을 형성하고 강원도 서남단을 흐르며 남한강을 이루어 유유히 흐르다가 경기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을 이루어 서해로 유입된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유역에는 크고 작은 평야가 형성되어 영월, 평창,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양구 등지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중·소도시들이 있다.

6) 차상찬전집편집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5, 「팔도여자 살님사리평판기」, 2021, 400쪽.

태백산맥 동쪽으로 흐르는 양양천, 연곡천, 남대천, 오십천 등 수많은 하천들은 영동지방의 젖줄을 이루며 동해로 흐르고, 크고 작은 평야지대에는 강릉, 삼척, 양양, 속초 등의 도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강원도 지방에는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생활하였던 인류가 일찍부터 생활하면서 어촌문화, 강촌문화, 산촌문화, 소도시문화를 형성하였다.

인류 생활은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씨족사회→부족사회→성읍국가→고대국가→민족국가로 발전하였다. 강원인들도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배경으로 일찍부터 생활하였는데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면서 강원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강원지방에는 일찍부터 예맥국이 존재하였고, 백제, 고구려, 신라 등 삼국이 고대국가로 형성되었을 때, 백제가 강성하면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강성하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으며, 신라가 강성하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 신라문화를 계승한 고려시대에는 고려문화가 강원도 지방의 문화를 지배하였다.

오늘날 강원도와 비슷한 위치를 형성하였던 지방 행정제도는 고려 성종 12년(995)에 실시한 10도 제도 중에서 삭방도이다. 삭방도는 북쪽으로 오늘날 함경남도 영흥 지방까지,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 지방까지, 서쪽으로는 경기도 포천·가평 지방까지, 동쪽으로는 동해를 경계로 하였다. 그러나 고려 10도 제도는 이후 5도 양계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변천이 있었고, 고려말기에 강원도지방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강릉도, 서쪽은 교주도가 되었다.

강원도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은 1395년 6월 13일이었다. 1392년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11월 29일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여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후, 1395년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고려말기의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라고 하였다. 강원도라는 명칭은 강원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의 '강(江)'자와 원주목(原州牧)의 '원(原)'자를 취하여 강원도(江原道)라고 하였고 이때 관찰부는 원주에 설치하여 원주는 1395년부터 500년간 강원도의 수부(首府)가 되었다.

1414년부터 실시하였던 조선 8도 제도는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8도제도를 폐지하고 조선 23부 제도를 실시하면서 강원도는 폐지되고 영동지방에는 강릉부(江陵府), 영서지방에는 춘천부(春川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조선 23부 제도는

1년 만에 폐지되고 조선 13도 제도를 실시하면서 춘천에 강원도의 도청을 설치하였다. 조선 23부제 실시 때 원주, 영월, 평창, 정선지방은 충주부(忠州府)에 소속시켰으나 다음해인 1896년 23부 제도를 폐지하고 조선 13도 제도를 실시하면서, 충주부에 소속되었던 원주, 영월, 평창, 정선지방은 다시 강원도에 소속되었다.

강원도의 문화를 자연환경에 의하여 구분한다면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촌문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촌문화, 남한강과 북한강을 배경으로 한 강촌문화,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중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중소 도시문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종교에 의해 구분한다면 원시신앙을 비롯하여 불교·유교·기독교·기타 종교문화와 의·식·주 문화 등 무수히 많다. 또한 시대별로 구분한다면 고대문화·중세문화·근세문화·현대문화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강원의 문화재

강원의 문화재가 강원도라는 이름처럼 강릉과 원주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강릉의 경우 6.25전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목조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데 비해, 원주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중요문화재의 반출이 심하게 이루어져 차이를 보여준다. 그 외에 평창은 고찰(월정사)과 성보박물관(말사의 소장유물 다수 보관), 삼척은 천연동굴과 산간민속자료, 영월은 단종 관련 유적이 많고, 양양은 설악산과의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어 많은 문화재가 있다.

우선 지정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강원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사유적이다.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들이 각 시대별(구석기→중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강원도가 동해안을 끼고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동북지역 및 서북지방, 한강유역, 남해안 지역을 연결해 주는 문화의 연결고리로서 다양한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릉, 동해, 양양, 횡성 등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철기시대의 취락유적은 교과서에서 동예의 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화재로는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사적 제426호, 신석기),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사적 제394호, 신석기),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사적 제376호, 청동기), 춘천 교동 동굴유적(도기념물 제1호, 신석기), 횡성

둔내 주거지유적(도기념물 제82호, 철기), 양구 해안 선사유적(문화재자료 제133호, 철기), 화천 용암리 선사유적(12월 지정예정, 청동기)를 비롯하여, 강릉 교동 유적(우리나라 청동기유적중 가장 오래된 연대를 보여줌), 춘천 신매리유적(신석기~철기), 양구 상무룡리 유적(구석기), 홍천 하화계리 유적(중석기), 강릉 안인리 유적(철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역사시대의 문화재로는 강원도가 역사의 중심지역에 벗어나 화려하고 큰 특징을 가진 유물·유적은 빈약한 편이다. 주로 고분 발굴을 통해 삼국시대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문화의 영향을 차례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삼국문화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며, 삼국의 세력 확장과 관련하여 산성이 많이 남아 있다. 강릉 하시동 고분군(도기념물 제18호, 신라)·영진리 고분군(도기념물 제42호, 신라), 춘천 신매리 석실고분(도기념물 제46호, 고구려)·방동리 고분군(도문화재자료 제106호), 원주 법천리 고분(백제, 비지정) 등이 있다. 통일신라말 궁예(弓裔)와 같은 역사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관련 유적에 대하여는 여건의 미비로 인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궁예도성(DMZ내), 세달사지(영월 흥월리 흥교분교 부근 폐사지), 석남사지(원주 치악산) 등이 있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된 문화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신라말기부터 유행하는 선종(禪宗)이 도의선사(道義禪師)에 의해 설악산 자락인 양양 진전사에서 처음 뿌리를 내리고, 선종의 9산선문(九山禪門)중 사굴산문과 사자산문의 2개 문파가 도내에 분포하고 있다. 인도의 선승(禪僧) 달마(達磨)가 중국에 선종을 전했듯이 도의선사는 우리나라에 선종을 널리 퍼뜨린 승려로 현재 조계종에서 종조(宗祖)로 삼고 있다. 선사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장선사(地藏禪師)에게 선법(禪法)을 공부하고 신라 헌덕왕 13년(821)에 돌아와 선종을 포교하였다. 선사는 경전이나 해석하고 염불이나 외우는 것(교종 敎宗)보다는 좌선과 참선을 통해 본연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선종 禪宗)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불교계는 왕실 중심의 교종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선종을 포교하면서 염거화상(廉居和尙)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이후 선종은 지방호족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9산선문으로 발전해 갔다. 현재 사지(도기념물 제52호)에는 3층석탑(국보 제122호)와 선사의 부도(보물 제439호)가 남아 있다.

그 외의 불교 관련 유적으로는 양양 선림원지(禪林院址, 도기념물 제 53호), 원주 거돈사지(居頓寺址, 사적 제168호)·법천사지(法泉寺址, 도기념물 제48호), 홍천 물걸리사지(物傑里寺址, 도기념물 제47호), 평창 수다사지(水多寺址, 도기념물 제49호), 인제 한계사지(寒溪寺址, 도기념물 제50호), 고성 건봉사지(乾鳳寺址, 도기념물 제51호) 등이 있으며, 사지에는 많은 석탑, 석등, 승탑, 탑비 등 많은 석조 문화재들이 함께 남아 있으며, 현존 사찰에도 국내 최고의 동종인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서기 725년), 고구려계의 대표적인 다각다층석탑인 월정사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 초기 한글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오대산 상원사 중창권선문(국보 제292호) 등의 많은 문화재들이 남아 있다.

3. 불교와 강원도

1) 신성한 땅 강원도

신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제사 체계를 만들었다. 신라의 제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경주 주변의 작은 나라였을 때부터 중요시했던 경주 주변의 세 산을 모시는 대사, 그리고 신라의 땅을 지키는 네 방향의 중요한 지점에 자리한 곳에 지내는 중사, 그리고 신라 영토 내에 여러 산천에 지내는 소사가 있다. 그중 강원도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중사에 태백산과 비례산, 소사에 지금의 금강산인 상악, 설악산인 설악, 춘천과 화천, 가평 경계의 산 화악이 있다.

제사지 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히 강원도만이 신라 사람들에게 신성시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 수십 개에 달하는 제사지 중에서 강원도에 속한 곳은 다섯 군데이다. 단순히 숫자만 따지면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달리 강원도가 신라의 성지가 된 것은 보통의 인연은 아니다. 산천을 중시하는 고대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유달리 높고 험한 산이 많은 강원도가 불교의 성지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신라 사람들은 불교가 처음 전해지고 뿌리를 내리는 시점부터 강원도의 산과 바닷가에 절을 세웠고, 당대 최고의 승려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삼국유사』를 보면 자장, 의상, 원효와 같은 당대 최고 승려들은 모두 강원도의 산에서 부처가 산다

고 믿어 그를 만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했다. 낙산사도 여기에 관음보살이 산다고 믿었던 의상이 세웠다. 원효도 낙산사를 찾아 보살을 만나기를 갈구하였다. 자장도 강원도의 바닷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2) 불교와 강원도

삼국시대에 처음 불교가 전해질 때는 병을 고치거나 신이함을 강조하면서 퍼져나갔다. 그동안 사람들이 믿던 자연신앙에 비해 종교체제를 갖춘 새로운 종교는 너무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길흉화복을 바라는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서서히 신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아는 고등종교의 모습이 더욱 강해진다. 원광이나 안홍 같은 승려들에 의해 신라의 땅이 부처가 머무는 땅이라는 관념이 강해졌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 당시의 서라벌은 석가여래가 머무는 곳이란 생각이 퍼져나갔다.

자장은 태백산과 오대산을 오가며 문수보살을 만나기를 희망했다. 중국의 오대산과 함께 강원도의 오대산도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화엄경』이란 경전에 따르면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산다고 적혀있다. 중국에서는 산서성의 어느 산이,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 강원도의 어느 산이 그 오대산으로 여겨졌다. 원래 오대산이란 이름이 붙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자장으로부터 시작된 오대산에 대한 신앙은 통일신라 이후에 더욱 강해졌다.

평창군 진부면의 수다사는 자장이 문수보살을 만나려다 죽은 곳이다. 의상과 원효는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찾았다. 강원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꼽히던 금강산은 법기보살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다.

신라 하대에 들어서 불교계에 새로운 경향이 싹트기 시작한다.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이라는 종파가 드디어 이 땅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교리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참선을 통해 불교의 도를 얻을 수 있다는 선종이 조금씩 널리 퍼지게 되었다.

원래 승려들은 서울이나 크고 중요한 도시, 마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선종이 환영을 받으면서 이들의 중심지는 지방으로 넓게 퍼졌다. 선문9산도 새로운 불교를 열어가던 선종의 중심으로 자리했다. 강릉 굴산사에 자리한 사굴산파는 범일이 세웠고, 도윤은 영월 흥녕사를 중심으로 한 사자산파를 세웠다. 이 사굴

산파와 사자산파는 지금의 강원도 안에 있다. 그 외에도 전남 장흥 보림사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가지산파의 창시자 도의는 지금의 양양에 진전사를 세운다. 선종의 시대에 와서도 강원도는 여전히 불교의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불교는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고성의 건봉사나 금강산 유점사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강원도에서의 불교가 매우 번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자리만 남아있지만 신라 때 세워진 원주의 법천사나 춘천 소양로 인근의 석탑과 당간지주 주변에서 큰 절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강원도의 불교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춘천의 청평사가 이 시대 불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고려 중기에 인주이씨, 지금의 인천에 기반을 둔 이 집안은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할 정도로 위세당당한 집안이었다. 흔히들 고려 중기의 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자겸의 난을 일으킨 이의 사촌이었다. 이자현은 이렇듯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개성에서의 생활을 접고 춘천에 뿌리를 내린다. 광종때 처음 세워진 작은 절을 수리하고 문수원이란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수도를 한다. 왕이 불러도 안 돌아가고 청평사에서 일생을 보냈다.

고려말에 이르러선 불교도 타락의 양상이 보인다. 개개인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국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준다. 경우에 따라선 절이 가진 토지의 범위가 산과 강을 경계로 삼는 일도 벌어진다. 그래서 고려말과 조선초에 불교를 억누르자는 논의가 무수하게 나온다. 고려를 이어 건국한 조선은 새로운 유학의 일파인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불교를 격렬하게 배척했다. 그래서 꾸준히 억불정책이 논의된 결과 태종 때는 각 지역마다



신라 구산선문 위치도(우리문화신문)

절의 숫자가 제한되고 승려의 허용되는 숫자도 정해진다. 왕실에서는 꾸준히 불교에 공을 들이나 당시의 사대부들은 철저하게 억누른다.

조선 초기에 강원도의 불교와 큰 관계를 맺는 것은 세조이다. 조카인 단종을 폐위 후 죽게 만들고 동생인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을 죽게 하고 왕위에 오른 탓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였고, 오대산 상원사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사라질 듯한 불교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이다. 임진왜란 당시 불교계의 원로였던 서산대사가 승병을 조직하고,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따라서 각지에서 승병을 일으켜 큰 활약을 한다. 여전히 유교가 국가의 중심 이념이었지만 불교에 대한 억압도 느슨해졌다. 특히나 서산대사의 제자로 나중에 일본에 끌려간 포로를 되찾아오는 데 활약한 사명당도 금강산 유점사에서 승병을 일으켰다.

이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던 시기에도 강원도의 절은 의병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승려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2절 기독교의 강원 전파와 발전

1888년 8월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와 존스(G. H. Jones) 목사가 지역 순방차 강원도 원주에 온 것이 강원지역 기독교 전래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 강원지역 전역은 1892년부터 1909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선교구 분할협정에 따라 거의 감리교회가 도맡아 선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9월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장로회 총회에서 장·감 양교파의 선교지역제를 철폐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번복되는 관할권 문제로 강원지역 선교 활동은 한때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강원도에 처음으로 전교가 된 곳은 김화와 춘천이다. 김화에는 고양읍교회 성도 윤승근의 전도로 어른 3명과 아이 1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강원도 최초 교회라 할 수 있는 김화 새술막(학사리) 교회에서의 일이다.

1897년 12월 8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의 강원도 선교 결정으로 1898년 4월

매서인 나봉식과 정동열에 의해 시작된 감리교 춘천선교는 상당기간 '정착' 전도인 없이 매서인들의 순회전도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구역에 속해 진행되었던 춘천선교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매서인들과 토착 전도인들의 꾸준한 방문과 전도로 점차 성과가 나타났으며, 김화지역 윤승근의 노력은 강원지역에서의 교회 인식을 바꾸어 놓았고 교회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나봉식·정동렬이 춘천지역 선교를 시작하여 퇴송골(현 퇴계동 남춘천파출소 자리)에서 첫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교회가 춘천 중앙감리교회이다. 1902년 10월에는 이덕수(경기도 장단 고량포교회) 전도사가 내려와 아동리(현 봉의동)에 초가 5칸을 매입하여 사랑채 두 칸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교인수는 세례교인 1명과 성인 7명, 어린이 3명 등 모두 11명이었다. 그 결과 1904년 9월 춘천교회는 '독립구역'이 되었고, 그 후 1908년 10월 남감리회 춘천 선교부가 개설되어 전교에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이때 무스(J. R. Moose) 선교사가 춘천에 와서 춘천시 조양동 48칸 양옥을 구입하고 예배 장소를 옮기는 한편, 교회 확장 등 지방 전교를 시작하였다.

당시 남감리회 소속 유한익 목사는 강원지역에 파견되어 4명을 대동하고 4개월 동안 강원도 전역을 전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당시 행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남감리회 백년기념회에서 파견된 전도대장 유한익(**劉漢翼**) 목사는 대원 4명을 동반하여 강원도 일도(**一道**)를 4개월간 순회전도(**巡廻傳道**)하였는데, 결과가 양호하여 40여 곳에 교회소를 신설하고 3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신입신도(**新入信徒**)를 얻어 가히 근래 기독교의 희귀한 일일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기독교설립이후로 초유의 성사(**盛事**)라 하겠다. 이는 실로 유한익 목사의 성실한 기도와 열렬한 웅변에 감화된 효과라 하겠더라.*[7]

위 기사에서 보듯 유한익 목사의 성과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에 1922년 4월

7) 『동아일보』, 1921.5.5일자.

5일에는 이창하의 집에서 당시 춘성군 동내면 면장이던 박윤원 등이 예배를 드림으로 석사리교회가 창립되어 남감리교회 춘천지방회 춘천 남선교처에 속하여 원익상 목사, 이윤석 목사, 강재의 목사, 유한익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막교회 시대를 거쳐 춘성군 동내면 석사리 109에 함석 양제 예배당을 건축하면 발전하였다.

1926년 춘천군 동내면 후평리교회에서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하였다. 『동아일보』「농민위안극 성황리 종료」(1926년 9월 17일)란 기사에 의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중 노동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중추가절(中秋佳節)을 택하여 12일 밤 8시부터 11시 30분경까지 24종의 프로그램으로 농민위안음악연극대회를 동리예배당에서 개최하고 무료로 입장하게 하였다는데 정각 전부터 운집하는 남녀관중은 무려 400여 명에 달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이 초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내평교회는 개량서당(改良書堂)을 경영하던 유지 남진희(南辰熙)가 서당의 목조함석집을 희사하여 1926년 감리교 내평교회를 세움으로 내평 일대의 선교는 물론 새 개화문물의 지방 보급에도 큰 몫을 하였다.

1909년 9월 원주지역을 맡은 미감리교에서는 원주에 선교부를 설치한 후 데밍(C. S. Deming)·노블(W. A. Noble) 두 선교사를 보내 지방을 순회하도록 하였고, 권신일을 제일교회 목사로, 박원백을 원주지방 감리사로 파송하여 원주 선교사업에 착수하였다.

한편, 원주읍교회에서는 제2대 담임자 강신화 목사가 상동리(일산동)에 1916년 미국 쉬든교회로부터 받은 6,000원으로 벽돌 양옥 2층의 교회를 신축하였고, 1923년에는 칼슨(C. F. Carlson) 선교사의 주선으로 조선에서 서울 정동교회와 평양 남산현교회 다음으로 세번째 파이프 오르간을 비치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원주교회는 인근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다. 1906년 원주읍 교인이 문막으로 이사하여 문막교회를 세웠고, 호저면 만종리에는 1922년 만종교회가, 1924년에는 판부면 관설리에 관설교회가, 1930년에는 장양리에 장양교회가 설립되었다. 원주읍교회가 설립된 이래 20년 동안 원주지역에 7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예배당 외에 학교를 세웠는데 서구문화를 배워야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꿈이었다. 1913년 파송되어 온 힐만(M. R. Hillman)은 원주읍에 남녀 교육을 위한 의정학교를 설립하였으나 일제의 탄압

으로 폐지하였고, 1917년 감리사로 부임한 모리스(C. D. Morris) 선교사의 부인이 유치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원주제일교회 유치원이다. 문막교회에서는 1917년 원주에 주재한 스네불리(G. E. Snayely) 선교사의 후원으로 유치원을 시작했으며, 관설교회에서는 1930년 동명학원을, 학곡교회에서는 교회 창립과 같은 해에 학교를 세웠다. 1930년 중반에는 원주로 부임한 하링톤(S. Harrinton), 쉐프(H. Scharpff), 트리셀(M. Trissel), 레어드(E. Laird) 등 여선교사들이 기독여자관을 세우고 부녀계몽교육에 힘썼다.

횡성감리교회도 1906년 4월 6일 무스(J. R. Moss) 선교사와 콜리(C. T. Collyer) 선교사가 조선인 몇 명에 의해 횡성읍 364번지에서 창립되었다. 횡성교회는 한일병탄을 전후로 정화여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교육에 힘썼는데 1917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가 된 이후에는 계속 글방을 서당형태로 운영하였다. 1920년 3월 30일에는 화성유치원을 설립하였고 다음 해인 1921년에는 여자야학교를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어 1925년에는 엡윗청년회와 소년회를 조직하여 청년운동도 전개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

강릉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교파는 미남감리회로, 1902년 신자 이동식(李東湜)과 남감리회 소속 하디 선교사에 의해 강릉시 명주동의 초가 8칸 집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강릉에 감리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강릉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전도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것은 1911년 해주지방에 있던 박원백 목사가 원주·강릉지역 감리사로 부임하는 한편, 1912년 강릉읍교회에 이동식 목사가 파송되어 부임해 오면서부터이다.

『감리교연회록』에 의하면, 1915년 영동지역의 감리교인 수가 입교인 283명, 학습인 225명, 유아세례 91명, 구도인 378명, 목사 5명, 권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교회의 신자가 100여 명이나 된 것은 당시 강릉지역의 기독교 전도열을 알려주는 것이다. 1919년 『감리교연회록』에는 1918년 원주구역을 관리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와 강릉 두 구역으로 나눌 것을 결정했음을 밝히고, 이때 강릉지역에는 6명의 목사와 9명의 전도사, 16명의 권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21년 5월에는 강릉 금학동에 목조 한식 기와집 예배당이 정식 출현하였다. 머릿돌에는 '구쥬강셩후일쳔구백이십일년오월 강릉예수교 미감리회당'이란 기록이 적혀있다.

강릉 옥계에 감리교회가 들어선 것은 1904년 옥계중앙교회가 처음인데, 6.25 전쟁 당시 교회의 모든 서류가 불타 개척 당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주문진에는 1910년 11월 미감리회 선교사 쿠퍼 목사와 유안나 전도사에 의해 첫 예배를 드린 것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진교회의 시작이다.

이외에도 양양교회는 하디 선교사가 1901년 10월 5일 양양읍 성내리 17번지에 위치한 이상엽(李相曄) 소유 8칸의 기와집에서 역사적 창립을 하였고 이후 1908년 9월에 강현면 물치리에 물치교회, 병탄조약 당시인 1910년 3월과 9월에는 현남중앙교회와 광정교회를 각각 창립하였다.

감리교회와 함께 영동지역에 선교를 담당한 교파는 성결교회였다. 1907년 도쿄 성서학원출신 김상준·정빈 두 전도사가 동양선교회(Oriental Missionary Society)의 지원으로 '복음전도관'을 세웠고, 강원도에는 1914년 철원에 제일 먼저 성결교회를 세웠다. 1921년에는 이를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파로 개칭하는데, 영동지역에는 미남감리교회와 더불어 이 성결교회가 들어오게 된다.

강릉지역에 성결교파의 기도소에서 첫 집회가 시작된 것은 1923년 3월로, 이것이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 강릉성결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1925년 9월 차진학(車鎭學) 전도사가 부임하여 장년 5명, 유년 13명의 신자와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다. 1930년 8월 임당동에 양철지붕 예배당을 완공하였는데, 1930년 당시 강릉에는 강릉예수교 미감리회당과 강릉성결교회 두 교회당이 있을 뿐이었다. 1943년 5월 일제의 교직자 검속령(檢束令)에 의해 강릉성결교회 이옥근(李玉根) 전도부인 등 10여 명의 신자들이 투옥되었고, 12월에는 폐쇄를 당하는 등 비운을 맞이하여 광복될 때까지 신자들은 금정교회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

원주에는 전국 5개 구역 중 강원구역 제1대 감찰 회장으로 임명된 이문현 목사가 1933년 6월 상동리에 교인 30여 명을 모아 원주성결교회를 개척하였으나 1943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하여 교회가 해산되었다가 광복 이듬해 1946년에 박현명 목사가 재건 첫 예배를 드렸다. 춘천에는 경성성서학원 21회 졸업생 김의용 전도사가 1934년 7월 3일 일본의 종교탄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춘천성결교회(현, 춘천중앙성결교회)가 창립되었다.

장로교회는 1905년 철원읍에 처음으로 창립되었다가 즉시 감리교로 편입되었

고, 강릉에서는 1935년 일부 성도들이 감리교회에서 분리하여 강릉장로교회를 창립하였으나 일제 말 교회 통합정책으로 사라졌다가 해방된 해 1945년 12월에 재건하였다. 춘천은 1939년 5월 박민식, 김조길 등이 춘천시 소양로3가 박민식 집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소양장로교회가 창립되었고, 1945년 11월에 운교동에 예배장소를 마련하고 '춘천동부교회'로 개명하였다. 다음 해인 1946년 4월에 교회가 동부교회와 제일교회로 분립하여 발전하였다.

1908년 10월에 개전한 한국구세군은 서울, 충북, 전북, 경북 그리고 대도시와 황해도, 강원도 일부에서 활약하였다. 『통감부문서』 헌기제1054호 「구세군지영예정지건」(1909.5.22)에는 강원도 강릉·원주·철원·춘천·홍천에 지영(支營)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아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1933년 구세군 본영에서 평강 신대리 창신학원을 부활시켜 관리하였고 평강에서 어머니날 기념식도 성대하게 가졌다. 그리고 1934년에는 철원과 김화에 구세군소대를 설치하고 이어 평강 복계소대·하복리소대·원남소대·상원리소대를 설치하였으며, 1935년에는 평강에 신대리소대를 설치하여 300여 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었다.

1937년에 비로소 춘천에도 구세군 소대가 개영식을 갖었다. 11월 1일자 『구세신문』에는 「사령관의 각지전전(各地轉戰) 춘천소대공식개영식인도(春川小隊公式開營式引導)」라는 제목하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 *강원도내 몇 군에는 구세군이 이미 설립되어 사업을 하여 내려왔으나 강원도의 수부인 춘천에는 구세군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려오던 차, 지난 여름에 구세군을 설립하기로 본영에서 결성하고 소위 장응화씨와 소위 음경달 씨를 개척사관으로 지난 6월말에 파송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한 바 두 청년사관의 주야로 분투 노력한 결과 성적이 매우 양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개영식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9월 26일에 사령관의 인도로 개영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위의 기사로 보아 수부도시였던 춘천에는 평강이나 철원보다 3년 늦게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8월 18일자에 의하면, 장응화·음경달 두 사관이 개척사관으로 춘천에 파송된 날짜는 6월 26일이다. 그리고 다음 해

인 1938년 6월 30일에는 신호필(申好必) 대위가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외에도 성공회가 1933년에 춘천에 들어왔고 그 이후 원주에도 들어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강원지역의 기독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강원지역 기독교 현황(1937년)

교파	교회수	포교자수				신도수				표교자수+ 신도수		
		조선인		외국인		조선인		일본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구세군교회	7	4	2			221	208	1		226	210	436
성공회	15	6	4	3	2	577	707	4	6	590	719	1,309
조선감리교	164	60	36		1	3,934	4,260			3,994	4,297	8,291
동양선교회	2	2	1			49	91			51	92	143
제7안식일예수재림교회	7	4				143	200			147	200	347
성결교	5	5				139	112			144	112	256
계	200	81	43	3	3	5,063	5,578	5	6	5,152	5,630	10,782

위의 표에서와 같이 1936년 말, 강원도에는 감리교를 비롯하여 구세군교회와 성공회, 동양선교회,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성결교 등이 정착하여 당시 교회 200개소, 포교자를 포함한 신자가 10,782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감리교인들이 전체 76.9%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양선교회와 성결교는 같은 재단인데 구분되어 있다. 1907~1921년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시대, 1921~1945년까지는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시대, 1945년 이후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시대로 구분해 볼 때 따로 통계를 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원도지』(1940년) 일제강점기 종교별 신도현황에도 동양선교회(춘천112명·강릉85명)와 성결교(평창 31명·원주 75명)가 따로 통계에 잡혀있어 당시에는 분파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도세일반』에 의하면, 일제의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1940년에도 교회는 168개소, 포교자는 189명(외국인 20명 포함), 신자는 13,732명(일본인 3명, 외국인 1명 포함)으로 교회 수는 3년 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포교자 수와 신자수가 증가하였다.

3절 선교사들이 본 강원도 산하와 사람들[8)]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 강원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가 보는 시각과 같은 것도 있고 또 그들 타자의 눈에 특이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다. 이 절에서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강원도와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온 강원도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선교사들이 본 강원도

강원도는 좌측(북서~남동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누운 평행사변형이며 동서 간 길이가 150㎞, 남북 간 길이가 243㎞로 남북이 더 긴 특징을 갖고 있다. 동쪽으로는 무려 212.3km에 달하는 길고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동해와 접해 있다. 또 태백산맥이 강원도를 길게 동서로 가르는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강원의 문화권은 크게 영동과 영서로 구분되며, 두 지역은 문화뿐 아니라 기후적 특색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영동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가진 반면 영서지역은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약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영서지역 높은 지대는 여름이 짧고 서늘하며, 겨울이 길게 지속된다.

크고 많은 산을 보유한 강원도는 양면성을 가진다. 하나는 오지라는 점이다. 험한 산과 골짜기, 강과 하천들로 이루어진 강원도 땅은 농사지을 넓은 들도 거의 없고 따라서 서민들의 삶의 여건도 열악했다. 게다가 교통마저 불편하여 사람 간에 왕래도 어렵고 문화 교류가 쉽지 않아 고립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강원으로 여행을 하고 산, 바다, 강이 어우러진 아름

8)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강원학학술총서 13, 강원연구원, 2019, 이민희, 『금강산과 강원도, 근대로의 초대』, 강원학학술총서 19, 강원연구원, 2021을 참조하였다.

다운 풍광에 감탄하는 곳이 되었다.

1) 험준한 산악지역

외국인들 역시 강원도에 대한 첫인상은 산이 많은 험준한 곳이란 느낌이었다.

① 강원도 내에서는 아직도 1866년 박해의 잔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험한 산들이 신자들의 피신처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대로 이곳에 남아 버렸습니다.[9]

② 강원도에 대한 나의 지식은 한국의 산악지방이다,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내 여행의 설계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략) 전라도에는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비해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야 뒤에는 산들이 탑처럼 우뚝 서 있고요. 남쪽의 산들은 놀이동산 장난감 같은데 비해 강원도의 산들은 준엄하고 나무가 우거진 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후략)[10]

자료 ①의 1866년 박해는 병인박해를 말하는 것으로 1866년(고종 3년)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하며, 1872년까지 6년간 진행된 탄압으로 당시 8천여 명 이상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이 처형되었던 사건이다. 외국인들에게 강원도는 종교적 탄압을 피해 정착할 정도의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던 것이다. 또한 놀이동산 장난감 같은 산이 있는 남부 전라도와 달리 준엄하고 나무가 우거진 산이 있는 곳(②)으로 인식하였다.

산이 험준한 것은 그렇다 하여도 강원도 산에 나무가 우거진 것은, 1940년대 태평양전쟁 시기 한반도 남부지역의 산은 남벌로 인해 민둥산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산림이 무성한 강원의 산을 보았을 때 낯설어 보였을 것이다.

---

9) 뮈텔 주교의 1905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 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2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0쪽 각주 39 재인용.

10) "In the Mountains of Korea",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1, p.137(1941.1),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4~45쪽 각주 45 재인용.

2) 혹독한 기후와 재난

다음으로는 겨울 기후가 혹독하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③ 이곳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사방이 온통 눈으로 뒤덮입니다.[11]
④ 이곳은 서울이나 다른 곳들처럼 겨울이 혹독했기 때문입니다.[12]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고, 영서지역은 대체로 여름에 고온, 겨울에 저온이 나타나 연교차가 심한 곳이다. 반면 영동 해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으로 인해 연중 기온의 변화가 적고 따뜻한 편이나 특히 산간이나 영동지역에서는 겨울철 대설이 자주 내려 많은 피해를 주었다.[13]

③은 강원지역에 눈이 많이 온 것을 기록한 것이고, ④는 혹독한 겨울 추위를 언급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강원지역의 겨울은 엄청난 눈과 매서운 추위로 기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름은 어땠을까? 다음의 기록에서 강원지역 여름의 한 면을 읽을 수 있다.

⑤ 큰 홍수들로 강원도에서, 특히 영월에서 제방이 무너져 이재민이 생겼는데 영월에서는 200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손실이 있었을 것이고, 원주는 시내에서도 500명의 이재민들이 성당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한다.[14]

---

11) 뒤테르트르 신부의 1895년 6월 22일 서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Ⅰ,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59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7쪽 각주 52 재인용.
12) 기요 신부의 1912년 1월 28일 서한, 『용소막본당 100년사』, 천주교 원주교구 용소막교회, 2004, 166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7쪽 각주 53 재인용.
13) "氣候도 地勢를 隨하야 嶺東.嶺西가 各異하니 嶺東은 海洋의 調節에 依하야 寒暑가 共히 甚치 안이하고 大槪 溫和하나 嶺西는 不然하다. 土地가 大槪 高함으로 署氣는 甚치 안이하나 寒氣가 稍强하야 北部地方에는 秋霜이 早降함으로 農作物의 被害가 또한 不少하다. 그러나 嶺東 嶺西를 勿論하고 冬季의 風雪은 朝鮮의 名物이다. 特히 襄杆之風과 通高之雪이라 하면 學語小兒라도 다 혀를 설설 내두른다. 大關嶺의 눈도 또한 다른곳에 讓頭치 안이 한다. 썩 잘 올때에는 數十길식되야 交通이 全然 杜絕된다.(차상찬전집편찬위원회 편, 『차상찬전집』 1, 2018, 243쪽)
14) 뮈텔 주교의 1930년 7월 18일 일기, 『뮈텔주교일기』 8, 2008, 한국교회사연구소, 300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8쪽 각주 54 재인용.

위 자료는 뮈텔 주교의 1930년 7월 일기에 나온 강원도 영월과 원주의 홍수 피해 내용을 적은 것이다. 높은 산과 큰 계곡, 남한강과 북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강원지역은 호우가 내리면 그로 인한 홍수 피해가 많았다. 자세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뮈텔 주교의 "큰 홍수들"이라는 표현에서 당시 한 번 이상의 홍수가 있었고, 영월과 원주의 수재민 발생을 포함해 강원지역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비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땅

강원도 자연의 또 하나의 측면은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이라는 평가다. 이는 외국인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였다. 강원도라는 곳은 외국인들에게 금강산을 비롯해 아름다운 풍경의 이름난 명소가 많은 곳이자 매혹적인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이는 강원도에서 사는 주민의 입장이 아닌 여행자로서의 입장에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⑥ 이 지역은 일본사람들이 유명한 금강산(金剛山) 관광을 선전한 이래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으며, 한결같이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게 됩니다.[15]

⑦ 강원도는 30여 마일이 바다에 접해 있고 그 유명한 금강산이 도내에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16]

⑧ 산비탈에는 무성하고 향기로운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특히 참나무, 밤나무, 산사나무 여러 종류의 단풍,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와 계곡의 백합들이 이끼 낀 대지를 덮고 있었다. 정상 위에 있는 사당에서 바라보니 아름다운 광경이 그대로 펼쳐진다. 언덕진 숲의 물결과 물의 반짝임, 언덕의 물결치는 듯한 모습, 금강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6천피트를 넘는 높이를 포함한 울퉁불퉁한 산의 병풍…….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다![17]

---

15) 라리보 주교의 1932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267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5쪽 각주 47 재인용.

16) "In the Mountains Mission of Kogendo",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1, p.101(1939.3),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6쪽 각주 48 재인용.

17) I.B.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133쪽, 이민희, 앞의 책,



1934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관내지도(국립중앙박물관)

지금은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⑦에 보듯 그 유명한 금강산은 강원도 내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금강산을 가보는 것을 희망했고, 그곳을 보고 나서는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을뿐더러 한결같이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였다(⑥). 또한 금강산 여행을 위해 꼭 지나야 했던 단발령(斷髮嶺)을 지나면서 향기로운 식물, 여러 종류의 나무로 인한 숲의 물결, 산의 병풍 등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라며 극찬하였던 것이다.(⑧)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움은 금강산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강원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⑨ 이번의 여행과 몇 번의 다른 경우를 통해 나는 조선이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봄이나 가을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마을은 불결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지만, 처마가 깊이 패인 갈색 지붕이 과수원 속이나 완만한 경사 변에, 혹은 반짝이는 냇물 둑에 몰려 있는 모습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 풍경에 색감과 생명력이 한층 더해지고, 이상야릇한 흰옷에 갓을 쓰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남자의 모습이나 여성의 무리들이 반원을 그리듯 흔들어 가며 조심스레 걷는 모습은 어느누구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다.[18]

144쪽 각주 165 재인용.
18) I. B. 비숍, 신복룡 역주, 위의 책, 129쪽, 이민희, 앞의 책, 143쪽 각주 163 재인용.

이 기록의 저자 이사벨라 비숍은 영국성공회 목사의 딸로 선교사를 꿈꾸던 중 신유 은사 과정에서 탐험가가 되었고 1894년 3월 서울에 도착해 한국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록 사람이 사는 마을은 불결하고 지저분했을지라도, 처마가 깊이 패인 갈색 지붕이랑, 반짝이는 냇둑과 오가는 흰옷 입은 사람의 모습은 조선이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아름다움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4) 교통의 오지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강원도는 교통의 오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⑩ 서울의 동부에 위치한 이 도는 인구 1,181,994명에 신자가 10,111명입니다. (중략) 이 지역은 산악지방이라 교통이 어렵기는 하지만 교우들이 옛날의 열심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들의 목자들에게 어느 곳보다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19]

⑪ 서울에서 말을 타고 가면 사흘이 걸렸고, 지난해까지 철도나 차량으로도 2~3일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길을 다니는 교통편을 이용하면 서울과 이천은 9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큼 훨씬 가까워졌습니다.[20]

⑩은 서울 동부에 위치한 강원도가 교통 사정이 열악한 이유가 산악지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⑪은 서울에서 이천까지의 교통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천은 황해도와 함경도의 중간에 위치한 마을로, 당시 서울에서 이천으로 말을 타면 사흘 걸리고, 철도나 차량을 이용해도 2~3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말을 타나 기차나 차량으로 이동해도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만큼 철로나 도로의 환경이 좋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한마디로 교통의 오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9) 드브레 주교의 1922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 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172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0쪽 각주 40 재인용.
20) 부이수 신부의 1923~24년 사목보고서, 『강원도 프랑스 선교사 서한집』 Ⅱ, 춘천교구 교회사연구소, 2015, 266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2쪽 각주 43 재인용.

그런 오지에도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어 9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한 곳으로 변하였음을 반갑게 기록하고 있다.

춘천의 경우를 보면 1939년 개통된 경춘선으로 인해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춘천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다.

⑫ 서울에서 내 임지 춘천에까지는 7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의 해당 공사 시간표에 의하면 서울에서 춘천까지의 여행은 4시간이 할당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섯 시간 걸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21]

사료 ⑫는 필자가 서울에서 70마일(약 112㎞) 거리인 춘천까지 4시간 걸리는 거리를 5시간이 걸려 도착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경춘선 개통 이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1910년대 서울 춘천 간 여정은 꼬박 3일이 걸렸다. 그러다 1922년 서울~춘천 간 신작로가 건설되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꼬박 3일이 걸렸던 길이 10시간으로 짧아졌고 이후 경춘선이 개통된 후에는 4시간 거리가 된 것이다. 육로 교통 외에 영동지역에서는 선박을 통해 물류가 유통되었다.

⑬ 원산과 강릉 간에 배도 운항 되고 있습니다. 강릉은 배들이 해외에서 그곳으로 상인들을 실어 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22]

영서와 영동을 오가는 교통은 대단히 낙후되었지만, 바다를 접한 도시 간의 인적 물적 왕래는 선박을 이용하여 수월하였고, 특히 강릉은 해외에서 이곳을 통해 상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⑬)

---

21) "In the Mountains of Korea", Articles on Korea in the Irish Far East 1, p.137(1941.1),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4쪽 각주 45 재인용.
22) 투르니에 신부의 1908년 12월 29일 서한,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Ⅱ,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273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2쪽 각주 44 재인용.

2. 선교사들이 본 강원도 사람들

외국인들 눈에 척박하고 교통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1) 소박

가장 먼저 소박한 성품을 들고 있다.

⑭ 강원도는 소박한 관습을 가진 주민들이 사는 고장으로, 견고하고도 전파가 잘되는 신앙심을 지닌 신자들이 사는 지방입니다.[23]

소박(素朴)의 사전적 의미는 가공되지 않은 사물의 본바탕, 원래의 모습을 뜻하는 말이다. 즉 인위적 기교가 더해지지 않은 원래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한다. 아마도 외국 선교사들의 눈에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세련되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에 비해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또는 원시적인 강원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소박하다고 표현한 것 같다.

2) 교육에 무관심

외국인들은 강원도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무식 혹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⑮ 이들은 보통 교육이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종교책 밖에는 읽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24]

⑯ 예전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특히 여자들 가운데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읽을 줄을 알고 여자들 가운데는 아직 문맹자의 수가 많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발전을 했습니다.[25]

---

23) 뮈텔 주교의 1903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Ⅰ, 천주교 명동교회, 1984, 319~320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39~40쪽 각주 38 재인용.

24) 드브레 신부의 1903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Ⅰ, 천주교 명동교회, 1984, 319~320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199쪽 각주 305 재인용.

25) 부이용 신부의 1909년도 보고서, 『서울敎區年報』Ⅱ, 천주교 명동교회, 1987, 74쪽, 이원희,

⑰ 영월과 그 외 지역에서 동리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과 음식점 간판을 읽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영월군 상동면 녹번리는 80명 중에 3명, 영월군 하동면 용연리는 70명 중에 3명, 영월군 하동면 송현리는 18명 중에 1명, 평창군 읍내는 350명 중에서 23명(면리장과 군 참사를 포함), 울진군 원북면 흥부동은 40명 중 18명만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26]

⑮와 ⑯의 사료는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문해력이 상당히 낮음을 지적하는 기록이다. ⑰은 1912년 춘천헌병대장인 일본사람이 강원도 관내를 순시하며 만났던 강원도민의 지식수준을 밝힌 자료로, 이에 의하면 영월과 평창의 몇 개의 마을에서 대체로 문자 해독이 가능한 사람의 수가 다른 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는 평가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춘천헌병대장은 "강원도는 지세가 험준하고 산악이 중첩하여 교통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문명의 수입이 매번 지체되고 인문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른 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열등한 것은 실로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종래 교육기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맹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⑯의 기록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으나 점차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특히 대부분은 남자들이 읽을 줄 아는 형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서당의 모습

한편, 강원도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 한 명은 강원도 한마을에 있는 서당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훈장을 만난 기록을 남겼다.

⑱ 마부는 이 마을을 '배나무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마을에 평민을 가르치는 학교(서당)가 있다고 하기에, 통역사를 대동하고 찾아갔다. 학교는 널찍한 집의 지저분한 마당 깊숙이 위치한 안채에 있었다. 밖으로 울려 나오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199쪽 각주 306 재인용.

26) 왕현종 외 역주, 『강원도상황경개』, 원주문화원, 2015, 290쪽.

> 는 아이들의 목소리 덕택에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그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서당의 작은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안의 탁하고 더러운 공기였다.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를 뚝 그쳤다. 환한 바깥에 있다가 어둠침침한 오두막 안을 접하니,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여 처음에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방안의 빛이라곤 종이를 댄 작은 사각 창문을 통해 겨우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고작이다. 얼마가 지나 눈이 적응된 후에야,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걸친 채 벽을 따라 돗자리 위에 줄지어 앉아 있는 남자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의 그 하얀 바지저고리이며, 머리는 하나같이 땋아서 댕기를 매고 있다. 문 맞은편에는 뿔이 솟아오른 전등갓 모양의 모자를 쓴 교사가 낮은 단상 위로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다. 그 앞에 놓인 낮은 책상 위에는 종이와 중국 벼루, 먹, 그리고 붓이 놓여 있다.[27]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라는 선교사는 강원도 평강군의 한 마을을 지나다가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모습이 궁금해 일부러 통역을 대동하고 서당을 찾아가 넓은 집의 마당 깊숙이 위치한 안채, 어둡고 탁한 실내 환경에서 독송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강원도 보통의 마을의 서당 모습이었을 것이다. 서양인의 눈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보였겠지만, 산골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낭랑했다.

4) 철원 평야와 농촌 마을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촌으로 넓은 평야는 생소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던 제이콥 무스 목사는 강원도에 대평야가 한 곳 있다며 평원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

> ⑲ 내가 여러 번 여행을 다닌 강원도의 한 지역에는 큰 평야가 하나 있는데, 그

27)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 안상훈 외 5인 역, 『코레야 1903년 가을』, 개마고원, 2006, 151~152쪽, 이민희, 앞의 책, 220쪽, 각주 238 재인용.

길이는 대략 80킬로미터, 폭은 8~32킬로미터 정도다. 그곳은 용암지대로서, 암석들은 화산암이다. 이 평야는 수백 미터 높이의 여러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있다. 그 안에는 작은 개천이 많이 있어 물이 잘 공급된다. 개중에는 강이라고 할 만한 한두 개의 내[川]가 곳에 따라서는 깊이가 30미터나 되는 골짜기를 따라 흐른다. 그래서 이 평야는 미국 서부의 대평원을 연상시킨다.[28]

무스 목사가 언급한 곳은 철원지역이다. 강원도에서 그나마 평야지대라 할 만한 곳이 바로 이곳 철원 평야로 철원 평야는 용암지대로 너른 벌판이 펼쳐져 있고 풍부한 수량이 흐르는 강과 내가 많아 논농사에 적합한 곳이다. 지금도 철원평야에서 나오는 쌀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 농촌 마을의 풍경을 자세히 기록한 글이 있다.

⑳ 논 사이사이에는 콩을 심어놓았고 보리도 눈에 띄었다. 드물지만 귀리와 옥수수, 삼도 볼 수 있었다. 지붕 위에는 호박넝쿨이 뒤덮여 있고 구불구불 휘어진 싸리 울타리를 따라, 오이 넝쿨이 뻗어 있었지만, 과수는 보이지 않았다. 사과와 배, 버찌도 있다는데 아직 과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교사들은 조선의 과일은 맛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분야의 식물학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졌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다. 주민들은 거의 온종일 논에서 생활하면서, 정성이 많이 드는 모종을 옮겨 심거나, 논에 관개용수를 보존하는 작은 둑을 만들고 있었다. 농부들은 진흙 속에 쪼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손으로 땅을 일구었다. 멀리서도 그들이 일하고 있는 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버섯 모양의 커다란 밀짚모자를 쓴 농부들이 둑에 일렬로 죽 늘어서서 일하는 모습도 보였다. (중략) 목가적인 마을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산업화에서 비롯되는 소음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29]

---

28)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43쪽.
29) 지그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 함께, 2007, 113~114쪽, 이민희, 앞의 책, 159~160쪽, 각주 180 재인용.

논 사이에 심겨진 콩들, 지붕 위에 호박넝쿨, 모종을 심는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 등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도 농촌 마을의 풍경은 한마디로 깊은 평화가 감도는 모습이었다. 또 1884년에 원산과 인근 마을을 지나던 선교사는 그곳에서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㉑ 들판에 보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이 한두 사람이 쓰러진 볏가리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논 위에 있는 볏단보다 더 젖은 도롱이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을 뿐 그밖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1884년 11월 1일)[30]

㉒ 우리가 숙박하려고 머문 마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어두워졌음에도 탈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시남 마을의 주민이었다.[31]

여행 도중 만난 농부들은 부지런히 농사일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도롱이를 입고 볏단을 세우는 모습과 어두컴컴해진 저녁때까지 탈곡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느끼고 기록에 남겼다.

5) 산촌 모습 - 광부와 포수

강원도 산촌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먼저 광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강원도에는 탄광을 비롯해 이후 철광산, 금광, 은광, 중석광산 등 한국의 대표적인 광산 보유지역이다. 이런 광산붐은 개항 이후 서양 열강들의 개발 경쟁에 의해 발달하게 되었다. 제이콥 무스 목사는 강원도 철광산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㉓ 철은 전국 여러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강원도 지방도 그러해서, 나는 채굴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철은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노천露天에 있다.[32]

---

30) 윌리암 칼스, 신복룡 역주, 『조선 풍물지(Life in Korea)』(개정판), 집문당, 2019, 193쪽.
31) 윌리암 칼스, 신복룡 역주, 위의 책, 202쪽.
32)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38쪽, 이민희, 앞의 책, 167쪽, 각주 188 재인용.

외국인이 운영하는 광산에 광부로 고용된 인부들은 거의 대부분인 한국인들이었고 또 그중 많은 이들은 당연히 강원도 출신 인부들이었다.

㉔ 들리는 바에 따르면 3천 명의 광부가 평강의 사금광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기에 봄에 나는 이 보고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간 적이 있었다.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57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간신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한다.[33]

㉔를 보면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유는 간신히 굶주림을 면할 정도의 수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월급은 대단히 적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받았지만 고된 탄광 일을 계속 하였고, 강원도 광부들은 성실하고 작업성과도 좋았던 것이다.

㉕ 조선인들이 단순한 도구로 70미터까지 파 들어간 버려진 갱과 수직 갱도들은, 그들이 광부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고개에서도 조선인들이 작업인부로 고용되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했다. 조선인들이 지독히 게으른 타성에 젖어 있다고 쓰인 외서들의 내용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다.[34]

독일인 기자 겐테는 금강산 입구에서 약 100km 떨어진, 강원도의 당고개 금광에서 일하던 강원도 인부들에 관해 지독히 게으른 타성에 젖어 있다고 평가되는 다른 조선인들과 달리 모두가 만족스러울 만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원도는 산이 많고, 그 산에 사는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았다. 특히 호

33) 윌리암 칼스, 신복룡 역주, 『조선 풍물지』(개정판), 집문당, 2019, 201쪽, 이민희, 앞의 책, 164쪽, 각주 182 재인용.
34) 지그프리트 겐테, 권영경 역,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 함께, 2007, 121쪽, 이민희, 앞의 책, 165쪽, 각주 183 재인용.

랑이는 가장 위험한 대상이었다. 따라서 호랑이 잡는 포수가 많이 활동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 호랑이는 큰 관심이 가지만 두려운 존재였다. 그래서 호랑이 관련 여러 소문과 전설만 무성히 접하거나 호랑이 잡는 강원도 포수에 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㉖ 사냥꾼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은 전시에는 군대에 소집될 의무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한 달에 300냥과 화약 1통, 탄알 10발을 지급 받는다고 한다. 사냥꾼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았는데, 호랑이를 사냥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35]

포수는 평소엔 사냥을 하지만, 전시엔 군인으로 동원되었고 평상시 지급받는 지급품의 상세한 내용도 설명하리만치 그들에게 강원도 포수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에는 호환이 많았다. 조선시대인 1758년(영조 34) 10월, 강릉·삼척·춘천 등 강원도 17곳의 지방관이 올린 보고서를 취합하여 강원도 관찰사가 영조에게 장계를 올렸는데 내용은 주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에 대한 보고였다. 강릉 3명, 삼척 8명, 춘천 7명, 고성 4명, 양구 1명, 낭천 6명, 횡성 8명, 평강 1명, 통천 3명, 정선 13명, 홍천 6명, 흡곡 1명, 평창 2명, 울진과 철원에서 1명이 호환으로 죽었다는 내용으로 밤중에 물려 죽거나, 낮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밭에 일하러 갔다가 호환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해만 특이한 것이 아니었다.

4년 전인 1754년(영조 30)의 〈영조실록〉은 윤4월 경기도에서 한 달에 120명이, 10월 즈음 강원도에서 81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유해는 따로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화장하고 돌무더기를 쌓아 시루를 뒤집어엎어 놓고 가락을 꽂아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호식총'이라 불렀다. 물레의 실꾸리를 감기 위한 쇠꼬챙이인 가락을 시루에 꽂는 이유는, 창처럼 생긴 가락이 귀신을 찔러 제압한다는 의미와 창

35) 윌리암 칼스, 신복룡 역주, 『조선풍물지』(개정판), 집문당, 2019, 200~201쪽, 이민희, 앞의 책, 170쪽, 각주 191 재인용.

귀가 물레의 가락처럼 시루 안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태백문화원 조사에 의하면, 호식총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강원도 백두대간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태백시에서 50개소, 정선군에서 80개소, 삼척군에서 70개소가 발견됐다.

비숍 여사는 자신이 들은 호환 소식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㉗ 이 착한 마을에 호랑이의 위험이 심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지난주에 한 여인을 잡아갔으며 바로 전날 밤에는 개와 돼지를 잡아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때때로 개나 돼지를 미끼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서 호랑이들이 덫에 걸린다. 호랑이가 함정에 빠지면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독약이나 혹은 굶겨서 죽인다. 몸집이 좋은 호랑이라면 그 값이 매우 비싸다. 그들은 자신에게 호랑이를 사냥할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조선에서 그것은 위험한 사냥이다.[36]

6) 어촌 생활

외국인들의 기록에는 영동지역 어촌의 생활 모습도 보인다.

㉘ 거대한 산맥 때문에 내륙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아주 특수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들은 산에서는 나무를 하고,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으며, 땅에서는 온갖 종류의 과일과 수확이 나옵니다.[37]

바다를 접하고 있기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언급하였으나 그 외에도 산에서 나무도 하며, 땅에서 온갖 종류의 과일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는 영동지역의 풍요로운 환경을 말하는 것이다.

---

36) I.B.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149쪽.
37) 마라발 신부의 1891년 연말보고, 『함경도 선교사 서한집』 Ⅰ, 함경도 천주교회사 간행사업회, 1995, 91쪽, 이원희, 정병진, 김인선, 앞의 책, 40쪽, 각주 41 재인용.

그러나 어촌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고 즐거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선과 해산물을 다루는 어업이 주가 되다 보니 마을 전체에서 비린내를 비롯한 악취가 심했다.

㉙ 돼지와 불결하고 몽롱한 눈을 가진 개 그리고 어린이들이 피부병에 감염된 채 무분별하게 뒹굴고, 고기 찌꺼기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갈라지고 길고 구불구불한 황폐한 좁은 길, 갈색의 두꺼운 찌꺼기로 덮인 물 웅덩이, 녹색의 끈끈한 액체가 천천히 흐르며 개천으로 모이는 물줄기, 윗부분에는 말리려고 널어 둔 물고기로 까맣게 변한 모래의 해안, 여기저기 있는 고기 말림 틀, 우리에게 몰려드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지저분한 남녀노소, 참을 수 없는 냄새, 그리고 빈약한 편의 시설들이 이 밤을 내 기억에 새겼다. 말이 여인숙이지 방은 가로 8피트, 세로 6피트, 높이 5.2피트 정도였다. 가족이 먹을 곡식을 담아 두는 독(ang-pak), 쟁기와 삽의 마구리쇠, 더러운 누더기옷 무더기, 해초, 처마에서 다발로 매달린 수수, 말안장, 더욱 견디기 어려운 메주 뜨는 냄새, 그리고 악취 나는 자반 생선들로 인해 남은 자리라고는 야전 침대를 겨우 하나 놓은 정도였다.[38]

한마디로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당시 어촌 마을의 열악한 위생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다.

㉚ 내가 지나온 각 마을들은 바닷가에 7-112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먼 바다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어서 연안에서만 조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직업이 다 그렇듯이 어업은 벌이가 불안하고 관리들의 수탈로 마비되어 있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탈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으며 여타의 노동 계급과 마찬가지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

38) I.B.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154~155쪽, 이민희, 앞의 책, 180쪽, 각주 198 재인용.

이 해안에서 잡힌 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다음 배편으로 원산(元山)으로 운송하여 그곳에서 다시 내륙으로 운송한다. 겨울에는 상인들이 어촌에서 직접 내륙으로 운송한다. 중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구획된 염전이 마을 근처에 많이 있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원시적이다. 그토록 거칠고 지저분한 소금이 끝내 백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커다란 손실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이 소금산업은 이익이 남는 일이다.[39]

㉛ 우리가 여행한 길은 서울에서 동쪽 개항장인 원산에 이르는 간선도로였다. 그 도로는 관개가 훌륭한 논과 민둥산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계절에는 상품이나 여행자는 찾아볼 수가 없으나, 담배와 건어물 해초 등을 지고 가는 일꾼들의 행렬을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기까지 내내 볼 수 있었다. 건어물이나 해초는 조선의 건강식이다.[40]

근해에서만 어로활동을 하는 모습을 설명하며 벌이가 불안하고 관리의 수탈로 인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였다. 또 잡은 고기는 염장을 해서 배로 원산으로 운송하는 것과 소금 만드는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서 어촌 마을의 위생과 어촌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느껴진다. 또한 건어물과 해초 같은 해산물이 주요 특산품이었고 이들이 건강식으로 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9) I.B.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155~156쪽.
40) I.B. 비숍,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124쪽.

제 2 편

춘천기독교120년사

춘천지역의 복음 전파와 성장









제1장 광복과 격동 속의 춘천기독교 112
1절 광복의 감격과 혼란 속의 춘천기독교 112
2절 6.25전쟁과 춘천기독교 153
3절 전화복구와 예배당 건축 167
4절 춘천지역 교회 활동과 개척 193

제2장 춘천기독교의 성장과 발전(1960~70) 211
1절 춘천지역 교회의 성장 211
2절 춘천기독교의 성시화운동 274
3절 춘천지역 교회와 활동 292

제3장 춘천기독교의 부흥과 발전(1980~90) 327
1절 한국기독교 선교100주년과 춘천지역 교회 성장 327
2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범과 발전 395
3절 춘천지역 교회의 교회개척과 국내외선교 422

제4장 21세기 춘천기독교의 역할과 미래 457
1절 2000년대 춘천기독교 개관 457
2절 춘천지역 교회의 21세기를 향한 비전 468
3절 춘천성시화운동 520
4절 춘천지역 교회개척과 선교 및 봉사 575

제1장
광복과 격동 속의 춘천기독교

1절 광복의 감격과 혼란 속의 춘천기독교

1. 광복과 춘천지역 정치·사회적 상황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했다. 일본의 패전과 연합국의 승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인들은 일제의 야만적 식민통치로부터 광복되었다. 일본은 36년 동안 한민족 말살 정책을 무자비하게 추진하면서 식민지 약탈을 감행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노예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광복의 그날을 위해 독립항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1890년대에 시작된 의병항쟁, 1900년대부터 전개된 계몽운동, 1919년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해외에서의 독립군 독립전쟁, 그리고 민족문화수호운동을 쉼 없이 전개했다. 우리 민족의 대일본투쟁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합국의 승전으로 광복되었지만 그 광복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일본 민족투쟁의 결과였으므로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광복'을 능동적으로 맞이한 것이다.

한편 1945년 8월 11일,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군이 점령한다는 초안이 미국 육해군 및 국무성 합동조정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4일 영국과 소련 정부에 통고 되었다. 일본이 항복하기 6일 전인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은 일본에 전쟁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이 시가행진하는 모습

을 선포한다. 소련군은 8월 12일에 함흥, 청진, 원산을 점령하고 24일에는 평양까지 점령했다. 8월 말에 소련군은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춘천군 추전리와 원평리에는 9월 초에 진주했고, 인제군 부평리와 상리에는 10월 초에 들어왔다. 소련군 1개 분대가 춘천군 북산면 상리에 9월 말, 38선 팻말을 세웠다. 1개 소대 병력 30여 명이 춘천에 들어와 행정권과 경찰권을 내놓으라고 했고, 지사 승용차를 빼앗아 갔다. 동해안의 주문진과 강릉에도 소련군이 진주했다가 돌아갔다. 38선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것이다. 소련군이 8월 25일쯤, 경의선, 경원선을 38선상에서 차단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면서 38선 교통로를 막았다. 주민의 왕래와 물자교류를 못하게 하고 식량과 시설물을 약탈해갔다. 화천수력발전소의 수차변압기, 배전판 등을 해체하여 소련으로 가져간 것도 이때였다.

미군이 38선 남쪽, 즉 남한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이었으며,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진주한 때는 9월 20일이었다. 주한 미군은 9월 23일, 38선 도로차단벽 설치를 지시,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차단벽이 설치되고 10월 중순에 38선 전역 20개의 도로차단벽이 설치되었다. 일본이 항복한 날로부터 채 2개월이 되지 않아 38선은 완전히 차단되고, 미군과 소련군은 38선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주둔군으로 군림했다. 이로부터 광복공간은 일제 식민지시대와 또 다른 외세에 의한 지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강원도는 동해안의 양양군 현북면 서면, 중부의 인제군 기린면 남면, 그리고 서쪽에는 춘천군 북산면, 신북면, 사북면 지역에 38선이 그어졌다. 양양군과 인제군은 면적의 절반 이상이 북한 쪽에 속하게 되었고, 춘천군은 면적의 일부가 북한 쪽에 속하게 되었다. 철원군, 이천군, 평강군, 통천군, 고성군, 회양군, 김화군, 화천군, 양구군, 간성군은 전 지역이 북한 쪽에 속하게 되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절

반 정도가 북쪽에 편입됨으로써 비극적인 국토분단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북위 38도선으로 분단된 남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의 정체를 탄생시켰고 강원도민은 그 현장에서 분단 현실을 통감하게 되었다. 분단의 비극은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았다. 춘천군 북산면 추전리와 사북면 원평리는 하루아침에 둘로 갈라졌다. 모진강 다리를 사이에 두고 원평리 북쪽은 화천군에 편입되고 추전리의 북쪽은 양구군에 편입되었다. 인제군 신남리와 부평리가 갈라지고 양양군 기사문리는 하천을 경계로 갈라졌다. 38선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민이 내려왔다. 그래서 '월남민', '38따라지'라는 말이 유행했다.

강원도는 뜻하지 않은 38선으로 허리가 두 동강 나고 말았다. 강원도는 1부 21군 172읍면 중 1부 10군 91읍면만이 38선 이남 미군 진주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소련군 진주지역인 38선 이북에 들어갔다. 38선을 경계로 그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경비를 하기 시작했다. 38선 표지석 등이 있던 그 마을에선 과거 38선이 내부를 통과했다던 집터를 볼 수 있었다. 당시 안방은 38선 이남, 윗방은 38선 이북이어서 미소 양측의 경비가 서 있었고 집안 내부에서조차 이동이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38선의 비극은 하루아침에 한 마을, 한 가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그 대표적인 곳인 추전리와 원평리의 경우 모진교 남쪽은 춘성군 사북면에 그대로 남았지만 북쪽은 아무 인연도 없는 화천군에 편입되었고 추전리의 경우 남쪽인 양지마을은 춘성군 북천면에 남았지만 북쪽인 음지마을은 아무 인연도 없는 양구군에 편입되었다. 또 산간오지인 춘성군 북산면 부귀리 40여 호가 사는 상리마을은 한동안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소련군치하에 들어갈 뻔했던 것이 부락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소련군치하를 면할 수 있었다. 굳어져만 가던 38선은 6.25전쟁으로 사라졌지만 전쟁이 끝난 후



모진교에 그어진 38선

에는 '휴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전보다 더욱 강하고 두꺼운 철의 장벽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38도선은 연합국의 신탁통치 계획에 따라 미·소 양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남북을 통한 임시정부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하기까지 임시로 관리하는 일시적 경계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미소와 남북이 한반도 장래를 둘러싸고 이념과 정책에서 상호 대립하면서 38도선은 점차 민족 분단선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미군은 9월 20일에 제7사단 제32연대 1개 중대가 춘천에 진주하였다. 이후 9월 29일에는 삼척에, 10월 6일에는 원주에 진주하였다. 10월 10일에는 횡성, 평창, 영월 등 10월 12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진주하였다. 강릉지역의 경우 미군이 강릉을 거쳐 삼척에 먼저 주둔하였다. 이유는 경제적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것, 즉 삼척의 시멘트공장과 유지공장을 경비하기 위해서였다. 미군 주둔 인원은 7사단 산하의 1개 대대 800여 명 정도였다. 그 후 강릉에 주둔하였는데, 강릉에 주둔한 미군을 살펴보면 전투부대 1개 중대로 120명 정도가 강릉비행장에 주둔하였다.

한편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전국의 각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38선 지역인 강원도에서도 자치활동이 시작되었다. 8월 16일 오전 10시 강원도청 간부진과 민간유지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행정권을 이양받고 치안유지에 들어갔다. 강원도자치위원회는 김우종, 부위원장 이경중, 청년부장 신영철, 치안부장 유화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원도자치위원회 본부는 요선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지하실에 두었다.[1)]



춘천경찰서 전경(1955년)

자치위원회 구성과 때를

1) 김우종, 「파도를 디디고」, 『격랑 반세기』2, 강원일보사, 1988, 67쪽.

같이하여 치안대가 조직되었고 즉시 치안유지에 들어갔다. 치안대는 춘천경찰서(현 도청출입문 부근)를 점거, 일제 순경들이 쓰던 장총(99식)과 권총(6혈표), 또는 목총으로 무장하고 '치안대'라고 쓴 완장을 두르고 잔존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비에 나섰다.

이와 같이 자생적으로 조직된 강원도자치위원회는 중앙의 건준과 연계·흡수되어 건준 강원지부로 발족하게 되었다. 도자치위원회를 모체로 친일세력이 아닌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초기 중심인물은 강원도지부장 겸 춘천군 위원장에 김우종, 부위원장에 이경중·신영철, 청년부장에 남궁태, 조직부장에 박형택, 무경부장에 이병한, 총무부장에 황환승, 총무부 차장에 이창근, 치안대장에 유화청(그 후 신옥철) 등이었다.

초기 미군의 진주 당시에는 기존의 관료들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제100군정단 도착 후 2주일 내에는 모든 일본인 관리가 해임되었다. 제100군정단 도착 후인 11월 9일 오후 1시 반에 군정청특사와 강원도 각 군대표들이 강원도청 지사실에서 모여 중요회담이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현직 조선인 관리의 친일분자 소탕공작과 고문제도에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참석한 춘천군 대표로는 김우종(金宇鍾)·강치봉(姜致奉)·최규옥(崔圭鈺)·김근영(金槿榮)·이범래(李範來)·유회소(柳會昭)·최학운(崔學云)이었고, 이외 홍천, 횡성, 원주, 울진, 강릉의 우종대(禹鍾大, 준비회의에는 대표가 아니라고 방청만 하였다가 원회의에는 정식대표로 참가) 등이 참석하였고, 군정청 측으로 윌리엄 군정청 특사와 통역으로 이묘묵(李卯默)·이용설(李容卨)이 참석하였다.[2)]

1945년 10월 28일 제100군정단을 시작으로 강원도에도 군정중대가 속속 도착하여, 지방에 배치됨으로써 군정기능이 전술부대에서 군정부대로 이관하게 되었다. 즉 강원도에는 1945년 10월 28일 제100군정단과 제46·52군정중대가 먼저 도착하여 도청본부 및 춘천, 홍천, 원주, 영월, 평창, 횡성, 정선을 관할하였고, 10월 29일 제66군정중대가 도착하여 삼척, 울진, 강릉을 관할하였다. 이후 11월 18일 제38군정중대가 강릉에 배치되면서 관할 지역을 다시 나누게 되었다. 그 결

2) 『자유신문』(1945.11.11), 「군정청특사와 강원도 각 군 대표와의 회담, 친일관리 파면 결정」 참조.

과 강원도는 군정단 1개, 군정중대 4개가 배치되었는데, 제100군정단을 도청본부에 주둔하여 강원도의 군정사무를 총괄하고, 제46군정중대는 춘천에 배치되어 춘천, 홍천, 영월을 관할하게 되었다. 제1945년 10월 28일에 제100군정단이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리지사도 교체되고 정식 지사가 임명되었다. 즉 11월 23일 즈비만(Carl H. Zwermann) 중령이 대리지사로 임명되었다가 곧 정식 지사(강원도 군정장관, 임명사령 제41호, 1945.11.26)로 임명된 것이다.

한편, 1945년 12월 28일 신탁통치 보도가 전해진 후 춘천에서 도 군정고문이던 이범래(李範來)가 대표로 급히 서울로 상경하여 12월 31일 밤 신익희(申翼熙)·조소앙(趙素昻) 등 각계 지도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반탁운동 준비 회합에 참석하였다. 이범래는 춘천으로 돌아온 후인 1946년 1월 2일 밤 춘천시 중앙로 1가 적십자사 자리에서 김우종·이범래·남궁태(南宮珆)·강치봉(姜致奉) 등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준비회합을 가졌다. 다음날인 1월 3일 춘천 단양대(丹陽臺, 춘천시청 자리)에서 도내 최초의 신탁통치반대 춘천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며칠 후 찬탁으로 돌변한 좌익계의 이탈로 우익계는 조직을 재정비·강화하였고 곧이어 원주, 강릉을 비롯한 각 지역에까지 반탁운동을 확산시켰다.


강원도 치안위원장 겸 반탁 강원도 위원장인 김우종이 단양대에서 신탁통치 반대 강연 모습(『격랑 반세기』2, 1946년 1월 3일)

이 반탁운동 기간을 통해 뭉쳐진 우익민족진영 세력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이하 국민회)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국민회 발족 후 반탁운동은 국민회를 중심으로 우익청년단(右翼青年團) 및 강원도학련(江原道學聯)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반탁운동의 중앙 역할을 한 국민회 강원도지부는 지부장이 서상준(徐商俊), 부지부장이 이범래였고 각 지방에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국민회는 이후 도내 민족진영을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단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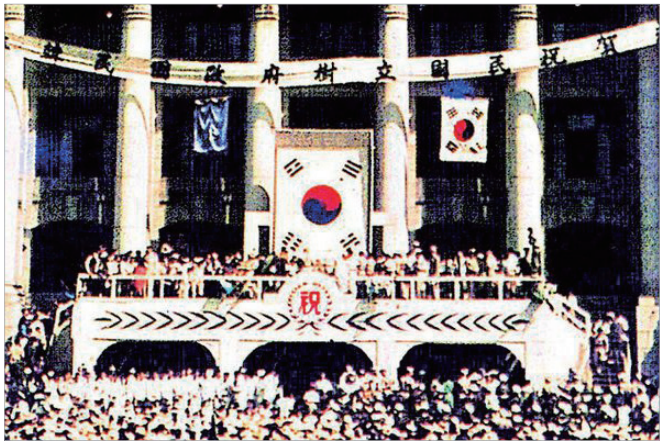
성장하였는데, 도내에서 국민회가 조직될 수 있었던 것은 김우종을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강원도위원회를 결성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한 것에서 비롯되어, 이범래가 서울을 왕래하면서 국민회 조직의 중간 역할을 맡아 도내 순회를 통해 기반 조성을 사전에 다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박건원 강원도지사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정청은 미군정 개시 직후에는 미국인으로 주한미군정청의 각 부서장 및 도지사를 임용하였지만, 그 후 미국인·한국인 공동도지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일에는 박건원(朴建源)을 조선인 강원도지사로 임명하였는데, 박건원은 강릉에서 광복 직후 치안유지를 위해 결성된 강릉군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익계열이었다. 한국인 지사 박건원은 부임 즉시 같이 일할 인사들을 골라 내무부장에 강치봉(姜致奉), 재무부장에 인태식(印泰植), 학무부장에 이재학(李在鶴), 농림부장에 이홍(李泓), 상공부장에 이계록(李季祿, 후에 根直으로 개명), 보건부장에 김영일을 임명하였다. 소령급의 미군 고문관 또한 각 부에 배치되어 행정을 관리·감독하였으며, 미군정청과 도청과의 연락 기능과 행정 민주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였다. 이에 강원도는 군정이 실시되었지만 중앙의 사정과는 달리 모든 행정이 박건원 지사를 비롯한 한국인의 손으로 수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47년 2월 15일 이후에는 한국인 도지사 및 미국인 고문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동일 박건원이 단독으로 강원도지사로 임명되었다(군정청 임명사령 제118호). 미군정은 군정 2년 11개월 동안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남한만의 행정구역 총수는 모두 1시(市), 9도(道), 14부(府), 133군(郡), 1도(島), 73읍(邑), 1,456면(面)이었다. 미군정기 북위 38도선 이남 강원도의 지방행정구역은 부 1개, 군 10개, 읍 4개, 면 83개가 있었는데, 1945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양단되자 1945년 9월 16일 인제군의 내면(內面) 전지역을 홍천군 내면으로 편입하고, 인제군 인제면의 원대리, 남면의

김부·신월·정자·부평·어론·신풍리의 7개리와 기린면의 진동리·북리의 일부, 하남·현리·서리·방동·상남리의 5개리를 병합하여 홍천군에 편입시키면서 신남면(新南面)이 되었다. 또한 1946년 5월 13일자 미군정법령 제84호에 의하여 강원도 춘천군을 '춘천부(春川府)'로 승격시켜 부제(府制)를 실시하고, 춘천군을 '춘성군(春城郡)'으로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축하행사(중앙청,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광복된 지 3년만 이었다. 3년에 걸친 미군정시기를 거치고 1948년 5월 10일, 자유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인구 약 1,995만 명 중 21세 이상 유권자 984만 명의 79.7%가 등록을 하고 등록 유권자의 92.5%가 참여했다. 총 200석 중 제주도 2석을 제외한 198명의 국민대표자가 선출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장(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5·10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198명은 귀를 의심했다. 임시의장에 선출돼 단상에 오른 이승만 박사가 특유의 이북 억양이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요청을 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순서에도 없는 즉흥 제안이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감리교 목사 출신 이 의원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 공산당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 남산감리교회를 세운 목사이다. 그는 서울 종로에 출마해 제헌의원이 됐다.

기도요청에 누구보다 놀란 것은 이 의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 부탁을 거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 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차분하게 고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은 움지기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정시(正視)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두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伸寃)하야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족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民生)의 희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야 저희들은 성(聖)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無力)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충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전하게하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국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

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요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主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제헌국회 속기록].



제헌국회 개원식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는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며 기도를 부탁(1948년 5월 31일)

10분 이상 진행됐지만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다.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 믿지 않는 의원들까지 일제히 기립해 '아멘'으로 화답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 안팎에 불과했지만 건국의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의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했다. 이 나라의 발전과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이 의원의 뜻과 생각이 들어 있었다.

최초의 국회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헌헌법을 만들어 7월 17일 공포했다. 제헌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확실히 했다. 1948년 12월 유엔은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 유엔 승인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50여 개국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았다.

한편,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은 10월 8일에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개최했고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을 발족시켰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했고 1948년 9월 9일 북한은 정부를 수립했다. 스탈린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세



襄陽院仕里서交戰中

共軍、추럭六十臺로來到

海賊化한日漁船

領海侵犯하루千餘隻

長城서暴徒追擊

양양 원대리에서 교전중—북한군 트럭 60대로 남하 기사
(『동아일보』 1949년 7월 9일)

우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북한이 남한보다 공식적 정부를 며칠 늦게 수립한 것은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남한에 전기 공급을 중단한 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남침을 시도했다. 38선 접경지역인 강원도는 북한군 유격대 침투의 루트였다. 10차에 걸쳐 남파된 북한군 인민유격대는 접경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침투,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용문산, 가리산, 방태산, 공작산 등 백두대간을 거점으로 양민학살, 방화, 식량탈취 등 사회교란을 획책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암암리에 준비하면서 인민유격대를 남파시켜 사회교란을 획책했다. 38선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점차 북한 남침 전쟁의 무대로 변해갔다. 북한 인민군유격대가 출몰하는 산촌지역의 산간부락을 없애고 집단부락을 조성, 인민유격대의 은신처를 없애기까지 조치를 취해야 했다. 1950년 6.25 직전까지 북한군 유격대의 남파는 계속되고 있었다.

2. 광복과 교회의 재건

1) 감리교의 분열과 통합

감리는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와 같으며, 감리교회란 명칭은 Methodist의 의미를 살린 단어이다. 대만과 홍콩 등 중어권 지역에서는 위리교회(衛理)-(지키다와 원리), 순리회(循理會)-(법과 원리)-둘 다 웨슬리의 발음과

유사함-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전래된 대한감리회는 원래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선교지인데 이를 처음에는 첫 글자를 모아 미이미교(美以美教)라고 했다. 그러나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미남감리회)는 감독(감리사)이 교회를 양육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조선 개항기의 감리서(관청)의 명칭을 채용하여 감리교회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1906년부터 남북감리교회가 공동으로 감리교회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1930년 통합한 후 계속해서 기독교조선감리회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광복 후 기독교대한감리회로 개칭하였다.[3)]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는 22명의 북장로회 선교사들[1842, 「평양대부흥」 블로그(2022년 12월 20일)]



1942년 8월 28일 뉴욕에 도착했을 때 함께 모인 선교사들의 단체사진(미국 Presbyterian History Society)

광복되기 전 기독교는 참담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과 일본 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의 시련은 더욱 거세진다. 마지막까지 한국에 남은 북장로회 선교사 22명은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자택에 억류되거나 미국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갇혀 이듬해 5월까지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며, 일본인 포로들과의 맞교환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강제로 추방되었다.

1942년 6월 1일 부산을 떠나 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고베(神戸)의 입국관리국 기숙사에 2주간 감금된 후

3)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역사자료게시판-감리교회 명칭의 유래」.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요코하마(横浜) 앞바다에 정박한 'SS 아사마 마루호'에 승선했다. 7월 22일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의 로렌조 마르케스(Lorenzo Marques)에서 일본인 포로들과 교환되어 'M. S. Gripsholm'호로 옮겨 탄 선교사들은 남아메리카를 거쳐 장장 12,000마일의 항해 끝에 1942년 8월 28일 서울을 떠난 지 12주 만에 뉴욕에 도착했다.[4)]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된 마지막 한국선교사들을 태운 'M. S. Gripsholm'가 1942년 8월 28일 뉴욕에 도착했을 때 함께 모인 선교사들의 단체사진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8.15광복을 맞을 당시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감리교회'는 없었다. 1940년 '혁신교단'이 출현한 후 감리교회 지도부의 노골적인 친일화 작업이 추진되어 1943년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라 개명하였다가 광복을 한 달 앞 둔 1945년 7월 19일에는 장로교회와 구세군, 성공회 등 다른 교파 교단들과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통리 김관식)'이 되었다.

이로써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개신교단이 탄생하였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전쟁 말기 종교 통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총독부의 강압적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에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교' 전통을 스스로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한말 이후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하였던 자랑스러운 역사 전통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태어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지도부는 중앙 조직을 마치고 지방 조직을 만들어 가던 중에 광복을 맞은 것이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당시 '표면적' 교회로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에 속한 교회만 남았을 뿐 여기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폐쇄 및 추방되어 사라진 상태였다.

광복이 되자 제일 먼저 움직인 곳도 '조선교단'이었다. 교단 지도부는 광복이 되자 재빨리 교단 명칭에서 '일본'을 빼고 '조선기독교단'이란 간판을 만들어 서울 새문안교회에 붙인 후 9월 8일 '남부대회'를 소집하였다. '남부대회'란 명칭은 광복과

4) 「평양대부흥」 블로그 「1942년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북장로회 선교사들」(2022.12.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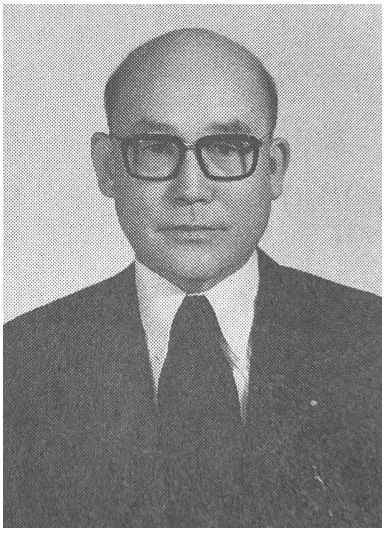
함께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나뉘어 북쪽 교회가 참석할 수 없었기에 남쪽 교회만이라도 우선 모이자고 해서 붙인 것이다.

1945년 9월 8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남부대회'는 광복 후 처음 열린 기독교인들의 집회였다. 교단 지도부는 광복 직전 구성된 조직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 비록 일제의 강압적 지시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단일 개신교회 조직인 만큼 교파별로 나뉘어 활동하는 것보다 단일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것과 광복 후 한국정부 조직에 참여할 김구와 이승만, 김규식 등 기독교인 정치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선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교단 지도자들의 입장과 의도가 광복을 맞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는 대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결국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남부대회는 개회 벽두에 변홍규, 이규갑 목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십 명의 감리교 대표자들이 감리교 재건을 선언하고 퇴장함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퇴장을 선도한 이들은 주로 감리교 목회자들이었는데 대부분 일제 말기 '혁신교단'에 의해 제명 혹은 휴직, 파면 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일제 말기 가해자였던 교단 지도부 인사들이 아무런 회개와 반성 없이 교단 조직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느껴 감리교회 재건을 선언하며 퇴장하였다. 후에 춘천중앙교회 소속 목사로 활약하게 되는 라사행(羅士行) 목사도 그때 퇴장한 목사 중 하나였다. 그의 증언이다.

> *1945년 9월 8일에 신문로 새문안교회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간판을 바꾸어서 '조선기독교단'이라는 새 간판을 걸어 놓았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통리자 김관식 목사는 회개하는 대신 '일본'이란 두 글자만 떼어버리고 '통리자'란 명칭을 '감독'으로 개칭한 후 김관식 감독의 이름으로 조선기독교단이란 유령 교단을 대표하여 남부대회를 소집하였다. 장소는 새문안교회였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은 남부대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각각 자기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재건코자 하여 퇴장하였으므로 유회되었다. 자칭 김관식 감독은 아베 총독에게 임명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회개와 각성함도 없이 유령 교단의 감독의 권한을 그*

대로 행세함으로 세계 기독교계에 한국기독교의 진상을 잘못 전달하고 국내의 기독교계를 혼란에 빠트린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5]


라사행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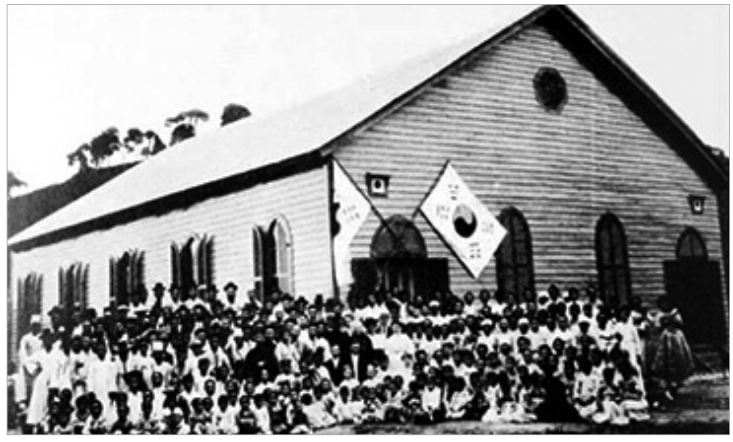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1946년에 춘천형무소의 형목이 된 라사행(羅士行) 목사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와 각성함도 없는 파렴치한 행세를 하였으니, 역사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감리교 목사들이 남부대회장을 나온 것은 아니다.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영섭 목사를 비롯하여 이동욱, 강태희, 심명섭, 이동욱 등 과거 혁신교단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조직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이들은 장로교 인사들과 협의하여 11월 27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재차 남부대회를 소집하고 김관식 목사를 대회장, 김영섭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남부대회 존속과 유지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이처럼 남부대회가 조직을 갖추어 나가자 남부대회장에서 퇴장하였던 감리교의 이규갑과 변홍규, 전효배, 권성집, 구성서, 김광우 등 장년층 목사와 윤성범, 이봉구, 이찬공, 장시화, 라사행 등 소장 목사들은 12월 17일 동대문교회에 모여 감리교 동부·중부연회 재건위원회(위원장 이규갑)를 조직하고 '혁신교단' 출현 이전의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재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때부터 '재건파(再建派)'란 명칭이 생겨났다. 재건파는 1946년 4월 5일 서울 냉천동 감리교신학교에서 동부와 중부 연합연회를 소집하여 중부연회장에 이규갑 목사, 동부연회장에 변홍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여 독자적인 연회 조직을 갖추었다.

---

5) 라사행, 「한국 감리교회 성장사」(광복 후 편), 『한국감리교회 성장백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1987, 112~113쪽[『춘천중앙교회사』(2007), 437쪽 재인용].


복흥파 기본방침 발표했던 수표교교회의 광복을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

한편 남부대회는 조선기독교단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미 감리교의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고, 남아있던 장로교와 구세군 등 다른 교파 교회들도 '교단환원'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남부대회에 참여했던 감리교측 인사들은 재건파 인사들이 주도한 1946년 4월 5일의 동부·중부 연합연회에 참석하였지만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4월 7일 수표교교회에 별도로 모여 재건파 조직에 대항하는 기독교조선감리회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기독교조선감리회 복흥(復興)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복흥파(復興派)'란 명칭이 생겨났다.

결국 1946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인 제2차 남부대회에서 각 교파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다. 물론 이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는 장로교와 감리교 안에 각각 노회조직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11월 3일에 경남노회가 출옥 목사인 주남선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여 조직되었고, 12월 5일에는 배은희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는 전북노회가 재건되었으며, 북한에서도 11월 14일에 이북 5도 연합노회가 설립되었고, 남부대회를 퇴장했던 감리교 목사들도 12월 17일에 감리교 동부·중부연회 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혁신교단이 출현하기 이전의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재건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복흥파도 1946년 6월 중앙교회에서 연회를 소집하여 중부연회장에 강태희 목사, 동부연회장에 신공숙 목사를 각각 선출하였고, 9월 6일 특별 총회를 소집하여 강태희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 총회까지 복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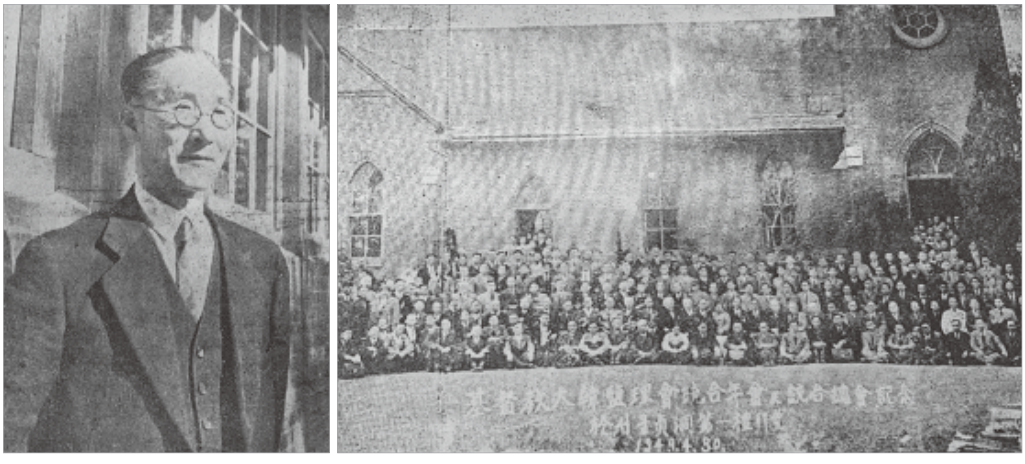
이처럼 복흥파가 감독을 선출한 후 교회 내부에서 화해를 촉구하는 이론이 형성되면서 재건파와 복흥파 사이의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복흥파가 주도한 1947년 1월 11일 총회에 참석했던 재건파는 수적 열세와 소외감을 분노


장석영 목사 초상화

로 표현하며 복흥파를 격렬히 비난하였고, 결국 1948년 1월 23일 동대문교회에서 총회를 소집, 장석영 목사(1894~1982)를 감독으로 선출함으로 복흥파와 완전 결별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한국 감리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감독을 갖게 되었다. 민족 분단의 시대, 역사 청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교회 분열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그 비극은 오래 가지 않았다. 재건파 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다시 평신도를 중심으로 교회 재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제 말기 추방당했다가 광복과 함께 돌아와 선교 사업을 재개한 선교사들도 통합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 결과 194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동제일교회에서 통합 연회와 총회가 열렸고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바뀐 감독에 재건파·복흥파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김유순 목사를 새 감독으로 선출함으로써 한국 감리교회는 분열 3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재건파·복흥파가 함께 모인 통합총회에서는 감리교회의 명칭을 기독조선감리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바뀌었고 그동안 교역자와 평신도를 함께 지칭하던 본처 전도사란 명칭도 전도사와 장로로 구분하였다. 이로써 감리교회에서도 장로제도가


선출된 김유순 감독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통합연회 및 통합총회 기념(정동제일교회, 1949년 4월 30일)

공식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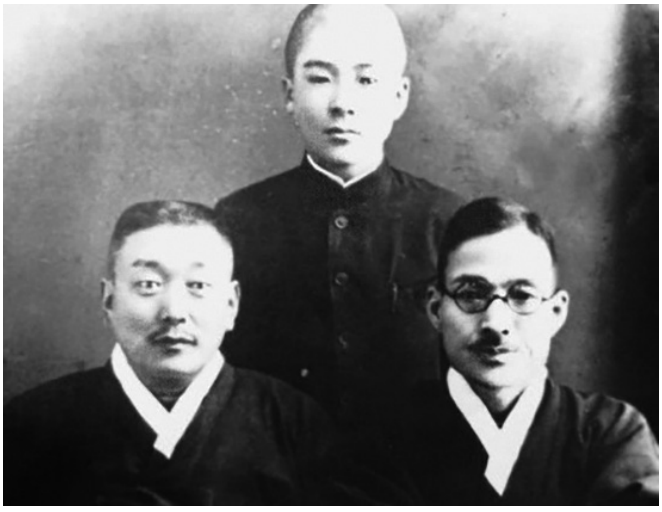
교회가 다시 하나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분열의 후유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많았던 재건파와 상대적으로 이남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복흥파 사이에 통합 이후에도 견제와 갈등 기류가 남아있었고 이것은 결국 1954년 '호헌파' 분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재건파와 복흥파 분열은 일제강점 말기 교회의 왜곡된 역사청산 문제로 일어난 것이었음에도 통합 과정에서 '무조건 통합한다'는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 결국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오류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도 또 다른 불행이었다.

2) 장로교회의 분열과 기타 교단 재건

1940년 7월 일제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전국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2,000여 명의 기독 신자들이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 70여 명의 신자는 장기 옥고를 치렀다. 그중 50명은 감옥에서 순교하였고, 나머지 20여 명은 광복과 더불어 출옥하여 '출옥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온 민족의 염원인 광복이 이루어졌다. 한반도를 위시하여 아시아와 세계재패를 꿈꾸던 일본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이 땅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며, 동시에 한국교회가 일제의 압박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날이다. 일제는 그동안 신사참배 강요 등의 강력한 억압정책으로 한국의 교회를 탄압해왔다. 많은 신도들이 신앙에 대한 위협을 느꼈으며, 교파 간의 다른 반응들로 인해 신앙 정체성의 혼란마저 겪었다. 1945년 8월 1일에는 신교 각 교파를 소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라는 이름하에 강제 통합하여 일본기독교단에 예속시키는 등 갖가지 탄압과 수난을 당해왔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광복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8월 17일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5년 혹은 6년간 투옥되어 있던 주의 신실한 종들이 평양, 대구, 광주 등 각 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조선 총독 아베의 계획에 따른다면, 소위 조선총독부 보호 관찰령 제3호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기 꼭 하루 전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자유를 얻은 약 20여 명의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가정과 교



1937년 12월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기념
(오른쪽이 주기철 목사, 『국민일보』)

회로 돌아가지 않고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모여 약 2개월간 머물면서 한국교회의 쇄신을 위해 함께 의논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옥중에 있을 때, 염원하고 기도하던 문제였다. 1945년 9월 20일 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아래와 같이 그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① 교회의 지도자(목사, 장로)들은 모두 신사에 참배했으니 권징(勸懲)의 길을 취하여 통회(痛悔), 정화(淨化)한 후 다시 교역에 나설 것.
② 권징은 자책(自責) 혹은 자숙(自肅)의 방법으로 하되, 목사는 최소한 2개월간 휴직하고 통회 자복할 것.
③ 목사와 장로의 휴직 중에는 집사나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④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 각 노회 또는 각지교회에 전달하며, 일제히 이를 실행케 할 것.
⑤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조속히 복구 재건할 것.[6]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든 교회가 환영하지는 않았다. 1945년 11월 14일 평북노회 주최로 선천의 월곡교회에서 200여 명의 목사들이 참석하여 한 주 동안 교역자 퇴수회(退修會)가 열렸다. 이때 신사참배를 피하여 만주의 동북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해온 박형룡이 교회의 재건 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신사참배 가결 당시의 총회장이었던 홍택기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였다. 그의 주

6) 김해연, 『한국교회사』(성광문화사, 2004), 303쪽(김문수,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이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25쪽에서 재인용).


박형룡 박사(『기독신문』)

장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했거나 은퇴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홍택기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목사들은 2개월간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 그러나 광복이후 남한과 북한은 구소련과 미국의 양국으로 신탁통치를 받게 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특별히 북한의 교회들은 공산치하에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만나게 된다.

이즈음에 경남에서는 장로교 교역자와 장로들이 모여 도내의 장로교 재건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다. 경남노회의 이러한 교회 재건 시도가 '출옥성도'들의 원칙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숙 원칙을 세우고 찬동한 목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는 못했다. 결국 노회는 재건이라는 명분은 내세웠으나 영적인 쇄신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광복과 함께 출옥을 맞은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전제로 일으킨 교회재건운동은 신사참배자에 대한 치리(治理)문제로 교회 분열을 낳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분열은 재건파와 한상동 목사와 주남선 목사를 중심으로 생긴 고신교단의 분열이다.

이때부터 진정한 교회 재건 운동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자숙해야 할 인사들은 출옥성도들을 비난하고 자기변호에 열중하였다. 이들이 일제강점기에 누려왔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교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경남노회는 1946년 12월 3일 진주 봉래동 교회에서 모여 친일파 목사인 김길창 목사를 노회장으로 피선하였다. 그리고는 더 이상 신사참배에 관해 거론하지 못하도록 가결하였다.

이렇게 되자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에게 항거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평신도와 교회들이 김길창 목사 측을 반대하였고, 한상동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

로 67개의 교회가 교회 재건 운동을 하게 되었다. 결국 김길창 목사와 전 임원은 1947년 3월 노회장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교권주의자들은 평신도와 교회의 항거에 못 이겨 잠정적으로 후퇴하였으나 진정으로 자숙하지는 않았다. 결국 교권주의자들은 숫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에 주남선, 한상동 목사 등의 교회재건 운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단지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영적 쇄신운동은 계승되었고 후일 고신교단을 통해 수렴되어 갔다.


김길창 목사(『한국기독신문』)

결국 경남노회는 한상동 목사 등 고려신학교와 출옥성도를 지지하는 일파와 김길창 목사 등 교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일파, 심문태·노진현·이수필 목사 중심의 중간파로 분열되었다. 1949년 김길창 목사 등 교권주의파 목사들은 부산 항서교회에서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경남노회 분열의 시작이었고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시작이 되었다.

성결교와 구세군도 재건하였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1930년대 말부터 일제가 기독교회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키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940년에는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했으며, 교단지인 『활천』을 폐간하였다. 그리고 1943년 12월에는 교회를 해산시켰다.

광복이 되자 1945년 11월 9일 재건총회를 개최하여 헌법을 대의정체(代議政體)로 개정하였고, 1946년 4월에는 기독교조선성결교회 제1회 재흥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정비에 나섰다. 1949년 4월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교단재흥총회를 개최하여 교단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基督敎大韓聖潔敎會)로 개칭하였고 일제강점기 말에 교단과 함께 문을 닫았던 경성신학교를 개교하여 교명을 서울신학교라 개명하였으며, 폐간되었던 교단기관지 『활천(活泉)』을 복간시켰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조선구세군은 1941년 조선구세군사관학교가 폐교되고 조선구세군에서 조선구세단으로 격하당하며 일본구



8대 사령관 로오드 부장
(구세군대한본영 홈페이지)



일제강점기 때 구세군의 자선냄비
(『크리스천 노컷뉴스』)

세단으로 편입되는 등의 과정을 겪으며 세력 약화를 피할 수 없었고, 끝내 신사참배에 가담하는 흑역사가 있다. 광복 이후 6.25전쟁 당시에는 한국구세군 제8대 사령관 로오드(Herbert A. Lord) 부장(중장, 1947~1950)이 납북되면서 어려움도 겪었다.

1940년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구세군이 영국을 위해서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죄목으로 탈퇴사관연맹 등 12개 단체가 연합하여 반 구세군 운동을 벌였다. 그리하여 일본과 한국의 구세군은 영국의 구세군 국제본영으로부터 이탈하여 별도로 활동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구세군은 일본구세군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구세군은 무엇보다도 영국구세군 국제본영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 말기 구세군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적지 않게 처분하여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제강점 말기에 구세군 국제본영으로부터 이탈되었던 한국구세군은 광복이 되자 다시 국제본영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는 국제본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아닌지로 잠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일본구세군과 마찬가지로 결국 한국구세군도 국제본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제본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기 때문에 한국구세군은 광복 이후 상당 기간 미국구세군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서히 교세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말기에 대부분의 교회가 해산되거나 친일성향으로 보였지만

광복이 되자, 감리교를 비롯하여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등의 교단이 혼란스런 정국과 교파간의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에도 굳건히 재건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3. 광복과 춘천지역 교회의 재건

1) 감리교와 춘천지역 교회

일제강점기 때는 강원도지역이 미 남감리회 교단의 믿음의 텃밭이었다. 춘천출신 차상찬이 주간(主幹)으로 있던『개벽』잡지 기사를 통해서 당시 춘천지역에서의 남감리회의 위상을 알 수 있다.

> *이제 **自立**하려는 **南監理敎會***
>
> *1895년 10월에 헨트럭식 감독과 리더 박사가 **入京**하야, **西大門** 밧게서 **傳道**를 행함에 시작되얏는대, 지금은 서울지방, **開城 南北地方**, **春川 南北地方**, **元山地方**의 6지방에 **全 敎徒**가 약 6천 명을 **算**하는 중, **京城 內**에는 **宗橋**, **紫橋**, **水標**, **水口門**, **石橋**, **京橋** 등의 6개소, 5구역에 약 천명의 신도가 잇스며, **南監理**도 **北監理**와 가티 역시 **監督制**인대, **正式**의 **監督派送**을 밧기는, 작년에 **現 監督** 보애사씨의 취임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
> *이 교회 안에는 작년 9월부터 **傳道局**이 신설되며 **梁柱三** 목사의 **總務下**에 상당한 활동을 **行**하는대 활동의 내용은 전혀 교회의 **自治實現**에 잇스며, 그러케 해서 얼마를 지내면, **長老敎會**와 가티 결국 **自治**를 하게 되리라 한다.(**但** 현재는 **傳道人 報酬**는 **米國 宣敎部**에서 **半** 이상을, 교회 설립에는 3분지2 이상의 **贊助**를 밧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形勢**는 1911년에 가장 번창하엿다가, 그 후 **漸減**되든 중, 1919년 즉 **己未運動** 이후에 다시 **敎徒**가 **稍增**하다가 지금은 자못 **不振**중에 잇다는 말이다. 참고로 **京城 內**에서 일하는 목사만을 **記**하면 **宗橋禮拜堂 吳華英**, **紫橋 白亨基 水標橋 洪鍾肅**, **水口門 尹相煥**, **石橋 李壽萬**, **京橋 李昌稷 氏**이며, **尹致昊***

씨도 이 교회 신도 중의 一人이다.

注意 南監理教會의 中心地는 春川, 開城地方에 잇다.[7]

라고 하여 당시 남감리회는 서울, 개성 남북지방, 춘천 남북지방, 원산지방의 6지방에 전체 교인이 약 6천 명 정도였는데,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남감리회의 중심지는 춘천지방과 개성지방이라고 할 정도로 춘천지역의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중앙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회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흩어진 상태였다.

광복이 되자, 강원도민들은 자유와 광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교인들은 예배당에 모여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망명과 징용으로 끌려갔던 교인들도 돌아오고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회복되어 교회마다 교인들로 가득했다. 1947년 12월 다시 내한하여 원주선교부에 살면서 원주와 춘천, 강릉, 횡성 등 강원도지역 선교를 담당한 스톡스(C. D. Stokes) 선교사의 편지 속에 당시(1949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제 외딴곳에 있는 교회들도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해체되었던 교회도 다시 모임을 갖고 조직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신자들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몇몇 곳에서는 새로 들어와 배우려는 교인들로 학습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전반에 나타난 고무적인 현상은 예배당을 다시 짓거나 수리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는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교인들의 열정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기초부터 다시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라 건축비를 모을 수 없어서 그들은 직접 몸과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머리에 수건을 두른 부인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 나무틀에 볏짚을 잘라

7) 『개벽』48호 1924년 6월 1일자, 「재경성(在京城) 각교회(各教會)의 본부(本部)를 역방(歷訪)하고」.

넣고 있었고 남성들은 거기에 진흙을 넣고 이기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8]

라고 하여 광복을 맞은 강원도민과 춘천시민들은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배움과 예배당 수리 및 건축에 온갖 열정을 쏟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직전인 1940년에 편찬된 『강원도지』에 의하면, 춘천의 기독교인 수는 기독교조선감리회 717명, 동양선교회(성결교) 111명, 성공회 99명, 구세군 65명 등[9]이다. 즉 현재로 말하면,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구세군 등의 교단이 있었고 992명 정도의 교인이 있었다. 통상 2~3년 전 통계를 바탕으로 했음을 볼 때, 당시 춘천의 인구가 81,647명(일본인 2,084명, 조선인 86,433명, 외국인 130명)이었음[10]을 감안하면 기독교인은 1.2%에 불과한 셈이었다.

광복 직후 춘천지방의 교회들은 대부분 재건되고 있었다. 1946년 6월에 열린 동부연회(복흥파)의 임명기에 기록된 춘천지방의 구역(담임자), 즉 춘천(박내철), 우두(이윤석), 홍천(박금산), 홍남(박봉순), 창서(김영록), 화천(노홍우), 평강(신길봉) 구역에 담임자가 임명되었고 양구·인제·가평구역에는 담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춘천구역의 경우에는 박내철 목사 외에 라사행(춘천형무소), 장병익(협동), 이경중(협동), 김세한(협동) 목사를 특별임명하였다.[11]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 회원들(『강원도독립운동사적지』)

일제강점 말기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춘천중앙교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 1938년에 일어난 춘천고등보통학교 상록회 사건에 다수의 학생 교인이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이듬

8) C. D. Stokes, 「Korea Letter」, Jul. 15. 1949(『춘천중앙교회사』 447쪽에서 재인용).
9) 강원도, 『국역 강원도지』, 도서출판 산책, 2005, 910쪽.
10) 위의 책, 478쪽.
11) 『기독교조선감리회동부중부연회회의록』(1946.4.5~17) 33쪽.

해 민족의식이 강했던 김광호 목사가 떠난 이후 춘천교회는 임진국·조상문·이경중·박내철로 이어지는 잦은 목회자 교체로 불안한 목회 상황이 지속되었다. 게다가 김조길과 박민식 등 그동안 춘천교회의 중진으로 활약했던 이북 출신 교인들이 1939년 장로교회를 설립해 나가는 분열 사건까지 겪어 교회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다.

1940년 '혁신교단' 출범 이후 춘천교회는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의 중심 교회였기에 춘천교회 담임자는 혁신교단의 강원 교구장 직임까지 맡아 원치 않는 친일의식에 참여해야만 하였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교회의 예배와 집회는 일본경찰의 더욱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했고, 그것도 동방요배와 전몰장병에 대한 묵념, 황국신민서사 낭독 등 친일적 국민의례를 먼저 한 후에야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 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떠날 교인들은 다 떠나고, 남아 있는 교인들도 우울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문이 닫히지 않고 주일예배가 중단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을 맞았으니 그 감격이 어떠했겠는가! 광복 1년 전(1944년) 춘천교회 20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던 박내철 목사는 광복이 되자 요선동 예배당과 그 주변의 일제 흔적들을 거둬 냈다. 일장기 대신 태극기가 내걸렸고, 교회 바로 뒷산(봉의산) 중턱에 있던 강원신사(초기 춘천신사)는 시민들에 의해 제일 먼저 철거되었다. 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인과 경찰, 공무원과 교사, 상인들이 춘천을 떠났다. 춘천시민들은 도청과 시청이 있는 봉의산 기슭으로 몰려와 되찾은 자유와 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춘천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춘천교회 예배당도 활기가 넘쳤다. 교인들은 예



강원신사(초기 춘천신사, 현 세종호텔) 전경

배당에 모여 광복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 망명과 징용으로 떠났던 교인들도 돌아왔다. 주일예배와 수요일 기도회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회에도 예배당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춘천교회는 이런 광복의 감격을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즉, 종래 '춘천읍교회'(春川邑敎會)라 불리던 것을 광복과 함께 '춘천중앙교회'(春川中央敎會, Chun Choon Central Methodist Church)[12]로 바꾼 것이다. '중앙'(Central)이란 단어를 넣은 것은 앞으로 교회가 춘천과 강원도뿐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13]

이처럼 교회 이름을 바꾼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선교의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리교회는 역사청산문제를 두고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었다.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춘천중앙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재건파와 복흥파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춘천중앙교회의 박내철 목사가 광복 직후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남부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46년 4월과 6월, 경쟁적으로 열린 재건파와 복흥파 연회에는 모두 참석하였다. 즉, 1946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감리교신학교에서 개최된 재건파 동부·중부 연합연회에 박내철 목사는 평신도 대표 최태경 장로와 함께 참석하였고, 이 연회에서 박내철 목사는 춘천지방 감리사 겸 감리교신학교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박내철 목사와 최태경 장로는 두 달 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앙교회에서 개최된 복흥파 연회에도 참석하였고, 이 연회에서 박내철 목사는 역시 춘천지방 감리사로 선임되었으며, 감리교 총회 및 남부대회 대표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박내철 목사는 평신도 대표 최태경 장로와 함께 그 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중앙교회에서 개최된 복흥파 총회에 참석하여 강태희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였고 박내철 목사와 최태경 장로는 총리원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로 미루어 박내철 목사와 춘천중앙교회는 재건파와 복흥파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었던 분

12) '춘천중앙교회'란 명칭은 1946년 6월 서울 중앙교회에서 개최된 복흥파 동부연회 회록에 처음 나타난다[『기독교조선감리회 제9회 중부·동부연회회록·기독교조선감리회 특별총회 회록(복흥파)』(1946), 33쪽].

13) 『춘천중앙교회사』(2007), 440쪽.

열 초기엔 재건파 연회에도 참석하였지만 1946년 6월 복흥파 연회를 기점으로 복흥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내철 목사가 1948년 4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복흥파 동부·중부 연합연회에 참석하여 춘천지방 감리사 및 동부연회 서기로 선임되어 활동한 것과 춘천중앙교회 관련 기사가 복흥파 기관지인 『조선감리회보』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박내철 목사와 춘천중앙교회가 복흥파를 택하게 된 배경은 일제강점 말기 박내철 목사와 그의 전임 목회자들이 혁신교단과 총독부 정책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였던 관계로 광복 후 상대적으로 순응노선을 취하였던 목회자들이 많았던 복흥파가 정서적으로 통하였다는 점과 극단적 분파 행동을 취하고 있던 재건파의 분열주의 노선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갈등과 분열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선호하는 박내철 목사의 신앙과 신학이 명분을 중시하는 소수 재건파보다 현실을 중요시하는 다수 복흥파를 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 그렇다고 박내철 목사와 춘천중앙교회가 복흥파의 전위에 서서 재건파를 공격하거나 재건파와 논쟁을 벌인 것은 아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행정적으로는 복흥파를 택하고 연회와 총회 임원으로 활동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의 통합을 촉구하는 중립입장을 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박내철 목사가 당시 춘천교도소 형목으로 있으면서 재건파의 전위에서 활동하고 있던 라사행 목사를 춘천중앙교회 소속 목사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를 춘천지방 서기로 임명하여 지방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박내철 목사는 양측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앙정치와 관계없이 춘천지방 안에서는 양측 인사들의 협력과 대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감리사로 있었던 춘천지방회는 재건·복흥 양측으로 나뉘지 않고 단일 지방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라사행 목사는 1914년 평남 덕천 출생으로 어려서 가족과 함께 만주 용정으로 건너가 은진중학교를 졸업한 후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였는데, 1940년 6월 '감신 삐라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고, 1941년 3월 신학교를 졸업한 후 횡성교회와 지석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광복 직후 미군정청 법무부 목사로 파송되어 형목제도를 창설하고 1945년 12월부터 춘천형무소 형목으로 부임하였다.

광복 후 두 번째로 소집된 춘천지방회에는 춘천성결교회의 김규호 목사가 참석해서 특별강연을 하였고, 미국 연합감리회 선교부 벅홀더(M. O. Burkholder, 변


벅홀더(M. O. Burkholder) 선교사

호덕) 선교사와 미군 종군 목사가 참석해서 축하를 해 주었다. 벅홀더는 일제강점 말기(1937년) 내한해서 철원지방에서 활동하던 중 1941년 강제 추방되었다가 1947년 6월 다시 나와 원주선교부에 머물면서 원주와 강릉지역 선교를 재개하고 있었다. 선교사의 재등장을 보고 춘천 교인과 시민들은 광복을 실감했다.

광복의 감격 속에 진행된 2회 지방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춘천중앙교회의 박내철 감리사가 당연직 회장이 되었고, 서기에 라사행 목사와 박봉순(朴鳳淳) 목사, 회계에 한순겸(韓舜謙) 등을 선임했으며, 신천장로로 문덕천(文德天)을 세웠고, 이미 일제시대 본처전도사로 시무하면서 장로 칭호를 받고 있던 최태경(崔泰景)·김원배(金元培)·이종범(李鐘範)·유도윤(柳道潤)·조중옥(趙重玉)·박만선(朴萬善)·이종원(李鍾元)·김창근(金昌根)·박용훈(朴庸勳)·이기영(李起永)·최경자(崔敬子)·어종원(魚宗源)·이규붕(李圭鵬) 등이 새롭게 장로직첩을 받았다. 이 중에서 최태경·김원배·이종범·유도윤·박용훈 장로 등이 춘천중앙교회 소속이었다. 그 중 최태경 장로는 1920년대부터 춘천교회 엡윗청년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뿌리 교인으로 광복 후 박내철 목사와 함께 교회 재건 작업을 추진하였고 1950년 전쟁 직전 연회에서 홍천서지방 모곡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받아 목회자로 나섰다.

그리고 1947년 지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14]

① 지방적으로 성경통신과를 부활 실행하기로 함.
② 전도사업을 위하야 특지가의 의연금이 전함으로 차금(此金)으로 특별전도대를 조직하야 개척 전도를 실행하기로 함.
③ 주일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행위원에게 일임함.
④ 지방 문고를 설치하고 각 교회에는 독서회를 조직하야 특히 종교서적을 회람

14) 『조선감리회보』(1948.1.15), 「춘천지방회소식」.

강독하기로 함.

⑤ 춘천성경학원을 설립하고 의무교역자를 양성하기로 함.

⑥ 장학금을 세워 1년 1인 이상 감리교신학교에 입학시켜 교역자를 양성키로 함.

⑦ 여자관 사업을 부활 실행하되 일절을 실행위원에 일임함.

⑧ 크리스마스 헌금 중 3할을 지방 구제부에 송금하기로 함.

일제강점기 활발하게 추진하였다가 일제 말기 폐지된 주일학교 지도자 강습회와 성경통신과, 성경학원, 여자관 사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중단되었던 선교사업의 부활을 의미하였다. 게다가 전도대와 도서 문고, 신학생 장학금, 성탄절 구제헌금 등을 지방 차원에서 새롭게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은 일제 말기를 거치면서 약해진 지방교회들의 힘을 모아 보다 큰일을 이루려는 연합정신의 표현이었다. 부활과 연합, 이것이 광복을 맞은 춘천지방 교회들의 정서였고 분위기였다. 이는 1948년 겨울, 춘천지방을 둘러 본 스톡스(Charles D, Stokes, 도익서) 선교사의 눈에 비친 모습이기도 했다.

스톡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2세 선교사였다. 아버지 스톡스(Marion B. Stokes, 도마련)는 남감리회 선교사로 1907년 내한해서 개성과 원산,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9년 이후 6년 동안 춘천선교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유한익 목사와 함께 선교백년기념 전도운동을 주도하였던 열정적인 선교사였다. 이런 아버지 선교사의 뒤를 이어 아들도 한국 선교를 지원하여 1940년 8월 내한, 아버지가 있는 철원 선교부에 배속되었지만 3개월 만에 강제 출국 조치로 아버지와 함께 추방되었다.


백만 구령운동의 주역 캠블, 리드, 스톡스(도마련)선교사(좌로부터)

이후 그(도익서)는 중국 선교부에서 활동하다가 광복이 되자 한국 선교사로 복귀하여 1947년 12월 다시 내한하여 원주 선교부에 살면서 원주와 춘천, 강릉, 횡성 등 강원도지역 선교를 담당

하였다. 스톡스는 원주 선교부에 들어가 거의 1년 동안 어학 공부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1948년 가을에야 지방 순회에 나섰다. 그렇게 해서 춘천지방을 방문한 스톡스는 처음 방문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뜻밖의 환대를 받았다.

> *춘천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순회한 지 8년 만이었기에 내가 갔을 때 처음 보는 교인들인데도 나를 본 교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환영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30년 전 이곳에서 활동하셨던 나의 아버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아 더욱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15]

춘천 교인들의 기쁨은 8년 만에 이루어진 선교사의 지방 순회 때문이기도 했지만 지방 교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떠난 스톡스 선교사의 아들이 대를 이어 지방에서 종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한 때문이기도 했다. 스톡스 선교사도 감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특히 춘천지방 순회에 동행하였던 박내철 감리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 *순회 여행 중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지방 감리사와 함께 나눈 우정입니다. 박 목사는 아주 쾌활한 분입니다. 비교적 젊은데(내가 보기에는 40세쯤 되었습니다.*[16] *성격이 활발하고 행동은 점잖았으며, 단점이라면 너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업에 그처럼 헌신적이고 겸손한 인물을 만난 것은 제게 큰 축복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 이분처럼 맑은 영혼을 지닌 분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17]

이 글에서 광복과 전쟁 전후, 가장 힘들었던 시기 춘천중앙교회를 담임했던 박내철 목사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했는지 읽을 수 있다. 칭찬에 인색한 선교사 스톡

15) C. D. Stokes, 『Korea Letter』(Jan, 31, 1949)(『춘천중앙교회사』(한들출판사, 2007) 445쪽에서 재인용).
16) 당시 박내철 목사(1911년생)의 나이는 37세였다. 스톡스(1915년생)보다 네 살 위였다.
17) 앞의 책, 446쪽에서 재인용.

스는 박내철 목사에게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스톡스는 이런 박내철 감리사의 안내를 받아 가며 춘천지방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멸절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교회와 교인들을 목격하고 또 다른 감동을 받았다.

>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인들을 만난 그들로부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동안 이룬 업적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러하였지만 춘천지방 교회들도 지난 전쟁(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 탄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동안 약했던 교회 몇 곳은 해체되어 버렸고 남은 교회들도 모두 집회와 행동을 제한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18]



교회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춘천중앙감리교회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은 다시 부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재건하려는 토착 교인들의 신앙 열심과 헌신의 모습이었다.

이처럼 부활한 춘천지방의 중심에는 춘천중앙교회가 있었다. 광복과 함께 춘천중앙교회는 활기를 되찾았고, 새신자들도 급증하여 일제강점기 수준을 회복하였다. 더욱이 춘천중앙교회는 요선동 벽돌 예배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예배당이 훼파된 시골교회보다 유리한 입장이었다.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지방과 강원도지역 선교의 구심점으로 옛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교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구제, 지원 헌금에 적극 참여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즉, 춘천중앙교회는 1949년 10월 감리교회 재통합을 축하하는 의미로 전국 교회가 통일축하헌금을 실시할 때 3,300원을 헌금하였을

18) 위와 같은 책, 446쪽에서 재인용.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김유순 감독을 위한 감독 사택 헌금에도 3,700원을 납부하였고, 가뭄으로 곤경에 처한 옹진지방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으로 2,500원, 감람교회 건축 지원금으로 2,300원을 각각 거둬 총리원에 보냈다. 춘천중앙교회는 광복과 함께 빠르게 교회 복구 작업을 마치고 남을 돕는 교회로 그 위상을 높여 나갔다.

그러나 부활과 재건의 감격과 열기도 잠시, 교회는 또다시 시련과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전쟁이 터지자 전방에 위치했던 춘천은 그 어떤 지역보다 혹독한 피해를 입었고, 교회는 참혹할 정도의 파괴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교회 이외에도 1935년 교회 건축 후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던 우두감리교회에는 1942년 정동섭 목사가 구역장으로 파송되었고 1943년에는 박내철 전도사가 구역장으로 파송되었다. 그리고 박내철 전도사는 1944년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하였다. 따라서 1944년부터 광복 때까지 우두교회는 폐쇄되어 운영되지 못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자 우두교회 성도들도 2년 동안 닫혔던 교회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렸다. 1946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복흥파 중부·동부연회에서는 이윤석 목사를 우두구역장으로 파송하였다. 1947년에는 이진호 전도사가 우두교회에 부임하여 부흥을 주도했다.



우두교회 유년주일학교 야외예배 기념
(1949년 10월 17일)

당시 50세였던 이윤석 목사가 혈압으로 인한 언어장애로 목회를 할 수 없자 이진호 전도사가 부임하였는데, 부임 당시 주일낮 예배인원이 20~30명이던 것이 부임 1년 후 교인수가 150명으로 놀랍게 부흥하였다. 여기에는 이규봉 장로 가정, 이선남 권사 가정, 성월순 성도 가정, 신동균 성도(이규봉 장로 댁에서 농사 고용인으로 있다가 독립), 서정건 장로, 그리고 1948년에 부임한 김경신 여전도부인 등의 헌신적인 노력

으로 부흥하였다.[19]

석사교회 역시 광복을 맞이하여 폐쇄된 교회를 재건하였다. 재건된 시기는 1946년 9월 21일로, 『교회약사』에 "1946년 9월 21일 민족 광복과 더불어 다시 집회하다."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교회 재건 2년 후인 1948년 9월 1일에 양대석 전도사가 부임하여 1950년 6.25전쟁으로 피난하기까지 시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석사리교회의 재건 일시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세 분의 원로권사(서구이·이봉달·김수남 권사)들도 교회약사와 거의 같이 교회 재건을 회고하고 있다.

> *1945년 8.15광복과 더불어 현 교회 근방의 기와집에서 순회목사이신 홍목사(이름 미상)가 주 1회 설교하시다가 그 후 양대석 전도사가 시무하였다. 그러다가 1950년 6.25사변으로 성도들은 전도사를 모시고 피난을 갔다가 잠시 귀향 1.4후퇴로 다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양전도사는 다른 곳으로 가시고 3년 후 이봉달 속장이 귀향하였으나 교회는 불타 없어졌고 전쟁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20]


홍신 목사

곧 광복 직후에 교회가 재건되어 홍 목사가 주 1회 정도로 와서 설교를 하였고 그 후에 양대석 전도사가 석사교회 전임 전도사로 시무하였다는 것이다. 춘천지방 순회목사로 활동하던 홍신(洪信) 목사가 주 1회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해 주기로 하여 교인들은 힘을 모았다. 그 결과 현재의 예배당 부근에 석사리교회를 재건하였다.

1948년 1월에 열린 재건파의 『연회 회의록』 임명기에 따르면 홍신 목사는 춘천지방순회 겸 춘천양로원으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홍 목사

19) 김진형, 『우두교회80년사』, 2011, 117~125쪽.
20) 『춘천석사교회』, 1992, 3쪽.

는 파송되기 전부터 춘천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석사리교회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21]

석사리감리교회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홍신 목사는 1914년 5월 27일 충남 부여에서 출생하여 일본 명치대학 법학부와 일본성서학원에서 수학하였고, 1948년 재건파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춘천양로원장과 춘천 미국공보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석사리교회를 재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고 이후 석사리교회의 담임목사로 헌신하기도 하였다.

1950년 4월 서울 정동예배당에서 열린 통합 후 제2회 동부·중부 연합연회에서 지방부흥사업을 담당하던 홍신 목사가 춘동구역 담임자로 파송되었다. 춘동구역은 춘남구역에서 1950년에 분리되어 새로 조직된 구역으로 석사리교회는 이 춘동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석사리교회는 광복 후 재건되어 실질적인 담임자를 모시는 교회로 성장하여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 1938년을 끝으로 공식적인 기록이 사라진 후평리교회(지금의 신성교회)도 1949년 중앙교회 유년부 교사였던 김종철(훗날 신성교회 장로) 선생이 후평리 지역 청년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지만 6.25전쟁으로 또 예배가 중단되었다.

퇴계리교회(지금의 안디옥 교회)도 1941년 강제 폐교당하고 예배당을 농막 및 공회당으로 사용되었다. 광복 후 교회를 부활시키고 길정임가(家)를 중심으로 기도처로 삼아 예배를 재개하였다. 1949년에는 기도처를 최승철가로 옮겨 예배를 드리다가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광복 이후 감리교에서는 여러 혼란 속에서도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우두교회, 후평리교회, 퇴계리교회, 석사리교회 등이 부흥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였지만 이번에는 일제가 아닌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다시 큰 시련에 직면했다.

---

21) 『춘천석사교회 80년사』, 2004, 84쪽.

4. 장로교와 기타 교단의 재건

1) 장로교


평양대부흥운동 때 장대현교회 앞에 운집한 교인들(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광복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린 한국의 정치 상황은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남쪽에 있는 교회와 함께 총회로 모일 수 없었던 북한의 5도 안에 있는 교회는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연합적인 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12월 초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북 5도 연합회를 개최하였다. 이 5도 연합회에는 16개의 노회가 속했는데, 황동노회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 황동노회는 1946년 초에 제11회 노회로 모여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조택수 목사가 다시 서기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38선 남쪽에 있던 춘천읍장로교회는 정치적으로는 황동노회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위 기관이 없는 독립교회처럼 되었다. 따라서 북쪽보다는 남쪽의 교회 재건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39년에 황동노회의 전도구역이었던 춘천에서는 광복 후 1946년에 황동노회가 재건되었지만 노회는 정식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편지로 회장만 지정하는 정도였다. 더구나 춘천은 38선 이남에 있어 노회와 자유로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1946년 6월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열린 남부총회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교회를 '강원시찰'로 조직하여 경기노회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총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경기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강원도 동쪽의 삼척과 강릉과 양양 등에 있는 교회들은 지리와 교통 여건상 경북지역의 경안노회와 더 가깝다고 느낀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이 경안노회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9년 8

월 26일에 모인 경안노회 임시노회에서 '강원도 삼척 묵호교회 가입'이 허락되었다. 그리하여 경안노회에도 '강원시찰'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강원도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동쪽지역은 경안노회의 강원시찰로, 서쪽지역은 경기노회의 강원시찰로 조직되고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광복 후 춘천읍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친일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항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친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감리교회에서 나와 춘천읍장로교회를 만든 창립 멤버들이 광복과 함께 교회를 떠난 것이다.

광복과 함께 김조길과 유화청의 가정이 서울로 이사하면서 기둥 같던 창립 교인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창립 멤버였던 김메례 전도사가 교회로 돌아왔다. 감리교인으로 원주읍교회를 거쳐 춘천읍교회에서 활발한 여자전도사로 활동하던 그는 1939년 장로교회가 만들어질 때 같이 나와 조택수 목사가 올 때까지 예배를 인도하며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런 그가 1943년에 교회를 떠났다가 1945년 10월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어쩌면 창립 교인들의 이탈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는 김유찬 목사의 요청이 그 배경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남한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춘천에 있는 교회도 매 주일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쪽에서 내려오는 신자들로 인해 남쪽의 교회들은 수적인 성장의 속도가 빨랐다. 이러한 현상은 춘천읍장로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교회는 운교동의 적산가옥을 수리하여 춘천동부교회로 개명하였다.

1946년에 장년교인이 70명이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장로와 서리집사를 세우게 된다. 1946년 3월에 장로로는 원창규 씨가 장립을 하고 지기봉·한수연·전귀석 장로가 취임을 한다. 서리집사로는 18명이 임명되었다. 1947년 가을에는 성가대도 조직되었다. 초대 성가대장에 지성영 집사가, 지휘자로는 지득영 집사가, 반주에는 신현희와 김덕수 성도가 맡아 성가대를 운영하였다.

1946년 3월에 4명의 장로와 18명의 집사가 임명되지만 교회는 곧 분열된다. 춘천제일교회는 이 분열의 시기를 1946년 4월로 보고 있다. 교회가 분열될 당시 김유찬 목사와 결별한 자들 중에 장로 1명과 집사 6명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 1명의 장로가 전귀석 장로인데, 1949년 1월 2일에 춘천제일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취임하였다. 1948년 5월에 장로로 피택된 박성봉도 장로 장립을 한다. 따라서 당회록에서 제외된 전귀석 장로와 박성봉, 백성일, 김기찬, 송혜균을 비롯 집사 6명과 또 다른 신자들이 김유찬 목사를 떠나 원래의 예배당이던 소양로 2가로 돌아간 것 같다.

춘천읍장로교회는 1946년 4월, 김유찬 목사와 창립 멤버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예배당 신축 장소와 장로 선거 결과에 의해 증폭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창립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된 창립교회의 정신은 후퇴하고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춘천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2]

김유찬 목사는 1947년과 1948년 2년 동안 연속으로 당대 최고의 부흥강사였던 박재봉 목사와 손양원 목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다. 박재봉 목사의 초빙을 통해 분열의 아픔과 과오를 나의 잘못으로 회개하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참된 목자상을 회복하고 했다면 손양원 목사의 초빙을 통해 신사참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창립 멤버들과의 불행한 이별로 이어진 그의 침묵과 순응을 참회하고 했던 것 같다.

이 두 부흥회를 통해 김유찬 목사는 개인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발길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의 사후에 미망인인 정기화 사모가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신명을 바치신 분"이라고 회고할 수 있는 목회자로 춘천동부교회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김유찬 목사의 회개와 참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상징적이게도 1949년 5월에 조삼용 장로를 장립하고 서정권·최익환 장로를 취임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춘천제일교회 방효정 목사(1946년 7월)

한편 제1교회와 제2교회(현 영광교회, 1947년 5월 10일)도 성장하고 있었다. 제1교회는 1946년 4월 동부교회와 분립되어 임시로 운교동 적산가옥으로 옮겼고 7월에는 방효정 목사가 부임하

22) 강치원, 『동부교회 70년사』, 2012, 198~201쪽 참조.

였다. 1947년 4월 낙원동 45번지에 대지 136평 대부, 50평 교회당 신축하고 '제일교회'로 명칭 변경하고 경기노회에 가입하였다.

1948년 5월에는 박성봉이 장로로 피택되었고 1949년 1월 2일에는 전귀석, 김현수, 조광길, 김종호, 홍남익을 시무장로로, 박성봉을 장로(장로 1대)로 장립하였다. 1월 7일에는 1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편 장로교인이 강원도에 정착하여도 감리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지나자 장로교가 지역별로 크게 성장하였다. 강원도 내 굴지(屈指)의 장로교회는 춘천권에서 동부중앙교회(통합, 1939년), 춘천제일교회(합동, 1939년), 원주권에서는 제일교회(통합, 1946년), 강릉권에서는 강릉제일교회(합동, 1945년) 등의 교회가 부흥·성장하였다.

2) 기타 교단 재건

기타 교단에는 성결교와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가 있어, 성결교에는 춘천중앙성결교회가 있었고 구세군에는 대한구세군춘천교회, 그리고 성공회에는 대한성공회 춘천교회가 있었다.

춘천중앙성결교회는 김의용 전도사에 의해 1934년 7월 5일 창립되었다. 성장해 가던 중 일제 당국이 교단 본부에 위협을 가하여 김의용 목사를 제명 처분시켰고, 1943년 12월 29일 교단 해산과 더불어 춘천교회도 완전히 폐쇄시켰다. 낙향하여 대구에서 농사로 연명하던 중 광복을 맞은 김의용 목사는 1945년 8월 16일 대구 궁평동에 최정원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 설립하다가 1945년 12월 1일 춘



김의용 목사 내외와 창립 2주년 기념 모습(1936년 7월 5일)

천으로 달려와 일정(日政)의 박해로 폐쇄, 해산되었던 신자들을 찾아 교회를 재건하였다. 당시 조광식당 윤태인 씨 댁을 임시예배처소로 정하고 이명직 목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개최하니 흩어진 교인들과 타 교회로 출석하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어 1946년 미국인 도지사[23]의 도움으로 일본인 사찰 본원사(현재의 교회 자리)를 수리하여 수십 명의 성도가 기쁨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교회 재건의 기초가 마련되자, 1934년 7월 3일 교회를 창립하여 12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양무리를 지키던 김의용 목사는 사임하고 제2대 목사로 김규호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는 1930년 부산교회로 부임했다가, 1946년 춘천중앙교회로 부임하였다. 특별히 춘천은 김규호 목사가 학생 시절 순회전도 시에 와 보았던 곳으로, 이곳에 부임하자 흩어져 있던 성결교회 신자들을 한두 사람씩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춘천교회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세군춘천소대는 평강이나 철원의 구세군 교회보다 3년 늦게 들어왔다. 『조선총독부관보』 1937년 8월 18일자에 의하면, 장응화·음경달 두 사관이 개척사관으로 춘천에 파송된 날짜는 6월 26일이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38년 6월 30일에는 신호필(申好必) 대위가 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949년 1월 4일 문을 닫게 되었다.


구세군 자선남비 최초 기사
(『동아일보』 1928년 12월 22일)

구세군 영문에서는 매 주일 낮 대예배로서 성결회(Holiness Meeting)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시작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영적 교제의 시간으로서 회개의 기도, 찬양, 헌금, 말씀

23) 당시 한국인 도지사는 박건원이었지만 1946년 미국인 도지사는 1945년 12월 2일에는 스벨만 중령, 1946년 5월 29일에는 레이디 중령, 7월 1일에는 가먼(J. P. Gammon)대령으로 도지사가 교체되었는데 누구인지 알 수 없다(『강원도사』11, 126쪽 참조).

(성경봉독과 설교)이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예식이다.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로서 구령회(Salvation Meeting) 예배는 주로 간증, 찬양, 말씀(성경봉독과 설교)이 선포되는 중요한 집회이다.

매년 12월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자선남비'가 전개된다. '자선남비'가 처음 시작된 동기는 1894년 성탄일 바로 전날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겨울밤에 큰 배 하나가 파선되어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럭키연안에 정박되었다. 영하의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생존자들을 인근 구세군 영문(교회)에 수용했으나, 그 당시 미국 사회는 경제적 불황으로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고, 구세군에서는 이미 많은 실직자와 선원, 부두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있을 때라 조난당한 그들에게 줄 음식물이 없었다. 그때 지혜로운 구세군 사관 한 분이 국남비를 거리에 내걸고, 조난당해 추위에 떨며 굶주린 사람을 돕고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남비를 끓게 합시다"라고 호소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그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다.

이 성공적인 사례를 계기로 이듬해 1895년 구세군 영문 30여 곳에서 거리에 남비를 걸고 모금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운동은 점차 세계 각국으로 퍼져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자선남비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정령이 서울 거리에 자선남비를 걸고,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의료친교회가 조직되어 벽지촌에 무료 진료와 함께 약품도 기증하며 선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 성공회가 강원도에 성공회가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1933년 춘천에 선교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춘천교회는 1949년 성당건물이 축성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완전히 소실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장로교단의 춘천읍교회는 1946년 4월에 동부교회와 춘천제일교회로 분열·발전하였고 성결교단의 중앙성결교회도 1943년 12월 29일 교단해산과 더불어 완전폐쇄되었다가 조국광복과 더불어 재건되었다. 구세군춘천소대는 1938년 6월 30일에는 신호필(申好必) 대위가 소대장으로 임명된 이래 부흥되다가 1949년 1월에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을 맞이하면서 모든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2절 6.25전쟁과 춘천기독교

1. 6.25전쟁과 춘천

1) 춘천전투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이다. 이 전쟁에 전투병력으로 참전한 나라로는 남측의 한국을 비롯하여 16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프랑스, 에티오피아,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그리스, 콜롬비아)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비롯하여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이다.



6.25전쟁 당시 춘천(강원도민일보)

춘천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춘천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제2사단과 제7사단의 기습 공격을 받고 3일간 춘천을 사수한 방어전투이다. 그 결과 "서울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격멸한다."는 북한군의 최초계획이 좌절되었으며, 반면에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형성하여 유엔군이 증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당시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 제2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로 원주에 주둔시켰으며 사단의 방어면은 약 84㎞에 달했다.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고속기동부대를 수원 이남으로 우회시켜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한다는 계획하에 제2군단을 투입하였다.

화천-춘천 축선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7사단(7월 이후 12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603 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으며, 제15사단(-)이 제2제대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4배, 화력면에서 10배 우세하였다.

춘천의 국군 제6사단 7연대는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화천-춘천 방면에 제3대대를, 조공 축선으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 제2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투입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춘천지역에서는 북한군 제2사단 6연대가 자주포 10대를 앞세우고 국군 7연대 1대대가 배치된 옥산포를 공격했다. 그러나 소양강을 도하해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은 제16포병대대의 정확한 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계획 달성에 실패했다. 제6사단의 원활한 포병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이날 오후 2시경 옥산포에서 심일 중위가 북한군 SU-76자주포를 파괴함으로써 옥산포 후방 4km지점에 있던 포병 진지와 탄약(5천발)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양강 북쪽지역에 전복되어있는 SU-76자주포
(『고 심일소령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자료집』)

6월 26일 소양강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6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국군 제6사단은 소양강 변과 봉의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자주포와 각종 화포를 앞세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날 오전 10시경 심일 중위는 소양강교에서 적 SU-76자주포 3대를 파괴함으로써 적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날 북한군은 정면공격을 반복했지만 제6사단 포병의 포격에 큰 피해를 입고 소양강을 도하하지

못했다. 오히려 7연대가 반격을 가해 적을 북한강까지 추격했다.[24]

공격이 지연되자 북한군 제2군단장은 홍천 방향으로 공격하던 제7사단의 일부를 춘천 방향으로 돌렸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소양강을 넘지 못했다. 26일 오후가 되어서야 북한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제6사단장은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전방의 부대를 철수시켰다.

북한군은 6월 27일 아침부터 소양강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제6사단은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제6사단은 이날 육군본부 지휘부로부터 "서부전선이 완전히 무너졌고 육군본부는 시흥으로 철수하므로 제6사단은 사단장의 판단에 따라 철수하면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제6사단장은 임부택 7연대장에게 춘천에서 철수하라며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25]

이 춘천전투는 국군 제6사단의 철저한 준비와 지혜롭고 용감한 대응, 전투경찰을 비롯한 경찰들의 발 빠른 대처, 제16포병대대원들의 지혜로운 대처와 응전, 학생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이 한데 어울려 승리를 일궈냈다.

춘천지역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의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북한군의 애초의 작전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이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이나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었다. 춘천지역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2사단을 거의 와해시킬 정도의 타격을 가하였고, 이에 북한군은 홍천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작전을 진행 중이던 제7사단의 일부를 춘천지역전투에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춘천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북한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가 하는 것은 당시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최정예 사단이었던 제2사단을 이 전투에 투입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만큼 이 전투에서의 실패는 북한군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6.25전쟁의 전개과정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애초 전쟁계획이 춘천지역에서 차질을 빚지 않았다면 수원지역은 이미 북한군에 의하여 장악되어 맥아더는 수원비행장을 이용

24) 『고 심일소령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자료집』(2017), 19~20쪽.
25) 정호영, 「6.25 개전 초 춘천에서 위기의 조국을 구하다 : 국군 6사단 무적신화를 만든 명장, 임부택 장군」, 『JULY 2021 국방저널』, 6~17쪽.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춘천지역에서 북한군의 작전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국군 제6사단의 전공(戰功)은 이후의 전쟁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군 제6사단의 춘천 전투의 전공은 국군에 의한 한강 방어선의 구축과 미군 참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운(國運)을 결정지은 우리 민족의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대첩(大捷)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된 냉전 대결에서 전쟁 초기에 최초로 좌절시킨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26]

6사단의 성공적인 대응으로 단시간에 강원도를 돌파해 수원까지 진출한 후 국군의 퇴로를 막으려 했던 북한군의 전략은 실패했고, 북한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2군단장을 직위 해제함과 동시에 제2·7사단장도 경질했으며, 7사단을 북한군에서 제명했다. 이렇듯 춘천전투는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언제든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임을 전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러한 춘천대첩의 의의와 몸 바쳐 싸운 호국영령들을 기리고자 2000년 6월 26일 소양강 변에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을 조성했다.

2) 춘천수복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었고, 9월 16일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총 반격전이 시작되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고 29일에는 중앙청에서 환도 수복식이 거행되었다.

한편 춘천지역에서도 계속 북진하여 10월 4일, 제2연대 제1대대(대대장 석순천

26) 김영호, 「한국전쟁시 춘천전투의 세계사적 의의」, 『전사』3, 2001, 106~107쪽 참조.

대위)는 이날 17시 정각 소양강을 도하하여 말고개(춘천 서북쪽 18㎞ 지점)를 목표로 진격하면서 패주하는 북한군의 뒤를 따라 계속 격파하고, 북한강의 모진교를 경계로 적과 대진하여 교전 중이었다. 이로써 제6사단 선봉대인 이 대대는 모진교만 건너선다면 5년간이나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게 하였던 한 많은 38선을 무너뜨리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었다.

제2연대 제2대대(대대장 문정식 소령)는 13시에 차량으로 원주를 출발하여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 쪽으로 급진 중이었으며, 제3대대(대대장 송대후 소령)는 춘천 부근의 외곽경계와 수색임무에 임하고 있었다.

제7연대 제1대대(대대장 김용배 중령)는 춘천시내에 집결하여, 다음 진격을 위한 부대정비 중이었으며, 제2대대(대대장 김종수 중령)는 16시 현재로 춘천시내를 감시할 수 있는 춘천 남쪽 수리봉과 652.1고지를 점령, 확보하면서 계속 출몰하는 북한군 패잔병에 의한 반격, 또는 기습에 대비하였다.

제19연대(연대장 김익열 대령)는 홍천에 집결하여 부대정비 중인 제1대대(대대장 허용우 소령)로 하여금 가평-춘천 간의 경춘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날 16시에 차량 편으로 홍천을 출발하게 하여 가평 쪽으로 전진토록 하였는데, 대대는 진격 도중 15시에 이르러 북한군 패잔병 100여 명으로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대대장은 곧 부대를 수습하고, 이 북한군을 일제히 격파하는 즉시로 계속 가평 쪽으로 전진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김욱전 소령)는 홍천지구 경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연대본부와 제3대대(대대장 박철 소령)는 11시에 홍천을 출발하여 16시까지 춘천에 진출하여 자체경계와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 춘천 수복 후 처음 맞는 경찰의 날 기념행사 행진 장면(강원경찰청 제공)

사단사령부도 사단 주력의 진격에 따라 17시 홍천으로부터 춘천으로 전진하였다.

10월 5일, 말고개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던 북한군은 제2연대 제1대대(대대

장 석순천 대위)의 기호지세(騎虎之勢)와 같은 공격으로 지리멸렬(支離滅裂) 되어 북쪽을 향하여 패주하는데 분주하였다. 대대는 15시 말고개 일대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38선에서 최후 발악을 시도하던 북한군을 완전히 분쇄하고 38선을 넘어서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날 차량으로 원주를 출발한 제2대대(대대장 문정식 소령)는 춘천을 경유하여 이날 새벽에 춘천 북쪽 용산동까지 진출하였고 제3대대(대대장 송대후 소령)는 계속 춘천 외곽경계에 임하면서 부대를 정비하였으며, 곧이어 제1대대와 제2대대의 뒤를 따라 말고개 쪽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국군은 1950년 10월 4일 춘천을 수복하고 10월 5일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3) 마석피란과 1.4후퇴 그리고 재수복

춘천에는 11월 18일 '마석피난'으로 불리는 춘천 재침이 있었다. 동해안을 기습 공격하던 북한군 패잔병이 금강산으로 집결했다가 대부대를 만들어 철원·평강·화천·양구를 거쳐 춘천으로 다시 침공한 것이다. 북한군 패잔병의 규모는 제2군단 약 1만 명으로 국군의 북한 진격으로 방위가 허술한 틈을 타서 11월 14일 양구를 점령하고 춘천 교외선까지 들어왔다. 춘천지역 방위에는 군경을 합쳐 약 2천 명이 임했다. 11월 18일 춘천 주민들은 홍천 방면과 신남방면에 북한군이 나타났으므로 광판리를 거쳐 홍천강을 건넜다. 춘천지역의 군경은 시가전을 치르고 춘천 서면 안보리를 거쳐 가평·설악방면으로 후퇴하여 청평에 집결했다. 양구에서 철수한 전경 제9대대도 신남에서 9시간 접전 끝에 활로를 열고 청평에 집결했다.

이에 11월 18일 춘천시민들은 수복 한 달 만에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춘천 피난민들은 일단 마석으로 모였다. 강원도청도 마석으로 피난해 피난민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패잔병에게 빼앗겼던 춘천은 2주일 후인 12월 2일 우리 군경부대의 반격으로 다시 탈환했다. 뒤이어 도 본청도 수복했지만 일부 직원은 마석에 남은 피난민 문제와 내무, 보사 등 중앙관서와의 연락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가 1.4후퇴를 맞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모든 전선에서 빠르게 북진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10월 17일 원산을, 서부전선에서는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였고, 10월 26일에 국군 제

6사단이 초산을 점령하여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곧 끝날 것 같던 전쟁은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야간을 이용해 엄청난 인원으로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새로운 적들에게 국군과 유엔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12월 5일 국군은 평양을 포기해야 했으며, 유엔군의 철수명령에 따라 38선에서 결전태세를 갖추게 하였으나 12월의 총 퇴각으로 전선에서 후퇴가 계속되었다.

전선이 다시 밀리기 시작하자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일반 주민들에게 일찌감치 소개령이 내려졌다. 강원도청 및 경찰국 등 관공서와 춘천지역 주민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른 것은 1951년 1월 1일이다. '1.4후퇴'의 고난은 영하 15~16도의 혹한 속의 피난길이어서 더욱 고생이 많았다. 강원도 피난민들은 6.25전쟁 당시의 교두보가 대구와 부산이었음을 감안하여 모두 발길을 부산을 향한 남쪽으로 돌렸다. 중공군의 신정공세 당시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중공군의 남하는 1951년 2월 초 오산, 제천, 영월, 삼척을 잇는 선에서 일단 저지되었다.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방향을 바꾸고 총반격을 가했다. 전세는 다시 국군과 유엔군 측에 유리해져 3월 13일에는 국군 1사단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고 점진적인 북진을 계속하여 3월 24일에 38선을 돌파했다

강원도의 경우는 3월 1일 원주가 제일 먼저 수복되고 강릉이 3월 22일, 영월, 횡성이 24일, 이어서 정선, 평창을 탈환하고 4월 4일까지 춘천, 주문진 등 38선 이남의 전 지역이 수복되었다. 그러나 접경지역인 춘천, 홍천 등은 작전상 이유로 일반 주민들의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27]

2. 춘천지역 기독인들의 피난과 예배

1) 기독인들의 피난

춘천지역에서는 6월 27일 아침부터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양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우두감리교회는 달랐다. 당시 우두동

27) 『강원도사』9(광복과 분단), 460~462쪽.

에서 38선까지는 직선거리로 10km 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다. 6월 25일 주일 새벽,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별안간 교회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흔들리는 포성 3발이 울렸다. 새벽예배 후에 처음 듣던 포성이 연발로 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전국 모범 주일학교로 선정되어 총리원 교육국 간사인 한평룡 목사가 우승기 수여식을 위해 참석한 주일예배는 아이들을 찾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많아 이진호 전도사가 우승기만 받고 아이들은 돌려보냈다. 11시 장년예배는 예정대로 드리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국군들이 북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와서 소양강을 건너 피난가라고 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규붕 장로

전쟁 발발 몇 시간 후 북한군은 우두동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이진호 전도사는 가족들을 피난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되어 다시 소양강을 건너려 하였지만 헌병의 통제로 다리를 건널 수 없게 되자, 소양강 북쪽으로 가서 헤엄을 쳐서 우두교회로 갔다. 교회에 돌아와 보니, 이규붕 장로만 남아있었다. 교회설립 때부터 죽도록 충성하던 신실한 종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한사코 거절하여 혼자 다시 강을 건너와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훗날 그는 다시는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6.25전쟁이 일어난 후 우두교회 첫 순직자였던 셈이다. 그의 강직한 신앙으로 보아 공산당에게 끌려가 순직했으리라 생각된다.[28]

6월 25일 당시 교회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는 자료가 있다. 1919년 이후 6년 동안 춘천 선교부 소속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마리온 스톡스(Marion B. Stokes. 도마련)의 아들인 찰스 스톡스(Charles D. Stokes, 도익서)의 선교편지다. 아들 스톡스는 1947년 12월부터 원주 선교부에 배속되어 원주와 춘천과 강릉과 횡성 등 강원도지역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28) 『우두교회80년사』(디자인나무, 2011), 참조.

일본으로 피신해 있던 그는 서울이 수복된 뒤인 1950년 11월 20일에 서울에 도착했으며, 마침 이곳으로 피신해 있던 춘천중앙교회의 목사이던 박내철 목사를 만난다. 그리고 춘천의 상황과 그의 피난 소식을 상세하게 선교편지에 담았다. 6월 25일의 상황을 박내철 목사의 증언을 통해 스톡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6.25전쟁은 다른 곳보다 춘천에서 먼저 터졌는데, 그곳은 도청 소재지로서 박내철 목사가 그곳 중앙감리교회 목사이자 춘천지방감리사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주일을 맞아 예전처럼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멀리서 총소리가 들리는 중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시 예배도 예전처럼 들렸는데, 전투 소음이 점점 가까이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니 전쟁이 일어난 것은 분명했고 그래서 교인들은 피난을 가려 짐을 싸느라고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방송은 고무적인 것이어서 박목사와 그의 가족은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점심 때 교회와 목사관 주변으로 총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급하게 짐을 꾸린 박목사는 몸이 불편한 장모를 등에 업고 만삭인 그의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던 조카, 그리고 10살, 7살, 3살짜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운 남쪽마을로 걸어서 피난하였습니다.*[29]

라고 하여 소양강 이북지역과는 달리 남쪽지역에서는 11시 예배를 예전처럼 드리고 다음날에야 피난준비를 하거나 피난을 떠났다. 어떻게 총소리가 나는데 새벽기도회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드릴 수 있었을까? 전투소음이 점점 가까이 들리는데도 어떻게 11시 예배도 예전처럼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춘천시민들이 1949년 이래 부쩍 많아진 북한군의 도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1949년 9월에만 북한군이 67회나 내습(來襲)했다고 기록하고 있다.[30] 늘 전방에서 들리는 총격전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동쪽과 북쪽에서 기습하는 북한군을 피해 춘천시민들은 석사동-원창고개를 거

29) C. D. Stokes, "Dear Friends"(Nov.27, 1950). 『춘천중앙교회사』, 450~51쪽에서 재인용.
30) 『동아일보』(1949.10.13), 「춘천지구전투 9월에 67회」.

쳐 홍천으로 남하하거나, 남춘천으로 해서 남산면 광판리, 홍천군 서면 반곡리를 거쳐 경기도 용문 쪽으로 행렬을 움직이기도 했다.

동부장로교회의 성도들도 "아무도 남침을 모른 채 평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여 이전에 있었던 북한군과의 교전 정도로만 간주하고 "오늘도 그러려니"하는 마음으로 평온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전쟁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오후가 지나면서부터였지만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저녁예배까지 드렸다. 당시 요선동에 살고 있던 원창규 장로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후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였는데, 이때 피난을 가야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김유찬 목사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 마석으로 피난을 하였다가 10월 2일 국군에 의한 춘천의 탈환과 함께 다시 춘천으로 돌아왔다.[31]

그러나 1950년 11월 18일 1만 명의 패잔병들이 춘천을 공격하자 춘천에 있던 사람들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피난은 첫 번째 피난과는 달랐다. 첫 번째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피난을 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피난길에 나섰다. 북한이 점령한 기간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동안 겪었던 고난 때문이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처절했으며, 이것은 외국인 선교사(스톡스)가 보기에도 그랬다

> *춘천이나 서울, 원주, 개성, 수원, 천안, 이천 같은 도시, 심지어는 대전까지도 완전히 비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모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색출 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와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피신하고 교인들은 흩어졌기에 교회 생활은 완전히 중단된 형편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엄청난 피난민 군중을 구제하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32]

---

31) 『동부교회 70년사』, 213쪽.
32) C. D. Stokes, "Dear Friends"(Feb.7, 1952), 『춘천중앙교회사』, 456쪽에서 재인용.

라고 하였다. 1951년 4월 4일에 춘천은 완전히 수복되었지만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3개월 동안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피난하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주요 이동 선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시가지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당시 춘천의 중심부는 전소되고 남은 곳은 소양로2가 기와집골과 요선동 언덕 위의 일식 건물, 약사동 천주교회 건물 등 일부만 남아있었다고 한다.[33]

2) 기독인들의 수복 신앙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9·28수복이 성공하여 북쪽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전선은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하를 계속하여 1951년 1월, 다시 서울을 내주고 말았으니 '1.4후퇴'로 알려진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혹독한 '공산치하'를 경험했던 남쪽 사람들은 이번에는 북한군이 들어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 남쪽으로 피신하여 정작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는 '공동'(空洞) 상태의 서울을 접수하였다. 그 바람에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길은 지난번보다 더욱 힘들고 길었다. 특히 1차 침공 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기독교인들은 북한군이 접근해 오자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춘천은 서울보다 사흘 빠른 1951년 1월 1일에 다시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원주를 점령하고 제천까지 내려갔다가 2월 국군과 유엔군의 대반격으로 전선은 다시 북상하였고 춘천은 4월 4일에야 수복되었다. 이후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철원과 김화, 화천, 양구, 인제를 잇는 전선에서 양측의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었다.

춘천과 춘천지방 교회들이 당한 시련과 피해는 심각하였다. 춘천중앙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스톡스(Charles D. Stokes) 선교사는 서울과 원주, 대전 등 '수복지구' 교회 형편을 둘러보고 그 실상을 미국 교회에 알리며 교회 복구와 피난민 구제를 호소하였다. 그런 식으로 스톡스는 1951년 3월, 부산을 떠나 대구와 대전, 연산, 온양, 천안을 거쳐 서울을 다녀왔으며, 5월에는 박신오 감리사와 함께 원주

33) 유현옥, 『춘천의 근대거리를 거닐다』, 문화통신, 2015, 31쪽 참조.

와 제천, 매포, 신림 등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열흘에 걸쳐 강원도 지역 교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교인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예배당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톡스 선교사는 여러 곳의 전쟁 참화를 확인하고 춘천을 방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파괴되어 폐허가 된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교회 몇 곳이 소실되었는데 우리 교인 작은 무리가 신실한 속장 집에서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시련과 곤경이 닥쳤지만 교회는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34]

스톡스는 두 번째 피난 시기에도 춘천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소수 교인들이 '신실한'(faithful) 속장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곤경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pushing forward) 춘천 교인들의 신앙을 읽었다.

이들이 속장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요선동에 있던 예배당이 파괴되었던 때문이었다. 박내철 목사가 공산 게릴라의 공격을 피해 춘천을 떠난 1950년 11월 18일 당시까지만 해도 요선동 예배당 건물은 무사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산발적인 전쟁으로 예배당 건물은 물론이고 봉의동에 있던 선교부 건물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옥천동에 있던 2층짜리 선교부 병원 건물도 폭격을 맞아 지붕과 2층이 날아가고 1층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에 남아있던 '작은 무리'(a small group)가 속장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춘천의 소수 교인들은 속장 집에 모여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피난 간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식으로 춘천중앙교회는 전쟁으로 인

34) "Excerpts from letters of Charles D. Stokes"(Dec. 10.1951), 『춘천중앙교회사』 459쪽에서 재인용.

한 파괴와 죽음, 폐허와 절망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다.

한편, 춘천중앙감리교회 이외에도 대부분의 교회가 소실되거나 파괴되어 임시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

우두감리교회 교인들이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52년 3월부터이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 우두동 267번지 김동근 씨 개인주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후에는 이윤석 목사댁 4칸 마루방에서 예배를 드렸다.



후평교회 유철신 목사 가정예배처에서 예배드린 후 기념
(1952년 12월 25일)



춘천중앙성결교회(수복 후 요선동 임시교회
여름성경학교, 1952년 8월 3일)

후평감리교회(현 신성교회)는 수복 후 김종철 선생(이후 장로)이 친지에게 돈을 빌려 구입한 기와집 12칸과 초가 7칸을 예배처소로 활용하여 당시 10여 명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유철신 목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전시 중인데도 춘천중앙교회 소속의 김우종 목사(당시 강원일보 사장)가 후평교회를 돌보다가 김수연 선생(1955년 이후 전도사)이 후평교회에서 목회하였다.

석사감리교회도 예배당이 불타고 교인들이 흩어졌다가 수복이 되었을 때는 천막 예배당에서 예배드렸고 흙벽돌로 된 3칸 주택을 짓기도 하였다.

춘천중앙성결교회도 북한군의 남침으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김규호 목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산 등지로 피난을 갔다. 1952년 5월 피난에서 돌아온 소

수의 성도들은 부산에 내려가 김규호 목사를 모시고 올라와 요선동 임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홍순각, 최정화, 신덕기 등이 김규호 목사를 도와 교회를 재건하였다. 이에 전시 중인데도 여름성경학교 등을 계속 운영하였다.

장로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 춘천동부장로교회는 전소되어 흔적도 없었고 춘천제일장로교회도 예배당이 전소되어 1951년 4월 낙원동 58번지에 있는 조덕진씨 집터에 판자교회를 신축하고 이현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였다. 성광장로교회는 1953년 요선동 마루턱에 있는 적산가옥촌의 빈터를 사들여 목조로서 큰 건물을 세웠는데, 주도 인물에는 최준성, 오모씨, 김모씨 등이 있고 초대 목사로는 평양 신학 출신의 임정묵을 초빙, 시무케 하였다.

침례교회의 경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4월 5일 춘천에서는 이우영 목사가 5명의 교인(한이남·한태봉·성기범·성봉래·이창을)과 함께 옥천동에서 개척예배를 드리면서 춘천교회가 출범하였다. 1954년 봄에는 미군 목사인 로렌스 외 미군부대 교인들의 헌금으로 낙원동 21번지의 대지 305평을 매입하고 천막예배를 드렸다. 1년 후인 1955년 봄에는 미군부대의 보조를 받아 예배당 58평을 신축하면서 본격적인 교회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후 옥산포교회와 샘밭교회도 세워졌다.

대한성공회 춘천교회도 1949년에 건립되었으나 6.25전쟁 중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구세군은 1954년 가을 서울 지방장관 권경찬 사관이 춘천영문 재건을 위하여 충북 영동영문 심숙 부교와 함께 현지답사를 하고, 본영에 건의하여 1954년 10월 30일부로 허락을 받아 춘천시 소양로에 건물 2층을 얻어서 시작하였다가, 1955년 6월 11일 제36기 졸업생 안상호 견습참위 동부인을 파송하여 정식으로 개척하였다.

이렇듯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와 장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남은 춘천의 소수교인들은 파괴된 시가 속장 집 등에 몰래 모여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피난 간 성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비록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수복된 춘천에 돌아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대한성공회 등의 그리스도인들은 반파된 선교부 건물이나 판자 교회, 천막 예배당 등에서 우선 예배부터 드리는 참믿음의 성도 모습을 보였다.

3절 전화복구와 예배당 건축

1. 폐허가 된 춘천과 교회예배당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전개된 6.25전쟁은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대한민국과 유엔군 전사 178,569명, 부상 555,022명, 실종 28,611명, 포로 14,158명 등 총 776,360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대한민국만을 보더라도 전사 137,899명, 실종 24,495명, 포로 8,343명 등 총 621,479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도 사망 244,663명, 학살 128,936명, 부상 229,625명, 납치 84,532명, 행방불명 303,212명 등 총 990,968명의 피해와 함께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35]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도로·주택·철도·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과 산업시설 등이 대부분 파괴되어 전쟁 복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6.25전쟁은 세계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제1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비참한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36]

6.25전쟁은 남북한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기독교인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순교하거나 납치당한 교역자들이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구세군 6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외에도 남궁혁, 송창근, 박현명, 김영주 목사 등 200여 명에 이르는 남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북으로 끌려가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37] 가톨릭에서도 남북한을 합쳐 한국인 52명(교구장 1, 신부 40, 수녀 7, 신학생 4)의 희생자가 있었고 외국인 98명을 포함하면 150명이 희생되었다.[38] 또한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학살당한 기독교인은 849명, 피랍된 사람은 177명 등 희생자가 총 1,0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

3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참조.
36) 6.25전쟁시 피난민 보호활동에 대한 연구-노근리사건과 흥남철수작전을 중심으로-, 『군사연구』144집, 2017, 247쪽.
3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 출판사, 1993, 526쪽.
38) 정진석, 「피살·납북된 목사·신부 등 358명 명단 발굴」, 『월간조선』 2003-10 참조.

생자별 분류를 보면 집단희생 572명, 개인희생 277명, 납북 177명이었다.[39]

이러한 사항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파손된 남·북한 교회의 피해 상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50년 초 한국교회는 12~15만의 성도와 900여 명의 목회자,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장로교의 경우, 완전소실된 교회 152개, 파괴된 교회 467개로 합계 619개 교회였고 감리교의 경우, 완전소실된 교회 84개, 파괴된 교회 155개로 합계 239개 교회였으며, 성결교의 경우, 완전소실된 교회 27개, 파괴된 교회 79개로 합계 106개 교회, 구세군의 경우, 완전소실된 영문 4개, 파괴된 영문 4개로 합계 8개 영문이었다. 이것을 합치면, 완전소실된 교회 267개, 파괴된 교회 705개로 합계 972개 교회가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40]

한편, 6.25전쟁 기간을 통해 학생의 신분으로서 출전하여 순국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394명이고 그중에서 강원도 학생은 8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전몰학도들을 출신교별로 보면 횡성고, 태백고가 각 19명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춘천고 9명, 춘천사범 7명, 강릉농 6명, 강릉사범과 강릉상 각 5명의 순이다.[41]

월남인들도 많았다. 월남민들은 크게는 1946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미군정 기간중에 나온 사람과 6.25전쟁 후 1.4후퇴 때 우리 국군 및 유엔군과 함께 남하한 사람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 수에 있어서는 1.4후퇴 때 나온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주류를 이룬다. 강원도 내에 정착한 월남민은 1972년 말 현재 총 28만 4,900명으로 이북5도 강원도연락사무소는 집계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1일의 강원도 인구 186만 3,000명의 15%에 해당된다.

출신지별로는 함경남도가 가장 많은 13만 7천 명으로서 절반에 가까우며 다음이 평·남북, 황해, 함북 등이 비슷한 형편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속초를 비롯한 고성, 양양, 명주(주문진, 묵호), 삼척 등 영동지방과 휴전선에 인접한 양구, 화천, 철원, 인제 등과 춘천, 원주 두 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살고 있었다.[42]

---

39) 박명수, 「현대기독교연구소 "6.25전쟁에서 북한이 기독교인 849명 학살" 발표」, 『크리스찬연합신문』(2022.2.22).
40) 「기독교공보」(1952.6.30), 이상용, 『기독교연감』, 배합출판사, 1969, 37쪽. 김병희, 「한국전쟁 당시 대구·경북지역 교회의 피해와 활동」, 『영산신학저널』54, 2020, 276쪽 참조.
41) 『강원도 비사』, 강원일보사, 2007, 128쪽.
42) 위의 책, 134쪽.

강원도의 경우에는 분도(分道)임과 동시에 38선 접경지라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강원도에는 11개 군(郡)에 피난민(避難民) 22,705세대 120,187명과 전재민(戰災民) 84,554세대 500,490명 등 총 107,259세대 620,677명이 있었다. 이 중에서 춘천에는 피난민 2,598세대 11,926명, 전재민 5,403세대 27,548명 등 총 8,001세대 39,478명이 있었다. 당시 춘성군에도 피난민 933세대 3,590명, 전재민 8,454세대 42,633명 등 총 9,387세대 46,223명이 있었다. 즉 두 군의 통합 춘천에는 85,801명의 난민이 있었다.[43]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에서의 2년 넘게 피아의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을 치렀으므로 38선 이북에 살던 철원·김화·화천·인제·양구·고성·양양 심지어 춘천지역(홍천 이북지역민 소개령) 사람들도 고향에 갈 수 없었다. 이에 이들 피난민들은 원주지역에 몰려들었고 원주군청 자리에서 피난도정을 펼치던 강원도청은 강원지역에 10군데의 피난수용소를 설치하였다.

1954년에 발간된 『도세일람』에 의하면, 도내 피난수용소 현황은 원주제1수용소 9,557명, 원주제2수용소 4,662명, 서곡수용소 3,913명, 흥업제1수용소 4,503명, 흥업제2수용소 1,543명, 귀래수용소 4,217명, 부론수용소 3,157명, 문막수용소 1,009명, 지정수용소 1,397명, 주문진수용소 1,693명이었다.[44]

춘천 같은 경우는 1950년 6월 25~27일 초기 3일 전투와 북진에 따른 수복, 1950년 마석피란,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1.4후퇴와 재수복,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 38선 부근에서 밀고 밀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었다. 따라서 교회 예배당 건물도 온전한 것이 없었다. 특히 1.4후퇴 이후 전개된 춘천지역에서의 수복전투로 춘천지역은 시내전체가 거의 파괴될 정도였다.

먼저, 감리교회의 피해를 보자. 당시 춘천지역 감리교회는 춘천중앙교회, 우두교회, 석사리교회, 퇴계리교회(현 안디옥교회) 등이 있었는데, 모두 완파되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천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초기 전투에서는 완파되지는 않았지만 1.4후퇴와 수복전투에서 대부분 파괴되었다. 중앙교회 역시 마석피난(1950.11.18) 때까

43) 강원도, 『도세일람』(단기 4287년; 1954), 90쪽 참조.
44) 위의 책, 94쪽


폐허가 된 춘천(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 1951년 4월 4일)

지만 해도 무사했지만 예배당 건물은 물론이고 봉의동에 있던 선교부 건물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옥천동에 있던 2층짜리 선교부 병원 건물도 폭격을 맞아 지붕과 2층이 날아가고 1층만 남았다. 1953년 3월 대전제일교회에서 열린 연회에서 춘천지방으로 임명받아 지방의 교회를 순회한 박내철 목사의 동부연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25사변의 톱질전쟁이 빚어낸 강원도 춘천시 춘천군, 홍천군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을 포함한 본 지방의 파괴의 도(度)는 여지없이 물심양면으로 재건하기 다대(多大)한 곤란을 느끼는바,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의 역사는 폐허 속에서도 새 생명의 싹을 트고 말았습니다. 불초거반연회(不肖去般年會)에서 미수복지인 춘천지방에 단독임명을 받고 지방을 순회해 보니, 세 곳만 반파 정도로 남았을 뿐이요 25교회 예배당과 15기도처와 주택 및 부속기관건물 전부가 전소전파(全燒全破)의 참상(慘狀)이었고 신자불신자간(信者不信者間)에 대하는 이마다 눈물의 대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6구역 26교회 19기도처와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신 15명의 남녀교역자로서 지방을 이루어 동력자의 피어린 노력과 전쟁에 날아간 물질에 미련을 두던 평신도제위(平信徒諸位)도 주안에서 소망을 품고 현실의 비참한 폐허 속에서 살면서 이 민족을 살리고 건질 방주를 만들어 보고 싶은 간절한 의욕으로 폐허와 도전한 결과 가건물(천막 등등)이나마 12개소의 예배당을 세웠고 교회 임원수 260명, 신자수 2,600명(남자 800명, 여자 1,800명), 주일학생수 4,500명으로 앞으로 떨어짐보다 올라갈 것만 기대되는 본 지방 형편을 생각할 때 기쁨을 주께 돌리면서 이 보

고를 드립니다.[45]

라고 나오는데 거의 모든 교회와 기도처, 그리고 사택 및 부속기관 건물들이 전소되거나 전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건물이나마 12개소의 예배당을 짓고 신자가 2,600명, 주일학교 학생 수가 4,500명이나 있기에 희망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두교회 역시 소실되었다. 1948년도 증축까지 하면서 전도열에 불탔던 예배당은 소실되고 목회자도 없고 교인들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다. 본격적인 교회 모습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에 피난 갔던 교인들이 돌아온 이후에야 교회가 점차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46]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자 우두동도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피난갔던 교인들도 돌아와서 교회는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방회에 교역자 파송을 요청하여 1953년 연회에서 김료배 전도사를 우두교회 담임자로 파송하였다. 1954년에는 이재선 전도사가 우두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되어 65평 예배당을 건축하여 1955년 5월 20일 류형기 감독을 모시고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이재선 전도사 후임으로 조신환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를 섬겼다.

석사리교회의 교인들도 피난지에서 돌아와 정착하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배당이 불에 타 없어졌기에 모든 것을 새로 마련해야 했다.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던 때라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석사리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우선 김광예 성도의 집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신앙의 맥을 잇는 활동에 들어갔다. 세 분의 원로권사들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50년 6.25사변으로 성도들은 전도사를 모시고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양 전도사는 다른 곳으로 가시고 1년 후 이봉달 속장이 귀향하였으나 교회는 불타 없어졌고 전쟁의 잔해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

45)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및 동부중부연합연회 회의록』(1953), 76쪽.
46) 김진형, 『우두교회 80년사』, 디자인나무, 2011, 134~135쪽.

모여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기도로 장이선 전도사와 함께 석사동 491번지에 천막교회와 주택 칸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47]

곧 전쟁으로 피난을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와 기도처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 석사리교회를 재건했다는 것이다.

춘천제일장로교회도 교회당이 전소되어 1951년 4월 낙원동 58번지 조덕진 씨 터에 판자교회 신축하고 이현보 목사(4대)가 예배를 인도하였다. 1952년 9월 성수고등공민학교 설립(초대 교장 이진촌)인가를 받았다. 1954년 1월 15일 낙원동 58번지에서 교회를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춘천동부장로교회도 전소되어 1952년 3월 1일 조양동 137번지의 동산(현 춘천동부교회 자리)에 판자집으로 된 47평의 임시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월 7일에 준공하고 비로소 '춘천동부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

1954년 5월 25일 원주읍중앙교회에서 강원노회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 10년 동안 동부교회 임시목사였던 김유찬 목사는 위임목사가 되지 못한 상태여서 5월 23일 주일에 위임식을 가졌다.



춘천동부교회 간판이 걸린 판자교회 앞에선 김유찬 목사 내외와
김유찬 목사 위임식 후 기념모습(1954년)

47) 『춘천석사교회』, 1992. 3쪽.

한편, 광복 후인 1947년 교단은 총회를 재건하고 1949년 4월 22일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바꾸었다. 1952년 9월 11일 고려신학교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노회를 조직하여 분리해나가고 1953년 6월 10일 조선신학교 측이 대한기독교장로회를 조직하여 분리해나갔다. 1959년 9월 28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 분리해나갔으며, 그 이후 50개가 넘는 교단이 생겼다.

강원지역에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나뉘어, 영서지방은 강원노회로 영동지방은 강동노회로 두 노회가 각기 탄생되었다.

먼저 강동노회는 1953년 4월 24일 대구시 서문교회에서 개최된 제38회 총회에서 당시 경안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영동지방이 분립되어 강동노회로 창립케 되었고, 동년 8월 11일 제1회 강동노회를 장성중앙교회에서 개최하였다. 당시 노회원은 목사 3명, 장로 6명으로 도합 9명이었고 노회의 초대 회장에 전병홍, 부회장에 강인수 목사가 선출되었다.

그 후 1년이 지난 1954년 4월 12일 경북 안동교회에서 개최된 제39회 총회에서 당시 경기노회에 속해 있던 영서지방이 분립하여 강원노회로 탄생되었다. 동년 5월 25일 원주읍 중앙교회에서 목사 8명, 장로 5명 도합 13명이 모여 강원노회 창립노회를 개최하고 초대 노회장에 임춘성 목사, 부노회장에 김유찬 목사를 선출하였다.

춘천동부교회에서는 1955년 1월 24일 당회에서 예배당 건축에 관한 내용이 결정되어 조양동 137번지에 지어진 예배당은 새로운 예배당이 건축될 때까지 예배장소로 필요했기에 사택을 헐고 예배당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955년 4월 5일에 72평의 붉은 벽돌 예배당이 착공되어 1960년 7월 2일에 헌당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당 건축은 끝이 났다. 이 예배당이 완공되기까지 공병부대의 지원이 컸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제2군단(제2군단장 함경선 장군)에 협조를 구하였는데, 공병부대는 장비의 지원과 함께 직접 건축에 참여하였다. 기초 공사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춘천동부교회의 붉은 돌 예배당은 그들의 수고와 땀이 깊이 스며든 헌신에 의해 세워졌다. 특히 육군 제2군단장 장도영 장군과 함경선 장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평 72평에 벽돌집으로 착공 공병 600명 동원과 건

축자료 총액 545만 환으로 완성된 것이라 한다.[48]

물론 교인들의 자원봉사도 감통 그 자체였다. 교회에 올 때마다 벽돌을 날랐을 뿐만 아니라,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돌들을 소양강가에서 날랐으며, 심지어는 여신도들도 모래를 나르는 등 한국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몸연보'를 아낌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2. 춘천지역의 교회 재건

감리교의 경우, 스톡스 선교사는 1952년 2월 7일 자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전쟁 전에) 한국 감리교회는 대략 12만 명으로 추산되었는데 그 중 약 5만이 주일학교 학생이고, 1만 7천 명은 세례교인이며, 나머지는 학습인과 원입인이었습니다. 연회원은 157명, 준회원은 60명, 미파 140명, 협동회원은 20명, 전도부인 120명가량이었습니다. 이중 연회원 26명이 북한군에게 납치되었는데 모두 교회의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 많은 우리 교회 목사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피살당하였습니다.*[49]

스톡스의 보고대로 전쟁 2년 동안 한국은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파괴된 예배당과 기독교 기관이 입은 물적 피해는 말할 것 없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인적 피해였다. 특히 1차 침공 때 미처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납북, 희생된 감리교 목회자들이 많았다. 일제강점 말기 춘천교회에서 목회하였던 조상문 목사를 비롯하여 양주삼·김유순 감독과 김희운·방훈·차경창·정달웅·박만춘·심명섭·박연서·서태원·전효배·서기훈·한사연 목사 등 감리교회 지도급 '중진' 목사들

48) 『동부교회 70년사』, 242~245쪽.
49) "Korea Letter"(Feb.7.1952)(『춘천중앙교회사』 459~460쪽 재인용).

이 대거 전쟁 중 납북 혹은 행방불명되었다.[50]

전쟁 전인 1950년 4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동부·중부 연합연회 때는 회원 370여 명이 모였는데, 전쟁 후 1951년 11월 부산에서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및 특별총회가 열렸을 때는 66명밖에 참석하지 않아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 갈 김유순 감독을 비롯하여 총리원 임원과 이사들이 대거 납북된 것이 가장 큰 피해였다. 그리하여 1951년 11월 2일 부산에서 열린 특별총회는 총리원 임원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교육국 총무 유형기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고 총리원 지도부와 각 연회 및 지방회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춘천지방 파송 현황은 다음과 같다.[51]

춘천지방 감리사 : 박내철 목사
춘천중앙구역 : 박내철 목사
홍천동구역 : 이종원 전도사
홍천구역 : 차현회 전도사
특별파송 : 라사행 목사(군목) 스톡스 목사(지방 선교사)

춘천 이북지역인 화천과 양구·인제지역은 여전히 '전투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역자 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1952년 3월에 춘천남부지역인 춘남구역에 조삼룡 전도사, 성남구역에 정준범 전도사, 홍천남구역에 김효섭 전도사, 가평구역에 이윤석 목사를 파송함으로 춘천지방 목회 진용이 보강되었지만 춘천북부지역은 여전히 '미파구역'으로 남았다.

박내철 목사는 '미수복지구'인 춘천지방에 단독임명을 받고 지방 내 교회들을 둘러보았고, 그때 지방 교인들과 '눈물의 대면'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둘러볼 수 있었던 곳은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춘천시와 춘성군, 홍천군이 전부였다. 과거 춘천지방에 속했던 화천이나 양구, 인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전쟁 전에 있었던 예배당

50) 『대한감리회보』(1952.1.1), 「순교 또는 피납 교역자 명부」.
51) 『대한감리회보』(1952.1.1), 「임명기」.

중에는 단지 세 곳만 건물이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반파된 상태였고 나머지 40곳은 예배당과 사택 등 부속 건물까지 완전파괴되어 비참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내철 목사는 1년 내내 지방 교회들을 순회하며 교회 재건 작업을 지휘하였다. 그가 춘천지방 감리사로 파송된 1951년 11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1년 동안 춘천지방 교회들의 예배당 수리는 모두 12곳에서 이루어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경우, 수복 후 요선동 한옥(중앙교회에서 400~500m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다가, 1층이 남아있던 병원건물에 2층을 올리고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임시로 예배를 드렸다. 1955년 미 선교부의 복구 보조비 480만 원과 헌금 120만 원으로 남선교부 병원건물(붉은벽돌 건물)을 인수하여 교회를 재건(현 옥천동 춘천미술관)하였다.

후평리감리교회(현 신성교회)의 경우, 역시 미군 공병대의 후원과 김종철 선생(훗날 장로)의 노력으로 지어졌다. 김종철 선생은 친척의 밭을 빌려 예배당 기지를 확보하고 우두교회 이재선 담임목사에게 부탁하여 설계도를 대충 그렸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춘천지방감리사인 박내철 목사가 춘천 대건사에게 청부를 주어 건축을 시작하였다. 후평리교회는 1954년 4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그 해 11월 초에 완공하였다.

이처럼 박내철 목사는 춘천에 귀환해서 춘천중앙교회를 재건하는 것보다 지방회를 재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 그는 1952년 3월 춘천지방에 귀환해서 처음 개최한 지방회에서 '신신자(新信者) 획득운동'을 발의하였다. 예배당 복구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본 사명인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교회의 재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춘천지방은 7개월 만에 1천 명 새 신자를 얻을 수 있었다.

『감리회보』에서는 이 사실을 "춘천지방 신신자 천 명 돌파"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중 '박춘자 권사'의 이야기가 나온다. 1951년 12월 스톡스 선교사의 여행 보고에 나오는 '신실한 속장'(a faithful class leader), 바로 그였다. 박춘자(朴春子) 속장은 전쟁 때 요선동 예배당이 파괴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소양로 2가 63번지에 있던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 살아남은 춘천의 '작은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처럼 춘천 교인들은 박내철 목사가 돌아와 반파된 상태로 남아있던 옥천동 73번지 선교부 병원 건물에 임시 천막을 치고 예

배를 드리기까지 박춘자 권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박내철 목사가 선교부와 교섭하여 병원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축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자 박춘자 권사는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 박춘자 권사의 '돼지 헌금'은 자기를 희생하여 교회를 살리려는 춘천 교인들의 헌신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춘천뿐 아니라 전국 교인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박춘자 권사는 춘천지방 부인회(여선교회) 총무로도 활약하면서 전쟁 후 춘천중앙교회와 춘천지방의 재건과 복구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춘천중앙교회도 피난 갔던 교인들이 속속 복귀함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박내철 목사는 지방 감리사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기에 춘천중앙교회 목회를 도울 협력자가 필요했다. 이에 1953년 장경순 전도사가 잠깐 와서 도왔고, 1954년부터 원복신(元福信) 전도사가 와서 5년 동안 시무하면서 교회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해 헌신하였다. 원복신 전도사는 1912년 평남에서 출생하여 1935년부터 전도부인으로 평양 선교리교회와 채관리교회에서 목회하였고, 광복 후 진남포중앙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전쟁 때 월남하여 경북 김천교회에서 시무하다가 1954년 연회에서 춘천중앙교회에 파송된 것이다.

이처럼 원복신 전도사가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을 심방하면서 속회와 여선교회, 주일학교 등 기관 사업을 복구해 나감으로 박내철 목사는 춘천지방 감리사직 수행에 보다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따라서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춘천지방은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말기와 전쟁 때 폐지되거나 없어졌던 많은 교회들이 재건되었고 교회가 없던 곳에 교인들이 생겨나 예배당을 세우는 곳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춘천지방 목회진용도 한층 강화되었다.

전쟁 전까지 춘천지방에 속했던 경기도 가평구역 교회들이 1953년 연회부터 서울동지방에 편입되어 떨어져 나가고 춘천지방은 춘천과 춘성군, 홍천군 교회들로만 조직되었는데 1952년 7개 구역이 1953년 13개 구역(미파 포함), 1954년 20개 구역으로 늘었으며, 1954년에 비로소 '미수복지구'인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의 원천교회에도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었다. 박내철 감리사는 연회 때마다 춘천지방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보고하면서 아직도 예배당이 없는 지방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 박내철 감리사가 1954년

3월, 전쟁 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연회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 *폐허화한 본 지방은 우금 미복지로 특히 교인들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격이 욱심한 바 설상가상으로 흉년으로 인한 빈궁상은 불가형언이외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 250주년 사업에 표어인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께 인도하자는 계획적인 사업이 효과적인 향상이 있음은 남녀교역자의 충성스러운 복무의 열매입니다. 본 지방은 거번 연회에 가평군 일대에 소속된 3처 구역을 타지방에 분할하고도 역시 18구역 43예배처소에 교인이 2,990명에 달하옵고 신축 예배당이 4개소입니다. 특히 본 지방 38이북 구역인 즉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일대에도 민간인이 복귀되는 바 여기에 따라 교회 재건 및 교역자 파송을 요하나 아직 춘천지방 자체로서는 경제적 면으로 도웁기 곤난한 터임으로 북진태세를 가춘 연회 및 총회에 적극적인 원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52]

1955년 3월, 역시 서울에서 개최된 연회에서 박내철 감리사가 보고한 내용도 지속적인 부흥과 발전, 지원에 대한 감사와 부탁으로 채워져 있다.

> *본 지방은 강원도 춘천시, 춘천군, 홍천군 그리고 현 중동부전선으로 수복지인 화천군, 양양군, 인제군에 걸쳐있는 경기도 가평군을 포함한 본 지방은 광대한 지역을 점하고 있습니다.*
>
> *지난 1년간 주님의 도우심과 남녀교역자의 협조하심과 모든 임원 교우들의 비상한 활동으로 무고한 중에서 은혜스러운 성장발전을 보게 됨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원래 감리사가 전임이 아니고 겸임이라 교회 일에도 불실하고 지방사업에도 여의치 못한 감이 있으나 능력 많으신 주님의 크신 역군은 모든 신도들로 하여금 주안에서 소망을 품고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재건의욕에 불타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세로 일층월가하는 것을 보게 됨은 재삼 감사드리게 됩니다.*

52)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연합연회록』(1954), 184쪽.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회의 모습과 회원일동 기념
(1955년 3월 17~20일)

먼저 지방 정황을 통계상으로 볼 때 구역 수 26, 교회 수 35, 기도처 16, 교역자 남 25, 여 11, 계 368. 신도 수 남 1,026, 여 2,067, 계 3,093명. 주일학교 학생 수 남 2,360, 여 3,424, 계 5,784명이고 다음으로 지방 내 복구상황을 볼 때 신축예배당으로 완성봉헌예배당수 15, 신축중에 있는 예배당 수 6인데, 이는 6.25 사변의 톱질 전쟁으로 인하여 예배당, 주택 및 부속기관건물 전부가 전소 전파되었던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AFAK물자와 총리원전도국의 보조를 받아 교인들의 피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으로 미 군목들의 투지와 우리 감리교 군목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리고 미 모교회에 의한 후원 원조와 총리원의 원조를 감사드리며 특히 선교사 쿠퍼(Cooper, Mr. Lee 구포리)씨의 협력이 컸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부흥 발전만이 있을 본 지방 형편을 보고 드립니다.[53]

"지방 내 복구상황을 볼 때 신축예배당으로 완성 봉헌 예배당 수 15, 신축 중

53)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서부남부 연회록』(1955), 55~56쪽.

에 있는 예배당 수 6인데 … 끝으로 미 군목들의 투지와 우리 감리교 군목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리고 미 모교회에 의한 후원 원조와 총리원의 원조를 감사드리며 특히 선교사 쿠퍼(Cooper, Mr. Lee 구포리)씨의 협력이 컸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부흥 발전만이 있을 본 지방형편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하였다. 1951년 11월부터 1955년 3월까지 박내철 감리사가 교회복구 등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춘천지방 감리사로서 박내철 목사의 마지막 보고였다. 그가 이 보고서를 읽은 1955년 연회에서 박내철 목사는 서울 수표교교회로 파송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내철 목사는 춘천중앙교회 목회 11년을 마치고 서울로 떠났다. 박내철 목사의 마지막 춘천 목회는 '톱질전쟁'으로 인해 완전 폐허가 된 춘천지방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되었다. 그는 3년간 춘천지방 감리사직을 수행하면서 교회 재건과 부흥을 위해 혼신을 힘을 기울였다. 지방의 가난한 교회들을 되살리기 위해 그는 미국 선교부와 총리원뿐 아니라 미군과 한국군에도 손을 벌렸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구걸 목회'를 하면서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렸다. 그 결과 춘천지방은 급속한 회복을 이룩하였다. 불과 2년 만에 16구역, 45개 교회가 26구역 51개 교회로, 15명 교역자가 36명으로, 2,600명 교인이 3,093명으로, 4,500명 주일학교 학생 수가 5,78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교회가 복구되고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교회의 선교사업도 재개되었다.

박내철 목사가 이처럼 춘천지방 복구와 재건 사업에 몰두하는 바람에 정작 자신이 담임하였던 춘천중앙교회 목회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교인 심방보다는 지방교회 순회와 외부 출장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외부에서 지원금이 오면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을 위해 쓰기보다는 예배당이 없는 지방교회와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려보냈다. 그 결과 지방 교회들은 속속 예배당을 재건하고 있었음에도 춘천중앙교회는 여전히 반파된 선교부 병원 건물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런 담임 목사의 활동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적극 협력하였다.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천막 성전'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자기보다 어려운 지방교회를 실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박내철 목사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래서 박내철 목사가 춘천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서울로 떠날 때 온 교인이 그를 잡지 못하고 '눈물로' 배웅하였다.

박내철 목사에 이어 춘천중앙교회 21대 목사로 부임한 명관조 목사의 첫 번째 과제는 춘천중앙교회 예배당 건축이었다. 그때까지 춘천중앙교회는 반파된 병원 건물에 임시 가건물(천막)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견딜 수 없는 열악한 예배처소였다.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필요했다.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요선동 예배당은 전쟁 중 완전파괴되어 그곳에 새 예배당을 지으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다.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병원 건물은 그래도 1층이 남아있어 2층을 쌓아 올리고 예배당으로 개조하면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교인들의 힘으로는 증·개축 수준의 예배당 건축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건축비를 밖에서 조달해야 했다. 그것이 명관조 목사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였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

> *그때 춘천중앙교회는 본래 병원이었으나 6.25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임시로 가건물을 세워 예배드리게 되었기에 먼저 내가 할 일은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비가 오면 가건물이었으니 만큼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 들어오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교부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용인즉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교회에 재건할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새로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는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사실을 말한 후 곧 건축비 500만 원을 선교부에 신청했습니다. 얼마 후 건축비로 500만 원이 전달되었습니다. 교회의 건축위원회는 책임지고 100만 원을 헌금하여서 600만 원으로 아담하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954년도에 600만 원이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건축비가 중앙교회에 배당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54]

미감리회 선교부에서 지급하는 교회 복구비에 교인들의 헌금을 합쳐 600만 원

54) 명관조, 『목회 고난의 장벽을 넘어서』, 184~185쪽(『춘천중앙교회사』 474쪽 재인용).

으로 아담한 벽돌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다. 화강암으로 된 1층은 주일학교와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개조하였고, 2층은 붉은 벽돌로 쌓아 올려 예배당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강대는 북쪽에 위치했고, 강단 오른쪽에 성가대석을 두었으며 회중석은 다다미를 깔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병원 건물로 사용할 때는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으나 예배당으로 개조하면서 건물 남쪽으로 출입문을 만들고 건물 밖으로 계단을 만들어 붙였는데 처음엔 '팔(八)자' 형태로 만들었다가 후에 동쪽 부분은 없앴다. 예배당 건물 남쪽 중앙은 고깔 형태로 꾸미고, 양쪽 모서리를 성채 모양으로 꾸몄으며, 오른쪽 모서리에 3층 높이의 종탑을 쌓고 첨탑 지붕 위에 십자가를 올렸다. 그 결과 창고 같았던 병원 건물이 변형된 '고딕식' 예배당 건물로 바뀌었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옥천동 73번지에 대지 658평, 연건평 172평짜리 2층 벽돌예배당을 마련하고 1955년 10월 18일 봉헌예배를 드렸다. 춘천중앙교회의 '옥천동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춘천중앙교회가 옥천동에 벽돌 예배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감리회 선교부의 협력과 지원은 결정적이었다. 전쟁 전까지 사용하였던 요선동 예배당은 대지와 건물이 남감리회 여선교부 소유였으며, 교회는 건물 2층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 건물이 사라짐으로 교회는 전 재산을 상실한 셈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부는 옥천동 병원 건물을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1954년 대지와 건물 소유권을 양도함은 물론 건축 보조비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줌으로 춘천중앙교회는 어렵지 않게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 춘천중앙교회가



춘천중앙감리교회 성전봉헌예배(1955년 10월 18일)

옥천동 예배당을 마련한 1년 후 1955년 10월 18일 미국 감리교회 외국선교회장 겸 한국교회 연락 감독인 레인스(R. C. Raines) 감독이 춘천을 방문하였다. 이를 기해 옥천동 새 예배당에서 '레인즈 감독 환영 신도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는데, 집회에 참석한 춘천 교인들은 전후 복구와 피난민 구제 및 예배당 건축을 지원해 준 미국 교회에 감사의 뜻을 레인즈 감독에게 아낌없이 표하였다.


우두교회 봉헌예배 드린 후 기념(1955년 5월 20일)

우두교회의 경우, 이원석 장로의 땅 160평 기증, 우두동에 주둔하고 있던 공병대의 목재와 시멘트 제공, 미국에 연수(세계 YWCA 지도자 훈련 연수) 갔던 이원석 장로의 차녀 이원화의 함석지붕 비용 300달러(이원화가 출석한 미 제임스타운 제일감리교회 100달러 포함), 성도들의 정성 어린 기도로 1955년 5월 20일 류형기 감독을 모시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 무렵 춘천지방은 두 명의 선교사가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도왔다. 제프리(Finis B. Jeffery, 채부리) 선교사와 무어(Sadie Maude Moore, 모세득) 선교사였다. 제프리 선교사는 미국 남감리교 대학을 졸업하고 1953년 내한하여 인천에서 선교하다가 1956년부터 춘천지방 선교사로 파송 받은 젊은 선교사였고 무어 선교사는 여성으로 이 무렵 춘천지방에서 시청각을 통한 선교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런 독특한 선교사업은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춘천지방의 산골 어린이 전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두교회도 이 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특히 무어 선교사가 보여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어린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조신환 전도사는 1959년 3월까지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가며 목회하였다.

석사감리교회의 경우, 1951년 10월 5일 김광예 성도의 집에서 '동춘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복구되어 평신도 사역자 장희성이 시무하였다. 그 후 석사동 491번지로 옮겨 천막 예배당과 흙벽돌로 된 3칸 주택을 세웠다. 1954년 10월 15

일 'AFAK(Armed Forces Assistance to Korea, 미군대한원조) 원조로 석사동 360-1에 목조 예배당 50평을 건축하여 봉헌하였다.

김종순 전도사는 석사리교회에 시무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여 오늘의 석사교회로 발전하는 기반을 닦았다. 6.25전쟁이 가져다준 참상과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도 교인들은 김종순 전도사와 함께 임시로 마련한 천막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석사리교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곧 새로운교회 터를 마련하고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새로 허락된 땅은 현재의 교육관 바로 앞인 석사동 360-1로 김종필 권사 모친의 양해를 얻어 구입하게 되었다. 예배당부지가 마련되자 담임자와 교인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았다. 당시 감리교회는 '부흥(복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전후 교회복구사업에 온 힘을 다 쏟을 때였기에 개체 교회의 요청에 감리교 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당시 선교부를 통해 한국교회에 전달된 구호비는 매달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였다. 개체 교회의 지원 요청은 다음과 같은 '부흥비 지급 규정' 에 따라 이루어졌다.

① 전재지구 급(及) 개척지구에는 공사비 급 구입금액의 1할 이상을 해(該)교회에서 자담할 것.
② 비전재지구에는 공사비 급 구입금액의 2할 이상을 해당 교회에서 자담할 것.
③ 보조금액의 5할을 해교회가 연부상환하기로 하되 5천만 원까지는 10개년간에 환상하고 5천만 원 이상은 매 1천만 원에 대하여 1개 년식 연장하기로 할 것(단 화폐가치 변동에 기준함).
④ 해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 급 지방감리사의 연대 보조청구서를 요할 것.
⑤ 복흥위원회의 조사위원 보고에 의하여 본 위원회의 사정을 요할 것.[55]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51년 11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서울을 제외하고도 신축 교회 77개소, 수리한 교회 69개소, 구입한 교회 79개소 등 모두 225교회에 총

55) 『감리회보』(1952.4.1), 3쪽. 『석사교회80년사』 98쪽에서 재인용.

공사비 14억 1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선교사들의 지원활동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동양선교를 관장하고 있던 무어 감독과 선교부 총무 브럼보(T. T. Brumbaugh) 등도 한국을 방문하여 교회 형편을 돌아보며 복구사업을 지원하였고 '감리교해외구제위원회'(Methodist Committee for Overseas Relief 약칭 MCOR)와 '세계선교부'(Division of World Missions)를 통한 재정 지원도 전후 복구사업에 큰 재원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지원 통로 중에서 석사리교회는 주한 미군이 건축자재를 지원한 미국 AFAK의 원조를 받게 되었다. 춘천지방의 우두·후정·명둥·철정·원통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도 미국 AFAK의 원조를 받아 예배당을 건축하였는데 『감리회보』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교회 재건의 드높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는 교우들의 열성에 박차를 가하여 미군 원조물자의 속속 후원으로 아담하고 웅장한 교회가 곳곳이 세워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보고를 들어보면 신축 완성급 건축 중인 교회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각 지방에서 재건의 기세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 우리 교회의 확장사업이 날로 발전하여감에 감격하고 있다.*
>
> *1. 신축 완성된 예배당(1954년 7월 말 현재)*
> *포천(경동지방), 상천(경동), 신도(경북).*
> *2. AFAK으로 건축 중인 예배당*
> *만세다리(경동지방), 우두(춘천), 후정(춘천), 미아리(경동), 화도(인천동), 오산(수원), 도화(인천동), 시온(인천서), 학익(인천서), 숭의(인천서, 수리), 용문(경동), 석사동(춘천), 명둥(춘천), 철정(춘천), 원통(춘천), 서석(춘천), 이천(이천서)*"[56]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석사리교회는 미국 AFAK의 원조로 아담한 목조 예배당 50평을 건축하였다. 예배당 건축과정을 세 분의 원로권사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56) 『감리회보』(1954.8.1), 3쪽(『석사교회80년사』 99쪽에서 재인용).

그 후 약 3년간 천막교회에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철야기도와 새벽 제단을 쌓던 중 김종필 권사 모친의 양해를 얻어 현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됐고 당시 교회를 담임하던 김종순 전도사가 미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약 50평의 교회를 지었다. 성도들은 교회 건축용 재목을 지키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직접 성전 건축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57]

이렇게 건축된 예배당은 1954년 10월 15일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

위에서 원조한 미국 AFAK 프로그램은 1953년 11월, 당시 미8군 사령관이었던 테일러(Maxwell D. Taylor)장군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미군이 전쟁 수행을 통한 파괴보다 보존에 앞장서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외원조기금과 미군과 한국군의 자발적인 인력제공을 하나로 묶어 한국의 지역 행정기관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공공복지사업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미군은 이 계획에 따라 시멘트, 목재, 유리, 철근, 못 등 공병자재를 각 군부대에 공급해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도록 지원했다. 전방은 해당지역을 담당하는 부대가, 평택이남 후방은 육군본부가 KCOMZ(Korea Communication Zone, 병참관구사령부)와 협의하여 진행했다.

AFAK 프로그램은 부대 단위로 진행되었다. 한국 사회를 돕는데 관심이 있는 부대는 지역 당국과 합동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때 사업은 해당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여 요청한 사업들 가운데 선택되었다. AFAK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1954년에서 1961년까지는 FOA와 ICA 원조에서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했다. 현재 얼마만큼



종각 앞에서 기념하는 석사교회 성도들(1957년)

57) 『춘천석사교회』(1992.9.20), 3쪽(『석사교회80년사』 100쪽에서 재인용).

의 자금이 AFAK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53년 11월부터 1958년 11월까지 AFAK 사업에 총 6백46만여 달러가 투입되었고, 같은 기간 FOA/ICA원조자금 총액이 11억4천8백만여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원조자금 내에서 AFAK로 배정되는 자금은 매년 전체의 5~6%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8]

1954년의 경우 춘천지방에서는 석사리교회를 포함하여 모두 15처의 예배당이 봉헌되었다. 당시 춘천지방의 박내철 감리사는 이러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지방 내 복상황을 볼 때 신축 예배당으로 완성·봉헌 예배당수 15, 신축에 있는 예배당 수 6인데 이는 6.25사변의 톱질 전쟁으로 인하여 예배당 주택 및 부속기관 건물 전부가 전소·전파되었던 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AFAK 물자와 총리원 전도국의 보조를 받아 교인들의 피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59]



석사교회에서 열린 제11회 지방회(1956년 11월 29일)

1956년 1월 22일에 열린 『당회록』에 의하면 우선 석사교회는 당시의 이름이 동춘천교회이고 춘동구역에 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석사교회를 이끄는 속장·유사·탁사 등 임원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교회학교에는 어느 부가 조직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유년부는 조직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

58) 서일수, 『기록인 2012 WINTER』21, 102~103쪽.
59)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남부연회록』, 1955, 55쪽.

고 청년부와 여선교회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6년 석사교회 야외예배를 기념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중고등 학생들과 청년 및 군인들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기에 학생회도 조직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속회는 속장이 4명인 것으로 보아 4개의 속회가 조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교인 수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입교인은 21명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석사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다. 1956년 11월 29일에는 제11회 춘천지방회를 석사교회에서 개최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임시판자집교회 앞에 선 동부장로교회 김유찬 목사 부부(1952년)

춘천동부장로교회의 경우, 1952년 3월 1일 판자집으로 된 47평의 임시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7월 7일 준공하였다. 이어 1955년 4월 5일 72평의 붉은 벽돌 예배당이 착공되었다. 제2군단 공병대의 도움과 성도들의 열정, 즉 교회에 올 때마다 벽돌을 날랐고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돌들을 소양강가에서 날랐으며, 여성 성도들도 모래를 나르는 등 '몸 연보'까지 아낌없이 드려 1956~57년경에 완공하고 1960년 7월 2일 헌당예배를 드렸다. 1962년 7월 18일자 『기독공보』 2면에 「춘천(동부교회) 헌당식」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춘천시 춘천동부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동 교회 헌당식이 동 교회 김유찬 목사 사회하 500명 신도가 모인 중 엄숙히 거행되었다. 식은 설교 계일승 박사, 축사 안광국, 최중해 목사이었으며, 특히 군단군악대의 주악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품 증정 순서 중에는 특히 건축에 공로가 큰 장도영, 함경선 두 장군에게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동 춘천동부교회는 1939년 1월 7일 여신도 차신자로 시작, 그 후 와가1동에로 발전, 6.25동란으로 소실, 수

복 후 현재 위치에 350평 기지를 마련코 교회당 신축키에 이르렀다.

특히 육군 군단장 장도영 장군과 함경선 장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평 72평에 벽돌집으로 착공, 공병 3,600명 동원과 건축자료 총액 545만 환으로 금번 완성된 것이라 한다.

현재 교우 장년 250명, 학생 50명, 유년주교생 265명이며, 김유찬 목사는 올해로 14년간을 계속 시무 중 오늘에 성과를 보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72평의 흙은 벽돌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육군 군단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장병이 무려 600명이나 동원되었다니 교회로서는 두 장군에게 감사장과 기념품만 전달하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춘천중앙성결교회도 수복 후 1952년 5월에 홍순각, 최정화, 신덕기 등이 김규호 목사를 모시고 교회재건을 하고 1953년 9월에 목조건물로 신축하여 1967년 10월 새성전 건축을 위해 철거될 때까지 활용하였다. 원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목회 철학인 김규호 목사는 전쟁으로 인하여 찢기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 격려하며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어 주어 교회에는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리하여 천막교회가 협소하여 교회와 인접한 혜성고등공민학교 교사(校舍) 한 칸을 빌려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했다. 1952년 8월에는 아동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전시중인데도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계속 교회가 부흥되자 김규호 목사 한 분으로는 목회를 감당하기 어려워 1953년 춘천성결교회 최초의 부교역자로 최돈선 전도사를 청빙하게 되었다.


중앙성결교회 재건 10주년 기념하는 성도들(1955년 3월)

1955년도에 회집 된 사무총회의 『춘천성결교회 제10회 사무총회록』에 의하면 1955년 1월 9일 오후 1시에 회장 김규호 씨의 사

회로 총회는 시작되고 서기 이관섭 씨(전 시무장로)가 회원을 점명하니 회원 72명 중 출석 42명 흠석 30명으로 되어 있었다. 김규호 목사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이 있은 후 남궁창 총무가 주일학교 실태를 보고하였고, 이어 회원 69명의 신생부인회(회장 최돈선)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4개 구역(1구역 : 옥천동·요선동, 2구역 : 죽림동, 3구역: 효자동, 4구역 : 조양동·운교동)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신년도 예산편성협의회가 열려 교역자 생활비를 3만원으로 가결하고, 최 전도부인의 생활비는 부인회에서 전담하기로 하되 교회에서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직원 임명과 주일학교 교사 임명, 구역조직(1구역 : 죽림동, 2구역 : 약사동, 3구역 : 효자동, 4구역 : 옥천동·요선동, 5구역 : 조양동·운교동) 및 임원 선정(1구역 : 강사 이관섭, 회장 조정희·진매월, 2구역 : 강사 최돈희, 회장 정암자, 3구역 : 강사 김홍석·유일성, 회장 김순이, 4구역: 강사 김창길, 회장 이경희·윤화순, 5구역 : 강사 이겸익, 회장 정명우·김경자)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실태보고서에 나온 통계를 보면, 목사 1명, 전도인 1명, 남자집사 6명, 여자집사 6명, 남자세례교인 25명, 여자세례교인 47명, 남자학습교인 5명, 여자학습교인 8명 등 총 345명이었다.



소양성결교회 개척자들(앞줄 좌로부터 진(?)집사, 홍순우 전도사, 황준근 심방전도사, 이응만 집사, 1954년)

이처럼 춘천중앙성결교회는 6.25전쟁 5년 만에 그 상처를 말끔히 씻고 장년 신자 345명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

한편, 1954년 1월 30일 서울신학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순우 씨(당시 본교회 주일학교 교장)를 비롯하여 홍순각, 이응만, 이봉애, 전용선 집사가 중심이 되어 춘천 시내 소양로 산 언덕에 십자군 전도대로부터 기증받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홍순우 전도사의 불타는 구령열과 사모의 희생적인 내조, 개척자들의 뜨거운

봉사로 1956년 8월에는 교회를 신축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많은 성도들이 운집하여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그 후 홍순우 목사는 군목으로 이임하고 이어 이만선 목사에게 개척자의 열기가 계승되어 오늘의 소양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홍순우 목사는 원래 된섬(현 위도)에서 출생하여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었는데 6.25전쟁이 일어났고, 부모님을 전란으로 잃고 좌절 속에 있을 때 본교회 신덕기 집사의 인도로 본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교회에 나온 그를 김규호 목사는 주일학교 교장을 맡기고 1년 동안 그의 교회 봉사 활동을 눈여겨보다가 신학교 입학을 권유, 당시 피난 중인 부산신학교에 입학시켰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교회 이응만 집사의 권유로 교회를 개척,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부흥시켰으니 소양성결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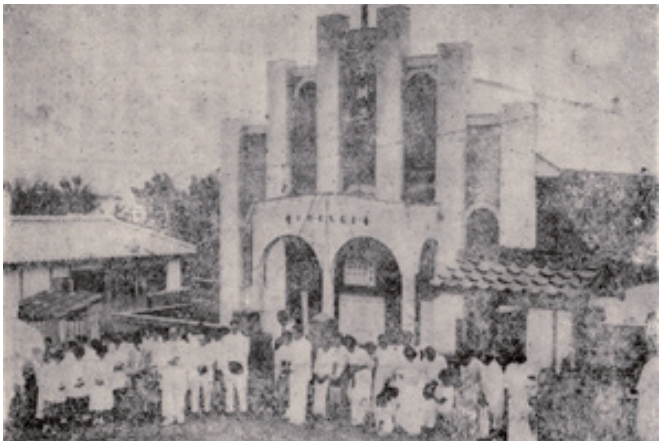
한편, 일제강점 말기에 구세군 국제본영으로부터 이탈되었던 한국구세군은 광복이 되자 다시 국제본영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는 국제본영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의 여부로 잠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일본구세군과 마찬가지로 결국 한국구세군도 국제본영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영국의 국제본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구세군은 광복 이후 상당 기간 미국구세군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서히 교세를 확장 시켜나갈 수 있었다. 1950년에 3,580명이었던 구세군 교인의 수가 1960년에는 10,311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60]

이렇듯 춘천 기독인들은 전쟁 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폐허 위에서 천막예배당에서 판자예배당으로 그리고 벽돌예배당을 건립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는 교회 관련 외국단체 및 교회들의 막대한 지원과 선교사들의 눈물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각 교단 중앙에서의 경제적 지원도 한몫했음을 알 수 있다.

구세군춘천영문 3대 담임사관이었던 신호필 사관이 1940년 9월 10일부로 구세군 사관직을 사직하고 그 후 1년 6개월가량 담임사관의 공백 후에 1942년 4월 김현장 4대 담임사관이 다시 부임하였으나 1944년 1월 4일 5대 장형일 담임사관 재임 중 결국 구세군춘천영문은 폐쇄되고 말았다.

---

60) 장형일, 『한국구세군사』, 구세군대한본영, 1975, 209쪽.



구세군춘천영문 헌당식 모습(1957년 6월 17일)

구세군춘천영문이 재건된 것은 11년 후인 1955년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가을 당시 구세군서울지방장관이었던 권경찬 사관은 구세군춘천영문 재건을 위하여 충북구세군영동영문 심임숙 부교(집사)와 함께 현지를 답사하였다. 이후 구세군대한본영에 보고서를 올려 매달 구세군대한본영에서 6천 환, 구세군서울지방본영에서 6천 환, 구세군춘천영문에서 3천 환을 책임지기로 하고 1955년 6월 11일 안상호 사관을 제6대 사관으로 파송하여 춘천시 소양로 3가 60번지에 구세군 교회를 재건하고 1957년 6월 17일 구세군춘천영문 헌당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성공회춘천교회는 1949년 12월 성모설지전(聖母雪池殿)이란 이름으로 춘천교회를 축성하였다. 눈 내리는 겨울에 춘천교회의 부지가 연못처럼 보인다고 하여, 설지(雪池)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최초로 축성된 성모설지전 성당이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소실된 성당을 재건하고, 전쟁 이후의 춘천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주력한다.



6.25전쟁으로 소실된 후 다시 지은 성공회춘천교회(대한성공회 홈페이지, 1954년)

4절 춘천지역 교회 활동과 개척

1. 춘천지역 교회의 사회적 활동

6.25전쟁을 통하여 국군 장병은 137,889명이 전사, 부상 450,742명, 실종 및 포로 32,838명 등 621,479명이 피해를 입었고, 유엔군은 전사자 40,670명, 부상 104,289명, 실종 및 포로 9,931명 등 154,881명의 피해를 입었다. 남·북한 민간인 피해는 남한 990,968명(사망 및 학살 373,599명, 부상 229,625명, 납치 및 행불 387,744명), 북한 1,500,000명이다. 그 외에도 피난민 320만여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이 발생하였다.

북한군의 인적 피해도 한국군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란4년지』에는 607,396명, 『군사정전위원회편람』에서는 640,000명,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에는 801,000명으로 나타났다. 중공군의 경우도 『중국인민지원군항미원조전사(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史)』에는 395,815명, 『조선전쟁결책내막(朝鮮戰爭決策內幕)』에는 366,000명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추산한 수치로는 972,600명으로 참전국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미국의 자료 「The US Mil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James P. Finley, 1983, p.88)에 의하면 총피해 123만여 명으로 26만여 명의 차이가 있음].[61]

3년간의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는 국가도 마찬가지였지만 외원단체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강원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 후퇴-북진-1.4후퇴-재수복 등을 거치면서 많은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했고 피난민과 전재민이 많이 발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2년 동안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관계로 귀향 및 복구 등 모든 것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진행되었고 원조로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참혹한 인적 피해상황 속에서 한국정부 스스로는 구호를 감당할 수 없었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6.25전쟁 통계」 참조.

고, 구호는 전적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해야만 했다. 원조를 받는 상황이라도 전쟁고아, 피난민, 군경유가족 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강원도 내에는 여러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1953년에서 1958년까지 시설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후생시설 일람표(1953~1958년)

시설명칭	소재지	사업종별	경영체	대표자 성명	인가유무	설립연월일	수용인원	비고
봉생원	원주군	모자료	도립	김장흥	무	1953년 5월 25일	246	
인제모자료	인제군	모자료	사립	이종국	무	1954년 6월 20일	172	
성애육아원	원주군	육아	사립	원홍묵	유	1955년 5월 1일	220	기독교
심향보육원	원성군	육아	사립	이재춘	유	1953년 7월 21일	190	
자신보육원	원주군	육아	사립	김기현	유	1952년 3월 25일	104	기독교
원주보육원	원주군	육아	사립	장기하	무	1953년 9월 6일	50	기독교
숭정보육원	원주군	육아	사립	박병철	무	1952년 8월	103	기독교
학림원	원주군	육아	도립	이창호	무	1954년 3월 6일	82	기독교
상애원	원주군	양로/영아	사립	김현식	유	1958년 6월 30일	122	
수타사보육원	홍천군	육아	사립	이남채	유	1952년 8월 30일	48	불교
애민보육원	춘천시	육아	사립	최병환	유	1951년 6월 1일	89	기독교
광명보육원	춘천시	육아	사립	허명구	유	1952년 8월 15일	70	기독교
오순절보육원	춘천시	영아	사립	구연창	유	1952년 4월 15일	43	기독교
보덕보육원	영월군	육아	사립	함기성	유	1953년 1월 19일	101	불교
남강보육원	평창군	육아	사립	홍순규	무	1953년 1월 9일	43	
강릉보육원	강릉군	육아	사립	송명기	무	1951년 8월 8일	69	기독교
성심보육원	강릉군	육아	사립	간도마	유	1948년 1월 10일	56	천주교
남강애육원	명주군	육아	사립	김태진	무	1953년 9월 1일	44	기독교
강릉전재보육원	강릉군	육아	읍영	송명익	무	1951년 8월 9일	93	
태백보육원	삼척군	육아	사립	정해석	무	1952년 2월 7일	61	
신애원	삼척군	육아	사립	김선환	무	1953년 3월 7일	71	기독교
인애원	삼척군	육아	사립	김연수	무	1953년 3월 31일	78	
영신보육원	울진군	육아	사립	신상갑	무	1951년 9월 17일	61	기독교
일민보육원	울진군	육아	면영	장홍구	무	1953년 4월 1일	35	
춘천후생원	춘천시	육아	사립	박응주	유	1946년 10월 1일		
춘천보육원	춘천시	육아	시영	이상용	무	1954년 5월 23일	68	
영신양로원	원주군	육아	사립	김현식	무	1951년 8월 30일	134	기독교

시설명칭	소재지	사업종별	경영체	대표자 성명	인가유무	설립연월일	수용인원	비고
춘천양로원	춘천시	양로	시립	이상용	무	1953년 8월 17일	55	
원주양로원	원주군	양로	사립	김현식	무	1950년11월 18일	100	기독교
원주모자료	원주군	모자	도립	최규옥	무	1953년 5월 20일	360	
양양(영락)보육원	양양군	육아	사립	김영배	유	1952년 2월 18일	40	천주교
낙산보육원	양양군	육아	사립	김경봉	무	1952년11월 2일	52	불교
풍익보육원	화천군	육아	사립	곽종옥	무	1954년 5월 5일	32	기독교
양구성애원	양구군	육아	사립	김말준	무	1954년11월 22일	64	기독교
명동보육원	홍천군	육아	사립	허만훈	유	1958년10월 18일	98	불교
계							2,077	

* 강원도, 「후생시설일람표」, 『도세일람』, 1954·55·56·58·59년판 참조.

위의 표에 있는 시설 35개소 가운데 도립(봉생원·학림원)을 비롯 시립(춘천양로원)·시영(춘천보육원)·읍영(강릉전재보육원)·면영(일민보육원) 6개소와 기독인이 운영하는 시설 16개소(성애육아원, 자신보육원, 원주보육원, 숭정보육원, 학림원, 애민보육원, 광명보육원, 오순절보육원, 강릉보육원, 남강애육원, 신애원, 울진영신보육원, 원주영신양로원, 원주양로원, 풍익보육원, 양구성애원), 불교 4개소(수타사보육원, 보덕보육원, 낙산보육원, 명동보육원), 천주교 2개소(성심보육원, 양양(영락)보육원), 기타 7개소(인제모자료, 심향보육원, 상애원, 남강보육원, 태백보육원, 인애원, 춘천후생원) 등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28개소 중에서 기독교 관련시설은 16개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명회(현 월드비전)의 원조를 받았던 곳은 춘천 오순절애육원, 원주 성애육아원·자신보육원·숭정보육원·심향보육아원, 강릉의 성심보육원, 삼척의 인애원, 울진의 영신보육원, 양구 성애원 등 9개소였다.[62]

이 중에서 춘천지역에 설립된 몇 곳의 설립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춘천광명보육원은 강원중·고등학교를 설립한 허명구(1912~2009) 강원학원 설립자가 1952년에는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한 광명보육원을 비롯해 춘천상공회의소를 창립했다. 이후 1957년 현재 강원학원의 전신인 보인원을 설립했다. 그

62) 『도세일람』(1955), 104~105쪽 참조.

는 1912년 홍천 태생으로 1937년 대륙상공사를 설립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뒤 1941년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춘천여자실수학원을 설립했다.[63]

애민보육원은 최병환 장로가 6.25전쟁 후 급증하는 고아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보면서 유학시절에 감명받았던 보육사업을 상기하여 춘천시 옥천동 자택에서 8명의 전쟁고아를 돌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춘천지역에 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1년 6월 28일에 애민원을 설립하여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만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또는 한부모의 질병, 장애, 빈곤 등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기아나 학대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64]

춘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화천의 풍익고아원이 있다. 화천의 풍익고아원은 참으로 의미있고 소중한 곳이다. 이곳 고아원의 원장은 곽종옥 목사이었다. 곽 목사는 6.25전쟁 직후 화천 근방에 주둔하고 있던 8사단 포병연대에서 근무하였다. 곽 목사는 지휘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이 보호하고 있던 전쟁고아들을 맡아 달라는 지시를 받게 됐다. 부대가 현재의 자리(지금의 화천고등학교 옆)에 24인용 텐트를 치고 22명의 전쟁고아들을 모아놓고 '풍익 홈(Home)'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풍익 홈'이라는 이름은 포병연대장과 동기였던 김풍익 중령이 6.25전쟁 때 치른 고결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풍익 홈'은 전쟁고아들을 위해 군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세워진 사랑의 보금자리로 지금까지 1,100여 명의 고아들이 '풍익 홈'을 거쳐 갔다고 한다. 고아들은 65년을 한결같이 아버지로 살아 온 곽목사와 주변 군부대 장병들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풍익복지재단도 나눔의 손길을 해외에 펼치고 있다. 키르키즈스탄의 빈곤가정 지원사업 및 아동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노인 및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65]

이외에도 1953년 감리교 연회에서 강릉·원주·춘천지방 '사회사업'으로 보고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66]

---

63) 「허명구 강원학원 설립자 별세」, 『강원도민일보』(2009.8.3).
64) 「행복나눔후원처-애민보육원」, 『사랑의 꽃보내기 운동본부 행복나눔꽃배달』(2018.2.23).
65) 풍익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66)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동부연합연회록』(1953), 71~71쪽.

● 강릉지방

① 성탄절 특별헌금으로 극빈자를 구호하였음.
② 8.15기념예배 때에 특별헌금을 거두어 군경원호사업에 원조하였음.
③ 각 교회부녀회에서는 상이군경 및 위문하여 의료세탁을 실시하였음.
④ 육아원 3개소를 운영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원주지방

① 성탄절 특별헌금으로 북한피난민위문, 상이노무자위문 등을 실시하였음.
② 일선장병위문대를 조직하여 일선장병을 위문하고 상이군경위안을 밤을 열어 그들을 위로했음.
③ 지방에 있는 수 개소 육아원을 직접간접으로 돕고 있음.
④ 육군병원입원환자를 위해 의류를 세탁했음.

● 춘천지방

① 일선장병 위문 12차례 시행.
② 위문문(慰問文)을 수차모집 발송했음.
③ 양로원과 육아원 직접 간접으로 원조하고 있음,
④ 성탄절에 빈민과 피난민을 원조했음.

라고 보고하여 강원도 지방회에서도 극빈자와 피난민를 보호하고 일선장병을 위문하고 육아원을 돕기도 하였으며, 상이군경 등도 방문하여 위문하였다. 특히 춘천지역의 경우 접경지대로 군 병력이 많았던 관계로 일선장병 위문과 위문편지 등이 수시로 진행되었고 전쟁고아와 어르신들에게 대한 지원도 했으며, 빈민과 피난민도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쟁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전쟁 후에도 많은 피난민과 전재민 그리고 상이군경 및 상이용사, 미망인 등을 비롯하여 국군장병까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회와 기독인들은 구호하고 위문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이철상 목사의 경우는 1956년 5월 선교사와 인천기독병원 의사와 간호사들로 순회 의료 및 영화 전도대를 조직하여 강원도 홍천과 창촌, 기

린, 강릉 등 산악 지역을 돌며 선교활동을 벌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낮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활동을 폈고, 밤에는 제프리(Finis B. Jeffery, 채부리) 선교사와 모어(Sadie Maude Moore, 모세득) 선교사가 영화를 보여주며 전도하여 가는 곳마다 40~50명의 새신자를 얻었다.

이 사실은 『감리회보』에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기쁜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산악지대에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는 겨레들을 일부러 찾아 위로하는 동시에 주님의 명령대로 하늘에 복음을 전파하기에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이야기"[67]로 소개되었고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전도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기독인들은 교육사업에도 기여하였다. 심상대(당시 도내무국장, 제18대 강원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도청이 원주에 자리잡고 있을 때는 전쟁기간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어요. 당시 원주에는 미수복지구인 홍천 춘천지방과 38선 이북 출신 난민들이 수만 명이나 들끓었어요. 그뿐 아니라 전선 일대에는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등 전염병이 만연했으며 몰려오는 피난민 중에도 환자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
> *우선 이들을 수용하는 일이 큰 문제였어요. 일단 이들을 원주향교 자리에 천막을 치고 가수용 시켰다가 환자를 가려내어 환자는 판부면으로, 환자가 아닌 자는 흥업 부론면으로 보냈어요. 피난민 구호와 환자치료 피난민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당면 주요과제였습니다. 아무리 전시라고는 하지만 피난민들은 먹여 살려야 하고 자녀들은 공부시켜야 했기 때문에 외원(**外援**)양곡을 얻어오고 수복한 교원들을 기동배치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68]

라고 한 것처럼 전시라고 하여 자녀들의 교육을 방치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감리교에서는 웨슬레 구락부사업을 전개하였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

67) 『감리회보』(1956.7), 「춘천지방을 중심으로 순회의료 및 영화전도 대활약」, 10쪽(『춘천중앙교회사』 478쪽에서 재인용).
68) 『강원도 비사』, 강원일보사, 2007, 18쪽.

도시 주변과 농촌의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육과 그들 생활에 있어 주의 교훈을 실천하게 함을 목적으로 1955년 연회 이후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춘천·원주 4곳, 강릉 2곳이 있었으며, 학생 수가 춘천에는 148명(남81, 여67), 원주 207명(남70, 여137), 강릉 118명(남40, 여78)이 있었다. 이들 웨슬레 구락부 가운데 춘천구락부는 1956년 3월 현재 162,000환, 원주구락부 132,000환, 강릉구락부 616,000환의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69]

당시 문교부에서 1950년 6월 1일에 착수한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은 6.25전쟁으로 인해 미루어졌고, 1952년 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고 195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53년에 73%에 불과했던 국민학교 취학률이 1954년에는 82.5%가 되었고, 1959년에는 96.4%까지 상승되었다. 그러나 취학률이 높아진 1959년에도 3,799,690명 중에 241,548명이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의무교육의 실행으로 취학률이 높아졌다고 하여도, 교육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개신교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교육 기관을 장로교에서는 성경구락부, 감리교에서는 웨슬레구락부라고 불렀다. 이 기관들은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다. 1959년에 장로교는 7,000개의 성경구락부에서 7만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였고, 감리교는 1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70]

춘천중앙감리교회 지방 교회에는 청년 중심으로 '웨슬레 구락부'를 만들어 문맹퇴치와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으며, 수시로 목회자가 없는 교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다.[71]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는 1952년 9월에 성수고등공민학교(초대 교장 이진춘)설립 · 운영하였고 1956년 3월 5일에 김용해 장로가 성수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성수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방지각 목사가 1959년 4월 15일 소양로 4가에서 효신여자고등공민학교를 개교하고 1961년에 조양동 57번지로 학교 이전 및 학교명칭을 효신고등공민학교로 변경(남녀공학)하였으며, 1970년에는 온의동 14번

69)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남부연회록』(1956), 184~185쪽 참조.
70) 윤은석, 「웨슬레 구락부의 발전과 특징 : 지역사회 교육과 개척 교회」, 『ACTS 신학저널』제43집, 2020, 43~44쪽.
71) 『춘천중앙교회사』, 478쪽 참조.

지로 학교를 이전하였다.[72] 효신고등공민학교의 방지각 목사는 춘천제일장로교회 초대(또는 3대) 담임목사인 방효정 목사의 차남이다. 그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신학교까지 마치자,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검정고시 특혜가 있는 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 상업전수학교(고등학교 과정)를 춘천에서 운영하였다.[73]


춘천성광장로교회 성경구락부 제1회졸업기념(1954년 3월 15일)

성광장로교회 성경구락부는 정광진, 정용순, 장영실 등의 노력으로 알찬 결실을 맺었다. 1954년 3월 15일 제1회 졸업 때의 졸업생 수는 남학생 9명 여학생 15명 합계 24명이었다. 이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중학입학자격 검정고시를 거쳐 중학교에 진학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하였다. 2회 때부터는 학교명칭이 성경구락부에서 성광공민학교로 바뀌었다. 그리고 졸업생은 남학생 4명, 여학생 11명, 합계 15명이었다. 1955년 3월 30일의 일이었다.[74]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교회와 단체 등에서 원조를 받으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립하기 위한 몸부림도 전개하여 육아원, 고아원 등을 통하여 부모 잃은 아동들을 돌보았고 양로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섬겼으며, 모자원을 통하여 군경유가족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비정규적인 학교, 즉 웨슬레구락부와 고등공민학교 등도 설립하여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교육의 공백을 메웠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교회와 기독인들의 구호사업과 사회를 향한 헌신적인 역할이 많이 진행되어서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사회에 제공하였고 동시에 한국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72) 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홈페이지.
73) 『아멘넷』 뉴스(2005.12.27), 「방지각 목사 '효신교회가 폭파된 후에도 감사 찬송'」.
74) 『성광교회 35년사』, 107쪽.

195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국 총무 김광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지난 1년 동안 미국감리교회 MCOR본부에서 본 사회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모여 온 구제금 총액이 1억 3천 1백 40여 만 환입니다. 이만한 협조를 받은 것은 감사하면서 받아먹기만 하는 우리의 신세를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고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주는 교회로서의 면목으로 어서 드러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렇게 받았다는 보고보다도 남을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놀랠만한 감격의 일이 되겠습니까.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도울 수 있는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75]

원조받는 교회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여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절박함이 간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기도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주는 교회와 국가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영적 각성과 회복과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교훈 삼아 반세기 이후의 놀랄만한 감격을 맛보길 기대해본다.

2. 교회 개척과 발전

1) 교회 개척 개관

감리교의 경우, 195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남부연회에서 춘천지방 감리사 이철상의 보고에 의하면,

---

75) 위의 책, 202쪽.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종의 종된 불소자가 지난 1년 동안 감독님을 모시고 선배와 동역자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다사다난한 산악지대며 일선 수복지구인 춘천지방의 중임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먼저 지방의 과거 신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진흥과 발전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춘천시와 홍천군을 제외하고는 저마다 험준한 산악지대인 까닭에 전체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서 경제력이 빈곤합니다. 따라서 교인들의 재정적인 형편이 곤궁함으로 교회를 위한 물질면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교회들이 유지 발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지된 교회가 허다하였습니다.

둘째는 교역자의 부족과 또 교역자의 질적 무력입니다. 그 이유는 산악지대인 관계로 교역자 교육문제 기타 불편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역자들이 오시기를 주저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교역자 대우도 충분히 못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교역자의 질적 저하로 교회가 부흥 발전하지 못하며 유지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셋째, 교회직원 평신도들의 지도훈련의 부족으로 오는 교회봉사에 대한 빈약입니다. 그 원인은 지방교인 훈련기관이 없는 것, 있다고 하여도 지역적인 거리가 먼 관계로 여비, 기타사항으로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 우리 지방의 과거에 실정임을 보고하는 동시에 앞으로 본지방의 발전책으로 첫째, 산악지대에 적당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경제적 및 산업진흥에 대한 지도훈련으로 교인들의 경제력을 제공하여 되리라고 보아서 총리원 사회국의 특별한 지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유능한 교역자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뗀만 박사의 말씀과 같이 행한 산골짜기에 길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을 찾고자하는 참목자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빈곤과 불편을 무릅쓰고 십자군적인 정신으로 자진 자원할 교역자는 없습니까?

셋째는 의무사역자 양성기관의 설립과 순회 집단훈련을 위한 지도인

물과 재정입니다.

이상 천박한 우견이오나 본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부언하는 바입니다.[76]

라고 하여 교회재정 부족, 교역자의 부족과 자질문제, 교회 평신도 직원들의 교육 부족 사항을 제시하면서 발전책으로 이 지역에 적합한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력 제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역자 필요, 사역자 양성기관 설립과 순회교육을 위한 지도인물과 재정 필요를 꼽았다.

6.25전쟁 발발에서 1959년까지 춘천지방에서 세워진 감리교회는 청원교회(가오작, 1952), 신남교회(1952), 가산교회(1953), 지내리교회(1953), 서부교회(지금의 명성, 1953), 봉오교회(1957), 사창교회(1957), 상서교회(1957), 성암교회(1959) 등이다. 두 교회만 실례를 들어본다.

6.25전쟁 직후 미군 장교의 관심과 미 공병대의 인력과 자재지원으로 세워진 춘천가산감리교회가 있다. 6.25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종전을 위한 협정이 한창이던 1953년 6월 10일 강순이 권사의 가정에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1953년 8월 10일에는 기도처를 가산교회로 호칭하면서 첫 교역자 이영선 전도사가 부임하였다. 그렇게 한 가정집의 사랑채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춘천가산감리교회 초기모습과 종탑 모습

76)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중부남부연회록』(1956), 45~46쪽.

을 움직인 것일까? 우연한 기회로 연결된 미 제24사단 2공병단에 근무하던 댄 소위의 관심을 시작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미 공병대의 인력과 자재의 지원으로 1954년 5월에 어엿한 십자가를 내건 예배당이 완공되어 동면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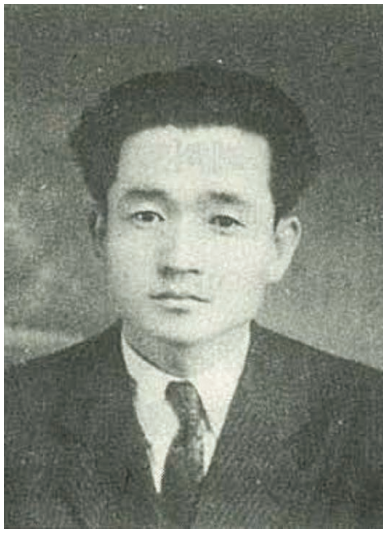
한편, 서부감리교회(현 명성교회)는 1954년 4월 6일 춘천중앙교회 박춘자 권사가 개척한 교회였다. 박춘자 권사는 6.25전쟁 때 요선동 예배당이 파괴되자 소양로 2가에 있던 자기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도록 하였고, 수복 후 교회가 옥천동 선교부 병원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축할 때 기르던 돼지를 건축 헌금으로 바쳤던 모범적인 교인이었다. 춘천중앙교회가 옥천동에 자리를 잡게 되자 박춘자 권사는 전쟁 때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소양로 집(36평)과 대지(100평)를 교회에 헌납하였고, 이에 춘천지방에서 조성용 전도사를 파송하여 서부교회를 설립하였다. 서부교회는 박춘자 권사를 비롯하여 소양로에 있던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개척 교인으로 참여하였으니 서부교회는 춘천중앙교회의 첫 번째 개척교회가 된 셈이다.





1954년 4월 6일 박춘자 권사 자택에서 서부교회 개척, 당시 교인들 모습과 제1성전 모습(1957년)

장로교에는 동부교회(1939년 5월 7일), 제1교회(1939년 5월 7일), 제2교회(현 영광교회, 1947년 5월 10일)가 6.25전쟁이라는 전란을 극복하면서 조직을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춘천성광교회(1953년 2월 23일)와 천전교회(1953년 7월 23일), 신북교회(1953년 10월 7일), 금산교회(1954년 2월 21일), 내평교회(현 한빛교회, 1954년 4월 10일)가 개척하여 함께 발전하고 있었다.


성광교회 창립을 주도한 오길훈 집사

성광교회를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1953년 2월 23일 서북인으로 춘천에 피난 온 동부교회 오길훈 집사와 제일교회 정광진 청년 등이 주도하여 피난민 중심의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이다. '성광(聖光)' 즉 '거룩한 빛'이라는 의미의 교회명을 정하고 오길훈이 구해온 천막을 요선동 빈터(현 부지사 관사자리)에 쳤다. 천막을 친 후 첫 주일인 1953년 2월 23일 마침내 감격의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남자 19명, 여자 16명, 어린이 3명 모두 38명이 황량한 빈터 위에서 감동의 신앙고백에 동참하였다. 설교는 주동 인물이었던 오길훈이 하였다. 전란으로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들만이 갖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공감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삶과 신앙의 공동운명체를 만들어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성광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한 초기 교인들(1953년 2월 23일)
첫째 줄 좌측 첫 번째가 오길훈이고 넷째 줄 두 번째가 정광진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겪은 삶의 경험 속에서 우러난 새로운 신앙고백 행위와 장소가 필요하였다 피난민들만이 갖는 그 독특한 삶과 신앙의 연대가 필요했다. 6.25전쟁으로 인해 고난의 체험을 공유하였던 서북의 이주민 집단이 고백한 그 신앙이 성광교회 신앙의 모형이 되었다. 주동자였던 오길훈 외 수명이 평양사람이었으며, 그 외 대부분이 평안도 출신이었다. 정광진은 황해도 장연이었고 통역일을 보았던 권회수가 유일한 남쪽(경상도) 출신이었다.

1953년 5월 10일에는 임정묵 목사가 부임함에 따라 성광교회는 신앙의 활기를 찾게 되었다. 5월 10일 둘째 주일 오후 2시 목회자를 모신 가운데 마침내 공식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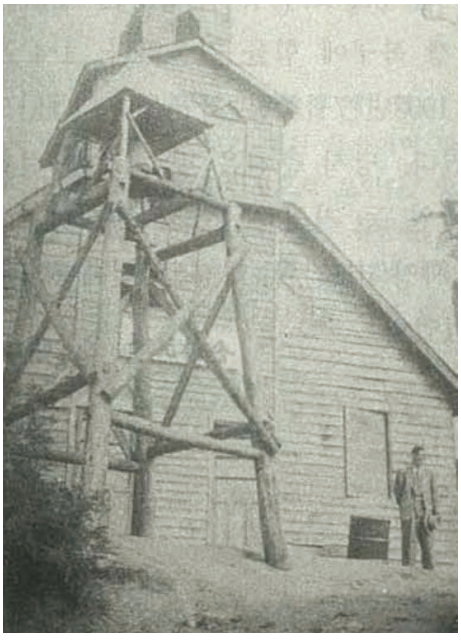


초대 임정묵 목사 부임 후 첫 예배 기념(1953년 5월 10일)

인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3년여 세월에 걸쳤던 포성이 멈추었다. 미증유의 동족상잔으로 인해 국토의 파괴와 손실은 막대하였으며, 전란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일반 사회도 휴전 이후 전쟁 복구에 힘을 기울였다.

성광교회는 이 사회재건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교회 건물 건축에 착수하였다. 천막교회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1953년도 늦봄에 요선동 11번지 언덕, 옛 성광교회 터로 이거하였다. 대지 78평을 주인의 집을 교회 옆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미군 부대의 지원과 김일성대학 짓는 일에 참여한 목수 출신 김웅봉(평양출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의 어려운 경제 형편, 특히 피난민들의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 교인들만의 힘으로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1956년 새문안교회에서 열렸던 41회 총회에서는 강원노회장이었던 엄정묵 목사의 청원을 통한 지원과 다양한 지원으로 건물 내외벽을 바르고 마루를 깔며 기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들을 갖추게 되어 마침내 1956년에 이르러서야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완성된 성광교회 판자집교회 모습(1956년)

1954년 위임식을 하고 강원노회 창립을 마친 김유찬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당회원

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6.25전쟁 전까지 두 사람의 장로가 장립되고, 5명의 장로가 취임했지만 전쟁을 거치며 교회에 남은 사람은 원창규 장로와 지기봉 장로뿐이었다. 이에 1954년 7월 25일에 김유찬 목사와 원창규 장로는 장로 2명을 선출하는 투표를 8월 22일 주일에 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결과 김순성과 안승렬이 선출되었으며, 장로고시에 합격하여 12월 5일 오후 1시에 장로장립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남자집사와 여자집사 각 2명씩을 보선하여 남자집사로는 유종선과 최득봉을, 여자집사로는 서영숙과 이효리를 9월 19일 주일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당회와 제직회를 다시 보강한 뒤 10월 4일 주일 저녁부터 1주일 동안 김용복 목사를 청빙하여 부흥회를 열었다.

성결교의 경우, 춘천중앙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소양교회를 개척하였다. 소양성결교회는 전란으로 가족이 이산하고 가옥과 전답을 잃어버린 수복민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왔다가 휴전이 되어 고향 땅 가까이 몰려온 피난민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그들은 춘천시내 유엔군 주둔지인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당시 죽림동교회(지금의 중앙교회)에 출석하던 몇몇 성도들이 거리가 멀어 교회 출석의 어려움이 있었다. 1953년 저물어가는 겨울에 춘천 서면 출신의 홍순우 신학생은 혼자의 힘으로 예배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기와집 골에 유일하게 다락방과 다름없는 목조 2층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다락방 한 칸을 얻게 되었다.

1954년 1월 20일(수요일) 황해도에서 피난 나와 죽림동교회에 출석하던 신앙심이 돈독한 이응만 집사를 비롯하여 박정순, 최종희 성도와 황준근 심방전도 부인을 중심으로 기와집 골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소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 무렵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으로 문을 닫고 피난길에 오르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이 수복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몰려드는 북한 지역의 실향민들이 늘어나면서 하나 둘 개척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기에 소양로 인근에 성광장로교회와 서부감리교회 그리고 소양성결교회가 서로 바라다보이는 지척의 거리에 세워지고 경쟁하듯 종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형제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편, 춘천에는 주변에 군부대가 많았고 특히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에는 캠프페이지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군수품으로 사용하던 군용 야전천막을 구하여



소양성결교회 천막교회 개척 1주년 기념(1955년)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비록 20평도 안되는 천막교회였지만 다락방 교회에서 100여m 떨어진 작은 언덕배기 넘어 피난민들 가건물 틈으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골목언덕 길을 마루에 잡초가 무성했던 자투리땅을 구하여 맨손으로 풀을 뽑고 땅을 정리하여 군용 천막을 세워 처음으로 교회 현판을 달게 되었다.

시내의 큰 교회에서는 예배시간을 알리는 종을 쳐서 교인들에게 예배시간을 알려 주었지만, 소양교회는 마당도 없는 길가의 2층 다락방이어서 종도 없어서 이웃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었다. 홍순우 전도사는 비록 천막교회이지만 종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 고물상에서 빈 산소통을 구하고 나무 기둥 하나를 세워 거기에 거꾸로 매달고 초라하지만 예배당 종을 쳤다.

홍순우 전도사는 주중에는 신학교로 올라가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혼자서 심방과 교회학교 예배, 주일예배까지 담당하는 1인 3역을 하며 늘어나는 성도들이 위안이 되어 3번의 교회를 옮기면서 목조교회이기는 했지만 오늘날 소양교회의 터전을 이루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었고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도 많았다. 특별히 춘천 소양로에는 춘천역과 시내 사이에 넓은 군용비행장이 급하게 조성되었는데 계속 시설공사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서부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판자집은 나날이 늘어나갔다. 그래서 커다란 제재소에서는 밤낮없이 벌목차들이 줄을 이었고, 군수품 장사와 함께 춘천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서부시장은 당시에는 탑거리 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국가보물로 관리되는 7층석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양성결교회는 나날이 부흥되어 갔고 너무 환경과 교회가 비좁아 교회터를 물색 중이었다. 마침 조정국 장로의 부친이 당시에 관재국(토지를 관리하는 관청)에 근무하였는데 교회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힘을

써 주어서 탑거리 언덕 위에 임시로 세워졌던 초등학교(춘주초등학교)가 학생 수의 팽창으로 중앙초등학교와 근화초등학교로 분리되면서 옮겨가게 되었는데, 넓게 조성된 학교부지 중 적산부지 150평을 교회가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었다.

1955년 봄, 날씨가 풀리자 홍순우 전도사와 이응만 장로를 비롯하여 백윤선·김숙환 집사와 함께 교회 터를 둘러보면서 앞으로 소양로 일대의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할 꿈을 달라는 감격의 기도를 드린 후 당시 재정 형편으로는 교회를 건축하기가 어려워 다시 한 번 군부대에 요청하여 대형 천막을 세우고 두 번째로 교회를 확장·이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천막교회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아 1957년 5월 10일 드디어 목조교회이지만 강단실과 기도실 그리고 창고까지 갖춘 40평의 교회를 청장년들과 부녀자까지 동원되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소양교회 개척 3년 만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주물로 제작된 춘천시내를 모두 울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종탑도 갖게 되었다.

홍순우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입대하여 교회를 이임하기까지 3년여 동안 교인 300명의 교회로 성장시킨 교회개척의 1등공신이었다. 홍순우 목사는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 장춘단교회에서 시무하다가 교단 총회장과 서울신학대학총장까지 역임하기에 이른다.

침례교의 경우, 6.25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 춘천교회, 옥산포교회, 샘밭





1955년 여름 신축중인 목조소양교회 앞의 성도들(앞줄 왼쪽부터 홍순우 전도사, 이응만 집사, 한사람 건너 김숙환 집사, 한사람 건너 백윤선 집사, 교회팻말을 집고 있는 사람이 곽낙필 집사 (1955년 여름 신축중인 목조교회 앞에서)와 부흥 기념(1956년 8월 3일)

교회가 세워졌다.

춘천침례교회는 1953년 4월 5일에 이우영 목사가 6명(한이남·한태봉·성기범·성봉래·이창을·유재인)의 교인과 함께 옥천동의 참고를 임대하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1954년 봄에 미군 목사 로렌스 외에 미군부대 교인들이 헌금으로 낙원동 21번지의 대지 305평을 매입,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1955년 봄 미군부대의 보조를 받아 예배당 58평을 신축하였다.

옥산포교회는 1954년 4월에 김충렬 전도사가 춘천시 사농동에 천막교회를 지어 개척, 1955년 4월에 예배당을 목조로 33평 기공하여 8월에 헌당했다.



춘천샘밭침례교회 구성전 모습(1960년대)

샘밭교회(구 천전교회)는 '샘'과 '밭'이 많아 천전리(泉田里)로 불리던 곳에 6.25전쟁이후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다. 1954년 6월 7일 미27사단 보급부대 소속 미 군목이 격전지였던 춘천 천전리에 부대 천막을 기증하면서 천천1구 동회사무소 앞 광장에 천막 예배당을 세워 교회가 시작되었다. 7월 16일에는 이우영 목사가 2개월간 잠시 부임하여 천전침례교회라 이름하였다. 1955년 8월 17일 미 남침례회 선교부의 보조 3천 환으로 천막목재 가건물을 설립하였고 1957년 6월에 양태영 전도사가 부임하여 지금의 예배당부지를 10월 18일 천전1리 528 대지 420평을 미 남침례교 선교부 보조 16만 환으로 구입하고 8만원의 보조로 11월 11일 목조예배당 25평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지원받아 예배당을 건축한 샘밭교회는 1961년 천전교회에서 샘밭교회로 개명하고 교회를 방주 모양으로 건축하는 등 춘천지역 복음화와 앞으로 미래 통일을 대비한 북방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77]

77) 『침례신문』(2014.1.23), 「60년을 계승하며 100년으로 나아가는 샘밭교회」 참조.

제2장
춘천기독교의 성장과 발전(1960~70)

≫

1절 춘천지역 교회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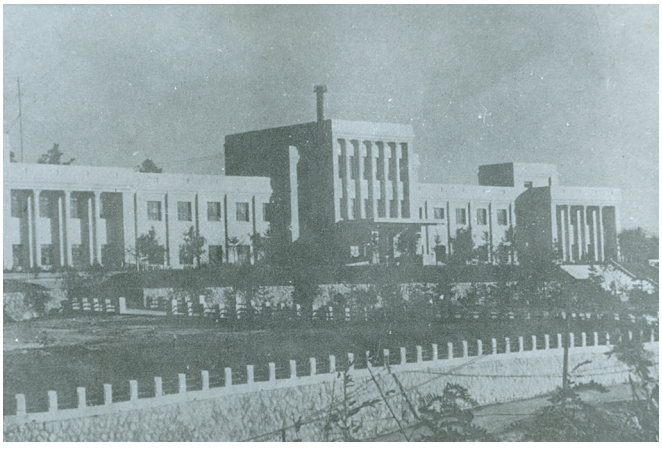
1. 1960~70년대 정치·사회적 상황과 기독교

1960년 4.19혁명이 자유당 정권의 오랜 독재 체제를 붕괴시켰다면 1961년의 군사정변은 4.19 이후에 전개된 극심한 사회 혼란을 종식 시키고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이후 10년 동안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전쟁으로 황폐된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켜 물질적인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 등은 억제되고 훼손되어 정신적인 환경은 퇴보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권회복, 사회정의 구현,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경제적 소외 계층의 고통과 저항을 함께 체험하였던 1960~70년대였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도 양극화를 체험하였다. 우선 1959~61년의 장로교와 성결교 분열에서 볼 수 있듯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칼운동)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간의 교회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한국 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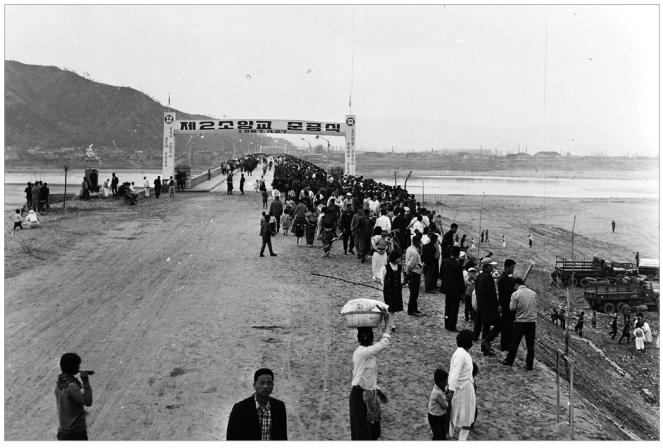
중심으로 한 진보계열과 기독교연맹(CCC)을 중심으로 한 보수계열로 양분되었고, 신학과 신앙운동에서도 진보·보수 두 흐름이 평행선을 이루었다.

이 시기 춘천의 경우는 도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로를 중심선으로 하고 좌우로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고, 그 밑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로 로터리를 중심으로 상가와 주택가가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생겨나고 있는 중이었다. 강원도청은 전쟁 중 원주에 임시 거처하였다가 1953년 춘천으로 돌아와 신축을 하였고 도 단위 공공기관들도 속속 새로이 건축하면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강원도청 모습(1957년)

1954년에는 현재의 강원일보 아래에 춘천경찰서가 새로 건립되었고, 1954년에는 적십자사 강원지사가 현재의 자리에, 또 도청은 1957년에 건립이 완공되면서 강원도의 도청소재지, 수부(首府)도시의 위용을 갖추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 포진한 중심 도로 뒤편은 주택가로 정비되었다. 이 시절, 춘천시는 3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상하수도 정비와 주택건설을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먼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었다. 자조사업주택, 국민주택, 공영주택, 개량주택, 수몰민을 위한 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부 융자가 추진되었고 무허가 건물 철거와 택지조성이 이루어졌다. 1965년부터 시작된 공영주택 건설사업으로 1966년에 50채의 주택이 건립되었다. 건평 13평에 반양식 주택으로 자부담 15만 원, 융자 25만 원(15년 상환)의 조건이어서 인기가 높았다. 한편 이 시절 춘천에는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되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었다. 1965년에는 춘천댐이 건립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건설한 의암댐도 1967년 완공되는 동시에 소양강댐도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했다. 도심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였고 도시 외곽에서는 화전민 이주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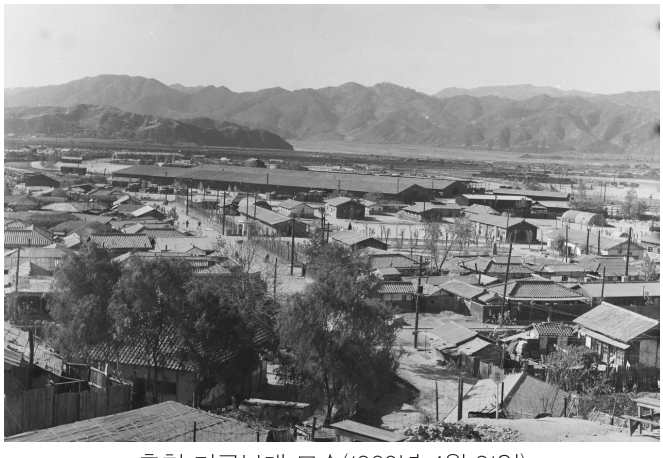


소양2교 준공식(1967년 4월 27일)

댐 건설로 발생 된 수몰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변화를 겪어야 했다.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화전민과 수몰민들은 춘천시 외곽으로, 또는 경기도로 새 삶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

정부는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을 건설 현장으로 만들어가던 때였다. 각종 건설과 경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특히 춘천에는 6.25전쟁 중에 건립되었던 나무다리를 대신하여 콘크리트 다리인 소양2교가 건립되어 춘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소양강을 중심으로 전개된 건설 열풍은 작은 도시 춘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10만 명 남짓한 소도시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도시화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부의 갖가지 경제 발전 시책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녹아들었고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갖가지 낡은 관습 퇴치 운동이 생활 속에 파고드는 때였다.

당시의 춘천지역 생활 현장을 살펴보면, 춘천에는 세 곳의 큰 병원이 있었고 의원이 23곳, 치과 9곳, 한의원 10곳, 개업 조산원 19곳, 보건진료소 1곳 등이 있었다. 지금은 낯선 조산원의 숫자가 제법 많다. 근대식 병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조산원이 여전히 성업을 이루며 춘천지역의 아이들이 출생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었다.


춘천 미군부대 모습(1960년 4월 21일)

서비스 업소는 모두 744곳으로 제법 많아 보인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카바레 2곳, 한식요리 4곳, 중국요리 12곳, 바 6곳, 한식당 144곳, 중화요리 14곳, 왜식(일식) 식당 1곳, 다방 26곳, 주점 175곳, 호텔 1곳, 여관 102곳, 이발소 69곳, 미용소 65곳, 목욕탕 7곳 등이 있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데 양식당은 한 곳도 없는 것이 특이하였다. 중국음식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고 술집과 다방이 꽤 많았다. 아마 도내 주요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인 데다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서비스업을 성행하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즈음 춘천사람들의 종교는 어떤 유형이었을까? 종교 시설별로 보면 불교 8곳, 유교 1곳, 기독교 32곳, 천주교 2곳의 시설이 있었으며 종교인 수는 천주교인이 8,40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기독교인 4,646명이다. 유교(1,400명)와 불교(1,294명)가 그다음 순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시절 춘천시 통계자료는 미신업, 즉 무속인(사주 관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1965년 현재 55명으로 나와 있다. 당시만 해도 무속신앙이 주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960년대는 국가가 국민정신 개조를 목표로 하는 시기였으므로 전근대적인 관습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구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기독교는 이 새로운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다.[78]

조선 근대화 시기인 1830년대 기독교가 들어온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정치적 혼란, 그리고 6.25전쟁을 겪는 등 불안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선교활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다. 기독교는 곧 신문화의 상징이었다. 근대교육을 주도하였고 병의원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역할, 더불어 교회를 중심으로 갖가지 서구 생활문화를 배우게 하며 널리 확산하고 있었다.

1970년대 들어 진보 보수 두 흐름의 간격은 더욱 넓어졌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독재체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도 지지와 반대로 양극화되었다. 당시 교파별 교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8) 『춘천YWCA50년 여성의 등대되어 빛을 비추자』, 2016, 60~63쪽 참조.

교파별 교세통계(1978년 7월)

시군	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교	성공회	계
춘천	교당수	16	15	7	4	1	1	1	45
	교직자수	61	26	15	10	1	7	1	121
	신도수	3,922	3,885	2,896	600	60	90	100	11,553
춘성	교당수	13	20	4	1				38
	교직자수	13	20	4	1				38
	신도수	1,032	1,226	470	50				2,778
계	교당수	29	35	11	5	1	1	1	83
	교직자수	74	46	19	11	1	7	1	159
	신도수	4,954	5,111	3,366	650	90	90	100	14,361

* 춘천문화원, 『춘주지』, 강원일보사, 1984, 1141쪽 참조.

위의 표에서와 같이 춘천·춘성을 합쳐 6개 교단의 교회 수는 83개소, 교직자 수는 159명, 신도 수는 14,361명으로 춘천 인구 130,000명의 11%에 해당한다. 신자가 제일 많은 교단은 감리교(5,111), 장로교(4,954), 성결교(3,366), 침례교(650), 성공회(100), 구세군·순복음교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수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교직자 수에서는 장로교(74), 감리교(46), 성결교(19), 침례교(11), 순복음교(7), 구세군·성공회(1) 순으로 나타났다.

2. 춘천지역 교회 상황과 성장

1) 감리교 상황과 춘천지역 교회

한국 감리교회도 극심한 혼돈과 변혁을 체험하였다. 한국 감리교회는 1959년 교단 재통합을 이루어 다시 '하나 된' 감리교회의 감격을 누렸지만 1년 후 터진 4.19혁명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다. 우선 한국 감리교회는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몰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광복 후 정권을 장악하여 1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면서 부정과 부패, 폭력과 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 자유당 정권에 상당수 감리교 인사들이 간여하여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해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였던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 이기붕 '권사'가 국회의장으로 정권의 최상부를 구성하였고 이화여대 부총장 박마리아는 이기붕의 부인으로서 자유당 정권의 '막후 실세'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며, 일제 말기 '혁신교단'의 연성국장을 지냈던 갈홍기 목사는 공보국장이 되어 정권 홍보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59년 감리교회에서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광화문에 감리회관 빌딩을 건축할 때 자유당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1956년 5월과 1960년 3월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나선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에 감리교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기독교계 전체가 그러하였지만 특히 감리교회는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광복 직후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감리교회 안에서는 신학생들과 평신도, 소장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자유당 정권에 간여하였거나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회숙정운동'이 일어났다. 신학생들의 총리원 항의 방문과 평신도들의 회개 촉구 기도회를 거쳐 7월 입석에서 열린 전국기독교 교육지도자대회에 참석했던 소장파 목사들은 감독을 비롯한 총리원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입석 목사단 7·26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신학생과 소장 목회자들의 총리원 항의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김종필 감독을 비롯한 각국 총무들과 총리원 이사들이 사표를 냈으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총회가 8월 30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열려 감독을 제외한 각국 총무를 경질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교단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완전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1959년 통합 이후 이북 출신 중심의 '성화파'와 충청도 출신 중심의 '호헌파'가 양대 세력을 구축하다가 1966년 총회 이후 경기도 중심의 '정동파'가 형성되어 한국 감리교 정치의 '삼국지'시대를 열었다. 이후 이들 세 계파 사이의 견제와 합종연횡(合縱連橫)으로 감리교 정치와 행정이 전개되었다. 이를 '서클 정치'라 하였는데, 지방색을 바탕으로 한 교권 정치였기에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감독 선거에 나타났다. '서클 정치'가 교회 안팎에서 판을 쳤고, 1970년 교단 정치에 불만을 품은 경기도 인천·강화 지역 목회자들이 '경기연회'를

별도로 구성, 교회 분열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1950~70년대 감리교 정치 상황에 춘천중앙감리교회는 비교적 중앙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다른 지방교회처럼 교단 분열 때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예배당 쟁탈전이나 재판 소송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중앙의 '서클 정치'로부터 완전 자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서클 정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0~70년대 춘천중앙교회는 명관조-이정엽-김연호 목사로 이어지는 담임목사 교체를 체험하였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잦은 목회자 교체 배경에 '서클 정치'의 영향도 없지 않았다.

2) 춘천중앙교회의 성장

(1) 1960년대 전반 교회 부흥-이정엽 목사의 '성악'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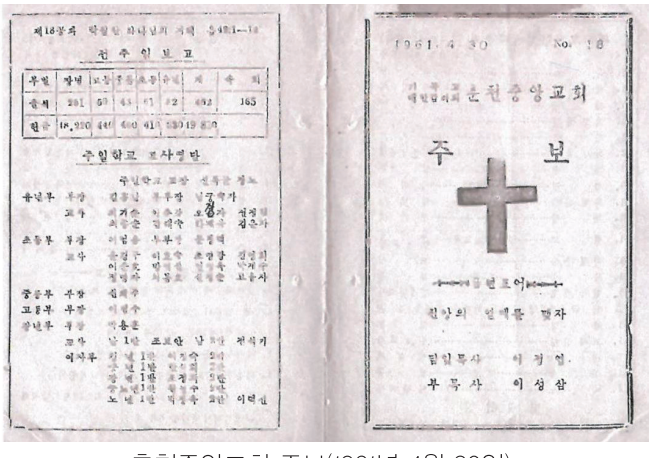
1960년대 전반부는 1959년에 부임하여 1963년까지 4년간 시무한 이정엽 목사의 목회시기이다. 명관조 목사 후임으로 춘천중앙교회에 파송된 이는 이정엽(李貞燁) 목사였다. 1914년 개성 출생인 이정엽 목사는 1936년 남감리회 계통의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여 1941년 '삐라사건'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혼돈기에 졸업했다. 1944년 3월 '혁신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광복 3개월 전 '불경죄'로 45일간 구류되기도 했다. 6.25전쟁 중 월남하여 미감리회 선교부에서 목회자 가족을 위한 피난 시설을 만든 부산 가덕도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선교부 지원을 받아 1951년 전북 부안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후 부안에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감리교 불모지였던 전라도에 성공적으로 감리교회를 발전시키고, 1959년 연회에서 명관조 목사 후임으로 춘천중앙교회에 파송된 것이다. 그는 여러모로 전임 명관조 목사와 유사했다. 나이(1914년생)도 같았고, 출신지역(이북)도 같았으며, 신학교 졸업연도(1941년)도 같았고, 광복 후 서부연회 수난을 몸으로 체험한 것과 전쟁 중 월남한 '피난민 목사'였다는 것도 같았다. 사실 둘은 신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이정엽 목사는 신학교 재학시절 명관조 목사와 '성화단'이란 모임에 참여하였다.

춘천중앙교회 2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정엽 목사는 한국 교계에서 '음악 목사'로 널리 알려진 목회자였다. 이미 신학교 시절부터 전문 성악가에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독창이나 중창단을 만들어 활동했고, 많은 동요, 아동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다. 이정엽 목사는 '기도와 찬송'에 신앙과 목회의 초점을 맞추었다. 북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와 찬송은 그가 은혜받는 확실한 방법이었다. 이정엽 목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송을 강조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목사였기에 그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의 평화를 지향하였다. 설교, 혹은 예배 중에 부르는 성가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 목회가 그의 좌표였다. "금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는 말로 신자의 경제생활에 대한 당연한 원칙을 일깨워주었고 "될 수 있는 대로 벌고 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복음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잘 쓰는 감리교인이 되면 복음은 활발히 움직이리라."고 하였다.

이정엽 목사는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여 교인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에서 예배를 강조하였다. 일제강점기 감리교회 총회 결의에 따라 매월 첫째 주일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교독하였고 정기적으로 성례(성찬식)를 실시하였고 예배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높이려 하였다. 공중기도와 헌금기도는 물론이고 광고 순서도 평신도에게 맡겨 교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이정엽 목사는 지방 감리사직도 겸임하고 있어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지방교회순회에 나서 저녁예배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춘천중앙교회와 지방 교회 간의 '강단 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춘천중앙교회 주보(1961년 4월 30일)

주일학교와 개척교회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였다. 춘천은 강원도의 '교육중심'도시였기에 학교와 학생이 많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 중에는 외지 출신으로 춘천에 '유학' 와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들 학교들이 옥천동 교회 주변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춘천중앙교회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여기에 실력 있는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맡게 됨으로 1960년대 춘천중앙교회 주일학교는 착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61년 당시 주일학교장에는 신록균 장로, 유치부장 김흥남, 초등부장 이범용, 중등부장 신채주, 고등부장 이철수 등이었고 주일학교 헌신예배에 설교를 맡은 이는 춘천서부교회 장인덕 담임목사였다.

그리고 유학생들은 신동면 학곡리교회를 위해 헌금하였다.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다음 주일(8월 6일) 저녁 주일학교 헌신예배 때도 학곡리교회를 위해 헌금하였다. 학곡리교회는 1961년 안정헌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로서 비록 춘천중앙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개척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학곡리교회를 위해 헌금하였다.

중앙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학곡리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성암교회이다. 1959년 3월 15일 심상건 장로와 이순덕 장로 부부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로, 교회를 창립한 심 장로는 과수원과 방앗간을 운영하며 학곡리-신촌리 일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지자였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 줄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초기 안정현 목사(1959~1964년)와 송기창 목사(1964년~1988년 1월)를 거쳐 지금의 허태수 목사(1988년 1월 4일~현재)에 이르면서 300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였다.[79]

남녀선교회와 속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장년부' 평신도 활동은 1960년대 춘천중앙교회 교세 회복과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평신도 설교'를 적극 권장하여 권사들이 헌신예배에서 설교하였으며, 여선교회도 주최예배를 드려 교회가 성장하였다. 교회가 안정되자 일제강점 말기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되었다.

유치원 사업이 그것이다. 춘천유치원은 1920년 남감리회 여선교부에서 설립하여 1925년 춘천여자관 아래층에서 경영하다가 1935년 선교비 중단으로 폐쇄되었던 것인데, 수복 후 1954년 옥천동에 2층 예배당을 마련한 후 아래층에서 유치원

79) 『강원도민일보』(2009.3.17), 「반세기 신앙심 100년 잇는다-춘천성암감리교회 창립50주...세상에 빛이되는 교회 다짐」과 성암교회 홈페이지 참조.

을 다시 열었다. 1959년 6월 춘천시 교육청에 제출한 춘천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명 칭 : 춘천유치원
- 원 장 : 이정엽
- 설립인가 : 단기 4258년(1925) 3월
- 설립자 : 신석구
- 주소 : 춘천시 옥천동 73
- 보육 내용 : 교화 율동 음악 공작
- 경상경비 : 원아1인당 1.000환씩
- 정원 : 남녀 85명(4·5·6세반)



춘천경찰서 직원 춘천유치원 방문기념(1956년 5월 5일)

춘천유치원 재건은 일제강점 말기 중단되었던 유아 선교사업의 재개라는 것과 8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교회 아래층과 마당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것은 전쟁 후 안정을 되찾는 교육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정엽 목사는 감리교회 특징인 속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주일 저녁 예배 순서에 항상 '속회 보고' 시간을 넣어 각 속회별로 속장이 나와 속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63년 2월, 감리교회 기관지 『감리교생활』에 춘천중앙교회 속회 발전 사실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정엽 목사는 이러한 '속회 자랑'을 한 1개월 후 춘천중앙교회를 떠났다. 1963년 3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동부·중부·남부 합동연회에서 서울일신교회로 파송 받았다. 이정엽 목사는 전쟁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던 1959년 부임하여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격동과 혼란의 '혁명의 시대'에 춘천중앙교회를 차분한 목회로 이끌었다. 이정엽 목사의 '성악(聖樂) 목회'가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교인들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였음과 평신도들의 자발적임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냈음은 물론이다. 그의 춘천중앙교회 목회 기간은 비록 4년으로 끝났지만 그 기간 춘천교회는 교육과 선교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정엽 목사는 춘천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마치고 서울로 '영전'(榮

轉)하였다. 춘천중앙교회는 새 목사를 맞이하였다.

(2) 1960년대 후반 교회 부흥과 선교 활동-김연호 목사 부임과 협력 목회

1963년 3월 연회에서 이정엽 목사 후임으로 춘천중앙교회에 김연호(金演皓, 1920~1981) 목사가 파송되었다. 춘천중앙교회 23대 목사로 파송된 김연호 목사는 강원도 횡성 출생으로 15세 때 횡성교회 윤태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인이 되었으며, 남궁억의 민족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반일의식'이 강했다.



김연호 목사가 처음으로 개척한 신망애교회 교인들 모습
(1941년 6월 29일)

1942년 평양성화신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재학 시절 보통강 다리 밑에 걸인들을 모아 '신망애교회'를 개척, 목회를 시작했으며 성화신학교 졸업 후 평양장로회신학교 예과에 진학했으나 1년 만에 중퇴하였다. 이후 경주 부조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철원에서 광복을 맞았고, 반공 운동을 하다 월남하여 서울 감리교신학교에 편입, 1947년 본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예산 양막교회를 시작으로 강화 주문진교회(1948년), 인천 계산교회(1949년), 부평 박촌교회(1951년), 부평 사거리교회(1952년), 수원 매산교회(1954년), 당진 슬항교회(1956년), 서산교회(1959년) 등을 거쳐 1963년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였다.

민족의식, 반공의식이 투철하여 '경천애족'(敬天愛族)을 생활표어로 삼았던 김연호 목사는 한때 정치 운동에도 가담한 바 있으나 전쟁 후에는 목회에 전념하였고, 감리교단이 분열될 때도 교회 정치보다는 교회 부흥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춘천중앙교회에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년 5·6차 다른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감리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파 교회에도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동적'(動的)이고 '정적'(情的)인 목회를 하는 김연호 목사의 부임으로 춘천중앙교회는 활기가 찼다.

예배와 연합예배에도 남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보였다. 김연호 목사가 부임한 후 주일예배 설교를 독점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주일설교를 하도록 하였는데 감리교신학대학의 홍현설 학장, 박대선 교수, 한국신학대학의 김재준 학장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신학자들을 초빙하여 설교를 듣게 하였고 주일저녁예배에도 외부강사를 종종 초빙하였는데 박신오 목사가 내려갔던 주일저녁에는 이화여대 최초 해외 선교사로 파키스탄에 파송되었던 조성자 선교사가 와서 해외선교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다.

김연호 목사는 부임 직후부터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목회와 예배를 이끌었다. 예배분위기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무언(無言) 사회', 즉 사회자가 일일이 순서를 소개하지 않고 교인들이 주보 순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하였으며,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대도시 교회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던 예배 방법을 춘천중앙교회가 시행하였다.

1964년 10월 11일, 당시 인우학사 사감으로 봉직하던 박신오 목사가 주일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춘천중앙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춘천중앙교회를 다녀온 후 교회에서 받은 인상을 『기독교세계』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 *예배를 마친 후 문간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돌아가는 교우들을 전송하면서 느낀 것 역시 교우들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다운 친숙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 교회의 색다른 모임의 한 가지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전체 직원회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회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날도 예배 후 아래층에서 60여 명의 직원이 회의를 가졌는데 직원 한 가정에서 시루떡을 공급하여 서로 떡을 떼면서 화기애애한 중에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었다.*[80]

라고 하여 전체 직원회의의 떡을 떼며 회의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전했다.

주일학교와 속회에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이끌어나갔다. 1960년대 들어 춘천중

80) 박신오, 「교회 순례 : 춘천중앙교회편」, 『기독교세계』(1964.11.15), 6쪽(『춘천중앙교회사』, 516쪽에서 재인용).

앙교회 신앙교육의 구심점인 주일학교도 착실한 발전을 이루었다. 1968~69년 당시 주일학교는 유년부장에 신성주 권사, 초등부장에 최종림, 김학용, 중등부장에 임순안 권사와 정길연, 고등부장에 나희태 장로와 고제국, 장년부장에 한석희 장로 등이 수고하였다.



춘천중앙교회 여름성경학교 모습(1967년 7월 31일)

1960년대 춘천중앙교회 초등부와 유년부 활동, 중고등부 활동, 성가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교회성장의 밑받침이 되었다. 임봉수가 지휘하고 여성희가 반주한 학생성가대, 학생회장 김성호(김연호 목사의 아들)의 독창과 이영진 외 1명이 출연한 관악 2중주 등의 성탄 축하행사는 안정되어가는 춘천중앙교회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년회도 지방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1960년대 춘천지역 교회청년들의 연합 모임으로 광염회(光鹽會)란 단체가 있어 매년 1월 저명한 학자와 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었는데, 춘천중앙교회가 그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

1968년 7월 7일 주일 오후에는 김철손 교수(감리교신학대학)를 초청하여 '현대적 상황하에서의 성서 이해'란 제목의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1월부터 청년 속회를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교회음악을 전공했던 주진주 장로는 1968년 남편과 함께 춘천 선교부에 부임하자마자 춘천중앙교회 청년회를 지도하였는


쥬디 부부 모습

데, 1968년 성탄절에는 청년회 주최 '성탄 축하 촛불예배'를 지도하였으며, 1969년부터 매주일 저녁예배 전에 일반 교인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쳤다. 주진주 장로가 지도하는 청년회 헌신예배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전통적인 예배와 다른, 새롭고 실험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한 청년회는 1969년 11월 18~19일 춘천중앙교회에서 청년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당시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통기타' 연주자 전석환의 지도로 노래 함께 부르기(Sing along) 프로그램을 가졌다.

1960년대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에서 유치원생으로부터 청년·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그 결과 춘천지역의 청소년, 청년 문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춘천중앙교회가 춘천지역 청년·학생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연호 목사의 속회 지도 방법 중 특이한 것은 '속회 임사'(屬會 任事)로 불리는 속회 인도자를 3개월마다 순환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감리교 특유의 '파송 제도'를 속회에 적용한 것으로, 오랜 기간 같은 속회 지도자의 지도를 받음으로 자칫 나태할 수 있는 속도와 속회 지도자들의 신앙 교육과 생활에 자극과 활력을 주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은 연합속회로 모였는데, 그 때마다 그 달 속회공과 내용에서 종합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표창하였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유고 심방일'로 정하여 속장과 속회 임사로 하여금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을 심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연호 목사는 속회공부 외에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적과 간행물 독서를 권장하였다. 즉, 교인들에게 감리교단 기관지인 『기독교세계』와 『성경통신과』, 『새가정』, 『다락방』 등 초교파 기독교 정기간행물 구독을 권장하고, 교회 임원 중 담당자를 두어 정기구독 회원들을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런 자율적 성경 공부와 독서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성장했던 것이다.

개척 선교와 사회 구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하였다.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와 장년회(후의 남선교회)가 주동이 되어 용수목교회를 개척하였다. 용수목교회는 1964년에 춘성군 북산면 사전리 용수목에 김명분 여전도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로서 북산면 오항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1970년 11월 26일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용수목교회는 1955년 개척한 춘천 서부교회에 이어 춘천중앙교회의 광복 후 두 번째 개척교회인 셈이다.



동원감리교회 창립1주년 중등부모습(1970년 4월 12일)

세 번째 개척교회는 동원교회로, 춘천시 효자동 2가 1491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1969년 4월 13일 '교회 분립예배'를 드렸다. 초대 담임자는 마경욱 전도사였고 개척예배를 '분립예배'라 한 것은 춘천중앙교회의 효자속을 중심으로 한 교인 70여 명이 개척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의 광복 후 세 번째 개척교회로 동원교회가 설립되었다. 1955년의 서부교회 개척이 살던 집과 땅을 헌납한 박춘자 권사의 개인적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1964년의 용수목교회(북산교회) 개척이 여선교회와 장년회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원교회는 전 교인이 대지 헌금과 건축 헌금을 하였고 일부 속회를 떼어 개척교회로 파송하는 '분립' 형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1960년대 춘천중앙교회의 사회 선교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우선 김연호 목사가 부흥사로 활동하면서도 사회 선교와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연호 목사는 지방 감리사 일 외에 YMCA 이사장(1964년 2월 10일 취임, 7대)도 겸하여 시내 교회와 사회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운동에서 기여하고", "독서와 설교 준비에 충실하여 심방에 힘쓰고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힘써 사회가 교회에 관심을 두도록 하며



YMCA이사장 김연호 목사 시청광장에서 열린 YMCA세계 기도회 참석(중앙 3번째 줄, 1964년 11월 9일)

공부하는 목사 일하는 목사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춘천지역 기독교 사회운동의 구심점인 춘천 기독교청년회(YMCA)는 1949년 창립될 때부터 춘천중앙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김연호 목사는 그 이사장으로서 기독교청년회의 정신적,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원하였다. 김연호 목사는 춘천지역의 초교파 교회연합행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반 모임에도 참여하여 이를 복음 선교의 기회로 삼았다. 김연호 목사가 1966년 6월 춘천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전달한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다. 다음은 감리교 잡지 『기독교세계』의 내용이다.

> *최근에 감독님(이환신)께 보낸 춘천지방 김연호 감리사의 보고에 의하면, 김 감리사는 도지사의 초청을 받아 도내 중요 시읍을 다니면서 정신계몽 강연과 아울러 많은 국민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밖에도 군대, 경찰, 교도소의 전도와 방송전도의 기회도 많이 가졌고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장관 회의시에는 임석하신 박 대통령께 성경전서를 기증할 기회를 가졌으며 동시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81]

담임목사의 '사회 참여' 의지가 이처럼 적극적이었으므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도 사회구제와 사회봉사에 적극적이었다.

이외에 춘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1969년 5월부터 매일 밤 10시 청소년들의 귀가를 촉구하는 '사랑의 종' 타종에 춘천중앙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그해 6월 19일부터 간질환자 무료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간질환자 치료 봉사활동은 당시 인천기독병원에서 활동하던 미연합감리회 여선교사 로빈슨(L. B. Robinson, 노연복)이 1966년부터 '장미회'를 조직하여 전개하였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춘천에서는 춘천중앙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로빈슨을 비

81) 『기독교세계』(1966.7.14), 8쪽(『춘천중앙교회사』, 527쪽에서 재인용).


진료하고 있는 로빈슨 선교사(1970년 초, 장미회 제공)

롯한 의사들이 '간질환자의 날'로 정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춘천에 와서 교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치료의 혜택을 주었다. 이런 장미회 봉사활동은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런 '사랑의 종'과 '간질환자의 날' 행사를 비롯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춘천중앙교회는 지역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특히 '장미회(Rose Club Korea)'는 치료 및 복지 활동을 통해 간질 환자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장미회는 본래 1963년 59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이 땅으로 건너와 30여 년간 활동했던 레나 벨 로빈슨(Lenna Belle Robinson, 1904~2004)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설립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가 간질 환자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1966년 성경을 가르치던 신학생 중에 간질을 앓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환자 12명을 모아놓고 간질에 대한 교육 모임을 시작했고, 이것이 장미회 창립 배경이 됐다. "가시가 있는 장미가 아름다운 것처럼, 간질 환자도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다.

박종철 원장(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이 로빈슨 선교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가 간질을 앓는 여학생을 데려와서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때는 간질치료약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약값이 비쌌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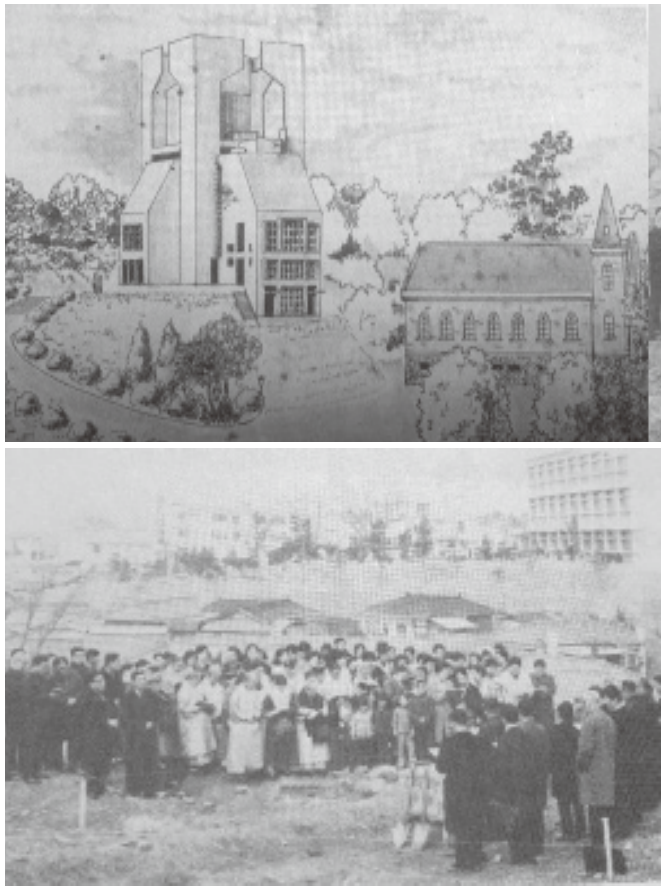
당시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던 박 원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로빈슨 선교사의 간질 환자 모임에 참여해 의료봉사를 하게 됐고 1974년 서울기독교의사회가 중심이 돼 '사단법인 장미회'를 발족하게 되었다.[82]

82) 『CBS노컷뉴스』(2017.12.12), 「50년 이어온 의료 섬김… '장미회'에서 '로즈클럽'으로」,

(3) 1970년대 전반 교회 건축과 선교 활동

춘천중앙교회는 1970년대를 새 예배당 건축으로 열었다. 춘천중앙교회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요선동 예배당은 6.25전쟁 때 폭격을 맞아 소실되었고, 수복 후 전에 선교부 병원으로 사용하던 옥천동 벽돌 2층 건물을 예배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교인 수가 꾸준하게 늘어 5백 명 수준의 교인 총수가 1천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 예배 공간이 좁게 되어 새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춘천중앙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은 1965년 11월 "예배당 후면에 대지 총 400여 평을 구입하기로 하여 120만 원에 예약을 체결한 것"에서 출발한다. 새 예배당부지는 옥천동 예배당 위쪽에 있던 남감리회 선교부 소유부지 가운데 일부였다. 그러나 새 성전 건축은 1969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1969년 3월, 성전 건축위원회(위원장 김병선 장로)와 위원 15명을 조직하고 그해 6월부터 건축 헌금을 시작하여 교인들은 적금을 들어 건축 헌금에 참여하였다. 1969년 연말에 확정된 새 성전 설계는 육군본부 군종센터를 설계했던 건축가 김석재가 하였는데, 그는 예배당의 고전적인 고딕양식을 피하고 현대적 건축 양식을 택하였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아폴로예배당 조감도와 기공예배 모습
(1970년 3월 2일)

그 결과 새 성전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매머드 건물로 십자가와 등대 모양을

상징하며 당시 춘천 시내 일약 명물로 등장한 십자가와 등대 모양을 선택한 것은 교회의 세계성과 한국성을 동시에 살리자는 의도와 세상의 빛을 알리자는 성도들의 열망의 결실로 선택된 것"이라는 설명을 담은 조각 작품 같은 초현대적 건축물이었다. 그런데 그 모양이 1969년 7월 최초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와 흡사하여 주위에서 '아폴로 예배당'으로 불렸다.

새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70년 3월 2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4월 10일 정초식을 거행하였으며, 6월 28일에 새 성전에 입당하였고, 7월 21일(화) 오후 2시 새 성전 봉헌예배를 드렸는데, 김연호 목사 사회로 김종필 감독의 설교, 정등운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새 성전은 대지 1천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연건평 245평이었고 1,500만 원에 달한 건축비는 교인들의 헌금과 요선동에 있던 예배당부지를 판매 대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1904년 이덕수의 초가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1910년 대판리 한옥 예배당, 1925년 요선동 춘천여자관 2층 벽돌 예배당과 1955년 옥천동 벽돌 2층 예배당을 거쳐 다섯 번째 예배당을 얻게 되었다.

이전 예배당들이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것들이라면 새 성전은 외부 지원 없이 춘천교회 교인들의 자체 헌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본격적인 건축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중단 없이 건축을 마무리하고 봉헌까지 하였다는 사실에서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성숙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당 모양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탈피하고 조형미를 강조한 현대식 건축 양식을 과감하게 채용함으로 교계뿐 아니라 일반 건축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김연호 목사와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진취성'을 읽을 수 있다.


아폴로예배당 모습(1970년)

이렇게 해서 새로 지은 '아폴로' 예배당에

서 1972년 3월 동부연회 제23회 연회가 개최되었는데, 춘천중앙교회에서 연회가 개최된 것은 1933년 4월 제3회 동부연회가 허문리(요선동) 예배당에서 개최된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동부연회의 거점 교회로서 그 역할을 회복하였다 할 수 있다. 춘천중앙교회가 새 성전을 마련함으로 1955년 이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옥천동의 벽돌 2층 예배당 건물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넓은 교육 공간을 얻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춘천중앙교회의 건축운동은 계속 이어져 1973년 8월 150만 원을 들여 부목사관을 건축하고 목사관 응접실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춘천중앙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운동이 본격화된 1969년 독자적인 '교회 묘지'를 마련하였다. 역사가 오랜 만큼 원로 교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작고한 교인들이 묻힐 공동묘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곡리로 이장된 이덕수 전도사 묘소

게다가 196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춘천 선교 개척자 이덕수 전도사의 무덤이 있던 춘천여고 아래 교동 일대가 재개발되어 묘소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다. 춘천중앙교회의 교인 공동묘지 조성작업은 김연호 목사 부임 1년 후인 1964년 "교회 공동묘지의 설정을 목표로 꾸준히 연보를 수합하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산 21번지 일대 967평을 확보하고 1969년 4월부터 춘천중앙교회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다.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학곡리에 묘지를 조성하고 4월 6일 묘지 주변에 식목한 후 4월 12일 이덕수 전도사의 무덤을 제일 먼저 옮겼다. 이로써 처음으로 춘천에 들어와 목회하다 1909년 순직한 이덕수 전도사는 봉의산 언덕에 묻힌 지 꼭 60년 만에 교회가 마련한 학곡리 새 묘지의 첫 입주자가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춘천중앙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목회자와 교인들의 무덤이 속속 들어섰다.

한편 춘천중앙교회 부임 10년을 맞은 1970년대 들어 김연호 목사는 옥천동에 새 성전을 건축한 후 한층 안정적인 목회 기반을 구축하고 춘천중앙교회 성장 시대를 열어 갔다. 김연호 목사의 1960년대가 교회 적응 및 탐색의 기간이었다면 1970년대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목회 철학을 펼쳐나갔던 시기였다.

김연호 목사는 가능한 한 교인 '치리'를 지양하며 위원회 제도를 두어 평신도들의 목회 참여 폭을 넓히려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효율적인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였다. 평신도를 위한 신앙 세미나, 신학원 제도를 운용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의 신앙교육을 도모하였다. 감리교 청년회(MYF) 춘천지방연합회가 운영하는 '새마을중학교'를 후원함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교육에도 참여하였다. 김연호 목사는 1960~70년대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로 활약하면서도 현실 참여의 신학을 갖고 사회 구원과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전개된 '춘천 복음화운동에 누구보다 적극 참여하였다. 춘천 평신도지도자들의 적극적 추대로 춘천성시화 위원장에 추대되어 춘천을 복음의 도시로 이루는 초교파 신앙운동에 힘쓰며 춘천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도를 요청하였다.

에큐메니칼운동(Ecumenical movement, 교회일치운동)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김연호 목사였기에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지방의 각종 초교파 연합예배와 집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용되었고 신구교 일치운동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1970년대 들어 춘천중앙교회는 국내선교와 국외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국내선교로 덕원교회, 청원교회, 사북교회, 방산제일교회 등으로 지방교회 보조를 하고 있으며 국외선교로는 일본 북해도 돕고 있지만 500만원 해외선교사 파송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평신도들의 참여를 기대하였다. 교회 예산 운용 원칙은 '삼위일체' 원리였다. 즉 "1972년도는 총예산 600만 원에 선교, 교육, 봉사로 삼위일체 형식으로 편성되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교회의 기본 기능인 선교와 교육, 봉사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도록 유도함으로 균형적 분배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그의 목회를 '삼위일체 목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연호 목사는 확고한 목회 철학과 원칙을 갖고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를 이끌어 갔다. 그는 매년 연초 교회의 표어와 실천 목표를 제시하여 평신도들

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목회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목회진용에서 1960년대의 김연호 담임목사와 홍형표 부목사, 협동 선교사 쥬디 부부로 이루어진 '삼위일체' 목회진용은 1970년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4년 감리교 총회에서 장정(감리교회 헌법)을 개정함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감리교회 임원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유사와 탁사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선교부와 재무부, 관리부 등 3개 부서로 대치되었다. 그런데 춘천중앙교회는 이미 전부터 예배와 교육, 선교, 사회사업, 가정생활, 경조, 행사준비, 묘지관리 등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를 두어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 1970년 초반 당회 서기로는 심재환 권사(1972년)와 김기태 장로(1973년), 김병선 장로(1974년) 등이 수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중앙교회의 예배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71년 10월부터 주일 낮 예배를 2부로 나누어 드리기 시작하였다. 1970년 10월 250평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였음에도 늘어난 교인들로 주일 낮 예배를 두 번으로 나누어 오전 9시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오전 11시에는 장년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973년 9월 30일부터는 주일예배 형식과 내용도 대폭 바꾸었는데, '참회의 기도', '신앙고백', '성도의 교제' 등 교인들이 참여하는 순서가 늘었으며, 성가대의 비중도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 새롭게 시작한 초교파연합행사 중에 '한·미 합동 부활절 새벽예배'(AmericanKorean United Easter Sunrise Service)가 있다. 춘천 시내 교회들의 초교파연합부활절예배는 1960년대에도 있었지만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과 연합으로 드리는 부활절 새벽예배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971년 4월 11일 부활절 오전 5시에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가 주최로 '한·미합동부활절새벽예배'가 열렸는데, 춘천 시내 각 교회 교인들과 춘천 주둔 미군과 한국군부대 장병들이 참여하였고, 춘천중앙교회의 김연호 목사가 "부활절의 현대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때부터 한·미 합동 부활절 새벽예배는 연례행사가 되었고 그 집회 장소와 제일 가까웠던 춘천중앙교회는 교인들과 성가대가 매년 참여하여 예배를 도왔다.

김연호 목사는 1972년 미국 대학생선교회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와 춘천 지구 대학생선교회 활동을 후원하였고, 1973년 1~2월 대학생선교회 동계성

서대학을 춘천중앙교회 교육관에서 개최하도록 주선하였으며, 1974년 1월 춘천중앙교회의 이상규 권사를 춘천 대학생선교회 간사로 파송하여 대학생 선교를 지원하였다.

김연호 목사는 계속해서 1973년 10월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1918~2018) 한국 전도대회 춘천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요원 훈련을 춘천중앙교회에 유치하였고 '엑스플로 74 춘천지구복음화대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결과 1974년 5월에 '엑스플로 74 춘천춘성지구복음화대회'(강사 최기석 목사)를, 같은 해 10월에는 '엑스플로 74 춘천복음화전도대회'(강사 조용기 목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춘천복음화운동, 성시화운동, 엑스플로 74대회 등을 거치면서 춘천지역 교세가 크게 성장하였다.

1960~70년대 춘천시 인구 및 종교 통계

구분	1968년	1973년	1975년
춘천인구	107.484	135.271	140.521 (100%)
기독교인	5.830	8.517	11.050 (7.8%)
천주교인	11.940	8.057	10.370 (7.4%
불교인	2.040	5.688	3.190 (2.3%)
천도교인	70	33	113
유교인		1.400	
총계	19.880(18.5%)	23.695(17.5%)	24.723(17.6%)

위의 표에 의하면 다른 종교의 경우 줄거나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에 비해 춘천의 기독교인은 1968년 5,830명에서 1973년 8,517명, 1975년 11,050명으로 매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8년 부터 1975년까지 춘천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4%에서 7.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다 이는 천주교인이 11.1%에서 7.4%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춘천에서 기독교는 교세가 가장 큰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춘천중앙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춘천성시화, 춘천지역 복음화운동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의 신앙교육은 그 전과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전의 주일학교)를 통한 교육과 속회 및 남·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등 교회 자치기구를 통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춘천중앙교회의 교사진용은 막강했다. 춘천이 강원도의 행정중심일 뿐 아니라 교육의 중심도시였기에 학교와 교육기관도 많았고 그래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유동 인구'도 많았다. 그 결과 춘천중앙교회는 '교육 전문가와 교사들'이 많이 출석했고 이들이 춘천중앙교회 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였다.

우선 장로를 보더라도 황정 장로(춘천여중 교장)와 임동섭 장로(공무원교육원장), 김기태 장로(강원도 교육위원회), 안민 장로(강원도 교육위원회 장학사) 등이 고위 '교육공무원'이었고, 정길연(춘천시 교육청 장학사), 임봉수(소양중 교감), 서병선(계촌중학 교장), 전정주(교동초등학교 교장), 이창래(석화초등학교 교장), 김영수(강릉상고 교감), 전재윤(마차중학 교감), 전재운(원주고 교감), 문선재(강원대 교수), 김창림(평창 계촌중학교 교장) 등이 있었다.

1970년대 초반 교회학교 교장으로 황정 장로와 나희태 장로, 김병선 장로 등이 수고하였으며, 각 부 부장으로는 유치부장에 정영옥, 유년부장에 신성주와 지정희, 이경애, 초등부장에 신상용, 중등부장에 정길연과 양금직, 고등부장에 정길연, 청년부장에 주진주, 장년부장에 김기태 등이 수고하였다.

이와 같은 '막강한' 교사진용을 갖추고 추진된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의 교회학교 프로그램들은 교회학교의 부흥을 가져 왔다.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 청년회(MYF)도 활발하였는데 이는 청년부장 주진주 장로의 지도 결과였다. 이 시기 청년회 프로그램 중에 특이한 것은 춘천에 있는 각 대학 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담임목사와 대화모임을 갖는 것이었다. 즉, 1972년 6~7월에 매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춘천간호대학, 강원대학, 성심여대, 춘천교대, 일반청년들을 초청하여 김연호 목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교회가 지역 청년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1972부터 매년 가을 기독교 연극 전문극단 「가교」를 초청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였는데 이 극단은 전쟁 전 춘천에서 활동한 바 있는 감리교 여선교사 모어(모세득)가 지도하는 극단으로 주진주 장로의 요청으로 춘천에서도 정기공연을 했다.

1960년대부터 실시하였던 청년대상신앙·신학 강좌도 계속 개최하였다. 즉, 광염회가 주최하는 1월 신앙강좌도 1970년대 지속되었고 춘천지역 감리교회 청년회 연합 모임인 호산나회에도 계속 참여하였는데 춘천중앙교회의 오상집이 지방연합회 회장으로 활약하면서 춘천중앙교회 교육관에서 지방청년연합회 설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감리교청년회(MYF) 지방연합회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춘천지역의 극빈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관에서 1973년 3월 '새마을중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년 후 '예맥중학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춘천중앙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 청년·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반응이 좋았다.

1970년대 여선교회 활동도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는 이미 1960년대말부터 장년 여선교회와 청장년 여선교회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었는데1 대내외 사업에는 힘을 모았다. 1970년대 들어 회원 수 100~130명 수준을 보인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는 주기적으로 산상 기도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연합 속회 때 교육부 주최로 성경퀴즈대회를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안식관과 영안관, 군부대, 신학대학, 병원, 교도소, 농아학교 등을 방문하여 위로 전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경애 권사의 사회활동도 두드러졌는데, 우선 그는 1970년 4월 춘천 여자기독교청년회(YWCA)를 창설회원으로 2대(1970~1972년)·5대(1977~1976년)회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71년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72년 문화재보호협회 강원도운영위원을 거쳐 1972년 10월 강원도 어머니배구단을 창단하고 단장으로 취임하여 폭넓은 사회활동을 폈으며, 1972년 7월 교도소 선교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활동은 교회 범위를 뛰어넘어 춘천지역사회까지 연장되었다.


이경애 권사

한편, 춘천YWCA의 첫발은 1966년 3월 17일 중앙감리교회 교육관에서 시작됐다. 서부감리교회 최연실, 중앙감리교회 이경애, 제일장로교회 정형숙, 동부교회 장옥주, 성결교회 김규봉 씨 등

각 교회를 대표하는 여성 70여 명이 모여 춘천YWCA를 창립했으며, 최연실 씨를 초대회장(1966년~1969년)으로 추대했으며, 부회장에 이경애와 정형숙, 회계에 장옥주, 서기에 이정희, 총무에 권혁희가 맡았다.

창립 초기부터 여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온 춘천YWCA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해 생활과 밀접한 기능 및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했다.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여성단체들이 봉사 및 계몽 위주의 사업을 벌였다면 춘천YWCA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했다.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사회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1973년 경제활동이 절박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파출가정부' 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해오던 가사노동을 체계적인 일자리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또 청년클럽, Y틴 클럽, 영어성경회화 클럽 등 다양한 클럽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후 청년·여성·기독교·국제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춘천지역의 환경·소비자보호·청소년·탈핵운동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일을 도우며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함께 풀어온 춘천YWCA는 사회운동 단체로서 유권자 의식, 여성의 인권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성의있게 참여해 오고 있다.[83]

이 외에 춘천중앙교회에서는 교단 본부에서 운영하는 성경통신과 과정과 대학생선교회(CCC)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정으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도록 유도하였다.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의 선교 활동은 국내 개척교회 설립 지원과 교단의 해외선교 참여, 그리고 춘천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회 선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척교회 사업을 보면 1954년의 춘천 서부교회와 1964년 용수목교회(북산교회), 1969년 효자동 동원교회 개척 이후 한동안 개척교회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개인 혹은 선교회 차원에서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일은 계속 이어졌

83) 『사진으로 보는 춘천 YWCA30년』, 『춘천YWCA50년 여성의 등대되어 길을 비추다』, 『강원도민일보』(2016.4.26), 「가사 노동 '일자리'로… 여성활동 가이드」 참조.

다. 즉, 1970년 2월 이경애 권사가 개척교회인 양구 방산교회를 위해 매월 1천 원 선교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 11월에는 방산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전 교인이 헌금을 실시하여 2만 3천여 원을 방산교회에 보내주면서 계속 지원하였다.

춘천중앙교회의 해외 선교는 일본 선교로 시작하였다. 동부연회에서는 1970년 1월 이성주 목사를 일본 홋카이도(北海島) 선교사로 파송하여 연회 안의 전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는데, 춘천중앙교회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우선 김연호 목사는 1970년 4월부터 6월까지 한인 교포교회가 있는 일본 오사카, 교토, 오카야마 등지를 돌며 부흥회와 전도 집회를 열었고, 이성주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홋카이도까지 가서 그 실상을 파악하고 돌아왔다.

춘천중앙교회가 1970년대 들어 지역사회, 특히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봉사로 새롭게 추진한 것이 도서관이다. 교회가 위치한 곳이 학교가 몰려 있는 지역이어서 방과 후 학생들이 독서를 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1970년 2월부터 '한 교인 한 권씩' 도서 기증 운동을 벌였고, 속회 단위로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그리하여 1970년 3월 29일 교육관 안에 열람석 40석의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교회에서는 초대 도서관장에 정길연 권사를 임명하였다.

1970년대 춘천중앙교회는 교육과 선교, 친교와 사회봉사 분야에서 착실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이처럼 성장 기반 위에 올려놓은 김연호 목사를 위해 1973년 10월 24일 '김연호 목사 근속 10주년 축하 예배'를 성대하게 베풀어 위로하였다. 교인들은 그가 교회에 계속 남아 목회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김연호 목사는 이 예배 후 8개월 만인 1974년 6월 '돌연'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1974년 6월 16일 주일 저녁에 임시 구역회를 개최하여 그의


김연호 목사 근속 10주년 감사예배 때의 모습(1973년 10월 24일)

이임을 결의하고 6월 23일 주일 저녁에 환송예배를 드렸는데, 김연호 목사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 수원 종로교회로 떠났다. 이로써 김연호 목사의 춘천중앙교회 목회는 11년 3개월 만에 조용히 막을 내렸고, 춘천중앙교회는 새로운 목사를 맞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만 하였다.

3) 춘천신성교회의 조직정비와 성장

후평교회의 1960년대는 잦은 교역자의 교체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부터 김성근 전도사가 후평교회의 교인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라'는 의미로 '신성(新聖)'이라는 교명을 정하고[84] 교회도 신축하면서 야심차게 출발하였지만 교회가 부도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창수 목사가 군목으로 제대한 후 1972년 8월 15일 신성교회에 부임했다. 김창수 목사는 부임 후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건축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하는 일과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일이었다. 김창수 목사가 부임 후 첫 당회가 1972년 12월 10일 신성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당회원 50명 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사, 속장, 유사, 탁사를 선출할 때, 장로가 없는 교회여서 권사를 신중하게 선출해야 했다. 대다수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있던 김완제 속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권사에 이어 속장과 유사, 탁사 선출이 있었다. 김창수 목사는 속회의 수를 4개로 하고 속장 수는 10명, 유사의 수는 7명, 탁사의 수는 9명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1972년 당회에서 선출된 속장은 최경사, 안금옥, 안순헌, 김상순, 장영희, 김영실, 김명희, 신금항, 라정회, 김금예, 김선회였다. 유사는 김


김창수 목사의 군목 때의 모습

84) 필자(김동정 장로)가 2011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김성근 목사와 직접 통화하였다. 부임한 다음해인 1970년, '후평(後坪)'이란 말도 동네 사람들은 '뒤뚜루'라고 한데다가 동네도 후미진 곳이어서 동네도 성도들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서 '날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라'는 의미의 신성(新聖)을 교명으로 했다고 하였다.

완제, 신금항, 정순석, 라정희, 김병희, 최경사, 정추규였으며, 탁사는 권영화, 정병석, 손소준, 조덕구, 김준규, 유근예, 이홍종, 최화자, 박필순이였다.

여기에서 다소 생소한 1972년 당시 평신도 직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평신도의 직분은 속장, 권사, 장로 단계였다. 여기서 장로 또한 광복 직후 감리교회에 들어온 직분으로서 광복 이전까지 원래 감리교회 평신도의 직제는 속장, 권사, 전도사 이 3단계였다. 이 제도는 거의 60여 년 동안 감리교회 고유의 평신도 직분이었다. 이런 직분은 현재의 장정에 나타난 평신도 직분인 장로와 권사 그리고 집사와는 사뭇 다르다. 장로와 권사에 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속장(屬長), 유사(有事), 탁사(託事)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장로, 권사, 속장이 직분별로 구분한 것이라면 속장, 유사, 탁사는 평신도를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속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과 동일하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유사와 탁사는 지금의 재무부와 관리부로 생각하면 쉽다. 이처럼 속장, 유사, 탁사는 평신도를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권사와 장로도 유사와 탁사가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와 관리부에 장로와 권사가 다수 포함된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성교회 당회가 열렸던 1972년 당시의 유사와 탁사의 직무 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유사 : ① 본 구역 담임자의 봉급을 공급하는 책임이 있다 ② 교회의 모든 경비를 위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정한다. ③ 교회 경비를 위하여 그 금액을 교인에게 부담도 하며 연보도 청한다. ④ 교회의 모든 연금을 수합도 하고 지출도 한다. ⑤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성찬을 준비한다. ⑥ 담임교역자의 주택을 준비한다. ⑦ 총회와 연회와 지방회에서 부담시킨 금액을 수합하여 각기 해당 회계에게 보낸다. ⑧ 재정형편을 매월 교회에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 한다. ⑨ 교회부동산에 대한 납세 기타 공과금을 대납한다. 탁사 : ① 교회안의 부동산과 동산의 재산대장을 제정하여 보존한다. ② 재산용 유지재단에 편입시킨다. ③ 교회의 건물과 비품을 수리한다. ④ 기타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975년 제12회 총회 때는 집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집사제도가 감리교회에 들

어옴으로 이때부터 평신도의 직분은 집사, 권사, 장로의 단계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때 개정된 집사는 각각 선교(속장)와 재무, 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다. 즉 일정한 교인수당 집사의 수를 정하고 선출된 집사를 각각 속장과 재무, 관리부원으로 배정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교회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실내공사는 완공된 상태가 아니라서 장의자 12개를 구입하여 차가운 바닥에서 예배드리는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당시 부도난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미 선교사 쥬디(C. W.]udy) 목사가 춘천지원 15792호로 된 등기필증(등기가 된 일자가 1972년 12월 18일이고 내용은 교회 건평 41평)을 선물로 주었다. 쥬디 선교사가 신성교회 건물 부도를 다 해결해준 것이었다.


등기필한 신성교회에서 진행된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과 교사 (1970년대)

여기에서 쥬디 선교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쥬디 목사는 동부연회로는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한국 이름은 주덕(朱德)이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출생한 그는 모리스하비대학과 듀크대학에서 해외 선교신학을 전공한 후 1948년 한국에 파송되었다. 그러나 미처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인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예일대학교 어학훈련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 1953년 휴전이 되자 다시 내한하여 본격적인 선교 활동에 들어갔다. 그의 사역지는 충주, 원주, 김천, 영월, 춘천, 홍천 지방으로 그야말로 강원도 산골이었다. 그는 특히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신학생을 양성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58년에는 원주연합기독병원을 설립하였고 문창모 장로와 협조하여 원주시내 나환자 수용 시설인 경천원을 설립하였다. 이런 활동으로 그는 한국정부로부터 보



쥬디 선교사 내외 한국선교35년 퇴임 송별예배
(1983년, 신성감리교회)

건사회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그는 한국 감리교회와 미국 교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협의회 회원, 총리원 이사, 동부연희 협동총무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의 부인인 브래넌(Magaret Brannan)은 일제강점하에서 원주, 춘천, 홍천 등지에서 선교한 헌신적인 선교사 프래넌(L. C. Brannan)의 딸로 유년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낸 분이었다. 쥬디와 정혼한 그녀는 강원도 산골지역을 돌며 선교사역을 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원주와 춘천에서 유치원 사역과 성가대 지휘를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이들 부부는 1983년 7월에 은퇴하여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들은 한국에서 지낸 35년간을 강원도지역에서만 선교활동을 한 동부연회의 산증인이요 공로자다. 당시 동부연회 각 교회는 쥬디 목사의 정성스러운 선교 지원을 받은 교회가 적지 않았다.[85]

김창수 목사의 차분하면서도 안정적인 목회로 교인들은 교회생활에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 교인들이 열심히 생기니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열린 당회에는 이미 입교인인 100명이 넘어서서 125명에 이르고 있었다. 담임목사는 보고를 통해 1978년에는 예배 참석 인원을 장년만 100명에서 140명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목회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김창수 목사의 전도방식 중에는 교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염을 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성이 당시 주변에 감동을 주었다.

85)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 한국감리교회사 학회, 1980, 122쪽(『신성교회 70년사』 92쪽에서 재인용).

6·70년대나 80년 초까지만 해도 장의사가 없어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염은 대개 목사가 해야 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염을 배웠다. 그래서 군목으로 있을 당시에도 부대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군의관이 염을 할 때도 있고 자신이 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같이 하기도 하였다. 신성교회에 부임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5~6차례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염을 했고 절반은 교인 중에 염하는 사람이 하곤 했다. 그런데 자신 없이는 염을 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오히려 보려고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서 도왔고 때로 성도 몇 명이 도와주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목사가 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특히 목사가 안 해주면 천국에 못간다는 인식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당시 지방회 때 중앙교회 김연우 목사는 목사를 눕혀놓고 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하여 김종철 장로와 찾아갔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새벽 6시까지 돌아가시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샌 적이 있다. 이 할머니가 밤새도록 발악하면서 소리 지르자 가족들은 다 도망 가버렸다. 우리는 그나마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는 정성껏 염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청년들과 밤새도록 미농지 종이로 꽃을 만들었다. 붉은 꽃은 십자가 모양을 장식하고 나머지는 흰꽃으로 관 위에 장식하였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성껏 장례예배를 드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대개 기독교식 장례는 동네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기독교식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때로 기독교식으로 해도 형제간에 불화가 생겨 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하며 사람들을 받다가 또 예배드리러 가면 감쪽같이 치우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장지에서 하관예배를 드린 후 해를 다지고 오는데 저 뒤에다 감추어 놓은 제물을 가져다가 묘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기독인과 비기독인의 두드러진 차이는 장례에서 잘 나타났으며, 불신자들은 상주들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이에 정성껏 깨끗하게 예배드리면 전도도 되어 "나 죽으면 교회식으로 해 달라"는 유언도 남기는 사람이 있었다.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었고 보람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여 당시 장례식장이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염을 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특히 지방회에서 춘천중앙교회 김연호 목사의 염 시범도 이채롭고 청년들과 밤새도록 미농지 종이로 꽃을 만들었으며, 붉은 꽃은 십자가 모양을 장식하고 나머지는 흰꽃으로 관 위에 장식하는 등 이러한 정성 어린 모든 선행이 전도에도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성교회에서는 1972~74년까지 후평재건학교(교장 김종열)를 운영하였다.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교였다. 교사는 주로 김종열, 조인구, 김종원, 윤재설 등 10여 명의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학생들은 40명 정도였다.

4) 부흥하는 춘천석사교회

안정 속에서 성장하던 석사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는 임택창 목사의 부임과 함께 주어졌다. 임택창 목사가 계획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목회로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석사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임택창 목사

1968년 8월 22일에 임택창(林澤昌)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는 1935년 11월 10일에 태어났다. 1962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70년에는 선교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가 교인들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는 아래의 1968~1973년까지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8~1973년도 석사교회 재정 및 교인현황

연도	재정현황(원)		교인수(명)			임원수(명)		
	수입	지출	남	여	계	남		계
1968년	316,107	316,015	38	55	93	9	14	23
1969년	416,285	408,929	43	75	118	13	14	27
1970년	639,968	639,559	41	78	119	13	15	28
1971년	804,821	804,593	69	99	168			
1972년	1,169,813	1,122,709	78	114	192	17	19	36
1973년	1,352,587	1,339,290	131	213	344	20	22	42

* 『석사교회80년사』, 「1968~1973년도 교회 현황」, 135쪽.

위의 통계표를 보면 교회재정 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교인 수의 늘어남이 눈에 띈다. 특히 1971~1973년까지가 교회 발전의 전환점이 되어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1976년에는 입교인 146명(남48, 여98), 세례인 13명(남5, 여8), 세례아동 8명(남1, 여7), 학습인 20명(남12, 여8), 원입인 233명(남85, 여148), 합계 420명(남151, 여269)으로 확장되었다.



신축봉헌예배 후 목사·장로부부 일동
(1978년 8월 15일)

1954년 예배당을 건축한 후 교회 내부의 성구와 비품이 부족하여 교인들은 그것을 채우는 일에 매진하였다. 6.25전쟁 후에 세워진 예배당은 점점 낡아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또 공간도 비좁게 되었다. 이에 예배당을 수리하고 시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다.

우선 예배당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1968년 10월 예배당 외곽을 이영일 장로가 헌납한 백시멘트와 백회로 단장하였다. 이 일은 이영일 장로와 박찬화 선생이 직접 감당하였다. 1968년 12월 15일 열린 당회에서는 임택창 목사가 교회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교인들

의 협조를 구했다. 임택창 목사가 제시한 계획은 ① 풍금 구입 ② 음악종(차임벨) ③ 강대상 ④ 등사기 및 철판 구입 ⑤ 휘장 개량 ⑥ 유리창커튼 구입 ⑦ 성가대 가운문제 ⑧ 교회 양쪽담 ⑨ 석유난로구입 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갔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중에 예배당이 너무 낡고 비좁았다. 그래서 1973년부터 예배당 건축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1976년 12월 26일의 당회에서 교회 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일 장로를 선임하면서 교회건축이 본격화되었다. 예배당 건축은 1977년 10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교인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교인들의 헌신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건축공사에 참여했던 홍순화 목사가 「영원한 고향」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회고 한 바 있다.

> *고등학교 때다. 교회 건축이 진행될 때 '김 장로, 이 장로, 홍 목사'하면서 친구를 부르며 봉사하던 시절, 질통에 모래, 자갈을 담고 4층까지 20번의 목표를 세우고 그 숫자를 채워가던 때, 무리하며 큰 돌을 옮기다 다친 허리는 지금도 심한 일을 하면 그때를 생각나게 한다.*[86]

이처럼 영원한 고향을 향한 교인들의 수고와 정성이 깃들인 예배당은 1978년 8월 15일 봉헌예배를 드림으로 완성되었다. 『기독교세계』에서는 석사교회의 성전봉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춘천석사교회신축봉헌***
>
> *1978년 8월 15일 오후 2시 30분 춘천 석사교회 신축 봉헌예배 및 임택창 목사 취임 10주년, 이병주 장로 은퇴찬하, 이학규 장로 취임 예배를 아울러 드렸다. 이 예배에는 김창희 감독, 동부연회 조묘희 총무, 인천서지방 이복희 감리사와 현지 국회의원 유지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대지 230평 위에 207평의 2층 교회당 전면 4층짜리 현대식 교회를 1977년 10월 6일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교회를 완공하였다. 전면*

86) 『석사교회 80년사』, 147쪽 참조.

종각은 6층으로 층계가 7채인 야곱의 사다리를 상징했으며, 전면 입체적 건물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상징함이다. 봉헌식이 있기까지 200여 명의 교우들의 땀과 희생이 있었으며, 건축위원장 이영일 장로의 공이 컸었다.[87]

이 예배당 봉헌 이후 교인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79년도 한 해 동안에 교인 200여 명이 더 증가하여 1천 명의 교인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1980년에는 72명의 교인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교인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자 1981년 석사교회 교인들은 경제부흥, 심령부흥, 성령부흥, 가정부흥을 목표로 2천 명의 교인 확보를 위하여 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5) 차고 넘치는 춘천우두교회

담임자 없이 지내던 중 1960년 연회를 맞았다. 1960년 연회는 동부·중부·남부 연합연회로 서울 정동교회에서 모였다. 우두교회 이원석 장로는 이번 연회에서 전임으로 교회를 돌볼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연회에서서 우두교회 담임자로 주완식 전도사를 파송하였다.

주완식 전도사는 졸업생 중에 가장 생활이 안정된 교회로 피송되었다는 부러움을 안고 연회 후 우두교회에 부임하였다. 교인들은 3개월 전에 결혼한 아내와 함께 부임한 전도사를 뜨겁게 환영하였다. 그는 4년간 우두교회에서 목회하였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갔고 교인들도 잘 따라주어 교회는 한결 안정된 가운데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주완식 전도사는 부임 후 우선 지역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가 인사하고 이들을 주택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지역 유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 중에는 애민원 원장(최병환)이 있었다. 주완식 전도사는 고아들의 보육시설인 애민원 원아들을 자원하여 지도하였다. 젊은 전도사의 헌신적인 자세에 고마움을 느끼고 이를 허락하여 주완식 전도사가 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애민원 원아가 80명 정도 교회에 나오게 되니 당연히 교회학교가 부흥되었다.

---

87) 『기독교세계』(1978.10), 17쪽; 『석사교회 80년사』 148쪽에서 재인용.


우두교회 주완식 전도사 재직시 여름성경학교 기념

교사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중고등부 학생들 상당수가 교사가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들을 교사강습회에 보내어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우두교회는 강습회에 참석하는 교사 수가 많기로 유명해졌다.

유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덩달아 교사들이 주축이 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부흥하였다. 주완식 전도사는 이때 수고했던 교사로 성낙춘, 조병옥, 최문길, 임순안, 양금직(대전신학교 출신), 이광상, 이성실, 이호상, 심상오, 이예직, 백규필, 주윤식, 김호영, 정정자, 이원달, 이원옥, 이미순을 들고 있다. 청년들은 사택에 들어와서 함께 밥을 해먹으며 전도사와 격의 없이 지냈다. 쌀이 없어 밥을 굶을 때였는데 담임 전도사 부부가 사는 주택에는 쌀이 넉넉하여 청년들과 이런 정감 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 또 사택 뜰에는 채소밭이 있어서 전도사 부부는 이곳에서 나는 맛 좋은 채소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주완식 전도사의 사모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가까운 병원인 인성병원 원장과 자연히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인성병원 원장이 진찰해 주면 사택에 와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았다. 인근 신진약국도 협조하여 약을 싸게 주어 사택은 진료소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당시 우두동은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는 무의촌이어서 주완식 전도사 아내의 간호사 일은 지역 속에서 큰 호응을 받았고 전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완식 전도사는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더욱 보람 있는 목회를 하였다. 주완식 목사는 1964년 2월까지 담임하였다. 그는 1964년 육군 군목으로 입대하면서 우두교회를 사임하였는데 교인들이 춘천역까지 나아가 눈물로 배웅을 하였다. 이렇게 교인들과 깊은 사랑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주완식 목사는 교회의 지도자인


이원석 장로

이원석 장로 부친의 기념비를 교회 뜰에 세워 대를 이은 충성스런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였다. 이원석 장로의 부친인 이규붕 장로는 우두교회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이원석 장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시신마저 모시지 못한 불효를 늘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담임목사가 이런 마음을 읽고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금을 마련하였다. 1963년 11월 20일에 있었던 기념비 제막식은 이규붕 장로의 순교신앙을 가장 잘 아는 이진호 목사가 하였다. 감리교 기관지인 『감리교 생활』에서는 이날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춘천지방 이규붕 장로 기념비 제막

1963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춘천지방 우두교회에서는 이규붕 장로의 서거 13주기를 맞아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진호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이 제막식에 참여한 수많은 교우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선에 끼친 영향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다. 고인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50년 11월 20일 당시 남침 중에 있던 공산군에 의해 피살되기까지 우두교회 창설엔 물론 그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운동에 전심전력한 기독교인으로 칭송을 받아오던 이기에 우두교회는 1963년 당회에서 그의 공덕비를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라 한다. 이날 식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감리교회대회에 가던 길에 우리나라에 들른 외국



이규붕 장로 우두교회설립 기념비

인들이 채부리 목사의 안내를 받고 이 식에 참여하여 더욱 뜻있게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88]

우두교회는 1967년 4월 28일 신중균 목사의 부임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는다. 교인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고 교회 각 기관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 활기가 넘쳤다.

신중균 목사는 1935년생으로 충남 서산에서 출생하여 목원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다. 1964년 신성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사창교회를 거쳐 1967년 4월 25일 이성순 목사의 후임으로 우두교회에 부임하였다. 신중균 목사가 우두교회에서 목회하던 시기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때로 국가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힘찬 성장의 시기였다. 한국교회도 이 시기에 큰 부흥을 경험하였다. 우두교회의 부흥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무엇보다 담임목사의 열정적인 목회와 평신도들의 충성스런 헌신이 교회부흥의 밑받침이 되었다. 그의 목회 기간은 우두교회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기이며, 이 시기의 주보가 거의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어 선교, 교육, 사회봉사와 각 기관의 활동 신중균 목사 재임시 전교인 야외예배 활동을 상세히 정리할 수 있었다.


신중균 목사

신중균 목사는 부임 후 '차고 넘치는 교회'란 표어를 제시하면서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기를 힘써 강조하였다. 그리고 위의 표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해마다 교회의 첫 번째 과제로 '교회부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두교회는 괄목할 만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 1967년 8월 13일 주보에 의하면, 아동부는 60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3명, 장년부 72명이었는데, 1967년 마지막 주일 통계는 아동부가 166명, 중등부 10명, 고등부 3명, 장년부 100명이 되었다. 또한 1968년 첫 주일 통계는 아동부 118명, 중등부 13명, 고등부

88) 『감리교생활』(1964.11)(『우두교회80년사』, 146~147쪽 재인용).

5명, 장년부 13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힘써 전도한 결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두교회는 이 무렵부터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5일자 주보에는 직원회 결의에 따라 사창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직원은 100원 이상 헌금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석 유사에게 내도록 하였다. 또 그해 우두교회에서도 한국감리교회에서 추진하는 해외선교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해외선교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춘천지방에서는 1970년 김연호 감리사가 일본 북해도에 3개월간 선교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미 북해도에는 이성주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었다. 북해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김연호 감리사는 7월 5일 환등기를 통해 일본선교 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려 주었다. 해외선교가 낯설었던 시절 교인들은 구체적인 해외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


우두교회 부흥사경회 후 기념(강사 김성남 목사, 1969년 1월)

또한 우두교회는 지방회 차원의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다. 대표적인 지방회 집회는 지방부흥사경회였다. 원래 낮에는 사경회로 모이고 저녁에는 부흥회로 모여 부흥사경회라 이름을 붙였으나, 부흥회의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인 만큼 부흥회 형식으로 진행할 때가 있었다. 그 대신 낮 집회는 강사가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쳐서 사경회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였다. 장소는 대부분 춘천중앙교회였다. 1968년에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였다. 강사는 윤창덕 연회장이었다. 등록비는 50원이고 식비는 백미 소두 5되와 부식비 250원 또는 현금 500원이었다.

우두교회는 지방의 행사 뿐 아니라 춘천시내의 초교파 집회도 힘써 참석하였다. 1969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춘천에서 한국기독화운동본부 주최로 종합전도대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김활란 박사로 11월 4~5일에는 춘천성결교회, 6~7일에는 춘천실내체육관에서 모였다. 1971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초교파적인

춘천 부흥전도회로 모였다. 장소는 시청광장, 강사는 조용기 목사였다. 1972년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춘천성시화운동 요원 훈련이 있었다. 1차훈련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밤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2차훈련은 22일부터 27일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있었다. 회비는 100원이었다. 이어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대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등록금은 700원으로 교재와 점심을 제공하였고 기간 중 무료 진료반의 순회 치료가 있었다.

강주백 목사의 뒤를 이어 1976년 4월 1일 우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는 주성호 목사였다. 주성호 목사는 1936년 강원도 고성 출생으로 속초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임하였다. 그의 나이 40세였다. 1976년 4월 4일 부임예배를 시작으로 우두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주성호 목사가 4년 동안 우두교회에서 행한 가장 두드러진 사역은 교회 건축이다. 6.25전쟁으로 파괴된 우두교회 예배당은 미국교회의 복구비를 지원받아 1955년에 봉헌한 건물로 30여 년 동안 개축과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낡고 비좁아 교회 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교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 후반에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교인들의 생활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 재정도 점차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1976년 9월 5일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건축에 착수하였다. 우두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회 건축에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교회 창립 때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9월말 교회 신축대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새로 구입한 부지는 답 891평과 대지 340평을 팔아서 구입한 400평으로, 답은 평당 600원, 대지는 평당 4,000원에 구입하였다. 건축은 이듬해인 197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1978년에 완공된 우두교회 모습

1978년에 완공되었다.

1979년 해가 바뀌어 주성호 목사는 교회 표어를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하고 '전도로 확장하고 교육으로 다져가고 봉사로 생활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성호 목사는 새로운 장년교육을 실시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했고 이를 통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베델성서대학을 도입하였다. 베델성서대학은 당시 평신도 성경공부의 붐을 일으킨 대표적인 성서연구 프로그램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구약을 체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베델성서대학'이란 이름을 걸고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과정을 마치도록 하여 성취감을 높였다.

주성호 목사는 1979년 2월 12일부터 2주간 서울 루터교회 베델성서연구회에 다녀와서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본 과정은 2년인데 11기를 모집한 결과 27명이 등록하여 담임목사가 강사로 베델성서대학을 시작하였다. 베델성서대학 1기생들이 주관하여 두 차례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수강생들의 신앙 간증, 개념 외우기, 강사의 표어 설명, 메시지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980년 월에는 예배 후 1시부터 베델성서대학을 운영하여 예배를 마친 장년 교인들에게 성서연구를 통해 한층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베델성서대학은 수요일에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4월 24일에는 2년 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을 위한 졸업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에 교인들은 성서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참여의 폭을 넓혔다.

6) 장로교와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지역의 장로교는 1960~70년대 동안 갈등과 분열 속에 성장하였다. 연동측과 승동측의 갈등과 분열은 춘천동부교회와 춘천제일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종점을 향해 달리게 하는 결정적인 불씨를 던져주었다. 1959년까지는 두 교회 다 승동측으로 기울었다가 1960년에 들어와 춘천동부교회는 연동측을 택하고 춘천제일교회는 승동측을 택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두 교회 사이에 있는 그동안의 긴장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한 것 같다. 이렇게 하여 1946년에 분립된 두 교회는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보다도 더 가까운 지척에 있으면서도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도 멀리 있는 사이가 되었다.

1960년 5월 3일에 모인 제13회 강원노회는 유감스럽게도 두 개였다. 제12회 노회에서 다음 회기 장소로 춘천제일교회로 결정되었었지만 제13회 노회는 두 곳에서 따로 따로 모이고 있었다. 하나는 원래대로 춘천제일교회에서 모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춘천동부교회에서 모였다. 그럼 강원노회에 속한 교회 중 연동측과 숭동측으로 간 교회는 각각 어떤 교회인가? 양쪽의 노회록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동측 : 춘천동부교회(김유찬), 이석근, 손창록(원통교회), 심상인, 여윤택(서원교회), 이예구, 우춘익, 방관덕(원주중앙교회), 한오권, 이근형, 김광산.
- 숭동측 : 황현익(공근교회), 전재영(화천교회), 이병옥(춘천제일교회), 장규환, 박지석(양구제1교회), 박지훈. 장로로는 박성봉, 김능기, 최두영, 김순성, 정도순, 김은석(효자동교회)

위의 기록에 의하면 강원노회에 속해 있던 교회들 중 연동 측으로 간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 되자, 강원노회 통합문제는 1973년 4월에 열린 통합측과 합동측 양 노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4월 3일 원주중부교회에서 모인 합동측 제39회 강원노회는 이 안을 받고 일곱 번째의 결정대로 '김영생·전제영·김성묵·원숭길·김용화' 등 다섯 명의 전권위원을 선출하였다. 4월 17일에 도계교회에서 모인 통합측 40회 강원노회는 연구위원 3명을 선출하여 연구하기로 하고 연구위원에 계창주·김두록·이치백 목사를 선출하였다. 양 노회에서 통합에 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일단 합동측은 강원노회와 강동노회가 합치는 문제가 먼저였으며, 통합측은 춘천동부교회 문제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합동측은 다섯 명의 전권위원들이 안을 만들어 5월 19일자로 '통합측 강원노회와의 합동인준청원서'와 '총회합동건의서'를 서류로 노회에 접수하였다.

그리고 6월 5일에 홍천제일교회에서 모인 제39회 속회에서 광고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합동 측 강원노회가 합동된 뒤 이 문제는 노회 차원에서 더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원숭길 목사가 1974년 봄에 강원도를 떠나 서울의 봉천

교회로 이명을 해간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합통측이 강원노회와 강동노회가 합동을 하면서 통합 측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합통 전의 강원노회의 의지가 강동노회 측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흐지부지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다. 강원도에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은 통합측에서도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73년 4월의 제40회 노회에서 연구위원 3명이 선정되지만, 그 이후 통합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총회라는 무대에서 연출된 연동측과 숭동측의 연극은 강원노회와 춘천동부교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갈등과 분열로 치달은 그 파장은 다시금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으로 이어졌지만 끝내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한편, 춘천의 중심부에서 명동을 내려다보며 멀리 도청까지 볼 수 있던 붉은 벽돌 예배당에서 1960년 7월 2일에 헌당예배를 드린 것은 춘천동부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중심에 청년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1960년 7월 24 일자 주보에 보면 "본교회 면려청년회에서는 서천(경강)[89]을 개척 전도지로 택하고 20일부터 전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왔다. 그리고 3주일 뒤인 8월 14일 주보에는 "서천교회는 금번 본교회 청년들의 눈부신 활동과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많이 부흥되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주일학생 약 70명, 장년 및 청년 60여 명, 합 130여 명이 회집되고 있습니다"라는 발전된 광고가 나왔다. 3주 만에 130여 명의 교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배당 헌당에 감동된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의 개척에 불을 지핀 열정이 잘 드러난다. 동부교회 청년회의 전도활동으로 13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지만 교회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이들 중에는 1966년에 경강교회가 창립되고 자리매김을 할 때 신자가 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의 청년회 활동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활동적이지 않던 청년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춘천동부교회로서는 남다른

89) 여기에서 서천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읍 서천리이며, 1939년 경춘천 개통 당시 이곳에 있는 역을 서천역이라 불렀다. 그러나 충청남도 서천역과 혼돈을 우려해 경강역으로 바뀌었다. '경강'이란 지명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두 지역의 앞 글자를 따서 일컫게 된 것이다.

의미가 있었다.

청년회의 전도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8년부터 존재하였지만 규모가 매우 미약했던 송암교회를 청년들이 1963년을 전후해 주일학교를 지원하며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당시 청년으로 송암교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봉사했던 박덕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송암교회는 누에를 치던 잠실(蠶室)을 빌려 교육관 및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송암교회는 1967년 4월과 1968년 4월 사이에 자취를 감춘 것 같다. 그다음으로 청년회의 전도활동은 신촌교회와 의암교회를 설립하는 것에서 꽃을 피운다.

이렇게 청년회는 1960년 전반기에 전도활동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경강 지역에서의 복음전도에 청년회가 앞장설 때 김정희 회장이 무거운 짐을 메고 갔다면 송암리교회와 신촌교회를 개척 전도할 때에는 여인삼 회장이 그 짐을 메고 갔다.

1963년의 교회 조직에 대한 1962년 11월 26일의 당회록이 특별한 것은 춘천동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찬양대원들의 명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자 : 송병오, 김상수, 허필준, 장훈기, 강용운, 여인상, 김홍규, 장준혁, 정호강, 이상화, 김병재, 고영기, 최상학, 이원봉, 김정희, 윤보한
- 여자 : 오복희, 장애총, 장춘강, 이소연, 강영자, 정영희, 김순혜, 강해영, 장정자, 강정희, 황영미, 유창숙, 남궁영주, 이호연, 전명자, 김선진
- 대장 ; 이상만
- 지휘 : 송병오, 김정희
- 반주 : 설정만, 김순혜

제직이 52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찬양대원이 37명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3년 2월 17일자 주보에는 2월 10일 예배인원과 헌금 통계가 처음 나와 있다. 당시 동부장로교회의 인적 물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예배인원과 헌금(1963년 2월 10일)

집회(명)				헌금(원)	
기관명	남	여	계	명목	금액
주일 예배	75	130	205	월정	1,090
유년부	38	87	125	주일헌금	928
중등부	10	5	15	감사헌금	
고등부	24	9	33	유년부	217
주일밤예배	50	67	111	중등부	25
삼일예배	48	50	98	고등부	11
합계	245	348	378	합계	2,271

* 『동부장로교회70년사』, 278쪽.

주일예배 참석 인원이 어른이 205명이고 유년부가 125명, 중고등부가 48명으로 총 378명이었다. 1961년 3월에서 9월까지 춘천중앙교회의 장년 주일예배의 평균 참석인원이 24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적지 않은 인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헌금 액수는 매우 적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평균헌금이 28,196원이기 때문이다. 한주만의 인원수와 헌금액을 통해 당시 춘천동부교회의 교세를 알 수 없기에 1963년 2월과 3월 사이에 주보에 나오는 5번의 '지난주 통계'를 평균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계하면 다음과 같다.

5주 예배인원과 헌금

	출석(명)	헌금(원)	출석(명)	헌금(원)	출석(명)	헌금(원)	출석(명)	헌금(원)
2.17	204	2,018	125	217	48	36	378	2,271
2.24	205	8,763	148	252	47	38	400	9,050
3.03	202	3,934	157	200	55	83	414	4,217
3.17	182	2,913	142	156	76	167	400	3,236
3.24	160	2,367	96	149	68	73	324	2,589
평균	191	3,999	134	195	59	80	384	4,274

위를 표를 분석해 보면, 어른이 평균 191명이 참석하였고 교회학교가 평균 193명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장년과 교회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현금 평균은 4,274원으로 인원에 비해 적은 것 같다. 이것은 위에 언급한

1961년 춘천중앙교회의 통계와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위 표에 의하면 장년부와 유년부의 인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극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3년의 주보 중에 '지난주 통계가 나오는 마지막 주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0월 6일자 주보에 의하면 장년부가 172명이고 유년부가 61명이다. 평균 200명이 넘는 것은 1970년 2월 이후부터였으므로 거의 10년 동안 정체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대사회적인 봉사와 선교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춘천은 지역적으로 군부대가 많이 있었다. 이것은 장교나 외출을 나오는 병사들 중에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춘천동부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군인들이 있었다. 교회는 이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배려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63년 8월 4일에 모인 제직회는 "군인 신자들이 예배볼 때까지 쉴 수 있도록 종각 옆에 장의자를 준비하고 봉사부는 일자를 정하여 군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줄 것"을 결의하였다. 1964년 1월 19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일선 장병을 위하여 헌책을 수집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장병을 위문하기 위해 군부대 방문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야전병원을 위문하기도 하였다.

춘천동부교회는 또한 수재나 한파를 당한 이웃에 대해 구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65 년 7월 18일에 열린 임시 제직회는 수재민을 위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쌀과 의복 모으기 운동과 수재민 구호 헌금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967년에는 "한제(旱災) 당한 전남지방을 위하여 연보를 보내기로 당회에서 가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구제헌금은 1970년도까지 매년 진행되었다. 이렇듯 춘천동부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먼 이웃에게까지 사랑의 손길을 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우춘익 목사가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없었지만 교회 안의 여러 문제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교회가 해야 하는 활동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이 기간에 춘천동부교회는 전도와 구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나아가 일본교회와도 교류를 갖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교회와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자 1973년 10월 28일 일본동맹기독교단에 속해있는 도쿄(東京) 히가시나카노(東中野)교회의 오시노(忍野)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이 교회와 꾸준히 교류를 하였다.

춘천동부교회는 일본의 교회와 교류할 정도로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것은 평신도들의 의식이 고양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사실 김유찬 목사 교회일치운동에 잘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과 합동을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김유찬 목사가 은퇴를 하자 교회일치운동은 평신도들에 의해 급물살을 탔다. 1974년 1월 20일자 주보에 보면 "일치회 : 신구교 일치회 연합예배를 오는 24일 밤 7시에 본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온다. 이 '신구교연합 예배'는 교회일치를 위해 춘천 시내의 천주교와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에 속한 교회들이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구교 일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드리던 예배로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김유찬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기간 중에는 춘천동부교회에서는 모임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뒤 평신도들의 교회일치 정신은 신구교 일치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천주교회와도 연합운동을 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춘천지역 개신교 연합회 활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히 1974년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가 열리는 해였다. 이 여의도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도 연합대회가 열렸는데, 춘천지역은 5월 27일 밤에는 춘천성광교회에서, 28일 밤에는 성결교회에서, 29일 밤에는 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이렇게 모임 장소가 결정된 것은 당시 춘천에서 대표적인 장로교회는 성광교회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1975년 10월 노회에서 결정된 상회비를 보면 춘천성광교회가 춘천동부교회보다 약간 더 많다. 그럼에도 이 연합예배를 주보에 광고하여 참석을 독촉했다는 것은 춘천동부교회가 이전과는 달리 교회연합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

우춘익 목사가 시무를 하고 있던 기간에 특별한 것은 탁아소를 운영한 것이다. 대상은 0~5세 사이의 영세 가정의 아이들로 50명을 모집하였으며, 회비는 무료였다. 회비가 무료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시보조와 미국선교단체 케아의 보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탁아소 운영도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탁아소는 YMCA가 운영하는 탁아소에 흡수되었다.

우춘익 목사가 시무를 하던 기간의 춘천동부교회는 김유찬 목사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새로이 일어난 평신도들의 자의식이 교회를 지배하던 시기로 우춘익 목

사는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없었다. 약 3년 반 동안 교회는 다른 교회의 성장에 비해 다소 느슨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교회 밖을 향한 선교나 구제활동에도 예전과 같은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일본교회와의 교류나 신구교 일치기도회를 유치하는 등 교회의 연합운동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회와 교육관 증축으로 중고등부가 성장하는 데 기초를 놓은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춘식 목사가 1977년 1월 말에 사임을 하자, 대신해서 손길용 목사가 5월 1일부터 설교를 하였고 공식적인 위임식이 1978년 7월 17일 장로 장립식, 권사 취임식, 집사 안수식, 장로 및 권사 은퇴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한편, 부임과 동시에 설교를 통해 교회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던 손길용 목사의 역동적인 모습은 교인들을 움직였다. 그 결과는 교인의 성장으로 이어졌는데, 1977년 6월부터 교인 출석수를 월별로 평균을 내면 다음과 같다.

월별 교인 출석수(1977년)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출석수(명)	221	218	240	237	249	258	353	254

* 『동부교회70년사』, 360쪽.

우춘익 목사가 시무할 때와 비교하면 약 50여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출석 교인 수가 무려 20%나 증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손길용 목사가 부임하면서 전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77년 마지막 주일에는 500명 출석 목표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마지막 주일인 12월 25일로 성탄예배 때에는 579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를 교회는 그냥 임시목사로 방치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77년 8월 21일 위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978년 7월 17일에 위임식을 갖게 된 것이다.

손길용 목사는 전교인에게 성경읽기와 교리교육을 실시하고 총회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성경통신대학을 매주 수요일 예배 후 시간 동안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성경통신대학은 성경, 장로회신조, 예배모범, 신학, 장로회정치, 제직론, 교회사, 기독교 윤리, 청지기직 등이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그 목적은 “장로교회 평신도의 양



손길용 목사 위임식, 장로 권사 퇴임식,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기념(1978년 7월 17일)

육과 훈련"에 있었다.

이렇게 손길용 목사가 부임과 함께 교회의 양적이며 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교회는 활력을 되찾게 되고 서서히 강원도 장로교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8년 12월에 손길용 목사는 서울의 영락교회 부목사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황태주 목사가 1979년 2월 4일 부임했다.

황태주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에 목회의 전력을 기울였다. 1979년 3월 18일자 주보를 보면 "내가 전도할 분을 1명 이상 결정하시고 교회 오실 때 1집 이상 들려오는 운동을 하십시다"는 광고를 하였다. 그러면서 한 집 들러오기 운동을 전개하며 영광의 1980년대를 맞이하였다.

7) 춘천성광교회



성광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들[뒷줄 왼쪽부터 한오권 목사,
유일성 장로, 최준경 장로, 현재봉 집사((1960년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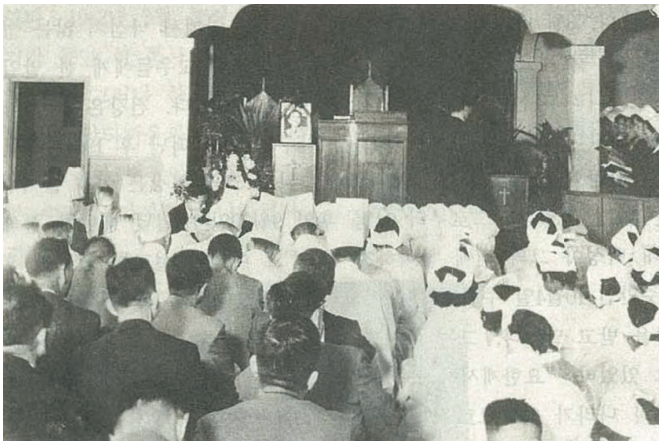
임정묵 목사가 1959년 7월 26일 사임하였고 한오권 목사가 11월 25일 부임했다. 부임 직후 장로교단의 분열 속에 성광교회의 통합 측 소속 결정은 한오권 목사의 신앙 노선과도 부합하였다.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 입장을, 사상적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개

방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그의 기존 사고틀과 인맥상, 그도 역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지자였던 것이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와 교회가 할 일은 후유증을 극소화하고 교회를 안정시킨 후,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한오권 목사는 이 교회사적 과제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사교적이면서도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요 교회 신앙생활의 질서와 원칙을 중히 여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약을 기다리는 성광교회에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중심이 목회자로부터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자리잡힌 것은 무척이나 다행하고도 적시(週時)한 일이었다. 동시에 한오권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하여 교인들의 전도활동을 촉구하였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부임초기에 100명 선을 오르내리던 주일 낮예배 출석 인원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61년 초에 이르러서는 120명 선으로 안정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140명 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 속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당시에는 청년면려회)도 제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특히, 청년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군인들이었다. 장년예배에 출석하는 군인들이 10여 명씩은 되었고 많을 때는 20명이 넘어설 때도 있었다. 춘천이 군사도시이기 때문이었던 점도 있었겠지만 목회자와 교인들의 군인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여타 교회에 비하여 좀 더 짙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출석했던 군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백광제였다. 그는 본래 음악을 전공한 청년으로 성광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기도 하였었다. 그는 음악에 조예가 있어서 성광교회 성가대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떠났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과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던 그에게 육신적 질병이 찾아왔다. 1962년 3월 둘째주일부터 6개월간 투병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 투병생활과 말씀 전하는 사역을 반복하다가 1964년 9월 20일 주일낮 예배를 통해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마지막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8:1~8)고 마지막 설교를 선포한 후 2주만인 10월 4일 주일낮 예배가 진행 중인 11시 20분 경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설교는 이미 자신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는 세상은 끝나고 19장부터



노회장으로 치러진 한오권 목사 장례식
(당시 강원노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음, 1964년 10월 6일)

는 예수의 나라가 임하므로 신자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 중에 통곡하게 됩니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혹은 임산부에게 갑자기 고통이 임하듯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취하지 맙시다. 항상 깨어있어 지혜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결단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다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의 말미(末尾)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광교회 교인들을 향한 유언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임할 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같이 만날 것을 굳게 믿으며 미소 띤 얼굴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일생을 마쳤다.

2대 담임목사였던 한오권 목사가 소천한 후, 1965년 2월 28일 주일에 사능교회(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384) 오창흠 목사가 부임했다. 안문혁 강도사가 5개월간 충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창흠 목사는 평탄한 길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용문산 운동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그럼 용문산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용문산 운동은 나운몽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평북 박천 출신으로 젊은 시절 인생의 근본적 문제 등에 번민하여 여러 학교를 전전하기도 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한 때 불교에 귀의, 승려 수도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득도

치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1940년 5월, 경북 김천역에서 동북쪽으로 50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용문산 계곡에 애향숙(愛鄕塾)을 설립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설립 후 1947년까지는 일제 강점기하에서 별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성격 또한 신앙적인 목적보다는 계몽운동으로 출발하였다. 1947년 4월 나운몽은 다시 용문산에 입산, 신앙운동은 물론 빈곤퇴치 등의 민중운동도 겸한 애향숙(愛鄕熟)을 재건하였고 심령수련회를 열어 수련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 개신교 기도원 운동의 모체가 된 것이기도 하다.

6.25전쟁 후 본격적인 수도생활에 들어갔고 스스로 은혜를 체험, 입신 방언 신유 예언 진동 등의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한다. 이에 전국 각지로 순회하며 설교를 하고 신유의 은사도 행하는 부흥집회를 주도하였다. 즉 1954년의 양칠년 창립기념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부흥운동을 시작하였고 이 운동은 점차 수도원적 기도원 운동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경건운동이라는 이름도 뒤따르기도 했다.

나운몽 씨의 집회가 시작될 무렵, 문선명의 통일교운동, 박태선의 전도관운동, 노광공의 동방교 등 이단종파운동이 극성을 부렸고 기성교회에서 이탈 신흥종파를 조직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영적 어수선함은 오창흠 목사의 시무기간 동안이 상기한 소종파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퍼진 때였다. 사실 춘천의 경우에는 전임 한오권 목사 재임 때도 그러한 조짐이 없었던 바는 아니나 본격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은 1960년대 중반기간이었다. 교인들 중의 몇 명이 용문산을 다




용문산 등지에서 열린 나운몽이 이끈 부흥집회 모습(1960년대, 『한겨레21』 840호, 2010년 12월 14일)

녀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의 경험은 곧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점차 다녀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용문산 집회를 선호하는 교인들은 대체로 교회 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여파는 무시 못 할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오창흠 목사는 신앙적 혼란이 야기되고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 흐름을 건전하게 유도할 만한 수습책이 제기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여신도들의 입장에 이끌려 다니다가 1966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여전도회 주최 심령부흥회 때 친 용문산계의 박성범 목사를 초빙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오창흠 목사는 또한 서울 출타의 명분으로 서면 금산교회에서 열린 용문산 계열의 부흥집회에 성광교회 여신도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으켜 반(反)용문산 계열의 제직과 불화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성광교회 여전도회 주최 심령부흥회 후 기념
(강사 박성범 목사, 1966년 9월 30일)

용문산 운동의 바람이 몰고 온 혼란과 갈등은 결국 목회자의 이임(移任)을 초래하고 말았다. 1967년 6월, 오창흠 목사의 사임서가 당회에서 가결·수리되어 2년 4개월간의 짧은 재임 기간이 끝나고 만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단에 선 것은 1967년 7월 23일 주일저녁예배 때였다. 1967년 9월 1일 오창흠 목사는 목회임지를 대전으로 정하고 이거(移居)하여 갔다.

오창흠 목사 후임으로 이치백 목사가 약 4개월 후인 1967년 11월 14일에 이거해왔다. 그리고 17년 동안 봉직했다. 이치백 목사는 1926년 1월 3일 평안남도 평원군 노지연 용암리 속칭 덕못이라 부르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부친 이형섭은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돈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한 것이다.

그는 말씀을 통해 교인들이 주안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경공부를 통한 은혜 체험에 주력하여 그 경험은 이후 각 구역으로 전파되어 1968년부터 각 구역별로 성경읽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인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는 기초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그는 10월 24일(목)에 위임식을 갖고 성광교회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헌당예배 후 기념, 앞줄 이치백 목사(4번째) 오른쪽으로 김능환 집사, 강현철 집사, 이명숙 권사, 김덕실 권사(1974년 11월 7일)

이치백 목사와 교인들은 먼저 전임자 때부터 준비하던 교회신축에 최선을 다하여 1971년 2월 14일에 성전건축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3월 1일 기공예배를 드렸다. 성광교회의 성전신축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당장 교회가 비좁아서 예배드리는 데에 불편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부흥의 추세에 있었고 건물이 낡은 판자집이어서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축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성광교회는 흔히 본래의 예배당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법과는 달리 아예 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지어 요선동 시대를 뒤로하고 운교동 시대를 열었다.

1972년 3월 6일부터는 전도를 위한 특별강습회를 1주일 간 실시하였다. 이것은 평신도회가 주관하는 개인전도 운동과 맞물리어 상승작용을 하였다. 교인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1972년 3월 26일 주일에 들어서서 마침내 장년 출석교인 수가 200명 선을 돌파하였다. 성광교회로서는 교회사상 처음 맞는 일이었다. 교회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였다. 1972년 8월 13일부터는 개인전도를 통한 배가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1973년도에 이르러서는 1972년도에 돌파했던 200명 선이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후 교세는 안정된 상태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75년 11월 16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총동원주일로 지키면서 300명 선을 넘어보는 경험을 겪게 되었다.

한편, 1974년 11월 7일(목) 오전 11시 마침내 내외귀빈들과 하객들을 모신 가

운데 신축한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1965년부터 건축헌금을 드린 이후 10년에 완공하였고 이후 사택건축과 함께 모자실도 증축하였다. 지난 10년간 성광교회로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전 신축하는 대사건을 겪었고 사택과 식당 등 여러 가지 필수 시설들을 갖추어 '이주 신축교회'로서의 모습을 거의 완비한 시기였다. 교회도 많이 부흥되었으며,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 구축되었다.

8) 성결교와 춘천중앙성결교회 및 기타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는 수복 후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1956년도에 유일성 씨와 1958년도에 안근호 씨를 장로로 세워 당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1955년도에 이르러는 이경희 전도인(당시 춘천중앙교회 명예전도사)을, 다시 1959년 1월에는 김관수 전도사를 교육분야 전담 전도사로 청빙하니, 교회가 완전한 조직의 모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김관수 전도사는 1959년 2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기 한 달 전부터 춘천교회 교육담당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여 그해 4월 7일 허영자 사모와 결혼하고 1966년 5월에 목사안수를 받고 1966년 6월에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1960년 1월 10일 『사무총회록』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교인은 목사1명, 전도사 남녀 각각 1명, 세례교인 155명(남45, 여110)이며, 학습교인 53명(남14, 여39), 구도인 212명(남92, 여120)으로 총 420명(남151, 여269)이었다. 이는 교회가 이미 완벽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회, 청년회까지 조직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년교인만 420명에 이르는 당시로써는 대형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김관수 목사가 취임한 후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므로 예배당이 협소해지자 새로운 교회건축의 긴급성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1967년 10월 기존의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교회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68년 8월 10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감격적인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날에는 헌당기념행사로 3시부터 청년회 주최 연합경연대회가 있었고, 4일(금) 7시에는 성화가 상영되었고, 5일(토) 저녁 7시에는 건축 경과를 환등기를 통해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봉헌된 건물은 본당이 140평, 교육관이 30평, 목사관이 30평으로 연 200



김규호 목사 퇴임 및 김관수 목사 취임(1966년 5월 20일)

평의 교회가 되었으니, 당시 춘천 시내뿐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도 보기 드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니 시내의 연합집회는 자연적으로 본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고 따라서 춘천중앙교회는 지역사회 선교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김관수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과 식을 줄 모르는 교회성장의 열정으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부흥되어, 춘천교회는 춘천 시내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1970년도에 들어와서도 그 성장의 역사(役事)는 계속되어, 1970년에는 장로 2명에 신자 수 796명(교회학교 학생수 제외)에 10구역, 예산 3,761,140원으로, 71년에는 장로 3명에 신자 885명과 14개 구역, 예산 4,496,257원으로 그리고 1973년에는 장로 6명, 신자 963명에 18개 구역 예산 4,866,557원으로 늘어났고, 교회학교도 1970년도에는 유년부 288명, 중등부 111명, 고등부 74명이던 것이 1971년도에는 유년부 618명, 중등부 116명, 고등부 76명으로, 그리고 1975년도에는 유년부 643명, 중등부 116명, 고등부 88명으로 성장하여 전체 교회 식구는 이미 1970년도에 천 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신축한 교회에서 부흥회 후 기념(1969년)

이렇게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교회가 신건축을 통해 전도의 열기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김관수 목사의 조직적인 목회 행정력과 활기 있는 각종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이 은혜 안에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꽃피울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회학교의 활성화(교사 위치 고양, 교회의 교육적 관심 유도, 교육전도사 청빙), 장로 장립을 통한 직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위원회의 활용, 구역 증설, 성가대 활성화, 군부대와의 교류 등은 김관수 목사의 목회가 만개(滿開)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당시 1군단의 참모(대령) 8명 중 4명이 춘천교회에 출석했고, 따라서 군 장병들이 200~300명씩 참석할 때도 있어 교회 부흥에 큰 기폭제가 되었음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당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송암(松菴)장학회를 소개한다. 송암장학회는 1967년 2월 27일 발족이 되었다. '송암'이라는 말은 김제영 집사의 호를 딴 데서 온 것이며, 이 장학회는 교회의 재정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마음껏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럴 수 없었던 김제영 집사가 신앙이 돈독하고 재질은 타고 났으나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자신의 사재(私財)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던 장학회였다. 김제영 집사는 원래 김의용 목사가 본교회를 개척할 때 봉사를 잘하고 초대 집사였던 이정희 집사의 맏딸 윤영애 집사의 남편으로, 당시 문화극장의 대표였고 그 외에도 도정(搗精) 공장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춘천에서는 내로라하는 재산가였다. 그런데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차압이 나올 정도로 곤경에 빠져 있었는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 당시의 돈 3백만 원(지금의 3억여 원 해당)을 교회를 위해 내놓게 되었고, 김관수 목사는 그 돈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장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68년 2월 29일에는 장학회 1주년 축하예배를 드렸고 1970년 2월 24일에 소집된 제직 회의록을 보면 "본교회에 장학제도가 있어 큰 은혜 중 모든 교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세인(世人)이 공지하는 바, 내(來) 28일 장학생 시험이 있는데 본 교회의 중·고등부교사로 출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시험 일절을 위촉하여 그 채점 순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었사오니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학금 대상자는 초교파적으로 춘천 전 지역을 포괄했는데, 다른 교파의 교회까지도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 큰 호응을 받았다.

장학금 지급 시에는 선발된 학생들과 학부형 및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김제영 집사가 격려사를 한 후 직접 학생들 개인 개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송암장학회의 소문이 도(道)에까지 퍼져 이날 예배에는 도장학사가 꼭 참석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을 받았다. 1971년 3월 14일 교회주보를 보면 당시 송암장학회가 얼마나 춘천교회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주일 낮 2부 예배시간에 '1971학년도 송암장학회 선발 장학생 환영 및 축하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는 당시 서울신대학장 조종남 박사가 초빙됐고, 당시 춘천시장 박종성 씨가 참석해 축사 및 감사패 전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장학회 사업을 계기로 인하여 한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던 김제영 집사도 다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더욱 번성했고 춘천 세금1호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을 얻었다고 한다. 이 장학사업은 1975년도까지 지속되었지만 당시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교회에서나 사회 일각에서 신안의 인재로 활동하였고 교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김관수 목사는 1976년 3월 27일, 31세에 이 교회 담임을 맡아 17년(1959.3~1976.3) 동안 그 소임을 잘 감당하고 서울북지방(지금의 서울중앙지방) 청량리교회로 전임하였다. 이에 1976년 4월 6일 윤철중 목사가 부임하니, 춘천중앙교회는 제4대 윤철중 목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윤 목사는 전임 김관수 목사와는 서울신학대학 동기로 1933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서울신학대학 2학년 때부터 모교회인 계룡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강원도 동해시 묵호교회, 강릉교회, 횡성교회를 담임하였고, 횡성교회를 부흥시키는 중 강원서 지방회장을 역임하고 약관 43세의 목회에 있어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에 춘천교회의 청빙을 받아 부임하게 된 것이다.

1976년 10월 10일 가나안농군학교장 김용기 장로 초청 부흥회를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시키게 되어 1980년대 춘천중앙교회의 새로운 미래의 한 장(章)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 해인 1977년 한 해를 결산하는 1978년 1월 1일 오후 1시에 열렸던 제33회 사무총회에서의 교세보고란에 의하면, 목사 1, 장로4, 전도사1, 협동전도사1, 명예전도사1, 권사10, 명예집사2, 집사139, 권찰27, 세례인 388, 학습인 161, 구도인 783, 고등부 94, 중등부 112, 유초등부 229명으로 총 2,078명의 대가족을 품은 교회가 되어 있었다.



ㄱ자교회 모습(1974년 3월 19일)

한편 소양성결교회는 홍순우 목사가 뜻한 바 있어 군목으로 입대하면서 교회를 사임하였다. 교회부흥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곧이어 이만선 2대 목사가 부임하고 김해문 목사, 감상하 목사, 이연식 목사, 곽순찬 목사가 소양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조용하면서도 내실을 기하는 소양교회 역사를 이어나갔다. 1974년 3월 19일 드디어 조금 더 춘천을 한눈에 품어안을 수 있는 요선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사용하던 1층 슬라브 콘크리트 건물로서 건물구조가 한글의 기억(ㄱ)자와 같아서 세월이 지나서 그 시절을 기억자교회 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교회일치운동의 진보와 보수의 이견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춘천의 성결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1961년도에 국가건설 사업으로 춘성군 신북면 용산리 2구(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춘천댐 발전소 공사로 많은 노무자들이 거주하게 되고 주민들이 입주케 됨에 따라 소양교회(昭陽教會)는 담임 교역자 김해문 목사(당시 전도사)와 성도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주 2회 전도하게 된다. 1962년 3월 27일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가옥 한 동을 전세로 구하여(일금 일만 이천 원) 예배처를 삼게 되고, 1962년 4월 19일에 서수일 전도사를 초대 교역자로 세우고 소양교회의 주최로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신북교회로 명명하고 김해문(金海文) 소양교회 시무 전도사의 인도와 이석호(李錫鎬) 치리목사(횡성교회 시무)의 설교로 창립되었다(같은 해 6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7월 26일에 완공). 1967년 6월에 창립된 새춘천교회(현 석사동 스무숲 소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삼는다. 춘천성결교회(구, 대흥교회, 현, 행복한우리교회가 1972년 3월 5일

에 개척되었다.

기성과 예성의 합동이 있던 1973년 7월 1일 정기 직원회의에서 신북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그대로 계속 신앙의 보수를 지키기로 결의하므로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유일한 예성으로 남게 된다. 신북교회는 1977년 10월 1일 비어있던 전 소양성결교회 건물을 빌려 염광교회(이진식)를 설립하고, 1978년 4월 10일 용산리에 제일성결교회도 설립하였다.

9) 침례교와 춘천지역 교회

춘천침례교회는 1964년 9월에 한태경 목사 사임하고 장시정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1967년 2월에는 한명국 전도사 초대 부사역자 부임하여 학생회와 청년회를 맡았으며, 춘천군인센타 초대관장을 지냈다. 1967년 4월 28일 남춘천교회를 춘천교회의 첫 번째 지교회로 개척하여, 송관수 목사가 차혜자 집사 가정의 지원으로 남춘천 파출소 맞은편에서 개척예배를 드렸다. 1975년 7월 17일 제일교회(현 예광교회)를 춘천교회 두 번째 지교회로 개척하여 이정운 전도사가 임영일 집사가정에서 개척예배를 드렸다. 이후 왕남안 전도사(1977~19), 정상교 부목사(1979~1980)가 학생회와 청년회를 섬겼다.

옥산포침례교회는 1968년 3월에 황영찬 전도사(임문혜 사모)가 7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972년에 성가대와 여전도회를 조직하였고, 1973년 8월에는 사신단(학생회)이 세워져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1976년에는 청년회가 구성되었고, 1977년에는 5개 구역이 세우고, 1979년 4월 9일 지교회로 신동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다가 1980년 12월 17일 춘천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다.

1960년 4월 14일 정진황 전도사가 부임하여 6월 3일 부인회를 여전도회로 명칭 변경하고, 1961년 1월 8일 제1회 사무처리회 창립총회를 열어 교회명을 천전침례교회에서 샘밭침례교회로 개명하였다. 9월 13일에 남전도회를 조직하고, 10월 24일에 학생회를 조직하여 사역하다 1962년 2월 1일 목사 안수를 받고 1962년 2월 5일 침례신학대학 교수가 되었다.

샘밭침례교회는 1962년 3월 11일 장시정 목사가 부임하여 1964년 사임하고, 1965년 안병걸 전도사가 부임하였다가 1966년 4월에 사임하고 대전 선화동 교회로 부임하였다. 1966년 9월 11일 허걸 목사가 부임하여, 1972년 2월부터 구

역예배를 시작하였고, 춘천성시화운동을 시작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였다. 1977년 7월 춘천침례교의 첫 안수집사로 이용호 집사를 세웠고 1991년 7월 11일 소천하기까지 성도의 모범을 보였다.

남춘천침례교회는 1967년 4월 28일 송관수 목사가 춘천시 퇴계동 346-5(현위치)에 춘천교회 성도의 지원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1978년 6월 11일 송관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장길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0) 기타 교회들의 성장

구세군춘천교회는 1967년 6월 14일에 소양로 3가 53번지 6평을 매도하면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리고 예배(Leitourgia), 말씀교육(Didake), 코이노니아 공동체(Koinonia), 섬김과 봉사(Diakonia), 선교(Missio)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길 꿈꾸고 있다.

1973년 12월 춘천에서 처음으로 구세군의 대표적인 활동인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시작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2월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성공회춘천교회는 1961년 이후 출석교인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감사성찬례만 간간히 봉헌할 정도로 암흑기를 보내다가 1969년 9월 1일 강원도 전교구 관할사제로 황정기 요셉 신부가 부임하면서 점차 안정되어 매주 감사성찬례를 봉헌하게 되었다. 1970년도에 각국의 성공회 소식지에 춘천성당의 형편과 처지가 소개되자, 많은 외국의 성공회 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 주어서 현재의 성당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성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90]

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이흥식 전도사, 오클링 부부, 박경원 강원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1967년 3월 10일 낙원동 101번지 건물 12평을 임대(25,000원에 월 3,500원)하여 12일(주) 주일 주의 만찬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개척 후 신학생 김중환 전도사가 몇 달을 섬기다가, 7개월 후 10월 1일에 이호열 전도자가 취임하였는데 오클링씨가 생활비를 50불을 제공하였다. 2년 후 1969년 10월 시유지 780평 불하를 받았는데, 이때 오클링씨가 그 비용을 헌금했다고 하였으며, 현

90) 「[월간] 우리 동네 성공회 – 서울교구 '춘천 성모 마리아 성당' 편」 유튜브 참조.

재의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된다. 이호열 목사는 5년 후 1972년 사임하고 1년간 이홍식·김진건 전도자가 예배 인도를 하다가 1973년 전두병 목사가 부임하여 1985년까지 사역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Original Church)을 간직한 교회이다. 교회의 원형이란, 성서의 핵심적 가치를 소유한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의 핵심, 교회 조직의 핵심, 가르침들의 핵심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의 핵심인 성만찬을 매 주일 시행하는 교회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6-47).

사도들은 매주일 예배 시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한 전통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매 주일 성만찬을 시행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적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10).

성서에 기록된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이나 권위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은사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교회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고 참여하는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르침들의 핵심인 침례를 시행하는 교회이다.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마가복음 1:9~10).

성서에 기록된 가르침들 중 핵심은 침례이다. 주님조차도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셨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약식 세례로 바꾸면서 간소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처럼 모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한다. 환원운동의 모토(motto)는 다음과 같다.

> *책은 성경만, 신조는 그리스도만,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은 복음만, 일치의 근거는 성경적으로만, 기본교리에는 통일(구원에 관한 문제), 의견에는 자유를(성경이 명시하지 않는 부분), 매사에는 사랑으로 한다.*

2절 춘천기독교의 성시화운동

1. 춘천성시화운동 개관

춘천을 거룩하고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차원의 노력과 사역은 1970년대 초에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주최한 민족복음화운동 요원강습회가 열렸을 때 강원도 CCC 책임자였던 윤수길 간사의 간청에 따라 이 강습회에 참가한 조남진 장로 등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이 동기이다.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로 일컫던 이 모임이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에게 알려져 춘천을 방문, 춘천을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지역 조건을 갖춘 도시로 춘천성시화 운동의 비전을 말하였다. 당시 춘천 교계지도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이와 같은 춘천성시화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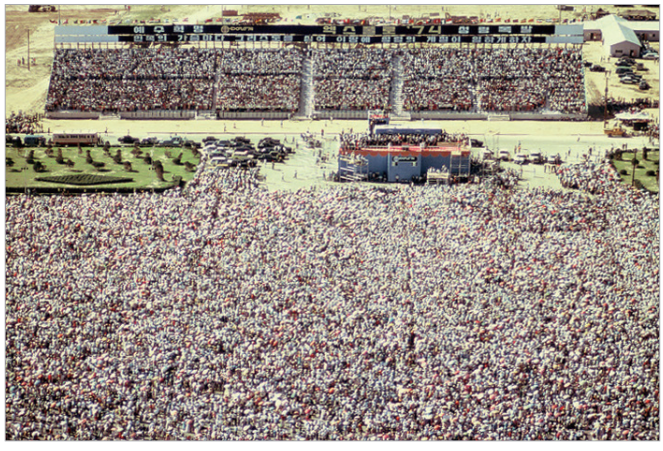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 현수막(춘천체육관)

동에 대한 꿈을 나누고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여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가 결성,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과 함께 '72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민족복음화운동을 가속화하면서 우선 한 도시라도, 교회가 한 도시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으면 하는 소망으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한 것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성시화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시작한 춘천성시화운동은 호반의 도시 인구 10만의 춘천시를 7,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전 교회 전 성도들이 총체적으로 뭉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 시민을 태신자화 개념으로 입양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복음화운동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춘천'이라는 한 도시를 스위스의 제네바처럼 모든 것이 복음화된 도시로 만들고자 시작했다. 특히, 민족복음화운동의 총체적 전략을 한 도시에 결집하여 민족복음화 이전에 완전 복음된 모델도시로 이루어보고자 하는 비전으로 기획되었고, 교회목사들은 목회철학을 바꿔 우리 안의 양들과 우리 밖의 양들로 구분하여 교적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전 교인이 우리 밖의 양들을 태신자로 삼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돌봐주는 목민센터가 되자는 전략이었다.


엑스플로 '74대회 모습(뉴스파워 제공)

이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 이후 김준곤 목사는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한국기독교 인구가 2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던 때 32만 3419명이 등록하고 5박 6일 동안 낮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했다. 하루에 22만 명이 결신했다는 기록이 있다. 밤에는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특히 대회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육영수 여사가 재일동포 문세광에 의해 서거를 당했지만 참가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했다. 엑스플로 '74대회에 참석했던 민족복음화의 불씨들이 그들이 살고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았다.

1970년대 초부터 태동하여 1972년 성시화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어떤 때에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오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교회들이 기도제목으로 삼아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춘천성시화운동의 태동

1) 평신도 성경구락부의 춘천성시화운동 점화

'성시화운동'은 한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CCC 전국 대학생들과 춘천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춘천실내체육관(당시에는 강원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한국의 시군과 유럽, 미국, 호주, 일본, 과테말라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70년에 처음 예수를 믿어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대학생선교회 사업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던 조남진 장로(당시 강원일보사 편집부 국장)가 대학생선교회 강원도 책임자였던 윤수길 간사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 수원농대 캠퍼스에서 열린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와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CCC 윤수길 간사를 지도자로 하여 4명(윤수길, 조남진, 김형목, 박재헌)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일 교회 출석 외에는 별로 다른 모임이 없었던 때라 4~5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각자가 체험한 신앙을 간증하는 일은 색다른 관심을 모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모여들

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학교수, 초·중·고 교원, 공무원, 언론인, 경찰관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인 이 모임은 단시일 내에 인원이 20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났으며, 내 고장 복음화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 모임은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로 명명되어 날이 갈수록 활기를 띠어갔다.

춘천성시화운동의 불씨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다. 윤수길 간사가 그 주인공이다. CCC 간사로 첫발을 내디뎠던 1970년, 춘천CCC 대표간사로 부임해 1972년 말까지 사역을 했다.

당시 조남진 국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

> *나는 1970년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늦게 예수를 믿다보니 성경을 잘 몰랐다. 그래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설한 평신도신학원에 갔다가 강의를 하러 온 춘천CCC 대표간사 윤수길이 성령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 후 윤 간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서 윤수길 간사와 함께 4명이 성경공부를 시작했다.*[91]

고 밝혀 윤수길 간사의 강의를 듣고 윤 간사와 친해지고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평신도성경구락부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학규 장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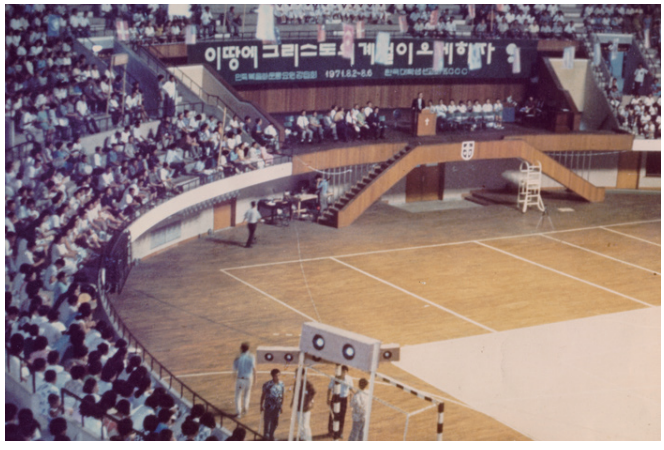
> 춘천평신도성격구락부는 1971년에 조남진 강원일보 편집국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그의 친지 몇 사람과 함께 모이게 된 선교단체이다. 처음에는 조남진 편집국장, 박재헌 집사(캠페이지 사령관 보좌관), 윤수길 춘천CCC간사, 김형묵 집사(보험회사 지사장) 등이 모였다. 이후 춘천시 공보계장 이원봉 집사, 강원고등학교 교감 문선재 권사에 이어서 나와 정길연 권사가 차례로 들어가게 되었으

91) 『뉴스파워』(2018.10.9), 「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운동을 증언하다」.

며, 20여 명 안팎의 회원들이 지역사회 목사님을 모시고 지정한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모이게 되었다.[92]

라고 하였다. 이후 방송국 부장, 중앙정보부 과장, 춘천시청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늘었다. 춘천성경구락부는 조남진 국장과 문선재 교감 집을 돌아가면서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성경을 공부했다. 당시 윤수길 간사는 성경공부를 통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마무리 결론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큐티도 하고 성경공부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시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문선재 교감은 강원대로 옮겨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내용을 소개했지요. 강원일보 안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대한생명 춘천지점에는 예배모임이 생겼습니다. 춘천시청 안에도 예배모임이 생겼습니다. 춘천 교계의 유명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93]



1971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1만 명 민족복음화운동요원강습회(뉴스파워)

이처럼 평신도들의 마음속에 춘천 복음화에 대한 열망이 심어지고 있었다.

이러할 때, 1970년 12월 31일 0시 기독교방송(CBS)을 통해 김준곤 목사는 '민족복음화운동'을 선언했다. 서울농대 수원캠퍼스에서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복음화 지도자

92) 이학규, 『나는 부족하여도』, 도서출판 진흥, 2007, 152쪽.
93) 『뉴스파워』(2019.9.18), 앞의 글 참조.

요원강습회'가 진행됐다. 1971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1만 명 민족복음화운동요원강습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원주에서도 전도훈련과 집회가 열렸다. 그때 김준곤 목사는 원주에 있는 1군사령부를 방문해 1군사령관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윤 간사는 다음과 같이 김준곤 목사에게 건의했다고 하였다.

> *1971년 겨울 CCC 정동 본부에서 LTI가 열렸을 때 강원도에서 480여 명이 참석했어요. 그때 1972년 여름에 춘천에서 민족복음화 운동요원 강습회를 하면 좋겠다고 김준곤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춘천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라고 하였다. 강원도 CCC 간사들 중에는 힘들다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춘천에서 전도훈련과 집회를 갖는 것으로 김준곤 목사가 최종결정했다.

이렇듯 춘천성시화운동의 시작은 1972년 7월 31일~8월 4일까지 열렸던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이때 춘천성시화대회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1970·71년의 감추어진 준비기간이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1970년 12월 31일부터 1971년 1월 3일까지 한국대학생선교회(총재 김준곤 목사)가 주최한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가 수원농대캠퍼스에서 열렸다. 민족을 복음화한다는 큰 꿈을 안고 전국각처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 수 천 명이 몰려왔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민족의 복음화'라는 슬로건 하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믿고 전도하는 일정이 계속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윤수길 간사에 의해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에게 알려져 김 목사가 춘천에 내려왔다. 김준곤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호수로 둘러싸인 춘천은 마치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네바가 성시화운동을 벌여 범죄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는데, 춘천도 성시화운동을 벌여 시범적인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춘천성시화운동의 비전을 말하였다. 김목사는 당시 춘천 기독교계의 지도

자였던 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를 만나 춘천성시화에 대한 꿈을 나누고 춘천의 온 교회와 대학생선교회가 힘을 합하여 춘천성시화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춘천성시화 운동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연호 목사가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샘밭침례교회 허걸 목사가 총무를 맡게 되었으며, YMCA 총무 김홍규 장로가 협동총무로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의 손발노릇을 하면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3.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구체적 계획과 실천

1)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계획



춘천성시화운동전도대회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모습(춘천실내체육관)

김준곤 목사에 의해서 작성된 '춘천성시화운동 계획안 노트'에는 당시 성시화운동의 열기와 조직성, 치밀성을 엿보게 한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고 그 구상은 1972년 최대한 실천되었다. 실제로 1972년 이전과 이후는 춘천의 역사에 획을 긋게 된다.[94]

아래 내용은 그때 당시 춘천성시화운동을 준비하면서 만든 「춘천성시화 계획안」[95]이다.

94) 임성택, 「성시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전망」,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5쪽.
95) 김준곤, 『성시화운동 편람』, 순출판사, 2005, 24~38쪽.

1. 목표와 목적
   1) 심령마다 그리스도화가 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사람).
   2) 춘천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되기 위하여(그리스도의 도시).
   3) 완전 그리스도화된 도시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이식시키기 위하여.
   4) 제2의 기독교 문화의 발상지,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종교개혁 도시 제네바화를 위하여, 한 상징적인 시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제2의 그리스도 문화).
   5) 민족 복음화의 전략 도시화를 위하여.
   6) 입체적 전인 복음화와 5색의 도시화를 위하여.
      ① 공부하는 도시(전 시민 학도화) : 지성인의 도시, 진리의 도시, 교육의 도시, 자유의 도시, 생각하는 도시
      ② 아름다운 도시(전 시민 예술인화) : 예술의 도시, 음악의 도시, 문예 도시, 미의 도시, 호반의 도시
      ③ 체육의 도시(전 시민 체육인화) : 건강한 도시, 맑은 도시, 강한 도시, 협심하는 도시,
      ④ 기술의 도시(젼 시민 기술자화) : 일하는 도시, 생산의 도시, 중요의 도시, 창조의 도시, 정밀기계의 도시
      ⑤ 거룩한 도시(전 시민 신자화) : 사랑의 도시, 소망의 도시, 믿음의 도시, 기도의 도시, 성경의 도시
   7) 춘천시의 모든 것을 시범화하기 위하여
      ① 시범교회 ② 시범학교 ③ 시범관청 ④ 시범상점 ⑤ 시범 소비조합, 협동조합 ⑥ 시범단체 ⑦ 시범가정 ⑧ 시범식당 ⑨ 시범 환경 미화(100 시범 풍속)

2. 조직
   1) 주최
      ① 춘천시 교회들의 자율적 운동
      ② 춘천 CCC 후원
   2) 성시화운동 위원회 구성 : 각 교회 성직자, 평신도, 지도자
      ①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② 실행 위원회 ③ 총무 ④ 간사 ⑤ 각 부서 : 전도부, 교육부, 부녀부, 음악부, 섭외부, 문서 운동부, 기도부, 훈련부, 섭외 홍보부
   3) 성시화운동 자문위원회 구성 : 필요에 따라 기관장, 유지들로 구성함
   4) 7단계 훈련 및 행사
      ① 4월 10일부터 4박 5일 동안 CCC 훈련원에서 교직자 훈련받음.
      ② 4월 중순에 교인 20명에 한 사람씩 요원 훈련 받음.
      ③ 5월 초에 각 교회에서 2,000명 요원이 CCC 본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음.

④ 2,000명이 평균 5명씩 전도 대상자를 책임지고 8월까지 전도, 8월에 1만 명이 모임에 등록케 하는 동원 요원이 됨.

⑤ 8월 1일부터 5일까지 1만 명 집중 합숙 훈련

⑥ 1만 명은 세 사람씩 10월까지 접촉을 하여 10월 말에 총동원 전도를 함.

⑦ 10월에 춘천에서 총동원, 총집중 전도

5) 8월의 1만 명 훈련 강습회안 별도 마련

6) 실태 조사와 세부 계획안 별도 마련

① 30명 시민 대표 인사 명단 작성과 인적 사항 파악

② 기관 및 사회단체 침투방안 모색

③ 춘천시 현황 파악 : 지리적 조건과 자연환경 풍속, 행정 조직, 인구 실태, 경제, 교육, 종교, 사회단체, 문화

7) 춘천시 총동원 총집중 전도안

(1) 10월 중순 5일간을 택하여 한국기독교가 동원할 수 있는 총력을 춘천시에 총집중하여 춘천복음화운동을 돕는 일이다. 그것은 체육 제전과 흡사한 기독교가 베푸는 성시화 제전이다.

(2) 총동원 총집중 전도의 효과

①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전 시민의 화제와 관심의 중심이 된다.

② 전도와 육성의 집중 효과가 나타난다.

③ 단합된 기독교의 힘을 과시한다.

④ 교회에는 전도의 붐, 세상에는 예수의 붐을 일으키고 성시의 비전을 시민과 교인들에게 심는다.

⑤ 이 물결은 전국 도시마다 일으킬 수 있다.

⑥ 전쟁을 치른 나라가 비록 패전하더라도 전쟁을 위해 동원했던 그 힘을 전후 산업 건설에 전화시켰을 때 다시 경제부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이때 총동원된 힘의 여세를 몰아 춘천시 복음화뿐 아니라 민족복음화의 물결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⑦ 교인들에게 예수 혁명의 주체 의식과 실감과 비전을 키울 수 있다.

⑧ 아직까지 교회 연합과 일치는 구호와 염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중심으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이 휘말려드는 동안 복음을 중심으로 일치화가 이루어진다.

⑨ 이 행사는 오직 순수 전도이다. 불신자는 예수 영접을, 신자는 성령충만을 목적으로 할 때만 축복을 받는다. 다른 것은 부산물로 얻어지게 될 것이다.

⑩ '춘천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 '가슴마다 그리스도는 왔다' 가 실현될 것이다.

(3) 어떻게 전국적으로 최대한의 참여를 일으킬 것인가?

① 각 교과와 각 기독교 기관 지부는 소속 교단과 기관 본부의 협력을 얻는데 책임을 진다. 감리교, 장로교(통합파, 합동파, 고려파, 기장파), 구세군, 성결교, 오순절교파, 나사렛교파, 침례교, 각 선교부, 문서 선교회, 학생 선교회, 시청 각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 YFC, IVF, KSCM, YMCA, YWCA, 의료 선교단, 각 기독교 학교(특히 대학), 기독교 병원 의사, 각 도시의 대표적 큰 교회, 부인 단체, 청년 단체(교단별), 기독교 국회의원, 기독교 교수단, 기독교 실업인, 기독교 언론 기관 KY, KX, 신문사, 잡지사, 저명 기독교 총장들, 기독교 장교, 외국인 기관, 국제적인 초청(유명 선교단 본부에서), 각 성가대, 음악 단체

② 각 직능별, 지역별, 계층별로 최대한 참여를 호소한다.

③ 이 참여를 위하여 각 교계적 P.R을 6월경부터 시작한다.

④ CCC에서 전개시키고 있는 약 200 시범교회가 P.R 협력을 하고 복음화 요인들이 동원될 수 있다.

⑤ 대 언론기관의 후원을 받는다.

⑥ 각 기관, 각 선교부, 각 교파는 자기예산, 자기사업의 일환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힘을 투입할 수 있다.

⑦ 최대한의 실리가 있는 민족단위 행사를 유치한다.

⑧ 기독교 체육제전, 기독교 성가 콩쿨대회, 세미나, 국제 수준의 강사 초청 사경회, 부흥회, 청년 학생 신앙웅변대회, 사상 강좌, 수련회, 각 기관 대회 등을 유치한다.

⑨ 각 교회, 각 교파, 각 기관, 각 단체가 자기 기관 이름으로 예수 행진, 즉 성시 퍼레이드에 참여시킨다. 3,000 깃발 밑의 행진

⑩ 성시 합창단 1,000명을 동원한다.

⑪ 1만 명 정도 민박을 시킨다. 민박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물론, 성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한다. 펜팔 전도를 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육성함으로 참여자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4)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① 성시찬가를 만들어 미리 부르게 한다.

② 성시 성회 참가 패넌트를 만든다.

③ 2,000 전도요원 가정 중심으로 기도 세포망을 만들어 6월경부터 기도한다.

④ 성시 성회 뉴스를 전국적으로 보낸다.

⑤ 춘천시 불신자 전원의 주소 명단 생일 등을 입수하여 교회별로 현 교회 세력 비례로 분담하여 이웃 완전 복음화 전략에 따라 전도 활동을 시작한다.

⑥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전 교우 예수 행진, 예수 표어

부착 캠페인, 한 끼 굶기 운동, 사랑의 밥 한 그릇 운동, 포스터 붙이기 운동, 의료봉사 운동, 경로회, 불우가정 돕기, 바자회, 사랑의 씰 판매 운동

⑦ CCC는 강원대학, 간호대, 교육대학, 몇 개의 중·고등학교를 완전 복음화하는 운동을 벌여 그 자원으로 춘천성시화운동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⑧ 춘천 현지 언론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

⑨ 전원 신자, 전도 요원화시킨다.

⑩ 준비위원회 부서는 다음과 같다. 준비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총무/실행위원회/부서(기획, 전도훈련, 재정, 대학생부,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부, 섭외홍보, 음악부, 교회협력부, 기도부, 시설준비부)

⑪ 무슨 행사를 하게 되는가? 최소한 2만 명의 전도요원이 4박 5일간 전도활동을 하게 된다. 2만 명은 불신자 5명씩을 책임 전도한다. 각 교회별로 각종 성회가 있다. 노방 전도, 전도문서 배부, 5일간 언론을 총동원, 각종 조찬기도회(실업인 조찬기도회, 관공서 조찬기도회, 교육자 조찬기도회, 각급학교 신앙강좌, 종교 영화 무료 상영, 크리스천 체육대회, 전국기독교 의료기관과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봉사, 전국 기독교인 참가자의 1인 1점 구제활동, 개인전도 크리스천 음악 콩쿨대회, 오전과 저녁 대 옥외집회 대 예수행진, 예수 표어·포스터 부착 캠페인 어린이 행사, 기독교 부인 단체가 베푸는 행사, 각 교파가 베푸는 각종 기독교 제전들, 축호전도, 공중 비행기 전도, 전단 뿌리기

⑫ 민박은 동회의 협력을 받아 신청에 의해서 하되, 유료로 한다. 기독교 측은 전도목적으로 함.

8) 결과

① 1만 개의 순이 생기기를 원한다.

② 성회 이후와 이전이 AD와 BC만큼 달라질 것이다.

9) 춘천 성시의 미래상 투시도

① 성시 성회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세계적 명물로 등장할 것이다.

② 경치 관광보다 성시 관광이 유명해진다.

③ 성시 이주자가 전국에서 모여들 것이다.

④ 성역화된 춘천에는 술집, 거지, 도둑, 뇌물, 부정부패, 퇴폐풍조, 불신풍조, 매음, 폭행 등 일체의 사회악이 자취를 감춘다.

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신학교, 의과대학 등 세계수준의 특수학교가 즐비할 것이다.

⑥ 도시 환경은 완전히 상록수와 화초로 단장되어 푸른 도시, 꽃의 도시가 될 것이다.

⑦ 각종 시민복지시설은 물론 이상적인 신용조합, 소비조합, 협동조합이 운영되

고 시민 생활은 어느 곳보다 편리해질 것이다.

⑧ 시민은 신자가 되느냐 이주하느냐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⑨ 학교는 주일학교화 되고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화되고 학구는 곧 교구가 되며 춘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와 성경과 성령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다.

⑩ 비로소 하나 된 교회가 생길 것이다.

⑪ 진정한 제2의 예루살렘, 세계의 성도가 될 것이다.

⑫ 국내뿐 아니라 국제 행정 시찰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⑬ 스위스보다 특수전자공업 같은 것이 발전할 것이다.

⑭ 종교 도서출판, 성구 수출 산업 등이 발달할 것이다.

⑮ 국제 기독교 재단들의 원조와 특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등이 빈번할 것이다.

⑯ 성시특별보호법안 같은 것이 국회에 통과되어 시정은 장로급 인사가 영도하는 시민 회의에서 다스려지고 관공리의 수가 반감될 것이다.

⑰ 시 예산의 십일조는 민족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여질 것이다.

⑱ 춘천시는 20세기 후반기의 인류의 신화로 각광을 받게 된다.

⑲ 성시, 성회를 비롯해서 성시합창단, 성시오페라, 성시교향악단, 성시전도단, 성시학회, 성시체육제전, 성시예수제가 유명해지고 성시에 유행된 의상 스타일, 화장 스타일 등이 유명해질 것이다. 성시 퍼레이드는 가장 유명한 제전이 될 것이다.

⑳ 완전 자유시가 될 것이다.

㉑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GNP가 3배쯤 높아질 것이다.

㉒ 성시 마크가 붙은 상품은 세계 시장의 총아로 등장한다.

㉓ 세계 최고의 신학교와 간호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성서대학, 교육대학 등이 생긴다.

㉔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복지센터, 요양원, 별장 지대가 생기고 교양있고 품위있는 부유한 크리스천의 은퇴도시가 될 것이다.

㉕ 성시봉사단이 생긴다.

㉖ 제네바 등에 있는 국제 기독교 기관이 머지않아 춘천으로 본부를 옮기거나 적어도 지부를 두게 된다.

㉗ 새 도시계획에 의한 신시가가 생긴다.

10) 성시 운동의 대전제

① 사도행전 운동으로 성령, 전도, 말씀, 기도, 믿음, 사랑으로 시종일관한다.

②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복음화 운동이다.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면 가정과 사회와 도시와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여 김준곤 목사가 이 행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2)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개최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는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공동주최로 이루어졌고 31일 첫날 저녁 개회예배를 드렸다. 김연호 목사(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와 김준곤 박사(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를 비롯하여 최종완 강원도지사, 유기천 춘천시장, 신철균 공화당1지구위원장, 안홍모 춘천시교육장, 김민희 춘천서장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는 CCC가 전개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운동요원 강습회를 겸하여 열렸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 5천 명가량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여름방학 때라 춘천시내 각 학교를 숙소로 사용하고 소양강변에 이들 5천 명이 먹을 특설 취사장이 설치되었으며, 2군단 군용트럭 17대가 동원되어 밥을 실어 나르는 등 대단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다.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는 오전에는 말씀공부 및 분과공부, 오후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며 사영리를 전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가지면서 예배와 말씀공부를 병행하며 수천 명의 전도대원들이 춘천 시내의 곳곳을 휩쓸며 전도열기로 가득했으며, 많은 결신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다.

당시 강원도, 춘천시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춘천 성시화(聖市化)운동 전도(傳道)대회***
>
> *참된 근대화 운동 앞장*
> *전국신도 5천명 참석 4일까지*
>
>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겸 민족복음화운동 요원강습회가 31일 하오 8시 30분 김준곤 박사(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김연호 목사(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를 비롯 전국에서 몰려온 교역자 신자 등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춘천성시화운동 위원회와 한국대학생 선교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전도대회 개회예배엔 최종완 지사, 유기천 춘천시장, 신철군 공화당1지구 위원장, 안홍모 춘천시교육장, 김민희 춘천서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 축하했다. 개회예배는 묵도, 찬송, 기도에 이어 김연호 대회장이 개회사, 유기천 시장이 환영사, 최종완 지사의 격려사, 찬송, 성경봉독, 김준곤 박사의 말씀 등으로 끝났다. 이날 최 지사는 격려사에서 "믿음으로 전개되는 복음화운동은 민족운동으로 확대되며 새마을운동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참된 사회를 이룩하는 조국근대화운동에 앞장서는 길"이라고 찬양하고 후세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겨줄 이 복음화운동에 믿음을 애국심으로 승화시켜 주시길 당부했다.

이 전도대회는 1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며 매일 상오 9시, 하오, 밤 3회씩 김성남 목사(필동감리교회), 김용기 장로(가나안농군학교장), 김준곤 박사(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오병세 박사(대구제일교회 목사), 이원설 박사(경희대 법정대학장), 정규오 박사(광주중앙교회 목사), 조종남 박사(서울신학대학장) 등의 특강과 성경강의 등이 있게 된다.

한편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에서 모여든 5천여 명의 신자들을 위해 후평동 공업단지 후편에 공동취사장을 설치, 춘천시내 2백 명의 부녀봉사대가 동원, 취사작업을 맡고 있다.

라고 하여 6.25전쟁 이후 타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운집한 집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김연호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63년 봄에 44세 장년으로 큰 꿈을 가지고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조상과 나를 길러준 강원도(횡성 출신)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춘천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를 양심이 지배하는 강원도, 문맹이 없고 지식수준이 높은 강원도, 가난이 없고 부요하게 사는 강원도, 가장 이름다운 강원도, 자랑스러운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해 왔던 것이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을 일으켰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기도회를 비롯하여 성시화운동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 기도 회원들은 목사, 장로, 교육계인사, 정계인사, 각계인사들의 집단이었다.

CCC의 후원을 받고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과 제2군수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인 전도집회를 갖게 되었고 전국 각처에서 지원대로 오신 분들이 2,500명 정도, 본 춘천에서 모인 성도가 7천여 명을 춘천체육관에 수용했다. 밤에는 특별집회, 낮에는 분과공부를 하고 각 학교를 얻어서 수용하고 100명씩 먹을 수 있는 밥솥 50개를 만들어 소양강 변에 걸고 군대트럭으로 각 학교에 날라서 2,500명의 식사와 식수를 제공하며 4박 5일의 성회를 가졌다.

모인 회원들은 불이 붙어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전 시가지에 퍼져 인구 10만의 춘천시를 뒤덮고 전도했다. 거리 요소요소에는 춘천성시화운동의 플래카드가 펄렁거렸다. 춘천은 1주일간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이게 되었다. 언론기관인 강원일보사, 춘천방송국은 우리의 진행을 잘 보도해주었다. 수천 명의 결신자를 내었고 교회마다 생기를 얻게 되고 사회일반의 교회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모든 시민은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구호는 전 시가지를 메아리쳤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한 주에 한 두 번의 초교파적으로 성시화운동 추진 기도회가 있었다.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홍보물 부착한 홍보차량

불행스러운 것은 주요인물인 내가 수원으로 오게 되어 그 운동에 차질이 생길까 그게 걱정이었다. 나는 보람을 느꼈다. 춘천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물결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교회를 못 나

오는 이들을 위하여 따로 특수교회를 만들어서 다락방교회를 운영하는데 의사, 교수, 변호사, 판검사, 언론인, 사회유지, 공무원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주일 오전만 대체로 모이는데 매우 화기애애하였다. 기성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자기분야에서 착실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는 젊은 방지각 목사96)인데 참으로 박력있고 성실한 지도자였다. 춘천은 반드시 밝은 전망이 보인다.[97]

라고 당시 상황을 기술하였다. 김연호 목사의 아들인 김성호 목사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63년 봄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셔서도 처음부터 춘천을 제네바와 같은 도시로, 정직한 도시로, 깨끗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수시로 설교할 때면 그 비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 당시 대학생선교회(CCC) 춘천지부 간사였던 윤수길 간사가 춘천중앙



김성호(왼쪽) 목사가 자신이 태어난 외양간 자리에서 아버지와 기념

96) 방지각 목사는 효신선교회 창립자이자 춘천 최초 장로교회인 춘천제일장로교회를 설립한 방효정 목사의 차남이다. 그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신학교까지 마치자,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검정고시 특혜가 있는 고등공민학교(중학교 과정), 상업전수학교(고등학교 과정)를 춘천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20년 했다. 그러면서 효신장로교회를 개척하였는데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갈 무렵에는 5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학교를 하면서 교회를 덤으로 받은 축복이라 고백하였다. 불우한 학생사역을 20년하고 1980년에 쉴 겸해서 필라델피아 소재 훼이스신학교로 유학을 갔다. 그러다 우드사이드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1984년 뉴욕효신장로교회를 개척하였던 것이다(「방지각 목사 '효신교회가 폭파된 후에도 감사 찬송'」, 『아멘넷』 뉴스, 2005.12.27).

97) 김연호,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이 아니면』, 밀알라이프, 2021, 190~192쪽.

교회를 출석했고 그 꿈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평신도 기도모임에 전달되고 다시 당시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 꿈이 김준곤 목사님을 통한 CCC의 협력으로 구체화되고 아버님이 춘천성시화운동위원장이 되시면서 1972년도 성시화운동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9년 다시 아버님이 동춘천(현 광장)교회로 오셔서 성시화운동위원회를 재건하셨습니다. 이듬해 1980년 다시 춘천성시화운동에 불을 붙이고 춘천성시화운동 복음화 대성회를 춘천체육관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원장이셨던 아버님이 1981년 봄, 이른 나이(당시 61세)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 후 성시화운동의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평신도 모임을 통해 성시화운동이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98]

라고 하여 평소에도 김연호 목사는 춘천을 성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설교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뜻과 소신이 윤수길 간사를 통해 김준곤 목사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들과 춘천기독인들, CCC회원들, 국군 제2군단 기독인들 등의 염원이 함께 어우러져 성시화운동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3) 춘천성시화운동의 결과와 의미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는 춘천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전국의 CCC 간사와 학생 그리고 나사렛형제들(CCC 출신 학사모임)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낮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 춘천 구석구석을 누비며 4영리 소책자로 복음을 전했다.

당시 CCC에서 김준곤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김인중(안산동산교회와 안산동산고 설립자, 김준곤 목사에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를 맡음)과 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를 맡음)와 최호자 권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들레기

98) 김성호, 『하늘바라기 바보목사』, 밀알라이프, 2021, 600~601쪽.

도팀장), 두상달 장로(기아대책 이사장 역임, 한국CBMC 회장 역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김정우 학생(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교수 역임) 등 수많은 이들이 참석해 민족복음화운동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했다.

조남진 장로는 "성시화운동이라는 명칭은 김준곤 목사님이 처음 사용한 것이다."며, "그 이전에는 성시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준곤 목사가 존 칼빈의 제네바 개혁운동을 모델로 춘천성시화운동 기획노트를 만들었지만, '성시화운동'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시작된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운동인 것이다. '성시화운동'이 1972년 대한민국 춘천에서 시작되어 한국의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미국과 과테말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후 춘천성시화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연호 목사)를 조직·운영하려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춘천교회의 목회자들과 대학생선교회간의 의견마찰로 인해 춘천성시운동위원회는 해체되었고 공식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성시화운동의 모체였던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회원 수가 늘어났다. 평신도 성경구락부는 신앙강좌를 개최했으며, 강사로는 예수원 원장 토레이 신부, 예수전도단 로스 목사, 서울대학교 교수 황희융 박사, 중앙대학교 교수 최재선 박사, 예수원 조병호 목사, 중앙신학교 이호빈 목사 등 특별강사를 초청하여 신앙강좌를 계속했으며, 1974년 10월에는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춘천실내체육관에서 4일간 춘천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연합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974년에는 10월 14~17일까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를 초청, 춘천복음화 대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평신도모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었



춘천복음화 대전도대회(1974년 10월 14~17일) 및 기관장 조찬기도회 모습
(조용기 목사, 박종성 강원도지사)

다. 이때 행사는 전도대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조찬기도회도 가졌으며, 군부대와 교도소 방문 집회 등 다양한 전도활동을 펼쳤다.

1980년에는 1월 21일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를 결성,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김연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강사로는 김준곤 CCC 총재와 김세창 세계복음화운동 총재를 초청했다.

3절 춘천지역 교회와 활동

1. 춘천지역 교회의 연합예배와 성경공부

1) 연합예배와 집회를 통한 활동

춘천중앙감리교회는 춘천에서 역사가 제일 오랜 교회일 뿐 아니라 춘천시의 초교파연합 예배와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어 종종 초교파 집회가 열렸다. 1961년 4월 16일 오후 춘천중앙교회에서 초교파 '전도특별강연회'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현황"(강사 : 한태정 목사)이란 주제의 강연회를 가진 것이나 1961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춘천 시내 각 교회 연합 전도대회(강사 : 김형식 목사, 독고삼 사관, 김성남 전도사)가 개최되었을 때 시청 광장에서 열린 저녁 집회를 제외하고 새벽기도회와 낮 공부는 춘천중앙교회 예배당에서 모인 것, 1961년 9월 14일 '춘천시 기독교 신도 궐기대회'가 춘천중앙교회 뜰에서 개최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식으로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지역 '에큐메니칼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평균 주일 낮 장년예배 참석자가 245명, 주일학교는 고등부 43명, 중등부 48명, 초등부 59명, 유년부 147명 수준을 기록하여 총 542명이 주일예배에 참석하였다. 교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회 재정도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정엽 목사는 매월 유사부에서 정리한 수입과 지출 현황을 주보에 수록하여 교회 재정을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하였다.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신·구교일치예배를 마치고 기념
(1968년 1월 21일)

춘천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은 초빙받아 온 외부 유명강사들의 강연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옥천동 예배당이 종종 춘천시 초교파 연합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기에 다양한 교파 지도자들의 설교도 들으며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갔다. 특히 매년 연초에 실시되었던 '교회 일치를 위한 신·구교 연합예배'는 춘천 시내 천주교회와 성공회, 감리회, 장로회, 성결교회, 구세군 목회자와 교인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집회'였는데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옥천동 예배당은 집회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다.

특히 1969년 11월에 열린 '한국기독화운동 춘천지구종합전도대회'는 이화여대 김활란 학장과 감리교신학대학 홍현설 학장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등과 함께 '삼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갖고 전개하였던 민족복음화대회의 춘천지역 집회로서 춘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저녁 집회를 제외하고 새벽과 낮 집회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5일 동안 총 4,552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집회는 전쟁 후 춘천에서 열린 교계 집회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후 복구를 마치고 성장의 문턱에 들어선 춘천지역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춘천지역의 각종 초교파 연합집회가 열렸던 춘천중앙감리교회는 그런 부흥과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였다.

한편, 춘천동부장로교회 김유찬 목사는 교회일치운동에 잘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합과 합동을 합치자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김유찬

목사가 은퇴를 하자 교회일치운동은 평신도들에 의해 급물살을 탔다. 1974년 1월 20일자 주보에 보면 "일치회 : 신구교 일치회 연합예배를 오는 24일 밤 7시에 본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온다. 이 '신구교연합예배'는 교회일치를 위해 춘천 시내의 천주교와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에 속한 교회들이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신구교 일치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드리던 예배로 1968년부터 시작되었다. 김유찬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기간 중에는 춘천동부교회에서는 모임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가 은퇴한 뒤 평신도들의 교회일치 정신은 신구교 일치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천주교회와도 연합운동을 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춘천지역 개신교 연합회 활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히 1974년은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플로 74'가 열리는 해였다. 이 여의도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도 연합대회가 열렸는데, 춘천지역은 5월 27일 밤에는 춘천성광장로교회에서, 28일 밤에는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29일 밤에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중앙성결교회 부흥회 때의 바울 헤인스 선교사(1950년 중반)

춘천중앙성결교회도 1950년 중반 김규호 목사가 시무할 때부터 부흥회를 열어왔다. 1950년 중반에는 바울 헤인스(Paul E. Haines, 1894~1976)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었으며, 1960년대 초에는 일본인 전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가졌다. 1969년 김관수 담임목사 때에도 부흥회를 가졌으며, 1970년에도 이만신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부흥회를 실시했다.

1976년 4월 6일 윤철중 목사가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가나안농군학교장 김용기 장로를 강사로 초빙하여 심령대부흥회를 가졌다. 이에 교회는 성공적인 부흥회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의 특별기도회 기간으로 정하

고 기도에 전념하는 한편, 춘천 시내에 소재해 있는 각 교회와 행정기관, 학교에까지 안내장을 발송하고 강원일보에 교회 및 집회 광고를 내는 등 활발한 전도와 홍보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드디어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용기 장로를 강사로 모시고 시작된 부흥회는 그만이 가진 특유의 설교 내용과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진정한 생활 자세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어, 시내 교회에 소속된 다른 교회의 많은 성도들까지도 회집되었다. 특별히 14일 목요일 저녁 집회 시간에는 김범일 장로 부인(김용기 장로의 자부)의 간증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교회 안의 공기를 요란하게 진동시켰으며, 그동안 자신들의 생활이 근검절약하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는데, 부흥 집회 후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여 입에서는 자연스레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고 찬송도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교회는 김용기 장로 초청 부흥회를 통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일신시키게 되었으니, 이는 곧 대망의 80년대 춘천교회의 새로운 미래의 한 장(章)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춘천우두감리교회의 경우, 1967년 신중균 목사 부임 후 있었던 부흥회는 우두교회 부흥의 전기가 되었다. 이는 준비와 부흥회 후의 새신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이다. 1967년 봄에 부임한 신중균 목사는 당시 감리교회의 유력한 부흥강사인 수원종로교회 이태선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11월 5일부터 열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포스터를 마련하여 곳곳에 붙여 알렸고 11월 5일 주일 당일 오후에는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부흥회를 알렸다.


부흥회 때 이태선 강사(좌측에서 2번째)와 함께 기념
(1957년 11월 5일)

그 결과 부흥회 통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새신자

들이 나왔다. 이웃 교회에서도 참여한 이들이 많았다. 강사를 정성껏 대접하였고 강사로 다녀간 분들이 우두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안부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부흥회가 끝난 주일에는 부흥회 기간 중에 등록한 새신자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2년 후인 1969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부흥회가 다시 열렸다. 강사는 서울 필동교회 김성남 목사였다. 부흥회를 준비하며 축호전도에 임했고 전 임원들은 한 주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32명의 새신자가 새로 등록하였다. 다음 부흥회는 197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강사는 곽영찬 목사였다. 부흥회 전주에는 전교인들이 안내장과 전도지를 가지고 지역을 돌며 축호전도를 하였다.

한편 우두감리교회는 지방회 차원의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다. 대표적인 지방회 집회는 지방부흥사경회이다. 원래 낮에는 사경회로 모이고 저녁에는 부흥회로 모여 부흥사경회라 이름을 붙였으나 부흥회의 열기가 고조되었을 때인 만큼 부흥회 형식으로 진행할 때가 있었다. 그 대신 낮 집회는 강사가 성경을 알기 쉽게 가르쳐서 사경회의 모양새를 갖추려 하였다. 장소는 대부분 춘천중앙감리교회였다. 1968년에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였다. 강사는 윤창덕 연회장이었다. 등록비는 50원이고 식비는 백미 소두 5되와 부식비 250원 또는 현금 500원이었다.

이선남 장로, 배애경 속장이 등록하여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였다. 1969년에는 김성렬 목사가 강사였다. 이 밖에도 각종 지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72년 10월 9일에는 춘천지방 연합 친교대회가 춘천교대 교정에서 열렸다.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교회 전체가 참석하였다. 가정별로 점심을 준비하여 교회에 나와 버스를 타고 춘천교대로 이동하였다. 지방의 전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즐겁고 흥겨운 자리였다. 그해 7월에는 지방회에서 지방회지를 발간하여 지방의 전 교인이 구독하는 운동을 벌였다. 구독료는 매월 10원이었다.

우두감리교회는 지방의 행사뿐 아니라 춘천 시내의 초교파 집회도 힘써 참석하였다. 1969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춘천에서 한국기독화운동본부 주최로 종합전도대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김활란 박사로 11월 4~5일에는 춘천중앙성결교회, 6~7일에는 춘천실내체육관에서 모였다. 1971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초교파적인 춘천 부흥전도회로 모였다. 장소는 시청광장이었고 강사는 조용기 목사

였다. 1972년에는 춘천성시회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춘천성시화운동 요원훈련이 있었다. 1차훈련은 15일부터 20일까지 매일 밤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2차훈련은 22일부터 27일까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있었다. 회비는 100원이었다. 이어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등록금은 700원으로 교재와 점심을 제공하였고 기간 중 무료 진료반의 순회 치료가 있었다.


석사교회 부흥회 후 기념(1969년)

석사감리교회의 경우도 1968년 임택창 목사가 부임한 이후 거의 매년 영적인 힘을 충전하기 위해 고용봉 목사, 현석초 목사, 최홍석 목사, 전택수 목사, 김구영 목사 등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부흥회를 해마다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최일호·최재석 목사(1979년), 신성철(1980년), 장광영 목사(1982년 1월 18~23일), 김명수 전도사(1982년 11월 10~12일), 공성주 목사(1983년 3월 28일~4월 1일), 이만길 목사(1984년 3월 3일~?), 이삭순 목사(1984년 10월 15일~?), 변춘구 목사(1985년 2월 25~28일), 전가화 목사(1986년 3월 2일), 피종진 목사(1986년 3월 10~14일), 조찬선 목사(1986년 9월 22~26일), 채재관 목사(1987년 4월 20~24일), 이민구 목사(1988년 3월 14~18일), 바기스 목사(1988년 9월 11일), 권혁구 목사(1989년 2월 27일~3월 2일) 등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가졌다.

춘천성광장로교회의 경우, 이치백 목사는 합십 협력(合心協力)을 강조하였다. 마음을 모두고 힘을 모으는 일이 선결(先決)과제임을 알린 것이었다. 그는 부임 1개월여가 지난 1968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의 푯대를 향해 쫓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자고 역설하였다. 저녁예배 시간을 통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 빌립보서 강해가 교인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친

것이었다. 그것은 영적으로 메말라있던 곳에 촉촉이 내린 성령의 단비였다. 당시를 회상하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빌립보서 강해를 아직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감화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빌립보서 강해를 자체부흥회라고까지 불렀던 것도 그 일단을 엿보게 해 준다. 사실 이치백 목사는 부흥회를 통해 교인들이 힘도 얻게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려고 생각, 부흥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신의 빌립보서 강해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이다. 부흥강사를 다 내정해놓고 당회에 부흥회 개최 건을 내어놓자, 매주일 부흥회를 하는데 뭐 별도의 부흥회가 필요하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제직회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그것을 설득하여 부흥회를 하는 데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결국 부흥회는 개최되었고 1968년 4월 22~27일까지 윤중섭 목사가 부흥강사로 다녀가게 되었다. 1969년 8월에도 이만신 목사를 부흥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가졌다.



성광교회 심령부흥회 기념(이만신 강사, 1969년 8월)

2) 춘천지역 교회의 성경공부

1960~70년대는 평신도신학원, 사경회, 부흥회, 사경부흥회 등으로 다양하게 장년에게 성경교육을 시켜오던 춘천지역의 교회는 1970년대 중반부터 베델성서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 김연호 목사는 속장 및 속회 인도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으며, 특히 전 속도원이 속회공과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춘천중앙교회는 동부연회에서 해마다 속회공과 보급 우수교회로 표창을 받았다.

또한 김연호 목사는 춘천지방회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의 춘천 평신도신학원에도 많은 교인들이 등록하여 성경과 신학 수업을 받도록 독려하였다. 평신도신학원

은 종래 춘천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성경학원 과정을 발전시킨 것으로 지방 목회자들이 교수로 참여하였고 수업은 춘천중앙교회 교육관에서 하였다. 1970년 4월 6월 제1기를 모집했는데 춘천중앙교회에서는 이복희, 이선영, 이승오, 심봉옥, 김영춘, 김석주, 홍정화, 김경선 등이 등록하여 1년만인 1971년 2월 21일 이복희, 이승오, 김석주, 이선영, 홍정화, 심봉옥, 김경선 등이 수료하였다. 이후 1975년까지 김종순, 이순옥, 윤정자, 박화순, 김미조, 최연옥, 김순희, 한미자, 함영란, 김옥하, 정영옥, 이정숙, 한옥희, 김정숙, 안계희, 문옥화, 김태숙, 김기태, 김동걸, 권문오, 나영열, 임정진, 김영희, 손명선, 김선희, 황경애, 유희상, 한규순, 강명기, 오춘자, 김상애, 이윤경, 박보선, 김영숙, 유희상, 정영옥 등이 평신도신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받았다. 이 중 김종순 권사는 1973년 12월 평신도신학원 2대 동문회장에 피선되기도 했다.

이 외에 춘천중앙교회에서는 교단 본부에서 운영하는 성경통신과 과정과 대학생선교회(CCC)에서 실시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다양한 과정으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도록 유도하였다.

춘천신성감리교회는 1972년 부도 위기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놓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좋지도 않았고 가난한 교회였는데도 신기하게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갔다. 성도들이 점차 늘어가자 예배를 통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김창수 목사에게 생겼다.

마침 서울 루터교회에 베델성서 교육과정이 생겼다. 이 과정은 성서를 체계적으로 바르게 교육하여 한국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흥과 건전한 성장을 하게 하기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1970년에 한국 베델성서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3여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74년 1월 제1회 지도자 강습회가 실시되었다. 2년



김창수 목사의 베델성서연구 제7회 강습회 수료(1976년)

동안 받는 교육과정이었는데, 1976년에 내가 먼저 서울 루터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그리고 나서부터 신성교회에서 베델성서 교육을 시작했다. 그 후로부터는 신성교회 성도들의 신앙훈련, 영적훈련, 성경훈련은 베델성서 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다.

김창수 목사는 베델성서 교육을 하면서 세 가지에 중심을 두었다. 첫 번째는 신앙을 바르게 정립시켜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쳤다. 세 번째는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이렇게 2년 동안 함께 과정을 공부하다가 보니 어느새 베델성서 교육이 제자 훈련처럼 되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지냈던 것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확립했다.

베델성서 교육은 2년 과정에 1년에 1기를 배출했는데, 많을 때는 1년에 3기수를 배출할 때도 있었다. 오전, 오후, 저녁, 토요일, 주일까지도 베델성서 교육을 강행했다. 베델성서 2·3기 졸업예배 때에는 서울루터교회 베델성서연구원 원장인 지원상 박사가 신성교회에 직접 와서 설교도 해주고 김창수 목사에게 공로패도 수여해주기도 하였다.

베델성서 초기에는 졸업할 때는 졸업생들에게 가운을 입히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강원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던 김남경 권사가 학교 졸업가운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의 졸업 가운을 빌려주어 그때부터 가운을 입고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신성교회 베델성서 1기 졸업예배와 21기 졸업예배

춘천우두감리교회의 주성호 목사도 베델성서 교육을 하였다. 주성호 목사는 새로운 장년교육을 실시하여 교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했고 이를 통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베델성서대학을 도입하였다. 베델성서대학은 당시 평신도 성경공부의 붐을 일으킨 대표적인 성서연구 프로그램이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구약을 체계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베델성서대학'이란 이름을 걸고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과정을 마치도록 하여 성취감을 높였다.

주성호 목사는 1979년 2월 12일부터 주간 서울 루터교회 베델성서연구회에 다녀와서 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본 과정은 2년인데 제1기를 모집한 결과 27명이 등록하여 담임목사가 강사로 베델성서대학을 시작하였다. 베델성서대학 1기생들이 주관하여 두 차례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수강생들의 신앙 간증, 개념 외우기, 강사의 표어 설명, 메시지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1980년 4월에는 예배 후 1시부터 베델성서대학을 운영하여 예배를 마친 장년 교인들에게 성서연구를 통해 한층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베델성서대학은 수요일에도 계속되었다. 그 결과 4월 24일에는 2년 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을 위한 졸업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수료한 이들은 총 19명이었다. 이때 졸업한 이들은 조병옥, 최문길, 허준섭, 최인혁, 홍종업, 함영근, 조영상, 배동희, 김필순, 백영란, 홍순필, 강순예, 김명숙, 김정숙, 이화섭, 권영옥, 김복희, 이영란, 김영란이었다. 점차 교인들이 성서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춘천석사감리교회에서도 임택창 목사는 부흥회 등의 집회와 함께 성경공부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교재를 프린트하여 성경공부를 실시하였고 1983년부터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베델성서연구 프로그램을 석사교회에서도 실시하였다. 교인들도 열심히 참석하여 1984년에 베델성서대학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1974년부터 한국교회에 보급된 베델성서연구는 성서의 부분적인 연구가 아니라 성서 전체의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매주 2시간 반 정도의 교육을 2년간 계속하는 성서연구 프로그램이다.

춘천성광장로교회에서도 베델성서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광국 목사가 부임하면

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이 베델성서연구(생활면)였다. 1984년 7월 29일~1985년 11월 10일까지 약 1년 3개월간에 걸쳐서 진행된 이 성서연구는 제직반, 요한반, 여성반 등 3개 반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전임 이치백 목사 시무 때도 벧엘성공부가 실시된 바 있어 교인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하였다

두 번째로 실시한 성경공부는 두란노 성경공부(제3편 인물편)이었다. 베델성서공부가 끝난 그 이듬해 봄(1986년 3월 23일)부터 시작된 이 두란노 성경공부는 제직반과 여성반으로 나뉘어 1989년 초까지 약 3년간 계속되었다. 내용은 성서 속에 나타난 인물 53명을 성서적인면에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 인물이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것을 보고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다.



춘천성광장로교회 시청각 성서연구 프로그램인
크로스웨이 성서연구반원들(1988년)

세 번째로 실시한 것은 교회성숙을 위한 혁신적 시청각 성서연구 프로그램인 크로스웨이(cross-way) 성경공부였다. 1988년 2월 28일부터 제1단계 1기 교육에 들어간 이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주제 아래 신·구약을 30개 과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히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촛점을 맞추어 섬기는 삶을 강조하는 공부 과정이었다. 이 공부는 교육관의 완공으로 그 곳을 사용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으며 부교역자인 조성칠 목사가 제2기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성경공부는 교인들에게 성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더욱 친밀하게 접하도록 해 줌으로써 말씀 위에 서는 든든한 신앙을 뒷받침해 주었다.

춘천동부장로교회의 손길용 목사는 1978년에 들어서면서 전 교인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별지로 한 주간에 읽을 성경본문에 대해 문제를 제출한 것 같다. 왜냐하면 1월 15일자 주보에 보면 “성경읽기를 누구나 다 하시기 바라며, 해답을 적어 주일날 안내 집사님들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는 광고가 있기 때문이다. 1월 22일자 주보에도 “신구약 성경읽기를 빠짐없이 하시기 바란다”는 광고를 실어 온 교인이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성경읽기를 위한 문제가 여름기간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9월 3일자 주보에 “오늘부터 성경읽기 문제가 배부됩니다. 누구든지 꼭 성경읽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는 광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성경읽기와 더불어 10월 8일 주일부터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먼저 ‘장로교 12신조’를 주보에 실어 3주 동안 공부하였다. 그리고 11월 5일 주일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몇 문항씩 실어 공부하였다. 기본적인 교리를 알게 하여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목회적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이 성경읽기와 교리교육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좀 더 심도 있는 성경공부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베델성서학교’를 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학생을 모집하였다. 1978년 2월 12일에 개강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7~10시까지 1년간 하는 성경공부였다. 그러나 베델성서학교는 개강하지 못했다. 심화성경공부 외에도 교회는 총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성경통신대학’을 매주 수요일 예배 후 1시간 동안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성경통신대학은 성경, 장로회신조, 예배모범, 신학, 장로회정치, 제직론, 교회사, 기독교 윤리, 청지기직 등이 과목으로 개설되며, 그 목적은 ‘장로교회 평신도의 양육과 훈련’에 있었다. 이후 베델성서학교는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성경통신대학은 꾸준히 운영되었다.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성경통신대학만 운영되었다.

이렇듯 교회는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성경 읽기와 좀 더 깊은 성경공부와 평신도 지도자 훈련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경통신대학을 운영하는 등 교인들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2. 춘천지역 교회의 선교와 개척

1) 선교사들의 춘천지역 활동

1960년대 들어서도 미국 감리회 선교사들은 춘천지방 선교사업을 추진하면서 춘천중앙감리교회 목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휴전선에 가까운 춘천 대신 원주 혹은 서울 선교부에 머물면서 춘천지방을 수시로 방문하여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교회 예배당 복구 및 재건, 지방교회 목회자와 신학생 지원, 주일학교 및 속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로 바뀐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은 교회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제프리(Finis B. Jeffery, 한국명 채부리) 선교사의 교회 복구 지원과 신학생 보조는 춘천지방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연극과 영화'를 통한 전도사역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무어(Moore, Miss Sadie Maude, 모세득) 선교사의 지방 순회 전도는 춘천지방 교인들과 주민들이 전쟁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도록 이끌었다. 이 외에 40년 넘은 한국 선교 경력을 지닌 여선교사 올리버(B. Oliver, 오리부)가 서울 태화여자관 관장을 마지막으로 1958년 정년 은퇴한 후 춘천지방에 파송되어 2년 동안 더 활동하다 귀국하였다.

지방 선교사업을 담당하는 선교사 파송에도 변화가 있었다. 수복 후 춘천지방 선교사업을 맡아 하던 남녀 선교사는 제프리와 무어(모세득)였다. 그러나 이들 두 선교사는 모두 서울에 집을 두고 춘천지방뿐 아니라 강원도 다른 지방도 순회하며 선교사업도 맡아 하였기 때문에 춘천 사업에 전념하지는 못했다. 이런 형태의 춘천선교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제프리는 1964년부터 『감리교생



중앙유치원 학부모초청 잔치 마치고 기념(1971년 8월)

활』 발행과 속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을 서울 성북지방으로 옮겼고, 모어는 1969년 9월 정년 은퇴 후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후 춘천지방 복구사업과 선교사업을 주도하였던 두 선교사가 모두 떠난 것이다.

특히 제프리 선교사는 한국 감리교회 속회제도를 부흥시키는 데 노력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을 지속했다. 그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감리회 안에는 900개의 속회가 있었는데, 그가 은퇴하던 1983년에는 4만 개의 속회가 있을 정도로 속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백을 쥬디(Carl W. Judy, 주덕) 선교사 부부가 메웠다. 쥬디(Judy, Rev. & Mrs. carl W. 주덕) 목사는 지방사업을 맡아 하였기에 감리사와 함께 지방교회들을 순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춘천지방 교인뿐 아니라 춘천시민들도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선교사를 크게 환영하였다. 쥬디 목사는 춘천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지방순회를 나섰다가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도와준 일로 지역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 소식이 『기독교세계』에 실렸다.

쥬디 부인(Magaret Brannan, 주진주)도 춘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대를 이어 춘천선교에 헌신한 쥬디 부인은 춘천에 부임하자마자 춘천중앙교회 부속 중앙유치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그의 어머니가 설립하였다가 1935년 경영난으로 폐쇄되었던 것인데 전쟁 후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재건하였지만 시설이나 경제면에서 열악한 형편이었다. 유아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던 쥬디 부인은 이후 유치원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유치원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할 때 사재 2천 5백만 원을 희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쥬디 부인은 춘천중앙교회 장로로 봉직하면서 여선교회와 속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일학교와 청년·학생 선교와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임했다. 전문 음악가로서 6.25전쟁 전 서울 감리교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교수하기도 했던 쥬디 부인이 춘천중앙교회에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소개, 지도함으로 춘천중앙교회의 문화선교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경력과 재능을 지닌 부목사와 소속 목사, 소속 선교사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으며, 김연호 목사는 1960년대에 춘천중앙교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다.

그들이 강원도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2006년 7월 26일자 『강원일보』「쥬디 선교사 부부의 헌신」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주진주 선교사 한국감리교회 공로패 –"90년 한평생 강원도 위해 헌신"

평생 강원도에서 선교사업을 펼친 주진주(91, 마가렛 쥬디)선교사가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린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MC)'에서 한국감리교회 공로패를 받았다.

주진주 선교사는 지난 1915년 미국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한 부모의 선교사역지인 북강원도 원산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지난 1948년부터 1983년 은퇴까지 35년간 원주제일교회와 춘천중앙교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편 쥬디 목사와 함께 원주기독병원 창립을 비롯 동부연회 일대의 300여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는 데 일조하고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다.

쥬 선교사는 원주기독병원 설립자공동대표인 남편을 대신해 25일 오전11시 연세대원주기독병원 루가홀에서 열린 '쥬디기념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90세를 넘은 노령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쥬선교사는 "5년만에 한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한국의 변화와 발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낀다"며 "남편과 강원도 벽지에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쥬디 선교사는 2008년 9월 13일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늘 감사하며 살아온 김창수 신성감리교회 목사는 그들이 가슴 한 켠에 남아 있어 2000년 5월 27일 『기독교 타임즈』에 기고한 '말없는 사랑의 실천 보여준 내 삶의 스승 쥬디 선교사'를 통하여 두 분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춘천 3보충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하루는 춘천지방 장인덕 감리사님(서부교회 담임)이 찾으시더니 후평동 신성교회의 설교를 부탁하셨다. 그 당시 신성교회는 담임자가 교회를 건축 중에 건축

비 문제로 사임한 상태였고, 교인 20여 명은 교역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군인교회와 함께 신성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빚을 진 신성교회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에 지방실행위원회에서는 교회를 폐쇄하도록 했다. 하지만 나는 비록 20여 명 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교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매주 군인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 신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러기를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쥬디라는 미국 선교사였다. 하루는 쥬디 선교사가 나를 찾아와서 건축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교회건축 때문에 진 빚을 갚아주었다. 그야말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까마귀와 같은 존재였다.

물론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의 결실이기도 했지만 그때 입은 쥬디 선교사의 은혜를 나와 신성교회는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쥬디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출국하기 하루 전날 나는 전에 받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짐 꾸리는 일이라도 도와드릴 요량으로 선교사님의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에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무심코 선교사님의 집 뒤 과수원을 보니 선교사님 내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다. 과일나무에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며 약도 치고 있었다. 나는 쥬디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선교사님. 내일 미국에 가시지 않습니까? 빨리 짐을 싸셔야 내일 출발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 열 복숭아는 선교사님께서 따 먹지도 못하실텐데요."

선교사님의 대답은 나의 이런 대답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짐은 저녁에 싸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무에 거름도 주고, 전지도 하고, 약을 치지 않으면 복숭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을 과일이 아니라고 제 때에 약을 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때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픈 심정이었다.

당신이 먹지도 못할 과일나무에 저처럼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성실하게 목회를 하리라!'

내가 춘천지방 감리사로 있을 때에 거두리에 있는 농가를 한 채 사서 교회(거두리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었다. 이미 계약은 한 상태였는데 잔금을 치를 돈이 없었다.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철야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중에 하루는 쥬디 선교사님이 50만원짜리 수표를 주시면서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라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의 기도응답과 쥬디 선교사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예사 돈이 아니었다. 미국에 사는 중풍에 걸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신 어느 할머니가 틈틈이 뜨개질을 하여 모은 돈이라는 것이다.

그 쥬디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여 미국으로 들어가시고 1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 우리 신성교회는 쥬디 선교사님께 입은 은혜에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금반지와 여비의 일부를 드렸다.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들어가신 후에 알게 된 일인데, 우리가 드린 여비와 금반지를 한국에서 받은 사례와 함께 어느 가난한 미자립교회에 헌금하시고 가셨다고 한다.



주진주 장로 인사 말씀하는 모습(1983년)

이토록 강원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쥬디 선교사 내외는 말 없는 사랑을 실천한 참된 목자였다.[99]

2) 선교와 개척

감리교회의 경우, 1960~70년대에 춘천지방회 소속 북산(1962), 덕원(1965), 사북중앙(1966), 동원(1969), 방산(1969), 신매(1971), 남부제일(1973), 동춘천(현 광장, 1973), 정안이(현 시온, 1974), 강촌(1975), 원평(1975), 춘천제일(1976), 덕천(1976), 춘일(1977), 평화(1978), 금성중앙(1978), 지암(1978), 거두리(1979), 만천리(1970) 등 19개 교회가 개척 창립되었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장년회(후의 남선교회)가 주동이 되어 용수목교회를 개척하였다. 용수목교회는 1964년에 춘성군 북산면 사전리 용수목에 김명분 여전도사를 파송하여 설립한 교회로서 설립 초기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와 장년회에서 전도사 생활비를 전담하였고, 교인들도 수시로 가서 전도활동을 벌였다. 춘천중앙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용수목교회는 북산면 오항리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1970년 11월 26일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용수목교회는 1955년 개척한 춘천서부교회에 이어 춘천중앙교회의 해방 후 두 번째 개척교회인 셈이다. 세 번째 개척교회 설립운동은 1968년부터 구체화되었다. 김연호 목사는 1968년 표어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정하고 개척교회 설립 계획을 세웠다.

김연호 목사는 부임 6년 만에 20여 만 원의 교회 빚을 다 갚았고, 교회 관리인(사정)과 목사 사택을 마련하였으며, 병원 건물을 개조해서 사용하던 옥천동 예배당 위쪽으로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한 부지(400평)까지 마련했다. 그리고 1967년 효자동에 개척교회 예배당 부지(168평)도 구입하였다. 그리하여 춘천중앙교회는 1968년 새 예배당 건축과 효자동 교회 개척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68년 3월 40만 원을 목표로 '효자동교회 건축헌금 및 대지 확장헌금'을 실시하였다.

---

99) 쥬디 선교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성역 40년』(김창수, 강원도민일보, 2012) 85~92쪽 참조.

김연호 목사와 교인들은 개척교회를 먼저 설립하기로 하고 건축기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여 마침내 춘천시 효자동 2가 1491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1969년 4월 13일 '교회 분립예배'를 드렸다. 개척교회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명칭을 '동원교회'로 확정하였고, 초대 담임자는 마경욱 전도사였다. 개척 예배를 '분립예배'라 한 것은 춘천중앙교회의 효자속을 중심으로 한 교인 70여 명이 개척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때 춘천중앙교회에서는 청년회장을 포함해 교회의 중심, 중진 교인들이 다수 동원교회로 옮겨갔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의 광복 후 세 번째 개척교회로 동원교회가 설립되었다. 1955년의 서부교회 개척이 살던 집과 땅을 헌납한 박춘자 권사의 개인적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1964년의 용수목교회(북산교회) 개척이 여선교회와 장년회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원교회는 전 교인이 대지 헌금과 건축 헌금을 하였고 일부 속회를 떼어 개척교회로 파송하는 '분립' 형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편 미약하지만 우두교회도 이 무렵부터 국내외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5일자 주보에는 직원회 결의에 따라 사창교회를 위해 헌금하기로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직원은 100원 이상 헌금하기로 하였는데 정부석 유사에게 내도록 하였다. 또 그 해 우두교회에서도 한국감리교회에서 추진하는 해외선교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해외선교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춘천지방에서는 1970년 김연호 감리사가 일본 북해도에 3개월간 선교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이미 북해도에는 이성주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었다. 북해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김연호 감리사는 월 일 환등기를 통해 일본선교 상황을 교인들에게 알려 주었다. 해외선교가 낯설었던 시절 교인들은 구체적인 해외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

춘천석사감리교회는 1969년에는 후평교회(현 신성교회)를 지원하였고 1971년에는 봉오리교회, 춘천지방 내에서 신축된 사북교회, 지내리교회, 방산교회를 지원한 것 외에도 해외선교를 위해 북해도 선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1972년에는 산천교회 보조, 신남교회 신축 공사를 위한 특별헌금도 하였고 1972년 8월부터는 혈동교회에 선교비로 매월 3천 원씩을 보조하였으며, 신매리교회에도 보조금을 보냈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석사교회가 그 동안 자체 내의 성장에만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성장의 역량을 과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1103야공단 군인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특별헌금을 하였으며, 1972년 성탄절에는 225부대와 333부대 군인 중에서 무의탁 사병을 위문하였다.

춘천동부장로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돕는 데에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1967년 3월 26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장로회신학교를 위해 "매 세례자 100원씩 출금하여 보조하기로 가결"하였다 이 가결은 총회 차원에서 실시되던 1,500만원 신학교 자립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1967년에 접어들어 신학교는 교단의 세례교인 15만 명이 1인당 100원씩 헌금하기 운동을 펼치며 6월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춘천동부장로교회는 5,900원이 배당되었다. 세례교인을 59명으로 산정한 것이다. 총회적 차원의 이 모금운동은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67년에는 77만 원이, 1968년에는 12만 원으로 도합 89만 원밖에 모금되지 못했다. 그래서 신학교는 1969년부터 모금방법을 바꾸어 자립교회 약 130교회를 신청하여 목사사례금의 1개월분을 후원해주도록 하였다. 춘천동부교회도 이 130개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신학교를 위해 1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한다. 이 금액은 1973년에도 춘천동부장로교회가 신학교를 위해 보조한 금액이다. 신학교를 위한 보조 외에도 춘천동부장로교회는 신학교가 1971년에 '마포삼열선교사기념관'을 건립할 때 특별헌금을 하여 학교로 보내기도 하였다.

춘천동부장로교회는 또한 수재나 한파를 당한 이웃에 대해 구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65년 7월 18일에 열린 임시 제직회는 '수재민을 위하야 이번 일주일 풍안 쌀과 의복 모으기 운동'과 '수재민 구호 헌금을 하기로 결의'한다. 1967년에는 "한재(旱災)를 당한 전남지방을 위하여 연보를 보내기로 당회에서 가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구제헌금은 1968년, 1969년 그리고 1970년에도 있었다. 1966년에는 YMCA에서 실시하는 불우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수업 장소로 학생실을 2개월간 빌려주기로 결정하는 등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눈을 감지 않았다. 또한 장애우에 관한 관심도 찾아볼 수 있다. 1968년 1월 28일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금을 하였는데, 그 금액이 2,175원이었다. 1972년에는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장애인 자립회를 위해 약 2,000원 정도를 후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춘천동부장로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웃을 돌보며, 재정이 약한 교

회들을 돕고 미래의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교회의 증축 및 사택 건축과교육관 건축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도 교회 안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교회 밖의 문제에도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춘익 목사가 소신 있는 목회를 할 수 없었고 교회 안의 여러 문제로 인해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여 교회가 해야 하는 활동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이 기간에 춘천동부장로교회는 전도와 구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나아가 일본교회와도 교류를 갖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일본교회와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자. 1973년 10월 28일자 주보를 보면 "오늘밤 예배 후 일본에서 오신 오시노 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광고가 나온다. 그리고 12월 16일자 주보에는 "일본 동경 히가시 나카노교회로부터 심심한 사의와 문안을 드려왔습니다"라는 광고가 니온다. 또한 1974년 3월 10일자 주보에는 '일본 동중야교회 문안'이라는 광고가 나온다. 다시 12월 29일자 주보에도 '나카노교회 안부'라는 광고가 나온다. 여기서 나카노교회와 동중야교회는 동일 교회를 가리킨다. 히가시 나카노의 한자 표기가 동중야(東中野)이기 때문이다. 동중야교회는 동경의 히가시 나카노에 있는 교회로, 일본동맹기독교단에 속한 교회이다.

장로교의 경우 춘천동부장로교회가 개척 창립을 주도하였다. 1963년과 1964년에 청년회에 의해 개척된 신촌교회와 의암교회는 이후 춘천동부장로교회의 지교회로 간주되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 예가 1964년 5월 3일에 의암교회와 신촌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4월 26일에 열린 임시 제직회에서는 이 두 교회를 '지교회'라 부르며 의암교회 교인이 10여 명 정도, 그리고 신촌교회 교인이 40여 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1명당 25원의 예산으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두 교회를 지교회로만 놔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9월 9일에 열린 당회에는 9월 28일에 열리는 춘천시찰회에 '신촌교회 개척교회로 허락 청원'건과 '의암(衣岩)교회 전도사 청원건'을 올리기로 결정한다. 12월 19일자 당회록에 의하면 신촌교회는 허봉지(許鳳之) 전도사가 임시로 예배를 인도한다. 1965년에는 신촌교회를 노회에 가입 청원하고 의암교회는 전도사 1명을 노회에서 파송하여 주도록 청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한다.

1966년에는 신촌교회의 예배처소를 위해 3월 13일 주일에 특별연보를 하였으며, 7월 3일의 당회에서는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한다. 이후 신촌교회는 1969년까지 춘천동부교회가 홀로 돕지만, 1970년부터는 춘천시찰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김기옥 전도사가 시무하다 사임하고 1967년 10월 3일에 원통교회에서 모인 제28회 노회록에 의하면 손창록 목사가 시무하게 된다.

의암교회에 대한 후원은 훨씬 더 오래갔다. 1966년 10월 23일에 의암교회의 신축을 위해 헌금을 하는데, 150원의 건축헌금이 걷혔다. 남전도회가 전담으로 맡아 후원하던 의암교회에 대한 관심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서도 찾아올 수 있는데, 춘천동부교회에서 장립을 받았으나 서울로 이사를 한 이동휘 장로가 5,000원을 의암교회를 위해 헌금한 것이 그 예이다. 1971년에 이르러 의암교회는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연모를 갖추는 것 같다. 왜냐하면 10월 30일에 모인 당회에서 "의암교회의 제반 재정에 관한 것은 의암교회에 맡기기로 하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곧바로 의암교회로부터 손을 뗄 수 없었다.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데, 바로 의암교회를 사역하던 전도사가 사표를 내기 때문이다. 그 상황을 12월 4일에 열린 당회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의암교회의 건은 교회당과 사택은 그대로 두고 전도사는 사표를 냈으니, 주일마다 본 교회 청년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토지는 매각하기로 하되 구연창·김성찬 두 장로가 처리원이 되어 처리하도록 가결하였다. 이에 전도사의 사표로 인해 예배인도는 청년들이 매주일 맡게 되었으니,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지 예배당과 사택만 남기고 토지는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1972년부터는 여형종 장로가 강도(講道)를 담당하고 주일학교는 청년회에서 담당하였다. 여형종 장로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로 은퇴를 하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의암교회의 예배인도는 춘천동부교회의 장로들이 하든가, 아니면 부교역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춘천동부장로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은 신촌교회와 의암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1964년 11월 1일에는 동산(東山)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특별연보를 하였으며, 1965년 4월 4일 주일에는 부평(富坪)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였다. 1966년 6월 12일 주일에는 서상(西上)교회를 위하여 건축헌금을 하였는데, 2,711원이

걷혔다. 1967년 1월에는 서흥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여 2,800원을 보조하였다. 1971년 한 해 통안 효서(孝緖)교회 등의 교회를 위해 각각 8,000원씩 보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월성(月城)교회 사택 건축을 위해 5,000원을 보조하였다. 또한 1971년 8월 8일 주일에는 중동부 전선에 있는 펀치볼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헌금을 하였다. 이렇듯 춘천동부장로교회는 춘천시찰에 속한 미자립 교회들을 여러모로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성결교의 경우, 신북교회(1962년 4월 19일), 삼천리교회(현 삼천동, 1967년 6월 11일), 대흥교회(현 춘천, 1972년 3월 5일), 염광교회(1977년 10월 1일), 제일교회(1978년 4월 10일) 등이 개척, 창립되었다.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개척한 삼천리교회와 대흥교회의 창립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삼천리교회 개척예배 후 기념(1967년 6월 11일)

삼천리교회는 삼천동(지금 주소, 강원 춘천시 옛경춘로 816-7)에 세워졌다. 삼천동은 서울 방면에서 춘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농촌지역으로 춘천시가 확장되어 나갈 때 발전의 소지가 있음을 기대하고 삼천동에서 출석하던 교인 2구역을 분할하여 개척을 시작하였다. 1967년 6월 11일 주보의 광고란을 보면 "삼천리교회 개척개회예배 금일 오후 2시 삼천리교회에서 신개척 개회예배를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두 참석을 바랍니다"라는 광고가 실려 있는데, 교회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 당시 자재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성도들은 지교회(枝敎會)를 설립한다는 성장에 대한 기쁨으로 악조건을 잘 감수하여 도왔고 담임 교역자(당시 김창길 전도사, 1986년 소천)의 생활비 일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강원서지방 북감찰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삼천동교회는 1985년 9월 제5대 담임 교역자로 신재원 목사가 부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 동안 성실하게 목회한 결과 지금은 완전한 자립교회로 성장하여, 250평 교회건축을 위해서 대

지를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주택 2채와 사택을 구입하여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1988년도 결산보고에는 세례교인 105명, 제직이 목사 1명, 권사 5명, 그리고 집사가 37명, 재정은 경상비 수입이 22,597,635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995년 5월에 교인 재적 170명에 세례교인이 110명, 권사 9명, 집사 54명, 1년 예산이 1억인 교회로 성장하였다. 신재원 목사는 1995년도 교회 표어를 "복음의 증인되자"로 정하고 교인들의 제자훈련에 역점을 두고 양육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어 있고 중창단 활동이 활발해 교회부흥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대흥성결교회 역시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개척 창립한 교회다. 대흥교회(지금의 춘천교회, 강원 춘천시 효자3동 114-140)는 본 교회의 교동구역과 후평동 구역의 두 개 구역을 분리하여 1972년 3월 5일에 최응석 목사를 담임 교역자로 청빙하여 개척하게 되었다. 당시 교역자 생활비 일부와 전세금 일부를 본 교회에서 부담하였으나, 4년여 기간 동안 교역자 가정이 7~8회나 주택을 옮겨야 하는 고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후 교회는 점차 성장 하여 1977년부터 자립을 하고 당시 임대로 사용하고 있던 체육관 건물을 교회가 매수하여 수리, 정돈함으로써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76년도 4월에 제2대 목사로 부임한 유세근 목사가 말없이 희생적으로 헌신한 결과 교회는 내실을 기하였고 1987년도에 이르러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아담하게 신축하여, 1988년 4월 5일 교회이름을 새롭게 빛나는 새벽별 교회가 되자고 '샛별교회'로 개명하였다.

1989년도 강원서지방회에서 보고된 1988년도 11월말 교세를 보면 세례교인이 87명, 제직은 교역자 1명, 장로 2명, 권사 9명, 그리고 집사 37명이었으며, 재정은 19,485,390원으로 결산 되어있었는데, 이후 현 오승룡 목사가 부임하여 1992년 춘천교회로 개명하고 날로 성장하여 지금은 300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 1995년 춘천교회는 세례교인 150명에 교역자 3(목사1, 전도사 2), 장로 2, 권사 10(명예권사3 포함), 집사 52명에 1년 예산 1억 2천에 이르는 중형교회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담임하고 있는 오승룡 목사는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이요 야고보서의 중심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기 위해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이 되자는 기치를 내걸고 철저한 교육과 심방의 목회를 감당해 가고 있다.



초창기 운교동의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모습

한편 그리스도의교인 춘천그리스도의교회도 창립되었다.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지역으로 순조롭게 확장해가고 있었으나 산 맑고 물 좋은 강원도 지방은 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이 들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동석기 목사가 1964년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 박경원 강원도지사가 미국에 있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초대하면서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비추자, 이에 이홍식 장로가 곧 실천에 옮겨 1967년 4월에 춘천지역 그리스도의교회 사역을 시작했다.

이홍식 장로는 함경북도 북청 출신으로 1939년 10월에 동석기 전도자에게서 복음을 받은 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그의 80여 평생을 바쳐 일한 전도자이며, 월남한 사람이다. 아내를 북에 두고 딸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북에 아내가 있으니 재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혹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혼자 평생을 살았던 분으로서, 남한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교회 지도자였다.

당시 강원도지역 담당 미국 군사고문으로 파견 나왔던 오클링이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같이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박경원 지사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본래 클링 부인은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전도자 딸로서 한국 땅의 복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홍식 전도자, 오클링, 박경원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1967년 3월 10일 낙원동 101번지 건물 12평을 임대(25,000원에 월 3,500원)하여 12일 주일주의 만찬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개척하고 난 후 신학생 김중환 전도사가 몇 달을 섬기다가, 7개월 후 10월 1일에 북아현교회 이호열 전도자가 취임하고 이때 오클링 씨가 생활비 50불을 제공하였고 2년 후 1969년 10월 시유지 780평 불하를 받았

다. 이때 오클링 씨가 그 비용을 헌금했다고 하고 현재의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전도자를 도와 집사 1명과 정인복의 수고로 날로 전도되어 약 60~70명의 교인이 모였다. 이호열 목사는 5년 후 1972년 사임하고 1년간 이흥식, 김진건이 예배 인도를 하다가 1973년 전두병 목사가 취임하여 1970년대를 열었다.

이호열 목사는 1962년도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온 후 5개월간 『참빛』지에 편집장 및 논설위원으로 일해 문자사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한 바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72년 4월 3일에 김주환 전도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1972년 초 정선을 떠나 춘천에 이삿짐을 풀었지만 제대로 된 건물을 세 낼 형편이 안 되어 효자 1동에 있는 18평 2층 집을 교회 예배실로 계약했다. 김 목사는 예배실 계약을 마치고 성도들이 앉을 장의자 8개를 맞췄다. 방이 좁아서 두 줄로 놓지 못하고 한 줄로 의자 8개를 놓았다. 1972년 4월 3일을 교회 창립일로 정했다.



창립예배 후 기념(우측으로부터 우인정목사, 박영찬목사, 김정수목사, 크레어선교사, 김주환목사, 허걸목사, 조남진장로, 1972년 4월 3일)

창립예배에는 교단 총회 본부에서 총무 정두영 목사가 내려왔고 강원지방회장 김정수 목사, 강원지방 담당 선교사 더글러스 크레어(Douglas Clare) 목사와 김주환 목사의 동기생 우인정 목사, 박영찬 목사가 참석했다. 비록 초라한 예배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지만 순복음교회가 춘천에서 창립된다는 것만으로도 춘천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 3개월째 되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도청 밑에 위치한 강원도문화관을 빌려 전도부흥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미국에서도 이름있는 부흥사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며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윌리암 콜드웰(William Caldwell) 목사였다. 통역은 강원지방회장을 맡은 원주순복음교

회 김정수 목사가 맡았다. 당시 4~5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은 이번 부흥회를 교회 발전에 큰 계기로 삼자고 기도한 후 부흥회를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로 바뀌어 있지만, 당시 시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서 전도하기는 아주 쉬웠다. 어느 집이건 전도할 수가 있었다. 교회에서 문화관 전도 집회 전단을 만들고 선교부에서 보내온 요한복음 쪽 복음책자를 봉투에 넣어 온 성도가 춘천시내를 골고루 나누어 전도지를 돌리고 부흥회 참석을 권했다.

부흥회 장소가 시설이 좋은 도문화관이라 반응이 좋았다. 콜드웰 목사의 부흥설교는 비록 통역자를 통해서 듣지만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행된 부흥회는 마치 초대교회 때 성령충만한 모습이었다. 참석한 온 성도들이 은혜를 갈망했으며, 성령충만을 받아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순복음춘천교회 전도부흥회 열린 도문화관과 부흥회 모습
(1972년 7월 10~15일)

당시 이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의 간증이 줄이었는데, 김정림 권사는 갑상선 염으로 목에 커다란 혹을 달고 있었다. 전도자의 권유를 받고 처음 부흥회에 참석했다. 전혀 교회에 다녀본 일이 없는 분인데 그날 밤 부흥회 참석 후 은혜를 받고 갑상선 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2대 총여선교회 회장을 지낸 이명희 권사도 기적을 체험하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이 권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문자 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문화관 부흥회에 참석했

다가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며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고침 받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후 이명희 권사는 1기 권사 멤버로 교회 발전에 큰 공로자가 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가 창립 후 한 단계 높게 발전한 것은 콜드웰 목사 초청 도문화관 부흥회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72년 4월 3일 창립한 순복음춘천교회는 주보 없이 20주를 보내며 성장을 해오다가 8월 13일 창립 20주가 되어서 주보 창간호를 등사판 인쇄로 내게 되었다. 창간호에 실린 교인 출석통계를 보면 새벽예배 인원(누계) 110명, 주일 낮 예배 장년 64명, 밤 예배 66명, 수요예배 6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창립 4개월 만에 60여 명의 장년 성도가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역도 4개 구역으로 편성되었으며, 1구역 김주환 전도사, 2구역 송홍식 집사, 3구역 지달건 집사, 4구역 조남혁 집사가 각각 맡아 인도하였다.

김주환 전도사는 1973년 5월 14일 교단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김 목사는 1973년 6월 25일 목사 취임식을 갖고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다. 그날 오후 5시 새 성전부지에서 새성전기공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순복음춘천교회 성전공사가 시작하면서 효자동시대를 열었다.

1976년 7월 20일 오후 4시에는 소양강변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남녀 22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는데, 본 교단에서는 약식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예식을 거행하지만 본 교회에서는 침례탕이 준비되지 않아 강변에 가서 세례예식을 베풀었다.



김주환 목사 취임 및 성전기공식 모습(1973년 6월 25일)

1972년 4개 구역이던 것이 1978년에는 15개 구역(일반구역13, 청년구역1, 남선교회구역1)으로 늘어났고 주일예배를 1·2부로 나누어 드리게 될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3. 속회(구역예배)와 집회

1) 구역예배(속회)를 통한 교육과 전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에서 행정적인 조직이 형성되고 교회에서 소그룹으로서의 모양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이래로 감리교의 속회 모임을 본받아 거의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구역예배 모임을 만들어 활용해왔다.[100]

우리나라 감리교 속회에 대한 기원은 미 북감리회와 남감리회에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1844년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 감리회 총회에서 한 달 동안 '흑인노예 해방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6월 1일 '노예폐지안'이 가결된다. 이에 반대하던 남부연회 대표들이 1845년 5월, 미 남감리교회를 별도로 조직하고 1846년 5월 제1회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미 감리회는 남북으로 분리된다. 그렇게 되어 해외 선교사업도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

1885년 북감리회 소속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속회는 북감리교회의 중요한 조직이었다. 그 실례를 상동감리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1899년 5월 12일 제15회 선교회 때 상동교회 담임자였던 윌리암 스크랜톤(W.B.Scranton)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상동교회는 낮 예배 출석인원이 평균 325명, 입교인은 205명이었고 그해 세례받은 이가 장년 65명, 유년 11명이었으며, 1900년 7월 30일 그의 보고에 의하면 '속장은 강성환, 심상완, 심완기, 장사연, 김진우, 리국현, 도명현, 전봉운, 박원식, 김권홍, 리도성'이었고 당시 상동교회에는 12명의 속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남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00) 이태일, 「소그룹으로서 구역예배 모임의 활성화 방안」,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쪽.

미 남감리교회의 경우, 한국 선교는 미 북감리교회보다 10년 늦게 윤치호의 적극적 활동으로 클라이드 리이드(C.F.Reid) 선교사가 내한하므로 시작된다. 1897년 5월 2일 주일에 리이드 선교사를 초청하여 장년 24명과 유년 3명 등 모두 27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고양읍교회를 조직하고 임원으로 유사(Stewards)와 속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남 감리교회의 첫 번째 교회조직이다. 1898년 1월 18일 수요예배 후 로버트 하디(R.A.Hardie) 선교사가 장년 13명과 유년 3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속장과 유사 등 임원을 선택하고 교회를 조직하였음을 양주삼 감독이 『조선 남감리회 30년 기념보』에서 밝힌 바도 있다. 남감리교회는 교회를 조직할 때마다 속회를 구성하고 속장을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900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두 주간 서울에서 제1회 교회임원(속장, 유사) 강습회를 열어 교회 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지적능력 함양을 꾀한다.

이 시기에 속회는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전도의 효율적인 창구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속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거점역할을 한다. 이렇게 속회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한국감리교회가 전통적 소그룹인 속회를 중요시 여겼고 교리장정에 명시하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권장하였기 때문이다.[101]

일제강점기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 감리교회는 변함없이 속회가 운영되었고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속회는 계속되었다. 한국 감리교회는 1950~60년 사이에 540여 교회에서 1,100 교회로 성장한다. 감리교연회록에 의하면, 1960년도에 3,038 속회가 조직되어 있었고 49,419명의 속도원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3월 29일 삼남선교연회로 파송된 채부리(미국명, 피니스 제프리 F. B. Jeffery) 선교사는 한국감리교회 속회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속회를 발전시키려면』이란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1972년에 『속회 가이드북』이란 제목으로, 1979년에는 『속회안내』란 책명으로 출판되었다. 또한 『감리교회와 속회』란 저서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을 통해 출판함으로써 속회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감리교회는 1974년 12차 총회에서 '5천 교회 100만 신도운동'을 결의한다. 2

101) 정영균, 『웨슬리 교회론에서 본 이머징 셀 그룹운동 분석 및 한국감리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78~80쪽 참조.

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한 이 복음화 운동은 1976년 1,700교회 40만 신도였던 감리교회를 선교 100주년이던 1985년에 3천 교회 100만 신도로 끌어 올렸다. 1990년 말 3,800교회 115만 신도로 성장한 감리교회는 1991년 7천 교회 200만 신도를 성장목표로 정한다. 복음화 운동 시기 교회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속회가 담당했다. 리챠드 윌키(R.B.Wilke)는 "한국감리교회는 생동감 있는 속회운동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고 할 정도로 이 시기에는 속회운동도 놀랍게 발전하였다.[102]

춘천우두감리교회의 경우, 1967년 속회는 모두 5개 속이었다. 1967년 12월 17일 속회 인도자를 보면 1속은 담임목사, 2속은 이원석 장로, 3속은 이선남 장로, 4속은 이종춘 권사, 5속은 배부길 권사였다. 속회에 모인 인원은 평균 8~9명 정도였다. 1968년 8월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인도자를 바꾸어 인도하도록 하였다. 속회원들이 교회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보게 하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오래 지속 되지 않았다.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속회가 늘어났다. 1970년 3속이 분속하여 1개 속이 더 생김으로 6속이 되었다. 새로 생긴 6속 인도자는 이상직 유사였다. 1971년에는 다시 2속을 증속하여 총 8개 속이 되었다.

속회 인도자는 1속 김대성 선생, 2속 이원석 장로, 3속 이선남 장로, 4속 김유만 권사, 5속 김만봉 선생, 6속 신중균 목사, 7속 박종호 선생, 8속 이종춘 권사였다. 속회는 정기적 모임 외에 전 속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합속회를 마련하여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 찬송가 외워 부르기 대회 등으로 속회의 단합을 이끌어내었다. 또 해마다 속회 정근상을 마련하여 한 해의 통계를 근거로 연초에 시상하기도 하였다.[103]

현재 장로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을 심방하고 지도하고 양육하는 등 목회적인 돌봄에 있어서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다. 구역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성경이 보여주는 모임으로써의 모델을 따라 동일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

102) 정영균, 위의 논문, 83~85쪽 참조.
103) 『우두교회 80년사』, 156쪽.

천하기를 서로 권면하며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전도사명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지상명령을 성취해 가게 된다. 그러므로 구역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배우고 행하는 조직이라고 하겠다.[104]

구역예배란 "구역 안에서 구역은 예배, 친교, 봉사, 전도, 교육을 목적으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조직된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조직이다.[105] 구역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통한 예배와 교제의 인격적인 상호양육과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역의 건강과 발전은 곧 교회의 건강과 발전이 되는 유기체적인 교회의 기관이 바로 구역이다.[106]

한국교회의 성장은 특별한 구역 조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초창기부터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구역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이 가정교회의 발전 성장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구역예배가 활성화되고 구역이 성장하는 교회는 예외 없이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다.

여기에는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있다. 구역장은 목사를 돕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목사가 교회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없는 한계를 구역장이 목사의 목회 뜻을 따라 구역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목사의 목회방향과 관심을 구석구석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목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구체적인 역할이란 구역원을 심방하는 역할, 예배를 돕는 역할, 구역 구제와 전도와 함께 구역부흥의 역할, 은사를 잘 파악하여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이다.[107]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도 구역편성과 함께 구역예배가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1교구 29구역은 춘천동부교회에서 제일 먼저 조직된 남성구역이면서 동시에 연령이 높은 소그룹이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장을 손수 봐오고 식사 후에는 노방전도를 나가는 등 다른 구역들에 모범이 되는 젊은 노인의 구역이었다.

---

104) 허기만, 『한국교회 구역예배 갱생을 위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6쪽.
105) 허기만, 위의 논문, 12쪽.
106) 권오태, 『구역예배의 전도 소그룹화를 통한 교회성장전략』, 플러신학대학원석사학위논문, 56쪽(허기만, 위의 논문 16쪽에서 재인용).
107) 허기만, 위의 논문, 17~18쪽.

이렇게 남성구역의 활성화를 목회의 중점 사역 중의 하나로 정하고 구역을 조직하고 활동하자 「아름다운 이야기」는 2004년 10월 1일에 발간된 제13호에서 '교회 발전을 위한 남성의 역할'이라는 특집을 실었다. 두 편이 실렸는데 하나는 박의범 장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윤성대 집사의 '교회발전을 위한 남성들의 자세'이다. 박의범 장로는 "21세기는 평신도들의 사역과 선교의 시대이며 이미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마지막 부분에서 '춘천동부교회 평신도사역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수평적인 '남자교우 서로 알기 캠패인'과 남성구역을 셀 그룹(cell group) 조직으로
- 각종 위원회와 제직부서, 교회학교 등 교회조직에 전문분야별 평신도의 참여 고취를 위한 교회사역과 크리스찬리더십 개발
-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독실업인회(CBMC)와 같은 전문인 조직의 결성과 확장
- 단기 선교와 선교정탐여행 등에 의료인 및 컴퓨터 전운인 등 선교활동 참여
- 청년부와 연합한 새벽을 깨우는 기도, 경배와 찬양, 영성회복프로그램의 전개
- 음악과 연극 등 공연과 기타 문화 활동 및 유치를 통한 기독교문화 확산의 주도

한편으로는 남성구역을 셀 형태의 조직으로 활성화하여 남자 교우들 간에 친밀한 교제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전문 직종을 건강한 교회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사역을 개발하고 나아가 교회의 각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남성 교우들이 될 것을 권고하는 이 제안은 춘천동부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되었으리라.[108]

이렇듯 초창기부터부터 시작된 구역예배가 시대흐름에 맞게 건전하게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신영 목사는 2005년 당시 '교회 목표와 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위한 교육은 동부교회 교육의 기본입니다. 젊은이 예배와 각급 교회학교의 예배 및 공과공부는 충성된 담당 교

108) 『동부교회70년사』, 693~694쪽.

역자와 헌신적인 교사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특별히 최근 새로 편성된 노년부로 평생교육을 완결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구역책임자 모임을 통하여 영성을 증진시킵니다. 훈련된 구역 책임자들의 봉사를 통해 매주 모이는 구역예배가 총회공과를 교재로 친밀한 교제와 신앙생활훈련을 이루어갑니다. 면면히 이어오는 전통의 화요·금요 성경공부는 이제 모든 시간대와 모든 요일을 포괄하는 장년성경공부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별히 2005년에는 구역 지도자성경공부를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 사역자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를 유치하거나. 파송·교육합니다. 또 교회음악 교육부도 음악부 산하에 새로 편성하여 전문적으로 교회음악 등 찬양대 교육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밖에 경배와 찬양팀 성경공부, 은사에 따른 1인 1봉사 훈련, 교사대학, 가정과 교육 등 각종 세미나 및 성경공부가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교우 여러분이 꼭 한 과정 이상 참여하여 말씀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109]

이 목표와 비전에 따르면 기존의 교회학교 외에 노년부를 신설하여 교회에서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구역지도자와 구역책임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 시켜 구역예배를 활성화하며, 춘천동부교회의 전통이 된 화요일과 금요일 성경공부반을 통해 전교인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역책임자(구역장, 구역교사)의 교육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구역책임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를 늘렸다. 이는 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교회가 활성화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구역예배에 참석했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는 일도 있었다. 타지에서 오는 신자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가족적인 구역예배를 통해 개인적 교제를 갖게 되면 공예배 참석이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정착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역장과 구역교사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

109) 위의 책, 704쪽.

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2005년에는 2교구에 30번째 구역으로 구역장 소금숙, 교사 이경순, 권찰 김춘혜가 섬기는 직장인 구역이 조직되었는데, 구역 내의 임원은 구역장, 교사, 권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속회는 훗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변모해갔다. 춘천중앙감리교회의 경우, 곽철영 목사가 부임할 1978년 당시 속회는 모두 35개였는데 1980년 50속으로 늘리면서 10개 속씩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장 제도를 도입, 속회 관리 및 운영을 평신도 중심으로 유도하였다. 속회는 다시 1981년 60속, 1985년 70속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60~70속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속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86년 교구와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6교구·12구역·69속회 체제를 만들었다.

2006년부터는 '속회'라는 오랜 명칭을 과감하게 '샘터'로 바꾸었다. 감리교회 신앙 전통인 속회의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계적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 '셀'(cell) 목회를 한국식으로 토착화시킨 춘천중앙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조직을 만들면서 이를 '샘터'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안디옥감리교회 역시 2007년을 시작으로 감리교회의 특색인 속회제도를 '목장' 제도로 전환했다. 속회를 목장으로, 속장을 목자로, 부속장을 준목자로, 속도원을 목원으로 이름하였다. 특히 속회를 이끌 목자를 대상으로 '목자대학'(매주 주일 밤 예배 후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 수료)을 운영하여 목자들의 신앙을 강화하는 한편, '목자세미나'를 연 2회 실시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속회를 이끌도록 하였다.

사암성결교회의 경우, 가정교회 목장사역을 지향하며 제자양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등 중요 10개 분야에 특성그룹을 만들어 각 분야 10명 이상의 핵심 일군을 길러내고 공동체 운동을 통해 초기교회 공동체성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목장사역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3기 목장사역이 시작되어 목장명에는 네팔목장, 라오스목장, 런던목장, 몽골목장, 밀알목장, 북한목장, 샬롬목장, 인도목장, 인도네시아목장, 캐나다목장, 필리핀목장 등이 있다.

제3장
춘천기독교의 부흥과 발전(1980~90)

≫

1절 한국기독교 선교100주년과 춘천지역 교회 성장

1. 1980~90년대의 정치·사회적 상황

1979년 10.26 사건으로 1970년대가 마감되었다면, 1980년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막이 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전체주의적' 통치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또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강압적 통치를 강화함으로써 인권회복과 정의 구현, 민주화를 향한 민중항쟁이 계속 이어진 1980년대였다.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88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2010년에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8.3%의 응답률을 보인 88올림픽이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안으로는 민주정권의 탄생과 밖으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맞물려 88올림픽 이후 한국 사회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었다.

88올림픽 이후 1990년대에 한국교회는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화려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축제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녹아든 축제였을까? 변화의 방향을 잃고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축제였을까?[110]

격동의 1980년대를 보낸 한국 사회는 1990년대를 맞아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을 맞았다. 1987년의 대대적인 민중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진 후 수립된 '제6공화국' 정부와 1993년 수립된 '문민정부'는 (한계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과거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층·지역간 갈등이 고조된 면이 있지만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민주주의 질서와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민주화 투쟁의 연장 선상에서 일어난 통일운동이 199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과거 정부가 독점, 주도하였던 남북대화와 교류에 다양한 사회·종교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통일운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북한 지역의 오랜 흉년과 홍수피해로 기아선상에 처한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약 50일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다. 1996년 9월 18일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이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 경찰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 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이며 민간 손실액은 2천억 원에 달했다.

이 시기 한국 기독교계는 성장과 갈등을 체험하였다. 1985년 기독교선교100주년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추세를 보였던 교세 성장추세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 현상을 보여주었고 197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신학 노선과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 내 진보 보수 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1987년 '민중 항쟁'을 거치면서 보수진영 안에서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110) 『춘천동부교회 70년사』, 2012, 443~444쪽 참조.

진보 진영에서도 현실 참여운동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영성회복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양측 사이에 신학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곤경에 처한 북한주민 돕기 운동에 진보·보수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나눔 운동'이 전개되었다.

2. 감리교와 춘천지역 교회의 성장

1) 감리교 현황

1980년대 군부통치에 대한 대학생과 노동자, 종교인과 지식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한 투옥과 희생도 컸다. 감리교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년대부터 산업선교에 참여하였던 조화순 목사와 조승혁·김동완·정명기 목사 등이 투옥되었고, 부산의 임기윤 목사는 보안사 조사를 받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기도 했다. 그 외에 감리교신학대학과 목원대학 신학생들과 교회 전도사들이 시국 사건으로 다수 투옥되었고, 김의기·김세진 등 감리교회에 출석하던 대학생들의 투신자살까지 이어져 교회와 사회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반외세'(反外勢) 통일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1980년대 사회운동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을 거치면서 많은 지식인은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비극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온 민족 분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학생 운동권에서부터 분단 극복을 향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통일운동이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나머지 과격한 반미(反美) 운동으로 변질하여 교계에서 '반선교사'(反宣教師) 운동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 강원도에 마지막 남았던 '춘천 선교부'의 쥬디 선교사 부부가 춘천을 떠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이런 1980년대 상황에서 교회는 한편으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운동에 매진하였다. 특히 1984년과 1985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기독교선교100주년'을 맞이하여 1981년경부터 서울과 지방에서 대대적인 대중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1985년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0주년기념성회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의 교인이 참석하여 1천

만 명 교세로 성장한 한국교회의 위세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 100주년기념성회를 계기로 한국은 '20세기 선교 기적'의 현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 감리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광화문에 20층짜리 본부 회관을 짓기로 하여 1986년 착공, 1991년 완공함으로써 그 저력을 과시하였다.

성장의 1980년대를 맞아 한국 감리교회도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0년대 감리교회의 성장은 1970년대 시작한 '5천 교회 1백만 신도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5천 교회 1백만 신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전도운동을 전개한 결과 교회는 목표(3,300개)의 43%인 1,400여 교회를 개척하여 '3천 교회'를 기록하게 되었고, 교인은 목표(609,000명)의 92%인 56만 명이 증가하여 '90만 신도'를 기록하게 되었다. 비록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운동 이전과 이후 교회 성장률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즉, 6.25전쟁 직후 교회가 사회 구호 기구 역할을 감당했던 1955~65년에는 교회 54%(854곳→1,313곳), 신도 126%(113,902명→257,915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경제적 안정기에 이르는 1965~1975년에 이르러 교회 25%(1,313곳→1,635곳), 신도 31%(257,915명→337,108명)로 '자연적' 증가 추세로 떨어졌다.

그러나 5천 교회 1백만 신도운동을 전개했던 1975~1985년에 이르러 교회는 85%(1,635곳→3,024곳), 신도는 180%(337,108명→944,107명)에 이르는 '폭발적'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가 이 운동 이후 1985~1995년에 교회는 45%(3,024곳→4,374곳), 신도는 37%(944,107명→1,294,330명)로 예전의 '완만한' 성장추세로 되돌아갔다.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기로 기록되는 1975~85년에 오히려 감리교회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1980년 1월 31일 소집된 특별총회에서는 연회경계를 다시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연회경계 분할전권위원회'(위원장 김지길)가 조직되어 연회 경계를 재조정한 결과 그해 3월에 ① 연회는 합동 원칙에 의하여 6개 연회로 하되 ② 각 연회는 가급적 300교회를 기준으로 하여 ③ 서울을 중심으로 4개, 대전을 중심으로 2개 연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정안은 감독회의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 열린 특별총회에서 다음 5개 연회로 조정, 분할하는 안으로 통과되었다.

서울연회 : 서울특별시 전역
중부연회 : 경기도 전역
동부연회 : 강원도, 충북 전역
남부연회 : 충남 전역
삼남연회 :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전역

1980년 확정된 춘천지방회 구역은 일제강점기 확정된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춘천지방은 지역도 넓었거니와 대부분 교회가 산악 지역에 산재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기는 196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 결과 지방교회 사정도 다른 지방에 비해 열악했다. 목회자가 두 명 이상 있는 교회는 춘천중앙교회가 유일하였고 교회 목회를 하는 교역자 45명 중에 정회원은 14명에 불과했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준회원, 서리, 일반 전도사가 23명이나 되었다.

그러다 1981년 연회에서 춘천지방이 동·서 두 지방으로 분할되었다. 그때 나뉜 춘천동·춘천서지방 소속 교회들은 다음과 같았다.

- **춘천동지방**
  동원, 석사, 성암, 양구, 신성, 춘천제일, 우두, 광장, 베델, 평화, 산천, 천전, 지내리, 가산, 북산, 신남, 혈동, 금성중앙, 정안, 방산, 청원, 해안, 만천리, 거두리, 후평중앙(25개 교회)

- **춘천서지방**
  춘천중앙, 남춘천, 서부, 남부제일, 춘일, 화천제일, 사창, 원천, 봉오리, 상서제일, 덕촌, 남산, 강촌, 후동, 신매, 덕원, 사북, 지암, 원평, 갈릴리(20개 교회)

이 시기 한국 감리교회는 제도와 환경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1980년 '다원감독제'를 도입한 후 서울·중부·동부·남부·삼남 등 5개 연회로 운영되다가 교세의 꾸준한 성장으로 1989년 10월부터 서울연회에서 서울남연회, 중부연회에서 경기연회 등 2개 연회를 더 분할하여 모두 7개 연회로 늘어났다. 한국 감리교회는 1988년부터 '7천 교회 2백만 신도운동'을 제창하여 "2000년대까지 국내 감리교회 6천 교회, 2백만 신도, 2000년대까지 국외에 500교회 지원, 300명 원주민 교역자 양성, 200명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교단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5년에 2천 9백 교회, 94만 명 신도였던 것이 1996년 4천 7백 교회, 135만 교인을 기록하게 되었다.

양적 성장을 이룩한 한국 감리교회는 다가오는 통일을 대비하여 1992년에 서부연회를 부활시켜 통일 후 북한 지역교회 재건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감리교회들을 관리할 국외선교연회를 1993년 조직하였다. 이처럼 꾸준한 성장을 이룩한 한국 감리교회는 1990년 10월 제19차 총회에서 '자치 60주년 선언'을, 1995년 8월 '세계감리교 서울희년대회선언'을 통해 복음 전도와 사회 구원, 민족통일과 세계 평화를 향한 감리교인의 책임과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격동의 1980년대를 보내고 새로운 도약의 1990년대를 맞는 역사적 전환기에 춘천중앙교회 역시 목회자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 춘천중앙교회

(1) 1980년대의 중앙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오월기도원 기공예배 후 기념(1987년 5월)

1981년 8월 시작하여 착공 8개월 만에 끝나 1982년 5월 9일 오후 2시 '쥬디기념관'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쥬디 선교사 부부는 그날 저녁예배 때 '가족 찬송'으로 중앙교회 교인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총 382평의 교육관(4층)을 건축하므로 1·2층은 유치원, 3·4층은 교실 26개를 확보하여 교회교육의 필수적인 여건을 거의 마련하게 되어 교육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마침 1982년 4월 사북면 지암리에 있던 춘성군 소유 오월연수원(대지 1,003평,

건물 82.5평)이 매물로 나옴에 따라 교회에서 연수원 매입을 위한 특별 위원(민병재·김기태·여선동·왕정걸)을 선임하고 응찰한 결과, 춘천중앙교회가 1천 4백만 원에 낙찰을 받아 기도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인수하면서 '오월기도원'이 생기자 남녀선교회원들이 자주 들어가 기도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부터 학생과 청년부 여름 행사를 기도원에서 갖기 시작했다. 1987년 10월 31일에야 건축을 마무리 짓고 11월 2일 오월기도원 봉헌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1980년대 들어서 목사관과 교육관, 기도원을 각각 건축, 혹은 개축하는 대공사들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음으로 공간과 시설 면에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과 신앙훈련에서 한층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총동원 전도운동을 추진하였다. 춘천중앙교회의 총동원 전도운동은 1980년대 들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총동원 전도운동은 매년 봄·가을로 2차 실시하였는데 곽철영 목사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운동에 나서도록 독려하였다. 즉, 1980년 상반기에 '1천 명 주일예배 참석'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한 결과, 7월 6일 맥추감사주일에 1·2부 합쳐 1,136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1981년에 들어서는 교회 안에 전도요원 연수원을 설립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임원들을 상대로 전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해 2월부터 교인들에게 '잃은 양 찾기 카드'라 하여 전도대상자를 적어 내고 전 교인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984년 2월 '안드레 운동'으로 이름을 바꾸어 교인들은 '안드레 카드'를 적어 냈으며, 총동원 전도운동은 '총동원 전도주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전도운동 붐을 일으켰다. 즉, 1984년 10월 1일부터 70일간 총동원 전도운동을 실시하여 전도대상자를 꾸준히 접촉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도록 권면하였다.

춘천지역과 한국 교계가 선교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춘천중앙교회도 총동원 전도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춘천지역 전도운동을 이끌어나갔다. 그리고 곽철영 목사는 1983년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원도지역 의장으로, 1984년 전국 시도경찰국 경목실장회 회장

으로 선출되어 초교파적으로 부흥전도와 사회선교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그 결과 춘천중앙교회는 춘천과 강원도지역 교회 성장의 실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교회가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 꾸준하게 총동원 전도운동을 추진한 결과 춘천중앙교회의 교세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다음은 1980년대 춘천중앙교회 교인 통계다.

1980년대 춘천중앙교회 교인 통계 (단위 : 연/명)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남	681	969	909	779	873	920	940	702	412
녀	926	1156	1291	1213	1214	1255	1322	1478	1768
계	1607	2125	2200	1992	2087	2145	2262	2180	2180

1970년대 말에 총 교인 1,500명 수준이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 2천 명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교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례 입교인의 숫자가 1천여 명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회 성장이 단순한 숫자상의 증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곽철영 목사는 또한 일반 교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단 본부에서 발행하는 매일성경공부와 예배 교재인 『하늘 양식』을 전 교인이 사용하도록 독려하였고, 이미 1960년대부터 실시해 온 지방회 주관 성경신학원에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1984년부터 자체적으로 성경연구반을 조직했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에 모이는 A반(반장 : 이경애)과 화요일 오전에 모이는 B반(반장 : 강정숙)으로 나누어 목회자들의 지도하에 성경을 공부하였다.

성경공부반은 1986년 2월부터 '두란노 성서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성경공부 외에 신학 기초과목을 공부하는 평신도신학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두란노 성서대학도 요일을 바꾸어 두 반으로 운영되었는데, 목요일에 모이는 '선교반'에서는 성경공부 외에 특강 형태로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들었다. 여기서는 곽철영 목사의 '내세론', 침술사인 길인배 집사의 '한방 물리치료', 최광선 권사의 '식생활 개

선과 농산물 영향' 등과 같은 강의가 교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개강좌로 열려 호응을 받았다.

1980년대는 통일운동과 민주화를 위한 시위로 그 열기가 뜨거웠던 시기였다.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등 대학이 많았던 춘천에서도 대학생 중심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춘천중앙교회에 다니던 학생, 춘천중앙교회 출신 대학생들도 시위를 주도하다 투옥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982년 6월 교회주보에 "본 교회 교우 중에 옥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윤(박태금 집사의 아들)과 송민석(고정숙 집사의 아들) 청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 부흥회는 1970년대처럼 자주 열리지 않았다. 곽철영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에서 유명 부흥강사를 초청해 단기간 집회를 열어 부흥시키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경공부와 속회 운영으로 교인들의 실력을 양성한 후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하여 꾸준하면서도 착실한 성장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봄·가을로 열었던 부흥회를 지양하고 성경공부와 속회 육성에 주력하였다.

곽철영 중앙감리교회 목사는 1981년 12월 당회에서 1982년 목회계획을 발표하는 중에 속회 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현 61속을 70속으로 확장 편성한다(1속 6가정 이상).
② 속회의 임사는 가급적 1인 1속으로 하되 권사 이상은 필수적으로 담당한다.
③ 연합 속회는 월 1회로(마지막 속회) 하고 설교는 해당 임사 중에서 한다.
④ 8월은 예년과 같이 쉬고 삼일기도회 주일 밤 예배는 각 지역의 주최로 보고 자기 지역을 소개한다.
⑤ 각 속회는 금요일 밤 특별기도회를 교회에서 실시하고 7·8월은 속회별 새벽기도회를 주관한다.
⑥ 각 속회는 식당을 순번제로 운영하되 주일 대예배 후 식당운영을 통하여 전 교우의 친교의 시간을 마련한다.
⑦ 속회는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법인을 전도 방문한다.

곽철영 목사가 부임할 1978년 당시 속회는 모두 35개였는데 1980년 50속으로

늘리면서 10개 속씩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장 제도를 도입, 속회 관리 및 운영을 평신도 중심으로 유도하였다. 속회는 다시 1981년 60속, 1985년 70속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1980년대 말까지 60~70속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속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86년 교구와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6교구·12구역·69속회 체제를 만들었다.

(2) 1990년대의 중앙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권오서 목사 취임예배(1988년 4월 3일)

1988년 3월 2일 춘천중앙교회 구역인사위원회는 정년 은퇴하는 곽철영 목사 후임으로 권오서(權五瑞, 1948년 10월 28일생) 목사를 담임자로 초빙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다. 충북 청주 출신인 권오서 목사는 청주중학교와 서울대광고등학교를 거쳐 감리교신학대학교(1975) 및 동 대학원(1978)을 졸업하고, 1978년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서울 종교교회 부목사로 4년 5개월간 봉직하였으며, 1982년 미국에 유학, 클레어몬트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 Min) 학위를 받고 1986년 귀국하여 서울 강서지방 신정중앙교회를 담임하던 중 춘천중앙교회로부터 초빙을 받았다. 이로써 권오서 목사는 광복 후 춘천중앙교회를 담임한 역대 목사 가운데 '최연소' 담임목사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광복 후 춘천중앙교회는 박내철 명관조 이정엽 김연호 고달삼 곽철영 목사로 이어지는 1950~60대 '노련한' 목회자들의 목회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제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일대 도약을 끌어낼 수 있는 '패기 있는' 젊은 목회자를 찾던 중 '39세' 나이의 권오서 목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권오서 목사는 목회 행정 전문가답게 부임해서 먼저 교회의 전반적인 목회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였다. 그는 1989년 목회계획을 발표하면서 목회를 선교와 교

육, 사회봉사, 친교, 관리, 교회 행정, 예배 등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였다.

그동안 연례적으로 추진하였던 행사와 사업을 대부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하면서 신앙 교육과 훈련,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 사회봉사와 구제 사업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주관 부서로 감리교회 법인『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선교부와 교육부, 사회봉사부와 재무부, 관리부 등 5개 부서 외에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가하여 교회 운영과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권오서 목사는 1989년 목회계획을 통해 5개 부, 21개 위원회로 운영하였다.

1990년대 들어 위원회 명칭과 기능에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90년부터 목회협조위원회를 목회위원회로, 수양관 관리위원회를 기도원 관리위원회로 바꾸었으며, 1991년에는 장애인 선교를 담당하는 특수선교위원회를 교육부에서 선교부로 이관하였고 특별회계위원회를 특별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보건후생 위원회를 재무부에서 사회봉사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1992년 교회 부설 유치원이 폐쇄되면서 유치원이사회도 폐지되었고 대신 노인대학위원회(경로대학위원회)와 대지헌금관리위원회, 선교단운영위원회가 신설되었다.

1993년부터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목회위원회 기능을 기획위원회로 넘기면서 폐지하였고, 선교부 산하에 지역 선교·국내 선교·해외 선교·한민족 선교·특수 선교·속회·새신자 관리·선교단 운영 등 8개 위원회, 교육부 산하에 교회학교·평신도교육 등 2개 위원회, 사회봉사부 산하에 사회사업·봉사·경조·보건후생·경로대학·환경 보호·장학 등 7개 위원회, 재무부 산하에 예산·특별 기금 관리·대지 헌금 관리 등 3개 위원회, 관리부 산하에 시설 관리·비품 관리·묘지 관리·기도원 관리·식당 관리 등 5개 위원회를 두었고, 특별위원회로 예배와 음악, 출판 등 3개 위원회를 두었다. 그리고 1994년 환경선교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교부 산하에 두었고, 개정된『교리와 장정』에 따라 음악부를 신설하면서 그 산하에 음악위원회와 예배위원회를 두었으며 대지 헌금 관리위원회를 특별 기금 관리위원회에 흡수시켰다.

이로써 1990년대 춘천중앙교회 목회는 6개 부, 29개 위원회로 나뉘어 추진되

었다. 권오서 목사는 이들 각 부서와 위원회 조직을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예배와 신앙 집회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권오서 목사는 교회의 4대 기능 중 처음 두 가지 기능, 즉 말씀의 선포 기능인 '케리그마'(kerygma)와 말씀 교육 기능인 '디다케'(didache)를 교회 존재와 목회의 중심 요인으로 삼았는데, 예배와 교육을 이 기능의 수행 영역으로 삼았다. 그만큼 경건한 예배와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도 전 교인이 참여하는 주일예배를 특히 강조하였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선명회주최 연합성가제에 출연한 시온성가대(1989년 11월 4일)

예배의 변화에 따라 예배를 돕는 성가대 조직과 운영에서도 약간 변화가 따랐다. 권오서 목사가 부임한 1988년 당시 성가대는 주일예배를 담당하는 시온성가대와 여선교회 회원들로 구성된 성은대, 그리고 학생성가대와 어린이성가대 등 4개 조직으로 나뉘어 주일예배와 주일 저녁, 수요일 기도회를 맡아 봉사하였다. 권오서 목사는 1989년부터 시온성가대 외에 다른 성가대에도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는데 성은대를 할렐루야성가대, 학생성가대를 호산나성가대, 어린이성가대를 가브리엘성가대로 각각 불렀다.

1990년대 들어 정규 성가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다양한 찬양 모임과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찬양과 경배단'(Praise & Worship Team)이다. 1989년 9월, 교육 담당 주활 목사의 지도로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청년, 학생들이 결성한 일종의 음악 선교단이다.

20여 명의 청년, 학생들로 조직된 찬양과 경배단은 매월 2·4주 토요일 저녁마다 청년 중심 찬양 집회를 열어 영적인 훈련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1990년 3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후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춘천시 명동에 나가 찬양을 위주로 한 노방전도를 실시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 매주 토요일 찬양



춘천중앙감리교회 찬양과 경배단 공연(1996년 10월 23일)

집회 외에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 부흥회나 각종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였고, 춘천지역 미자립교회와 군인교회 방문공연도 실시하였다. 찬양과 경배단은 1994년 1월, 주활 목사가 서울로 떠난 후 한동안 침체하였다가 1995년 10월 신요섭 목사를 지도목사, 김부열을 총무로 하여 조직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 외에 1983년부터 이경애·배수옥·조옥현·최화자·김영숙·윤경구·반영신·현덕순 등 여선교회 회원 중심으로 중창단을 조직하여 매년 2~3회 농촌 미자립교회를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폈는데 1990년부터 '실로암 중창단'이라 개칭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1994년 춘천 시내 교회 성가대원들이 초교파적인 '아멘코럴 선교합창단'을 조직하여 시내 교회를 순회하며 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춘천중앙교회 성가대원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교회학교의 신앙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권오서 목사는 춘천중앙교회 부임 직후 3년 동안 교회 표어를 '배우며 일하는 교회', '배우며 선교하는 교회', '배우며 성장하는 교회'로 정할 정도로 교육에 목회 주안점을 두었다. 올바른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선교와 사회봉사를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춘천중앙교회 교회학교의 1989년 표어를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가 되자"로 정하고 교육 방향과 지



춘천중앙감리교회 청년학생부흥회(1988년 11월 3일)

침을 여섯 분야로 나누어 밝혔다. 선교와 성서, 청소년, 교사, 가정, 생활 등 6개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1989년 만의 좌표가 아니라 1990년대 춘천중앙교회 교육 목회의 지침이 되었다.

교회학교 조직은 교회학교 교장 아래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등으로 나누었는데, 청년부만 대학생 중심의 제1청년부와 일반 직장인 중심의 제2청년부로 나누어 모두 8개 부서로 편성하였다.

1995년부터는 교회 차원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사기도 후원 모임을 시작하였다. 즉, 교인 중에서 기도 후원자 70명을 모집하여 교사 한 명당 기도 후원자 한 명씩 짝을 지어주고 교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기도 후원자는 1년에 후원회비 5천 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짝이 된 교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춘천중앙교회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 교회학교 학생 통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도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1990년대 유치부는 40~50명, 유년부는 60~70명, 초등부는 80~90명, 중등부는 70~80명, 고등부는 80~90명, 청년부는 30~40명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체 교회학교 학생 수는 400명 수준으로 1990년대를 시작한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3년 650명을 고비로 학생 수 감소와 교회 수 증가의 영향을 받아 1994년 520명, 1995년 이후 360명을 기록하여 1980년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임원 및 속회지도자 훈련(1989년 1월 29일)

속회와 평신도 신앙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속회였다. 역사가 오랜 교회인 만큼 춘천중앙교회의 속회 전통도 오랬다. 1988년 4월 권오서 목사가 부임할 당시 속회는 10구역, 59속으로 편성되어 있었는

데 1989년에 18구역 64속으로 늘어났다, 특기할 것은 1992년부터 남자 속회를 편성한 것이다. 종래 속회가 여성 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남성들의 참여가 미흡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남성 교인들도 33개 속을 직장 중심으로 편성, 지역 담당 목사가 순회하며 속회를 인도하고 남성 속회 지도자들도 월 1회 정기 모임을 할 뿐 아니라 연합 속회도 격월로 홀수 달 마지막 금요일 밤 7시에 교회에서 모였다. 교회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남성 속회'였는데 반응과 결과가 좋았다.

이후 속회는 계속 성장하여 1994년에 3지역 43구역 131속(남성 28속, 여성 103속)이 되었고, 1995년 4지역 44구역 140속(남성 31속, 여성 109속)이 되었다가 1996년부터 지역을 교구로, 구역을 지역으로 바꾸어 4교구 44지역 149속(남성 29속, 여성 120속)이 되었다. 이처럼 속회가 늘고 특히 남성, 직장속이 활기를 띠면서 속회 참석 교인 수도 늘어나 1989년 당시 420명 수준이던 것이 1996년에 이르러 960명 수준을 기록하였다. 속회는 1990년대 춘천중앙교회 교회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었다.

권오서 목사가 부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도입한 것이 '베델성서연구'이다. 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박영민 목사와 주활 목사를 서울에서 열리는 베델성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시켜 강사로 훈련받도록 한 후 1989년 3월부터 낮반(소망반) 25명, 저녁반(사랑반) 18명을 모집하여 매주 1회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철저한 출석과 과제 학습을 거쳐 1989년 12월 구약 공부를 마쳤고, 신약까지 마쳐 1990년 5월 27일 베델성서연구원장 지원상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이기남 권사와 이광철 성도가 우수상을 받았다.



춘천중앙감리교회 베델성서대학
전편1기·속편1기 졸업예배(1991년 12월 8일)

베델성서연구는 교인들의 신앙 훈련과 성숙에 좋은 자료가 되었다. 2기 교육은 1991년 9월에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새로 공부하는 전편 과정(1년 6개

월) 외에 1기 졸업생들을 위한 속편 과정(1년)을 추가로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그리고 베델 속편까지 공부를 마친 교인들을 위해 1993년 3월부터 독자적으로 '제자 훈련반'을 편성, 김진국 목사 지도로 통독과 암송을 위주로 한 집중적인 성경공부를 실시하였다.

1995년부터 제자 훈련반을 이수한 교인을 위해 '제자 훈련 사역자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을 평신도 지도자로 인정하고 교회 안의 소그룹 인도자로 활용하였다.

한편 1991년 9월부터 '다락방 성서연구 모임'을 새로 시작했다. 성경공부를 하려는 평신도들을 45세 이하(갈릴리반)와 45세 이상(안디옥반) 두 반으로 편성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경통독을 하며 공부하는 모임인데, 1993년부터는 '성서 통독반'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간도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로 바꾸어 1년 과정으로 성경을 1독하며 체계 있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성서통독반에는 새 신자뿐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가며 배우는 동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총동원주일 새신자들과 함께(1991년 10월 20일)

총동원 전도운동이 활기를 띤 1992년 2월부터 새로 등록한 신자를 위한 신앙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새가족 모임'이라 명칭을 붙이고 매주 수요일 오전과 오후, 새로 등록한 교인이 이 시간을 선택하여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새 삶 새 생명 그리고 기쁨과 평화』라는 새 가족 모임 교재를 가지고 4주간 동안 성경과 기본교리, 신앙생활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 모임에는 새 신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자원한 도우미도 함께 참석하여 공부하면서 새신자를 도왔다. 4주 기본교육을 받고 나서 주일예배 때 성대한 새신자 환영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써 1995년부터 새가족 모임, 학습세례교육, 성경통독, 베델 전편, 베델 속편, 제자 훈련반, 제자 훈련 사역자반에 이르는 7단계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자 훈련 사역자반에 이르는 7단계 성경공부 프로그램

명칭	대상	내용	기간	이수자자격
새가족모임	초신자, 이명 교인	교회와 신앙생활	4주(매주	원입인으로 등록
학습세례교육	새 가족 모임 이수자	기본 교리와 교인 의무	4주(1년 2차)	학습과 세례 받을 자격 부여
성경통독	세례 교인	신구약 성경	52주(매주 1회)	베델 전편 등록
베델 전편	성경 통독 이수자	성경공부와 바른 신앙생활	18주(매주 1회)	속회 지도자와 집사 임명에 고려
베델 속편	베델 전편 이수자	성도들의 사회생활	1년(매주 1회)	권사 임명에 고려
제자 훈련반	베델 속편 이수자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	1년(매주 1회)	신자 양육 요원 자격과 장로 임명에 고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이수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	1년(매주 1회)	소그룹 인도자로 임명

이처럼 춘천중앙교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신도 신앙교육 7단계 교육' 프로그램은 새신자를 평신도 사역자로 양육하는 데 효율적이었다. 평신도들은 자신의 신앙 수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7단계 프로그램이 완성된 1995년에는 99명이 각종 단계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96년에는 교육받는 성도가 124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 1993년 3월부터는 권오서 목사가 매 주일 아침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장로를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모임인 '장로 제자 훈련반'을 시작하였는데 20여 명의 장로가 매 주일 아침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 모습이 일반 교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 모임은 1996년부터 '전도 폭발 훈련반'으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경공부의 연장 프로그램으로 성지순례도 자주 시행하였다.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성지순례는 1990년 4월에 처음 실행하였다. 권오서 목사가 인도한 성지순례단은 이스라엘과 유럽 성지를 순회하고 돌아오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성수로 1990년 5월 27일 세례식 때 69명이 세례를 베풀어 감동을 더 했다.



성지순례단 출국 전 모습(이스라엘, 1990년 5월 5일)

이후에도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하는 성지순례를 종종 시행하여 친교와 신앙훈련을 기하였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지방회와 연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및 심방전도사 교육에도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즉, 1980년대 지방회에서 운영하던 평신도신학원이 발전하여 1993년 9월부터 동부연회에서 운영하는 3년 과정의 동부신학원 분원이 춘천중앙교회 안에 개설되었는데 권오서 목사가 동부신학원의 교수로서 교무 행정을 맡아 하였던 관계로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신학교육 참여기회가 많았다.

이처럼 1990년대 들어 춘천중앙교회의 교육 활동은 교회학교와 속회, 다단계 성경공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기를 띠었다.

3) 춘천신성교회

1980년대에 들어서 신성교회의 성장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1984년 6월 3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2부로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부흥하는 교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1부 예배는 오전 10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였다. 이런 성장 속도는 1988년 교회완공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전이 완공된 해인 1988년까지 활기차게 성장하는 신생교회의 모습을 정리하기로 한다.

신성교회는 1981년 들어 이처럼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교인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이때의 성경공부는 베델성서연구였다. 1980년부터 시작한 베델성서연구는 꾸준히 이어졌다. 베델성서연구를 통하여 교인들은 성서이해에 골격을 알게 되어 교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16·17·18·19기가 1999년부터 열심히 베델성서를 연구하였다.



신성교회 베델성서대학 21기 졸업기념(2000년)

한편 교회임원들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에 따라 각자 선교부, 재무부, 교육부, 관리부, 사회부로 배치되어 교회를 섬겼다. 여기서도 지면상 각부 부장만을 정리하였다. 관심을 끄는 것은 1984년부터 사회봉사부가 생겨 지역사회봉사에 관한 일들을 맡아보게 되었다. 또 1985년에는 성전건축위원회가 조직되어 담임목사를 도와 성전건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다.

1985년 3월 24일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성전기공예배가 있었다. 이 예배에는 동부연회감독을 대신하여 연회총무인 박문종 목사가 와서 설교하였고 1985년 10월 27일 주일예배 후 예배당 상량식 예배를 드렸다.

각 속에서 돌아가면서 인부들의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였고 필요한 때는 함께 공사를 돕기도 하였다. 건축은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걸려 1987년 2월 16일에 준공을 하였고 규모는 4백 10평이었다. 교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신적으로 물질을 봉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금액이 차입금으로 남아있어 성전을




새성전(1987년 2월 16일)과 성전봉헌, 담임목사 성역 25주년 및 장로취임 기념(1989년 10월 9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봉헌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성전봉헌은 1989년 10월에 9일 거행되었다. 뜻깊은 봉헌예배는 담임목사 성역 25주년 기념식 및 목회학 박사취득 축하예배와 현광식·정병석·김종열·박의웅·이철호 장로 취임예배를 동시에 드려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김창수 목사는 이 봉헌예배를 단순한 예배로 그치지 않고 교인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는 이날을 총력전도 주일로 선포하고 우선 북한에서 탈출한 김만철 집사를 초청해 간증을 듣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때를 맞추어 심령부흥회를 열었으며 성가대로 하여금 성전봉헌을 아름다운 성가로 장식하게 하였다.

성전봉헌을 계기로 신성교회는 부흥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앞으로 신성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에는 교회 증축 및 교육관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교인들은 이번에도 교육관과 기도원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을 힘껏 봉헌하였다.

그 결과 1992년 7월 26일 기공예배를 드리고 3개월 만에 10월 30일에 기본골조를 완공하였다. 계속해서 11월 20일에는 외벽공사를 완공하고 일주일 후인 11월 28일에는 내벽공사를 완공하여 11월 29일에는 증축예배당에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마침내 12월 10일 2층 보일러를 시공한 후 12월 13일 100평 건축을 완공하였다. 예배당 증축예배는 1993년 4월 5일에 드렸다. 그리고 김창수 목사의 춘천동지방 감리사 취임예배와 이태우·이재우·김완제·박영선·백기만·조수현·최동우 장로 취임예배를 동시에 드렸다.



예배당증축과 김창수 목사 춘천동지방 감리사 취임예배, 장로취임예배 모습(1993년 4월 5일)

이처럼 교회 성장에 다른 교회 확장이 진행되는



9남선교회 회원들이 가족과 원천기도원 대청소 후 휴식 모습 (2009년)

가운데 1996년에는 교인들의 오랜 기도 제목이던 기도원이 완공되었다. 이미 1995년 12월 박영주 전도사가 이곳의 담임전도사로 파송되어 기도원을 돌보고 있었다. 기도원의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산 29번지로 총 32,000평에 대지 802평으로 1996년 8월 15일 건물 150평 완공하여 봉헌하였다.

원천기도원은 1994년 8월 15일 강원도 화천군 원천리에서 기공예배를 드렸다. 교회 성도 중에 김태희 집사가 이 산을 헌물한 것인데, 남편이 팔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 산을 드린 것이다.

교회의 모든 재산과 시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리부에는 차량관리부를 두고 장로 한 분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1993년부터는 관리부 안에 다시 시설과 비품을 관리하는 사람과 기도원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을 선임하여 책임을 맡겼다. 또 1993년부터는 교회의 대지를 구입하고 특별사업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성교회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맡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봉사부에는 교인들의 경조사를 관리하는 상조위원회를 두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특히 교인 장례예식 때 함께 어려움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역할을 맡았다. 상조위원회는 1989년 5월 21일 발기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회칙을 통과시켰다.

한편 신성교회에서는 1994년부터 춘천효자사회복지관을 3년간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였는데, 이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에 속한 건축 및 특별현금 관리위원회는 건축이나 특별사업을 위해 교인들에게 헌금을 청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로 21세기 신성교회의 선교

를 위해 특별히 조직된 부서이었다. 이 위원회는 교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부서이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1995년 성탄예배)

한편 신성교회에서는 성전건축 후 교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해마다 교인들과 각 부서별로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야외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또 전교인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첫 번째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는 1986년 10월 19일에 부안초등학교에서 있었다. 1991년 10월 6일 전교인 야외예배 및 체육대회가 춘천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교회건축을 마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여 년 동안 신성교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인들의 증가를 살펴보면, 입교인의 경우 10년간 교인 증가 폭은 3배에 달하였고 전체 교인 역시 그 증가 폭이 비슷하였다.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던 해는 1988년(총교인 714명)에서 1989년(총교인 1002명)의 1년과 1996년(총교인 1,787명)과 1997(총교인 2000명)년 사이의 1년이다. 전자의 경우는 교회 건축 후 교인들이 열심을 내어 선교한 결과이고 후자의 경우는 김창수 목사가 감독이 된 후 그의 지도력에 대한 좋은 소문으로 선교가 촉진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새벽기도회와 속회는 약 3배 정도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 폭은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의 성장 폭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앞의 교인들의 증가 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성교회의 성장은 새벽기도회와 속회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집회인원의 남녀비율이다. 집회의 남녀비율은 주일낮 예배와 밤예배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비율 역시 선교 초기부터 한국교회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심한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모아는 교회도 많이 있다.

예산을 통해 교회성장을 살펴본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15년간의 예산증가를 보면, 신성교회의 성장을 알 수 있다. 15년 동안 예산의 증가는 무려 16배가 증가하였다. 예산의 증가는 해마다 큰 폭의 성장을 계속했으며, 특히 1980년대 말에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항목별로는 주일헌금이 7배, 십일조 14배, 감사헌금 17배, 속회헌금은 6배의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러고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십일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증가를 주도한 항목은 십일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교인들의 증가는 3배, 주일낮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1.5배의 증가에 그쳤는데 유독 예산만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십일조 헌금이 이만큼 증가하였다는 것은 교인이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해마다 우리 국민의 소득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교인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얼마나 선교에 예산이 지출되었는가를 알아보자. 전체예산 중에서 선교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부터 급속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989년이면 아름답게 교회건축을 끝내고 선교에 매진할 때였다. 이때부터 매해 전체예산의 15~20%씩 선교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 정도 비율은 다른 교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정도로 선교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신성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읽을 수 있다. 특별히 1995년 이래 신성교회는 1억이 넘는 예산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2억이 넘는 금액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였다.

가장 많은 선교비용을 사용했을 때(1997~99년)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신성교회 국내외 선교현황(1997~99)

구분	연도	교회 및 단체명	갯수·인원
미자립보조	1997년	속초 갈릴리, 영월 성은, 속초 젊은, 태백 대현·영광, 평창 두일, 삼척 용화, 부론 선곡, 홍천 길곡, 횡성 성도·옥동, 충주 천광, 춘천 가오작·거두리·남부중앙·충만·좋은·복지·서춘천·팔미리, 영월 마차, 원주 광림, 단양 남천, 강화 영생, 인천 세린, 홍성 은하, 남양주 성은, 서부연회, 만나(군부대교회)	29

구분	연도	교회 및 단체명	갯수·인원
미자립보조	1998년	속초 갈릴리, 영월 성은, 태백 대현·영광, 평창 두일, 삼척 용화, 부론 선곡, 홍천 길곡, 횡성 성도, 춘천 거두리·충만·좋은·복지·서춘천, 영월 마차, 원주 광림, 단양 남천, 인천 세린, 삼척 정상, 남양주 성은, 서부연회, 만나(군부대교회)	22
	1999년	태백 대현, 삼척 용화, 춘천 복지·서춘천·춘천·충만·좋은·반석·후평제일·선한·등대, 영월 마차, 원주 광림, 단양 남천, 홍천 두촌, 청주 저산·만나, 안산 목자, 서부연회 대화, 군선교회	20
해외선교	1997년	중국(정인서), 멕시코(고광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필리핀(안창원), 필리핀(정두해), 필리핀(신랑교회), 필리핀(생수교회)	11
	1998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필리핀(안창원)	7
	1999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필리핀(안창원)	7
선교단체	1997년	효자사회복지관, 춘천IVF, 선명회, 제자들선교회, 재활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전도협회, 지체장애인협회	6
	1998년	자사회복지관, 선명회, 제자들선교회, 재활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전도협회, J.D.M	7
	1999년	효자사회복지관,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제자들선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강원노인복지회, 어린이전도협회, J.D.M	7

위의 표에서와 같이 선교비가 많이 사용되던 당시에는 미자립교회 보조와 해외선교, 그리고 선교단체 후원 등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미자립교회에 더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실랑신성교회 기공예배 모습(1991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필리핀 선교는 1988년 필리핀의 차홍식·이춘희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신성교회 단독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였다.

신성교회를 통하여 필

리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카비테주의 실랑지역에 위치한 실랑 신성교회(Holy Faith United Methodist Church)교회이다. 이후 지방회와 교인들의 후원으로 필리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춘천동지방 남선교회가 후원하여 카비테주의 트레세 마르티레스 교회가 세워졌고 1996년에 봉헌되었다. 1997년에는 권영화 장로·김금례 권사 부부의 헌신으로 멘데즈교회(Mendez UMC)가 건축되고 1998년 최동우·김종예 장로 부부의 후원으로 생수교회가 세워졌다.

1980~90년대에 동지방에서는 독일선교회를 조직하여 14개의 후원교회와 함께 독일 선교사로 이창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독일선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 김창수 목사가 동부연회 감독이 되면서 중국선교회를 조직하여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였다. 1996~98년도에 김창수 목사가 서부연회 감독을 맡으면서 서부연회를 북한을 선교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중국 삼성(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의 조선족 교회와 북한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북한과도 교류하여 한국 감리교 목사로는 가장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조선기독교연맹으로 협약을 하고 왔다.

기타 1990년에는 인도 원주민 신학교생 1명을 지원하였고, 1994년 이후에는 인도의 박진균 선교사를 후원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정순호 선교사, 박형선 선교사, 탄자니아 송귀섭 선교사, 몽골의 김소영 선교사 등을 후원하였다.

다음은 1988년 이후 교회 임원의 수의 변화이다. 집사의 수는 전체 교인들의 증가세와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었다. 1997년 전체 교인의 수는 1988년에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집사의 수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 1997년의 집사수(462명)는 1988년 집사의 수(154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집사는 평신도 직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책으로 원래는 속장, 유사, 탁사로 교회 일을 분담하여 섬기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집사제도기 도입되면서 그 수가 많아져 집사의 수는 3배가량 증가하였으나 권사와 장로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증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집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나 권사와 장로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사는 입교인 15명당 1명, 장로의 경우는 입교인 30명당 1명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권사나 장로의 자격을 갖춘 이가 많아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권사나 장로를 선출할 수 있었다.

속회도 해마다 평균 10속이 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8년 53속

에서 1989년 65속, 1990년 80속, 1991년 91속, 1992년 101속, 1993년 101속, 1994년 105속, 1995년 113속, 1996년 120속, 1997년 120속 이런 속회의 증가세는 곧 교회성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무렵 교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비해 약간 둔화되고 있었다.

4) 춘천우두교회

1980년 5월 16일 우두교회에 부임한 김영원 목사는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부임한 그해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한얼산에 올라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왔다. 그는 선교와 섬김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목회를 했다. 그의 목회 30년을 보면 철저히 선교를 지향해왔고 또한 섬김을 실천해 왔다. 김영원 목사의 목회 방향은 우두교회 표어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부임 후 첫해인 1981년 교회 표어는 '개척하는 교회'였다. 아직 전도되지 않은 곳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였다. 처음부터 그는 선교에 온 힘을 쏟았다.

1984년 표어는 당시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계속 성장하는 교회'로 정하고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썩어져 가는 밀알이 되어 새로운 기독교를 꽃피우는 교회
② 지역사회 속에서 책임지고 새로운 각성을 선도하는 교회
③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성숙한 교회'를 표어로 정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중점을 두었고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말씀으로 나를 세워 그리스도의 붐이 되게 하고
② 기도로 능력 얻어 주신 사명 감당하고
③ 사랑으로 전도하여 복음화의 일문되자

1988년에는 전 교인에게 교회 표어를 공모하였다. 모든 교인이 교회 목표를 정

하는데 참여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였다. 교회 표어는 10자 이내로 하되 내용은 교회의 계속 성장을 담는 것으로 정하였다. 사실상 표어의 방향을 정해 준 것이다. 그 결과 홍기영 권사가 제안한 '성실한 교회'로 선정하였으며, 실천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사랑으로 화평하는 교회
② 기도로 전진하는 교회
③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1991년에는 '성도들에게 타오르게 해야 할 불꽃'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부흥의 불꽃 – 반드시 한분이 한 명씩 전도하자.
② 기도의 불꽃 – 금요기도회와 주일새벽기도회에 참여하자.
③ 축복의 불꽃 – 시간, 물질 등 모든 것의 십일조생활을 하자.

1992년에는 '전도하는 해'로 정하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와 각종 집회 시 손을 높이 들고 '전도합시다'라고 크게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녀선교회, 교회학교(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등 모든 기관이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93년 마지막 주일 주보에 의하면 집회 인원은 주일 1부예배 105명, 2부예배 327명으로 거의 500명에 이르고 있었고 주일저녁예배 178명, 수요기도회(유아원 발표회) 265명이 모였다. 또한 아동부 124명, 중고등부 121명, 청년부 19명, 장로 성경공부반 11명이 모였다.

1997년 4월 6일 주일 낮 예배와 저녁 헌신예배는 미국 타코마제일연합교회 주완식 목사가 설교하였다. 주완식 목사는 1960년대 우두교회를 섬기면서 부흥의 기틀을 만들어 놓았던 목회자로 7년 전인 1990년 우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2000년 7월 9일 1·2부 예배는 이시영 장로가 초빙되어 설교하였다. 그는 정동제일교회 장로로 유엔대사를 지낸 외교관이었다. 그해 9월 3일은 이진호 목사가 방문하여 은혜로운 설교를 하였다. 그는 6.25전쟁 이전에 우두교회를 담임하였던 이

로써 광복 후 우두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주도한 목회자였다. 반세기 전에 우두교회 신앙 선배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생생하게 전해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

그 후에도 교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많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설교나 강의를 들었다. 1987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박영문 집사를 초청하여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신앙 간증집회를 개최하여 은혜를 받았다. 1991년 1월 13일 저녁예배는 신앙성장을 위한 간증예배로 드렸으며, 부평감리교회 홍창준 원로목사의 손자인 홍성일 군과 현일군이 간증을 하였는데,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뜨겁게 섬긴 이들의 간증은 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1992년 6월 17일에는 인천 주안장로교회 전도왕 안강자 집사를 초청하여 간증을 들었고 2001년 7월 4일에는 최승환 집사 초청 전도 간증집회를 가졌다.

특히 우두교회는 세계적인 성서보급 기관인 기드온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서배포 운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기드온협회는 성서를 군인과 교도소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무료로 배포하고자 설립된 평신도 운동단체이다. 1989년부터 매년 기드온협회에서 우두교회를 방문하였으며,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매년 100~150만 원 정도)이 전달되었다. 2000년대에는 기드온협회 강원캠프 회장에 이초승 장로가 선출되어 열심히 전도하였다. 2003년 3월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성경보내기운동을 위한 순회예배를 드렸으며, 예배시 마포중앙감리교회 장로이며 성서공회 진흥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근재 장로의 사업보고를 들었다.

이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신앙과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1992년 4월 26일에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으로 부친 김용기 장로의 뒤를 이은 김범일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1997년 10월 5일 2부 대예배에는 '암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김성진 박사가 말씀해 주었다. 김성진 박사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암연구센터 주임 연구원을 거쳐 가천의과대학 암당뇨연구소장으로 재직(2011년 자랑스런 강원인에 선정, 통곡상 수상)하고 있었는데 우두교회 허순안 권사의 아들이다.

1998년 8월16일에는 인기 코미디언이던 구봉서 장로를 초청하여 간증집회를 가졌고 2000년 3월 19일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왕재 집사를 초청하여 특별건강세미나를 가졌다.

이 밖에 각종 집회로 우두교회를 찾은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3년 3월 27일 가교 연극단을 초청하여 연극(제목 : 부활)을 감상하였다. 1983년 5월 15일 저녁예배에는 일제강점기 제암리교회의 수난을 담은 영화를 관람하였다. 1991년 11월 2일에는 창동감리교회 중창단인 SING할렐루야선교단을 초청하였다. 1991년 12월 22일에는 창조과학회에서 진화론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슬라이드를 보았다. 1993년 4월 21일에는 성극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요'를 공연하였다. 1996년 8월 11일 저녁에는 홍순관 집사를 초청하여 정신대 할머니 돕기 '대지의 눈물' 콘서트를 열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취업을 빌미로 끌려가 일제의 군 위안부로 온갖 치욕의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로 당시 160명의 할머니가 생존하고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였다.

1999년 1월 24일 저녁에는 기독남성합창단 초청 찬양예배를 드렸고 같은 해 12월 12일 저녁예배는 문금숙 집사가 단장으로 섬기는 YWCA합창단을 초청하여 찬양예배를 드렸다. 2000년 5월 14일에는 전용대 권사가 단장으로 섬기는 믿음선교단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믿음선교단의 공연은 '찬양 간증과 성극이 공연되는 선교 페스티벌'이었다. 믿음선교단은 기독교인 탤런트 가수 연극배우 영화배우 복음송 가수로 구성된 선교단이었다. 2000년 7월 9일에는 에이멘복음선교팀 초청찬양예배를 드렸다.

5) 춘천석사교회

신앙 부흥, 경제 부흥전도 부흥을 목표로 교인들이 온 힘을 다하자 석사교회는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것이다.

먼저 교인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79년도 한 해 동안에 교인 200여 명이 더 증가하여 1천 명의 교인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1980년에는 72명의 교인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교인 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자 1981년 석사교회 교인들은 경제부흥, 심령부흥, 성령부흥, 가정부흥을 목표로 천 명의 교인 확보를 위하여 전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인이 된 입교인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였다. 『당회록』을 통해 당회의 회원인 입교인의 수를 알아보면 1981년에 270명, 1983년에 348명, 1984년에 376명, 1985년에 396명, 1986년에 410명, 1987년에 463명, 1988년

에 492명 1989년에는 522명이다. 해마다 입교인수만 해도 20~30명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계속되었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예배와 교육활동이 강화되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부흥회를 해마다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최일호·최재석 목사(1979년), 신성철(1980년), 장광영 목사(1982년 1월 18~23일), 김명수 전도사(1982년 11월 10~12일), 공성주 목사(1983년 3월 28일~4월 1일), 이만길 목사(1984년 3월3일~?), 이삭순 목사(1984년 10월 15일~?), 변춘구 목사(1985년 2월 25~28일), 전가화 목사(1986년 3월 2일), 피종진 목사(1986년 3월 10~14일), 조찬선 목사(1986년 9월 22~26일), 채재관 목사(1987년 4월 20~24일), 이민구 목사(1988년 3월 14~18일), 바기스 목사(1988년 9월 11일), 권혁구 목사(1989년 2월 27일~3월 2일) 등을 초청하여 부흥회를 가졌다.

성경공부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81년에는 교재를 프린트하여 성경공부를 시행하였고 1983년부터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베델성서연구 프로그램을 석사교회에서도 실시하였다. 교인들도 열심히 참석하여 1984년에 베델성서대학 1회 졸업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 1974년부터 한국교회에 보급된 베델성서연구는 성서의 부분적인 연구가 아니라 성서 전체의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매주 2시간 반 정도의 교육을 2년간 계속하는 성서연구 프로그램이다. 1986년 6월 29일부터는 베델성서연구 속편 과정도 개설되어 진행하였다. 화요성경공부도 1986년 2월 1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김희문 전도사와 허준영 전도사도 부임하여 교회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석사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기반은 무엇보다 임택창 담임목사에게 있었다. 석사교회에 부임한 지 10년을 지나면서 그는 석사교회 교인들에게 적절한 영의 양식을 제때 잘 공급하였고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은 거리를 상관 않고 찾아가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심방목회를 하였다. 자동차가 없던 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강릉에까지 심방을 갈 정도였다.

그리고 임택창 목사는 지역사회와 대외적인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였다.



춘천석사감리교회 부활주일 마치고 임택창 목사
(가운데)와 함께 기념(1985년)

1984년에는 유인(YOUIN)대학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6년 11월에는 춘천동 지방 감리사로 피선되어 지역의 교회를 돌보며 관리하였다. 1988년에는 88시민 복음화대회의 대회장을 맡았고 1989년부터는 춘천기독교방송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 기독교춘천방송국을 설립해냈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춘천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양적·질적인 성장으로 석사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임원들을 선택했다. 먼저 장로 수를 보면 1979년에 4명(이영일, 김항수, 김유석, 이학규)이었던 것이 홍기표(1981), 이무식(1982), 황용하(1984), 김수길·김문수(1988)가 새로 선임되어 1989년에는 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학규 장로는 1981년 춘천지방 장로연합회 회장, 1989년 춘천평신도연합선교회 초대 회장, 한국교육자선교회 부회장 및 한국교육자선교회 춘천지역 회장으로 선임되어 석사교회의 명성을 떨쳤다.

권사 수도 10년 동안 3배 넘게 늘어났다. 1979년의 12명에서 1980년 2명, 1981년 3명, 1982년 6명, 1984년 4명, 1985년 3명, 1986년 2명, 1987년 5명, 1988년 5명, 1989년 4명이 추가되어 1989년에는 모두 33명의 권사와 7명의 원로권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집사 수는 4배 이상 늘어났다. 1979년 48명에서 1980년 29명, 1981년 14명, 1982년 27명, 1984년 155명, 1985년 19명, 1986년 35명, 1987년 18명, 1988년 20명, 1989년에 45명이 새로 선임되어 1989년에 모두 220명의 집사와 4명의 원로집사, 2명의 명예집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교인이 늘어나면서 속회 조직에도 변화가 왔다. 1981년에 오늘과 같은 몇 개의

속회를 하나로 묶어 교구장의 관할 아래에 두는 교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81년에는 4개의 교구로 나누고 1교구장에 최종희 권사, 2교구장에 현복희 권사, 3교구장에 박순매 권사, 4교구장에 김춘희 권사를 선임하였다. 속회는 계속 발전하여 1986년에는 12교구 51개 속회로 확대되었다.

어린이집(원감 : 신영숙 집사)도 개설되어 1982년 5월 정식으로 인가된 유치원으로 발전하였고 1983년 2월 27일부터는 어린아이를 안고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해 '영아교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장학금도 지급하여 석사교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1983년 2월의 경우, 신학생(4명) 및 중고등학생(3명), 대학생(2명) 등 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구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83년 3월 황일진·이준천에게 백미를 전달하였고, 5월에는 최부금 가정, 이중철 가정, 춘성군 양로원에 지원하였다. 1980년의 경우에는 소년체전에 성금 10,000원을 보낸 것, YMCA에서 주관하는 장의차 구입에 협조한 것(10~30만 원), YMCA 신용협동조합에 개인 단위로 가입(50원 단위)한 것, 감리교신학대학 확장 모금 운동과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운동(1982년 9월)에 협조한 것과 쥬디 여사를 초청하여 월 2회 찬송가 연습을 한 것 등이 특별하게 눈에 띈다. 그리고 1981년도 달력을 청년부에서 200부 제작하여 배부하는 일도 있었다.

석사교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어려운 형편의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계속하였다. 1982년 10월에는 거두리교회 부지 및 건물 매입자금으로 70만 원을 보조하였고 다시 1988년에도 거두리교회를 건축하는 데 50만 원을 보조하였다. 1983년 9월에는 상걸리기도원을 개설하고 김희문 전도사와 이충자 권사가 집회를 인도하였다. 그 후 상걸리교회로 발전하여 허준영 전도사가 인도하였으나 군입대로 강성애 집사가 인도하였다. 1985년 9월부터는 상걸리교회 담임자 안세원 전도사의 봉급 일부를 보조키로 했다. 1984년 8월에는 군견부대 예배당 헌당예배를 위해 오르간 1대를 구입 기증하였다.

남선교회는 1980년 말에 처음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남선교회는 1978년 11월에 속개된 13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법제화되어 공식화되었다. 남선교회는 이전까지 교회학교 안에 남녀 평신도들이 '장년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것을 기구 개편과 함께 새로 활동하게 된 교회 내 기관이다.

남선교회가 벌인 활동을 보면 수련회, 회원 가정 심방 등의 자체 활동과 헌신예배, 가족찬송가 경연대회,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지원, 교우들의 경조사 위로와 축하 및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재해원 지원 등이다. 1987년 12월 6일에는 청장년회(기드온·디모데청장년회)를 흡수하여 남선교회를 제1남선교회, 제2남선교회, 제3남선교회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여선교회는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여 그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활동하였다. 장년여선교회와 청장년여선교회로 나뉘어 활동하던 여선교회는 다시 1982년부터 그 조직을 확대하였다. 곧 회원들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할렐루야·임마누엘·벧엘·호산나·술람미로 더 세분화한 것이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것은 여선교회의 활성화와 회원들 간의 유대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여선교회는 회비 및 성미를 정성껏 모아 교회 내외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 봉사하였다. 그 활동을 보면 야외예배, 건강관리 강좌 등의 특별집회, 윷놀이, 심방, 전도, 수련회 등과 교회의 비품 마련, 경로잔치, 효도관광, 안식관 방문 등이다.

1985년 부모님 주일부터 시작한 경로잔치는 음식과 선물, 꽃을 마련하여 교회의 어른들을 접대한 프로그램이다. 1987년부터는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모시고 야외로 나가는 효도관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여선교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5년 제6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선수촌에서 6일간 연인원 100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여 활동하는 여선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9년에는 교회 방석과 교회 층의 비품 피아노 및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했다. 1980년에는 장년여선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마련하여 증정했으며, 1985년에도 성가대 가운 100벌(하복 50벌, 동복 50별)을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여선교회 성가대도 조직되어 여선교회 헌신예배 등을 통해 헌신하였으며, 계삭회 등의 지방적인 활동과 전국연합회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0년대는 석사교회의 발전을 준비한 시기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예배당 건축이란 과제가 있었고 1991년부터 새로 조직된 춘천남지방회를 이끄는 교회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석사교회 교인 모두는 온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였다.

교회건축이 시작된 1996년부터는 석사교회 목회의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되

어 교인들이 큰 비전을 갖고 따르도록 했다. 그 장기적인 목표(5개년)는 ① 교인 5,000명 ② 교회 3개처 개척 ③ 해외 선교 2개 ④ 교회 성전건축 완성(건평 1,000명 이상) ⑤ 세계 선교 10개국 등 다섯 가지였다.

석사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임원들도 선임되었다. 장로 수를 보면 1990년에 9명(이영일·김항수·김유석·이학규·홍기표·이무식·황용하·김수길·김문수)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2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992년에 최정규·이영규 장로가 1993년에 제갈재웅·홍성운 장로가, 1994년에 박무일·이용규 장로가, 1996년에 박병구·황정섭·이동화 장로가, 1997년에 이청 장로가, 1999년에 김철수 장로가 각각 새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박흥도 장로와 신상룡 장로는 1995년에 이명해 왔으며, 길준환 장로는 1999년부터 협동장로로 시무하게 되었다.

교세가 늘어남에 따라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인물들도 계속해서 충원되었다. 권사 수의 변동을 보면 1990년의 34명에서 1999년의 72명으로, 집사 수의 경우는 1990년의 225명에서 1999년의 384명으로 늘어났다. 입교인수는 1990년 498명에서 1999년에 9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999년 말에는 교인 수가 1,878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성경공부는 '웨슬리성서대학' 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1994년 3월부터 시작되어 2년 과정을 마치고 1996년 4월 14일 주일에 졸업식을 가진 웨슬리성서대학에는 '베델반'과 '웨슬리반'이란 두 과정이 있었고 다시 베델반에는 화요일 10시에 모이는 주간반과 수요예배 후에 모이는 야간반이 있었다. 웨슬리반은 주일 저녁예배 후에 강의를 가졌다.

그 후에는 웨슬리성서대학 청지기반을 운영하여 교회학교와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혹은 속회의 임사와 속장을 대상으로 성경공부과정을 열었다. 교회의 일문으로 봉사할 사람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 등록한 사람을 위한 새 가정 성경공부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석사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이란 굳건한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부흥회를 통한 영적인 힘의 공급과 성경공부를 통한 굳건한 기반 다지기로 교인 수가 늘어났고 그 결과 속회도 크게 확장되었다. 1981년 도입된 교구 제도의 기본 형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1990년에는 12교구 55속으로 시작하였다. 1993년에

14교구로 1995년에 16교구로 확대되었다가 1996년부터 15교구로 85속으로 확정되었다.

1996년부터는 성가대의 조직을 확대하고 그 이름을 새롭게 하였다. 본 성가대는 할렐루야성가대로, 여선교회 성가대는 임마누엘성가대로, 학생성가대는 가브리엘성가대로, 어린이성가대는 사무엘(어린양)성가대로, 남성성가대는 다윗성가대로, 빛으로 찬양단은 다니엘 찬양단으로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게 되었다. 빛으로 찬양단은 1992년 3월 8일 주일 저녁 예배에서 발표회를 함으로써 창단되었다. 처음 이름은 찬양선교단' 이었으며, 1·2청년부와 고등부 회원 9명으로 구성되어 찬양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특히 중요한 찬양활동은 1993년 12월 11일 토요일에 개최된 제1회 군복음성가경연대회다. 이 대회는 빛으로 찬양단이 활동한 지 2년 만에 맺게 된 수고의 결실이었다. 1부는 빛으로 찬양단이 인도하는 '다함께 찬양을', 2부는 이정명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 3부는 김혜경과 손동욱의 사회로 군인복음성가경연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에 성실교회, 선진교회, 금성교회, 임마누엘교회, 천봉교회 등 군인교회가 참가하였고 고등부의 찬조 출연도 있었다. 석사교회 음악부가 주관하고 빛으로 찬양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1996년부터 '군복음화 찬양(선교)대회'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까지 오랫동안 석사교회의 대표적인 대외 선교활동으로 평가받았다.



춘천석사감리교회 군복음화찬양선교대회 모습(1996년)

6) 남춘천교회(현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1980년대를 맞아 감리교회가 중점적으로 펼치는 '5천교회 100만 신도운동'에 부응하는 목회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음을 교회표어를 통해 알 수 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의 교회표어를 보면, 1984년에 '배우며 일하는 교회' 또 3년 (1985~1988) 동안은 계속하여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놓고 교

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각 부서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교회에서는 교육과 영성훈련이라는 두 방향으로 교회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적인 면으로는 베델성서대학과 성경암송대회 등을 개최하고 영성훈련으로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령부흥회와 임원수련회 그리고 각 부서별(청년과 중고등부)로 기도원에서 영성수련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가 갈수록 장년부의 집회인원이 1월보다 12월 말에 연평균 28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교회학교의 집회인원은 연평균 9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8년도 수요 집회인원 20여 명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1984년에 새벽예배의 집회인원이 30·40명이었으나 1988년에는 132명으로 해가 거듭되면서 새벽기도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1990년도에 내놓은 표어는 「기도·전도·헌신 열에 불타는 교회」였다. 그리고 이 같은 교회로 발돋움하고자 매년의 표어도 정하였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와 전도와 헌신 열이 불타는 교회를 갈망하는 표어를 매년 제시하고 교인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계획하였다. 기도하는 교인들로 무장시키고자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 그리고 매년 초에는 온 교인들이 참석하는 기도원집회 등을 강조했다. 또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움시키고자 전도폭발 세미나와 축호전도대회 그리고 전도여행, 총동원 전도주일 등을 실시하였다. 또 헌신 열에 불타는 교인으로 자라 가기 위하여 제자훈련과 각종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교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헌신할 '4대 특공대'(기도·전도·양육·심방)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성장하였다. 새로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가 매년 평균 220.6명이 늘어갔고 감리교회가 자랑으로 여기는 '속회'조직이 1989년도에 28개의 속회였으나 1993년에 63개 속회로 늘었다. 가정수도 1989년도에 211가정이었으나 1993년에는 368가정으로 증가하였다. 여선교회도 1993년도에 8개였으나 1년 후에는 10개 여선교회로 늘어났다.


유진형 목사

한편, 1989년 5월 14일에 부임한 유진형 목사

는 대전 태생으로 대전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 후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에 단양지방 가곡교회를 개척하다가 제천지방 금성교회에 파송을 받았다. 1978년부터 육군군목으로 활동하다가 1981년에 군복무를 마쳤다. 그 후 춘천동지방 춘천제일교회 부담임자로, 1982년부터 1987년까지는 금란교회 부담임자로 재임하였다. 1987년부터 춘천서지방 은광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989년에 안디옥교회에 부임하였다.

교회는 1990년대에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전도에 총력을 기울였다. 1990년 3월에 목회자 자신이 '전도폭발 세미나'(사랑의 교회)에 참석하여 전도의 실천자로 앞장서고 2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며, 예수전도협회의 협조하에 '축호전도대회'도 실시하였다. 이어서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 몸으로 전도하는 '군산전도여행'(10월 1~3일) 행사와 이슬비 전도학교도 운영하였다. 또 매주 온 교인들이 참석하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에는 교인들로 하여금 영혼구원(교회성장)에 참여할 4대 특공대(기도특공대, 전도특공대, 양육특공대, 심방특공대)를 조직하고 운영함으로 교회 부흥(영혼구원)에 활력소가 되었다. 특히 교회에서는 담임자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교과과정(새신자양육학교 교재)으로 '양육특공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교육을 마친 이들로 하여금 새로 등록한 교인들을 일정기간 교육(교육교재로)하게 하고 이들을 일반속회로 배속시켰다.

교회의 속회는 ① 교인들의 교육훈련장(성경연구와 예배, 중보기도, 전도, 교회사업 위해 헌금)이고 ②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친교 도모)이며, ③ 교회의 봉사활동(생활개선, 속회활동을 위한 헌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 교인들의 신앙훈련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받으며, 생활 개선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감리교인이라면 속회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훈련장이고 교회부흥을 위한 훈련장이기도 하다.

이에 교회는 1991년에 속회의 활성화(가정심방 등)를 위하여 속회를 확대 편성(28속에서 45속으로)하고, 교구제를 택하여 2교구(1교구 : 김경순 권사, 2교구 : 김화자 권사)로 나누었다. 아울러 속회를 이끄는 속장과 부속장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또 속회부흥을 위하여 속회 성적에 따라 시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해 속회를 통해 성경읽기와 전도와 교회사업을 위한 헌금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시상을 매년 말에 실시하였다. 이로써 속회부흥을 통해 교회부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안디옥교회도 각 회(청년부, 청장년부, 남선교회, 여선교회)의 조직을 통해 교회 부흥을 이루어갔다. 즉 교회는 해가 거듭되면서 각 회의 조직이 증가되었다. 곧 이들의 활동이 교회부흥의 터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춘천안디옥교회가 1953년에 첫 여선교회(회장 이정희 소장)를 조직한 이래 1990년에 5개 여선교회로 늘어났다. 또 1996년에는 생년월일에 따라 14개 여선교회로 조직하였다. 청장년회는 1975년에 조직(회장 이효진)된 이래 1996년까지 한 개의 조직에 머무른 것은 청장년회 회원이 남선교회로 소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1983년에 조직(회장 최승철)된 남선교회는 1996년에 5개 남선교회로 조직을 하였다. 특히 청년회는 언제 조직이 되었는지를 확인키 어려우나 1973년 당회에서 이효진 회장이 청년회장으로 승인을 받았다. 청년회는 한때 청년부와 대학부로 나누어 활동하였으나 1996년 하나로 활동을 하고 있다.

3. 장로교회와 춘천지역 교회의 발전

1) 장로교회의 현황

1992년에 춘천시찰이 2개로 분립되었다. 강원노회 안에는 5개의 시찰이 있었다. 춘천시찰, 원주시찰, 영월시찰, 정선시찰 그리고 양인시찰이 그것이다. 당시 각 시찰별로 몇 교회가 있었는지 1991년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원주제일교회에서 열린 제77회 노회의 '시찰별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노회 시찰 교회 현황(1991)

사찰	춘천시찰	원주시찰	영월시찰	정선시찰	양인시철
교회수	23	19	11	9	10

* 『춘천동부교회 70년사』, 515쪽.

춘천시찰이 다른 시찰에 비해 교회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춘천시찰을

분립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1991년 11월 21일에 원주제일교회에서 모인 제1차 임원회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여기서 "춘천시찰분립안은 4월 노회 시에 보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유감스럽게도 1992년 4월 23~24일까지 서화중앙교회에서 모인 제78회 노회에 '춘천시찰 분립'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 사항도 없었다.

그런데 1992년 5월 1일자 춘천동부교회 당회록에 "춘천시찰 분립안을 가을노회 시 보고해야 하며"라는 당회장 보고가 나왔다. 이로 미루어 보아 4월 노회까지 시찰 분립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보고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4월 노회가 끝난 이후 춘천시찰에서는 구체적인 분립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실은 1992년 10월 3~15일까지 춘천성광교회에서 열린 제79회 노회에 제출한 '춘천시찰 분립보고'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귀하

제78회 4월 노회 시에 분립보고 하기로 한 춘천시찰분립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분립시찰명 : ① 춘천시찰 ② 춘천남시찰

2 분립소속교회

① 춘천시찰 : 춘천동부, 영광, 중도, 신북, 금산, 천전, 서상, 월송, 방동, 화천읍, 가척, 한기림(12교회)

② 춘천남시찰 : 춘천성광, 한빛, 평강, 신촌, 동산, 도리소, 은평, 좌운, 유치리, 화방, 산돌, 홍천중앙(12교회)

춘천시찰은 노회의 결의대로 위와 같이 분립하였으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4월 노회에서 보고해야 했지만 분립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10월 노회에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91년의 10월 노회와 비교해 한기림교회가 더 첨가되어 24개의 교회가 되었다. 한기림교회는 1992년 4월 노회에서 설립 허락을 받았으며, 설립자는 이영기 전도사였다. 장소는 1992년 5월 1일자 춘천동부교회 『당회록』에 의하면 '후평동 4단지 아파트 앞'인데, 정확하게는 후평동 807-9번지였다.

이 분립안에 대해 노회가 어떻게 결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노회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10월 30일자 춘천동부교회 당회록에 "정기 노회에서 춘천시찰 분

립을 허락하여 지난 10월 26일 본교회에서 분립예배를 드렸음"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10월 25일자 주보에도 "춘천시찰 분립예배 : 26일(월) 오전 11시 본당에서"라는 광고가 나왔다. 이로 미루어보아 10월 노회에서 허락을 받았으며, 26일에 분립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춘천시찰과 춘천남시찰로의 분립이 완성되었다. 시찰회 분립 후 첫 춘천시찰회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춘천동부교회 예배당에서 있었다.

노회적으로 또 하나의 큰일이 1993년 4월 노회에서 결정된다. 바로 '강원노회 창립주년기념준비위원회'의 결성이 그것이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임신영 목사가, 서기로는 함기초 장로가, 위원으로는 김용상·김광국·김용남·엄충용·심현준 목사와 함기초·전재관·박영휘·이현택·이제균·김진헌 장로가 임명되었다. 그런데 엄밀히 계산하면 강원노회가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는 1994년이다. 1954년 5월 25일 원주중앙교회에서 창립노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년을 40주년으로 지키는 것은 1972년 4월 18일에 강원노회와 강동노회가 통합하기로 하고 내건 2가지 '통합조건'들 중 첫 번째가 "노회연혁은 강동노회 연혁으로 하고"이기 때문이다. 강동노회는 1953년 8월 11일에 장성중앙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따라서 1993년 가을노회를 창립 40주년으로 지키는 것이다

강원노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는 1993년 10월 12일에 춘천동부교회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 제81회 노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직전 노회장인 엄충용 목사가 사회를 본 기념예배는 춘천동부교회의 성가대 찬양이 있고 나서 증경총회장인 방지일 목사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으로 '기억하며 살자'는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강원노회 창립 공로 및 근속자 80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춘천동부교회에서는 김영애, 유명숙, 신봉순, 박경화, 최남순, 원봉희 은퇴권사와 정난현 안수집사가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은퇴한 구연창 장로와 정기화·고영자 은퇴권사와 허영희·장욕주·김진광 시무권사와 박정희 집사가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교사로서 권오창·박상만 장로와


방지일 목사

김옥화 권사가 그리고 성가대원으로서 장애종·김옥화·김선진 권사가 근속표창을 받았다.

1954년 5월에 노회를 창립할 때 회원은 목사가 방효정(춘천제일). 김유찬(춘천동부), 림춘성(원주중앙). 황현익(공근). 홍정은(원주읍), 장규환·림정묵(성광). 차광훈(군목) 등 8명이었고 장로가 김능기(춘천제일). 원창규(춘천동부). 최준경(성광). 노리회(원주중앙). 이신학(원주읍) 등이었다. 여기에 성광교회의 오길훈 전도사와 내평교회의 김동성 전도사가 전도사로 시취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한 강원노회는 40주년이 되는 1993년 10월 노회의 보고에 의하면 교회 수가 춘천시찰이 13개, 춘천남시찰이 11개, 원주시찰이 19개, 영월시찰이 11개, 정선시찰이 8개, 양인시찰이 10개로 총 72개소이며, 목사가 51명, 전도사가 45명, 장로가 92명이었다. 실로 엄청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강원노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노회 차원의 기념예배는 1993년 10월 12일에 춘천동부교회에서 드렸지만 각 교회에서 드리는 강원노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은 1994년 4월 17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기념주일 설교는 공통 설교문을 작성하여 동일하게 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인 임신영 목사가 설교문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4월 1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원주 KBS홀에서 기념 성가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춘천동부교회는 합창과 기악 부분에 참가하였다.

강원노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큰 행사는 기념교회 설립이었다. 준비위원회에서 기념교회의 설립을 계획하였지만 교회의 설립은 노회 전도부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준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교회에서 1994년 4월 17일 주일을 기념주일로 드리며 기념교회 건립을 위한 헌금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였다. 반면에 노회 전도부는 1994년 2월 18일에 기념교회를 세울 후보지로 횡성을 답사하였으며, 기념교회를 세울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횡성군 횡성읍 읍상 1리 347번지에 횡성영락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념교회의 창립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초대 목회자는 신현준 목사로 정하였다. 춘천동부교회는 이 기념교회를 위해 앰프 및 마이크 시스템 설치를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강원노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끝나자 기념준비위원회는 1995년 4

월 노회에서 해산되었다. 이로써 위원장이던 임신영 목사도 짐을 하나 덜게 되고 교회가 당면한 성장 및 예배당 건축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2) 춘천동부장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춘천동부장로교회는 1981년부터 예배 출석 인원이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1년 7월 첫 주까지만 출석 인원수를 기록한 것은 그 이후부터 주일찬양예배 참석자도 함께 계수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생략하였기 때문이다. 급성장한 예배출석자는 1982년 5월 이후로 다시 줄어든 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 1984년에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잠시 주춤했던 것은 아마도 1982년 5월 9일자 주보부터 나오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한 현금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교회가 성장을 위해 어떤 일을 했기에 200명이나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을까? 황태주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에 목회의 전력을 기울였다.

1979년 3월 18일자 주보를 보면 "내가 전도할 분을 1명 이상 결정하시고 교회 오실 때 1집 이상 들려오는 운동을 하십시다"는 광고가 나온다. '한 집 들러오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도가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각 기관별로 개인전도와 축호전도 등의 전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전도운동도 벌일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촉구는 좀 더 구체화되어 교회 전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도계획을 세웠다.

> ① 전도부에서는 금년 성장목표를 출석교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장년 500명, 중등부 100명, 고등부 100명, 유초등부 150명, 청년대학부 각각 50명.
> ※ 각 기관에서는 각자 전도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② 한 집 들려오기 운동 : 교회 오실 때 꼭 한 집 이상 들러오기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성수주일 및 저녁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손길용 목사가 시무할 때부터 내건 장년 500명'을 다시금 각성시키며, 나아가

학생부와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와 대학부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총 950명의 교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집 들려오기 운동'과 성수주일과 저녁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회 올 때 '한 집 들려오기 운동'은 새로운 것으로 4월 15일자 주보에는 어떤 집을 들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처음 나온 자와 결석한 자와 전도대상자의 집이 교회에 오기 전에 들려야 하는 집들이다. 이 '한 집 들려오기 운동'은 성경의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의 심정과 관련시키며 그런 마음으로 한 집씩 들려올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회는 전도를 더욱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소위 '전도 카드'를 도입하는데, 이 전도 카드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전도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하는 것이다.

전도를 통한 교회의 성장은 1980년에 들어서도 교회의 중요한 화두였다. 3월 23일 자 주보에 보면 '5대 신앙운동'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역 단위 매주일 총동원 운동
② 매주 한 사람 데려오기 운동 및 한 집 들려오기 운동
③ 주일저녁, 수요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운동
④ 책임전도운동
⑤ 기도운동 전개

'5대 신앙운동'이지만 실은 전도를 통한 교회성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회는 부흥회를 계획하였다. 4월 28일에 모인 당회에서 황태주 목사는 "5월 17~19일까지 단기전도부흥회를 하되 인도자는 육군본부 군목(이정순 목사)을 초빙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 부흥회의 주제는 '천당이 있습니다'였다.

1980년 5월 17일은 토요일이었다. 따라서 부흥회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주일예배도 부흥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날을 교회는 총동원주일로 지켰다. 5월 11일 주일에 행한 축호 및 노방전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실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계획되었다.

① 유초등부 육림극장→중앙시장→명동 일대
② 중등부 후평아파트 중심한 일대
③ 고등부 중앙로로터리를 중심한 일대
④ 대학부 삼천리, 온의동 일대(1구역과 합류)
⑤ 청년부 남춘천 일대
⑥ 각 구역은 구역장, 권찰 인도로 자기구역 전도

그리고 5월 18일 총동원주일 당일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결정되었다. ① 가족이 총동원하십시다. ② 구역성도가 총동원하십시다. ③ 1명이 1명 이상 모시고 오십시다.

세 번째 요청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7일 오후에는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전도의 대상을 찾아 모두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1명 데리고 오는 사람은 '파랑리본', 2명 데리고 오는 사람은 '노랑리본', 3명 데리고 오는 사람은 '빨강리본'을 달아주어 차별성을 두기로 하였다.

이렇게 준비하여 부흥회와 함께 진행된 총동원주일에 얼마나 많은 신도들이 참석했을까? 5월 25일에 열린 당회에서 총동원주일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전도부가 보고하였다. 실제로 5월 18일 주일예배 참석자는 810명이었다. 이전의 주일 평균 참석자에 비해 약 두 배 정도가 많은 수임을 알 수 있다.

5월의 부흥회를 참석자 수와 관련해 성공적으로 치른 교회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김승광 목사와 현신애 권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하기로 하고 '24시간 연속기도'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준비기도회'를 하며 부흥회를 준비하였다. 심지어 교회의 교패를 전도할 집에 책임지고 붙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 부흥회에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집회를 하던 현신애 권사가 오기 때문이었다. 당회는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0월 26일의 모임에서 "이번 부흥회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자를 많이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신유집회로 자리매김하고 온 교인들이 총력을 다해 준비한 부흥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모습을 11월 23일에 모인 당회에서 "은혜 중 무사히 부흥회를 마치고 집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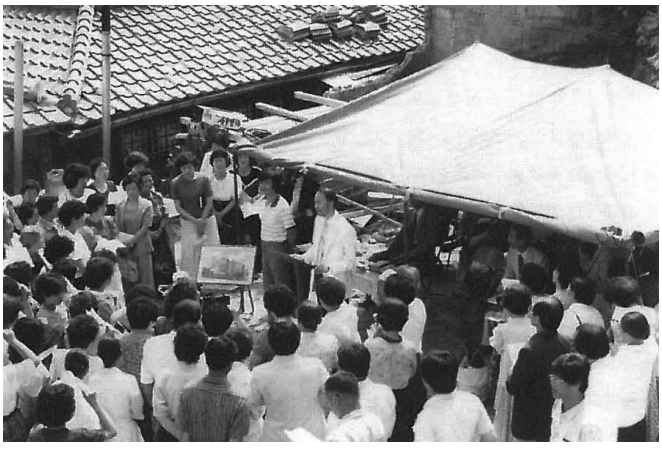
원도 교회 창립이래 최고로 많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며" 매일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전도부가 보고하였다. 실제로 11월 19일 수요일 저녁기도회 참석자 수는 1,260명이었다. 이것은 주일예배 참석자의 증가로 결실을 맺는다. 주일예배 참석자가 10월 첫 주에 500명을 넘겼는데 11월 셋째 주부터는 600명을 넘게 되었다. 교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교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981년은 직장 및 학원선교회 조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학교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춘천농고 교장이던 이영우 집사가, 총무에 교육위 장학사이던 장애종 집사가, 선교부장에 강원중학교 선생이던 이원직 집사가 선출되고 그 외 학교책임자가 선임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선교회'가 조직되어 회장에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이던 임안기 집사가, 부회장에 한원택 집사가, 총무에 농협에서 일하던 윤화숙 집사가, 선교부장에 길향미, 친교부장에 장경애가 선출되었다. '도청선교회'도 조직되었는데 회장에 주기훈, 부회장에 이선미, 총무에 윤주철, 친교부장에 원미향이 선출되었다.

1984년도에 교회는 다시금 성장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교회목표를 '확장하는 동부교회'로 정하고 1명이 1명 이상씩 전도하며 구역별로 세 가정 이상씩 전도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도에 집중한 것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 2월 둘째 주에 661명이 출석한 이후 700명이 넘나들 정도로 성장하였다.

1984년 5월 24일에 황태주 목사는 서울 희성교회로 떠났다.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은 1984년 11월 20일 전덕열 목사가 부임하연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사역이었다. 1985년의 교회목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정하고 무엇보다 '성전건축'을 함께 공시한 것은 그의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황태주 목사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건축위원회의 재편성과 함께 1985년 5월에는 예배당 건축 허가가 나왔다. 건축허가가 나오자 예배당 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6월 2일에 모인 당회에서는 성전건축(토목공사) 기공예배를 6월 19일 드리기로 결정하였다. 19일 오전 8시에 기공예배를 드림으로 300명 규모의 공사를 시작한 교회는 6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성전 기초식 예배를 드렸다. 국남건축사무소 소장 이국남이 설계를 하였고 종합개발 대표 박원식이 시공자가 되어 시작한 예배당 건축은 대지 1,246


춘천동부장로교회 기공예배 모습(1985년 6월 19일)

㎡ 위 지상 1층에 380,000㎡, 2층에 435,11㎡, 3층에 178,86㎡로 총면적이 993,97㎡에 달하는 3층 건물이었다.

전덕열 목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였는지 6월 16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이날 학개서 1장 1~6절과 에베소서 4장 11~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전건축과 신앙생활의 축복'이리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배당은 "교회의 선교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성전건축의 원리'로 4가지를 들다.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건축 원리에 입각해 '성전건축의 정신'을 또한 4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최대의 정성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므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니 전교인의 책임적인 참여로', '구원의 등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이다.

예배를 교육관으로 옮기는 불편이 있었지만 예배당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9월 중순에는 벽돌 쌓기가 진행되었다. 10월 말에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11월 중순에 입당을 계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새 예배당 입당예배가 12월 22일 주일에 거행되었다.


완공된 예배당(우)과 붉은벽돌예배당(좌)

교회는 예배당 입당을 축하하기 위해 그림과 조각

과 서예 등 미술 전시회를 새 예배당에서 갖기로 하고 참여 신청을 받았다. 이 전시회는 입당 일인 12월 22일 오후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입당을 축하하는 미술전인 동시에 이웃돕기 전시회를 겸하였으며, 출품자는 강원고등학교의 미술 선생이던 허재구 선생이었다.

이렇게 새 예배당 건축으로 분주하고 불편했던 1985년은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1986년 2월에 대지 377평, 건평 295평에 대한 등기 완료를 마쳐 명실공히 모든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전덕열 목사는 춘천에 부임하면서부터 1983년부터 조직되어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고 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춘천인권선교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미 농민선교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며 남긴 1982년의 좌담회 내용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의 농민운동과 사회운동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춘천동부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를 위임목사로 모시는 것에 장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러한 성향에는 당시 춘천동부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의 위임목사 투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을 기능성이 높다. 무기한 연기된 전덕열 목사의 위임목사 투표는 그가 춘천동부교회에 있는 동안 실시되지 않는다. 1985년 4월 16~18일까지 열렸던 제64회 노회에도, 1986년 4월 15~17일까지 모였던 제66회 노회에도 그는 임시목사로 청원된다. 결국 전덕열 목사는 1986년 6월 19일에 교회를 사임하기까지 위임목사가 되지 못하였다.

전덕열 목사를 이어 부임한 임신영 목사는 갈보리교회를 사임하고 1986년 7월 8일 춘천으로 이사를 하고 7월 13일부터 예배를 인도하였다. 임신영 목사는 1987년도의 교회표어로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교회'로 정하고 춘천동부교회의 교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이웃을 향해 교회적인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앎과 실천이 조회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드러낸 첫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공부반 개설이었다. 목요성경반은 2월 5일 목요일에 개강을 하였다. 1단계가 끝나자 요일을 화요일로 바꾸어 5월 12일부터 화요성경반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세

번째 화요성경반 모임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 1일에 새로 개강을 하였다. 반면에 청년성경반은 같은 요일에 계속하였다.

임신영 목사는 특별성경공부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예배 때에 성서강해를 하였는데, 1986년 7월 16일에 시작한 출애굽기 강해가 1987년 9월 2일에 끝나자 9월 16일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였다. 이렇듯 임신영 목사는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춘천동부교회는 임신영 목사가 부임한 뒤 교회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그의 목회철학은 1988년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88년의 교회표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1987년에 비해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희년을 준비하는 해'라는 세부 표어를 첨가한 것이다.

50주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는 1987년에 시작되었고 50주년 행사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이 15가지로 확정되는데 대외적인 것이 다섯 가지이며 대내적인 10가지로 확정되었다. 먼저 대외사업 및 행사로는 교회개척 설립 및 후원, 해외선교사 파송 및 후원, 불우이웃돕기(소년소녀가장 가정 후원), 농촌봉사대 파송, 미자립 농촌교회 후원(동산교회) 등이고 대내사업 및 행사로는 교회역사편찬, 성전부속건물 확장 및 수리, 도색공사, 예배당 헌당식, 창립기념예배 및 임직식, 어린이 초청잔치(유치·유년부), 학생선교대회(중고등부), 대학청년 신학강좌(대학부, 청년부), 선교를 위한 신앙강좌(남·녀선교회), 성가대 연합수련회 및 기념음악회, 기념부흥성회 등이다.

1989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춘성 연합성회'가 개최되었다. 신현균 목사를 강사로 모신 이 집회는 기독교방송설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었는데, 춘천동부교회는 8월 13일 주일부터 한 달 동안이나 주보에 공고하며 참여를 독려하였다.

1990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운동을 벌였다. 2월 4일 주일을 '방송선교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다. 임신영 목사는 전도서 3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설교하였다. 춘천 기독교방송을 설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둔 설교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헌금시간에는 별도로 '방송선교헌금'을

하였는데 “정성된 헌금을 바랍니다”라는 광고 사항으로 비추어 볼 때 기독교방송국 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89년부터 매년 열리게 된 ‘춘천기독교방송설립을 위한 연합대성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가 1990년에는 8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춘천동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 10월 11일 저녁에 ‘춘천기독교방송국 설립을 위한 연합예배’가 시청광장에서 있었다. 춘천동부교회는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당일 저녁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11일자 주보에도 찬양예배 순서를 생략하고 연합예배를 그대로 실었다. 이 연합예배에서 춘천동부교회의 성가대가 찬양순서를 맡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독교방송국 설립에 참여하던 춘천동부교회는 1994년 9월에 춘천기독교방송국이 설립허가를 받아 방송국과 송신소 건물 및 송신탑을 지을 때 교회건축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앞장서서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3) 춘천제일교회와 신북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의 춘천제일교회는 1978년 10월 16일 현 낙원동 46-5에 새성전 건축하기로 하고 성전건축위원회 조직하고, 건축헌금 작정하였다(제1차). 1979년 교회창립 40주년 기념예배 드렸다. 1983년 7월에 박희남 목사를 담임·위임하였다(제10대). 1984년 5월에는 이순훈, 황병호 장로 장립하였고, 성전건축헌금을 작정하였다(2차). 1985년 4월 22일 성전건축 기공예배(낙원동 46-5번지)를 드렸는데, 현 위치 780평 규모였다. 1986년 4월 20일 성전건축 헌금을 작정하였다(3차). 1987년 8월 27일 박경환 목사가 부임하였다(11대). 그 후 1988년 4월 24일 성전건축 헌금을 작정하였다(4차).

교회 선교활동을 위하여 1989년 6월 11일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1989년 8월 24일 성전건축 헌금을 작정하였다(5차). 1989년 11월 16일 새 성전 입당(지하 1층, 지상 3층 780평 규모의 전통적 고딕 교회 건물)하였다. 1989년 12월 10일 교회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50년 교회역사 사진전시회, 장기근속 성도 축하 기념패 증정).

그 후 1989년 12월 19일 선교위원회 후원국 확장(13개국), 1991년 4월 24일 베델성경대학 개교하여 성도들의 성경 교육을 시작하였고, 1993년 10월 7일 평신

도 성경학교를 개교하여 성도들의 성경지식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

1993년 10월 30일 새성전 헌당 및 임직 은퇴예배(손종억 장로 장립) 드렸고, 1994년 5월 22일 교회창립 55주년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가졌으며, 1996년 7월 25일 박상호 목사가 부임(12대)하였다. 1999년 5월 7일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원로장로 추대(원로장로 이창룡, 장로장립 전은풍, 심상우, 김향수, 장로취임 박동섭, 이순훈)가 있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신북교회는 박우만 목사 사임(1972년 4월 2일)과 이종국 강도사를 거쳐 군목으로 예편한 김은일 목사의 부임(1973년 6월 1일, 1977년 3월 25일 위임)으로 신북교회는 안정적인 복음사역의 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백승욱, 민경천 장로 장립과 초대 김갑순, 길수희 권사의 취임(1980년 9월 4일)은 교회의 성장과 규모를 가늠케 하는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항존 직분자들의 순전한 헌신과 충성이 향후 교회 성장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김은일 목사는 24년(1997년 11월 8일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동안 신북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지역사회 속의 신북교회를 지향하며 김익보 장로(1997년 11월 8일 원로장로 추대)를 비롯한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친숙한 교회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8년 1월 11일에 김지한 목사가 부임(2002년 9월 22일 사임)하고 그 해 10월 24일에 박광장, 백춘길 장로가 임직하여 신북교회 당회는 신구세대를 아우르며 교회신축이 필요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4. 성결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성결교 현황

1980~90년대 성결교 현황은 기성에서 개척된 교회는 사암중앙교회(현, 사암교회, 1989년 1월 3일), 원통중앙성결교회(창립 60주년 기념교회 성전봉헌예배, 1994년 9월 29일), 멕시코 아드미라블레교회 건축봉헌(1998년 11월 7일), 이천제일성결교회(교단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 및 건축, 2008년 9월 2일) 등이다.

한편, 1984년 4월 30일~5월 2일 예성 제63차 총회가 서울 충신교회에서 개

최되어 지방회 재조직 및 분할을 하게 되어 신북교회는 총회 직할지방회에서 서울지방회로 속하게 된다(1985년 5월 3일~1988년 3월 21일). 1980~90년대 예성 개척교회는 호반교회(이근택, 1986년 9월 6일), 춘천교회(김창섭, 1986년 11월 29일, 설립예배는 6월 1일), 효자동교회(김익환 목사, 현 평성교회(서규환 목사), 1986년 12월), 푸른교회(고영일 목사, 1987년), 베델교회(김상철)가 설립되었다. 1988년 67회 총회에서 강원도의 예성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방회가 세워졌다. 1988년 7월 7일 강원지방회 창립예배가 갈멜산기도원에서 개최되어 회장 장한석 목사, 부회장 박덕규 목사·류호근 장로, 서기 황영기 목사, 부서기 김익환 목사, 회계 박준섭 목사가 선출되었다. 1988년 10월에는 춘천교회(이영규 목사, 서규환 목사)가 설립되면서 춘천에서의 예성의 터를 닦았다.

2) 춘천중앙성결교회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로 거듭나는 교회

1980년대의 교회 청사진을 세우고 그에 걸맞은 웅장한 성전건축을 계획하던 교회는 1977년 1월 정기 사무총회에서 교회신축을 결의하고, 그해 10월 30일 회집된 정기 당회에서 건축위원회 임원(건축위원장 송경봉 장로, 총무겸 회계 허종구 장로, 서기 김죽선 장로, 이하 위원은 여타의 당회원과 각 기관의 대표)을 선임하고 1978년 1월부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건축헌금은 1978년 1월 15일 정기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실행에 들어갔다. 결의 내용은 "1980년대 교회신축을 위한 헌금 약정 및 은행 예치는 다음 1월 29일까지 광고하여 각자 약정한 액수를 모아 몇 사람씩 조를 조직하여 적금을 불입하기로 하되 은행지정은 목사님에게 일임하여 다음 정기 당회시까지 결정 발표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온 교회가 각자의 신앙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건축헌금을 약정하였고, 1978년 2월부터 은행에 적금을 불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건축위원장과 총무, 그리고 윤철중 목사가 함께 의논한 바, 시중은행에 불입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회사에 불입할 것이냐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며 상의한 결과, 만일 보험회사에 적금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는 이자는 물론이고 불입

된 원금도 온전하게 환불받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시중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980년까지 3년 동안 일사천리격으로 아주 순조롭게 새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고 실제적인 건축공사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임원(건축위원장 허종구 장로, 총무 지종구 집사, 서기 김태인 집사)을 개선하였다.

새로 선임된 건축위원들 특히 건축위원장 허종구 장로와 지종구 장로(1983년 11월 15일 장로 장립)는 건축 공사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개인의 사업은 전폐하고 오로지 교회일에 전심전력한 결과 1981년 4월 13일에 착공하여 1982년 7월 11일 주일에 감격적으로 본당에 입당하게 되었으니, 춘천중앙교회의 역사에 이들의 헌신이 기초석과 같이 자리를 잡았다.

1981년 4월 춘천시로부터 교회건축 허가를 받아 13일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착공을 시작하였는데, 교회의 모든 기물은 효자동 소재 김제영 집사의 소유 압맥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임시 예배처로는 중앙로 YMCA 건물을 사용하였으며, 주일예배는 낮에는 장년만 3부로 예배를 드리고 각 기관은 YMCA 유치원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교회 구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대공사 앞에서 감격스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온갖 힘을 다하여 지어진 성전을 불과 14년 만에 철거하게 되자 아쉬운 마음으로 미련을 갖는 교인들도 많았다. 교회신축 당시 교세를 보면, 교역자는 2명(목사 1명, 전도사 1명) 이었고 장로 7명에 권사 15명, 그리고 남녀 집사가 187명, 세례교인은 452명이었으며, 교회재정은 70,700,000원의 예산이었다.

1981년 7월부터는 신축건물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9월 14일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부흥집회를 개최하여 건축공사로 피곤해진 심령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역사하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건축 중인 데도 교회에 회집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1980년도에는 세례교인이 443명이었으나, 1981년도에는 4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982년도에는 다시 519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실을 윤철중 목사는 그의 대학원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공사 기간 중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내 명동 3구역의 모(某)집사로부터 심방을 요청받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본인의 장례비용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을 자기는 헌당예배 때까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성전건축 헌금으로


완공된 성전(1983년 11월 15일 봉헌)

드리니 장례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치러 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모든 교인에게 알리고 함께 큰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자신의 성전건축에 대한 관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성전건축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 성전건축에 있어서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특히 김제영 집사는 성전 골조 공사가 끝나고 내 외벽 벽돌을 쌓아야 할 때 붉은 벽돌 17만 장을 바쳤고 198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982년 7월 11일 주일에 감격적인 본당 입당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의 강대상과 의자 일체(천백만원 소요)를 김제영 집사가 자녀들 삼 남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홍귀자 집사가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모든 시설을 부족함 없이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종구 장로의 특별헌금으로 강단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당 입당에 이르기까지에는 고사리 같은 어린 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려 봉사, 충성함이 있었으며, 그 열매로 춘천교회는 명실공히 당시 강원도에서 최고가는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1983년 11월 15일(화) 춘천교회는 1천여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성전봉헌 및 목사위임, 장로장립, 권사취임예배를 드림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다. 아울러 봉헌예배에는 목사위임, 장로장립, 권사취임 등의 순서가 있었는데, 이날 위임받은 윤철중 목사는 춘천교회 부임 7년 7개월 만에 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고 웅장한 새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받은 위임이라 더욱 뜻이 깊었고 장립을 받은 장로들은 남궁수명, 김해곤, 지종구, 김태인, 김경수, 최선규 등이었으며, 권사로 취임한 집사들은 최어분, 김채옥, 김규봉, 김갑칠, 오제희,

김상희, 류순옥, 차임순 등으로, 이들 역시 성전건축에 남달리 공이 많았던 인물들이었다.

성전건축이 완공되기 직전인 1983년 1월 2일 제38차 『사무총회록』을 보면, 춘천교회는 약사리 언덕 위에 웅장한 교회를 높이 세우고 교역자 4명(목사 1, 전도사 2, 명예 전도사 1), 장로 13명(시무장로 12, 협동장로 1), 권사 21명, 집사 253명(명예집사 2, 남집사 53, 여집사 198) 등 301명과 직원 35명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1984년 12월 31일에 소집된 당회에서는 교회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교회'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로 개명키로 하고 제40차 사무총회 시 의결키로 하였는데, 1985년 1월 6일 개최된 제40차 사무총회에서 교회 명칭을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 사무총회록에 기록된 교회 명칭의 변경사유를 보면, "① 교회 위치가 춘천시 중앙에 있기에 ② 중앙은 센터(Center)인데 지역 복음화의 센터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같은 해 2월 25·26일 양일간 회집된 강원 서지방 회의록 중에서 전도부 결의안 보고 내용을 보면 "춘천교회 당회장 윤철중 목사가 청원한 교회 명칭 변경 청원서 건은(춘천교회→춘천중앙교회)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이로써 춘천교회가 춘천중앙교회로 변경되어 명실공히 지역복음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춘천중앙성결교회 헌당예배 및 윤철중 목사 위임, 장로장립 : 남궁수명 김해곤 지종구 김태인 김경수 최선규 권사취임 최어분 차경순 류순옥 김채옥 오재희(1983년 11월 15일)


춘천중앙성결교회 명예장로(김한복) 추대, 장로장립(엄창화 차형렬 이태집) 및 권사취임(변차순 노금선, 1985년 7월 3일)

이리하여 춘천교회는 새로운 춘천중앙(中央)교회로 새로운 옷을 입고 거듭 태어났다. 1980년도에 들어와 많은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거듭거듭 성장하던 교회는 1984년 10월 21일에 정규희, 홍인옥, 구본영의 권사 취임과 1985년 7월 3일 교회 창립일을 맞아 1974년 7월 3일 장로 장립을 받았던 김한복 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와 엄창화, 차형렬, 이태집의 장로 장립, 그리고 변차순, 노금선의 권사 취임예배도 드렸는데, 이로써 교회는 그동안 지난 51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귀한 두 번째 명예장로 추대의 경사와 더욱 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보강함으로써 '해마다 부흥되는 교회'(합 3:2)로 손색없이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1986년도 제41차 사무총회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교세를 보면, 세례교인 759명(남 227, 여 532), 학습교인 288명(남 109, 여 179), 구도인 1,471명(남 428, 여 1,043), 중고등부 127명(남 57, 여 70), 유초등부 313명(남 160, 여 153) 등으로 춘천중앙교회의 전 가족은 2,958명으로 3천 명의 교인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2) 위원회 조직을 통한 성장

1987년에 들어와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교회의 사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국내의 농어촌 교회 선교비 지원과 국내외 미개척 지역에 교회 설립을 추진하되, 우선 1988년도에 춘천시 외곽 지역에 1개 교회를 신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교 헌금을 조성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교회원을 모집하고 매월 선교회비를 납부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또 교회 내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조직하여 1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키로 하되, 선교위원회와 같이 장학위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내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각 위원회는 고유한 사업을 진행해 나갔는데, 우선 선교위원회에서는 1987년도에 농어촌 15개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비를 지원했고, 1988년도에는 20개 교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춘천 근교 사암리에 학곡리 구역을 분할하여 사암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담임교역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였고, 이어 1989년도에는 25개 국내교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총회 선교국을 통하여 해외선교비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장학위원회에서는 1987년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 5~8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후 1억 원 기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신·불신자간에 누구든지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되 특히 신학생 양성을 위하여 주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위원장 : 수석 부목사, 위원 : 각 교육기관 부장 및 총무)에서는 새신자에게 새신자 통신교육 엽서를 발송하고『새신자훈련총서』(침례회출판사)를 이용, 새신자들을 교육하였을 뿐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중 희망자에 한해서 네비게이토 교재를 이용, 제자훈련 과정을 열고, 구역장, 강사 및 제직들을 대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청지기 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로 교회의 직원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다. 아울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봉사부를 통해 구제 활동 및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학교 등록금 전액을 전달하고 3가정에 매월 2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특히 연중 절기에는 교회 내의 구제보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구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3) 사암중앙교회 개척과 60주년

1988년도 표어를 "예수사랑 교회사랑"(요 21 : 15)으로 정한 춘천 중앙교회는 그 실천사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춘천군 동면 사암리에 1개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월 3일 첫 주일에 개척예배를 드리고 사암중앙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에서는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는 정성으로 다 같이 이 일에 참여하였다. 1988년 9월 11일 교회주보의 광고란에 "다음 주일에 신개척하는

사암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액은 일천만원입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다."라는 광고가 나와 있는데, 강원대 교수인 송융남 집사와 부인 심경자 집사가 교단에 기증한 대지 230평 위에 조립식 건물 15평과 사택 12평 화장실 3칸을 건축하고 교회는 기름보일러로 난방 시설을 완벽하게 완비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초에 공사를 마무리지었는데, 당시 교회주보에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암중앙교회 건축공사는 어제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헌금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암중앙교회는 1991년 3대 담임교역자(1대 이광국 전도사, 2대 손성삼 전도사)로 최예석 전도사가 부임하여 2년 6개월 동안 알찬 성장을 계속하여 집사 12명을 포함한 50명의 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5년도 교회 표어를 '예수님처럼, 초대교인처럼'으로 정하고 최예석 전도사는 오직 사랑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먹인다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회의 제자화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4년 7월 1일(금)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창립 60주년을 기념식을 겸한 5명의 장로장립과 21명의 권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부총회장 장자천 목사(인천 송현교회)와 춘천중앙교회 출신의 증경 총회장 홍순우 목사(장충단교회) 등 강원도 인근 지역 목회자, 장로 100여 명과 이상용 강원도지사와 춘천교회 개척자인 김의용 목사, 2대 김규호 목사의 자손들과 3대 김관수 목사(청량리교회) 등 내외빈 50여 명,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약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춘천중앙성결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1994년 6월 25일)

기념식은 기념예배, 임직식, 축하 및 폐회식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교단 증경총회장으로 춘천중앙교회 출신 교역자 1호 장자(長子)인 홍순우 목사가 축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한다.

나의 고향 강원도 춘천, 나의 모교회인 춘천중앙교회의 회갑을 맞이해서 이런 거창한 축제를 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다. 그 동안 내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하는 등 많은 특권을 누린 것은 모두 생각해 보면 춘천중앙교회와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다. 나의 출생지가 옥산포의 위도인데 어린 시절 고생을 많이 했다. 게다가 6.25가 일어나 대구로 피난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아들만 우글우글했다. 그때 나의 운명은 처절했다. 꿈도 컸고 이상도 컸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다.

철저하게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신덕기 집사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춘천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장을 맡으라고 해서 교장을 맡고 열심히 봉사했다. 1년 뒤 김규호 목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권면하시어 부산에 있는 피난신학교에 입학했다.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이윤만 집사님과 이봉혜, 전영순 권사님과 함께 소양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춘천교회는 내 운명을 바꾸어놓은 교회였다. 내가 지금 받는 모든 은혜가 다 이 교회를 나온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춘천중앙교회는 나의 은인이요 목사 만들어 준 고마운 교회임을 피력하고 싶다. 나는 시집간 딸의 친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춘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모 교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이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나도 잘 되는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사를 대신한다.

라고 하였다.

3) 기타교회

소양교회는 1979년 이기성 목사가 성전건축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이정익 목사가 1980년에 완공하였다. 1987년 이원호 목사가 부임한 이래 지역 내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원호 목사의 부임 이후, 김선일 목사가 새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선일 담

임목사는 신앙의 내실화에 힘썼으며, 춘천시목회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강원 CBS 이사와 목회자 대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사역하였다.

1996년 11월 3일 소양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소양제일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소양성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온 이주호 목사를 담임으로 12가정을 파송 받아 퇴계타운 401호에서 분립개척 감사예배를 드렸다. 개척 2년 후인 1998년 12월 20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후 날로 부흥하여 2010년 8월 15일 이근택 목사 외 22명을 파송하여 바울교회를 분립·개척하기에 이른다. 또한 1991년 9월 14일 100대대 횃불교회를 봉헌했다.

1997년 3월 22일 변춘자 전도사를 중심으로 '장애인 주말학교'를 개교하였다. 초기엔 작은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20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춘천시로부터 정식으로 지원을 받는 부서가 되었다. 뇌수종으로 첫아들을 잃은 이원호 목사는 장애인 사역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은 변춘자 전도사를 만나면서 실현되었다. 1997년 변 전도사가 장애인 토요학교를 열겠다고 했을 때 이 목사는 당회실을 바로 비워줬고, 그때부터 장애인 토요학교가 시작된 것이다.

새춘천교회는 1986년에 부임한 신재원 목사가 1991년부터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초기부터 서울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는 칼넷(CAL NET)의 강원지역 책임을 맡아 춘천과 강원도의 많은 목회 후배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각처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철저한 말씀훈련과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업으로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두 곳과 중국의 한 곳에 교회건축을 후원하였고, 선교사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5. 침례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침례교 현황

1951년 8월 강원도의 최초 침례교회인 단구침례교회에 한국 목사로는 처음으로 윤덕흥 목사가 부임하였으며, 1952년 침례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남침례회 소속 오관호 선교사가 원주에 상주하면서 강원도지역 침례교 확장의 기치를 올리

게 되었다.

1952년 원주교회, 1953 흥업교회 등을 세웠으며, 1953년부터 춘천지역 선교에 손을 뻗쳐 춘천, 옥산포, 샘밭, 북방, 양구 등지에 침례교회를 세워 침례교 복음 확장을 점차 넓혀갔다. 6.25전쟁 후라 민생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따라 침례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최대 교파인 미남침례회의 소속 침례교인 군목과 미국교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오관호 선교사는 지역교회 선교를 돕기 위해 교회 건축지원, 목회자 생활비지원, 목회자 도서지원 및 복음영화상영을 지원하여 강원도 침례교 복음의 초석을 놓았으며, 제2대 선교사로 하다윗 선교사가 1964년부터 원주에 상주하면서 영동권에 복음전파를 확장하여 강릉, 초당(1958), 동해, 삼척(1959), 태백(1963)으로 확산하여 1963년 당시 30개 교회로 증가하였다.

하다윗(David Howle) 선교사는 강원도 전 지역을 강원도지방회로 구역을 하나로 묶어 목회 정보와 목회자 친교 및 목회자 교육에 관심을 가져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였으며, 1970년 교회 확장 운동과 빌리그래엄 목사의 여의도광장 100만 집회와 카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 때 침례교 예배참석 등으로 침례교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소외되었던 군소 교단에서 탈피하여 급성장하는 교단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침례교의 이상과 주장이 현대 사회구조와 그 인식에 맞아 민주적 교회체제, 성경권위, 정교분리, 개교회주의가 개교회 부흥에 자율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지역사회 봉사와 특수선교를 위해 군경선교회 춘천센터가 춘천 육군 제102보충대 내에 상주하여 2군단 산하 군복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 2차에 걸쳐 멸공종교강연을 위문과 함께하고 있으며, 침례병원(부산 소재) 의료팀이 농어촌 및 탄광촌을 무료진료하여 복음전도에 측면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의 120개 교회는 하나된 힘으로 강원도의 복음화운동을 위해 강원협의회를 조직하여 협동과 협력으로 매년 마다 세미나와 운동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타 교단에 비해 강원도 복음이 뒤늦게 들어왔지만, 불타는 사명감으로 복음의 가지가 무섭게 뻗어가고 있으며, 통일을 바라보며 북쪽의 침례교 뿌리가 움터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날을 기도하면서 강원도지역의 침례교회들은 주어진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고 있다.[111]

1980~90년대에 춘천에 개척된 침례교에는 사랑의교회(1989년 7월 17일), 이웃의교회(현 반석교회, 나순규·박광복 전도사, 1985년 3월 1일), 강원교회(장길준 목사, 1986년 7월 29일). 춘천한마음교회(1990년 8월 20일)가 있다.

2) 춘천지역 침례교회

춘천교회는 1980년 12월 14일 황영찬 목사가 5대 목회자 부임하여 1989년 1월 24일 낙원동 대지매각하고, 춘천시 후평동 711-38 외 3필지 294평을 교회 부지로 구입해서 1989년 3월 22일 예배당 기공예배 및 착공(연건평 520평)하여 1994년 8월 27일에 기독교한국침례교 유지재단에 등기하고, 1995년 4월 5일 성전봉헌 및 집사안수(박석경, 김종남, 홍영길)를 했다.

옥산포교회는 8대 담임목회자로 정상교 목사가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여 1984년 1월 29일에 남전도회를 조직하고, 청년회 월간회지 『옥산지』를 창간하여 1991년 12월까지 7년 10개월 발간하였다. 1986년 1월 26일 '이웃의 교회'를 지교회로 세우고, 1987년 8월 24일 샘밭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다. 1980년 12월 17일 춘천교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였다.


옥산포침례교회 모습

이어 엄일용 목사 부임하였다가 다음 해에 사임하고, 7월 15일에 김석철 목사가 10대 목회자로 부임하여, 1989년 8월 10일 연면적 378.62㎡의 성전신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1991년 5월 4일 성전 봉헌예배 및 문관창 이형근 이택규 안수집사를 세웠다.

111) 『강원도사』(1995), 95~96쪽.

1991년 1월 25일 학생회 문학의 밤을 개최하고, 1994년 10월 5~7일 춘천 한미전도대회 참석하고, 춘천경찰서 경목으로 섬겼다. 교회 종탑을 세우고, 옥산포마을 노인들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 등 활발한 목회활동을 하다 사임했다. 1994년 11월 9일 11대 담임목회자로 유인배 목사가 부임하여, 1997년 푸른초장교회(정덕현 목사)개척 후원금 천만원 지원하고, 1998년 10월 9일에 문경식 선교사를 몽골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정착금 천만원을 지원했다.



샘밭침례교회 모습

샘밭교회는 1983년 채병숙 목사가 부임하여 1987년 7월 사임하고, 8월 20일 정상교 목사가 부임하여 2008년 7월 31일까지 사역하였다. 1997년 11월 19일 교회 90평, 사택 25평 건축 준공 및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다. 1999년 12월 18일 이광호, 이성우 집사 안수를 했다.

남춘천교회는 1978년 6월 11일 송관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장길준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82년 10월 17일 장길준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이백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85년 5월 26일 이백수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정덕영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95년 10월 29일 정덕영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최현묵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96년 7월 21일 현 위치에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1997년 1월 21일 3층 구조물 연건평 216평을 완공하고 입당예배를 드리다가 2006년 4월 23일 성전봉헌예배를 드렸다.

춘천한마음교회는 1990년 8월 20일에 창립된 기독교한국침례회 한마음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마태복음 28:19~20). 한마음교회의 모든 사역과 훈련은



우사를 개조한 예배당의 춘천한마음교회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을 양육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한마음교회의 제자 양육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신앙간증훈련, 공동체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음교회 주일학교에서 장년부까지 작은교회(Cell Church)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이다.

춘천한마음교회의 담임목사는 김성로 목사이다. 김성로 목사가 중학교 교사였던 시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986년에 강원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대학생 6명을 만나 제자 양육을 한 것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15평 상가 건물 지하에서 시작된 춘천한마음교회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과거 소를 기르던 우사(牛舍)를 개조한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을 때 '우사교회'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의 운영은 한마음교회 산하에 작은 교회를 두고서 평신도 리더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작은 교회는 연령대, 직업별, 지역별로 7~8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분가하게 된다. 작은 교회의 리더는 간증문 기록훈련, 기도훈련, 전도 등을 통해 모든 성도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으로 선택된다. 한마음교회의 작은 교회는 성경공부 모임이나 일반적인 모임의 수준이 아니라, 각 작은 교회들이 실제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6. 순복음과 순복음춘천교회

1980~1990년 춘천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순복음춘천교회(1972년 4월 3일), 순복음제일교회(1980년 7월 5일), 새능력순복음교회(1981년 5월 3일), 열린순복음교회(1989년 10월 3일), 새생명교회(1993년 2월 21일, 순복음삼성비젼교회(1993년 5월 25일), 호산나교회(1993년 12월 5일), 순복음호반교회(1999년 7월 12일), 행복한순복음교회(1999년 7월 17일), 순복음조은교회(1999월 10월 19일) 등 10개 교회가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80년도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직원 및 각 부서 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는 등 인사와 함께 구역조직도 개편, 21개 구역에서 일반구역 21개 청년부 대학부를 합쳐 23개 구역으로 증설했다.

새해 들어 구역조직이 35개 구역으로 늘어나고 성도 수도 늘어남에 따라 서리집사도 증원되었다. 1월 10일자로 새로 임명된 서리집사는 남자집사 20명, 여자집사 72명 모두 92명으로 증가되었다. 1월 10일자 주일 출석 장년성도가 1부 131명, 2부 423명, 모두 5백54명에 이르렀으며 유년부도 273명, 중등부 52명, 고등부 45명이 출석했다. 교회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괄목하게 성장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복음춘천교회 창립 10주년 기념대축제가 1982년 4월 5일부터 1주일간 저명강사들을 초청, 성대하게 열렸다. 첫날 4월 5일(월) 저녁은 「감사의 밤」 예배로서 당회 주최로 강사 박종선 목사(봉천순복음교회) 를 모신 가운데 열려 교회창립 10주년에 대한 감사와 교회 성장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둘째 날인 4월 6일(화)에는 「찬양의 밤」 예배로써 찬양대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주환 담임목사의 고향 동기인 장로교 전주신동교회 김정수 목사가 초청되었다. 셋째 날 4월 7일(수)에는 「선교의 밤」 예배로 여선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김범일 장로가 초청되어 설교했다. 넷째 날인 4월 8일(목) 저녁에는 「비전의 밤」 예배로 대학부 주관으로 대학생선교회 전도국장 이상규 씨를 초청했다. 다섯째 날 4월 9일(금)에는 「성시화의 밤」 예배로 남선교회 주관으로 김정수 목사가 강사로 설교했다. 여섯째 날 4월 10일(토)에는 「청년의 밤」 예배로 청년회 주관으로 문선재 박사(숭전대 교수)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같은 날 학생회 주최로 학생

전도집회가 열려 대학생선교회 춘천지구 대표간사 조영상 간사의 지도로 학생회 전도집회가 있었다. 마지막 날인 4월 11일(주일)에는 유년주일학교 주최로 「어린이 날」 집회를 열어 중앙감리교회 중앙유치원 원장인 주진주 선교사를 초청, 어린이 집회를 가졌다. 낮시간과 새벽 시간에도 박종선·김정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여 뜻있는 교회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마쳤다.



교회창립10주년 기념 부흥대성회(1982년 5월)

이어서 조용기 목사 초청 교회창립 10주년 기념 부흥대성회를 열었다. 교회창립 10주년 기념 대성회가 5월 24일(월) 조용기 목사와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있었다. 첫날 개회예배에 참석, 말씀을 증거하신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께서 춘천에 성령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순복음춘천교회를 세워 주셨고 창립 10년 만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신 후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여 춘천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조용기 목사의 첫날 예배인도에 이어 조용기 목사의 동생인 조용목 목사는 형님과 버금가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본교회에서는 4월에 있었던 교회창립 10주년 기념대축제와 5월 24일부터 진행된 조용기·조용목 목사 초청 교회창립 10주년 기념 대성회를 통해서 더욱 교회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었다.

1986년 2월 24일에는 김신조 집사 부부 초청 간증집회를 가졌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생포된 후 전향하고 예수님을 믿어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김신조 집사가 1986년 2월 24일 부인과 함께 순복음춘천교회를 방문, 그의 신앙을 간증했다. 부인 최정화 집사의 피땀 어린 기도와 눈물의 결과로 오늘의 집사 김신조가 탄생했다고 증거했다.

한편, 김주환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애인선교회 초청을 받아 1995년 1월 8일 저녁 7시 말씀을 증거했다. 김 목사가 여의도교회 장애인선교회 주최 예배에

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여의도교회 조용기 목사의 김주환 목사에 대한 칭찬에서 비롯되었다. 김주환 목사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대강당에서 수만 명의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해 설교했다. 설교내용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낸 이야기, 목회자의 꿈을 안고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을 낼 수 없어 새소망 소년의 집 지도교사로 고아들을 돌보면서 학교를 졸업한 일, 목회지에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어느 곳이든 불러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곳으로 알고 첫 목회지로 삼겠다고 기도하던 중 정선 예미에서 교회개척을 하여 불러줘서 달려갔으나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폐결핵에 걸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도움을 받은 일,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에 이른 이야기 등 목회간증을 했다.

1995년 10월 22일 밤 7시에는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전용태 장로의 간증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김영자 집사의 반주와 지덕규 청년회장의 찬양인도가 있은 후 김주환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최수진 권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갈릴리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전용태 장로의 간증설교가 있었다.

전용태 장로는 설교에서 "춘천과의 인연은 1972년에 춘천체육관에서 있은 춘천성시화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전제한 후 "아내 최호자 권사의 암 발병을 계기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 장로는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부임 해 오면서 1972년도에 일어났던 춘천성시화운동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자며 기관장 성경공부 모임을 차장 검사 사택에서 모여 당시 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기관장들이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춘천성시화 운동을 다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인천 등지로 자리를 옮겼다가 1995년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춘천 지검장으로 부임해 오는 등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내용의 간증과 함께 전도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전 장로는 그 후 선도의 본을 보여 1백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하여 본교회 수요예배에 참석케 했으며 이들을 기초로 하여 춘천홀리클럽을 창설,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전 장로의 전도설교와 전도실천은 그 후 본교회 성도들에게 자극이 되어 전도에 열심을 갖게 했다.

1997년 9월 9일~10일에는 공지천 특설공연장서 조용기 목사 춘천시민초청대

성회가 있었다. 춘천성시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춘천시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춘천시민 초청 대성회가 1997년 9월 9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하여 공지천 특설공연장에서 열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운동본부가 발족되어 춘천성시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첫 사업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 대성회를 열게 된 것이다. 1971년도에 처음으로 신유부흥회를 춘천체육관에서 열어 춘천에서 처음 집회를 가진 바 있는 조용기 목사는 1974년도에도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가 주최한 춘천복음화성회 강사로 초청되어 체육관 집회를 인도하였고 이번 세 번째로 큰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날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시민초청대성회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양인평 춘천 법원장, 전용태 춘천지검 검사장, 이범찬 안기부 지부장,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등 도 단위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조용기 목사는 "성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주의를 변화시킬 때 춘천시가 변화한다"고 개개인의 거듭남과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운동을 강조했다. 또한 10일 오전 10시부터 조용기 목사를 모신 가운데 춘천 시내 교역자 특별세미나도 있었다.

1999년 5월 2일에는 입당감사예배를 드린 후 5월 13일에는 만천지역 주민초청 사랑의 잔치를 베풀었다. 김주환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순복음춘천교회가 30여 년간 지켜오던 효자동에서 만천리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순복음교회가 만천리로 옮김을 계기로 지역 사회발전에 무엇인가 공헌하고 싶다"고 밝히고





순복음춘천교회 만천성전입당 감사예배와 성전 모습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잔치로 많이 잡수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 달라"고 인사했다. 주민들은 감사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랑의 잔치에는 만천리 1·2·3리의 노인 1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4여선교회원들이 사랑의 봉사를 했다.

7. 기타 교단과 교회

춘천성공회는 1980년 당시 암울했던 상황에서 춘천 지역의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5·18광주민주항쟁기도회, 전교조창립총회, 6·10대회, 통일성서대학 등 민주화를 위한 춘천지역의 여러 모임이 춘천성공회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교회가 속해있는 지역과 그 주민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선교정신 아래서 춘천성공회는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도서관과 무의탁 노인을 돕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쏟았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춘천지역의 민주화운동에 춘천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89년 경찰들의 감시하에 마리아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출범되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야학 '예맥'[112]을 지원했으며,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1991년에는 춘천지역 기독청년회 시국기도회가 있었으며, YWCA와 연대하여 무기류 장난감 추방운동을 벌였다. 이후 1990년대 말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새희망쉼터'를 만들었고 지금은 독립했지만 2000년 나눔의집을 세워서 무료급식과 노숙자를 위한 숙소를 운영하였으며, 노숙인을 위한 바자회 및 작은 음악회도 개최했다. 이렇듯 춘천성당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하며 걸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113]

구세군춘천영문은 19대 이한열 담임사관 재임 중 춘천시 석사동 676번지 대지

112) 예맥야간학교(후평1동)는 1988년 처음 문을 열렸으며, 저녁7시~밤10시까지 한글교실, 영어기초, 수학기초, 중고등 검정고시 수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춘천에는 소양야간중고등학교(효자2동), 신흥야간초중고등학교(효자2동)이 있다(『강원경제』(2012.2.14), 「춘천, 올해도 3개 야학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참조.

113) 『월간 우리 동네 성공회』 – 서울교구 '춘천 성모 마리아 성당'편 방홍식 예레미아 신부 인터뷰 내용.

를 매입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1993년 2월 21일 소양로에서 석사동으로 이전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 11월 21일에는 소양로의 기존 성전 건물에 두 번째 구세군교회인 구세군소양영문을 개척하고 안건식 개척사관을 파송하였다.

즉 구세군소양교회(영문)는 원래 춘천영문이 위치하여 1956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춘천영문이 1993년 석사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아현영문에서 다시 개척하여 1994년 11월 초대사관으로 안건식, 양신경 사관이 부임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군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문 바로 앞에 주택(금강로 13번길 12-6)이 춘천영문의 사관사택으로 사용되었던 주택이었으나 이전하면서 건축비 마련을 위해 매매하였다고 하며, 소양영문 개척 시에는 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영문과 옆에 달려있는 흙집을 보수하여 사택으로 사용, 소양영문을 개척하였다. 이후 1996년 별관(가정단실)을 건축하였다.

1996년 5월 9일에는 서울제일영문(서대문영문)에서 춘천시 사농동 90-3번지에 세 번째 구세군 교회인 구세군북춘천영문을 개척하고 안근정 개척사관을 파송하였다.

2절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범과 발전

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범 배경

1970년대 초부터 태동하여 1972년 성시화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어떤 때에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흘러오면서 춘천에 있는 모든교회들이 기도제목으로 삼아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렀다.

1980년 1월 21일 '춘천복음화운동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 결성,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김연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7월 31일~8월 4일 춘천복음화 전도대회 개최를 춘천복음화운동위원회 주관으로 춘천실내체육관에서 CCC 김준곤 총재와 세계복음화운동 김세창 총재를 강사로 초청하여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



춘천시민복음화 선교대회(춘천실내체육관, 1988년 6월 27~29일)

화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1981년 8월에는 청소년 성시화복음화대회인 '청소년 성시화복음화대회'를 삼천동 어린이회관에서 예수전도단 대표 오대원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1983년 9월에도 성시화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역시 오대원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성시화전도대회'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개최하였다. 1988년 6월 춘천시민복음화선교대회가 1988년 6월 27~29일에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춘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특이한 일은 강원도청, 춘천시청, 전신전화국, KBS, 강원일보 등 각 직장마다 신우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1990년 4월 17일 춘천·춘성지역 8개 직장신우회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기독교인 생활을 바꾸는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때 1991년 8월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전용태 권사가 취임해 왔다. 전 차장검사는 1972년 춘천성시화대회에 평검사 때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의 재현을 소망했다. 전 장로는 "1991년 춘천 차장검사로 있을 때 퇴근해서 곧바로 관사에 가서 성경을 공부했다."며 "당시 김기수 검사장님이 왜 그렇게 일찍 집에 가느냐면서 '집에 꿀단지를 숨겨놓았나'라고 웃으면서 말하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나도 참석하겠다'고 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고 밝혔다.[114]

114) 『지저스타임즈』(2015.4.14), 「지도자가 변화되면 춘천이 변화된다」.

이리하여 봉의동에 있는 차장검사 사택은 성경공부의 요람이 되었고, 당시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기관장들과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춘천성시화의 재점화를 지펴나갔다. 1992년 8월 2일에 있은 '예수평화대행진'과 '성시화 연합집회'는 춘천성시화운동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낮에는 '예수평화대행진'이란 표어를 쓴 현수막을 내걸고 시가행진을 하였고, 밤에는 전 과학기술처장관 정근모 장로를 초청한 성시화 연합성회(제일감리교회)가 열렸다. 이날 성회에서는 문선재 강원대총장이 춘천성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조남진 장로는 춘천성시화운동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 모임에서는 1,500명의 교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그 후 8개 직장신우회로 시작한 춘천 직장신우회연합회는 33개 신우회가 가입하는 등 급진적으로 발전했다.

성시화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던 1994년에는 춘천기윤실과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의 공동주최로 김진홍 목사를 초청하여 복음과 춘천94성시집회가 9월 8~9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첫날은 김진홍 목사(두레마을대표)의 말씀집회로, 둘째 날은 춘천성시화 진로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기조연설은 문선재 박사(강원대총장)가, 토론자는 한균 목사(평화교회), 피종호 목사(나눔교회), 장근성 목사(춘천IVF), 안동규 교수(기윤실 춘천대표), 윤태호 목사(예수제자운동), 조남진 장로(월드비전 강원지부장)가 참여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1995년도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도에 차장검사로 부임하여 춘천성시화운동에 불을 붙였던 전용태 권사가 장로가 되어 1995년 9월에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춘천에 다시 부임하였다. 곧이어 양인평 장로가 춘천 법원장으로, 이범찬 안수집사가 안기부 지부장으로 부임해 왔고 성시운동의 초기멤버였던 조남진 장로가 강원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영향력 있는 기관장들이 춘천에 모여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6년 5월 10일(금)에는 YWCA에서 1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126춘천성시화중보기도모임' 창립준비모임을 가졌다. '비전126기도모임'이 태동하게 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돼 있었던 상황에서 비전126기도모임의 이영배 목사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시대적인 어려




'비전126춘천성시화 중보기도모임과 모임 후 기념(YWCA대강당, 1996년 5월 10일)

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북한의 대남 협박이 있고 난 이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하는 목회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기독신자들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김상철 장로(『미래한국』 발행인)와 권혁구·이동현·이영배 목사가 주축이 돼 1994년 8월 30일 준비모임이 이루어지고 이후로 두 차례 준비기도모임을 거쳐 1994년 12월 15일에 마지막 준비모임을 하고 이 모임의 명칭을 '비전126기도모임'으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준비과정을 거친 '비전126기도모임'은 1995년 1월 26일 횃불회관 화평성전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창립된 이래 첫 2년간은 월간 모임으로 이어지다 1997년 6월 19일부터는 매주 모임으로 발전했다.

이 기도모임을 춘천성시화를 위한 준비모임으로 활용한 것이 '비전126성시화중보기도모임'인 것이다. 이 중보기도 모임예배에 당시 비전126기도모임 창립에 주축이었던 이동현 목사(서울총무위원)의 사회로, 이학규 장로(석사감리교회) 기도, 손동아 목사의 설교('안녕하세요' 빌4:13), 김경래 장로(기획위원)의 경과보고, 양인평 장로의 환영인사, 김상철 장로의 주제특강으로 '한국현대사의 성서적 해석'이 있었고 이동현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성시화에 기도의 불을 지폈다.

한편, 1996년 6월 8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휴양촌에서 평신도 성시화운동단체인 춘천홀리클럽 창립하고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초대 성시화 지도 목사에 김주

환 목사, 초대 회장에 조남진 장로가 선임되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춘천성시화운동의 평신도 사역자 모임인 홀리클럽이 6월 8일 춘천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전용태 장로(춘천지검 검사장)가 춘천지검에 부임한 후 본교회에 출석하면서 춘천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전도한 후 이들을 양육하여 춘천 성시운동에 주춧돌이 되게 한다는 취지로 춘천 홀리클럽을 조직했다. 초대회장에는 본교회 조남진 장로가 선임되었으며 지도 목사에는 본교회 김주환 목사가 추대되었고 전용태 장로와 양인평 장로(춘천법원장), 이범찬 안수집사(안기부 지부장)는 각각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의 평신도 사역 모임인 홀리클럽은 그 후 전용태·양인평 두 장로에 의해 전국 각 처로 퍼져나가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해외에도 조직되어 성시화운동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115]

라고 하였다.

이후 뜻을 같이한 기독교 기관장들이 매주 금요일을 춘천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기도모임일로 정하고 기도모임을 가지면서 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춘천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기로 하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기독교연합회를 만들어 기독교 운동체로 세우고, 여기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들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126춘천성시화기도모임' 창립예배를 1996년 7월 12일(금)에 65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드렸다. 1부는 만찬 및 친교(18:30~19:30)로 최운택 목사(성도장로교회)가 만찬기도를 하였고 '비전126'기도모임 소개를 김상철 안수집사(변호사, 전 서울특별시장)가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부는 예배로, 김주환 목사(순복음만천교회) 사회로 진행되어 찬송(260

115) 『순복음춘천교회40년사』(2012.7.6), 234쪽.



춘천중앙성결교회에 걸린 「비전126성시화 기도모임 창립예배」 현수막(1996년 7월 12일)

장), 전용태 장로(준비위원장)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요17:13~19), 이종윤 목사(서울장로교회)의 설교('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도전'), 봉헌찬송(261장), 이학규 장로(교육자선교회장)의 봉헌기도, 이상표 목사(준비위 총무)의 광고,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3부는 찬양과 기도(20:30~21:30)로, 조은제 장로(춘천 총무위원)가 찬송을 인도하였고 이동현 목사(서울 총무위원)가 기도를 인도하였다. 4부는 창립총회(21:30~21:40)로 양인평 장로(준비위원장) 사회로 규약채택 등으로 진행되었다.

1996년 8월 23일(금)에는 5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비전126춘천성시화기도모임'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동휘 목사(기획위원, 춘일감리교회) 사회로 김남철 장로(위원, 직장선교연합회)의 기도, 김태우 목사(서대문장로교회)의 설교('준비하는 사람들'), 차성도 교수(기획위원, 기윤실)의 봉헌기도, 조은제 장로의 찬양인도, 이동현 목사의 기도인도, 권오서 목사(중앙감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 및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평신도 성경부락부가 있다. 25년 동안 한결같이 평신도 성경구락부에 몸담고 혼신의 함을 다한 고 이학규 장로의 증언을 들어본다.

주님께서는 나 같이 부족한 종을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으로 불러 세우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는 1971년도에 조남진 강원일보 편집국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싶어서 그의 친지 몇 사람과 함께 모이게 된 선교단체이다. 처음에는 조남진 편집국장, 박재헌 집사(캠페이지 사령관 보좌관), 윤수길 춘천 CCC 간사, 김형목 집사(보험회사 지사장) 등이 모였다. 이후 춘천시 공


이학규 장로

보계장 이원봉 집사, 강원고등학교 교감 문선재 권사에 이어서 나와 정길연 권사가 차례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20여 명 안팎의 회원들이 지역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지정한 장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모이게 되었다.

이 평신도성경구락부의 소식을 들은 CCC대표 김준곤 목사님이 춘천성시화운동을 구상하게 되었고, 춘천기독교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민족복음화대회 겸 춘천성시화대회를 춘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김준곤 목사님이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제시하신 것이 춘천성시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로 보건대 춘천평신도성경구락부가 춘천성시화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평신도성경구락부는 거르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처음에는 십여 명이 모이던 평신도성경구락부는 점점 인원이 늘어나서 때로는 100여 명이 넘게 모인 적도 있었다. 춘천지역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1974년 4월 예수원 원장이신 토레이 신부님을 모시고 개최한 신앙강좌를 시작으로 예수전도단 로스 목사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황희웅 교수님, 중앙대학교 최재선 박사님, 예수원 조병호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신앙강좌를 가졌다. 1974년 10월 14일부터 4일간 조용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도 평신도성경구락부가 주선하여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초교파적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1978년 대한신학교 학장이신 김세창 박사님을 모시고 춘천 실내체육관에서 초교파 춘천복음화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외쳐 부르짖음으로 기독교연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고 다시금 춘천성시화의 꿈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 성시화운동이 잠복기에 들어가 있을 때도 평신도성경구락부는 더욱 열심히 모여서 춘천성시화를 위


변충구 목사 강의 모습

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사회 목회자를 모시고 말씀을 들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서 1975년 9월부터 1985년 중반까지는 내가 『성령의 열매』 Ⅰ·Ⅱ·Ⅲ·Ⅳ·Ⅴ교재를 활용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1985년부터 약 6년간은 원주에서 목회를 시작한 변충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이때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와 각가지 은사 체험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때는 100여 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성시화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등 5~6개 교회에서는 변충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 성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도에는 믿음의 집 전가화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고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춘천시민 초청 복음화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선교대회는 감리교회에 소속된 평신도성경구락부 회원들이 주관하여 개최하므로 춘천시 내 감리교회 안에서 성시화운동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는 생명수교회 김동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봉사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다.

평신도성경구락부를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소속된 교회와 직장에 가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 이 모임은 1995년까지 지속되었다. 춘천에 또 하나의 성시화를 위한 힘있는 기도모임으로 기관장 기도모임이 시작되었다. 기관장 기도모임도 평신도성경구락부와 같이 목요일 오후 7시에 검사장 공관에서 모였다. 마침내 평신도성경구락부를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기관장기도모임과 함께

헤쳐 모이기로 합의하고 25년간 꾸준히 모여오던 평신도성경구락부[116]*는 발전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 드린다.*[117]

이렇듯 춘천성시화를 위해 크고 작은 기도회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과 활동

1996년 9월 2일에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개소(월드비전)가 이루어졌으며,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춘천기독교연합회(1996년 9월 12일)의 탄생을 도왔고 마침내 1996년 9월 19일 소양성결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1996년 9월 19일(목) 소양성결교회에서 7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이날 '비전 126' 춘천성시화 기도모임 및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가 함께 진행되어 1부 만찬 및 친교, 2부 비전126성시화기도회, 3부 창립총회, 4부 예배 등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어떤 행사보다도 성대하고 뜻깊게 진행되었다.

1부로 만찬 및 친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백기만 장로(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장)의 기도로 약 50분 정도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2부 비전126성시화기도회는 저녁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찬양(인도 조은제 장로, 비전126기도 총무)과 기도(인도 한균 목사, 평화감리교회)로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5~6절)"라는 말씀을 근

116) 평신도성경구락부는 이후에도 석사감리교회의 이학규·홍성운 장로, 신성감리교회의 김종열 장로 중심으로 이들의 가정집에서 번갈아가면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60명까지 모여 2015년까지 간간이 이어왔다[김종열 장로의 증언(2022.12.7, 신성교회 기획위원실). 신성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사람은 홍순옥 장로, 권정자 권사, 엄명자 권사 등이 있었다].

117) 이학규, 『나는 부족하여도』, 도사출판 진흥, 2007, 152~155쪽.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 모습(소양성결교회, 1996년 9월 19일)

거로 비전126성시화기도모임이 창립되어 활동하면서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3부에는 창립총회(19:50~20:10)를 열어 정관통과와 임원 선출을 하였다.

이어서 드려진 창립예배(20:10~21:50)에는 이원호 목사(교역지연합회장)의 사회로 묵도, 찬송(265장), 엄대섭 목사(교경협의회장)의 대표기도, 김명숙 권사의 성경봉독(눅5:1~11), 시온성가대(소양성결교회)의 찬양, 김선도 목사(감리교 감독회장)의 설교('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 갈릴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이창용 장로(장로연합회장)의 봉헌기도, 양용구 목사(한기총 공동대표)의 격려사, 배계섭 춘천시장의 축사, 이필용 기독교TV방송 사장의 축사, 김상철 변호사(비전126서울 총무), 이연화 교수(강원대 음악학과)의 축가, 이상표 목사(준비위 총무)의 광고, 찬송(268장), 윤철중 목사(중앙성결교회)의 축도 순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상황을 『강원일보』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호반의 도시 춘천을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시화(**聖市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가 지난 19일 창립예배를 갖고 본격적인 복음화운동을 시작했다.*
>
> *지난 72년 춘천지역 각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성시화집회를 구상하고 20여년 만인 94년 '복음과 춘천94' 집*

회를 개최함에 따라 구체적인 창립준비작업을 도모하게 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그동안 창립을 앞두고 양인평(梁仁平) 춘천지방법원장, 전용태(田溶泰) 춘천지검검사장, 이범찬(李範燦) 안기부강원지부장, 권재원(權在遠) 한전강원지사장, 조남진(趙南震, 순복음춘천교회 장로·강원일보 사장) 등을 비롯한 춘천지역 기독교인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성시화를 위한 기관장 중보기도회」, 「비전 126 비전기도회」 등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열어왔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남진 본부장은 "춘천성시화운동은 그동안 춘천지역 기독교인들이 여러 형태로 이어온 성시화운동을 하나로 결집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향한 복음(福音) 전파의 토대 마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각종 전도 및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30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를 「성시화준법주간」으로 선포하고 각종 창립기념행사 외에 헌혈, 무료급식 및 이발, 한의사무료진료, 할인판매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성시화준법주간 중의 주요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성시새벽기도회(9월 30일~10월 6일, 각 교회별), △ 성시세미나(9월 30일 오후 7시 순복음춘천교회) △ 성시총력전도(9월 30일~10월 6일) △ 춘천성시화본부 현판식(10월 1일 오후 5시 선명회 강원도지부) △ 성시연합집회(10월 1~2일 오후 7시 강원대 백령문화관) △ 성시연합예배(10월 6일 오후 4시 춘천어린이회관 야외음악당)

라고 하여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40년사』(2012, 235~236쪽)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춘천성시운동본부가 9월 19일 창립, 본부장에 본교회 조남진 장로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었다. 1972년 8월 춘천성시화운동대회가 춘천에서 있은 후 다양한 성시운동이 계속되어 왔으나 상설기구인 성시운동본부를 창설, 본격적인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이번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

처음이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을 보게 된 것은 검사장으로 부임해 온 전용태 장로와 법원장으로 부임해 온 양인평 장로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먼저 춘천기독교연합회를 구성하고 이에 조직된 평신도 모인인 춘천홀리클럽을 발판으로 하여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성시화운동을 위한 구성체를 발족시킨 것이다. 먼저 기독교연합회를 발족시키는 데는 이미 구성되어 활동해 온 춘천 기독교교역자연합회를 기반으로 하여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춘천기독교연합회를 결성하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9월 창립을 본 춘천성시운동본부는 10월에 성시주간을 설정, 대형 성시성회를 비롯한 성시세미나, 총력전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성시운동을 전개했으며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기금 1천만 원을 전해 와 큰 힘을 보탰다.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매년 10월 중 성시주간을 설정. 각종 성시운동행사를 진행하였고 1998년도에는 월간 『춘천성시신문』을 발행하여 춘천성시운동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라고 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를 먼저 결성하고 춘기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하였고 10월부터 성시주간을 설정하여 성시성회를 비롯한 성시세미나, 총력전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성시운동을 전개했다.

우두교회에서도 『우두교회80년사』(2011, 237쪽)에 춘천성시화운동 소식을 전했다.

춘천은 선교초기부터 남감리회 선교구역으로 감리교회가 선교를 주도하였다. 해방 이후 개신교의 여러 교파가 많이 선교함으로 춘천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었다. 이미 1960대 말부터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은 1970년대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8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춘천동지방사회평신도부에서 주관한 '88춘천시민복음화선교대회'는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의 대부분의 감리교회가 거의 다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었다. 강사는 전가화 목사였다.

1996년 9월 마지막 주간에는 춘천성시회를 위한 초교파적인 행사가 있었다. 월요일에는 허문영 박사를 강사로 순복음교회에서 성시토론을 가졌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홍정길 목사를 강사로, 목요일에는 이영덕 전 총리를 강사로 강원대학교 백령회관에서 성시집회로 모였는데 수요일 집회에는 우두교회 백합찬양대가 특별찬양을 하였다. 금요일에는 오인숙, 김형모를 강사로 성시특강이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두교회 교인들도 춘천성시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회 춘천성시화 주간 일정 및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춘천성시화 주간 신앙프로그램

시간	월(9/30)	화(10/1)	수(10/2)	목(10/3)	금(10/4)	토(10/5)	일(10/6)
5:00 ~6:00	성시새벽기도(각 교회 순회)						
14:00 ~16:00		성시본부 현판식(17시)		성시전도1 강원대 미래의광장 대상:춘천시민(일반주거지욕, 노인정)		성시전도2 집결:동부교회 대상:청소년(명동, 공지천)	성시전도3 춘일교회 대상:체전참가선수(공지천, 공설운동장)
18:30 ~19:00	찬양과 경배(강원대 백령문화관)						
19:00 ~21:00	성시토론 순복음춘천교회 허문영박사 외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전망	성시집회1 강원대 백령문화관 홍정길 목사 춘천성시화와 민족복음화	성시집회2 강원대 백령문화관 홍정길 목사 춘천성시화와 민족복음화	성시전도1 대상:춘천시민(일반주거지역, 노인정)	성시기도 강원대 백령문화관 이영덕(전총리) 비전125 성시기도모임	성시특강 강원대 백령문화관 오인숙 김형모 자녀교육과 청소년	성시예배 강원대 백령문화관 김준곤 목사 춘천지역 연합예배

다음 사회봉사프로그램으로는 1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제1회 춘천성시화 주간 사회봉사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대 상	일 시	내 용
준법주간	춘천시민	9.30~10.14(성시 주간과 전국제전기간)	기초질서 및 교통법규 지키기
헌혈	춘천지역의 교회	9.30~10.6	교회 릴레이 참여운동, 우두감리교회, 적십자혈액원 문의
무료순회진료	저소득주민, 영세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10.4~5(오후 2~6시)	효자사회복지관, 하담지역 노인정
무료한방진료	65세 이상 노인	10.1~2	영광한의원, 대광당한의원, 구서당한의원
무료물리치료	65세 이상 노인	9.30~10.4	최병기재활의학센터, 선명회 사회복지관
장애종합진단	생후 1개월~65세 이상 노인	9.30~10.4(10.3 휴일)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무료이·미용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노인	9.30~10.4(10.3 휴일)	선명회 사회복지관, 유미미용실, 예니미용실
무료급식	춘천지역 60세 이상 노인	9.30~10.4(10.3 휴일)	선명회 사회복지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효자 사회복지관
이불세탁	생활보호대상자1~2종,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	9.30~10.4(10.3 휴일)	선명회 사회복지관, 명품빨래방
노인대학	60세 이상 노인	매주 목요일(오전11시)	선명회 사회복지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교사교육 (장애아동지도)	각 교회 교회학교 교사	10.4 18시	선명회 시회복지관 강당, 장애인복지관에 문의
극빈자 후원 (결연후원 및 기장봉사원 파견)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영세극빈, 장애인가정, 외국난민		방법 : 한 가정이 1가정 결연, 월 1만원 이상 후원 신청 :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비상시국 구국기도회
(공지천야외무대, 1997년 5월 21일)

춘천성시화운동은 성시화운동본부가 발족한 이듬해인 1997년도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춘천기독의료인선교회, 만나선교회 등 영역별 선교회가 발족되었고, 강원도교육자선교회(회장 이학규 장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37차 여름연찬회를 춘천

에 유치,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전국에서 6백여 명이 모여 연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6.25전쟁 기념을 앞둔 1997년 5월 21일 저녁 7시에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당시 감리교 김독 회장)를 초청하여 공지천 야외무대에서 민관군이 망라하여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시국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1997년 9월 9일 창립 1주년 행사로 성령 운동을 일으키며 세계최대의 교회를 이룬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였다. 춘천시민초청 대성회에는 양인평 법원장, 이범찬 안기부 지부장,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손은남 농협지역 본부장, 이돈섭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 기관장을 비롯한 목회자, 성도 1만여 명이 삼천동 야외음악당을 메웠다. '춘천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라는 주제로 열린 춘천 성회는 30여 개 교단, 130여 교회가 연합한 귀한 성회였다.

둘째 날 10일 오전 7시 조용기 목사 초청, 춘천지역 기관장 조찬기도회가 두산리조트에서 열렸다. 기도회에는 류종수 국회의원, 김병두 교육감, 이범찬 안기부 지부장, 조석봉 도경찰청장, 최상필 도의회 의장,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사장, 김영태 KBS 총국장, 유수열 춘천문화방송 사장, 노병유 CBS 본부장, 최종문 강원은행장, 배계섭 춘천시장, 박민수 춘천교대총장 등과 임택창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을 비롯한 윤철중·김주환·김광국 목사 등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했다. 이어 오전 10시 춘천 시내 목회자 초청세미나가 열려 조용기 목사가 목회해 오면서 겪은 간증을 전했다. 또 저녁 성회에는 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은혜받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7년 11월 21일에는 기독교 기업으로 성공한 이랜드 박성수 사장을 초청, 특별강연회를 가졌으며 차세대 성시화운동요원 양성차원으로 청소년들의 영성개발을 위해 영어 영성개발 훈련을 하기도 했다. 또 11월에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는 4백 페이지가 넘는 성시운동 책자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름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춘천성시화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1998년에는 기윤실 대표로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손봉호 장로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15일 『성시신문』을 창간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성시신문』이 창간되었다. 조남진 장로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3대


聖市新聞

우리의 꿈, 우리의 사랑
춘천성시화

인사말씀

윤철중 목사

성시화운동 참여 감

『성시신문』 창간호 모습

사무국장 조충환 목사는 춘천성시운동의 활동상과 계획, 기타 교계소식을 알려주고자 『성시신문』(발행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을 창간하였다.

한편, 춘천성시화본부 창립 이후 은사별 영역그룹이 활성화되어 다음과 같은 그룹, 즉 춘천애중회, (사단법인)기독교세진회 춘천지회, 홀리클럽, 춘천성시화기독미술인회, 기독의료인회, 강원청소년 선교회, 춘천만나선교회, 예수사람운동(예스컴)이 창립되었다.

은사별 기관그룹

기관명	회장	설립목적	창립일
춘천애중회	이태수 판사	기독법조인회, 기독법조인 사이의 상호친목과 신앙향상을 도모하여 사회 정의를 정립하고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적	1996.05.06
(사단법인)기독교세진회 춘천지회	윤철중 목사	기독교적으로 재소자 및 출소자, 소년원생,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 및 교화사업을 목적	1996.05.28
춘천홀리클럽	조남진 장로	춘천성시화와 춘천을 거룩한 도시, 범죄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성경연구와 기도모임	1996.06.08
춘천성시화 기독미술인회	김정희 교수	춘천의 기독문화의 정착,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기독미술향상 발전을 도모	1997. 4. 1
기독의료인회	유영호 원장	약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기독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를 목적	1997. 8. 25
강원청소년 선교회	최상필 강원도의회 의장	청소년의 전도와 양육을 목적	1997. 9. 4
춘천만나선교회	홍승찬 장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기독인으로 친목과 복음전도를 목적	1997. 10. 10
예수사람운동 (예스컴)		춘천지역의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창립	

이후로 기관장 기도모임도 각 직장신우회를 통한 기관 방문 예배로 활성화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운동본부 발족 첫해 성시주간 행사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가 성시운동을 위해 1천만 원 기탁한 것을 비롯해 각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성시헌금이 들어왔다. 성시운동본부 초대 사무국장에 이상표 목사가 부임했다. 그리고 이상표 목사가 충북 경찰대학으로 전임되어 2대 사무국장은 월드비전 춘천복지관장인 이경준 목사가 맡았다. 이후 1998년 이경준 목사도 동해복지관장으로 전임하게 되어 후임 사무국장을 물색 중 도청 고위직 공무원 퇴직 후 신학교 과정을 마쳐 목사안수를 받은 조충환 목사에게 부탁했다. 조 목사는 교회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가 사무국장 제의를 받자 흔쾌히 승낙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조충환 목사가 3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고, 글 솜씨가 있던 조충환 목사와 춘천성시신문을 발간해 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당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영명 안수집사)의 『직장선교』라는 회지도 촉매제가 되어, 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1998년 9월 15일 『성시신문』이 창간되었다(발행인 조남진 장로, 편집인 조충환 목사), 창간호부터 얼마 동안은 1972년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온 분들(문선재 목사, 조충환 목사, 김영명 장로 등)의 각종 기록물이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기록은 역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시신문」의 창간으로 성시화운동은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현재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춘천기독교계의 활동상과 성시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게 되므로 성시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또한 성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와 배움의 장을 제공하게 되어 보다 성숙한 기독교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였다.



춘천성시신문 창간10주년기념 감사예배기념(2008년 9월 17일)

이렇게 시작된 「춘천성시신문」은 어느덧 창간 2008년 10주년을 넘기면서 매월 4,000부씩 발행되어 국내·외 선교지로 배부되고 있

으며, 문서선교로서뿐만 아니라 성시화운동의 세계화에 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1999년도에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학교 운영, 기사선교회의 창립(5월 12일), 경찰가족을 위한 부흥회(5월 30일~6월 2일), 6.25전쟁 상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등을 시민, 교회 연합운동으로 실행하였다.

3. 춘천성시화운동의 세계화

1972년 8월 춘천 성시화집회로 당시 춘천시장을 비롯한 지도자 계층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몇몇 목회자와 평신도들 중심으로 춘천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 성시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후 김준곤 목사 주도로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서울 및 전국 성시화의 횃불을 든 '74 EXPLO 대회로 그 1년 후 출석교인이 33% 증가하였다.

1991년 춘천은 1972년 춘천성시화 전도대회에 참여하였던 전용태 차장검사와 조남진 강원일보 전무 등과 김기수 춘천검사장, 장성 2군단장, 경찰서장 등 기독 기관장 등의 성경공부로 각 직장의 신우회가 많이 확산함에 따라 그 회원이 800명 가까이 되어 춘천 성시화 운동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 전용태 장로가 다시 춘천검사장으로, 곧이어 양인평 장로가 춘천 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조남진 강원일보 사장, 문선재 강원대학교 총장, 이범찬 안기부 춘천지부장 등 다수의 기독 기관장이 성시화를 위한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전도를 하여 1996년 6월 8일 전국 최초로 평신도 중심의 춘천홀리클럽과 1996년 9월 19일 목회자 중심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택창 목사)가 창립되었다.

전용태 장로는 그 후 청주, 인천, 대구로 순차 발령되고 양인평 장로는 대전, 부산으로 순차 발령되는 곳마다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갖고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 본부를 창립하는 등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케 되었다.

더 나아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인도 비하르주의 파트나시(인도예수가족 이영길 선교사)와 영적 자매결연을 맺고 비하르주의 대표적인 10개 관문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 중보기도사역과 세미나 및 전도집회를 개최하였다.(2000년 9월 9~16

일)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은 성시기도운동과 해외선교를 추진하여 온 조은제 목사, 기정희 권사 등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집회에는 초교파적으로 30여 명의 전도자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시민 전도대성회는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기도세미나는 김성수 목사(현, 아름다운교회)가 맡아서 말씀사역을 인도하였다.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시(선교사 이영길 목사)에 확산하여 가는 성시화의 열기가 성시화운동의 해외확산의 문을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의 성시화 활동

1) 직장선교의 개관

직장선교의 역사에서 직장선교란 선교용어를 정착시키고 조직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직장선교를 시작하고 추진한 것은 '한국직장선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118] 국내 직장선교의 역사는 편의상 성격 형태별로 단위 직장신우회, 직장선교연합회, 직장인선교회예배,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19]


(주)벽산그룹 신우회원의 초기모습(『직장선교40년사』)

단위 직장신우회의 역사는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벽산그룹이 1956년 영화상영관인 단성사를 경영하면서 사업 성격상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118) 박흥일, 『직장선교와 삶의 현장』, 서울 크리스챤서적, 2000, 147쪽.
119) 이 내용은 천영섭, 「직장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6~30쪽 참조.

종업원들을 위해 평일 아침에 시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직장신우회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이 벽산그룹은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회사다. 지금은 김인득 창업자가 소천했지만, 아직도 창업자의 뜻을 따라 벽산의 모든 시무식은 물론 창립기념식 등 모든 공식행사는 예배로 시작된다. 그리고 매사에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독교를 통해서 임직원을 통합해 나가는 것도 특징이다. 지금도 신우회는 주말마다 어린이집과 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며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120]

그러나 당시 이 직장인 예배모임은 오늘날의 신우회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고, 성격도 오늘날의 직장신우회가 일반 평신도 직장인들이 주일에 소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 중에 직장에서 선교하며 신앙생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하는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직장신우회의 형태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의 일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한국은행이 평일에 직장신우회 모임을 모이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 현대건설이 현대크리스천모임을 1979년 국회직원신우회인 국회기도회 조직과 행정부 쪽에서 과학기술처 신우회 조직모임을 계기로 정부종합청사의 각 부처에 확산하기 시작하였고, 동년에 한국전력신우회 조직을 계기로 국영기업체에 확산하여, 1980년대에 들어 직장선교연합회가 창립되면서부터 단위 직장신우회 조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직장연합선교회는 1979년 정부 세종로종합청사의 공무원들과 현대건설, 동아건설, 국제상사 등 기업체 직원들이 종교교회에서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목요직장인교회를 모이기 시작했고, 1980년 4월 인근 직장인을 초청하여 직장인연합부활절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선교연합회의 창립이 모색되었다.

1981년 4월 두 번째 직장인연합 부활절예배 후 바로 가칭 서울지역 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흥일)가 결성되고 1981년 12월 12일 서울지역 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이 직장선교란 용어 사용의 정착과 한국 직상선교 역사의 새 기원을 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경향

120) 『직장선교40년사』, 107쪽.


서울지역 기독교직장선교협의회 창립총회(종교교회, 1981년 12월 12일)

신문』(1981년 12월 17일)은 전면 특집보도를 통해 「개신교 역사의 새장을 열다. 평일 사무실서 예배본다」는 제목으로 직장선교연합회 창립을 특별 보도하므로 종교계와 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 협회는 직장선교를 서울지역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1982년 명칭을 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로 개칭하였고, 더 나아가 직장선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1984년 전국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96년 창립한 미국 기독교 직장선교 협의회와 쉽게 구별하기 위해 명칭을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 직장선교연합회의 조직은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주도하여 1986년 3월 부산지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창립을 필두로 같은 해 7월에 안양지역, 1987년 4월에 대전지역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하였고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는 부천·구미·여수·성남지역과 익산지역연합회를, 1989년에는 동해·삼척·광주·수원·경기지역 직장선교연합회를, 1990년에는 강남·춘천·대구경북지역 직장선교연합회를 조직하는 등 박차를 가하였으며, 그 후 1993년에는 원주·제주지역까지 지역 직장선교연합회를 조직함으로써 2003년에는 전국의 7천여 개 선교회가 37개 직능연합회와 38개 지역연합회를 연합하여 직장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2021년 광역시 지역 직장선교연합회는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6개 직장선교연합회가 조직되었고, 도 단위의 직장선교연합회는 경기를 비롯하여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직장선교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군지역 직장선교연합회는 성남, 춘천, 청주, 전주, 청송 등 31

개 전국 주요 도시나 군에서 조직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21]

직능 직장선교연합회의 조직은 초기에는 다분히 자생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1970년 후반에 들어 1975년 창립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연합선교회가 조직되고 1978년 증권회사들이 모여 증권단선교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능 직장선교회연합회가 창립되고, 1987년 한국통신공사 기독신우회가 창립되었으며, 1991년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연합신우회를 비롯 1993년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 1994년 한국경찰기독신우회 연합회가 창립되었다. 2021년 12월 현재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산하에 42개 직능선교연합회가 있다.[122]

직장인 교회예배는 직장신우회가 어느 한 단위 직장을 중심으로 평일 중 직장 또는 적당한 장소에 모여 활동하는 것과는 달리 직장인 교회예배는 대개 도심의 어느 개교회가 중심이 되어 평일 중 교회 인근 직장인들을 모이게 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교 봉사하는 도시교회가 지역사회 선교봉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직장인교회는 예배가 1969년 9월 5일 영락교회에서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 인근의 쌍용양회, 백병원, 중부경찰서 등 직장인을 상대로 시행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79년 종교교회(나원용 목사)에서 세종로종합청사의 공무원들과 현대건설, 동아건설, 국제상사 등의 직장인들을 모아 목요직장예배를 실시한 것이 직장선교연합회의 출범과 동시에 직장신우회 및 직장인교회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0년에 남대문교회가 대우센터 빌딩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요 직장인 예배를 시작하였고 1983년 새문안교회가 목요 직장인 교회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서소문교회, 정동교회, 충무성결교회 등 현재 서울에만 30여 개 교회에서 직장인교회 예배를 실시하고 있어 도심의 역사 있는 주요교회에서 직장인교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겠으나 아직은 일부교회에 국한되고 있어 서울과 지방 도시의 더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의 일환으로 직장인교회 예배 실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

121) 『직장선교 40년사』, 144쪽.
122) 위의 책, 147쪽.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은 직장 내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직장 내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직장 내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직장 복음화는 물론 우리 세대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화 운동 성격의 모임이다.

직장인 성경공부 모임은 1990년 1월에 4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서울 명동에 처음 시작한 이래, 매년 새로운 모임을 개척, 현재는 약 50여 개의 모임에서 2천여 명의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모임을 통해 찬양과 간증, 그리고 소그룹 성경공부모임을 갖고 있다.

2)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의 출범과 활동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1990년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소속으로 출범하여 1996년부터는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는 1981년 서울지역 직장선교협의회로 창립한 후, 1982년에 기독교 직장선교협의회로, 또 1984년에 전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로 개명되어 14년 동안 성장하다가 마침내 1996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역대회장으로는 초대 허광웅 장로(1990~1991), 2대 조충환 장로(1992~1993), 3대 김남철 장로(1994~1995), 4대 백기만 장로(1996), 5대 조정일 장로(1997), 6대 김영명 안수집사(1998), 7대 이영규 장로(1999), 8대 김용배 장로('00), 9대 민병업 장로(2001), 10대 박상운 장로(2002), 11대 민경욱 장로(2003), 12대 김철수 장로(2004), 13대 최형선 장로(2005), 14대 김용일 장로(2006), 15대 진상용 장로(2007), 16대 양봉남 장로(2008), 17대 김영래 장로(2009), 18대 김동한 장로(2010~2011), 19대 장기영 장로(2012), 20대 김지현 권사(2013), 21대 정학수 장로(2014), 22대 박무영 장로(2015), 23대 이인균 장로(2016), 24대 윤창호 장로(2017), 25대 김희두 권사(2018~2019), 25대 정기선 장로(2020~현) 등이다.

주요 연혁으로는 1990년 4월 17일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창립, 1996년 6월 27일 창립6주년 기념예배 및 찬양경연대회, 1998년 6월 23일 창립8주년 기



창립 제17주년 감사예배(2007년 11월 25일)

념예배, 1998년 9월 10일 제4회 기독인 찬양선교대회를 개최, 2000년 7월 6일 창립10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대회(소양성결대회), 2001년 10월 18일 제1회 열린찬양축제(석사감리교회), 2007년 11월 25일 창립17주년기념 감사예배, 2017년 2월 25일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 연합선교대회(춘천직장선교연합회 공동), 2017년 7월 17일 제1기 춘천직장선교대학(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산하) 등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장선교연합회주관 정오예배(월1회), 직장선교연합회주관 봉사활동(모금 및 배달-연탄, 김장 등 연1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의 연합으로 선교대회, 찬양축제 참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지원의 연합회임원 리더훈련(연1회) 등이다.

2007년 소속 단위직장선교회로는 강원도청선교회, 강원도교육청선교회, 춘천지방법원선교회, 춘천검찰청선교회, 강원도지방경찰청선교회, 춘천교도소선교회, 춘천지방병무청선교회, 춘천시청선교회, 춘천경찰서선교회, 한국통신춘천전화선교회, 춘천우체국선교회, 한전강원지사선교회, 강원대학교선교회, 한림대학교선교회, 춘천교육대학교선교회, 한국은행선교회, 조흥은행선교회, 강원농협선교회, 금강금고선교회, 강원대학병원선교회, 강원적십자혈액원선교회, 강원일보선교회, 기사선교회, 한국복지대산선교회, 월드비전선교회, 기독미용인회선교회, 춘천발전소선교회, 가정법률상담소선교회, ㈜대양선교회, 군인공제회선교회, 한림대학부속병원선교회, 홀트아동복지회선교회, 세종호텔선교회, 중앙병원선교회, 농협연수관선교회, 산림개발연구원선교회, 영창피아노선교회, 도로안전관리공단선교회, 캠페이지선교회, 강원중학교선교회, 춘천여자중학교선교회, 효제초등학교선교회, 용두전자선교회, 강원농원선교회, 춘천중학교선교회, 종합시험연구센터선교회, 춘천여자고등학교선교회, 알로에마임춘천지사

선교회, 앤투어여행사선교회, 강원도장애인복지관선교회, 자원봉사센터선교회, 광림사랑의집소리회선교회, 평생정보관선교회, KBS방송국선교회 등 54개 선교회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2022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강원도청선교회, 춘천시청선교회, 강원일보선교회, 월드비전선교회, 강원농협선교회, 춘천Y신협선교회, 앤투어여행사선교회, 유니베라선교회, 살림에너지선교회 등 9개의 선교회가 연합회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연혁과 주요사업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김영명 장로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영명 장로)는 1998년 6월 23일 춘천어린이회관에서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감사예배와 특별강연회로 가졌다.

김영명 회장의 사회로 드린 감사예배는 허광웅 장로의 기도, 강원도교육청신우회 특별찬양, 윤철중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 곽철영 목사(중앙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이영규 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주수일 장로(서울온누리교회·가정문화연구원장)의 「IMF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었다.[123]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김영명 안수집사·강원도청 농정산림국)는 1998년 9월 10일 춘천동부장로교회(임신영 목사)에서 직장신우회원 기독기관장 군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기독인 찬양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실직자 수재민 불우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선교대회는 1부 7개 신우회의 찬양경연에 이어 2부 윤형주 장로(온누리교회·방송연예인)의 찬양과 간증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선교대회에서는 실직자와 수재민돕기 위한 헌금을 실시,

123) 『기독신문』(1998.7.8), 「춘천직장선교연합회 창립8주년」.

총 80여 만 원을 모금했다.

한편 1부 찬양경연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강원대학교),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강원도교육청), 「부흥」(한국통신 춘천전화국), 「기도」(강원은행), 「다함없는 사랑으로」(농협 강원지역본부), 「아주 먼 옛날」(월드비전 강원도지부), 「어찌하여야」(춘천교도소)라는 제목의 찬양에 이어 2군단 한빛교회 신우회의 특별찬양 순서로 진행됐다.

회장 김영명 장로는 "매년 총회와 함께 실시해오는 찬양선교대회를 총회와 분리해 처음 실시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뜻하지 않은 실직자와 재난과 가정결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124]

직장선교 예술제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하였다. 1985년 9월 14일(토) 오후 1시에 서울의 숭의음악당에서 제1회 직장선교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예술제는 방송인 민창기 권사와 인기 탤런트 고은아 집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어 모두 14개 직장신우회가 참가했는데, 음악의 출연이 12개 팀, 발레가 1개 팀, 무언극이 1개 팀으로 출연되어 매우 알차고 은혜로운 예술제가 되었다.

춘천에서는 1998년 10월 10일 횃불선교센타 사랑선전에서 거행된 행사에 강원은행남성중창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15회 대회(1999년 10월 30일 영락교회 베다



제1회 직장선교예술제(1985년 9월 14일)

124) 『기독신문』(1998.9.16), 「춘천직장선, 기독인 찬양선교대회」.

니홀)에 처음 참가한 춘천직장선교연합회합창단은 인천직선합창단, 반포청사성가대, 원주국악찬양단, 벽산그룹연합성가대, 교보생명신우회합창단, 성남직선찬양단, 과천청사선교합창단, 부산직선선교합창단, 광주·전남에벤에셀찬양단, 한국통신등대회성가대, 특별출연(이현, 장신애, 브니엘선교단) 11팀과 경쟁하여 광주·전남에벤에셀찬양단(대상), 부산직장선교회합창단(금상) 다음으로 3위로 입상하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직장선교예술제 참가를 위해 석사감리교회에서 찬양연습실을 비롯하여 버스와 봉고차를 제공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하였다. 2000년 11월 4일 횃불선교센타 사랑성전 거행된 행사에도 춘천직장선교연합회합창단이 참가해 직장선교예술제의 명성을 높였다.[125]

한편,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에서는 직장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 교회일치 등 직장선교의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장 선교사 및 직장선교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1988년 3월 직장선교대학을 개설하였다. 제1기 직장선교대학이 1988년 3월 17일~5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광화문 소재 종교교회에서 열렸다. 주로 강의 위주로 진행하였는데 선교론, 직장선교의 방향과 전략, 직장선교회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를 갖고



제1기 춘천직장선교대학 기념
앞줄 좌로부터 최상도 목사, 이재웅 목사(선교대학지도목사), 박인관 목사, 조영춘 목사, 이인균 장로, 김양수 안수집사(도청신우회부회장) / 뒷줄 좌로부터 김대수 강사(강원중소기업청), 홍양표 강사, 홍승주 강사, 심재훈 목사(한섬교회), 권혁범 집사(도청신우회), 윤창호 장로(도청신우회장), 전왕표 권사(도청신우회총무), 이준건 권사(신성교회), 김지현 집사(앤투어대표), 정민희(도청신우회), 신하림 집사(강원일보기자)

125) 『직장선교40년사』, 204~205쪽.

목회자(최건호·정영관·박종순 목사), 학자(장중열·염필형·이계준 교수 등), 지도자(박흥일 장로) 등이 강의를 담당했다.

그 후 매년 봄·가을 2차례 직장선교대학을 실시하였는데 1995년부터 강의위주에서 전도양육중심의 제자화 교육체제로 전환하여 직장에서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을 받은 후 직장에서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00명 정독 훈련을 받고 활발하게 직장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춘천에서도 2017년 4월 10일~6월 26일까지 한국직장선교대학이 춘천 효신교회 1층 선교원에서 개설되기도 하였다. 춘천직장선교대학 개설 준비기도회를 3월 16일, 23일, 30일 3차례 가진 후 8명이 훈련·수료했다. 제2기까지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더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3절 춘천지역 교회의 교회개척과 국내외선교

1. 춘천중앙감리교회의 교회개척과 선교 및 사회봉사



한국기독교 100주년선교대회(여의도, 1984년)

한국기독교의 100년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도착한 1885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1984년 한국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8월 15~19일까지 5일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의 선교대회가 있

었다. 이와 동시에 교역자대회(영락교회), 어린이선교대회(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학생선교대회(광림교회), 여성선교대회(이화여자대학교), 내외선교사대회(영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연인원 국내와 해외에서 350~400만 명이 참가하여 한국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인 대회로 기록되었다. '한국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시작된 19일 마지막날 예배에는 약 100만 명이 모여 행사의 절정을 이룬 가운데 참석자들은 선교 2세기에는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기(1980~1999년) 춘천지역 감리교회 창립한 교회는 희망(1980년 3월 10일), 후평중앙(1981년 10년 5일), 강북(1982년 1월 17일), 춘천세광(1982년 2월 28일), 원창(1982년 3월 26일), 의암(1982년 11월 4일), 하일(1983년 8월 15일), 시온(1984년 5월 20일), 춘천강남(1984년 9월 30일), 한길(1985년 1월 22일), 상걸리(1985년 11월 7일), 등불(1986년 10월 9일), 소망(1986년 12월 19일), 창신(1987년 3월 7일), 푸른하늘(1987년 5월 30일), 팔미(1988년 8월 11일), 효자(1988년 9월 30일), 참사랑(1989년 8월 29일), 제자(1989년 11월 19일), 군자(1990년 2월 13일), 대은(1990년 9월 15일), 창대(1991년 1월 15일), 임마누엘(1991년 5월 22일), 강촌광림(1991년 6월 23일 7월 1일), 생명수(1991월 10월 12일), 춘천광염(1991년 10월 22일), 서춘천(1992년 3월 2일), 갈릴리(1992년 9월 20일), 사랑(1993년 3월 29일), 창대(1993년 9월 23일), 복지(1994년 1월 31일), 부름(1994년 3월 16일), 서광(1995년 10월 3일), 주님의(1996년 9월 9일), 금산시온(1997년 9월 30일), 진리(1996년 10월 21일), 등대(1997년 10월 22일), 선한(1998년 9월 3일), 푸른언덕(1999년 2월 12일), 온의(1999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늘푸른(1999년 9월 26일) 등이 있다.

춘천 및 강원지역 '모교회'로서 90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춘천중앙교회는 1990년대 들어서도 지방 내 복음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우선 1989년 11월 19일 춘천 시내 후평 2동 부안초등학교 앞에 43평 건물을 임대하고 제자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는 제자교회를 위해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고 춘천중앙교회 출신인 탁학수 담임 전도사 생활비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계속해




춘천중앙감리교회 군자교회개척 창립예배와 군자교회 현판 앞에 선 전도사 부부(1990년 2월 13일)

서 1990년 2월 기획위원회에서는 박윤숙 권사가 봉헌한 교회 개척헌금 500만 원으로 군자교회를 개척할 것과 교회에서 월 10만 원씩 담임자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춘성군 동산면 군자리에 가옥을 구입하여 예배당으로 개축하고, 1990년 2월 13일 군자교회를 개척하면서 정해창 전도사를 초대 담임자로 파송하였다. 이 외에 선교부 및 남·녀선교회 지원을 받아 지방 내 미자립교회, 춘천중앙교회 출신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타지방 미자립교회, 군부대 군인교회 등을 재정 지원하였다.

계속해서 1991년 3월에는 춘성군 서면 오월리에 오월교회를 창립하였다. 이 교회는 1990년 11월 기획위원회에서 춘천중앙교회의 기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오월리에 거주하고 있던 지암교회 교인 4가정이 오월리에 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국송근 전도사를 초대 담임자로 파송하여 1991년 3월 5일 오월기도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오월교회를 마지막으로 춘천중앙교회의 1990년



춘천중앙감리교회 오월교회창립예배(1991년 3월 5일)

대 교회 개척은 끝났다. 이는 춘천중앙교회가 1990년대 들어 해외선교에 주력하고 또 1990년대 후반에는 새성전 건축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 불모지 선교 지원과 미자립교회 지원은 계속 이어져 1996년에 국내 미자립교회 26개 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였다.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선교사업과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교회 소식지를 통한 '문서선교'이다. 1989년 3월 26일 『중앙교회 소식』이란 제호로 창간된 교회 소식지는 격월간으로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행하였다. 초대 편집위원으로 출판위원장인 김기태 장로를 비롯하여 강경중 집사, 김용희 집사, 지옥봉 집사, 장정림 집사, 조은현 집사 등이 편집위원과 기자로 활동하였다. 내용 중에는 창간호부터 담임목사의 '이달의 말씀'과 곽철영 원로목사의 '성경 강좌'를 고정란으로 실었으며, 교회소식과 함께 교인들의 신앙고백, 문학작품 등을 수록하여 교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교회 소식지는 1990년부터 월간으로 발전하였고 1991년 3월 제20호부터 제호를 '춘천중앙교회'로 바꾸었다. 2000년 12월 17일, '11년 9개월' 역사를 접고 제137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면서 그 기능을 2001년 1월부터 교회주보와 통합하였다. 이후 16면으로 증면된 주보에는 예배순서와 교회소식 외에 속회공과, 선교소식, 문학작품, 신앙간증, 일반상식, 문화계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2001년 3월 23일부터는 '생명의 샘'이란 제호를 붙였다.

1991년에는 새롭게 '연극 선교'가 시작되었다. 당시 여선교회 제14지회의 회장 장정임 집사와 회원 이경애 집사가 주동이 된 연극 동호인 8명이 모여 연극을 통한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선교 성극단'을 조직하여 1991년 12월 29일 춘천중앙교회 본당에서 '선물'이란 작품을 처음으로 공연하였다. 성극단을 조직한 장정임 집사는 남편 최지순 집사와 함께 극단 혼성에서 25년 동안 연기와 연출을 하였던 전문 연극인으로서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관심과 열정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1992년 12월 20일에는 성탄극 "누굴 기다리시오"를 공연하였고 1992년부터 선교단 후원위원장 장기호 장로가 성극단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섰다.

1993년 4월 23일 부활절을 기념하여 춘천중앙교회 본당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요"라는 작품으로 제3회 공연을 하였는데, 이경애 집사가 극본을 쓰고 최



춘천중앙감리교회 부활절 기념 성극예배(1993년 4월 18일)

지순 집사가 연출을 맡았으며, 최지순 집사와 윤병근·하재성·이윤자·강유리·박상희 등이 출연하여 교인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성극단 활동은 교회 밖으로도 연장되어 1993년 4월 사할린 동포들이 사는 강촌 '사랑의 집'을 비롯하여 우두교회와 동부중앙교회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다. 1994년 12월 24일에는 교육담당 김진국 목사의 작품을 각색한 '동방박사'를 공연하였으며, 1995년 12월 24일에는 '누구를 기다리시오'를 이경애 각색·장정임 연출로, 1996년 12월 24일에는 '스크루지 놀부'를 장정임 연출로 각각 공연하였다. 이로써 매년 성탄절의 성극단 공연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1997년 6월 25일에는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극 '수궁놀이'를 공연하여 교인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1990년대 춘천중앙교회가 관심을 두고 추진한 것이 '환경 선교'이다. 환경선교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전개했던 사업 중 하나가 도농간(都農間) 농산물 직거래였다. 1993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 교회 앞마당에 '토요 장터'를 열고 화천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교인들이 소비하였는데, '토요 장터'는 1994년 '화요 장터'로 바뀌었다가 1995년 다시 '토요 장터'로 바뀌었다. '토요 장터'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무공해 농산품과 가공품 외에 곡물과 양념, 가루비누와 고체 비누 등 교인들이 직접 만든 생활용품들이었다. 이런 직거래 사업은 1995년 9월부터 '토요 장터'에 참여하는 교인들을 '생산자 회원'과 '소비자 회원'으로 나누어 서로 연결함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외에 '장애인 선교'도 계속 이어졌다. 1982년부터 시작한 임마누엘 농아인교회 지원사업도 1990년대 들어 계속하였다. 단순히 농아인들에게 예배 장소(쥬디기념관 3층)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아인교회 프로그램에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격려하며 신앙의 친교를 나누었다. 1990년 12월 2일 임마누엘 농아인교회의 학생부에서 주최한 '사랑의 축제'에 교인들이 참여하여 농아인들이 준비한 수화설교와 합창, 간증, 콩트, 성극 등을 감상하였는데 정상인 못지않은 발랄함과 유머로 교우들을 감동시켰고 농아인과 정상인 구별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매년 12월 농아인교회가 주최하는 '사랑의 축제'는 장애인과 정상인이 신앙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들어 '북한선교'도 시작하였다. 198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 붕괴에 이어 1990년대 들어 북한 지역이 오랜 가뭄과 홍수로 극심한 경제적 곤경에 처하였을 때 감리교단은 1992년 북한 주민 구호와 통일 후 이루어질 북한지역교회 재건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광복 전 북한지역 선교를 담당했던 서부연회를 재건하여 통일을 대비한 선교헌금과 북한주민 구호활동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서부연회 재건작업에 권오서 목사와 춘천중앙교회도 참여하였다. 즉, 1992년 6월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개최된 서부연회 각 지방감리사 임명예배 때 권오서 목사는 강원지방감리사로 임명받아 강원도의 휴전선 이북 지역(고성, 이천, 통천, 평강 등) 선교를 준비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권오서 목사는 교회로 돌아와 '북한선교'를 위해 1백만 원을 헌금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에 맡겨 이를 기초로 1억 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물론 여기에 교인들도 참여하였다. 또한 1995년 6월 선명회가 굶주린 북한동포를 위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때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은 1백 가마 헌금(330만 원)을 보내 동포애를 표하였다.

한편 1990년대 들어 춘천중앙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해외선교이다. 춘천중앙교회의 해외선교 의지는 이미 1969년 여선교회에서 해외 선교 기금을 모은 것에서 확인되었다. 교회에서는 1970년대 감리교단 차원에서 추진하던 일본 홋카이도와 뉴기니아 선교에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하다가 곽철영 목사가 1987년 교회 안에 해외선교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선교 기금 1억 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시작함으로 해외선교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여선교회 회원들은 20년 동안 모은 기금 1,400만 원을 1988년 교회 특별기금관리위원회에 넘김으로 교회 차원의 해외선교 착수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상

황에서 새로 부임한 권오서 목사도 1989년 목회계획을 통해 '해외 선교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 방안 연구'에 착수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준비작업은 1989년 5월에 열린 부흥회 기간 중 익명의 교인이 해외 선교비로 5백만 원을 봉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해 7월 권오서 목사는 부흥회를 인도하였던 김홍도 목사(서울 금란교회)와 함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을 순방하며 해외선교 후보지역을 물색하고 돌아왔다. 이 여행을 통해 권오서 목사는 해외선교의 필요성과 시대적 의미를 확인하였고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1990년 들어 '해외선교'는 춘천중앙교회 예배와 기도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선교 기금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후원금은 교회 밖에서도 들어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어인호 집사가 1백 달러를 보내 왔고, 서울 장안원교회로 이명해 간 양금직 장로도 평생회원으로 등록하면서 1백만 원 헌금을 보내 왔다. 그리하여 1990년 9월에 이르러 해외선교후원회원 현황을 보면 일반회원 124명, 후원회원 61명, 가족회원 16명, 평생회원 7명 등이 가입하였고 그 동안 모금된 선교기금은 5,200만원 규모에 이르렀다. 이후 춘천중앙교회에서 매년 지출한 선교비 총액은 1990년에 1,400만원, 1991년 1,900만원, 1992년 2,800만원, 1993년 6,500만원 규모로 계속 늘어났다.

선교후보지는 1989년 7월 권오서 목사가 동남아 5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아직 감리교회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인도네시아로 정하였다. 파송 선교사로는 춘천서지방 발산교회에서 시무하던 어성호 전도사를 택하여 1990년 5월 어성호 전도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 선교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준비작업을 거쳐 마침내 1990년 10월 7일, 교회창립 88주년을 기념한 '어성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



춘천중앙감리교회 어성호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현황 설명
(1990년 10월 7일)

다. 파송예배는 교단 본부 선교국 총무 강병훈 목사의 설교와 동부연회 김희도 감독의 선교사 임명으로 진행되었는데, 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의 감격이 남달랐다. 어성호 선교사는 교인들의 기대를 안고 10월 11일 인도네시아 반둥 현지로 떠났다.

어성호 선교사는 1991년 4월 일시 귀국하여 속초교회에서 열린 동부연회에 참석,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교민들의 신앙 지도와 원주민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한인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춘천중앙교회 선교부의 지원으로 1991년 12월 15일 자카르타 중앙감리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때부터 어성호 선교사는 자카르타 중앙교회를 담임하면서 교민 선교와 원주민 선교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교민 선교는 자카르타 중앙교회가 창립 1년 만에 40여 가정이 등록하였고, 수라바야에 지교회로 임마누엘교회를 설립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이에 춘천중앙교회에서는 1993년 3월 부목사로 수고하던 조시철 목사를 두 번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하여 자카르타 중앙교회를 담임하도록 하였다.

조시철 선교사가 교민 선교를 전담하므로 어성호 선교사는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993년 원주민 신학교인 자카르타 기독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폭넓은 교제를 나누며 원주민 선교를 추진하였다. 그는 직접 원주민 선교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의 원주민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춘천중앙교회의 '인도네시아





춘천중앙감리교회 조시철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예배와 예배 후 기념(1993년 3월 26일)

교역자 초청세미나'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한 연장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1주간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교류하면서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연장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1993년 8월 17일 마날루(Manalu) 목사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목회자 19명이 어성호 선교사와 함께 내한하여 오월기도원에서 5일간 권오서 목사가 인도한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한 후 춘천중앙교회와 춘천 시내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위한 교회성장세미나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1994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교역자들을 초청하는 대신 권오서 목사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자카르타 근교 산악지대 뿐짝에서 현지 감리교회 지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성장과 목회'란 주제로 교회성장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세미나 후에는 권오서 목사를 비롯한 춘천중앙교회 선교 방문단 16명이 인도네시아 최초 감리교회로 개척한 칼리만탄 뽄띠아낙교회(고 김숙희 집사 기념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1995년 8월에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인도네시아 감리교 지도자 초청 교회 성장 세미나를 춘천에서 개최하였는데, 목회자 41명과 평신도 36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의 도록사리부 감독과 존 웨슬리 선교국 총무는 세미나 후 서울의 감리교단 본부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와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 교류를 협의하였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인도네시아감리교지도자 초청 교회성장세미나 후 기념(1996년)

1996년 8월에도 인도네시아 교역자 초청 교회성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도네시아 교역자 40명이 참석하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선교 사역이 확장되었고, 그만큼 선교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춘천중앙교회는 1995년 3월 윤은진 전도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윤은진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예배
(1995년 2월 26일)

를 세 번째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하였다. 윤은진 선교사는 춘천중앙교회 이영해 권사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춘천중앙교회에 출석했는데, 춘천중앙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외에 이영해·이경해 권사가 설립한 '에스더 세계선교회'가 윤은진 선교사를 후원하였다. 윤은진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성호 선교사의 신학교 사역과 선교관 일을 돕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어성호 선교사는 1995년부터 인도네시아의 현지 감리교 목회자 양성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춘천중앙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96년 12월 '자카르타 웨슬리신학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신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권오서 목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마련해 준 양복 60여 벌과 오토바이 3대(1,150여만 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선교는 교민선교와 원주민 선교 외에 인도네시아 토착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신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1992년부터 독일선교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선교는 춘천중앙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단에서 파송 받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종만 선교사를 재정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1991년 개최된 제1차 감리교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권오서 목사에게 재정 지원을 부탁하여 춘천중앙교회 기획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매년 연회 참석 시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도 부담하기로 하여 1992년 3월부터 춘천중앙교회 소속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춘천중앙교회는 인도네시아 선교에 이어 독일선교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 선교와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춘천과 강원도의 '모교회'로서 춘천중앙교회는 복음전도와 선교사업에서 구심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복

음화와 사회 봉사활동에서도 적극나섰다. 춘천지역 초교파 연합운동 단체인 기독교청년회(YMCA)와 춘천기독교연합회에 춘천중앙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988년 7월 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에서 회관 마련을 위해 기금 모금 운동을 벌일 때 춘천중앙교회에서 3백만 원의 건축기금을 희사한 것도 춘천지역 초교파 운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춘천중앙교회는 춘천 기독교방송국 설립을 위해 주도했다. 한국의 최초 민간방송으로 1954년 설립된 기독교방송국(CBS)의 춘천지국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이미 198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이미 곽철영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아 일을 추진하였던 관계로 춘천중앙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춘천 기독교방송국 설립에 적극적인 견해를 밝히었다. 그런 관계로 권오서 목사도 부임 직후 방송국 설립 준비위원이 되었고, 1989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춘천체육관에서 개최된 '춘천기독교방송 설립을 위한 연합대성회'(강사 신현균 목사) 준비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방송국 설립에 대한 춘천 교계와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후 방송국 설립을 위한 연합성회를 매년 열었으며, 1992년 3월부터는 방송국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도 춘천중앙교회 교인들의 역할이 컸다.

1994년 9월 정부(체신부)로부터 춘천 기독교방송국 설립 허가(출력 FM 93.7, 호출부호 HLDC)가 떨어지고 방송국과 송신소 건물을 지어야 할 단계에 이르자 춘천중앙교회는 지역교회 전체 모금액의 10분의 1인 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춘천중앙교회는 지방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송신소 건축을 담당하기로 하고 1억 1천만 원을 헌금하여 동면 평촌리 느랏재에 25m 높이의 철제 송신탑과 46평 규모의 2층 송신소 건물을 지어 기독교방송국에 헌납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95년 4월 17일 기독교 춘천방송국 송신소 준공예배를 드렸고, 5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4월 30일 춘천체육관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춘천방송국 개국 축하 연합예배를 드렸다.

장학사업과 사회구제사업도 전개되었다. 1990년대 장학사업도 춘천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친 대표적인 봉사사업이다. 춘천중앙교회의 장학 사업은 이미 1969년 여선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교인 자녀와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서 시작하였고, 1981년 본격적으로 장학위원회가 조직되어 기금 모금과 체계

적인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때까지는 주로 교인 자녀 혹은 신학생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장학사업이 교회 내부 사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권오서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장학금 수혜 대상을 교회 밖으로까지 확장하여 1988년 10월 교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4명뿐 아니라 춘천 시내 일반 고등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1989년 봄에는 춘천 시내 중학생 10명과 교회학교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춘천시와 춘성군 소재 고등학교 학생 15명, 교회학교 학생 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1989년에 중·고등학생 35명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 1990년 42명에 450만 원, 1991년 58명에 610만 원, 1992년 62명에 78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 77명에 1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하기까지 발전하였다. 춘천중앙교회에서 학생 77명에게 1천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은 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93년 11월 함종한 강원도지사에게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춘천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연말 불우이웃 돕기 행사였다. 춘천중앙교회는 이미 1970~80년대 매년 성탄절 어간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기관과 군부대, 교도소 등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사회봉사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선교회, 청장년회 등 선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1988년에도 사회봉사부에서 11월 시립 갱생원, 12월 24일 시립 양로원을 방문하였으며,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청년부에서 불우이웃돕기 음식 바자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7일 군부대를 위문하였다. 또한 이 같은 연말 사회봉사, 구제활동을 1989년부터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참고로 1989년 12월에 기관별로 실시한 사회봉사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풍익보육원 방문이다. 1989년 12월 19일 여선교회 1지회와 2지회 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성도들이 박영민 목사를 모시고 화천에 있는 풍익보육원을 위문했다. 6~18세의 고아 50명이 수용된 보육원을 위하여 성경 60부와 찬송 60부, 방석 60개, 다과(35만 원) 등을 선물하였다.

이외에도 강원심신장애자 재활원 방문, 시립양로원 방문, 무지개 동산 위문,

군부대 위문, 매년 열린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 그리고 1990년 6월 17일 주일예배 후에 헌혈운동, 1990년 기독교계와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 봉사단체인 선명회를 통해서도 구제활동 등을 펼쳤다.

한편, 1992년 2월 28일 마지막 졸업생 55명을 배출하는 것으로, 중앙유치원이 문을 닫자, 그 공간에 노인대학이 들어섰다. 1990년대 들어 유치원 지원자들이 줄어든 대신 노년층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노인 선교'에 대한 목회적 관심이 깊었던 권오서 목사는 1992년 목회계획을 발표하면서 노인대학 개설을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1월 정기 임원회 결의를 거쳐 사회봉사부 산하에 경로대학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진완 장로)가 조직되었다.

입학 자격을 처음엔 60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지원자가 몰려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올렸다. 명칭은 '중앙경로대학'으로 정하였고, 권오서 목사가 학장직을 맡았고 주활 목사와 국송근 전도사가 학교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1992년 3월 17일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1기생으로 '경로대학' 개강 예배를 드린 후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수업은 교육관 2층에서 하였으며, 수업이 있는 날 점심 식사는 여선교회에서 대접하였다. 그리고 1992년 12월 8일 중앙경로대학 1기 졸업식에서 58명이 졸업하였는데, 이재근 외 4명이 개근상, 황환숙 외 18명이 정근상을 받았고, 방은숙 외 4명이 봉사상을 받았다.



중앙경로대학 졸업감사예배(1992년 12월 8일)

경로대학은 교인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어 1993년에는 2기생 63명이 졸업하였고, 이후 매년 50~60명씩 수료하였다. 수업 내용도 일반교양, 건강 강좌, 종교, 체육 취미,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특별활동도 음악반, 일어반, 게이

트볼반 등 노인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들로 채웠다. 경로대학 재학생들도 다양하였는데 1994년 당시 재학생 현황을 보면, 65~75세 연령층으로 남자 12명, 여자 40명 총 52명이었으며,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 23명(본 교회 교인 5명), 천주교 6명, 불교 4명, 기타 19명이었다.

이처럼 종교가 다양한 노인들이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 친교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94년 확정된 경로대학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2. 춘천동부장로교회의 교회개척과 선교

1989년 5월 12일 오전 11시에 교회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홍천에 은평교회를 개척하였다. 방동교회 이덕산 목사를 파송하였고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때 파송식도 같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은평교회 창립예배는 6월 4일에 드렸다.

춘천동부교회는 홍천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념교회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이며 인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먼저 희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1988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하기봉사대 파송을 1989년에는 은평교회 지원봉사로 결정하였다. 세부적인 봉사활동은 여름성경학교 운영, 중고등부 수련회 주선, 진3리 주변 지역의 노인경로잔치 실시, 미용봉사 등이었다.

한편 춘천동부교회가 희년사업의 하나로 지원하게 된 해외선교사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한인교회를 하면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던 김춘근 선교사였다. 그는 필라델피아 선교교회를 담임하며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7월 23일부터 3일간 인디오 집단 거주지를 방문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1990년도부터 선교대상으로 삼았던 또바부족이 있는 곳이었다. 춘천동부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선교가 또바 부족 선교이기에 이들이 어떤 부족인지 김춘근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자.

인디오 또바 부족은 50㎞ 지점에 있는 부족이다. 벨기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던 곳이었다. 농업 선교를 중심으로 했던 이들은 복음화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트랙터 등 모든기계들을 또바 부족에게 인수를 해주었는데 그 후 이들은 트랙터의 바퀴는 잘라서 병아리 모이통으로 사용하고 기계는 고철이 되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 삼각형으로 지어진 통나무 건물인데 돌보는 사람이 없어 흰개미가 파먹어 기둥이 많이 상해 있었다. 다만 인디오를 닮은 예수님의 성상은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2칸짜리 학교는 정부에서 지어준 건물로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거의 수업은 하지 않고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물이 없어 물을 강가에서 길어다 먹고 빨래도 하는 것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과일나무도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지 궁금했다.[126]

라고 하여 생각보다 환경이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춘천동부교회가 지원하는 또바 부족에 대한 선교는 경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과 영적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임신영 목사는 이곳으로의 선교 여행을 통해 김춘근 선교사의 인디오 선교에 대한 감동과 함께 선교의 절박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 같다.

임신영 목사는 1990년 6월 24일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다시 한번 선교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춘천동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주일을 지켰다. 그런데 단순히 선교주일을 지키고 선교헌금을 권면하는 것만으로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 현직 선교사들을 청빙하여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하게 하였다.

1990년 7일 22일 주일예배 설교는 파라과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김춘근 선교사가 하였다. 이를 통해 춘천동부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인들 간에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할 수 있었다. 1991년 7월 21일 주일은 '해외선교주일'로 정하고 총회 세계선교부의 총무로 일하던 엄순삼 목사를 설교자로 초빙하였다. 1992년 8월 30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손중철 선교사의

126) 『춘천동부교회 70년사』, 484~485쪽.

선교보고대회가 있었다.

이렇게 희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계획되고 실행된 해외선교사 파송은 비록 단독 파송은 아니지만 교회에 큰 흔적을 남겼다.

1988년 6월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할 때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춘천동부교회는 이때부터 국제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1990년 8월 31일의 당회에서는 고후(甲府)교회와 자매결연을 하기로 하고 김홍규·조규학 장로가 그 일을 추진하도록 위임했다. 자매결연은 10월 21일에 결실을 맺는데, 이날 고후교회의 테라지마 아키츠구(寺島章嗣) 목사와 그 부인 그리고 장로와 그 부인 등 4명이 춘천동부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시간에 결연서를 교환했다.



춘천동부장로교회와 일본 고후교회 자매결연예배 모습
(1990년 10월 21일)

테라지마 아키츠구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목회를 한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도쿄(東京)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같은 학교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김명숙 목사와 결혼하였다. 한국과의 깊은 관련이 있어 그는 일본 전역에서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운동에 앞장섰으며, 한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하며 참회운동을 스스로 실천하던 목사였다.

춘천동부교회는 답방의 형태로 1991년 4월 7일 고후교회의 주일예배에 임신영 목사와 김홍규 장로가 참석하게 하였다. 임신영 목사의 방문 보고에 의하면, 고후교회의 어린이와 임원들이 우리말로 찬송을 부르며 환영하였고 평신도와 젊은이들 사이에도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991년 11월 8일에는 다시금 고후교회의 목사와 교인 5명이 춘천동부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이때의 경비 일체를 춘천동부교회가 부담하였다.

1992년에 들어서면서 춘천동부교회는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전도와 봉사의 사명을 다하려는 교회의 관심이 표출된 또 한 가지는 의료봉사이었다. 이 의료봉사는 1992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8년 8월 1~5일까지 홍천에서 있었던 '하기 전도봉사활동' 당시에도 의료봉사가 있었다. 아마도 이 의료봉사가 시발점이 되어 춘천동부교회에 다니던 의료인들이 별도의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일기 시작한 것 같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 이 소망은 1990년 2월 8일에 첫 모습을 드러내었다. 오전 7시에 기도실에서 '의료인모임'을 가졌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4월 12일과 6월 7일에도 이 모임이 개최되었다. 10월 11일 모임의 이름은 '의료인모임'에서 '의료선교모임'으로 약간 변경되었다.

의료선교회로서의 첫 번째 봉사는 1990년 11월 11일 주일에 서면방동교회에서 실시되었다. 원래는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간척교회에서 하려고 하였었는데 주중에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1991년 2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의료봉사를 원칙으로 삼고 2월 24일과 3월 10일과 6월 16일에는 방동교회에서 그리고 9월 15일과 10월 20일과 11월 17일과 12월 15일에는 홍천 유치리교회에서 실시되었다. 이렇게 의료봉사는 1991년에 교회의 행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1992년과 1993년에도 의료봉사는 홍천 유치리교회에서 계속되었다. 이 의료봉사에는 남자선교회 2부 회원들이 지원하기도 하였다. 1992년 2월 16일, 10월 18일 그리고 1993년 5월 16일, 10월 17일이다. 이 의료봉사는 1991년부터 교회에서 확고히 정해진 행사가 되었다. 그래서 첫 달 첫 주 주보에 실리는 '목회계획'이나 '교회중요행사'에 항상 기재되었다. 이것은 봉사와 전도가 함께 어우러진 섬김이었다. '의료선교진료봉사'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해준다.

한편 해외선교사 후원 및 파송도 전개하였다. 희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해외선교사 파송은 파라과이에서 인디오 원주민을 선교하는 김춘근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춘천동부교회는 해외선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춘천동부교회가 힘을 기울여 하고있는 개척교회 지원과 선교 후원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992년 2월 28일에 모인 당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당회는 당회장과 권오창·김태권·이춘석 장로로 구성되는 교회 장기 발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을 만들어 당회에 보고

하도록 가결했다. 이 위원회가 논의하여 만든 안은 해외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자는 것이었다.

1992년 10월 2일에 모인 당회에서 해외선교사 파송 신청과 관련해 총회 세계선교부에 나라와 인선 등을 하여달라고 하였으며, 통보받는 대로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10월 4일의 제직회에서 "해외선교사 단독 파견을 위해 필요한 선교 대상국과 선교사 선정을 총회선교부에 청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마도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선교비의 일부만 보내는 것보다는 한 선교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교후원이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단독으로 파송할 선교사와 선교지 선정을 위임받은 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영하 목사를 추천하였고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이 결정은 1992년 11월 중순쯤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1월 목회계획(교회행사)이 주보에 나가는 11월 1일 주보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교회와 이영하 목사의 맞선은 11월 29일 주일예배에서 이루어졌다. 그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아내 주인순과 함께 세 딸을 두고 있었다.

이영하·주인순 선교사 파송예배는 12월 6일 찬양예배 시간에 드려졌다. 인도는 엄신영 목사가 하였고 기도는 김정희 장로가 하였으며, 성가대가 찬양을 하였다. 총회 해외선교부 총무인 임순삼 목사가 '좋은 소식 전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고 당시 총회장이던 한영제 장로가 파송장을 수여하고 격려사를 한 뒤 박안귀 집사의 특별 찬송이 있은 뒤 강원노회장이던 엄충용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참석한 교인들에게는 단독으로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감격과 감사가 넘쳤다.

피송예배를 마친 이영하 선교사는 12월 27일 주일예배 설교를 하며, 가는 선교사로서 보내는 선교사인 교우들과 다시 한번 훈훈한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12월 29일에 콜롬비아로 떠났다.

이영하 선교사는 춘천동부교회가 단독으로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의 파송도 받아야 했다. 1993년 3월 5일에 모인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영하 선교사를 노회에 선교목사로 청원하기로 결정하고 4월 15~16일까지 함백중앙교회에서 모이는 80회 노회에 청원을 하였다. 이 청원은 허락을 받아 이영하 선교사는 교회법적으로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

춘천동부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콜롬비아에 처음 정착하여 자리를 잡는 데는 아무래도 선교비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팩스를 구입하고 그 외 정착 비용으로 6,000달러를 보내기도 하였다. 1993년 8월 1일 주일은 '해외선교주일'로 지키며 이영하 선교사와 그 가족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특별히 하기도 하였다.

3. 춘천신성감리교회의 국내외 선교

신성감리교회의 국내 선교는 다음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국내에 직접 교회를 개척하였다. 신성교회 사역자로 시무하던 이가 개척하는 경우에는 처음 개척에 필요한 상당 부분의 비용과 개척사역자의 생활비를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책임졌다. 1988년에 조남극 전도사가 삼척 용화리에 용화교회를 개척하였고, 같은 해에 이창근 전도사가 원통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였다. 허작 전도사가 예수소망교회를, 2011년에 박유식 전도사가 나눔교회를 개척하였다.

두 번째 선교의 방법은 어려운 연회에 속한 교회를 돕는 것이었다. 동부연회는 원래부터 미자립 교회가 많았다. 동부연회 선교의 선교구역인 강원도가 산간지방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재정이 어려웠다. 인구가 워낙 적은 산골지역에는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 없었거니와 교인이 어느 정도 있다하더라도 생활이 몹시 어려웠다. 동역자의 도움이 있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부터 동부연회 선교구역에 유명한 광산들이 대거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급격히 도시가 와해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폐광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오랫동안 자원을 캐내어 자원이 고갈된 곳도 있었지만, 주원인은 주원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급속하게 대체되었기 때문이었다. 주 연료가 대체되면서 석탄광이 대거 폐광되었다. 그러므로 지하자원을 보고 몰려들었던 인구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감으로 교회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전에 유력했던 교회도 1990년대에 들면서 자립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동부연회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있는 교회에서는 동역자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함께 선교적인 어려움을 나누어지어야만 어려움에 처한 산골지역과 폐광지역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사실 주님

의 복음이 가장 절실한 이들은 이와같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사는 이들이었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 선교단체나 기관을 후원하는 일이었다. 특히 어린이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전도협회를 비롯하여 정신지체자를 섬기고 있는 한국정신지체인협회,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원노인복지회, 군선교 후원, 자신의 보직과 관련이 있던 춘천시기독교연합회·서부연회·CBS춘천방송국·사랑의 집짓기·성시화운동본부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후원해 왔다.

해외선교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88년 필리핀의 차홍식·이춘희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신성교회 단독으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였다.



필리핀 실랑 신성감리교회 기공예배

신성교회를 통하여 필리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카비테주의 실랑지역에 위치한 실랑신성교회(Holy Faith United Methodist Church)교회이다. 이 카비테주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22Km 떨어진 수도권 도시이며, 그중 실랑(Silang)지역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실랑 신성교회는 신성교회의 헌신으로 1차로 대지 300평을 구입하였고 원주민을 위한 교회를 설립하여 김창수 목사를 비롯하여 심인섭 장로, 장준홍 전도사, 정병석 장로, 김선희 권사 등과 함께 기공예배에 참석했다. 그 후 1997년 철근 콘크리트 30여 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후 지방회와 교인들의 후원으로 필리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 춘천동지방 남선교회가 후원하여 카비테주의 트레세 마르티레스 교회가 세워졌고 1996년에 봉헌되었다. 1997년에는 멘데즈교회(Mendez UMC)가 건축되었다. 이 교회는 실랑지역에서 남서쪽으로 15Km 거리에 있으며, 권영화 장로·김금예 권사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당초 이 교회는 개척되어 예배 처소가 없이 일반가정

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으므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선교를 위해 헌신한 2번째 교회이다. Mendez는 해발 700m의 고산지대로 커피가 생산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다음으로 1998년 최동우·김종예 장로 부부의 후원으로 생수교회가 세워졌다. 불라칸주 생수감리교회(Church of Living Water UMC)는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노력으로 급속히 자립하였으며, 1998년 성전을 봉헌하였다. 불라칸은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4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980~90년대에 동지방에서는 독일선교회를 조직하여 14개의 후원교회와 함께 독일 선교사로 이창기 선교사를 파송하여 독일선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창기 선교사는 독일에 미군기지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곳에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국인 15~20명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선교활동을 하여 그들이 유럽에 머무는 동안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 교회는 독일의 루터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렸다. 김창수 목사가 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소리가 가정집에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를 하다 보니 문을 다 닫고 조용조용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 이창기 선교사는 네덜란드 선교를 하면서 헤이그에 이준 열사 기념교회를 세웠다.

한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 선교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나 활동에 제약을 받아 적극적인 선교를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대를 위주로 하여 선교하기 시작했다. 서부연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책이나 쌀을 주어 북한에 가서 전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탈북자를 도와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돌봐주는 사역을 하였다.

조선기독교연맹 지도자들과 만나서 북한 주민들이 옥수수가루, 의약품, 산양을 기를 수 있도록 보내주는 일을 했다. 1997년에 김창수 목사는 동부연회 감독이 되면서 중국선교회를 조직하여 중국 선교사를 후원하였다. 1998년부터는 연길에 신학교를 세워서 매주 동부연회 목사들이 한 달에 2명씩 들어가 월~금까지 가르치고 한 달 후에 돌아오는 식으로 했으나 2011년에 금지를 당했다. 그 후로도 심양과 연길 쪽으로 가서 조선족을 상대로 하여 중국과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평양을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이 서부연회 소속이었는데, 1996~98년도에




북한 칠골교회에서 설교하는 김창수 목사와 예배 후의 상견례 모습

김창수 목사는 서부연회 감독을 맡으면서 서부연회를 북한을 선교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 중국 삼성(길림성 · 요녕성 · 흑룡강성)의 조선족 교회와 북한 교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었는데 감독을 하면서 북한과 교류가 시작되었다. 한국 감리교 목사로는 가장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조선기독교연맹으로 협약을 하고 왔다. 전쟁에 쓸 수 있는 물품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물품을 가지고 평양에 갔다. 조선기독교연맹 강영섭 위원장과 교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북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 순회하면서 다녀왔다. 북한 신학교를 방문하여 신학생을 지원해주고,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면서 북한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이후로부터 북한의 어려운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북한선교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기타 1990년에는 인도 원주민 신학교생 1명을 지원하였고, 1994년 이후에는 인도의 박진균 선교사를 후원하였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정순호 선교사, 박형선 선교사, 탄자니아 송귀섭 선교사, 몽골의 김소영 선교사 등을 후원하였다.

4. 춘천우두감리교회의 선교와 종교안보강연

1997년에는 '우두에서 땅 끝까지 가정에서 세계로!'를 표어로 정하였다. 그 결과 1994년에는 우두교회 최초로 안창원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파송하게 되었다.





필리핀 단기선교팀 현장 사역 모습(1997년)

그리고 1997년에는 우두교회 최초로 김영원 목사를 단장으로 하는 필리핀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여 1주일간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와같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선교를 넘어 세계선교에 나설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00년 들어와서는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로 정하였다. '목숨을 건다'라는 비장한 각오로 교인들의 열심있는 신앙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두교회는 교회 창립과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였다. 1995년 10월 26일 목요일에는 쥬디 선교사 부부가 우두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1950년대 춘천선교에 힘쓰며 특히 우두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1983년 은퇴하여 귀국한 후에도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특히 쥬디 선교사의 부인 주진주 장로는 우두교회 창립에 큰 공헌을 한 브레넌(부라만) 선교사의 딸로서 우두교회에 대한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었다. 1950년대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지역선교에 힘을 쏟던 우두교회가 지속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 부부는 크게 기뻐하였다.

한편 우두감리교회는 군 및 경찰 선교와 종교안보강연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두교회가 위치한 춘천은 동부전선의 여러 부대가 인접해 있어 군선교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군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였다. 군에 입대하여 외롭고 고단한 생활을 할 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김영원 목사는 춘천을 오가는 수 많은 군인들과 경찰을 보면서 우두교회가 바로 이들을 위한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984년 3월 25일 우두교회는 저녁예배를 경찰선교를 위한 헌신예배로 드렸다. 김영원 목사는 "국가안녕질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찰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된 헌금을 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광고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경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선교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였다.

1986년부터는 사단 포병연대 633대대 대은교회 군종병 이재수 상병이 우두교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군선교의 길이 열렸고 자매결연을 하게 되었다. 성탄절, 부대창립기념일, 유격훈련, 진지훈련, 혹한기훈련 등 부대행사 시 위문을 하였다. 우선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위해 50만원의 예산으로 난로 9개를 구입하였다. 선교부원을 중심으로 교인들은 부대를 방문하여 난로를 전달하고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이후 우두교회는 지속적으로 자매부대와 깊은 유대를 맺어 여러 차례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우두교회 김영원 목사가 군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근 군목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군목들은 김영원 목사에게 군선교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도왔다. 1993년 7월 13일에는 52연대 4대대 교회 창립예배가 있었다. 오정균 집사, 이종택 권사, 이순분 권사, 김옥주 권사 등의 후원금을 모아 김영원 목사가 부대교회로 방분하여 그 교회에 헌금하였으며, 장병들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받침이 될 것을 기도하였다.

1996년에는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계방산 운두령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702특공연대에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김밥(쌀 가마 반 분량) 계란 3,000개 초코파이 등 1차 500만원, 2차 250만 원을 들여 위문하였다. 1998년부터는 교회에서 군 선교주일을 따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하였다. 이 주간에는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인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군 선교주일 헌금은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군 선교는 더욱 활성화되어 각 지역마다 군선교연합회를 조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적극적인 선교지원을 감당하였다. 2000년 10월 22 일에는 군선

교연합회 동부지회 헌신예배를 우두교회에서 가졌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인 선교명령에 따라 전군복음화를 목적으로 모인 선교회로 비전 2020운동을 통하여 전군을 복음화함으로써 21세기 민족복음화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이때 모여 지원책을 강구하여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는 611자동차대대 안의 성실교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교회는 담임목사가 없고 한택수 소령 부부가 눈물의 기도로 섬기면서 새롭게 증개축하는 교회였다. 또 2000년 12월 3일 주일저녁 예배에는 22연대 1대대교회 건축헌금 모금 예배로 22연대 대득교회 조경춘 목사가 설교하면서 군선교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매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하는 행사는 계속 이어져 2003년 12월 21일에는 자매부대인 633포병대대 위문행사가 있었다. 이듬해인 2004년 9월 27일에는 남자권사들이 최전방 철책인 51연대 소초를 방문하였다.

김영원 목사는 또한 군 종교안보강연의 주 강사로 활동하였다. 평소 김영원 목사는 군부대 장병들의 안보의식이야말로 나리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리를 지키는 힘은 결코 좋은 무기와 군인들의 수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철통같은 안보의식이야말로 국가 수호의 가장 큰 힘이다. 김영원 목사의 종교안보강연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 소문난 강사가 되었다. 1998년부터 거의 매년 6월 중에는 여러 부대의 종교안보강연 초청을 받았다. 누구보다 김영원 목사는 종교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바쁜 중에도 결코 강연을 사양하지 않았다. 그의 종교안보강연의 발걸음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1998년 이후 종교안보강연회 및 군부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1998년 6월 30일	633부대 (자매부대)
1999년 5월 30일	각 부대에서 전군신자회를 위한 종교안보강연
6월 27~28일	강원도 감리교 군목단 위로회
2000년 8월 17일	사단포병연대
10월 4일	23연대 1·2대대
10월 6일	3033부대, 방공단
2001년 3월 18일	15사단교회에서 설교
6월 13일	사단포병연대
6월 14일	11사단포병연대

날짜	내용
6월 15일	15사단
6월 26일	12사 51연대 개 대대
6월 27일	사단 연대 7.19 12사단 51연대 개 대대
10월 6일	102 여단 조찬기도회 인도
10월 28일	수방사 군종병 영적 세미나 강의
11월 21일	3사관학교
2002년 6월 19일	특전교육단
6월 20일	21사 66연대
2003년 7월 16일	705특공연대
8월 3일	56사단
8월 13일	11사단 13 연대
8월 27일	육군교도소
2004년 1월 11일	2군지사교회
6월 4일	부사관학교
6월 15일	공병여단 2개대대
6월 17일	부사관학교
7월 22일	66연대 3개 대대
7월 22일	12사단 37연대 2개 대대
2005년 6월 30일	5기갑여단 3개 대대
2007년 7월 18~19일	항공작전 사령부
2008년 7월 31일	20사단 직할대
2009년 6월 17일	맹호사단 3개 부대
9월 9일	논산훈련소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와 연합하여 평화통일 공동주일을 지키며 서로의 왕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적이 있었다. 우두교회도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운동을 지지하며, 1990년부터 몇 년간 8.15광복절에는 평화통일 기도주간을 지켰다. 평화통일 기도주간은 1988년 남북교회가 협의하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결의하여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1993년 9월 19일 저녁예배는 북한성서사업을 위한 순회예배로 서울 상도교회 김경식 장로를 초빙하여 북한선교의 현황을 듣고 전 교인이 힘껏 기도하였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4월 17일부터 일간 북한고위층 귀순용사 김복남 전도사 간증

집회를 열고 북한선교에 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과의 관계는 때로는 화해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강경기류로 흐르곤 하였다.

김영원 목사는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북한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선은 안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군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그는 안보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 대한 선교적 지원보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철저한 안보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일례로 2002년 1월 20일 김명덕 형제를 초빙하여 간증을 들었다. 김명덕은 탈북자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비서관이 되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우두교회의 군부대 교회건축 및 수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633부대 대은교회 건축 : 최인혁 장로 3.000만 원 헌금과 성도들의 건축헌금
- 7사단 5연대 3대대 사랑의 교회 : 여선교회 500만 원 헌금으로 창고를 교회로 리모델링
- 12사단 52연대 2대대교회 : 폐 간부식당을 교회로 리모델링 750만 원 지원(이종택 권사)
- 12사단 51연대 3대대교회 : 구 막사를 교회로 리모델링, 250만 원 지원
- 21사단 66연대 2대대 무학교회 : 700만 원 지원
- 21사단 포병연대 교회건축 : 300만 원 지원
- 3기갑여단 660대대 베델교회 건축 : 300만 원 지원
- 2군단 702특공연대 불사조교회 건축 : 700만 원 지원
- 36사단 연대교회 : 300만 원 지원
- 2군단 한빛교회 : 200만 원 지원
- 12보급대대 교회 : 300만 원 지원
- 12사단 51연대 진부령대대교회 : 1.000만 원 지원(공사를 이영식 권사가 맡아 함)
- 2사단 포병연대 교회수리 : 1.000만 원 지원(이영식 권사 인건비 봉헌)

우두교회는 혹한에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전방 철책에 십자가 점등식을 하며 병사들에게는 훈훈한 사랑을 주고 북녘에는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12사단 37연대 50소초는 점등식이 있기 몇 개월 전에 해당 연대장이 병사들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돼지머리로 제사를 지낸 후 부비트랩의 폭발과 심장마비

로 세 명이 순직하게 되었고 순직한 곳마다 기념비가 세워졌다.

그 후에 밤이 되면 기념비를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귀신이 덮친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연대장이 군종목사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함으로 우광혁 군종목사가 십자가를 세우고 점등식을 해달라고 우두교회에 요청했다. 십자가 선교회(이근형 장로)에서 철탑 십자가를 세우고 우두교회는 점등식과 함께 돼지 세 마리와 위문품으로 병사들을 위문하였다. 그 후로 병사들이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더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성탄절 군부대 십자가 점등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사단 37연대 50소초, 12사단 37연대 3개 소초, 향로봉 선점중대, 52연대소초, 25사단 73연대 소초, 7사단 5연대, 27사단교회 등이다.

우두교회에서는 또한 매년 2사단, 5사단, 7사단, 12사단, 15사단 등을 방문하여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문하며 간식과 세탁기 등 군부대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였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로 인해 김영원 목사의 별명은 병사들에게 '몽셸통통목사'로 불렸다.

찬양선교단은 1995년에 조직되어 군단 포병여단교회를 시작으로 거의 15년 동안 전국의 군부대를 다니며 군장병들에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다. 찬양선교단은 청년들로 구성되었으며, 김호영·성낙춘·조병옥·최문길·정호규·이희주·김선홍 장로 등이 함께 동역하였다. 군 교회와 병사들을 방문하며 '몽셸통통'을 나누어주고 위로의 시간을 함께하였다. 찬양선교단은 매주 주일저녁에 찬양 사역을 하였다. 군부대 위문 계획이 잡혀 있으면 군부대 교회에서, 위문이 없을 때면 본교회에서 주일저녁 찬양예배를 인도하였다. 또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2박3일 혹은 3박4일의 일정으로 전국순회 찬양선교 사역을 하였다.

5. 춘천제일장로교회의 선교

도내 장로교회의 모태가 된 제일교회는 춘천동부교회와 함께 지난 1939년 5월 7일 박민식 장로의 집에서 드린 예배로 시작됐다. 첫 명칭은 춘천읍장로교회로, 이후 소양로에 있던 홍아여관 2층으로 이전하면서 소양장로교회로 이름을 변경했

다. 이듬해인 1940년 조택수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다시 춘천장로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1946년 동부교회와 분리됐으며 춘천시 낙원동 현 위치에 성전을 개축하기로 결정하고, 방효정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듬해 교회당 신축과 함께 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교회당이 전소돼 판자교회 시절을 거쳐 1954년 교회를 재건했다. 교육에도 힘을 써 1952년 성수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춘천제일장로교회는 미자립교회와 군인교회, 신학생을 보조하고 전도와 새신자 교육 활동이 활발하지만, 무엇보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1989년에 선교위원회 조직을 확대해 케냐와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 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간다, 독일, 브라질,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지로 선교지를 확대하였다.

특히 교회설립 60주년이 되는 2001년에는 몽골에 선서글렁제일교회를 세웠으며, 그 후에도 2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는 등 몽골에만 6개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교회 개척 외에도 몽골선서글렁 초등학교와 몽한선교문화센타를 여는 등 활발한 선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제일장로교회 헌당식 및 김길용·원익환 장로 장립기념 (1960년 8월 22일)

교회 관계자는 “70년간 지역의 중심교회 역할을 해왔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아 영혼구원과 선교,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전을 새롭게 새겨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이라 하였다.[127]

127) 『뉴스파워』(2009.6.12), 「춘천제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6. 춘천동부장로교회의 선교와 봉사

춘천지역에 직장인들이 만든 '춘천직장선교회'가 1990년 4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에 발기총회를 춘천동부교회에서 하였다. 직장선교회는 이미 춘천동부교회 내에 조직되어 있던 도청선교회나 금융기관선교회 등이 발전된 형태로 다른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직장선교회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임이 춘천동부교회 안에 조직되는데, 1991년 4월 26일 금요일에 모인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춘천전문대학 교수들의 모임이 그것이다. 춘천직장선교회가 그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행사가 1992년 8월 2일 주일에 일어났다. 춘천직장선교회가 주관하는 '춘천시성시화를 위한 연합예배 및 예수평화 대행진이 그것이다.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시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예수 평화 대행진'이 있었고 저녁 7시 30분에는 춘천제일감리교회에서 전 과기처 장관인 정근모 장로를 강사로 초빙하여 연합예배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다. 춘천동부교회는 당일 저녁예배를 없애고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 2일자 주보에도 찬양예배 순서를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예배' 순서로 대체하였다.

춘천직장선교회와의 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1992년 12월에 일어났다. 12월 27일자 주보에 '직장인 정오예배'라는 제목으로 "29일(화) 정오 12시 본당에서 춘천시내의 직장인들이 매월 마지막 화요일 점심시간에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직장인 정오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춘천동부교회가 1992년 12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직장인 정오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다. 이 정오예배는 1993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 달에 2번 드려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3월과 11월이 그랬다. 이렇게 춘천동부교회가 직장인 정오예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직장인선교회는 1993년 5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동부교회에서 창립4주년 예배'를 드렸다. 춘천동부교회가 이 '직장인 정오예배'에 대해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는 매달 첫 주 주보에 싣는 '목회계획'에 이 정오예배에 대한 광고를 실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직장인 정오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내어주는 배려와 함께 춘천동부교

회는 기독교방송 설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독교방송국(CBS)의 춘천지국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미 1987년에 시작되었다. 그해 6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중앙감리교회에서 '춘천기독교방송국 설립추진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위원장은 중앙감리교회의 권오서 목사였고 춘천동부교회에서는 임신영 목사와 구연창, 김재호, 김홍규, 김정희, 권오창, 박상만, 김이훈, 이계정 장로가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1988년 5월 15일 주일에는 춘천시청 광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춘천기독교방송설립을 위한 걷기대회'가 있었다. 춘천동부교회는 이 대회가 2부 예배 후에 교회 정문에서 출발하여 시청광장을 거쳐 종합운동장으로 가고, 5월 1일 주일부터 3주 동안 주보에 싣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하였다.

7. 순복음춘천교회의 교회개척과 선교 및 사회봉사

순복음춘천교회의 당회장 김주환 목사의 꿈은 춘천 시내에 10개 교회창립을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교회인 베드로순복음교회가 4월 3일 본교회 창립일과 같은 날에 창립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에서 5천만 원의 입주 전세금을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일정액의 담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 후 완전 독립시킨다는 조건으로 춘천 시내에 10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 것이다.

강원지방회 총무 오대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창립예배는 홍영준 목사(지방회 회계)의 대표기도, 엘칸토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백승호(증경지방회장) 목사의 설교, 김주환 목사의 교회 창립 및 취임선포가 있었다. 이어 하기철 목사(지방회부회장)의 권면, 정원희 목사(광주순복음교회 담임)의 축사, 명성훈 목사(교회성장연구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담임 이춘일 목사의 인사가 있고 난 뒤 김주환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이어 안드레순복음교회(채두병 목사)가 1996년 6월 4일 창립예배를 창립되었다. 안드레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에는 홍종대 집사(홍종대치과 병원장)가 3천만 원의 지원과 순복음춘천교회의 2천만 원을 보태 5천만 원의 개척자금을 마련하였다.



순복음남춘천교회(현 순복음조은교회) 창립예배 기념
(1999년 10월 19일)

1999년 10월 19일에는 남춘천순복음교회(현 순복음조은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5년간 순복음춘천교회 부목사로 사역해 왔던 오의석 목사가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교회 개척자금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자립할 때까지 교역자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교회는 춘천시 근화동 710-39번지에 세워졌으며 허강인 목사의 사회로 창립예배가 진행되었다. 여성운 목사(서원주순복음교회)의 기도, 엄기봉 목사의 성경봉독(행 2:37~47), 전호연 전도사의 축가가 있은 후 김주환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이어 개척자금 전달식이 있었다. 김주환 목사는 설교에서 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② 가르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③ 물질로 드리며 나누는 교회 ④ 칭송을 받는 교회 ⑤ 찬송하며 구원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해외선교회 창립예배가 1989년 3월 5일 오후 7시 지달건 장로 집례로 있었다. 조은제 집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성경 빌 4:14~20절 말씀을 봉독한 후 「선교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제목의 설교가 김주환 목사에 의해 선포되었다. 설교에서 "교회는 선교가 사명이며 우리교회가 늦었지만 창립 17년을 맞아 해외선교를 위한 선교회를 창립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한 후 그동안 일본 등 해외선교에 힘써 온 조은제 집사, 김진현 집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진현 집사의 선교회 발기 취지 설명이 있은 후 헌금과 축도로 끝났다.

1997년 6월 22일에는 춘천지역 일본선교회 헌신예배가 연합예배로 모였다. 평화교회 한균 목사의 인도로 헌신예배에는 강사로 미국 시애틀 유니온 신학교 학장 조희도 목사가 초청되었다. 조은제 장로가 앞장서 이끌고 있는 춘천지역 일본선교

회는 춘천지역 여러 교회 성도들이 회원으로 되어 1년에 한 두 차례 일본단기선교를 떠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 의사회에서는 1989년 7월 30일 춘성군 남면 가정리에서 1일 봉사활동을 했다. 조은제(정형외과), 김유관(소아과) 2명의 의사와 간호사 등 여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순덕 선교사의 소말리아 파송예배가 1990년 12월 16일 오후 7시에 있었다. 김진현 집사의 기도, 시온찬양단의 찬양, 성경 행 1:8절 말씀이 봉독에 이어 당회장 김주환 목사의 이순덕 선교사 안수기도가 있었고 이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조남진 장로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본교회 출신으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는 만큼 온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할 것과 이 선교사의 건투를 기원했다. 이 선교사의 인사가 있었고 김주환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1년 정도 지나서 교회사무실에서 근무해왔던 최은순 선생이 1991년 1월 6일 인도선교사 훈련을 위해 인도로 출국했다. 최은순 선교사는 예수전도단의 일원으로 일정한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남진선 선교사의 중동지역 파송예배는 1995년 4월 2일 오후 7시 김주환 목사 인도로 있었다. 최진태 간사의 기도에 이어 시온찬양대의 찬양, 성경봉독 후 남진선 선교사의 말씀이 증거되었다. 강원대와 장로교 신대를 졸업하고 본교회 출신으로 본교회에서 전도사를 역임한 바 있는 남진선 선교사는 중동지역의 선교를 위해 출국하게 되어 이날 파송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남선교사는 "회교권에 속하여 기독교 전도가 불가능한 땅으로 파송되는 만큼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고 기도부탁을 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어 당회장 김주환 목사의 파송 기도가 있었고 남진선 선교사의 인사로 모든 순서가 끝났다.

1993년도 첫사랑의 실천헌신예배가 2월 7일 저녁 7시 있었다. 홍종예 권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성경봉독과 모두의 찬양이 있은 후 김주환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김목사는 새해 처음 드리는 사랑의 실천헌신예배의 뜻을 밝히시면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서 순복음춘천교회가 동선교회를 통해 이웃을 섬겼던 정신을 재현하여 사랑의 실천을 하자고 역설했다.

1998년 8월에는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인 동조직을 선교의 발판으로 만들어 전



동선교회 헌신예배 모습(1998년 11월)

도와 구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회의 대사회봉사활동을 펴나가기 위한 동선교회가 춘천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발족됐다. 10월부터 춘천 시내 각 동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동선교회에서는 그 동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활동과 극빈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각 동과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이 결과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달라졌고 행정기관에서도 교회의 선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동선교회는 만천리로 교회에 옮긴 후에도 계속되다가 혜민사랑의집을 운영하면서 선교회 활동이 약해졌으나 동선교회 활동을 통한 교회의 이미지는 많은 시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한편, 춘천시 환경미화원 초청 사랑의 잔치가 1998년 4월 21일 본교회에서 있었다. 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환경미화원 초청잔치를 통해서 시내의 환경미화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0년대 들어와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 환경미화원 초청잔치는 약 200명 전후가 참석하고 풍성한 음식과 선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20여 명씩 전달하였다.



춘천시 환경미화원 초청 사랑의 잔치 및 장학금 전달식
(1998년 4월 21일)

외국인 교회 교인들의 내한 예배도 있었다. 1995년 8월 6일 오후 8시 일본 새

예루살렘교회 교인 150명이 내한하여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김주환 목사 인도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서희숙 권사의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시온찬양대의 찬양 후 일본 새예루살렘교회 나가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다.

타지크공화국 기독청소년 초청예배가 1995년 11월 19일 오후 7시 김주환 목사 인도로 있었다. 김영자 집사의 반주와 지덕규 청년회장의 찬양인도가 있은 후 시작된 이들 예배는 오의석 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이 있었고 타지크공화국에서 온 기독청소년찬양단의 찬양이 있었다. 우리말 찬송도 배워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 이어 타지크 공화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분 선교사의 선교보고 겸 간증설교가 있었다.

제4장
21세기 춘천기독교의 역할과 미래

»

1절 2000년대 춘천기독교 개관

1. 정치 · 사회적 상황과 기독교

세계 인류가 '새천년'(New Millenium)이라 부르며 기대를 하고 맞이하였던 2000년대가 그리 밝은 전망 속에 시작된 것만은 아니었다. 반세기 세계 질서를 양분하였던 동·서 냉전 체제가 붕괴한 후 이데올로기 갈등과 분쟁은 사라졌으나 그 대신 종교와 민족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을 비롯하여 지구 곳곳에서 인종과 종교 분쟁이 이어졌다. 게다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장기 불황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 상황에 부닥친 나라도 여럿이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0~80년대 불안정한 기반 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적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부터 국제금융기구(IMF)의 통제와 관리를 받으면서 경제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와 경제적 빈곤층이 양산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제 되살리기 운동에 적극적 참여하여 한국은 2년 만

에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2002년 월드컵 세계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냄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는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반도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불거진 '북핵 문제'는 한반도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고 갔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견제와 경쟁은 세계 평화의 불안 요소로 주목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여러 차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 통일과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6·15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여기에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민간 차원의 '북한주민 돕기운동'과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사업 등도 남북 화해와 통일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민족 화해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종교와 민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계 국가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강원도의 경우, 민선 2기(1998~2002) 김진선 도지사의 도정 핵심은 '도민통합'과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었다. 영동과 영서로 분리된 도민의 정서를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선 2기 도정의 대표적인 사업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과정에서 세계화와 강원도의 브랜드 제고에 성공적이었으며, 내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를 끌어냈다. 2001년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전개통되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했다.

또한 민선 2기(2002~2006) 4년간 기업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241개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도 민선2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농어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을 통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도 불리었다.

김진선 지사는 가장 강원도 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메이드 인 강원도 시책을 만드는 일에 어느 때보다 주력하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강원도에서 금강산 뱃길이 열리면서 남북교류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립하여 지방의 역할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2011년부터 강원도지사를 3선 연임한 최문순 지사는 2012년도를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고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이를 이루는 데 도민역량을 모아나갔다.

특히 2012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강원도의 자존감을 높이고 도민 자긍심 고취와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성숙한 도민의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와 비전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 결집 등을 위해 도민 캠페인으로서의 '문화도민운동'을 추진해 나갈 기반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 유관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여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자발적인 범 도민 실천 운동으로 추진하여 도민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춘천에도 2000년대에 들어와 큰 변화가 있었다. 2012년 2월 28일 국내 처음으로 경춘선에 최대 시속 180km 준고속열차인 'ITX-청춘'이 개통되고 2018년에는 춘천시청사가 준공되었으며, 2022년 5월 5일에는 춘천시 중도동에 개장한 대한민국 유일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개장되었다.

이 같은 '위기와 극복'의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 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선 1970~80년대 이룩했던 놀라운 교세 성장 속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실한 둔화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청년·학생 등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일부 교회가 보여준 세속주의, 물량주의 행태와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윤리 문제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더욱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 교회는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기 정화(自己淨化, selfpurification)가 필요했다.[128]

128) 『춘천중앙교회사』(1898~2006), 770쪽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감리교회는 2003년부터 '영적대각성 운동'과 함께 '양심회복운동' 및 '3백만 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침체와 위기 상황에 처한 교회가 '처음 사랑'(계2 : 4)을 회복하고 영적 권위와 활기를 되찾아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신앙의 힘으로 민족과 세계 구원이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지와 희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로 재명명되었고, 2년이 되어도 여전히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기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2월 23일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651,918,402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6,656,601명이며, 2022년 12월 21일 현재 총 13,073,712,554회 백신이 투여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 의하면 2022년 12월 23일 현재 대한민국도 확진자 28,534,558명(발생률 55.3%)이고 사망자가 31,674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4월 이후 각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기관 및 속회(구역예배) 같은 소규모 모임 및 예배는 드리지 못한 채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은 교회에서 두드러졌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코로나19 방역과정을 통해 드러난 교회의 대응, 즉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몇몇 집단의 비상식적 방역행위, 비대면 예배에 대한 교회 간 갈등, 방역수칙 미준수에 의한 감염자 확산, 그리고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교회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불신감 등은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의 정체성 및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게 했다. 그리고 감염 및 사망에 의한 상실감, 거리두기에 의한 단절과 소외, 사회로부터의 교회 및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적지 않은 심리적 상처에 노출되었다.[129]

129) 김진영,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영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73호, 2021, 282~283쪽 참조.

2. 춘천지역의 기독교 현황

2000년대 들어와서 기독교의 교세는 대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각 교단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감리교의 경우 한국감리교 전체 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교회 수와 교역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교인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세현황 (단위 : 개/명)

연도	2000	2003	2005	2007	2010	2013	2016
지방수	22	22	22	24	24	24	24
교회수	569	588	605	618	641	659	677
교인수	98,282	101,916	108,409	114,901	115,252	114,688	108,021
교역자수	711	752	791	822	905	954	985

*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도별 교세현황」(각 연도 5월 기준).

춘천지방회의 교세도 2000년대 들어와서 소폭 성장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다. 1950·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의 춘천지방회 교세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감리교 춘천지방회 교세현황(1950~2000년대)

동부연회 지방	1958			1988			2008			2018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교인수	교역자수
춘천동	39	3,169	38	39	10,217	43	29	8,480	38	34	6224	49
춘천서				28	7,883	31	31	9,433	56	42	10083	72
춘천남				30	7,060	39	32	11,810	56	34	7637	55
춘천북							27	6,532	37	29	3231	37
계	39	3,169	38	97	25,160	113	119	36,255	187	139	27,175	213

* 자료 : 기독교대한감리회, 『1958·1988·2008·2018년 연회록』 참고.
*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전도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의 표에서와같이 1958년도 교회는 39개소, 1988년은 97개소, 2008년은 119개소, 2018년은 139개소로 꾸준히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교인 수는 1958년 3,169명에서 1988년 지방회가 세 지방회로 나누어졌을 때 25,160명으로 30년이 지나면서 8배 정도 늘었다. 2008년에도 계속 성장하여 교인이 36,255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27,175명으로 줄었다. 교역자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고 있다.

감리교가 춘천에 들어온 이후 120년이 되는 2018년 동부연회 춘천지방 교세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동부연회 춘천지방 2018년 교세현황 (단위 : 명/원)

지방	교회수	입교인	세례인	세례아동	원입인	전체교인수
춘천동	34	4,279	401	425	1,119	6,224
춘천서	42	6,421	657	792	2,213	10,083
춘천남	34	5,335	481	565	1,256	7,637
춘천북	29	2,288	156	247	540	3,231
계	139	18,323	1,695	2,029	5,128	27,175

지방	정회원	준회원	세례인	원로목사	서리	교역자수	총수입
		목사	전도사				
춘천동	45	1	2	4	1	49	3,219,144,955
춘천서	65		4	8	3	72	6,864,731,966
춘천남	51		3	4	1	55	4,433,120,266
춘천북	37			6		37	2,500,609,793
계	198	1	9	22	5	213	17,017,606,980

* 기독교대한감리회, 『2019년 감리교회 통계자료집』 참조.

위의 표에서와같이 춘천지방 전체 감리교인들의 수는 27,175명이고 교회는 139개소이며, 전체 교역자 수는 213명이다. 이는 춘천에 복음이 들어 온 이후 60년이 되는 시점인 1958년 교회 수 39개소, 교인 수 3,168명, 교역자 수 38명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장로교 역시 2000년도에 들어와 부흥을 계획하고 2007년 7월 8일 평

양대부흥10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 상암경기장에서, 2008년 8월 17일에는 제1회 기도한국대회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그리고 2008년 9월 24일에는 제주선교100주년기념을 장로교 4개 교단(합동·통합·합신·기장)이 연합예배를 드렸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역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춘천지회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연합회로써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아래 2022년 현재 132개의 교회가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는 춘천동부교회, 성광교회, 산북교회를 비롯한 34개의 교회,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는 춘천제일교회를 비롯하여 29개의 교회 등 139개 교회가 활동하고 있다. 춘천장로교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는 아래 표와 같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소속 교회 현황

구분	교회	교회수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가정리교회, 강촌교회, 광진교회, 금산교회, 대광교회, 마평교회, 맑은세상세린교회, 방동교회, 벧엘군인교회, 상현교회, 새중앙교회, 서상교회, 성문교회, 성산교회, 신북교회, 신촌교회, 영광교회, 예광교회, 예사랑제일교회, 월송교회, 천전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동산교회, 춘천벧엘교회, 춘천성광교회, 포도원교회, 한빛교회, 함께하는교회, 하늘뜻이룸교회	29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감사교회, 광판교회, 그말씀양문교회, 북춘천교회, 사랑의교회, 사우동교회, 성도교회, 성은교회, 세나무교회, 세인교회, 수정교회, 신동교회, 예강교회, 예담교회, 온누리교회, 장본교회, 주향교회, 춘남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제일교회, 춘천중부교회, 춘천축복교회, 하늘샘교회, 하늘시민교회, 행복을전하는교회, 화목교회, 효신교회, 후평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세나무교회, 하늘샘교회, 후평장로교회	32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갈릴리교회, 강북중앙교회, 고은교회, 기쁜교회, 다솜교회, 대흥교회, 새비전교회, 예닮교회, 은평교회, 은혜비전교회, 임마누엘교회, 주님의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은혜교회,한영교회	15
춘천 대한기독교장로회 (기장)	교동교회, 대명교회, 새누리교회, 새희망교회, 신포교회, 세계로교회, 열방선교교회, 오탄교회, 한신교회	9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강원총신교회, 광염교회, 샘물교회, 수정교회, 시온성교회, 주성령교회, 참된교회, 춘천드림교회, 평안한교회, 행복한교회	10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단비교회, 예수자랑교회, 주창성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중앙교회A, 평강제일교회, 하라교회,	7

구분	교회	교회수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동성교회, 일심교회, 주성원교회, 주안교회, 중앙교회, 축복교회, 춘천새누리교회, 춘천중앙교회, 평안교회	9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연대)	봄내사랑교회, 하이교회	2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섬김의교회(현 온전한교회), 소양시민교회, 장자교회, 춘천시민교회 (현 새시민교회)	4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늘사랑교회, 봄내로뎀교회, 조양교회, 춘천돋움교회	4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장)	강남교회, 드림교회, 나눔교회, 예안교회, 참사랑교회, 동산교회	6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새비전교회, 충성교회	2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	춘천교회	1
춘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광영교회, 오순절교회	2
계		132

위의 표에서와같이 춘천장로교연합회에는 14개 파와 132개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서 참고로 춘천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2016년 강원도 자료를 참고로 남긴다.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측)에서 보면, 강원영서 지역에 속해 있는 강원노회의 춘천시·원주시·화천·양구·인제·홍천·횡성·영월·정선군 9개 시·군에는 97개 지교회로 조직되어 교회가 95개, 교인은 15,695명(세례교인 9,947명, 목사 147명, 장로 201명)이다. 강원영동지역에 속해 있는 강원동노회의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양양군, 고성군, 정선군, 평창군 9개 시군에는 교회가 100개, 교인이 17,004명(세례교인 11,190명, 목사 164명, 장로 217명)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측) 전체 교인은 32,699명으로 1993년도에 비해 2,11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결교는 춘천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두 교단이 존속해 있다. 두 교단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춘천성결교 현황

구분	교회(설립일, 설립자)	교회수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1934.7.3, 김의용 목사), 소양성결교회(1953,12, 홍순우 목사), 삼천동교회(1967.6.11, 구 삼천리교회), 새춘천교회(1967.6), 춘천교회(1972.3.5, 구 대흥교회, 현 행복한우리교회), 사암중앙교회(1989.1.3, 현, 사암교회), 하늘평안교회(1991.9.8, 오생락 목사), 횃불교회(1991.9.14), 춘천나눔교회(1993.2.21, 피종호 목사), 소양제일교회(1996.11.3.), 삼천동교회(2008.8, 이승구 목사, 현 김광태 목사 담임), 춘천바울교회(2010,8.15, 이근택 목사), 드림교회(2014.3.30), 하늘소망교회(2017.10, 노효철 목사), 행복나무교회(2019, 한경묵)	15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북교회(1962.4.19), 염광교회(1977.10.1. 이진식), 제일교회(1978.4.10.), 호반교회(1986.9.6.이근택), 춘천교회(1986.11.29, 김창섭), 효자동교회(1986.12, 김익환 목사, 현 평성교회 서규환 목사), 푸른교회(1987, 고영일 목사), 벧엘교회(1987, 김상철), 춘천교회(1988. 이영규 목사, 서규환 목사), 나눔의동산교회(2022, 김재숙 전도인), 대흥교회(2022, 최덕순 목사), 벧엘교회(2022, 전석규 목사), 후향기교회(2022, 김성호 목사), 후평제일교회(2022, 한정자 목사), 함께하는교회(2022, 이장복 목사), 반석교회(2022, 현민석 목사, 군인교회)	16
계		31

이렇듯 춘천지역 성결교는 춘천 관내 31개 교회와 5,684명의 교인이 있다.

침례교의 경우, 2015년 강원도 교회 소속 지방회별 교회, 목회자, 전도사 수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침례교 강원도 지방회별 교회·목회자·전도사 수 (단위 : 개소/명)

지방회	교회 수	목회자 수	전도사 수	선교사 수
강남지방회	2	2		
동부지방회	2	2	1	
서울본지방회	1	1		
서울서지방회	2	2		
서울중앙지방회	1	1		
서울한강지방회	1	1		
수도지방회	1	1		
한북지방회	1	1		
한양지방회	1	1		
서울서부지방회	1	1		

지방회	교회 수	목회자 수	전도사 수	선교사 수
강원지방회	21	24	21	6
강원동해지방회	21	26	7	
관동지방회	24	29	1	3
원주지방회	35	44	19	4
원주동지방회	22	29	5	6
춘천지방회	26	28	5	1
계	162	193	59	20

* 자료 : 『기독교한국침례회제2015년(제105차) 주소록』.

위와 같이 2015년 침례교회 지방회는 16개소이며, 강원도 교인들은 대부분 강원지방회, 강원동해지방회, 관동지방회, 원주지방회, 원주동지방회, 춘천지방회에 속해 있다. 침례교 춘천지방회의 관할은 춘천을 비롯하여 홍천, 화천, 양구, 인제, 가평지역이다. 춘천지방회 소속 침례교회의 수는 26개소, 목회자는 28명, 전도사는 5명, 선교사는 1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춘천에는 춘천교회, 샘밭교회, 남춘천교회, 춘성교회, 예사랑교회, 거성교회, 한마음교회, 군인센타, 옥산포교회, 반석교회, 강원교회, 푸른초장교회, 제자들교회, 돌봄교회, 농인교회, 한울섬김교회, 은혜더하는교회, 회복교회, 하늘뜻교회, 그린교회 등 20개소의 교회가 있다.

순복음은 2000년대 들어와서 활발하게 성장하였다. 춘천지역에서의 순복음교회는 32개소이다. 이를 보면,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새능력순복음교회, 열린순복음교회, 호산나교회, 새생명교회, 순복음삼성비젼교회, 행복한순복음교회,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호반교회, 순복음명성교회, 춘천순복음제자교회, 순복음청목교회, 거두리순복음교회, 순복음생명샘교회, 순복음비젼교회, 방주순복음교회, 강촌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춘천교, 포도나무교회, 두란노교회, 춘천실로암교회, 참빛사랑의교회, 한결교회, 순복음예향교회, 순복음쉼이있는교회, 헵시바교회, 더조은교회, 꿈꾸는순복음교회, 순복음시온교회, 순복음늘찬양교회, 사랑의빛교회 등이다.

이 중에서 앞에 있는 10개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개 교회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워질 정도로 선교에 왕성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목회자들도 순

복음강원신학교를 통하여 많이 배출했다. 2012년에 13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을 합하여 모두 84명을 졸업시켜 목회현장에서 사역게 하여 교단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순복음강원신학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해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 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해오고 있으며, 학과는 4년제 신학과(야간)와 3년제 목회학과(야간)다. 고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세례(침례)를 받은 신앙인을 대상으로 하며, 2년제 편입의 경우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순복음 강원지역 지방회 및 소속교회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6월 30일 기준 강원제일지방회 교세현황은 교회 수 45개소, 목사 47명, 전도사 11명, 장로 21명, 평신도 2,465명 등 2,544명이다. 강원지방회는 교회 수 35개소, 목사 47명, 전도사 11명, 장로 11명, 평신도 2,095명, 모두 2,164명이다. 신수동지방회는 교회 수 21개소, 목사 50명, 평신도 2,300명 등으로 2,350명이다. 서대문영서는 교회 수 7개소, 목사 7명, 전도사 1명, 평신도 100명 정도이다. 서대문영동은 교회 수 9개소, 목사 9명, 평신도 200명 정도이다.

따라서 강원도의 하나님의성회 강원지방회 소속교회는 117개소이고 목사는 160명, 전도사 23명, 장로 32명, 평신도 7,306명 정도이며, 춘천에는 순복음춘천교회를 비롯하여 35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리스도의교회에는 4개의 교회가 있다. 1967년 3월 10일에 세워진 춘천그리스도의교회를 비롯하여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 역동적인 그리스도의교회 등이다. 특히 1996년 9월 16일에 퇴계동에 설립한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는 2021년까지 순수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609명이 등록하였고, 그중에 57명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침례를 받기도 하였다.

구세군은 2016년 말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7개(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철원·영월) 영문에 14명의 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평신도수는 약 350명 정도이다. 춘천지역의 구세군 교회는 두 곳만 남아있다. 1994년 11월 21일 설립한 구세군소양영문과 1995년 5월 9일 구세군북춘천영문이 구세군대한본영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통합되어 춘천 시내 구세군 교회는 현재 구세군춘천영문(석사동

소재)과 구세군북춘천영문(사농동 소재)이 남아있다.

성공회는 춘천에 춘천교회 1개소만 있다. 교회는 한 곳이지만 춘천선교협의회는 춘천교회, 춘천나눔의 집, 강촌 프란시스 수도회, 강촌 성 요한 피정의 집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모태로 하여 현재는 강원도성공회선교협의회로 발전하여 강릉·원주·태백 교회로 확대되었다.

루터교회는 강원도에 세 교회가 있는데, 춘천에는 2018년 대림절 첫 주일인 12월 2일 창립된 춘천교회(St. Paul Lutheran Church, 원종호 목사)와 2022년 6월 26일 창립된 가까운교회(최준혁 목사)가 있다.

춘천지역의 독립교단 소속의 교회는 수적으로 아주 소수이다. 10개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것마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를 정리한 곳도 있고,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목회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도 있다. 예본교회(박문국 목사)와 하늘기쁨교회(이선형 목사)는 상가를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자유교회(권취우 목사, 가정교회)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며, 산천무지개교회(윤재선 목사), 나눔과섬김교회(정노아 목사), 시은소교회(박진영 목사), 아미교회(이연희 목사), 예수촌교회(차성도 교수) 등이 있다.

2절 춘천지역 교회의 21세기를 향한 비전

1. 감리교와 춘천지역교회

1) 춘천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는 춘천과 강원도 지역 '모교회'로서, 100년 역사를 지닌 교회로써 2001년 1월 교회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당 입당예배(1월 21일 낮예배)를 드리면서 춘천중앙교회 퇴계동 시대를 열었다. 춘천과 강원도 복음 선교의 역사와 전통의 근원인 교회로서 지나온 한 세기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전망하는 신학적, 선교적 과제를 설정해 나가야 했다. 여기에 1988년 '40세' 약관의 나이로 춘천중앙


춘천중앙감리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전경(2001년)

교회 담임자로 부임하여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착실한 교회 성장을 일궈 낸 권오서 목사는 2000년대 들어 50대 '중견 목회자'로서 한국감리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로 위상을 확립하였다.

권오서 목사의 활동 범위는 춘천중앙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을 필요로 하였다. 전쟁 후 1955년부터 자리 잡았던 옥천동 성전 부지와 건물은 1990년대 늘어난 교인을 수용하고, 21세기를 맞아 새롭고 다양한 선교를 추진하기엔 한계가 많았다. 보다 넓고 활용성이 많은 공간과 환경이 필요했다. 춘천중앙교회는 오랜 준비와 논의 끝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계동에 짓기로 하였고, 성전 건축과 이전이라는 대역사(大役事) 가운데 2000년대를 맞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두드러진 것은 경로대학이었는데, 수업 내용이나 활동에서 지역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입학 지원자들이 계속 늘어나 2000년부터 정원을 70명으로 늘렸다. 2001년 2월까지 7기에 거쳐 598명을 배출하였으며, 3월에는 8기생 67명이 재학 중이었는데,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70세였고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58명, 가톨릭이 6명, 불교가 3명이었다. 그리고 강사는 춘천중앙교회 인사 40%, 외부 인사 60%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반으로 일어반(지



중앙경로대학 졸업식 모습(2006년 12월 7일)

도 윤종애), 음악반(민경화), 종이 접기반(손경신), 게이트볼반(김현섭) 등을 두었다.253) 2004년 8월에는 1박 2일로 '경로대학 여름 축제' 행사를 가졌는데 예배와 마음 열기, 차와 다과, 신명 잔치, 시사 학습활동, 포크댄스, 조별 발표회, 사랑 나눔, 사랑의 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05년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이다. 이 운동은 권오서 목사가 2005년 3월 14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강원지역본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와 함께 춘천중앙교회 교인들도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6년 사순절에 진행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교우들의 수는 250명에 달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춘천중앙교회의 사회선교 및 봉사활동이 다양해지면서 교인들의 참여도도 높아졌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자원봉사' 정신과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 자원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그런 배경에서 2004년 3월에 춘천중앙교회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학교'를 개설하여 사회봉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은 교회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파견되어 나가 봉사활동을 폈다. 한 예로 2005년 5월 춘천중앙교회의 자원봉사자 9명이 춘천노인복지대학에서 실시하는 문화 탐방 행사에 파견되어 지역 노인들의 홍천 지역 답사 여행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선교 및 봉사활동은 '밀알 전도', '이슬비 전도', '지역 전도', '목적 전도', '여리고 전도' 등 직접적인 전도활동 못지않은 전도 효과와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사회의 어두운 공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꾸준히 봉사하는 교인들의 모습에서 지역 주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 복음화의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퇴계동 새성전 건축 이후 급증한 춘천중앙교회의 교세는 교인들의 열성적인 전도와 쾌적한 예배 환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춘천중앙교회가 꾸준하게 실시한 사회선교와 봉사활동의 효과도 작용하였다. 그런 면에서 1999년 2월 춘천중앙교회를 취재했던 『국민일보』 기자가 당시 춘천 인구 25만 명 중 기독교 인구가 4만 3천 명에 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60여 년 전 춘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던 춘천의 기독교 인구가 17%로 늘어나는 데 춘천중앙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130]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특히 2006년에는 'Acts 29 비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예배당과 교육관 건축, 동부연회 감독직 수행 등 어려운 과제들을 무난하게 풀어낸 권오서 목사는 2006년을 맞이하며 'Acts 29 비전'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목회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2006년 1월 8~10일 개최된 임원수련회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권오서 목사는 수련회 서두에 "임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고전 4 : 1~2)란 제목의 강의를 통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새로운 목회 비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2006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임원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그리고 각 교구별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헌신자들과 더불어 3일 동안 임원 훈련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올해 임원 훈련의 타이틀을 'ACTS 29 비전'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ACTS'라는 말은 성경 사도행전의 영문 약자 표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탄생,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교회의 탄생,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도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두 기둥인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숱한 고난과 복음 전파의 행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그곳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그곳에는 성도다운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그곳에는 순교자의 피가 있으며, 거룩과 순결, 순수와 열정, 순종과 헌신이 살아 있습니

130) 『국민일보』(1999.2.6),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 춘천중앙교회」(『춘천중앙교회사』 887쪽에서 재인용).

다. 사도행전을 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름 받은 헌신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명과 사명의 결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오서 목사가 제시한 'Acts 29 비전' 운동은 온 교인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신앙과 열정,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적인 신앙 도약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그 핵심은 '두 날개'로 표현된 '예배와 전도'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목표로 교회창립 110주년이 되는 2008년에 이르러 1만 명이 예배를 드리자는 '2008년 1만 가족 운동'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06년부터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1+1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전부터 해오던 '새 생명 축제'를 10월 29일 주일에 대규모 축제 행사로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선교 담당 목사와 선교부장, 4개 교구장과 부교구장들로 '새 생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한 차례씩 모여 시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도 방법으로는 기존의 방법에다 새로운 형태의 방법을 가미하여 1) 지역전도 2) 목적전도 3) 집중전도 4) 밀알전도 등 네 가지 전도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가장 많은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전도'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갖고 실시하였다.

1)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라는 표어 아래 "적어도 내가 사는 아파트, 통로, 지역은 내가 전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춘천중앙의 샘터에 속한 모든 성도가 주 1회 문서 전도를 행함.
   (1) 2005년 후반기부터 개인별, 속회 별 지역 전도 담당 지정 전도의 생활화
   (2) 교구별 상황판을 설치하여 지역 단위(속회)로 아파트별 개인 신앙카드 업그레이드
   (3) 개인 신앙카드를 중심으로 한 맞춤식 전도(노방, 친구, 이슬비 등)
2) 교구 전도대 확대와 전도 교육
   (1) 교구별 전대별 팀원 확대(짝수달 전도대별 1개 팀 증원)
   (2) 매월 1회 교구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전도교육
   (3) 목적 전도 시 각 교구 전도대가 요일별로 전도 현장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전도실시

이처럼 다양한 전도 운동을 통해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들을 교회에 확실하게 정착시킬 방법으로 기존의 속회 조직과 체질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우선 '속회'라는 오랜 명칭을 과감하게 '샘터'로 바꾸었다. 감리교회 신앙 전통인 속회의 정신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계적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 '셀'(cell) 목회를 한국식으로 토착화시킨 춘천중앙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조직을 만들면서 이를 '샘터'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춘천중앙교회의 2006년 샘터의 목표와 비전, 조직과 역할 등은 다음과 같았다.

1) 목표 : 샘터는 교회의 세포 조직이다. 그러므로 샘터가 교회내의 작은 교회가 되도록 네트워크 형성의 기초가 되게 하며 평신도 지도자의 양성소(훈련과 양육의 장)로 또한 영적인 가족교회의 시작이다.
2) 비전
   (1)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가족 단위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2) 낮에 여성들만 모이는 샘터 모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모이는 샘터 모임을 이상형 샘터로 추구한다.
   (3) 샘터에서 선교 사역(해외 선교, 국내 선교)과 봉사 사역을 강화한다.
3) 명칭 변화
   기존의 '속회'라고 하는 명칭에서 항상 맑고 깨끗하며 새로움을 상징하는 마르지 않는 우물가를 상징하는 샘터라고 한다.
4) 조직과 역할
   (1) 교구장 :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철저히 공유하고 목회의 동역자가 된다.
   (2) 지역장 : 지역 내 샘터를 강화하기 위해 교구 목사가 철저히 교육하며 교회의 행정 전반을 지역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3) 샘터지기 : 경륜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일련의 교육을 받게 한다(일반적인 기존의 인도자와 속장의 역할과 무게가 반대되게).
   (4) 메신저 :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핵심을 5~7분 이내로 요약하여 샘터원(속도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5) 샘터장 : 사랑으로 샘터원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
5) 지역의 중점 부흥 사역 : 관계 중심의 전도에 관심을 두고 전도하는 교회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1) 전도 : 새 생명 축제를 중심으로 한 전도 분위기 조성→전도훈련→전도계획→접근→초청→사후관리 등

(2) 심방 : 일반 심방과 주중 심방(새 가족, 결석자 등)
(3) 기도 : 교회와 샘터원을 위한 중보기도
(4) 교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 월 1회 전 교구 지역장, 지도자 모임
6) 기본 훈련
(1) 기본 교육 : 교회의 목회 비전, 목회 방침 등을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함께 공유, 지역목회, 평신도 지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교육 및 훈련 : 지역, 샘터원 인도, 관리, 양육, 관계, 전도, 상담 방법 훈련
(3) 구체적 사역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말씀 준비, 보고서 작성, 심방, 봉사, 전도, 관계의 주의점 등


제1기 어머니학교 수료식 후 기념(2007년 9월 19일)

이후 이런 계획과 비전 하에 2007년 2월 4일 태신자작정 선포주일, 2007년 9월 19일 어머니학교 수료식, 2008년 8월 이희문 싱가포르선교사 파송예배, 2009년 1월 5일 베델성서연구반(성서편) 개강, 2009년 3월 28일 제2기 아버지학교 개강, 2009년 6월 28일 1만 가족 5천예배자 성취위한 「Together 1+1」운동 선포, 2010년 9월 가정사역-신혼부부세미나, 2011년 1월 비전교회(청년부) 인도네시아 비전트립(19일까지), 2011년 2월 춘천지역외국유학생 한국어교실 제1기 입학식(인원 25명), 2011년 8월 드림교회 비전트립 출발(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1년 8월 비전교회 국내선교(3일까지 정선 북평 · 함백 제일 · 사북교회), 2012년 1월 16일 샘터지도자 기도회 등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월삭기도회, 사랑의 주일, 샘터초청주일, 가정사역세미나(부부세미나), 셈터지도자교육, 새싹교회(유아 · 유치부) 새싹사랑축제, 푸른교회(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영어성경캠프, 드림교회(중 · 고등부)의 수련회, 생명축제와 단기선교, 비전교회(청년부)의 수련회와 단기선교, 부부행복학교, 아버지학교, 아머니학교,


권오서 목사와 심정수 목사(『강원도민일보』)

경로대학, 평생훈련강좌, 웨슬리 전도학교 등을 계속 진행하였다.

2019년 4월 28일, 1988년 4월부터 30여 년 동안 담임목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목회활동을 해 온 권오서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원주출신으로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 목회를 펼쳐왔던 심성수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춘천중앙교회 비전선언문은 "춘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이며 핵심가치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Salvation 구원의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예배),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교회(Sanctification 성화의 신앙), 성도를 향하여(양육·교육),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Service 섬김의 신앙), 세상을 향하여(선교·봉사)이다. 비전실천전략은 3,000명의 제자(구원·성화·섬김), 300개의 소그룹(샘터·양육·봉사), 30개의 선교지(해외·국내·기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성수 담임목사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으로 샘터지도자 집중교육, 90일 성경1독학교, 드림교회(중고등부) 비전트립, 사랑의주일, 90일성경쉐마학교, 성경큐티학교, 새벽기도 300용사 헌신예배, 평생훈련강좌(온라인 8주간), 큐티나눔 등 핵심가치를 이루고 비전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2) 춘천신성교회

21세기 들어와서 신성교회는 모든 계획이 김창수 담임목사의 일정에 맞추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담임목사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002년 1월 김창수 목사가 강원도기독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2002년 3월 춘천기독

교TV 본부장, 2002년 4월 강원지구 군선교회 이사장, 2002년 8월 2010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위한 초교파 연합백두대간 기도회 개최, 2003년 4월 동부연회 자격심사 위원장, 2004년 1월 춘천시 어린이회관 운영이사장, 2004년 3월 동부연회 행정조정위원장, 2005년 9월 춘천 CBS운영위원회 위원장, 2005년 11월 사랑의 집짓기 춘천지회 이사장, 2006년 10월 8~11일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춘천성시화를 위한 연합성회 실시, 2007년 4월 17일 동부연회 27대 부흥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7년 5월 13일에는 새성전을 건립하여 봉헌하였다. 이는 21세기 주변 상황, 즉 후평동의 주공아파트가 2000년대가 되면 모두 재건축될 뿐만 아니라 춘천 인구, 특히 후평동 인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 안목을 내다보고 건축하였다.



신성교회 새성전 모습(2007년 5월 13일)

새성전이 완공되자 새신자 양육을 위한 바나바, 성경공부, 전도, 세미나 등을 통해 교인들과 새신자들을 더욱 알차게 양육하였고 2009년 9월 6일에는 춘천동지방 29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본 교회에서 모나운동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김창수 담임목사가 춘천성시화운동분부 재단 이사장 취임하면서 은퇴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도 교인들과 춘천성시화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2012년 4월 15일 김창수 목사의 은퇴와 2012년 4월 29일 강유형 목사 부임을 거쳐 2013년 10월 20일부터 시무(취임감사예배는 10월 27일)한 박상칠 목사는 육군 군목(군종 36기)으로 입대해 3군단 군종참모, 3군사령부 군종참모를 거쳐 제29대 군종감을 지냈으며, (사)한국미디어선교회 군신앙전략화지원본부장, 춘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 농촌선교훈련원 이사장, 감리교동부연회부흥단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웃사랑과 봉사, 그리고 군선교에 역점을 두었다. 2014년부터 추석에는 사랑의 쌀을 2021년까지 매년 700~800



박상칠 담임목사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사랑의 쌀 전달 후 기념
(2019년 9월 8일)

포(20kg)를 후평1 · 2 · 3동 주민과 시민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계 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산상대부흥성회(포천 한국중앙기도원)에 참석하는 장애인과 관계자들의 식사를 위한 일일 식당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육군 제15사단 장병에게 진중세례식(여호와닛시교회) 거행하였다. 대개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면 원하는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신성교회 외에도 몇 개 교회가 번갈아 가면서 200~300명의 장병에게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2019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신성교회가 동부연회에 제출한 「신성교회통계표」에 의하면, 교인은 2,463명(남1,059, 여 1,404)이었다. 이 중에서 아동부는 129명(영아부32, 유치부37, 초등부60)이었고 중등부 15명, 고등부는 17명, 청년부는 25명이었다. 교역자는 정회원 3명, 준회원 1명, 은퇴회원 등 5명이었고 임원에는 장로 17명, 권사 282명, 집사 485명 등 784명이 있었다.


은퇴하는 박상칠 목사 내외(좌)와 취임하는 박진형 목사 내외
(2022년 4월 30일)

한편 2022년 1월 1일 박진형 후임 목사 비롯하여 이본녕 · 김찬석 · 김이슬 · 허성훈 전도사, 임선민 간사가 시무하기 시작하였고 4월 30일 이 · 취임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박상칠 목사는 47년의 목회사역을 마무리하였고 박진형 목사는 충남 대천소망교회에서 신

성교회로 적을 옮겨 또 다른 목회를 시작하였다.

박진형 담임목사는 생명이 회복되는 신성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거룩한 만남,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새로운 거룩한 교제,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보내는 새로운 거룩한 사명에 두고 현재는 신성성도들에게 「신성큐티」를 통한 말씀교육에 주력하면서 기도와 선교를 통한 비전을 심고 있다.

3) 춘천우두교회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2001년에는 신천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임원세미나를 가졌다. 또 2008과 2009년에는 신천집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천집사는 새로운 교회의 임원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철저한 신앙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해 3월 20일과 21일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베데스다기도원에서 장로수련회를 갖고 우두교회의 중단기 선교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외에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크로스웨이 (Crossway) 성경공부이다. 크로스웨이는 '십자가의 길'이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다. 우선 대상자는 교역자와 직원 가정으로 하되 자원하는 성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두감리교회 전경(2022년)

또 하나의 평신도 교육과정은 성경통독 세미나였다. 1997년 8월 7일(목)부터 9일(토)에 실시된 성경통독 세미나를 열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훈련을 받았다. 2005년 8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성경암송 세미나를 가졌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말씀과 기도 사경회를 가졌다. 강사는 남준우 목사였다.

이렇듯 우두교회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적 부흥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도입 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새 천 년이 시작되는 2000년 말에는 삼대 가족찬양대회가 열렸다. 대회 이름은 '삼대 한 가족 한마음 잔치'였다. 삼대가 함께 찬송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삼대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삼대가 우두교회 교인이어야 했다. 우선 삼대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는 가정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요성을 새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7년에는 가족찬양에 특기를 자랑할 기회를 넣어 더욱 재미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감사밴드운동(불평끊기운동)과 성경암송운동이다. 2011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감사밴드운동과 성경암송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의 목적은 성도들이 불평 없이 감사를 생활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감사밴드를 받은 성도들은 3주간(21일) 연속적으로 감사의 말만 하기로 결단한다. 성도들은 밴드를 항시 착용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다듬는다. 만일 감사의 말을 하지 않으면 밴드를 다른 손으로 옮겨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삼는다. 이렇게 21일간 잘 착용하면 다른 색의 밴드로 바꾸어 주고 이렇게 21일씩 4번을 성공한 성도에게는 교회에서 기념품을 주기로 하였는데 최초로 4번을 성공한 성도는 연동수 권사로서 교회에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려는 우두교회는 김영원 목사는 부임 이래 국가적으로 큰 자연재해가 닥치면 교인들을 권면하여 정성을 모아서 고난 당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왔다. 1981년과 1984년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저녁예배 시 헌금을 모아 전달하면서부터 1987년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수해피해가 많았던 충청남도 지역의 전답과 가옥을 잃고 갈 곳 없는 이재민 돕기, 1990년에도 9월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전답과 도로가 유실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도 이재민 돕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98년과 2002년에도 이재민을 위한 헌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여러 기독교구호기관과 협력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웃을 돕는 운동에 참여하였다. 1997년 6월 29일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박진탁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이웃과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에 모두 참여를 요망했을 때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기아선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 나리를 돕기 위한 자랑의 쌀나누기 운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선명회(현 월드비전)에서는 빵처럼 생긴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이 저금통을 채워 이웃을 돕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1991년 우두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전 교인들에게 저금통을 나누어 주고 회수하여 16만 원을 선명회(현 월드비전)에 보냈고 후에 100만 원을 강원일보에 기탁하였다. 2010년 6월에도 월드비전에서 전개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 우두교회는 1997년 4월 6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어린이들을 위한 쌀을 보내기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기로 하였다. 헌금함을 본관현관에 놓아 성전에 올 때마다 헌금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은 더욱 구체화하여 1999년 9월 5일 저녁예배는 북한 삼남동교회 재건 현판식 예배로 드리기도 하였다.



애민원 김장 봉사 모습(2003년)

한편 우두교회 주변 이웃을 위한 일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7년 10월 23일에 가을 일손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자를 모집하여 고추 따는 일과 콩 꺾는 일을 도왔다. 장소는 운수골로 9시에 교회에 모여 하루를 열심히 봉사하였다. 또 그해 11월 20~21일에는 애민원 김장봉사에 참여하였다.

애민원 봉사는 1960년대 주완식 목사 재임 시절부터 이어 내려오는 우두교회의 대표적인 이웃 봉사 사업이었다. 교회에서는 김장을 담아 관내 20여 가정을 행정기관에 의뢰해 선정한 후 수년 동안 지원하였다. 2000년 6월 4일에는 기독교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애민원을 위해 준비되어 이웃을 위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계속 이어져 2004년 8월 12일에는 춘천시 환경미화원을 초청하여 위로 잔치를 열었다. 초청 대상은 춘천시 청소과 소속미화원


누가 의료선교팀의 무료진료 모습(2000년)

130여 명이었다. 또 우두교회는 지역의 어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매년 열었다.

2000년 9월 6일은 누가 의료선교회에서 무료 진료를 나와 이웃들에게 건강 상담과 진료를 해 주었다. 교회에 서는 '전도폭발을 위한 지역 주민 무료건강진료'란 이름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우두교회는 2011년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여 방제작업을 할 때 강추위 누가 의료선교팀의 무료 진료에 수고하는 춘천지역 방역 초소근무자를 찾아가 김밥과 따뜻한 어묵국으로 위로하였다. 또한, 산골 마을 어린이를 초청하여 강원일보, 라디오 방송국과 강원도청 등을 견학하고 기차여행도 시켜주며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1996년 이후에는 겨울성경학교가 없어지고 매년 어린이 부흥회로 열렸다. 1990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 겨울 어린이 부흥회는 김동성 전도사가 강사로 '예수 믿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동성 전도사를 1994년에 한 차례 더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1992년에는 안창원 전도사, 1996년과 1997년에는 영월 직실교회 정경수 목사, 1998년에는 어린이전도협회 엄기영 간사, 1999년에는 고현종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2003년에는 고현종 목사가 다시 와서 인도하였고 2004년 부흥회는 낮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이고 저녁에는 교사대학으로 모여 은혜로운 집회를 이어갔다.

2006년에는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란 주제로 어린이 전도협회 전영진 전도사와 엄미영 선교사가 수고하였고 2009년에는 대전 왕성교회 정경수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2010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최초로 어린이 영어 캠프를 시작하였다. 시대의 요청에 발맞추어 영어를 통해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우두교회 아동부 일동(2011년)

2011년에도 교회학교 아동부를 부흥시키기 위한 부흥회가 열렸다. 이 기간 유치부, 아동부 전체 교사의 교육도 병행하여 다시 한번 교회학교 유초등부 부흥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일시는 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9일 토요일까지로 강사는 의정부 승리교회 이충섭 목사였다. 이를 위해 1월 22일 토요일 지하기도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였다. 특히, 이희주 장로와 손병학 권사는 20년이 넘도록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한 교사로 온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남자 성경공부반을 '루포 성경공부반'으로 개칭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남자 교인들과 여자 교인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루포 성경공부반은 주일 새벽기도회 후 봐봐 성경공부반은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에 각각 모여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4) 춘천석사교회

2000년대를 맞아 석사교회는 교인들의 영적 충만을 위해 부흥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1999년 대규모 성전을 신축한 터라 부흥회 진행이 더없이 여유로웠고 새 성전에서의 영성 충만을 위해 부흥축제가 지속적으로 열렸다.

2000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유월절 축복 성회'를 열고 부산 시온중앙교회의 정영문 목사를 초청하여 밀레니엄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뜨겁게 믿고 즐겁게 봉사하고 진실하게 살자'는 주제로 인천 만수감리교회의 성중경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었다.

2001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를 강사로 '성령충만, 소원 성취, 사명 헌신'이란 주제의 부흥회를 열었으며, 12월 2일부터 5일까



2003년 봉헌된 석사교회

지는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다. 이어 2002년에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계암교회의 조우형 목사를 강사로 하여 '복 받는 성도의 길'이란 주제로 심령대부흥회를 가졌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부흥회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적인 충만을 체험하였다. 2002년 4월 5일에는 석사교회의 창립 80주년 기념 예배가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전임 박이섭, 이동철, 임택창, 임순목 목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03년 예배당 봉헌식 이후 석사교회는 더욱 부흥하였다. 2003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인천 소명교회의 류심현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열었다. 이어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치유적 기독교 상담의 대가인 정태기 목사를 초청해 추계 부흥회를 열었다. 교인들간 화합이 잘 되고 스포츠 실력이 그 어느 교회보다 출중했던 석사교회 성도들은 2003년 10월 3일 춘천시 교회축구협회 창립기념 축구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2월 12일에 춘계부흥회를 열고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조영진 담임목사를 초청해 은혜를 받았다. 8월 27일에는 감리교회의 불모지로 알려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호남선교대회에 100여 명이 참여해 석사교회의 역량을 높였다.

2004년 3월에는 석사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이때는 교회 홈페이지 개설이 붐을 이루던 시기이다. 온라인에서 교회의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모든 세대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두루 알릴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월 23일부터 27일에는 석사교회에서 춘천남지방 겨울 신앙강좌가 열렸다. 여기에는 권희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김상현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연수 영성수련 강사, 이환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이천진 목사 등이 초대되어 영성교육과 관계맺음에 대하 말씀을 나누었다. 이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를 초대해 춘계부흥회를 열었다. 떠 8월 28일에는 제

19차 세계감리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365기도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2006년 4월 9일부터 12일에는 분당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와 함께 춘계부흥회를 열었고 6월 18일에는 조재진 목사를 초청해 일일전도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2000년대 중반까지는 활발하게 이어진 부흥회와 여러 행사는 교세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는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붐을 이루며 도시가 확장되던 때였다. 부흥회 등 대성전을 기반으로 한 대형행사는 석사교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주었다.

2006년까지의 목회 방향은 '전도하는', '순종하는', '화합하는', '양육하는'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목회 표어를 제시한 이후 목회의 방향도 구체화되었다. 목회 방향은 예배, 교육, 전도, 속회로 구분하여 설정되었다. 마치 생활의 지침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된 목회 방향은 교회의 장기 목표와 신앙생활 목표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2007년부터 정비된 목회 방향을 통해 석사교회는 주일예배, 새벽예배, 가정예배 등을 충실하게 지키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였다. 또한, 평신도 리더 교육을 필두로 전교인의 제자교육, 사역 훈련 등에 집중하자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전도를 위해 2005년부터 시작한 태신자전도운동과 관계전도운동을 펼칠 것을 제시했으며, 2013년부터는 속회와 각 선교회 중심의 그룹전도와 관계전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속회는 관리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나눔이라는 사명을 중시하는 속회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2014년부터는 '목양' 부분을 추가해 목양장로제도를 통해 이웃과 교우를 돌보는 사역에 임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목양장로 사역은 2010년을 전후하여 한국교회에 퍼져나간 개념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장로 70인의 모형을 닮아 장로들이 목회자와 동일한 목양 사역을 나누어 감당한다는 모델'이다. 영국교회에서는 목양장로제도가 소멸되었으나 최근 10년 새 한국교회로 확산하면서 목회자와 장로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행정 중심으로 사역했던 장로들이 성도와 목회 사이에서 중재하고 성도를 마음으로 섬기고 보

듬는 역할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석사교회도 목양장로제도를 도입하여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실현함으로써 교회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하였다.

2019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석사교회가 동부연회에 제출한 「석사교회통계표」에 의하면, 교인은 1,641명(남640, 여 1,001)이었다. 이 중에서 아동부는 55명(유치부11, 유년부20, 초등부24)이었고 청소년부 27명, 청년부는 52명이었다. 교역자는 정회원 8명, 서리전도사 1명, 은퇴회원 등 10명이었고 임원에는 장로 16명, 권사 253명, 집사 306명 등 574명이 있었다.

춘천석사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은 2022년 목회의 목표에서도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웃을 교회가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 사역의 의지가 분명히 전달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목표에서 모든 성도의 제자회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공부에 매진하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신앙생활 목표에서는 가족 중심, 속회 중심의 신앙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관계 속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성도와 임원을 대상으로 세세하게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춘천석사교회라는 나무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힘이 되고 있다.

5) 춘천안디옥교회

100년 전인 1919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퇴계리 마을에 뿌려져 설립된 '퇴계리교회'는 일제의 통치 속에 고난을 겪고,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다시 '남춘천교회' 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 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시련과 격변의 시대를 거치며 정 착하기에 이른다. 교회는 1990년대에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온 힘을 다해 부흥과 도약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는 강원 최대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새 성전을 신시가지 석사동 지역에 건축하고 교회를 이전하였다. 때를 같이 해 남춘천교회의 이름을 '춘천안디옥교회'라 이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였다.

특히 교회는 1989년 유진형 목사가 부임하여 신앙의 3지침(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대로)과 3단계(믿음으로 소망하여 사랑하며), 또 3대상(성자, 성령,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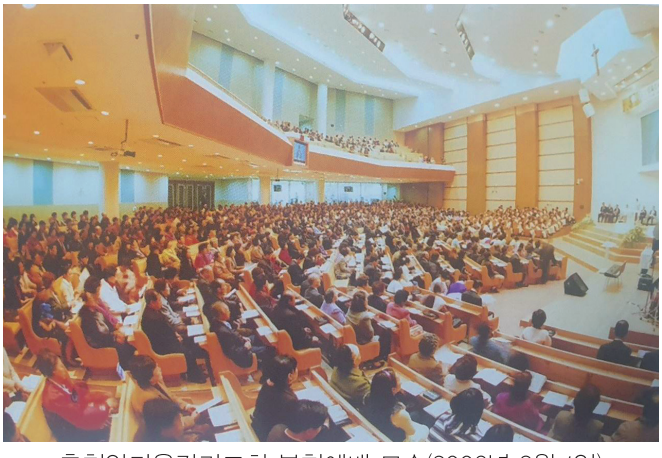
부)과 3기초(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자)를 신앙의 3요소로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아 30년 목회하는 동안 교회는 성령역사로 부흥·성장하였다.

춘천안디옥교회의 비전은 '영혼구원'에 가치를 두고, '교회성장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전도·헌신 열에 불타는 안디옥 공동체'로 발돋움하여 '성령충만한 소그룹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교회다.

이에 교회는 기도·전도·헌신 열에 불타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회와 부흥회, 전도특공대의 활성화, 속회와 교회 조직을 강화하였다. 또 말씀과 전도로 다진 교회 부흥을 소망하며 춘천지역의 변화에 따라 신도시개발지역인 석사동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을 하였다. 물론 새 시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목장 조직으로 개편)과 알파코스로 무장하며, 임원 양성을 위하여 MTS 훈련을 통해 신자화, 제자화, 사역자화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자라가고자 목장별로 필리핀, 인디아지역 교회들의 자매결연으로 해외선교에 직접 참여하였다.

2019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안디옥교회가 동부연회에 제출한 「안디옥교회통계표」에 의하면, 교인은 1,925명(남638, 여 1,287)이었다. 이 중에서 아동부는 71명(유치부15, 초등부71)이었고 중등부 42명, 고등부는 44명, 청년부는 38명이었다. 교역자는 정회원 3명이었고 임원에는 장로 3명, 권사 175명, 집사 473명 등 651이 있었다.

오늘의 춘천안디옥교회는 교회 부흥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발돋움하였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성경의 안디옥교회(행 13:1~3)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상하 관계를 이루고, 사랑으로 성도와의 좌우 관계를 이루며, 선교로 불신자와의 전후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사모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춘천안디옥감리교회 봉헌예배 모습(2006년 3월 1일)

춘천안디옥교회는 이제 선교 1세기를 뒤로하고 2세기를 향해 나아갈 교회로 부흥 성장하였다. 또 2006

년에 강원 최대 성전을 봉헌하는 교회로 발돋움하였다. 이는 기도와 전도와 헌신열에 불타는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생명력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 성경의 안디옥교회같이 성령과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다. 즉 "오순절의 충만한 축복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행하는 교회로 자라가야 할 것이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 내일의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로 남아야 한다. 그리하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 교인 신앙의 생활화는 물론 주의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이를 실천하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한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여야 하기에 그렇다.

2022년 4월 24일 이준복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사역자들(부목사인 지효웅·박경신·김준성 목사, 정현숙·배계월·이송일·이상민 전도사)과 성경의 안디옥교회같이 지역봉사와 세계선교의 큰 꿈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2. 장로교와 춘천지역교회

1) 춘천동부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새천년을 열어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었지만 2000년의 성경공부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1999년에 비해 창세기 연구반이 요한복음반으로 변경되었을 뿐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경공부반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학점제로 운영되는 '성경대학'이 실시되었다. 개설되는 "과목마다 학점을 부여하여 성취도를 높이고 후에 더 깊은 성경공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수준에 따라 시간이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이 개설되고 초급과 중급과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신앙의 성숙을 돕고 교회 생활과 사회 전문 봉사자를 훈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경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하며 개설된 성경대학의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2003년 학점제 성경대학 개설 과목 현황〉

과목	강사	개요	시간	학점
리더십 개발학교	이석진 목사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 확립과 섬김과 협력의 리더십 개발을 통하여 오늘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는 예수의 제자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화 오전10:30	2
소망 성경공부	박은주 목사	말씀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드립니다. 신나게 체조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는 소망성경반, 청춘남녀(단 60세)만 오세요.	화 오전10:30	2
성경 파노라마	노홍래 전도사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형성과 구성,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파노라마식 공부를 합니다. 1학기 구약, 2학기 신약.	화 오전10:30	2
전도반	김석환 전도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에 순종하고자 훈련받는 제자화의 과정이며, 이론과 실제를 겸한 전도훈련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놀랍게 변화하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 오전10:30	2
기독교인 세계관	연합 세미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비전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화 오전10:30	2
구약의 주제들	김인서 목사	창조, 섭리, 천사 지옥 사단 성경 통의 구약의 주제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금 오전7:00	2
전도대학	임신영 목사 외	짧은 기간의 요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특공대로 세워져 가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10~19 2주간 8시간	2

* 『춘천동부교회 70년사』, 613쪽.

개설된 과목을 보면 2002년보다 한층 다양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9월 2일에 개강하는 학기에는 '리더십 개발학교' 대신에 '예수님의 비유 복음서 연구'가, '기독교인 세계관' 대신에 '통독을 위한 성서해설'이, '전도대학' 대신에 '부부성경공부'를 개설하여 폭넓은 성경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성경공부가 있었는데, 목요일(통독을 위한 성서해설)과 주일(부부성경공부)에도 실시하여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더하였다.

이렇듯 새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헌당을 향해 가면서 춘천동부교회는 성경공부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의미 있게 진행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부 교역자들이 늘어나면서 성경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만큼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복음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회활동이


김한호 목사

라 할 수 있었다.

2011년 4월 17일에는 김한호 목사가 제9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한 김한호 춘천동부교회 목사는 "유럽과 미국에서 배운 학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동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동부교회에 부임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당회였다. 교회에서 여는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들이 주로 참석한다.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당회'하면 제일 먼저 딱딱한 회의를 떠올린다. 또 갈등과 난상토론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춘천동부교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일명 찾아가는 당회가 춘천동부교회를 바꾸고 있다. 2011년 4월에 김한호 담임목사가 부임한 뒤 이 교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당회에서였다. 김한호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들은 2012년 6월 2일 월드비전 춘천지부를 찾았다.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밥을 배식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당회를 이런 방식으로 열고 있다.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 뒤 회의를 한다. 장병섭 장로(춘천동부교회)는 "탁자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가 봉사를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아픔을 더 잘 알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교회가 그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디아코니아와 관련한 논문을 써 박사학위를 받은 김한호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춘천동부교회에도 디아코니아 정신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디아코니아(DIAKONIA)는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 그리스어 디아코니아는 어원 그대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종처럼 시중들러 오셨다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종으로 사신 주님의 모습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섬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한 건 아니다. 당회원들이 교회 내부, 즉 지



찾아가는 당회, 연탄배달 후 기념하는 당회 회원들 (2019년 7월 13일)

하 주차장,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함께 기도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당회원들이 솔선수범하자, 교인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는데 더 열심을 보인다. 2019년 7월 13일에도 담임목사 이하 약 20명의 인원이 참석한 봉사 당회는 춘천연탄은행에서 추천받은 곳에 연탄을 배달하였다. 기와골 골목 가파른 계단 꼭대기에 위치하여 차량으로 배달할 수 없는 어려운 이웃들의 집에 일일이 찾아가 연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담임)는 "교회가 봉사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뭔가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펼친 뒤 회의를 하다 보니 당연히 분위기도 부드러워졌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리둥절해서 하던 당회원들도 곧 담임목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담임목사는 장로들이 이해해주니 고맙다고 했고, 장로들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을 믿었다며 서로를 추켜세웠다. 회의할 때도 이 교회만의 특색이 드러난다. 김한호 목사가 한 장로에게 스톨을 걸어주면, 그 장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자제한다. 당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묵상기도로 당회를 지원해달라는 뜻이다. 스톨을 걸어주는 방법은 김한로 목사 미국 장로교단인 PCUSA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런 방법이 담임목사에게 반대하는 장로들의 발언권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춘천동부교회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김한

호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에 진정한 섬김의 신학을 전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한호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체계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행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춘천동부교회는 디아코니아와 관련한 세미나도 열고, 섬김 활동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춘천동부교회의 찾아가는 당회가 한국교회에 신선한 도전이 되고 있다.[131]

2011년 11월 23일에는 제1회 디아코니아 컨퍼런스 열고 2012년 3월 7일에는 동부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으며, 2013년 1월 6일에는 교회학교 소년부(5~6학년)를 신설하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박의범 선교사를 몽골 국제대학교로 파송하였고 2014년 11월 29일에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학교를 시작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15년 10월 21일에는 꿈나리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016년 4월 10일에는 오석완·이성희 선교사를 케냐에 파송하였고 4월 24일에는 한원택·오정은 선교사 D지역 K국으로 파송하였다. 2019년 12월 1일 창립80주년 기념으로 박선호·최은영 선교사를 협력선교사로 파송하는 등 꾸준히 해외선교사를 파견하였다.

춘천동부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디아코니아’라는 표어로 교회가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섬김에 앞장서야 함을 실천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 잡았다. 특별히 ‘찾아가는 당회’는 교회의 섬김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당회에서부터 실천하는 모범 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 춘천제일교회

춘천제일교회는 1999년 5월 7일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원로장로(이창룡), 장로(전은풍·심상우·김향수) 장립, 장로(박동섭·이순훈) 취임을 하고 20세기를 맞이한다. 그리고 2000년 1월 2일에 방인선·김선주 부부를 중국선교사 파송하면서 해외선교의 포문을 열었다.

2000년 7월 24일에는 제1회 전교인 수련회(기화 유스호스텔, 가평 승동기도원)

131) 『노컷뉴스』(2012.6.6), 「춘천동부교회의 찾아가는 당회」.


춘천제일교회 전경

를 열어 210명 참여하였다. 교인들의 영의 양식을 위하여 2001년 3월 14일에는 목요성경대학을 개강하여 24명이 수료하였다. 교인들의 건강과 취미, 교제와 더불어 선교를 위한 스포츠 활동도 활발하여 마하나임 축구선교단, 자전거동호회, 등산선교회, 골프선교회, 색소폰선교회 등이 활성화되었다. 그중 마하나임 축구선교단은 춘천 시내 교회대항에서는 수차례 1위, 전국 3위에 입상하기도 하였다. 등산선교회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제와 정서 그리고 선교를 위한 영적·육체적 건강도 다졌다.

2004년 5월 22일에는 교회창립 65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 행사를 하였는데, 서울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로 교회행사에 처음 있었던 일로 성도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2005년 10월 18일 박상호 담임목사가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또 춘천시 장로교단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어 열정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6년 5월 27일 교회설립 67주년 감사예배 및 문화복지관을 준공하여(3층 300평)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많은 부서가 이용하고 있다. 2007년 3월 26일에는 박상호 담임목사가 강원노회장 피선(2008년 3월 31일까지)되어 노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춘천제일장로교회 최근욱 선교사 부부(앞줄 중앙)와 GMS 관계자 (2008년 3월 30일)

춘천제일교회(박상호 목사)는 2008년 3월 30일 최근욱·노상희 선교사의 몽골선교사 파송예배를 가졌다. 2009년 교회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단독선교사 첫 파송이다. 특별히 최선교사는 11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하던 중 춘천제일교회와 연결되어 파송 받게 되었다. 최근욱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타르에 선서글렁제일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몽골장로교신학교 교수 사역을 병행하여 사역하고 있다.[132]

2009년 3월 14일 춘천 LMTC(지역단기선교훈련원) 개원을 하고 목사, 장로, 평신도 42명이 선교교육을 받고 제1회 수료식을 하였고. 계속하여 5기까지 졸업했으며, 이후 온누리교회로 자리를 옮겨 이어지고 있다.

2009년 5월 23일 춘천제일교회(박상호 목사)는 교회설립7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춘천지역 최초 장로교 중 한 교회로서의 전통계승과 비전제시의 계기로 삼았다. 기념행사는 5월 2일 '지역교회 초청 축구대회'로 시작했으며, 5월 한 달 동안 축하예배와 기념예배, 임직 및 은퇴식, 춘천마임선교회의 선교 마임 공연으로 이어졌다.



70주년 기념 제일예술제에서 성도들의 찬양 모습
(2009년 6월 20일)

특히 6월 20일 교회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일예술제'에서 교인들은 교회 역사 사진전과 시화전, 미술전 등을 통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됐다.[133]

2015년 12월 8일에는 제13대 담임목사로 김창성 목사가 부임하였고 2016년 3월 1일 박상호 목사 은퇴 및 김창성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있었다. 김창성 목사는 교회비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삼고 영혼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4월 22일 교회설립 78주년 기념 원로장로 대 및 은퇴임직예배(원로장

132) 『기독신문』(2008.4.14), 「춘천제일교회, 몽골 선교사 파송」.
133) 『기독신문』(2009.6.22), 「개혁신앙 전통 굳건히」.


황병호 장로

로추대 황병호, 은퇴장로 박명호)가 있었다.

황병호 원로장로는 강원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강원대 교수선교회 회장 역임)로서, 또 선교학 박사로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북쪽의 임업을 회복할 꿈을 꾸고 있다. 국제기드온춘천캠프회장, 중부지역장로회연합회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강원지회장, 춘천홀리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황병호 원로장로는 춘천기독교 120년사 출간기념 춘천 기독교사 학술세미나(2022년 9월 27일)에서 "광염회는 춘천지역의 고교생 중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발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시대정신을 일깨우며 기독 청년으로서 지도자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 자기성찰과 성장, 세계관, 역사관, 문화관, 세계미래상을 일깨우고 자기계발과 교정 훈련, 영성훈련을 실시하는 16주 코스의 광염학원을 운영하였다. 광염학원을 통하여 많은 인재들이 양성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134]

3) 춘천성광교회


춘천성광교회 전경(2010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춘천성광교회는 2003년 10월 19일 춘천시 석사동에 교회를 신축한 후 첫 성전 입당예배를 목사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춘천성광교회는 1953년 2월 23일 창립됐다. 성전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이전 건축됐다. 70년 가까운 세

134) 『월드미션신문』(2022.10.3), 「강원도와 춘천의 기독교 전파와 그 사회적 역할」.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 방문 기념
(가운데 조용아 목사, 2019년 9월 11일)

월 속에서 계속 변하는 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해결해온 지역의 파수꾼이다.

코로나19로 선교가 위축받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대응목회로 성광교회는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 2020년 8월부터 춘천시가 주관하는 민·관 협력 마을공동체사업 플랫폼인 '더불어 벌말'에 참여하고 있다.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13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합류를 요청받았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춘천성광교회를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구했다. 교회 발 코로나19 확진자 사태로 불특정다수의 교회들이 경계대상이 됐지만, 춘천성광교회는 지역사회가 여전히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벗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이 불황을 겪자 치유와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원의 행복' 프로젝트를 2월 창립기념일에 맞춰 시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교회가 '만원 쿠폰'을 발행하고 협의를 맺은 석사동의 식당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한 달에 한 번 주보에 부착되는 쿠폰은 성도들이 직접 사용하거나, 전도대상자와 주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대접하도록 했다. 2월 셋째 주부터 10월까지 진행하며, 총예산은 약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헌혈 운동'을 연중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혈액부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1년간 성도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도 했다.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적을 따르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춘천성광교회에는 '마르지 않는 쌀독'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창립 60주년 때부터 동네 입구에 위치한 교육관 1층 끝쪽으로 별도



춘천성광교회의 마르지 않는 쌀독

의 공간을 만들어 쌀 단지를 가져다 놓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쌀을 가져가도록 했다. 별도의 예산 없이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로 쌀독은 채워진다. 서민들의 영육을 건강하게 채워줄 쌀은 보통 한 달에 70~80kg 정도가 소진된다.

10년 전쯤 시작된 '택시 전도'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춘천시 개인택시조합을 단체전도 대상으로 삼아 각종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협찬하며 복음을 전해왔고,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다음 세대 양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학생들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강원노회 지역 군부대 지원과 소년원 선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당회원들이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친가족처럼 희로애락을 함께 하므로 가능했다.

춘천성광교회는 해외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이기도 하다. 원로 김광국 목사 시무 시절 전 성도가 '해외선교 1달러 후원' 운동을 벌였고, 현재는 그 지경이 넓어졌다. 춘천성광교회는 해외선교를 '한 교회가 특정한 한 지역을 커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선교지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특정한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미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랑 지역을 집중선교하고 있다. 이곳의 복음화를 목표로 교회(기도처) 개척과 학교 지원 등의 사역을 했다. 또한, 해외선교의 기조는 현지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세우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 건축한 성광마하메루교회는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목회자는 무슬림 지역에서 유지로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조금



인도네시아 성광마하메루교회 창립기념

씩 넓혀가는 역량을 보였다. 한 명의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그런 취지로 인도네시아 신학생을 초청해 한국교회의 사역현장을 탐방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조용아 목사가 1년에 2번 세미나를 열어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신학교육 세미나에는 보통 30명 정도가 꾸준히 모인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베트남에 교회 건축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3. 성결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춘천중앙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의 2000년대 출발은 2003년 제5대 유동선 담임목사의 부임과 함께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춘천중앙노인대학'을 개교했다. 2010년 당시 재적 3000명에 매주 1000명씩 출석하였다.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분들 대부분은 춘천중앙성결교회 교인이 아니었으며, 학생의 50% 이상의 종교가 불교인 만큼 교회 노인대학이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목사는 노인학생들의 수송을 위해 버스 2대를 활용했으며, 본당을 노인대학장소로 제공했다. 그리고 춘천시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함으로써 지자체의 물질적 지원을 받고, 협력관계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8월 2일에는 교단 100주년 기념으로 이천제일교회 개척하고 건축했다. 2009년 7월 19일에는 춘천중앙지역아동센터를 개관했다. 2011년 10월 5일 춘천중앙지역아동센터와 기아대책과의 협약식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꿈



춘천중앙교회(유동선 목사) 꿈의 드림센터 입당감사예배 후 기념(2012년 4월 29일)

의 '드림센터'를 건립하고 2012년 4월 29일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또 남궁수명, 이정섭 장로가 차세대를 위해 은퇴하고 원로·명예장로로 각각 추대되었다.

드림센터 입당감사예배는 생명수 찬양단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었고 유동선 목사의 집례로 강원서지방 부회장 허남헌 장로의 기도, 지방회장 오생락 목사의 설교에 이어 드림센터 입당식, 추대식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회장 오생락 목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드림센터가 영적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유동선 목사는 입당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 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춘천중앙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지난해 8월 교육관 건축에 들어가 지하 2층 지상 5층의 드림센터를 건립했다. 드림홀(예배실)를 비롯해 각종 예배실과 세미나실 등 교육공간과 북카페 등이 들어섰으며, 철골조에 유리를 이용한 건축법으로 전망도 좋다. 드림센터는 본당과 이어지도록 설계됐으며, 본당 정면과 종탑도 리모델링해 외형상 예배당과 드림센터가 한 건물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날 교회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한원포럼건축사무소(대표 이주훈)과 시공업체인 제너시스 E&C(대표 이종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135]

2012년 5월 6일에는 로고스 북카페를 드림센터 2층에 개장하였고 2012년 8월

135) 『한국성결신문』(2012.5.3), 「춘천중앙교회, 꿈의 드림센터 입당」.

25일~9월 22일까지는 춘천아버지학교 37기가 진행되었다. 2014년 3월 30일 창립 80주년 기념교회 드림교회를 분리·개척(백승환목사 길선희목사, 춘천 동광길 7)하였다.


유동선 춘천중앙성결교회 담임목사

2015년 7월 5일에는 유동선 목사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에 총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취임 후 각오를 말했다. 7월 5일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취임 감사예배를 가진 유총회장은 '통일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를 교단의 표어로 정하고 분단 70년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부터 실천하겠다고 했다.

유동선 목사는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춘천CBS 운영이사장, 기성 선교사훈련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춘천중앙성결교회는 2000년 윤철중 담임목사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배출하게 됐다.[136]

2018년 5월 6일에는 제6대 담임 장기동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장기동 목사는 1998년 중부지역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뒤 서울 성은교회, 대관령교회 전도사를 거쳐 태백교회, 거문교회, 속사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해왔다. 장기동 목사는 2000년 담임으로 취임한 속사교회에서 14년간 목회하고 강원동지방회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북부산교회의 청빙을 받아 사역하다가 이번에 다시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를 이어가게 됐다. 2020년 3월 1일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와 소모임이 중단되어 주일 온라인예배가 시작되었다.

2) 소양교회

1996년 11월 3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양제일교회가 창립되었다. 12가정

136) 『강원일보』(2015.7.8), 「'평화통일 기도하는 운동부터 실천'」.

을 떼어 이주호 부목사와 함께 소양성결교회의 지교회로 소양제일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소양성결교회는 소양제일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목회자 사례비를 2년간 전액 지원했다. 어느 정도 자립의 터전이 잡혀간 3년째부터는 50%만 지원했다. 이원호 목사는 5000만 원을 후원해 소양제일교회의 호스피스 사역을 지원했다.

또 소양성결교회는 15년 넘게 매주 토요일 장애인선교관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주말학교는 리코더 등 악기를 사용해 찬양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배우는 인지학습, 미술치료학습, 체육 및 생활체험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사랑선교회는 장애우 어린이 한 명당 교사 1명, 기도후원자 1명을 연결해 매달 학부모 성경공부, 기도 모임을 열고 가정 사역도 함께 펼쳤다.

2016년도 이원호 목사의 뒤를 이어 김선일 목사가 부임했다. 김선일 목사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목회를 진행하고 있다.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 친교 등이 다섯 가지의 영역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1년에 하나씩 주제로 삼고 성도들이 그해의 표어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표어가 아니라,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전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목회적 방향과 프로그램 등을 그때그때 맞춰서 집중하고 있다.


김선일 목사

김선일 목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즉 현재 교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 그것들을 최소한 아는 흉내를 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함께 설교에서 교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내용과 관심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설교할 때 넷플릭스에서 흥행하고 있는 「수리남」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와 배경 인물을 인용하여 장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MZ세대 청년들에게도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것이 있다면 배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교회 성도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년층 성도들을 위해 키오스크 강좌를 개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선일 목사는 우연히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중에 유난히 매표소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고, 키오스크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간 후, 한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직원이 없고 오로지 키오스크 기계만 있어서 많은 장년층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이 강좌를 개설했다.


소양성결교회 전경(2022년)

김선일 목사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 또 맥도널드에 성도들이 함께 가서 실제로 연습도 해봤다"며,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면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역을 통해 소양교회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에게 '실제로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각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김선일 목사는 춘천성시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청년들의 부흥을 꿈꾸며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김선일 목사는 청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와 자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힘쓰고 있다.

소양교회는 또 연탄나눔 봉사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다.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하는 '소양교회365 오디오 성경통독' 프로그램과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누리학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자전거선교회를 통한 '소양가족 자전거 라이딩'프로그램, 배드민턴선교회에서 하는 '소양한마음 배드민턴대회', 탁구선교회에서 하는 '탁구교제모임' 프로그램, 봉투 안에 기도제목을 써서 함께 헌금하는 '씨앗헌금'프로그램, 부모기도회 등이 있다.

프로그램 중 '사랑누리학교'는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과 음악치료, 미

술치료, 매주 두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137]

춘천소양교회의 예수사랑선교회는 1997년 3월부터 20여 년간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우 53가정에 빠짐없이 매달 한 번씩 반찬을 배달한다. 선교회 회원들은 하절기에는 생닭, 동절기에는 양념불고기 등의 반찬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기도로 이들을 축복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소양교회 예수사랑선교회는 반찬봉사 이외에도 목욕봉사, 사랑누리학교 등 지역내 장애우들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섬기며 더불어 가는 교회로 지역을 섬기는 사명에 더욱 힘쓰고 있다.[138]

3) 소양제일교회

소양제일교회는 1996년 11월 3일에 창립되었고 창립된 지 2년 만에 춘천시 퇴계동 93-1번지(현 교회부지)에 성전건축과 입당예배를 드렸다. 2006년 2월 24일에는 교회 본 건물 옆에 선교관을 건축하게 되었고 사랑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이주호 목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목회 비전으로 삼고, 춘천시 사회복지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밖으로는 세계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소명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특히 2000년 11월에는 소양제일교회가 주축이 되어 개원하여 운영한 '기쁨의 집'(봄내호스피스의 부설기관)이 그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강원일보』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 *말기 암 환자들의 안락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시설 '기쁨의 집(대표 이주호)'은 27일 소양제일성결교회에서 병원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소양제일성결교회가 주축이 돼 2000년 11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개원한 '기쁨의 집'은 내년이면 무료 호스피스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0년째를 맞는다.*
>
> *그동안 '기쁨의 집'에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쉬어간 환자는 378명에 이*

137) 『기독교신문』(2022.10.4), 「춘천소양성결교회 김선일 목사-청년·장애인 사역으로 지역섬김 앞장」.
138) 『노컷뉴스』(2017.7.21), 「춘천소양성결교회 장애가정을 섬기는 반찬봉사」.

른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으로 현재 8병상 규모의 시설을 3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39]

라고 할 정도로 소양제일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실례이다. 2011년 마침내 봄내호스피스가 춘천호스피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완화의료센터를 개원했다.

춘천호스피스(대표 이주호 목사)는 2011년 12월 20일 '춘천 호스피스(부설) 완화의료센터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춘천호스피스는 소양제일교회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 지난 1999년 시작한 무료 요양시설이다. 그동안 춘천호스피스는 부설기관인 '기쁨의 집'을 운영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말기 암 환자 550명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였다.

춘천호스피스 기쁨의 집은 헌신적인 사역 덕분에 점점 입소문이 나며 입소 희망자가 늘어났지만 시설의 한계로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소양제일교회와 춘천호스피스는 6년 전부터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하고 전문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센터' 건축 비전을 품고 준비해왔고, 이번에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개원한 춘천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20명의 말기 암 환자의 입소가 가능하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며 환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춘천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3년 전에 구입한 3966㎡(1200평) 대지 위에 지난 3월 건축을 시작해 11월에 완공됐다. 총 3층 규모 1090㎡(330평)의 건축물이다. 특히 이번 완화의료센터 개원을 위해서 성결교회가 헌신하며 지원해왔다. 춘천호스피스 대표 이주호 목사는 소양제일교회 개척 초기부터 호스피스 사역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운영하며 그동안 헌신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왔다. 또한 소양교회도 물질과 기도로 꾸준히 사역을 후원하며 춘천호스피스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왔으며, 이밖에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역을 도왔다.[140]

소양제일교회 이주호 목사는 2010년 8월 15일에는 이근택 목사를 담임자로 춘

---

139) 『강원일보』(2008.9.24), 「병원건축기금 모금 바자회 호스피스 '기쁨의 집'」.
140) 『한국성결신문』(2011.12.30), 「춘천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개원」 참고.



춘천호스피스 부설 완화의료센터 개원 감사예배(2011년 12월 20일)

천바울교회를 분립·개척했다. 바울교회는 2년 후 동내면 거두리 43번지에 신축하여 입당하였다. 또한 2019년 한경묵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행복나무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4. 침례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춘천교회

춘천침례교회는 1995년 4월 5일 성전봉헌 및 집사안수(박석경·김종남·홍영길)를 하면서 황영찬 담임목사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였다. 황영찬 목사는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장, 춘천경찰서 경목실장,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장, 춘천경찰서 교경협회회장,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황영찬 목사

2009년 11월 8일에는 호칭 장로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9월 21~23일까지 충남 계룡시 3군본부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99회 총회 둘째 날인 22일 호칭 장로제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1,019의 대의원 중 절반이 넘는 617표를 득표해 '호칭 장로' 제도 도입을 통과시켰다.

서영우 기독교한국침례회 행정국장은 “다른 교단은 대부분 장로제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없다 보니 원로 교인을 예우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호칭 장로제는 운영위원회의 일원인 안수집사를 다른 교단처럼 장로로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당회는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목사와 집사 직분만 인정해 왔던 침례교는 다른 교단과의 대외적인 연합사업에 있어 집사직이 타 교단 장로와의 형평성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호칭 장로제 도입을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추진해 왔다. 당시 3분의 1에 해당하는 침례교회들이 이미 호칭 장로를 도입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11월 22일 주일 낮 감사예배에 은퇴 장로(조길보·박석경·임영일·안영수), 시무 장로(홍영길·최영식·이용한·조삼열) 명단이 있다. 안수집사가 장로로 호칭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지인 목사

2011년 8월 6일에는 중고등 학생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방문, 2012년 4월 1일 이지인 목사가 제6대 목회자 부임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2012년 5월 30일 유진대 목사(워싱턴 선한이웃 침례교회, 미국 뱁티스트신문 발행인) 초청설교, 2012년 6월 24일에는 황영찬 목사 원로목사 추대 겸 이지인 목사 제6대 목회자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2012년 7월 4일(수) 이종호 남수단선교사 초청예배 11일(수) 이후선 인도 켈커타 선교사 초청예배, 2012년 7월 22일 황수관 장로 초청집회, 2012년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에는 임광 목사(워싱턴 지구촌교회 수석부목사) 초청예배 등 2012년 하반기에는 이지인 담임목사 취임과 함께 새로운 영의 양식 공급을 하였다.

2013년 4월 7일 교회창립 60주년을 맞아서는 본당에서 6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는 이지인 목사의 사회로 박석경 장로의 기도, 한영자 권사의 성경봉독,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의 설교와 장미경 집사(지구촌)의 축하찬양



교회창립60주년 기념(2013년 4월 7일)

으로 이어졌다. 이동원 목사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마16:18)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피값주고 세우신 춘천침례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히 춘천침례교회와 지구촌교회가 협력교회 조인패를 교환하며 앞으로 선교와 전도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조인식을 가졌다. 이어 황영찬 원로목사의 회고사, 이상린 춘천지방회 회장, 이숙재 아시아여성연합회 회장, 김진태 춘천시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무장로 내외의 인사, 홍영길 선임장로의 헌납증정, 임영일 장로의 광고가 있었다. 이날 함께 한 춘천교회 온 교우는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다짐했다.[141]

2013년 4월 27일에는 JEBS(춘천토요영어성경학교)개원(2014년 3월까지)이 있었고 2013년 6월 18일에는 장년성경공부(화요반/수요반)개설, 2013년 7월 14일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식(윤향춘·김지미 집사)이 있었다. 2013년 8월 5일~8일에는 국내단기 선교팀 26명이 관사도침례교회(김요셉 목사시무)를 다녀왔고 2013년 11월 10일에는 침례식(김연화·김홍렬·서은숙·임춘희·한명애)이 있었다. 2013년 12월 8일에는 장미경 집사초청 찬양집회, 고소정 선교사(일본 치바현 아비코일본인 선교회) 찬양예배가 있었다.

2014년 12월 7일 김용관 선교사(필리핀) 주일 오후 찬양예배 초청설교, 2015년 3월 22일 중국 선교사 김용기(변혜숙) 주일 찬양예배(남선교회 헌신예배) 설

141) 『침례신문』(2013.4.12), 「말씀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되길」.

교, 2015년 4월 19일-22일에는 춘천지방연합부흥회(논산한빛침례교회 강신정 목사)를 본교회에서 개최하였다. 2015년 6월 14일에는 김기태 목사(해외선교회 파송 인도선교사) 파송 및 에스더여선교회 헌신예배, 2015년 10월 16일에는 춘천지방회 주관 전략개척을 위한 연합기도회(강원 차덕수 목사 설교)를 개최하였다.

2016년 1월 4~7일에는 학생부 흰돌산 수양관 동계수련회(16명+2명)를 하였고 2016년 1월 24일 청지기 세미나를 열어 문경식 몽골선교사가 설교하였다.

2022년 현재 교회창립 7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역사관을 준비하고 있다.

2) 춘천한마음교회

초대교회의 복음을 찾기 위해 진통하던 김성로 목사와 춘천한마음교회는 2001년과 2006년 결정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요 16:9)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믿는 '주되심'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춘천한마음교회는 초대교회 복음의 회복을 통해 성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고, 지금까지도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누리고 있다.

춘천한마음교회는 장년 850명, 유치부 100명, 초등부 110명, 중고등부 130명, 청년 대학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청



한마음교회 황포돛대 같은 디자인의 성전과 예배하는 모습(2014년 12월 1일)

년부가 전체 출석 교인의 40%이며, 전체 성도의 약 90%가 50세 미만으로 구성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교회'이다. 또한, '가족공동체 교회'이다. 춘천한마음교회의 예배는 새벽예배, 수요예배, 토요찬양 예배, 주일 1·2부예배로 구성되어 있다.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시작하여 7시까지 이어지며, 새벽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즐겁게 아침 체조를 하고 함께 아침식사를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춘천 한마음교회는 '참 성도를 키우는 교회'이다. 서울, 경기, 충남,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간증을 통해 일반성도들이 말씀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로 참되게 자라나고 있다.

복음을 통해 세워진 춘천 한마음교회는 영적 리더인 목회자 한 명과 164개의 '작은 교회(small church : 열 명 내외의 정도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교회)로 구성된다. 모든 일반 성도가 그들의 작은 교회에서 제자양육, 예배, 전도, 찬양, 구제 등 소공동체 사역을 담당하며 부흥을 이끌고 교회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국가, 건물, 지역, 성별, 나이를 초월한 복음의 전파와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가정, 학교, 직장 등 실제 삶의 영역에서 또다시 새로운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가고 있다. 현재, 춘천한마음교회의 작은 교회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강원영서와 영동, 충청남도와 부산 등 국내 지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 홍콩 등 세계 각 지역에 퍼져있다. 각 작은 교회는 춘천한마음교회의 지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역과 나라마다 복음 전파와 제자양육을 위한 선교본부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김성로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춘천한마음교회는 2013년 5월 5일, 구 우사교회 예배당에서 현재의 건평 1,007㎡, 연면적 4,948㎡ 규모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교회 건물은 춘천 소양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그대로 수용해 지역 이미지를 랜드마크한 '황포돛단배' 디자인 컨셉이다. 예배당을 멀리서 보면 흡사 물위를 떠다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건축물로 소문이 자자하다.

5. 순복음과 춘천지역 교회

1)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모습(2022년)

순복음춘천교회는 창립된 후 30주년 만에 효자동 시대에서 만천성전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효자동 교회의 정리가 끝나지 않아 1부는 효자동 구교회에서 드리고 2부·3부 예배는 2001년 7월 1일부터 만천 새 성전에서 드렸다.

순복음춘천교회는 1972년 4월 3일 춘천 효자동 18평 2층에서 김주환 목사가 개척,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이듬해 팔호광장 인근으로 성전을 이전했다. 2002년에는 만천성전으로 이전하고 2003년에는 혜민사랑의집(대표 조남진 장로)을 개관했으며, 10년 동안 연인원 28만4천7백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했으며, 그동안 들어간 비용도 5억여 원이 사용되었다. 또한, 2004년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두란노어머니학교, 두란노부부학교를 잇따라 개설했다.

특히 만천성전시대에서는 선교, 봉사, 성시화, 북한 돕기 등에 주력하였다. 이에 교회 개척, 북강원도에 자전거 천 대 보내기 운동 동참, 수재의연금 기탁, 혜민사랑의집을 통한 어르신 공경, 춘천성시화특별성회, 군선교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본다.

춘천성시회를 위한 춘천 시내 교회 연합선교대회가 임마누엘감리교회 김국도 목사를 강사로 2001년 10월 28일 저녁부터 30일까지 호반체육관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본교회 김주환 목사가 춘천시기독교연합회장으로서 개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연합찬양대도 교회 갈릴리·시온찬양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선교대회는 김국도 목사의 은혜로운 말씀과 대회 본부의 원만한 진행으로 은혜롭게 마쳤으며, 같은 기간 중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과 목회자 간의



혜민사랑의집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모습(2012년)

친선체육대회도 열렸다.

춘천성시화 1일 특별성회에는 춘천성시화를 위한 김준곤 목사(CCC총재) 초청 1일 특별성회로, 2005년 10월 28일 오후 7시 본 교회 대예배실에서 5백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을 처음 제창하고 춘천에서 7천여 명을 체육관에 모아 춘천성시화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김준곤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춘천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성시화의 모델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며, 성시화 된 춘천의 미래를 내다볼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였다. 이날 예배는 본 교회 김주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춘천성시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의 기도가 있었고 김준곤 목사의 설교에 이어 춘천에서 검사장을 지내며 춘천성시회운동을 부활시킨 전용태 장로의 간증 등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해 갔다. 이날 예배에는 부산, 광주, 부천 등지에서 성시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뜻 있는 자리가 되었다.

2005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어머니학교 춘천1기 개교예배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50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어머니로 하여금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가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강의 주제는 ①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② 아내로서의 사명 ③ 어머니의 영향력 ④ 기도하는 어머니 ⑤ 십자가와 사명을 삼았다.

2005년 11월 14일 순복음강원신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였다. 1995년 순복음강원신학교 설립을 위한 운영이사회가 결성되어 이사장에 김주환 목사(순복음





순복음 강원신학교 졸업식 설교(김주환 이사장)와 졸업기념(2005년 1월 25일)

춘천교회 당회장)가 선임되면서 개교하게 되었으며, 초대 학장에 백승호 목사, 2대 학장에 권순재 목사, 3대 학장에 이춘일 목사가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에는 교단 총회 직영 신학교로 개편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 영서지역의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의 지원이 계속되어왔다. 11월 10일(목)에는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300여 명의 내외빈과 교수, 동문, 재학생들이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는 교무처장 남궁록 목사의 사회로 엄진용 이사의 기도, 동문회장 이관선 목사의 성경봉독, 이사장 김주환 목사의 「희망을 주는 사람」 설교 말씀과 이춘일 학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2006년 4월 8일 예비 아버지학교 춘천 1기가 교육관에서 개설되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과 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개설된 이 예비 아버지학교는 본교회 청년지도를 맡은 채병조 안수집사(강원대 교수)의 헌신적 노력으로 개설된 것으로 앞으로 청년회 발전과 아름다운 새가정이 기대된다. 또한, 새생명 훈련원 1단계 1기 개원예배가 대학생선교회(CCC) 대표 박성민 목사를 강사로 2006년 4월 9일 오후 2시 훈련생과 성도 등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9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주환 목사는 2008년 강원일보사와 공동으로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 돕기 범도민운동본부(본부장 조남진)을 세우고 이듬해 1만 명분의 결핵 약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5회 DMZ평화상교류협력상을 수상했으며, 상금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돕기 후원의 밤에서 인사하는 김주환 목사(2008년 6월 3일)

전액을 도내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로 써달라며 도 교육청에 기탁했다.

또한, 김주환 목사와 조남진 원로장로는 2008년 1월 29일 오전 8시 30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예방, 평양에 북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조용기 심장병원 건립을 축하하고 본교회에서 5천만 원의 건립비를 조용기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어서 강원도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환 목사)와 강원일보, 춘천CBS가 공동 주최한 북강원도 결핵어린이 돕기 후원의 밤 행사가 6월 3일 오후 6시 30분 춘천시내 '라데나 콘도'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춘천지역의 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인들은 물론 화천, 철원, 양구 등지의 자치단체장까지 참가하여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고통 받는 북강원도 결핵 어린이를 돕자고 결의했다. 이날 만찬회에는 김진선 지사를 비롯한 허천 · 황영철 국회의원, 이기순 도의장, 최현섭 강원대총장, 이영선 한림대총장, 한장수 도교육감, 김학의 춘천지검장, 남현수 강원지방경찰청장, 김병두 적십자회장, 김명기 농협도본부장등기관단체장, 기업인, 기독교지도자 등 2백여 명이 모여 성금을 내고 북강원 결핵어린이 돕기를 다짐했다.

2008년 6월 9~11일에는 춘천흘리클럽 창립 12주년 기념 춘천성시화 성령대부흥회가 강사 장경동 목사를 초청하여 6월 9일 저녁부터 11일 저녁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 춘천흘리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성회는 춘천순복음교회가 생긴 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로 매일 저녁집회 1천5백~2천 명의 성도가 모여 은혜를 받았다. 재미있는 어휘 구사와 설교로 청중을 휘어잡은 설교자 장경동 목사는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성시화가 될 수 없다면서 개개인의 철저한 회개와 성령충만을 강조했다.

이 대회를 주관한 흘리클럽은 당시 전국 30여 개 도시와 6개국 20여 개 도시에 조직되어 믿음과 사랑의 거룩한 도시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1996년 춘천에서 최초




춘천성시화 성령대부흥회(강사 장경동 목사, 2008년 6월 9일~11일)

로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에 본교회 조남진 장로, 지도목사에 김주환 목사가 맡아 창립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신앙단체이다. 당시 검사장으로 재임 중 전용태 장로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원장 양인평 장로에 의해 양육된 단체이다.

2012년 2월 15일 김주환 담임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대 이사장 취임, 2012년 5월 10일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360명), 2013년 4월 8일 60일 겨자씨 축복작정기도회, 2013년 5월 7일 혜민사랑의집 창립 10주년 기념경로잔치 등을 끝으로 김주환 목사의 임기가 마무리되었다.

2013년 5월 17일 오후 2시, 본교회 본당에서 김주환 원로목사 추대식과 이수형 담임목사 취임식이 열렸다. 이수형 목사는 방향설정(고전 9:26, 빌 3:14), 믿음의 열정(롬 12:11),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라는 3대 목회철학과 '춘천성시화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는 교회, 세계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회'라는 4대 목회비전을 가지고 목회사역에 임했다. 이와 함께 영성회복, 가정회복, 말씀회복, 사랑회복, 전도열정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큐티세미나, 바이블칼리지, 통큰통독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아 춘천과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 영향력을 미치며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강원도조찬기도회,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2군단 산하 연합찬양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2022년에는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 이사


김주환 목사와 이수형 목사
이취임식(2013년 5월 17일)

장으로서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GIG)를 발족하고 구미 3개국 방문, 세계인터강원협력네트워크 16개 회원국대표단 초청 방한 행사 등을 주최하고 진행하였다.

현재 이수형 담임목사는 국민일보 목회자포럼 운영위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 강원 CBS방송국 이사장, CTS 기독교TV 운영이사, 강원지방경찰청 경목,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 지도목사, 순복음총회신학교 부총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사랑나눔 강원지회 대표이사,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상임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장, 기하성 강원지방회장,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세계인터강원네트워크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시국 속에서 비대면 주일예배(온라인예배), 온라인기도회, 온라인예배 세미나(김대학 목사, 교회성장연구소) 등을 진행하였고 2021년 11월 28일에는 테마가 있는 저녁예배 '사랑나눔 Family Day', 2022년 3월 13일 11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개강 등을 하였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서 2022년 8월 13~15일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 순복음조은교회

순복음조은교회는 순복음춘천교회의 지원을 받아 오의석 목사가 1999년 10월 19일 남춘천순복음교회로 강원예식장에서 창립했다. 2000년 1월 19일 퇴계동 77 퇴계타운401호 50평 분양받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2007년 3월 11일에는 김숙분·박송재·위혜정·김혜숙 집사들이 권사로 취임했다.

2011년 4월 8일 퇴계상가에서 이사 나와서 교회건축 용지를 찾아 4개월 동안 강남금식기도원으로 철야를 다녔고 예배는 3~4개월 동안 김숙분 권사의 집, 김은주 집사 아파트를 이용하였다. 2011년 7월 6일에 삼천동 22-13번지 전 230평을 계



순복음조은교회 전경

약하고 2012년 4월 16일 착공(단층 83평)을 하였는데, 2011년 10월경에는 삼천동 교회부지에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2012년 6월경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2012년 7월 31일 1층 입당예배를 드렸다.

2013년에 교회를 명칭을 남춘천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조은교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2층 증축 신고를 하고 9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 8일 2층 예배실 준공을 마쳤다. 2018년 6월 10일에는 성전 완공 입당예배 및 인수집사(박재화·이대규·김영규·오용남), 권사(이정연·송수원) 임직예배가 열였다.

2019년에는 순복음조은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원주민 주택 지원 선교를 하였다. '조은'(朝恩)은 '아침'과 '처음'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먼동이 트는 시간을 의미하며, '처음 은혜'의 뜻을 담고 있다. 오의석 목사는 1989년 서울 방배동에서 개척해 그동안 정선 예미순복음교회,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사역하였고, 2000년 춘천시 퇴계동 상가교회에서 2011년 삼천동에 230평을 구입해 오늘날 성전을 건축했다.


오의석 목사

2019년 10월 30일 오의석 목사는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추대됐다. 400개 교회의 수장으로 순복음교회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고 김주환 목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총무로 7년, 강원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2년을 맡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한국 17개 광역 시도사무총장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민족캠페인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미주방문 뉴욕

대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국제동계스포츠선교회 미션하우스'인 백두대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건축하는데 사무총장으로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

6. 기타교단 및 춘천지역 교회

1) 대한성공회춘천교회



새희망쉼터 가족들과 관계자들 기념

대한성공회춘천교회는 1980년대 후반 춘천지역의 민주화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의 보호막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고 이후 90년대 말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새희망쉼터'를 만들고 지금은 독립을 했지만 2000년 춘천나눔의집을 세워서 무료급식과 노숙자를 위한 숙소도 운영했다. 이렇듯 춘천성당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며 걸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한성공회 춘천교회(관할사제 방홍식 신부)는 2016년 5월 27일 어렵게 살아가는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음악회 '제5회 사랑나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시력을 잃은 어머니와 두 동생이 있는 소녀를 위해 열린 그 음악회는 그동안 자율기부형태로 꾸려졌던 것과 달리 티켓 판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마련했다. 티켓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250여만 원은 모두 장학금으로 후원하고 연주회 비용은 춘천교회에서 전액 부담했다.[142]

142) 『춘천사람들』(2016.6.1), 「시민과 동행하는 신문」.

2) 구세군과 춘천지역 교회



구세군춘천교회

1973년 12월 구세군춘천교회에서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구세군의 대표적인 활동인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시작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2월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시국에서는 봄에 자선남비를 울리기도 하였다. 구세군 교회에서는 초창기부터 설과 추석 명절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수해, 눈사태,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긴급지원,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배달과 무료급식 등 지역 내 사각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구세군소양교회(영문)는 2010년 사택과 별관을 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별도로 존재하던 영문, 사택, 가정단실을 2010년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과 행정관리를 통해 1개의 건물로 등록하여 현재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1년 영문의 리모델링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진입 평가에 합격하여 국가지원을 받는 시설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구세군북춘천교회(영문)는 1996년 서울제일영문(서대문영문)이 개척했을 때는



구세군소양교회(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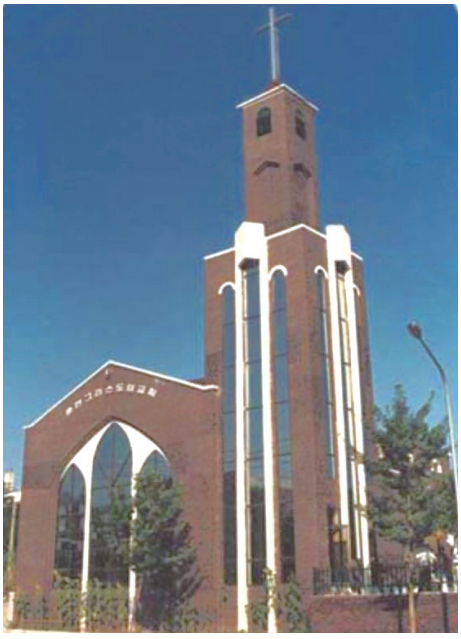
구세군북춘천교회(2017년)

허허벌판에 세워졌지만 현재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2013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시설이 폐업되었고, 다문화센터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영문 리모델링으로 내·외관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현대 트렌드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용의하다. 또한 공간의 활용을 높여서 현재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작은 영문이기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과 젊은 층의 군우가 많다. 그러나 구세군소양영문과 구세군북춘천영문은 구세군대한본영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통합되어 춘천 시내 구세군 교회는 현재 구세군춘천영문(석사동 소재)과 구세군북춘천영문(사농동 소재) 두 곳만이 남아있다.

3) 그리스도의교와 춘천지역 교회

춘천교회에 목회자로 김중환 신학생(6개월)-이호열 목사(6년)-전두병 목사(12년)-조영호 목사가 34년으로 차례로 사역을 하였고 2019년에 조영호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교목실장으로 있던 하용수 목사가 부임하여 섬기고 있다. 춘천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박종식 목사와 이상준 목사는 송암동과 강촌에 각각 그리스도의교회를 개척하였다. 아울러 춘천교회에서 사역하였던 전두병 목사는 그의 아들에 의해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가 개척돼 사역하고 있다.


춘천그리스도의교회 모습

춘천그리스도의교회의 기도와 개척지원으로 춘천 퇴계동 26 블럭 10롯트 2층(25평)에서 시작되었다. 만 4년 후인 2001년 6월 18일 송암길 17-15(송암동 194번지)로 이전하여 감사예배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춘천그리스도의교회(1998년 10월 18일 설립)는 화목원길 45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교회를 설립한 전성원 목사는 전두병 목사의 아들로 오랜 기간 춘천 청소년 수련원 원장으로 사역하였고 청년사역의 청소년과 청년사역의 비전을 갖고 생활해오고 있다. 92정비대대 내에 있는 선진교회, 강북지역아동센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 모습(2022년)

터, 춘천 은혜기도원과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

역동적인그리스도의교회(2019년 3월 2일 설립)는 남산면 강촌리 676-30에 소재하고 있으며, 춘천이 연고인 이상준 목사가 개척했다. 성도의 삶의 실제적 변화를 위해 가족상담, 여행, 등산(운동), 제자훈련(말씀), 기도회, 개인의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교육하고 있다.

4) 루터교와 춘천지역교회

2022년 현재 루터교회는 공식적인 교구나 지방회가 있지 않다. 강원도에는 춘천에 두 곳, 인제에 신남동산교회가 있다. 춘천에는 2018년 대림절 첫 주일인 12월 2일 창립된 춘천교회(St. Paul Lutheran Church, 원종호 목사, 춘천시 효자1동 547-71)와 2022년 6월 26일 창립된 가까운 교회(최준혁 목사, 춘천시 사우벌길 55)가 있다.

원종호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책임자로 교단본부에서 근무하다가



505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춘천루터교회에서 강원지역 세 루터교회(춘천가까운교회, 인제신남동산교회)가 모여 연합예배 드린 후 기념(2022년 10월 30일)

50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친 2018년 1월 교회 개척 소명을 받아 춘천에 교회개척 준비를 시작하였다. 2018년 12월 2일 첫 예배를 드림으로 춘천루터교회가 개척됐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지만 "기본에 충실하자"고 다짐하며 사역을 하고 있다. 이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상태이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한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데 중점을 두며 하루하루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3절 춘천성시화운동

1.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활동

평신도지도자들 중심의 춘천성시화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목회자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즉 성시화운동본부는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성시운동을 돕는 평신도지도자 모임인 홀리클럽으로 하여금 협력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에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부활절 새벽촛불예배, 십자가 고난행진을 계획 실행하였고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 문화행사를 계획, 실행해 나갔다.

2002년부터는 성시화운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총력전도운동을 계획 실행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도행사와 더불어 해외선교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아울러 성시화운동은 지속적으로 교회와 지역, 세계선교의 비전,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고 힘쓰게 되었다.

2006년 3월에는 제1기 성시아카데미를 개최한 데 이어 5월에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 목사가 춘천을 방문했을 때 춘천성시화 국제대회를 제안하고 성시운동의 국제화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우두교회의 교인들의 춘천성시화운동과 그에 따른 행사에 참여한 것을 통하여 춘천지역 교인들이 얼마나 성시화를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춘천성시화 총력전도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전도 요원과 함께 지역 노방전도가 있었고 주일인 9일 저녁에는 호반체육관에서 연합전도 대집회가 열렸다. 2001년에는 춘천성시화 연합사경회와 대성회가 열렸다. 2002년에는 춘천성시화 총력전도대회가 7월 5일(금)부터 7월 8일(월)까지 열렸다.

우두교회는 이때를 기해 전 교인의 전도훈련을 실시하였다. 2004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열렸다. 약 20명의 전도팀이 왔는데 7월 4일 저녁에는 CCC 도시 순례 전도팀의 전도보고 예배로 드렸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노력한 사업은 춘천기독교방송의 개국이었다. 이 사업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8년 월 춘천기독교방송국 설립을 위한 걷기대회가 열렸다. 우두교회 교인들은 티켓을 구입하여 참여하였다.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신현균 목사와 전가화 목사를 강사로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1992년에는 10월 11일 감리교회 감독 회장인 장광영 목사를 초빙하여 시청 강당에서 춘천기독교방송국 설립추진대회를 가졌다. 우두교회는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녁예배를 대체하였다.

1994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춘천기독교방송국 건립을 위한 춘천복음화대성회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강사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였다. 우두교회는 춘천기독교방송국 건립을 염원하며 2.000만 원을 후원하였고 지금까지 매월 30만 원씩을 춘천기독교방송국에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춘천지역 성시화를 바라는 전 기독교인의 수고와 노력으로 1995년 5월 1일 춘천기독교방송국이 개국되었고 저녁 7시에 축하 연합예배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춘천기독교방송국이 개국된 후 1998년 12월 20일과 1999년 10월 24일에는 우두교회 2부 예배 실황을 녹음 방송함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선교의 한몫을 차지하였다.[143]

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또한 춘천기독교방송국 개국을 통한 성시화에도 얼마

143) 『우두교회80년사』, 237~238쪽.

나 주목했는지를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성시화운동은 국내 38개 도시와 국외 한인 디아스포라 밀집 지역 8개 도시에 확산되었다. 국내로는 춘천, 대전, 부산, 광주, 서산, 당진, 청주, 완도, 대구, 예산, 홍성, 구미, 서천, 포항, 군산, 목포, 천안, 태안, 울산, 원주, 순천, 전주, 보령, 여수, 서울, 영덕, 부천, 인천, 울진, 통영, 김천, 김포, 제천, 신안군, 전주, 제주, 남해(이상 38개 도시)이고 국외로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뉴욕, 런던, 동경, 토론토, 산호세(이상 9개 도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도 출범시켰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10년 9월 8일(수) 오전 7시 신성교회에서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정재호 성시본부사무총장이 사회를, 찬송(505장), 이학규 장로(홀리클럽 회장)가 대표기도를, 조영호 목사(성시화운동본부장)이 '본받을 사람(행1:1~5)'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찬송(320장), 사회자 광고,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창립총회에서는 조영호 목사의 사회로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개회기도, 이사회 구성 및 이사장 선출, 기타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김창수 목사(신성교회)가, 부이사장으로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각각 추대되었다. 김창수 이사장은 "춘천 내 교회와 성도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령 운동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성령운동을 펼쳐 지역교회 부흥되게 하며, 매스컴을 잘 활용하여 안티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장선교회의 활동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성시화를 위한 이사회 창립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김창수 목사의 인사모습(2010년 9월 8일)

『춘천성시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전문 그대로 싣는다.[144]

춘천신성감리교회는 김창수 담임목회자(춘천신성감리교회, 전 감리교동부연회 감독,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 이사장)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땅 끝까지 선교와 나눔의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성도들이 연합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이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죽음을 각오한 김창수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한얼산기도원'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던 김창수 목사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이후 교인들에게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며, 성도들과 함께 38년을 성실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교회가 성숙하려면 신앙이 자라야 하고 신앙을 삶 속에 실천하는 생활화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시화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는 김창수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 이사장으로서 사역을 기대하며 성시화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함께 품어보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 이사장으로서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사람이 초대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추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춘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소에 성시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시화를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사장으로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주 모임을 갖고,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면.

---

144) 『성시신문』(2020.10.1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재단이사장 취임 인터뷰」. 김창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 온 성역 40년』, 강원일보사, 2012, 185~188쪽 참조.


초대 이사장 김창수 목사

가장 시급한 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시화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화는 무엇이고, 성시화는 무엇인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개념을 잘 정립하여 춘천의 모든 교회가 성시화를 한 목표로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시화를 효과적으로 이루는데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성시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전도훈련이 중요합니다. 전교회가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큰 교회가 분담하여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전도요원양성이 필요한 교회들을 섬겨주어야 합니다. 셋째, 언론기관을 상대할 수 있는 기독교기관이 필요합니다. 안티기독교 세력들은 교회를 비방하는데 모든 매체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사회에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넷째, 직장선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성시화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 직장 신우회들이 활성화되도록 교회가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춘천의 기독교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년 변화하는 교회수와 교인수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이단교회를 규명하고 파악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내년에는 전교회가 한번 힘을 총 결집해서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선교대회를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춘천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선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신성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매우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분야에서 꿈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에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은 결국은 인물을 기르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운동입니다. 기독교연합회가 이 일에 비전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실력과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판합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영역에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평소의 좌우명과 춘천의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제가 신학교 졸업식 때 교수님들이 저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근면상입니다. 교수님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무이하게 저에게만 주신 상입니다. 공부를 특별하게 잘한지 못했지만, 4년 동안 신학공부를 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교수님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제 목회의 바탕은 근면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하는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 되어 화합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주의, 개 교회주의로는 한국사회와 한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춘천성시화를 위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여 춘천성시화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춘천성시화운동은 각



춘천성시화를 위한 1차이사회(2012년 2월 15일)

영역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기르는 운동이라고 강조하였다.

2대 이사장은 김주환 목사가 맡았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제1차 이사회(이사장 김주환 목사)가 2월 15일(수)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렸다.

박상호 증경본부장, 엄대섭 본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인관 부본부장의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에서 김주환 이사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빚진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시화를 위해 동참할 것"을 도전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분명 성시화운동을 통해 교회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구성과 2012년 사업계획, 실행예산 심의, 정관개정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순복음춘천교회에서 마련한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였다.

춘천성시화운동(이사장 김주환 목사)는 7월 19일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 당



춘천성시화본부 이사회(2012년 7월 19일)

회장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재호 사무총장의 상반기 사역 및 이사회비 현황보고에 이어, 2012 춘천선교대회 계획에 대하여 협의한 후 성시화의 하반기 사역과 선교대회를 위하여 합심기도 하였다.

김주환 목사(2012년 1월~2012년 12월) 이후 원종국 목사(2013년 1월~2013년 12월), 김창환 목사(2014년 1월~2016년 10월), 박인관 목사(2016년 11월~2019년 10월), 이수형 목사(2019년 11월~현재)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도 춘천성시운동본부 정기총회가 12월 27일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열려 성시본부 이사회 제2대 이사장으로 이미 이사회에서 선출한 김주환 목사의 이사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총회에 앞서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이학규 장로(흘리클럽직전회장)의 기도에 이어 성경 녹 4:18~19절 말씀이 봉독 된 후 김주환 목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제목의 설교를 통해 "춘천성시운동의 역사는 순복음춘천교회의 창립과 함께 이루어 의미가 깊다"라고 전제한 후 성시운동은 ① 교회부흥 운동으로 시민 50% 이상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운동 ②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운동 ③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형성케 하는 운동 ④ 성령충만하여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이 운동을 통해 성시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성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시운동회비 증가 운동을 벌여 효과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뜻을 비쳤다.[145]

한편, 2012년! 춘천에서 한국 최초로 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춘천의 성시화운동은 1970년대 초 평신도 4~5명의 성경공부 모임이 씨앗이 되어,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주관으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펼친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시발점이다. 그 후 1974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4일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초청 '춘천복음화 연합선교대회'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에는 각 직장선교회, 학원선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춘천성시화운동의 진로를 모색해 오다가, 1990년대 중반 당시의 춘천지방 법원장(양인평 장로), 춘천지검 검사장(전용태 장로), 강원일보 사장(조남진 장로), 안기부장, MBC 사장, 춘천시장, 경찰서장, 한전 사장 등이 '기독교 기관장 기도모임'을 가

145) 『순복음춘천교회40년사』, 540쪽.

지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활성화 되었고, 지금은 '춘천성시화와 춘천홀리클럽 연합운동'이 하나의 도시선교의 모델이 되어, 80여 국내 주요도시 뿐만 아니라 해외 20여 개의 주요도시로 확산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0주년이 되던 2012년에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김주환 목사)가 성시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의미 있는 선교대회를 거행하였다. 선교대회는 9월 7일부터 22일까지 '40주년 기념 선교대회'(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의 본 행사인 부흥성회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2012 춘천선교대회 부흥성회는 9월 9일부터 3일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조용기 목사와 한국교회와 성시화운동을 지도적으로 섬기고 있는 소강석 목사를 통해 비전과 도전을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성시학회(회장 조은제 목사)에서는 40주년을 기해 성경 말씀과 기독교 선교역사에서 주는 통찰과 안목 성시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는 '성시화운동 40주년 거룩한 도시 만들기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 주제 :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운동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의 기조강연과 함께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를 비롯해 구동태 감독(경남), 박희민 목사(미주), 이정재 장로(광주) 등의 강사가 발제하고, 양인평 장로(세계성시화 대표회장), 조남진 장로(춘천성시화 초대본부장, 전 강원일보 사장), 문선재 목사(세계성시화 명예총재),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 부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찬양을 통하여 심령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건강한 신앙 성숙을 위해 '마커스와 함께 하는 찬양축제'가 9월 8일(토) 저녁 6시부터 초대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11일(화) 도시전도대회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13일(목) 교회성장 세미나가 춘천광염교회에서, 15일(토) 기아체험 난민걷기대회가 한림대 대운동장에서, 새가족 정착을 위한 사역자 훈련이 그말씀교회에서, 22일(토) 복음의 다음세대 춘천어린이전도대잔치가 춘천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다.[146]

146) 『교회연합신문』(2012.9.10), 「성시화운동 40주년 기념 춘천선교대회」.

2.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 행사

1) 춘천성시화운동 연혁

1972년 7월 31일~8월 4일까지 춘천성시화 전도대회가 개최된 지 2022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50년 동안 춘천에서의 성시화운동은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 활동 내용

연도	활동내용
1970	● 춘천평신도 성경구락부 탄생 및 활동 - CCC 김준곤 총재 춘천방문, 춘천 평신도 성경구락부 대표와 교계 지도자들에게 춘천을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상호 합의함.
1972	● 7월 춘천성시화 전도대회<춘천 성시화운동의 시발> -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소속 대학생 5천명이 1972.7.31~8.4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집회 및 춘천 전역 전도. <지역교계와 대학생선교회 간의 의견 차이로 춘천성시화운동위원회는 해체되고, 평신도성경구락부에서 성시화 집회를 이어 감>
1973	● 예수원 원장 토레이 신부 초청 성경 강좌 개최
1974	● 기독교 지도자 초청 강좌 개최 - 예수전도단 창설자인 데이비드 로스 목사 초청 강좌 개최. - 서울공대 황희융 박사, 중앙대 최재선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등 당시 새로운 신앙운동을 주도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등 은혜를 나누는 활동은 계속. ● 10월 '춘천복음화 전도대회' - 강사 : 조용기 목사, 장소 : 춘천실내 체육관 - 도지사 등 기관장 초청 조찬기도회, 군부대, 교도소 방문 등 다양한 행사 병행 - 이를 통해 춘천의 기독교인 증가율이 47.2%에 달함. - 또한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들을 초청한 '조찬기도회'를 개최.
1980	● 1월 21일 '춘천복음화운동위원회' 설치 -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복음화운동 위원회' 결성,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다시 돌아온 김연호 목사를 위원장으로 추대. ● 7월 31일~8월 3일 춘천복음화 전도대회 개최 - 강사 : 김준곤(CCC총재), 김세창(세계복음화운동 총재) - 주관 : 춘천복음화운동위원회, 장소 : 춘천실내체육관. CCC 김준곤 총재와 세계복음화운동 김세창 총재를 초청하여 "춘천시민을 그리스도에게로, 춘천을 성시화 하자"는 주제로 춘천복음화 전도대회를 개최.
1981	● 8월 청소년 성시화복음화대회 - '청소년 성시화복음화대회'를 삼천동 어린이회관에서 개최. - 주강사 : 예수전도단 대표 오대원 목사

연도	활 동 내 용
1983	● 9월 성시화 전도대회 - 오대원 목사 초청 '성시화 전도대회'를 순복음춘천에서 개최.
1988	● 6월 춘천시민복음화 선교대회 -1988년 6월 27~29일 춘천시민복음화 선교대회 춘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 - 강사 : 조용기 목사
1990	● 4월 17일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창립 - 춘천·춘성지역 8개 직장신우회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강원도청, 춘천시청, 전신전화국, KBS, 강원일보 등 8개 직장).
1991	● 8월 춘천지방 검찰청 전용태 차장검사와 김기수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기관장들과 평신도 성경구락부 회원들이 함께 춘천성시화의 재점화를 지펴나갔다.
1992	● 8월 2일 '예수 평화 대행진'과 '성시화 연합집회' - 춘천성시화운동을 춘천시민에게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 낮에는 시가행진, 밤에는 성시화 연합성회. - 이 모임에서는 1,500명의 교계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 춘천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 그 후 8개 직장신우회로 시작한 춘천 직장신우회 연합회는 33개 신우회가 가입하는 등 급진적으로 발전. - '춘천성시화연합성회'개최[강사 : 정근모 장로(전 과학기술처장관), 장소 : 춘천제일감리교회]
1994	● 9월 8~9일 복음과 춘천 94 성시집회 - 춘천기윤실(대표 안동규 교수)과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의 공동주최로 김진홍 목사를 초청, 「복음과 춘천 94 성시집회」개최. - 첫날 김진홍 목사(두레마을대표)의 말씀집회로, 둘째날은 춘천성시화 진로모색에 대한 토론회 개최.
1995	● 11월 춘천기독교기관장 기도 모임 시작 - 전용태 춘천지검 검사장, 양인평 춘천법원장, 이범찬 안기부 강원지부장, 조남진 강원일보 시장, 문선재 강원대 총장 등. 매주 목요일 개최. '춘천성시화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도.
1996	● 6월 8일 춘천홀리클럽 창립 - 경기도 가평군 휴양촌에서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평신도 성시화운동단체인 '춘천홀리클럽' 탄생. 초대 성시화지도목사 김주환 목사, 초대회장 조남진 장로. ● 9월 12일 춘천기독교연합회 창립 - 교역자연합회장(회장 이원호 목사)과 기관장 기도모임 간 협의를 통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연합체인 기독교연합회 결정(초대회장 임택장 목사). 성시화운동의 본격 ● 9월 19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 - 초대 본부장 조남진 장로, 춘천월드비전에 사무실 개소(9.2) -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창립예배 드림(소양성결교회)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시화운동본부를 별도기구로 두기로 함. ● 96년 성시주간(9월 30일~10월 6일) 행사 실시 - 성시토론회 : 허문영 박사(발제자, 민족통일연구원), 김광국 목사, 전용태 장로, 조남진 장로, 이갑용 CCC간사 - 전체집회 : 홍정길 목사 - 기독교기관장 및 선교단체 헌신자들 150여 명 거리 전도, - 성시기도회 : 이영덕 전 국무총리 초청. - 청소년 자녀 교육특강, 김준곤 목사 초청 총력전도 특강 후 1,500명이 춘천성시화를 다짐하며 총력전도 실시.

연도	활동내용
1997	● 5월 21일 비상시국 구국기도회, 강사 김홍도 목사(감리교 감독회장) 공지천야외무대 ● 9월 시민초청대성회 - 1997년 9월 9~10일, 창립 1주년 맞은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대성회를 개최. ● 11월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발간 -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는 4백 페이지가 넘는 성시운동 책자를 춘천성시운동본부에서 발간. 이 책은 춘천성시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는 내용 수록.
1998	● 9월 15일 성시신문 창간 - 성시화운동본부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성시신문이 창간. 조남진 장로와 성시화운동본부 3대 사무국장 조충환 목사는 춘천성시운동의 활동상과 계획 기타 교계소식을 알려주고자 '춘천성시신문 창간'(발행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	● 평신도지도자들 중심의 성시화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목회자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즉 성시운동본부는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성시운동을 돕는 평신도지도자 모임으로 홀리클럽을 만들어 협력.
2001	● 4월 십자가 고난행진 시작, 성시본부 홈페이지 개설 - 2001년에는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부활절 새벽촛불예배, 십자가 고난행진을 계획 실행. 또한 미술, 음악, 체육, 연극,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문화행사를 계획, 실행해 나가기로 함.
2002	● 7월 전 시민 대상 총력전도 실시 - 38개 교회와 선교단체 전도 요원 417명 전도 실시(전도실시 3,429명에게 전도, 1,180명 영접) - 2002년부터는 성시화운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총력전도운동을 계획 실행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도행사, 해외선교활성화를 위해 힘씀. 성시화운동은 지속적으로 교회와 지역, 세계 선교의 비전, 통일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고 힘씀.
2003	● 10월 국가조찬기도회 강원지회 창립 지원 ● 11월 춘천성시화 선교대회 개최(강사 이동휘 목사, 동부장로교회)
2004	● 10월 춘천성시화 선교대회 개최[강사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동부장로교회]
2005	● 8월 강원도민 사랑 결의대회(횃불기도회) <주관 : 강원기독교총연합회(회장 : 임신영 목사), 장소 : 호반체육관> ● 9월 춘천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 - 일자, 장소 : 9월 25~27일, 춘천석사감리교회 - 강사 : 장경동 목사 ● 10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춘천 범종교 시민 궐기대회 - <주관 : 춘천범종교 시민단체 협의회(공동대표 : 유진형 목사), 장소 : 춘천종합운동장> ● 10월 28일 춘천성시화 일일특별성회 - C.C.C.총재 초청 '춘천성시화 일일특별성회'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C.C.C. 총재 김준곤 목사
2006	● 2월 인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 지원 차 인도 방문 ● 3월 제1기 성시아카데미 개최 - 5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루이스 부쉬'목사 춘천 방문(춘천성시화 국제대회 제안, 성시운동의 국제화를 요청) ● 6월 9일 성시화부흥성회 - 춘천홀리클럽 10주년 감사 춘천성시화 성령대부흥회 - 강사 : 오정현 목사, 명성훈 목사, 장소 : 안디옥교회 ● 10월 춘천성시화 선교대회(강사 : 이동현 목사, 장소 : 석사감리교회) ● 11월 성시합창단 창단

연도	활 동 내 용
2007	● 6월 8일 전국성시화운동 임원세미나, 장소 : 석사감리교회 ● 7월 2007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 (주최 : 성서한국, 공동주관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장소 : 강원대 캠퍼스) ● 9월 '살기좋은 춘천, 시민과 함께하는 춘천선교대회' (강사 : 장경동 목사, 장소 :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2008	● 8월 청소년비전 캠프 실시(중국, 대련, 단동, 백두산 등 및 고구려 유적지 방문), 4월 제2기 춘천성시아카데미(강사 : 배기찬 전 청와대 비서관, 예수원 베토레이 신부). 기독영화 매월 1회 상영 시작 ● 10월 춘천성시화 선교대회(강사 : 오정호 목사, 장소 : 평화감리교회)
2009	● 십자가 나무로 알려진 산딸나무를 성시목으로 지정 식재 ● 4월 미국 휴스턴 방문 춘천성시운동 소개 ● 6월 홀리클럽 창립 13주년 성령대부흥회(강사 : 김홍도, 김삼환, 손기철, 정용태, 최호자, 최재선, 장소 : 안디옥교회) ● 9월 미국 필그림한인교회 청년 춘천 방문 성경캠프 개최
2010	● 3월 '이슬람교의 세계호 전략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특강[강사 : 김승규 장로(전 국가정보원장), 장소 : 중앙감리교회] ● 4월 세계선교를 위한 이슬람 선교학교 운영 ● 6월 춘천홀리클럽 14주년 춘천성시화 성령대부흥회(강사 : 이영훈, 명성훈, 주성민, 유기주. 장소 : 석사감리교회). 춘천성시무용단 창단 ● 8월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자원 봉사 및 성경배부.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조직 지원 ● 9월 '세계선교의 날' 춘천선교대회(장소 : 동부장로교회) ● 10월 5일 오전 10시 춘천사랑 성시비전 포럼 - 주제 : 연합의 힘
2011	● 6월 춘천홀리클럽 창립 15주년 성령대부흥회 (강사 : 장학일, 손기철. 장소 : 안디옥감리교회) ● 11월 2011춘천성시화 선교대회(강사 : 원팔연 목사, 장소 : 안디옥감리교회)
2012	● 4월 춘천성시합창단 자작 오페라 'The Passion' 공연. (장소 : 춘천시립문화예술회관) ● 4월 8일(주일). 오후 3시 석사감리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 5월 20일(주일). 오후 2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순회예배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 강사 : 박인관 본부장(광염교회 담임목사) ● 8월 15일(수). 오후 7:30 광복절 기념예배 - 장소 : 춘천중앙성결교회 - 강사 : 부흥한국 고형원 선교사 ● 9월 10일(월). 오후 1:30~5:00 - 제2회 거룩한 도시만들기 성시학술대회 - 성시화운동 40주년 -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전망 - 장소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 ● 12월 2일 성찬트리 점등식 ● 12월 28일(금) 오전 11시 춘천성시화운동보부 정기총회 - 장소 : 춘천제일감리교회

연도	활동내용
2013	● 2월 27일 저녁 7시 삼일절 기념예배, 춘천중앙성결교회 ● 3월 31일 오후3시 부활절 기념예배 - 강사 하도균 목사(서울신대 교수), 춘천제일장로교회 ● 5월 20일 강원성시본부 창립 춘천제일감리교회 ● 6월 1일 성시합창단 오페라 ● 6월 24일 통일컨퍼런스 ● 8월 11일 오후 3시 8.15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 강사 이용희 교수(에스더운동본부 대표), 순복음춘천교회 ● 9월 25일 춘천성시화 전도대회, 춘천안디옥감리교회 ● 12월 1일 성탄트리점등식, 춘천중앙로5거리 ● 12월 30일(월) 오전 11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춘천제일감리교회
2015	● 1월 6일(화) 오전 11시 신년교례회, 춘천중앙감리교회
2018	● 10월 7~12일 춘천성시선교대회, 순복음춘천교회
2019	● 1월 10일 오전 11시 신년교례회, 춘천성광장로교회 ● 3월 1일 오후 7시 3.1절 기념예배, 순복음춘천교회 - 강사 박용규 목사(총신대 역사학 교수) ● 4월 12일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창립예배, 강원재활원 ● 8월 14일(수). 오후7시 광복절 연합예배, 온누리교회 - 강사 류영모 목사(일산 한소망교회) ● 10월 3일 국제성시화대회, 당진 동일교회 ● 10월 6~12일 춘천성시선교대회, 순복음춘천교회 ● 10월 31일(목)~12월 19일(목) 전도사관학교 - 8주간 오전반(오전9:30-12:30), 저녁반(오후7:00-10:00), 순복음춘천교회 ● 12월 6일 오전 7시 성시조찬-윤수길 목사 강의, 순복음춘천교회 ● 12월 6일 목회자 세미나-맥체인성경강의, 김홍양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 12월 14일 춘천성시화운동 정기총회, 순복음춘천교회
2020	● 1월 31일(금) 2월 5일(수) 춘천기독교120년사 발간추진모임 - 목차와 집필방향 및 집필자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 순복음조은교회 ● 2월 27일 코로나19 성명서 발표, 시청기자회견실 ● 4월 10일 제15대 춘천 국회의원 선거진영 방문, 각 사무실 방문하여 격려와 기도함. ● 7월 28일 차별금지법 준비 모임 ● 9월 22일 추석 비전교회 섬김, 추석 맞이하여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의 150곳 섬김 ● 10월 27일 오전 10시 춘1000인 천원나눔운동 업무 협약식, 시장접견실 ● 10월 27일 온라인예배 세미나, 강사 김대학 목사(교회성장연구소), 핸드폰 및 PC를 활용한 예배, 순복음춘천교회 ● 11월 5일 오후 1:30 성시화운동연구소 개원예배, 소장 이연길 선교사, 순복음춘천교회
2021	● 3월 3일 3.1절 기념예배, 춘천중앙성결교회 ● 4월 4일 부활절 기념예배, 순복음춘천교회 ● 5월 20일 기독교이단세미나-이단실태와 예방방법, 강사 유원선 목사와 신현천 목사, 광염교회 ● 7월 12일 교회회복을 위한 연합성회 취지 설명회, 세종호텔 ● 8월 30일~9월 3일 성시선교대회 준비기도회-홀리클럽, 순복음춘천교회 ● 9월 4일 춘천성시화를 위한 제2회 교회 및 클럽초청 족구대회, 송암족구장 ● 9월 5일 49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 강사 안호성·정필도·길원평·조명환 목사 ● 11월 17일 큐어축제 반대 시장 면담, 큐어축제 반대 성명서 발표, 춘천시장실(8층) ● 11월 20일 큐어반대 생명, 가정, 효 대행진, 소양강 스카이워크공영주차장 앞

2)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



춘천성시화희년대성회 설명회(2022년 3월 31일)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 대성회'를 위한 설명회가 2022년 3월 31일 춘천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열렸다. 여기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이수형 목사)는 1972년부터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대성회'를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말씀과 포럼, 저녁집회, 시민초청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이병철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주향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태성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춘천장로교회)의 기도에 이어 1972년 CCC대표간사로, 초기 춘천성시화운동에 앞장선 윤수길 목사를 초청해 '춘천성시화운동'의 생생한 역사를 듣는 특강도 마련했다.

이어 성시화운동본부 김훈 사무총장이 '춘천기독교 120년사' 집필 상황을 비롯해 춘천성시화 50주년을 기념하는 2022년 주요 일정을 설명하며 교계의 협력을 구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수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춘천성시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 자체도 의미 깊지만, 우리 모두 초기 복음의 뜨거움을 기억하며 다시 성시화운동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147]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기념 희년대성회가 13일 오후 7시 순복음춘천교회(담임목사 이수형,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에서 열렸다. 춘천지역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다.

147) 『노컷뉴스』(2022.3.3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50주년 희년 대성회' 설명회 개최」.

이병철 목사(주향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된 첫째 날 집회는 조경화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가 대표기도를 인도했다. 조 장로는 "50년 전 춘천에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했던 성시화운동이 전국 도시와 세계로 확산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며 "이번 50주년 희년대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춘천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춘천제자교회 이정환 목사의 성경봉독과 춘천청년연합 특송(이후 헌금특송은 춘천직장연합, CCC나사렛, 기독교사회복지팀들이 함께 함)에 이어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 국제부총재)가 시편 33편 10~12절을 본문으로 "영적 리바이벌 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목사의 소개를 받고 강단에 선 박성민 목사 설교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 설교(뉴스파워 제공)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8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96배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주변 큰 나라 때문에 작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니까 지금 살고 있다. 여기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석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또한 성경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민족 단위로 역사하신다며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기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민족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고 믿고 세상을 섬

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6.25 전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는데 지금은 K팝, K문화 등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가 되게 하셨다며 우리나라는 저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루었다.

또한, 독일의 귀출라프가 서해안에 와서 25일 동안 머물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감자씨도 나눠주고, 포도주를 담그는 법도 만들어줬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1860년대부터 간도로 가서 복음을 받아오고, 존 로스가 이응찬의 도움을 받아 186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 출판해서 보급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라며 931번의 외침을 받고도 살아냈고, 지금도 남북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남북을 둘로 나눠놓은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김준곤 목사님께서 1971년 1월 1일 CBS를 통해 민족복음화운동을 선언하시고 1972년 도시단위 최초로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했고 2년 후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국 기독교인 32만 3419명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5박 6일 동안 전도훈련을 받고 민족복음화운동 요원이 되었다고 했다. 엑스플로'74대회 이후 기독교 부흥과 함께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고 지금은 기독교가 쇠퇴기에 접어들며, 기독교의 신뢰도와 영향력도 크게 낮아져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젊은이들 중 35%가 나중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깨어나야 하며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신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한다. 춘천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도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한국CCC 설립자 겸 성시화운동 초대 총재 고 김준

곤 목사에게 박성민 목사를 통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고 김준곤 목사는 1958년 한국CCC를 설립하고 대학생 선교를 기반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복음화 이전에 한 도시만이라도 복음화할 것을 꿈을 꾸면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성시화운동을 기획했다.

김준곤 목사는 전국의 CCC 간사와 학생들, CCC 졸업생 모임인 나사렛형제들과 함께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에 집결해 춘천기독교연합회 소속교회와 함께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전도대회를 열어 오전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실천하고, 밤에는 전도집회를 여는 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148]



14일 집회의 춘천 목회자들 특송 모습

둘째 날 집회는 14일 오후 7시 전날과 같이 순복음춘천교회 예배당에서 춘천 청년연합팀의 찬양과 춘천 목회자들의 특송, 춘천과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10여 개 단체가 헌금 특송을 각각 맡았다.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가 '우리의 자랑은(롬 1:18)'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는 시기하고 반목하며 분열하는 데서 온다"며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되는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이 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셋째 날 행사는 오전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 행사는 춘복음춘천교회

148)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첫날 집회 내용은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 개막…"영적 리바이벌만이 살 길"」(『뉴스파워』 2022.8.13) 기사 참조.

에서, 저녁 행사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성시화운동을 하였던 목회자, 홀리클럽 장로들이 함께 모여 '성시지도자 포럼'을 열었다. 50년 전인 1972년 성시화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운동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앞으로 성시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1부에서는 춘천성시화운동 연구소 조용호 소장 사회로, 1972년 당시 춘천CCC 간사이자 춘천성시화운동 일체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윤수길 목사가 '성령님께서 이끈 1972년 성시화운동 이야기'에 대해 간증했다. 또 영국성시화운동 유승태 목사, 뉴욕성시화운동 김성호 목사, 일본성시화운동 조영상 선교사가 영상으로 사역을 소개했다.



간증하는 윤수길 목사

2부에서는 50주년 상임대회장인 이수형 목사 사회로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할렐루야교회 원로)가 '성시화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성시화가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수형 목사를 좌장으로 박인관 목사(강원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춘천광염교회),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박태동 목사(대구성시화운동본부 증경대표본부장, 노원교회) 등이 토론에 나섰다.


포럼 좌담회 모습

끝으로 15일 오후 7시에



춘천성시화50주년희년대성회 성시지도자 포럼 후 기념(순복음춘천교회, 2022년 8월 15일)

는 희년대성회 및 8.15 연합예배가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김한호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50주년 공동대회장, 춘천동부교회) 사회로 성시화 깃발이 입장하며 시작된 연합예배에서는 홀리클럽과 장로연합회가 설교 전 특송을, 성시합창단이 헌금특송을 각각 전했다.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50주년 대회장)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창 39:7~23)'라는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속 누룩의 특징은 '미약하지만 조용히 일하여 부드럽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조용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50년을 뒤돌아보고 기념하며 故 김연호 목사(1972년 당시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 故 김준곤 목사(1972년 CCC대표), 윤수길 목사(1972년 춘천CCC 대표간사),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50주년 희년 대성회 대회장), 故 조남진 장로(192년 성경구락부, 홀리클럽), 故 이학규 장로(1972년 성경구락부, 홀리클럽), 전용태 장로(1995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양인평 장로(1995년 춘천지방법원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고문)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3일간의 희년대성회는 이수형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의 폐회선언과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2022년 8월 15일 춘천중앙감리교회)

다.[149]

50주년 희년대성회 이후에도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이수형 목사)에서는 2022년 9월 29일 강원CBS 공개홀에서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기념 포럼C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C와 관련 이수형 목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가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참여하며 시대를 앞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기념 포럼C에서 장헌일 박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기념 포럼C에서 장헌일 박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이 시간에는 먼저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잘 담당하는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

149) 『크리스천투데이』(2022.8.18),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희년대성회 열려」 참조.

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돌봄 문제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의 어르신 돌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를 돌봄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최영조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 갈릴리교회)는 '전 교회가 함께 하는 성시화운동-교회연합의 현주소를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1972년 7월 31일부터 한 주간 열린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이후 50주년을 맞이한 춘천성시화운동의 현재의 상황들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며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시화운동이 현재 도시의 변화 형태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전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역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움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시화운동연구소장 조용호 박사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미션과 성과 평가 도입방안'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앞으로 성시화를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사회 영역별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살피며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갖고 성시화운동본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춘천성시화 이사인 박인관 목사(광염감리교회)는 '네트워크를 통한 성시화운동'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목사는 발제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서 도시 단위의 공유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성시화운동본부는 각 은사 그룹들(전문분야)을 묶고 리더십을 세우고 지원·격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돼온 포럼C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와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에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지, 성시화운동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150]

150) 『데일리굿뉴스』(2022.9.30), 「2022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기념 포럼C 개최」.

3. 춘천성시화를 위한 주요 행사

1) 성시화를 위한 춘천 선교대회 성황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유진형 목사)주최 2005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가 대성황을 이루웠다.

2005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등 하루 세 차례 펼쳐진 춘천 성시화를 위한 장경동 목사초청 부흥성회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신자들이 몰렸다. 연인원 1만여 명 이상이 몰린 부흥성회는 교파를 초월한 성령 충만한 집회로 펼쳐졌다.

장경동 목사는 기독교 윤리와 사상이 담긴 설교를 펴 호응을 얻었다. 그는 교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평신도 양육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웰빙건강강좌-신바람나는 건강한 삶이 9월 26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으며, 28일 오전 10시부터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춘천성시화포럼이 카페크리스찬에서 열렸다.

직장선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직장선교연합회찬양제가 29일 오후 7시 동부교회에서 열리고,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춘천선교대회 일환으로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19회 춘천연합찬양축제를 주관했다.[151]

2) 춘천월드레저의 성공 개최 응원

춘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조영호 목사)가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개막과 함께 사랑의 봉사단 캠프를 마련하는 등 대회의 성공 개최에 발 벗고 나섰다.

2010년 8월 31일 대회가 열리는 송암스포츠타운 일대에서는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소속 350여 개 교회 성도 100여 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경기를 끝마쳤거나 자국 선수들을 응원 온 외국인 참가자에게 통역 봉사활동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회를 불편함 없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151) 『강원일보』(2005.9.8), 「성시화를 위한 춘천 선교대회 성황」.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사랑의 봉사단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와 세계 레저도시 춘천 홍보(2010년 8월 31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2010춘천월드레저 경기대회의 개막 후 매일같이 1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돌아가며 봉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역, 환경, 음료 지원 등의 봉사활동 이외에도 대회 기간 중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예배 안내지도와 전도지도 무료로 배포했다. 또 주일에는 송암동 스포츠타운 앞에 마련된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사랑의 봉사단 캠프에서 영어 예배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조영호 회장은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성도들이 뜻을 모으게 됐다"며 "춘천을 찾은 내·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고자 대회 마지막까지 힘쓰겠다"고 했다. 이학규 장로는 "명품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응원전도 열심히 전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춘천시기독교연합회는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지원 등을 위한 선교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교조직위원회는 권오서 춘천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연합회 소속 350여 개 교회가 참여했다.[152]

3) FIM, '춘천 이슬람선교학교' 10주 과정

FIM국제선교회가 주최한 이슬람선교학교가 호반의 도시 춘천의 예광교회(담임 조영춘 목사)에서 2015년 3월 17일 시작하여 5월 26일까지 10주간의 과정을 마쳤다.

유해석 선교사(FIM국제선교회 대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저자)의 '기독교인은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세 강좌를 강의하였으며, 김동주

152) 『강원일보』(2010.9.1), 「춘천월드레저의 성공 개최 응원」.

교수의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소윤정 교수의 '이슬람 여성', 송기효 선교사의 '이슬람 교리'와 차경준 연구원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등 총 10강좌가 있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인관 목사는 수료자들에게 축하하며 "이슬람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의 견해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았다. 앞으로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료증을 받은 정형만 집사는 "그 동안 이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번 이슬람선교학교를 통해 먼저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부모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가 건강해져서 '무슬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알았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서울 대림동의 FIM선교센터에서 진행된 이슬람선교학교도 5월 28일(목요일)에 수료식을 열었다. 성공회신학대학교 교수인 김성찬 장로는 수료 소감을 통해 "비잔틴 기독교 제국의 타락이 이슬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고, 유럽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비잔틴 기독교 제국과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슬람 성장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FIM국제선교회 대표인 유해석 선교사는 이날 마지막 강의를 통하여 "무슬림들이 몰려오는 현실의 대안은 첫째로 교회가 건강해야 하고, 둘째로 기독교 신앙을 신앙 전승률을 높여야 하며, 셋째로 국내 이민자 18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열방이 주님을 찬양케 해야 하며, 넷째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



춘천 이슬람선교학교 수료 사진(2015년).

슬림들에 대한 선교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FIM의 가을 이슬람선교학교는 10월 8일에 개강, 새로운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이슬람의 여성관,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세계사 속의 이슬람 역사, 꾸란(코란)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들, 이슬람 원리주의와 IS, 예수와 무함마드 비교 연구, 이슬람의 영: 수피즘 연구, 이슬람권을 향한 한국선교의 현 상황과 역할, 개혁주의에 입각한 이슬람선교 상황화,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른가, 유럽의 이슬람화 과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등으로 구성된다.

강사로 유해석 선교사, 김성봉 목사(신반포중앙교회 담임), 이동주 교수(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유종필 교수(대신총회신학교 교수), 박종상 목사(전 OM선교회 A국 선교사, 장로회신학대학원 강사) 등이 나섰다.

FIM국제선교회가 주최하는 이슬람선교학교에서는 선교신학을 바탕으로 이슬람선교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고 모든 강좌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153]

4) '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예배 모습(2015년 6월)

춘천시기독교연합회(회장 지용찬 목사)는 2015년 8월 7일 하나원에서 교육받는 북한이탈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제3차 '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이다.

153) 『크리스천투데이』(2015.6.2), 「FIM, '춘천 이슬람선교학교' 10주 과정 마쳐」.

사회적응교육은 이탈주민들에게 국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이탈민정착협의회가 주최해온 행사로 춘천시기독교연합회는 올해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했다.

이번 3차 교육은 춘천시기독교연합회에 속한 광염감리교회(박인관 목사),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 효자감리교회(김종호 목사) 등 3개 감리교회가 전담해 예배 후 북한이탈주민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관공서와 박물관, 대학교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지용찬 회장(춘천은혜교회 담임목사)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은 선교사를 세우는 일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춘천뿐 아니라 춘천 근교에 있는 보다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154]

5) '북핵 폐기' 기독교인 한 목소리

국가안보 강화와 북핵 폐기를 위해 춘천 기독교인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차덕수)는 2016년 1월 24일 구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춘천지역 교인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보 및 북핵 폐기를 위한 춘천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대회는 춘천을 비롯해 전국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국가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국가안보 및 북핵폐기를 위한 춘천시민대회(2016년 1월 24일)

154) 『노컷뉴스』(2015.8.6),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실시」.

이날 춘천시민대회는 조영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진형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의 대표기도와 권오서 춘천중앙감리교회 목사의 설교 '구원을 보라'가 이어졌다.

또 김창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게 하옵소서', 박찬욱 춘천목회자연합회장이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이수형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이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를 구원해 주옵소서'를 주제로 통성기도를 진행했다.

차덕수 춘천기독교연합회장은 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북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155]

6) 춘천 코로나19 확산방지 종교계 동참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2020년 2월 22일 처음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9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시에서는 3월 2일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으로 확진자 2명, 확진자 접촉자 총 271명 중 자가격리 213명, 관외 29명, 파악 중 3명, 자가격리 해제는 26명이다고 발표했다. 의심 환자 확진검사는 총 58명 중 음성 57명, 1명은 확진 검사가 진행 중이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춘천기독교연합회는 2월 28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3월 1일 춘천 내 372개 교회 중 유선으로 110여 개 교회를 확인한 결과 71개(64.5%) 교회는 주말 예배를 39개(35.4%) 교회는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2일 밝혔다.

2월 26일 춘천불교사암연합회와 천주교 춘천교구는 담화문을 통해 전 본당(13곳) 종교 활동을 중지했으며 삼운사, 청평사, 정법사 등 모든 법회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했다.

특히 시에서는 3월 3일 접견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추가 확진자 발생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감염병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 19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155) 『강원도민일보』(2016.1.25), 「'북핵 폐기' 기독교인 한 목소리」.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156]

7) 5년 연속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거행

군선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청년 사역이며, 생명력 있는 선교이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전도인 군선교에 앞장서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을 섬기고 있다.

2019년 8월 10일 제550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은 2018년 12월에 완공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및 야외 대형 침례장에서 열렸다. 기하성총회(총회장 유영희 목사)와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담임 김순규 목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주관했다.

침례식이 거행된 연무대군인교회는 우리나라 최대 신병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청년선교, 거룩한 사명 실천, 다음 세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의 80%는 군대에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고 있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육군훈련소에서 연 12만 명(신병교육의 50%)의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세례는 연 23~24번으로 7~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세례 중에 2번은 침례(7·8월)로 진행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5년 연속 침례예식을 섬겼는데, 2015년 3,382명, 2016년 4,012명, 2017년 2,878명, 2018년 4,829명, 올해에는 3,217명 총 18,318명의 훈련병 침례를 섬겼다.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1부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최지훈 목사(입소대교회 담임)의 침례 교리문답이 있었고, 연무대군인교회 선교관 중예배실에서는 김순규 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의 군선교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김순규 목사와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의 연무대군인교회 신축 경과와 세례 사역를 듣고, 연무대군인교회의 군선교 사역을 해, 침례를 받을 훈련병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했다.

---

156) 『천지일보』(2020.3.2), 「춘천 코로나19 확산방지 종교계 동참」.

2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청년부 찬양단과 워십팀이 예배를 열었다. 김순규 목사의 인도, 오프닝 영상 후 황기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장)의 기도, 박태하 목사(기하성 강원지방회 총무)의 성경봉독 후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드라마 팀의 "하나님의 사랑(창조-타락-구속-부활)" 공연이 있었다. 드라마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장병들의 큰 호응이 잇따랐다.

이수형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는 고린도후서 2장 14~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침례를 받는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씀 후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격려사, 우시홍 목사(기하성 총회 총무)의 축사, 조돈산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 김화숙 권사(순복음춘천교회 총여선교회장), 박두진 안수집사(육군훈련소 MCF회장), 공찬식 집사(연무대군인교회 세례부장)의 축하기념품 전달,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가 이수형 목사에게 기념 액자 증정, 라성남 목사(수정순복음교회 담임)의 축도가 진행됐다.

3부로 열린 침례예식은 박흥재 목사(기하성 총회 군목단장)의 침례서약,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침례기도, 김순규 목사의 침례공포 후 대형 야외 침례장으로 이동해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를 비롯한 40여 명의 집례위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및
야외 대형침례장에서 진중침례식을 받고 있다(2019년 8월 10일)

원(기하성 목회자, 기하성 군종목사, 강원군선교연합회 목회자, 춘천기독교연합회 목회자)과 30여 명의 보조위원(순복음춘천교회 장로, 안수집사)이 협력해 침례예식을 시작했다.

이번 침례예식을 통해 훈련병 3,217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날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침례자 선물로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신앙서적, 생필품, 간식 등을 준비해서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순복음춘천교회 황기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장)는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위해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귀한 군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쁘고, 침례 받은 장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복음춘천교회는 이수형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전도사역으로 군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순복음춘천교회가 실시한 군선교 사역은 다음과 같다.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21사단·1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21사단 사랑의 카페 기증,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랑의 온차 보내기, 15사단 초급간부 행복플러스 행사, 기하성 군종목사 간담회, 2군단 연합 찬양제, 2군단·7사단 군종병 신앙수련회, 육군본부·2군단 포병여단·15사단 MCF 조찬기도회, 2군단 공병여단, 포병여단, 춘천공군부대 종교안보 특별교육, 해군 청해부대, 육군 아크부대 15진 사역 지원, 군장병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및 장병위문활동 지원, 기하성 총회 임원 2군단 방문, 2군단 초급간부 종교인성 수련회, 군인교회 지원 등[157]이다.

8) 2019 2군단 연합 찬양축제

군선교는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사역이다. 2019 2군단 연합 찬양축제가 9월 29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사랑과 나눔으

157) 『데일리굿뉴스』(2019.8.14), 「5년 연속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거행섬기는 순복음춘천교회」.



2019 2군단 연합 찬양축제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진행
(2019년 9월 29일)

로 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춘천교회와 2군단이 2016년부터 '2군단 연합 찬양축제'를 개최해 올해 4회를 맞았다. 2019 2군단 연합찬양축제는 지난 9월 29일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진행됐으며, 700여 명의 장병들과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됐다.

이번 2군단 연합 찬양축제는 군단 내 사단 및 여단의 9개 군인교회가 참여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군단 내 모든 부대의 평안을 소망하고 교회별 연합을 강화하여 군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준비했다.

2군단 한빛교회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한익 목사(2포병여단 불기둥교회)의 인도, 심홍수 목사(2군단 한빛교회)의 기도,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 목사는 사무엘하 6장 12~15절 중심으로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제목의 말씀을 통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며 "찬양을 통하여 군생활과 성도의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만 명의 장병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김혁수 2군단장은 "2군단 연합찬양제 개최를 축하드리고, 하나님과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목사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장병들의 찬양하는 성령충만의 모습을 보고 군선교를 위하여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찬양축제는 9개 군인교회가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난타팀의 '천지울림' 축하공연 후 성문교회(2공병여단)는 「하나님 나라」, 칠성교회(7사단)는 「나를 통하여」, 불기둥교회(2포병여단)는



2군단 연합찬양제에서 찬양하는 모습(2019년 9월 29일)

「예수 이름 높이세」, 승리교회(15사단)는 「고백」, 산돌교회(2군지여단)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불사조교회(702특공연대)는 「보리라 & 아따 참말이여」, 이기자교회(27사단)는 「거룩한 주」, 가나안교회(3기갑여단)는 「주가 일하시네 & 예수 그리스도」, 한빛교회(2군단)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곡을 찬양했다.[158]

9) 한국전쟁 70주년 6.25 구국기도회

'한국전쟁 70주년 6.25 구국기도회'가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 장기동 목사)에서 춘천지역 교회 장로와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6월 24일 열렸다. 이날 열린 구국기도회는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회장 김인수 장로, 이하 연합회)가 주관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홀리클럽, 강원CBS가 후원했다.

1부 예배는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장 김인수 장로의 사회로 김철수 장로(춘천석사감리교회)의 기도와 함몽인 장로(춘천충인성결교회)의 성경봉독, 춘천중앙성결교회 시온성가대의 특별찬양, 헌금기도 이정희 장로, 춘천중앙성결교회 다윗찬양단이 헌금특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변충구 목사(세계로교회 담임, 예수사관학교 교장)가 시편 103편 2절 본문으로 'Memento mori'에 대해 설교했다. 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2부 기도회는 석광훈 장로(춘천석사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됐다. 오의석 목사

158) 『데일리굿뉴스』(2019.9.29), 「순복음춘천교회, 2019 육군 2군단 연합 찬양축제 개최」.



구국기도회 후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관계자(2020년 6월 25일)

(춘천기독교연합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로는 남궁연 장로(춘천중앙성결교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강철주 장로(춘천창대감리교회)가 '보훈가족과 국군장병들을 위해', 김정호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가 '춘천성시화와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심의섭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가 '코로나19 조속한 종식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대표 기도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6.25 노래'와 '우리의 소원'을 제창했다. 기도회는 연합회 문진기 장로(춘천신성감리교회)의 광고와 장기동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159]

10) 제75주년 광복절기념 연합예배

춘천목회자연합회(회장 이수형 목사)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기념 연합예배가 8월 12일 저녁 7시 춘천소양성결교회(담임 김선일 목사)에서 있었다.

소양성결교회 찬양단의 찬양 후 부회장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위정자를 위하여, 손학균 목사(석사감리교회)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과 그 여정을 위하여, 김훈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했다.

춘천목회자연합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는 인사말에서 "제75주년 광복절기념 연합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화를 넘어선 복음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여 이

159) 『데일리굿뉴스』(2020.6.25),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한국전쟁 70주년 6.25 구국기도회' 개최」.



춘천목회자연합회가 드린 광복절 기념 연합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박명수 교수(2020년 8월 12일)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아픔을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중심으로 '광복절과 기독교'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대한민국이 설립되기까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 시작된 다양한 활동들은 근대화의 기반을 제공해 주었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 갔다"고 말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서기 김용기 목사(푸른샘감리교회)의 봉헌기도, 총무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의 광고, 애국가 제창 후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의 축도로 마쳤다.[160]

11) 코로나 속 두 번째 부활절 맞은 기독교계 '이웃에 나눔을'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부활절을 맞이한 4월 4일, 도내 성당과 교회들은 미사와 예배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장소와 교파는 달라도 소외계층에 나눔을 전하자는 메시지는 같았다.

김주영 천주교 춘천교구장은 교구장 취임 후 첫 부활 대축일 미사를 춘천 '한삶의 집'에서 봉행했다. 밀알재활원 그룹홈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한 이날 미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 교구장은 신자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손수 나눠주며 덕담을 건넸다. 김 교구장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신 예수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160) 『가스펠투데이』(2020.8.12), 「제75주년 광복절기념 연합예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한다. 늘 그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만 원주교구장도 원주 봉산동 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봉행하며 자선의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개신교도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손광오)는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열었다. 이수형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이 ‘부활소망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맡아 기독교 신자로서 삶의 태도를 전달했다. 춘천 출신 CCM가수 김하은의 특별찬양도 감동을 전했다. 다만 매년 열던 십자가 시가행진은 없었다.[161]

4.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1)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연혁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강원도와 도내 기독교계가 함께 하는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2000년 8월 25일 백두대간의 지류인 평창군 용평리조트 내 그린라인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강원도와 도내 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새천년을 맞아 강원도의 발전을 염원함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국토가 분단된 강원도가 통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도는 지리적 특성과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연초 마련한 ‘밀레니엄 운동’에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이번 기도회를 통해 도와 기독교계가 일치된 모습을 보여 부흥 발전하는 강원도로 태어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횃불기도회를 위해 초교파적으로 마련된 추진위원회(위원장 권오서 목사)는 총 4,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번 기도회로 인해 강원도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치솟길 바라고 있으며 민족 통합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도회 1부는 찬양공연으로 막을 열였고 2부는 횃불 예배 및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횃불예배는 세상을 밝히고 알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특별

161) 『강원도민일보』(2021.4.5), 「코로나 속 두번째 부활절 맞은 기독교계 ‘이웃에 나눔을’」.

행사로 연출되었다.[162]

2000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7년 제18회까지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로 진행되었고 제19회부터는 평화통일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기도내용은 1차로 2010년도 유치를 위한 기도회는 2000~2003년까지, 2014년도 유치1를 위한 기도회는 2004~2007년까지, 2018년 유치를 위한 기도회는 2008~2011년 6월까지, 그 이후는 성공 개최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었다. 제1회에서 제19회까지의 간략한 연혁을 살펴보고 춘천에서 진행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 대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연혁

순번	일자	장소	주제(기도제목)	참여인원
제1회	2000년 8월 26일	평창군 용평리조트내 그린라인	나라와 민족화합과 평화 위한 기도	4천500여 명
제2회	2001년 8월 7일	평창군 용평리조트	민족화합과 평화통일-북한 강원도 주민들에게 보내는 3000대분의 자전거 제작비 3억여원을 강원도에 기탁	1만여 명
제3회	2002년 8월 15일	용평리조트 원형돔	2010동계올림픽 강원도 개최지 확정을 위한 기도	5천여 명
제4회	2003년 6월 25일	원주 치악체육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기도	8천여 명
제5회	2004년 8월 29일	강릉실내종합체육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위한 기도	8천여 명
제6회	2005년 8월 30일	춘천 호반체육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과 강원도 도약	1만여 명
제7회	2006년 9월 3일	원주 치악체육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제8회	2007년 6월 11일	강릉빙상경기장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결정을 앞두고 강원지역 모든 기독교인의 기도	5천여 명
제9회	2008년 8월 28일	춘천 호반체육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1만여 명
제10회	2009년 8월 30일	원주 치악체육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1만여 명
제11회	2010년 8월 29일	강릉종합실내체육관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폐광지특별법 연장을 이루기 위해 기도	
제12회	2011년 6월 19일	춘천 호반체육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5천여 명
제13회	2012년 9월 2일	원주 치악체육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 2012 블레싱 강원 페스티벌	3천여 명
제14회	2013년 9월 28일	속초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3천여 명
제15회	2014년 9월 14일	원주 치악체육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3천여 명
제16회	2015년 8월 23일	춘천 호반체육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발전	3천여 명
제17회	2016년 8월 25일	강릉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	

162) 『국민일보』(2000.8.8),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25일 강원도 평창서」.

순번	일자	장소	주제(기도제목)	참여인원
제18회	2017년 9월 24일	평창 용평리조트 돔체육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분쟁과 갈등을 넘어 평화 올림픽 소원	3천여 명
제19회	2018년 10월 22일	원주 중부교회, 춘천제일교회, 강릉반석교회	복음으로 부흥, 평화통일 기도	

2) 2005백두대간 횃불기도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호반체육관, 2005년 8월 28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과 강원도 도약을 염원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및 도민사랑 결의대회'가 2005년 7월 28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도내 18개 시·군 교회지도자들과 성도, 춘천시민, 청소년, 군장병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임신영 목사)가 주최한 이 대회는 1부 노래축제, 2부 예배, 3부 페스티벌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성도를 하나로 묶는 계기를 마련했다.

1부 '강원아리랑의 향연'과 '사랑의 노래, 마음의 노래' 축제에서는 민속노래와 김뻑국 민속예술단, 김순녀 명창이 강원도 아리랑 등을 불렀으며 워십댄스와 찬양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임신영 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민이 하나가 되어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발전과 복음화를 이루자"고 제의했다.

김선도(서울 광림교회 원로목사) 목사는 '세계를 빛내는 성숙한 자유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가치가 있는 데 인간은 그 가치와 존재의 의의, 존엄성이 무한하다"며 "순후한 인심과 줄기찬 노력, 불같은 신앙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아름다운 청정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

을 강원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강태운(철원연합회장) 류인덕(횡성연합회장) 박종소(평창연합회장) 김용덕(강릉연합회장) 목사 등의 특별기도 등으로 진행됐다.[163]

3) 2008백두대간 횃불 기도회

강원도의 복음화와 발전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2008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9월 28일 오후 4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1만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주환 목사)가 주최한 이 기도회는 강사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초청되어 기대가 모아졌었다. 세계최대의 교회 75만 성도를 모시고 있는 조용기 목사는 50년 전 불광동 공동묘지 부근에 천막교회를 설립, 목회를 시작했으며 서대문 중앙교회시대를 거쳐 여의도로 나와 세계최대 75만 명의 성도를 모은 대교회로 성장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사도행전 8장 5~8절 말씀을 인용 '큰 기쁨이 있더라' 제목의 설교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자가 고침 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영접을 통해 죄 사함과 병 고침과 저주에서의 해방,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설교했다. 조 목사는 믿음만이 2018년 동계올림픽 등 강원도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교에 앞서 대회장 김주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설교를 맡아주신 조용기 목사님과 공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시고 물심양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진선 지사님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또한, 강사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목회 초기 폐결핵으로 목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용기와 도움을 주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고 그 후 딸의 심장수술, 춘천교회가 어려웠을 때 큰 도움을 주셨다고 감사했다.

김진선 지사는 축사에서 북강원도 결핵어린이돕기 등 기독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실천에 감사한다며 도내 천여 교회 성도들의 성원과 기도로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63) 『국민일보』(2005.8.30), 「강원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4)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마지막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2011년 6월 19일 강원도 춘천 석사동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2차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전부터 40일 특별기도회를 시작했다. 즉 동계오륜 유치 기원을 비롯해 '국가와 민족의 번영', '114명 IOC위원 전원의 마음이 대한민국 평창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구성원을 위해서' 등 유치 연기를 한 데 모아 나가기 위해 40일 동안 기도했다.

2011년 5월 28일 강릉지역을 시작으로 7월 6일 횡성지역까지 동계오륜 개최지 선정에 참여하는 IOC 114명 위원 개개인을 지역과 교회별로 나눠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40일 특별기도'를 진행했다.

40일 특별기도 주간별 IOC위원 기도 가이드는 강릉(28~30일)을 비롯해 △고성(31일~6월 2일) △동해(3~5일) △삼척(6~8일) △속초(9~10일) △양구(11~12일) △양양(13~14일) △영월(15~16일) △원주(17~18일) △인제(19~20일) △정선(21~22일) △철원(23~24일) △춘천(25~26일) △태백(27~28일) △평창(29~30일) △홍천(7월 1~2일) △화천(3~4일) △횡성(5~6일) 등이다.

오승룡(춘천성결교회 담임목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도 제목을 통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도민 마음을 하나로 묶어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해 기도하길 기원한다"며 "도내 각 지역·교회별로 IOC 위원을 선정해 기도하는 만큼 도민의 정성이 더반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균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민 40일 특별기도에 나서는 한균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은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강조했다.

한균 회장은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고배를 마신 강원도민과 도기독교총연합회 등 모든 구성원이 정성어린 기도를 모아 승전고를 울리길 기원한다"고 전하며 다시 열정을 불태우자고 독려했다.

또 "강원도 교회는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40일 특별기도가 끝나는 7월 6일 저

멀리 더반에서 '평창'이라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강원도는 이제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뛰어난 자연환경과 소박한 인심, 그리고 교회와 도민의 기도가 어우러진 강원도는 앞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한균 도기독교총연합회장은 "동계오륜 평창유치를 위해 다음달 횃불기도회를 춘천에서 도내 2000여 교회와 함께 열고 유치열기를 한데 모으겠다"며 "앞서 28일부터는 40일 특별기도 대장정에 들어가는 만큼 모든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마지막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호반체육관, 2011년 6월 19일 『미래한국』)

40일 기도 중에서 23일째 되던 6월 19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유치를 위한 마지막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체육관 안은 무척 더웠다. 그러나 땀을 흘리며 연방 부채질을 하는 가운데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기도의 성화는 꺼지지 않았다. 이 '제12차 백두대간횃불기도회'에는 강원도 내 1만 5000여 명의 크리스천이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다음 달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선정되며 평창은 올해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기도회를 주최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한균(평화감리교회) 목사는 "기도를 통해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주 강사로 나선 김장환(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는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한 회개기도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룬 것처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





호반체육관을 가득 메운 강원도 기독인들과
축도하는 김창수 목사(2011년 6월 19일)

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또한 "성공적 개최 뒤에는 생명을 살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강원도가 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합심 기도회에서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과 크리스천들이 복음전파에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복음화, 성공적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소리 높여 기도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축사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열망하는 우리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들으셨을 것"이라며 "개최지 선정은 현장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자"고 전했다. 기도회에는 최 도지사 외에도 이재오 특임장관, 이광준 춘천시장, 허천 의원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164]

당시 강기총 증경회장의 자격으로 축도를 한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증언을 들어본다.

2011년 6월 19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날 중의 하루였다. 호반체육관을 빼곡하게 메운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164) 『국민일보』(2011.6.19), 「강원 기독인 동계올림픽 유치 염원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 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이었고 바로 그 현장이었다. 춘천 주변지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개최할 강릉과 평창 등 전 강원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똘똘 뭉친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 마음껏 보여 드리는 자리였다. 강원도지사이신 김진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특임대사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자신이 강기총 증경회장의 자격으로 축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펼친 두 손은 흥분과 감동이 스린 부르짖음의 축원이었다. '축원하노라'라는 말씀과 함께 수천 성도들의 '아멘'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

5)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국교회가 움직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1천만 크리스천들과 한국교회의 기도가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강원기독교연합이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합심과 중보의 장을 마련한 것은 한국 교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 계기였다.

2011년 7월 5일, 강원기독교총연합회와 강원도민사랑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도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특임대사, 엄신형 전국기독교대표회장 등을 비롯해 도내 기독교인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의 '평창 2018' 발표 모습

특히 한국기독교 스포츠총연합회는 5일(화)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기독 스포츠인과 스포츠 선교 관계자 등 50여 명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이틀

앞둔 5일, 서울 연지동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사격 선수 출신으로 태릉선수촌 샬롬교회를 담당하는 박철승 목사를 비롯한 이들은 아침 일찍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도회를 한 다음 시민들을 만났다.

박철승 목사는 "201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연수와 구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진 연수와 같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남북통일을 이뤄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스포츠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 스포츠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저 멀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평창'이라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하자"면서 "스포츠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 스포츠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근 시간인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김운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를 비롯, 한국기독교 스포츠총연합회 박철승 목사(실무회장, 전 사격국가대표 및 감독), 제갈성렬(전 빙상국가대표, 대표팀 감독), 김철용(전 배구 국가대표) 등 전 국가대표 10여 명과 이주태 사무총장, 스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주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 탁구국가대표 선수인 박이희 강도사(CCC 나사렛형제들 협동간사)는 "돌이켜



스포츠선교 관계자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제공)

보면 지난 1986·1988·2002년도로 이어진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민주화와 국력의 집결을 도모할 수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와 성공적 개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이뤄지길 믿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 국가대표 보디빌딩 여자 감독 정영애 감독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실 줄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한국 크리스천들과 교회의 기도와 켐페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세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단합된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165]

당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향한 꿈을 가지고 발표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직접 다녀온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생생한 간증을 들어본다.

내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장으로 있던 2002년 8월 평창에서 '2010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위한 초교파 연합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개최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의 강원도 유치를 위해 강원도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기를 도전했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유치되면 지역발전이 낙후한 강원도 지역의 발전이 30년 이상 앞당겨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꼭 유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강원도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위한 기도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도회를 가지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박차를 가했지만 실패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약 10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강원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으로 있으면서 또다시 2018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크리스천들의 힘을 모았다. 2011년 6월 19일 호반체육관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개최하여 강원도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더 뜨겁게 기도했다.

165) 『미래한국』(2011.7.7),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한국교회가 움직였다」.



남아공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지 발표를 기다리는
김주환 목사와 김창수 목사(2011년 7월 6일)

나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지 발표를 앞두고 목사님들에게 더반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과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님, 평화감리교회 한 균 목사님과 셋이서 홍콩을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을 방문했다. 발표 전날 더반에 가서 응원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지역 분위기를 봤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이 될 거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7월 6일이 되었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선거를 한 번 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유치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한국이 되었다는 느낌이 왔다. 남아공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며 발표를 기다렸다.

드디어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지를 '평창'이라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환호했다. 강원도 기독교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꿈에 그리던 동계올림픽 유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갔다고 해서 유치가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1년 10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기념하는 감사예배가 춘천신성교회 예배당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와 강원도의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

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166]

라고 하였다.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동계올림픽의 꿈을 이뤘다. 평창은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압도적 표차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평창은 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총 95표 중 무려 63표를 확보해 경쟁 후보도시인 뮌헨(독일)과 안시(프랑스)를 따돌리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강력한 경쟁상대로 손꼽았던 뮌헨은 25표에 그쳤으며 안시는 7표에 불과했다. 당초 언론들은 1차 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차 투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현격한 표차를 벌이고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다. 그야말로 두 번이나 실패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재도전한 결과 얻은 깨끗한 승부였다.[167]

6) 2018평창 유치 감사·김진선 조직위원장 환영 기도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감사 및 김진선 조직위원장 환영오찬 기도회(세종호텔, 2011년 10월 25일)

강원기독교총연합회(회장 한균, 이하 강기총)가 주최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감사 및 김진선 조직위원장 환영 오찬 기도회'가 2011년 10월 25일 춘천 세종호텔 소양정에서 열렸다.

김진선 조직위원장, 허천 국회의원, 엄신형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균 회장을 비롯해 강기총 임원 및 도내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

166) 김창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성역40년』, 강원도민일보, 2012, 203~204쪽 참조.
16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1.7.7), 「평창, 마침내 해냈다…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운데 열린 이날 기도회는 찬양과 설교, 특별기도,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균 회장은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2,000여 교회가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은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유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68]

당시 설교를 맡았던 김창수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증언을 들어본다.

세 번의 도전 끝에 평창동계올림픽은 유치되었다. 유치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 올림픽 유치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람은 바로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였다. 그래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2011년 10월 25일 오전 11시 30분에 세종호텔 소양정에서 유치감사 및 김진선 조직위원장 환영오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사무총장인 오승룡 목사가 맡았고 기도는 전 원주기독교연합회장 박거종 감독이 하였다. 성경봉독은 동부연회 동계올림픽지원 사무총장인 홍세표 장로가 하였고 찬양은 우리 신성교회 여성중창단이 하였다.

설교(로마서 8:26~28)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긍정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유치에 최선을 다한 김진선 조직위원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에 찬사를 보냈다. 아울러 유치의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한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1.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2.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감사 위하여(강릉기독교연합회장 윤연태 목사) 3. 조직위원회와 김진선 조직위원장을 위하여(원주기독교연합회장 이상표 목사) 4. 강원도 현안문제를 위하여(동서고속철도, 원주강릉복선전철, 폐광특별연장 등, 속초기독교연합회장 김석규 목사) 등을 위해 겸손히 간구했다.

이어 강기총 회장인 한균 목사가 대표로 인사를 했고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엄신형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증경회장 김주환 목사와

168) 『강원일보』(2011.10.26), 「2018평창 유치 감사·김진선 조직위원장 환영 기도회」.




신성교회 여성중창단의 특별찬양과 김창수 목사의 설교 모습(2011년 10월 25일)

허천 장로(국회의원)가 축사를 했고 조직위원장인 김진선 전 도지사가 인사말씀을 하였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신 강원도내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축복기도는 기성증경총회장인 윤철중 목사가 했다. 이렇게 예배는 끝나고 이학규 장로의 식사기도로 중식이 시작되었다. 뷔페음식으로 모두들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유치과정을 상기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02년 자신이 강원도기독교 연합회장을 할 때 시작한 기도가 더반에서 환희와 감격으로 확인되었고 여기에서 설교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169]

라고 하였다.

훗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당시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기독교에 관한 도움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2014년 대회 유치에 실패한 후 어느 날 문득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169) 김창수, 앞의 책, 205~207쪽 참조.

탄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고 부활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다 언젠가 로마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 시간 여유가 없었으나 무박 하루 일정으로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예루살렘에 새벽 3시쯤 도착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는 종일 베들레헴 말구유부터 갈보리산까지 예수의 일생이 담긴 모든 곳을 찾았고, 가는 곳마다 그곳과 관련된 찬송가를 부르며 경배하고 기도했다(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기독교인이었고 성가대원이었다). 전 일정을 안내해 준 목사님은 현지 파견 선교사였는데 그날 저녁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내게 해 준 말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 저는 지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은혜를 드릴 수 있겠는가. 공감의 또 다른 표현이었으리라.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을 위한 IOC 총회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현 키이우)로 갔을 때였다. 유치활동을 끝내고 시내의 가장 상징적인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경내 기념품점에 들렀는데 거기 진열된 주물 틀 안의 사진 속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설명할 수 없이 찌르르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을 사야겠다고 했지만, 가이드가 다른 데 가면 더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해 망설이다 빈손으로 성당을 나섰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같은 예수상 기념품을 찾아볼 수 없었고 결국 비행기 시간에 쫓겨 그냥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 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본 그 예수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연락해 그것을 사서 공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중 춘천에서 도내 기독교인들이 모두 모여 매년 개최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있어 내가 참석해 축사 순서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간증 아닌 간증이 되었다. 전 교인들이 두 손 들고 '아멘'을 합창하며 응원해주었다.

올림픽을 위한 기도를 나만 했던 것은 아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열 번 넘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비롯해 전 교파가 참여해 도내는 물론 서울,

부산, 전국 각지에서도 유치개원 예배, 새벽기도회 등의 기도 열기가 드높았다.[170]

라고 하였다.

7) 한반도 평화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간구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백두대간 횃불기도회에서 유만석 목사 설교 모습(2015년 8월 23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는 2015년 8월 23일 강원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서부전선 포격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 해소를 한목소리로 간구했다.

유만석 수원명성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남남갈등과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조국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교계가 앞장서 국익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국가 건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1부 예배는 김한호 춘천동부교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천군기독교연합회장 이민수 목사의 대표기도, 춘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차덕수 목사의 성경봉독, 춘천중앙가림교회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성도들은 춘천기독교총연합회 전 회장 박인관 목사의 인도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강원도 지

170) 김진선,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 도서출판 이새, 2018, 321~323쪽.


백두대간 횃불기도회(호반체육관, 2015년 8월 23일)

역경제 발전을 위한 특별기도를 드렸다.

2부 환영 행사에선 강기총 사무총장 함재흥 목사의 사회로 최동용 춘천시장의 환영사,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기선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김한구 감독의 격려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화천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용호 목사는 남북통일을 위해, 춘천그리스도교회 조영호 목사는 강원도 150만 도민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목사는 강기총을 위한 특별기도를 드렸다.

횃불기도회는 도내 2000여 교회 40만 명의 성도가 연합해 개최하는 상징적인 자리다. 권오서 춘천중앙감리교회 목사는 "기도회는 동계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됐다"면서 "지금 남북한이 군사적 위기상황에 있는 만큼 강원도지역 기독교인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통한 평화적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했다"고 말했다.[171]

8)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 성공 염원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미국에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가졌다.

서석근 강기총 회장과 오의석 사무총장, 오영근 강릉 올림픽특별선교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들은 2017년 5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는 18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 뉴저지, 보스

171) 『국민일보』(2015.8.25), 「강원도 교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열어… 한반도 평화·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간구」.



미국 방문단은 현지 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강원일보』, 2017년 5월 16일)

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지를 순회하며 횃불기도회를 개최하였다.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200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으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미동부지역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영현 목사)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워싱턴지부가 주관했다. 강기총과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는 미국 동부지역 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서석근 강기총 회장은 "이번 방문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민족 캠페인"이라고 했다.[172]

기도회 한 예를 소개한다. 2017년 5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에서 열린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다음과 같다.



미 동부지역 순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기념(2017년 5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평화통일 기도회 미동부지역 순회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17일 낮 12시 반에 포코노에 있는 Glenwood Inn & Conference Center(대표 공창

172) 『강원일보』(2017.5.9), 「올림픽 성공 염원 횃불기도회」.

일 집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전영현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인도했다. 김한규 집사(미주중앙방송국장)가 예배를 여는 찬양을 인도했다. 오의석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기도했고, 오영근 목사(강릉올림픽특별선교위원회 사무총장)가 마가복음 9장 28~29절을 봉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을 같이 본 후에, 서석근 목사(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장, 미동부지역 순회 단장)가 '기도 외에는'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연결 항공편에 차질이 생겨 기도회 장에 늦게 도착한 것에 깊이 사과하는 것으로 입을 연 서 목사는 "귀신 들린 어린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9명의 제자들이 힘껏 노력했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이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모두 보아온 사람들이다. 그 어린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경험과 흉내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도로 유치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의 경험이나 흉내만으로는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자"고 말씀을 전했다.

합심 기도는 김영천 목사(필라델피아 한인교회협의회 회장)가 힘있게 인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 2018년 동계올림픽이 동북아 평화와 남북한의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대한민국과 강원도 도민에게 희망이 되는 올림픽이 되도록, 선교올림픽이 되도록, 대한민국과 강원도지역 교회들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했다. 박향자 목사(울산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미주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과 동포사회를 위하여 : 미주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의 영적 각성과 교회부흥, 목회자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



한국17개광역시 · 도교회협의회 사무총장단 미주방문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 및 업무협약식 후 기념(금강산연회장, 2017년 5월 9일)

록, 동포사회의 안전과 경제, 단체들을 위해, 미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이단저지를 위해, 미주지역 선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했다. 김재학 목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워싱톤지회 사무총장)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한국과 미국을 위하여 :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과 화합, 경제성장, 한국교회의 사명, 영적각성이 일어나도록, 북한의 변화, 탈북자들 구출, 한반도 통일, 북한의 핵무기 해결, 미국의 동성결혼문제, 낙태, 백인우월주의, 총기사고의 중단, 이민개혁, 미국 청교도의 신앙의 회복,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도록, 경제, 영적각성, 세계평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미국교회들이 신앙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 김태수 목사(Korea and Her Neighbors 사무총장)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이대우 목사(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후에, 장석진 목사(Korea and Her Neighbors 대표)의 축도로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찬기도는 황준석 목사가 했다.[173]

이번 협약을 통해 강기총은 미국 한인기독교인들의 평창 방문 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또 미주 한인교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봉사자 지원, 미주지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모국 방문 관람 독려 등을 하였다.

173) 『아멘넷』(2017.5.20),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평화통일 기도회, 포코노에서 가져」.

4절 춘천지역 교회개척과 선교 및 봉사

1. 감리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춘천중앙교회

1980~1999년까지 춘천지역의 감리교 개척교회는 29개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창조(조춘실, 2008.3.25), 예현(김력, 2008.3.19), 이음(김푸른, 2012.9.2), 로댐나무(김수영, 2000.4.16), 부활의(곽승연, 2018.6.3), 더사랑(박대성, 2013.5.25), 세정(전영상, 2001.4.30), 현대(박현종, 2000.1.24), 두드림(서진석, 2016.4.23), 푸른샘(김용기, 2013,10.19), 하늘문(2014.2.16), 춘천반석(홍혁수, 2016.6.10), 하늘소망(류해운, 2012.3.18), 은혜(성낙환, 2022.4), 시냇가심으나무(정용재, 2003.4.3), 새소망(김시윤, 2006.3.27), 나무아래(이덕균, 2010.3.27), 밀알(박요한, 2004.9.16), 열방(김창회, 2009.6.5), 민들레(안세현, 2012.4.28), 예수원(최영길, 2005.10.31), 춘천우리(김은택, 2017.4.15), 임마누엘(홍경일, 2010.10.7), 감사하는(이민규, 2011.3.19), 치앙마이(김문환, 2008.7.1), 면리지(박용한, 2013.5.11), 싱가포르늘사랑(이희문, 2008.12.16), 오탄생명(이현구, 2007.4.5), 가온누리(김영우, 2013.2.14) 등 29개 교회이다.

춘천중앙교회가 2000년에 들어와서 2020년까지 실행한 국내외선교에 후원한 내역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2월 권오서 감리사 인도네시아 구역회 인도 및 늘푸른교회 집회 인도차 출국, 2001년 6월 어성호 인도네시아선교사 선교보고예배, 2004년 5월 김신섭 부목사, 인도네시아 늘푸른교회 담임자로 이임, 2004년 6월 인도네시아 웨슬리신학대학생 교회 탐방(민박),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마누엘교회 자매협정식 조인, 2005년 2월 인도네시아 임마누엘교회 자매협정 대표단 출국(13명), 2005년 5월 인도네시아 웨슬리신학교 중창단 특별연출, 2005년 6월 몽골지역 아동돕기 월드비전 해외아동결연 헌금작정, 2005년 8월 인도네시아 웨슬리신학대학교 건축후원금 작정, 2006년 4월 교회창립 108주

년기념 말레이시아에 한인자 선교사 파송,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대지진 긴급구호헌금 송금(8.800.000원), 2006년 6월 인도네시아 늘푸른교회 선교센터 입당예배(권오서 담임목사 방문), 2006년 10월 인도네시아 웨슬리신학교 졸업생 한국교회방문(학생15명, 인솔자2명), 2006년 11월 권오서 담임목사 아프리카 잠비아 방문(남기성목사 동행),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임마누엘교회 교육부 방문단 입국 비전트립(36명), 2009년 2월 권오서 담임목사 에티오피아 방문(월드비전강원도대표회장, 남기성 부목사 수행, 16~25일), 2009년 3월 식수난 태백주민돕기헌금 1000만 원 태백루아교회 안동기 목사에 전달(22일), 2010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웨슬리대학 대학원생 일행 11명 교회 방문(25일) 등이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2010년 10월 인도네시아 어성호선교사 파송 20주년 감사예배, 2011년 1월 권오서 담임목사 자카르타늘푸른교회 신년부흥회 인도 출국(12일 귀국), 2011년 2월 춘천지역 외국유학생 한국어교실 제1기 입학식(인원 25명), 2011년 4월 20일 일본재해난민구호기금 13,000,000원 월드비전 강원본부에 전달, 2011년 5월 위스컨신연회 린다 리 감독 방문, 2011년 8월 비전교회 국내 선교(3일까지 정선·북평·함백제일·사북교회), 2011년 9월 인도네시아 찔레곤 늘푸른교회 창립예배, 2011년 9월 권오서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웨슬리대학졸업식 및 찔레곤늘푸른교회 창립예배(22일까지), 2012년 4월 15일 김찬 선교사 인도네시아파송식(3부예배), 2012년 6월 7일 권오서 담임목사 자카르타웨슬리대학 졸업식 및 선교관 기공식 참석(10일까지), 2012년 8월 6일 푸른교회 인도네시아단기선교(13일까지 칼라만탄지역), 2012년 9월 21일 해외 늘푸른교회돕기 선교바자회(23일까지), 2013년 2월 3일 장학금 수여식, 인도네시아 웨슬리대학, 임마누엘교회돕기 특별헌금, 2013년 6월 3일 권오서 담임목사 자카르타웨슬리대학 졸업식 참석(7일 귀국), 2013년 9월 14일 권오서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임마누엘교회 창립45주년 기념예배 참석 및 싱가포르 한인교회부흥회 인도(19일까지), 2014년 5월 26일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웨슬리대학 졸업식참석(30일까지), NGO 러브월드 인도네시아 종교성과 MOU 체결, 2014년 10월 5일 Johnley Markus 설교(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임마누엘교회) 저녁예배, 2014년 11월 3일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자

카르타중앙교회, 6일까지), 2015년 4월 26일 이원민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식 최훈차콰이어(Choir)연주회(저녁예배), 2015년 5월 3일 사랑의주일(네팔지진재해돕기) 16,390,520원, 2015년 5월 18일 권오서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웨슬리대학교 졸업식 참석(23일까지), 2015년 9월 26일 의료선교팀 인도네시아 의료선교(람풍지역 10월3일까지) 31명 참석, 2016년 8월 10일 자카르타 늘푸른교회에서 성전재건을 돕기 위한 헌금 10만 달러 후원, 2016년 9월 12일 인도네시아 람풍지역 의료선교활동(30명 참가 18일까지) 2017년 2월 10일 1월 '사랑의 주일' 헌금 28,253,670원을 흥업교회 김원석 목사 치료비로 전달, 2017년 10월 1일 1004주일(몽골 자갈란트 초등학교 화장실 설치 후원,18,668,180원), 2018년 1월 21일 해외선교헌금 작정주일-신규 37명(총 752명) 작정, 매월 9,000,000원 선교 후원, 2018년 3월 28일 과테말라 사랑의 집 건축후원금 6,000,000원 전달, 2018년 4월 29일 '사랑의 주일'-남미선교지방 브라질선교교회(정찬성 목사) 성전건축 돕기 20,000,000원, 2018년 5월 23일 권오서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웨슬리대학 졸업식 참석(~26일), 2018년 7월 30일 권오서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선교협의 방문(~8월 2일)(동행 : 심성수 목사, 김석권·김웅일 장로), 2018년 09월 23일 의료선교, 인도네시아 람뿡지역(~29일), 46명 참석, 2018년 10월 21일 1004주일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돕기 20,121,570원, 2019년 6월 30일 사랑의 주일', 25,534,040원-인도네시아 빨렘방진료소, 의료물품 구입 후원, 2019년 9월 9일 의료선교, 인도네시아 빨렘방 람풍지역(~14일), 50명 참석, 2019년 9월 11일 인도네시아 빨렘방 뜰랑지역 사랑진료소 준공, 2020년 3월 16일 바이러스 전염병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금 2천만원 춘천시청에 전달 등이다.


어성호 선교사

이 기간 중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파송했던 어성호 자카르타 웨슬리대 대학원장(춘천중앙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이 감리교 선교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 감리교 선교국에서는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양양과 춘천에서 '2010년 감리교회 세

계선교사 축제'를 개최, 선교대상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선교사가 받은 선교대상은 격년제로 열리는 세계선교사대회 하이라이트로 지구촌에서 선교에 활동을 펼치고 있는 870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10년 감리교회 세계선교사 축제는 4월 18일 춘천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선교사 환영과 개회예배, 축하공연과 비전 등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15일부터 17일까지 양양 낙산비치에서는 자치 80년과 에딘버러 선교사대회를 기념하는 '2010 감리교회 세계선교사 세미나'가 '연합과 일치를 통한 감리교회 선교영성 회복'이란 주제로 열렸다.

어성호 선교사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21세기 인도네시아를 찾는 한인 선교사들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선교 목표를 밝히며 "많은 일을 하시는 선교사를 대신해 받는 상인만큼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74]

2) 춘천신성교회의 국내외선교

1980년대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회개척과 후원을 확대하여 1998년 전후 시기가 되면 그 꿈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2007년 교회 새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김창수 목사가 2012년 3월 4일 은퇴하기 전까지는 미자립교회와 해외선교 후원이 60~70% 줄어들게 되었다.

2000~2011년까지 춘천신성교회의 미자립교회해외선교단체 후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74) 『강원도민일보』(2010.4.20), 「어성호 춘천중앙감리교회 선교사 선교대상 수상」.

춘천신성교회의 미자립교회해외선교단체 후원 현황(2000~2011년)

구분	연도	교회명·선교지(선교사)·선교기관	교회·선교지·기관 수
미자립교회	2000년	태백 대현, 삼척 용화, 춘천 복지·서춘천·춘천·충만·좋은·반석·후평제일·선한·등대, 원주 광림, 단양 남천, 평창 임하, 홍천 두촌, 영월 마차, 청주 저산, 청양 안심	18
	2001년	태백 대현, 삼척 용화, 춘천 복지·서춘천·춘천·단비·좋은·반석·원천신성·선한·등대·거두리, 원주 광림, 단양 남천, 평창 임하, 홍천 두촌, 영월 마차, 분당 푸른, 청양 안심, 정선 정선자활	20
	2002년	태백 대현, 춘천 복지·불기둥·춘천·단비·반석·선한·군량·전성·거두리, 원주 광림, 단양 남천, 평창 임하, 홍천 두촌, 영월 마차, 강릉 영동, 청양 안심, 정선 정선자활, 윤인철목사	19
	2003년	태백 대현, 춘천 복지·춘천·불기둥·거두리·군량·선한, 원주 광림, 평창 임하, 홍천 두촌, 단양 남천, 안산 행복, 전주 명성, 영월 마차, 강릉 영동, 시흥 활천, 정선 정선자활, 청주 비전, 윤인철목사, 지방회계(염명동목사)	20
	2004년	태백 대현, 춘천 복지·춘천·거두리·군량·선한, 원주 광림, 평창 임하, 홍천 두촌, 단양 남천, 안산 행복, 전주 명성, 영월 마차, 강릉 영동, 시흥 활천, 정선 정선자활, 청주 비전, 윤인철목사	18
	2005년	태백 대현, 춘천 이루어가는·춘천·복지·불기둥·거두리·군량·선한, 원주 광림, 평창 임하, 홍천 두촌, 단양 남천, 안산 행복, 전주 명성, 영월 마차, 강릉 영동, 시흥 활천, 정선 정선자활, 청주 비전, 윤인철목사, 홍천 병지방	21
	2006년	태백 대현, 횡성 산돌, 안산 행복, 춘천 복지·춘천	5
	2007년	태백 대현, 횡성 옥동·산돌, 안산 행복, 춘천 복지·춘천	6
	2008년	태백 대현, 횡성 옥동·산돌, 안산 행복, 괴산 연풍상록, 춘천 성암·춘천, 정선 풍운	8
	2009년	태백 대현, 횡성 옥동·산돌, 안산 행복, 괴산 연풍상록, 서산 동지방, 춘천 성암·춘천	9
	2010년	태백 대현, 횡성 옥동·산돌, 안산 행복, 괴산 연풍상록, 서산 동지방, 홍천 굴운, 춘천 성암·춘천, 군포 사랑과진리	10
	2011년	태백 대현, 횡성 지구·산돌, 안산 행복, 괴산 연풍상록, 횡성 옥동, 홍천 굴운, 춘천 나눔, 군포 사랑과진리	9
	2000년	몽골(김소영),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8
	2001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동남아시아(김창수), 필리핀선교회(이정길)	9
	2002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동남아시아(김창수), 필리핀(최기순)	9
	2003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동남아시아(신완철), 필리핀(안창원), 인도네시아(어성호), 뉴질랜드(김성일)	11

구분	연도	교회명·선교지(선교사)·선교기관	교회·선교지·기관 수
해외선교	2004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동남아시아(신완철), 필리핀(안창원), 인도네시아(어성호), 뉴질랜드(김성일)	11
	2005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미국(김양건), 칠레(이길소), 인도(박진균), 탄자니아(송귀섭), 태국(오세관), 동남아시아(신완철), 필리핀(안창원), 인도네시아(어성호), 중국(김성일)	11
	2006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뉴질랜드(김성일)	4
	2007년	중국(정인서),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뉴질랜드(김성일)	4
	2008년	중국(이희영),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중국(김성일)	4
	2009년	태국(김시환),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뉴질랜드(김성일), 필리핀(안창원)	5
	2010년	태국(김시환),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중국(김성일), 필리핀(안창원), 인도네시아(전영진)	6
	2011년	태국(김시환), 네델란드(이창기), 칠레(이길소), 중국(김성일), 중국(송용석), 필리핀(안창원), 인도네시아(전영진)	7
선교단체	2000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어린이전도협회, J.D.M	6
	2001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어린이전도협회, J.D.M, 춘천기독교연합회	7
	2002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어린이전도협회, J.D.M, 춘천기독교연합회	7
	2003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예수전도단춘천지부,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J.D.M, 춘천기독교연합회, 감리교군선교회	8
	2004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예수전도단춘천지부,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J.D.M, 춘천기독교연합회, 감리교군선교회	8
	2005년	한국정신지체인협회, 서부연회, 예수전도단춘천지부, 군선교후원, 강원노인복지회, J.D.M, 춘천기독교연합회, 감리교군선교회, 오클로스선교회	9
	2006년	강원노인복지회, 오클로스선교회	2
	2007년	강원노인복지회, 오클로스선교회, 사랑의 집짓기, 군선교강원지회, 기아대책춘천지회	5
	2008년	강원노인복지회, 오클로스선교회, 사랑의 집짓기, 군선교강원지회, 기아대책춘천지회, 군선교감리본부, 강원경찰청교경협의회	7
	2009년	강원노인복지회, 오클로스선교회, 사랑의 집짓기, 군선교강원지회, 기아대책춘천지회, 군선교감리본부, 강원경찰청교경협의회	7
	2010년	오클로스선교회, 사랑의 집짓기, 군선교강원지회, 기아대책춘천지회, 군선교감리본부, 강원경찰청교경협의회, CBS춘천방송국, 지방회 부담금	8
	2011년	오클로스선교회, 사랑의 집짓기, 강원경찰청교경협의회, CBS춘천방송국, 지방회 부담금, 샬롬직업재활센터, 한국장애인부모강원, 춘천연탄은행, 한국환경장애마포, 성시화운동본부	10





동민도르 주 빅토리아 교회 기공예배와 봉헌예배 후 기념(2011년)

2000년대에 들어와서 꾸준히 필리핀과 태국 등지에 교회 건물이 봉헌되었다. 몇 사례를 보면, 2001년 유재옥 권사의 후원으로 서민도르주 선한 사마리아교회, 2002년 박만진 장로·최정옥 권사의 후원으로 싼타쿠르즈 신성교회, 2009년 김종민·이원 권사의 후원으로 동민도르주 로하스교회가 개척되었다. 2011년에는 춘천동지방에서 헌금을 하여 동민도르주 빅토리아 교회를 기공하고 봉헌하였다.

태국 선교는 2000년에 허천 장로·이주영 권사 내외가 치앙라이에 첫 태국 원주민 교회인 치앙센교회를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기공예배를 드리고 산족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산족들은 태국 시민권이 없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시내로 들어올 수도 없이 산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었다.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산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살다보니 아편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곳에서 선교 일행은 세워진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주민들에게 가져간 옷들을 나눠주었다. 이때 친분을 갖게 된 오세관 선교사는 그 교회를 맡아 선교하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학을 가르쳤다. 김창수 목사가 신학생들에게 첫 목사 안수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2005년에 신학교를 세우고 김창수 목사는 총장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태국신학교의 건물과 부지가 세워졌고 김종민·이원 권사 가정과 김정배 집사·정명순 권사 가정에서 교실을 하나씩 후원





태국 감리교 신학교 봉헌예배 후 기념(2005년)과
태국신학교 학생들의 신성교회 방문 특송하는 모습(2010년)

했다. 당시 태국신학교의 학생 수는 28명 정도가 되었다. 2010년에는 오세관 선교사가 태국신학교 12명을 데리고 신성교회를 방문하여 서로의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2012년 3월 19~30일에는 필리핀 동민도르주 베델지역 요단교회 기공예배(안복희 권사 봉헌) 및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이외에도 2018년 6월 10일 CCM홍보대사 유은성과 함께하는 해외아동결연 캠페인 '기대콘스트'(춘천신성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 하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예배, 매칭센터 : 우간다 카몰리센터)를 개최하였다. 2018년 9월 2일 2018기아대책 HOPE CUP 마다가스카르 선수단 방문 예배하였다(8월 31일 쌍용회관에서 식사, 9월 1일 한림대 운동장에서 중고등부와 친선축구경기, 9월 2일 함께 예배). 2019년 7월 7일 춘천신성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결연국가:우간다) 행사를 거행했다.

여기에서 이란선교에 대한 사정도 전한다. 강원대학교 농학박사 과정을 밟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머물고 있던 이란인 '아한나'가 신성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세례교인이 되었다. 이 부부가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와 이란 목사님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란인 목사님이 한 번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순방하고 신앙적으로 북돋는 시간을 가졌다. 그가 돌아간 후에 김창수 목사를 초대해서 이란에 가게 되었다. 이란 테헤란 지역에 18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10개 교회 정도

가 되었다. 그중 7개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해줘서 만났다.

당시 이란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았다. 모교회가 되는 임마누엘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위협하고 문제시한다. 대표적인 문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란은 금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교회도 원래 금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란 정부에서 서양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보라고 한 것이다. 만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일을 해야 하니 교인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특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6~8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다. 또한 교인들을 감옥에 가둬서 고생시키거나 위협하는 식으로 하여 기독교인들이 계속 핍박받고 있다.

이란의 교인과 목사님들은 아주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에 정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이란선교에 더욱 헌신을 하여 섬기면서 후원해주는 활동을 더 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다. 이란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빨리 전도해야 할 곳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란 선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신성교회 이원 권사가 선교사 아한나 경력과 사역을 소개해 주었다.

성장배경과 신앙 과정

이란의 무슬림으로서 크루드계 페르시아 가문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이란의 용맹하고 충성스런 유명한 장성으로 전역하신 분입니다. 아한나는 2005년 화학전공 박사학위 받고 테헤란의 대학에서 교수로서 재직하던 중에, 고위 공직자였던 남편이 강원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춘천에 남편을 따라 와서 한림대학교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8년에 남편이 같은 연구실에 신성교회 청년에게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여 자기 발로 와서 신성교회 등록하였고, 마침 방학을 맞아서 아한나는 한국에 왔다가 신성교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방학 중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았기에 일자리가 필요하여서 신성교인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칠 학생을 연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신성교인 두 사람이 그를 전도할 생각으로 교회 학생들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자리에 참여 하게끔 하였습니다.

예배 첫날부터 성령의 임재로 엄청난 심령에 감동감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영적인 갈급함에 진리를 찾아 헤매던 터라 그는 주님을 너무도 사모하며 새벽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였고 기도를 시작한지 2주 만에 방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평신도로서 목숨 건 사역

3개월의 한국 체류동안 김창수 목사님과 신성교인들의 밀착 지원과 교류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란으로 돌아갔고, 테헤란에 있는 브라더후드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알프레드 목사님과 적극적으로 전도를 목숨 걸고 하며, 거의 매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이란에서 5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한나는 이란 교회 목사님을 신성교회로 초대하도록 주선하였고, 당시 김창수 목사님 또한 이란 교회에 초청받아서 실제 목숨 건 무슬림 전도 현장 동행을 하셨고, 몇 안 남은 이란 교회와 개종한 성도들, 목회자들을 만나서 한국 교회의 통성기도, 새벽기도, 안수기도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란에서 비밀 종교경찰의 감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평신도로서 일하며 2010년에 CCC 사역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매일 택시전도, 예수영화 CD보급, 제자양육, 성경 제작 보급, 핸드폰 전도 등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지내었고, 기적과 이적은 일상적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간 지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정식 선교사 사역

캐나다로 간 후 그는 국제 CCC(P2C)사역자로서 정식 훈련을 받았고, 워터루 대학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에 주님으로부터 콜링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정식 선교사로서 국제 CCC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남편의 신앙이 급격히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확증으로 여기며 지금은 부부가 동역자로서 사역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한나의 주요 사역 활동

전임 사역자로서 그는 페르시아어(이란어) 사용하는 1억이 넘는 인구를 복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스카이프)을 통한 이란 국내외에 있는 청년, 제자, 지인들 대상으로 전도와 일대일 양육, 인터넷으로 복음 문건 작성 및 보급(웹싸이트 제작, 지원), 전세계 국제 선교사 네트워크 형성 협력, 캐나다 내 이란인 교회에서 통역,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 지원,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여 아한나(김창수 목사가 지어 준 이름) 선교사가 춘천신성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란에서는 살 수 없는 곳이라서 캐나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 헌신하고 있다는 사연이다.

3) 춘천우두교회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교회의 존재 근거이다. 우두교회도 세계 만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교회가 점차 부흥되어 복음전파의 지경을 넓혀 세계로 선교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두교회가 집중적으로 선교한 지역은 중국, 일본, 필리핀이다. 그리고 태국 등 일부 국가 선교에는 선교비 지원을 하기도 했다. 1995년 주보 표지를 보면 필리핀에 안창원 선교사를 파송선교사로 세우고 일본 조영상, 홍콩 오차숙, 태국 노동현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우두교회는 국내외선교에 진력하여 해마다 선교비 지원을 늘려왔다.

2001년에는 선교사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김성일 전도사를 인도 오릿사로, 오진아 선생을 인도 폰디체리로 1월 8일부터 2월 3일까지 단기 파송하였다. 우두교회는 2001년 당시 2억 원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교회 경상비 중 대략 40%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교회들의 선교비 비중이 평균 1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선교비 비율이다. IMF이후 한때 선교비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김영원 목사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여 꾸준히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두교회는 세계선교의 비전을 심을 수 있는 여러 강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들었다. 1988년 8월 28일 한나선교회 주관으로 인도복음선교회 총재 바기스 목사를 초청하였다. 통역은 평화교회의 한균 목사가 맡아 주었다.

2000년 8월 20일 저녁 예배는 스페인 선교센터 부지 마련을 위한 찬양예배로 드렸다. 스페인에서 선교하는 윤영범 선교사가 설교하고 스페인 선교단의 찬양, 훌라맹고 춤, 클래식 기타 연주가 있었다. 2002년 4월 21일 대예배 때는 네덜란드 선교사인 이창기 목사가 맡아 설교하였다. 2008년 1월 13일 주일예배는 본부 선교국 해외선교부장인 김영주 목사가 설교하였다. 김영주 목사는 우두교회가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10년 이상을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우두교회는 젊은이들이 선교를 체험하게 함으로 비전을 공유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태웠다. 우두교회 단기선교팀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필리핀 지역이다. 중국과 일본에도 다녀왔는데, 이 지역 단기선교팀에 대한 예를 각각 하나씩 만 들어본다.


티베트 단기선교팀 모습(2007년)

우두교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다가 2001년 김성일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서 선교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중국선교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김영원 목사의 아들인 김성일 선교사는 세계선교의 비

전을 가지고 중국 티베트 선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였다. 2003년에는 네덜란드에 가서 선배 선교사로부터 해외 선교를 본격 체험하였다. 2004년 김성일 선교사는 티베트 선교를 위해 중국 사천성으로 파송을 받았다. 중국 당국의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감시가 매우 날카로워 드러내 놓고 선교지로 부임하기 어려웠다.

선교지는 티베트와 인접한 지역으로 교육선교를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중국 변방으로 문맹률이 높은 어려운 지역이었다. 우두교회에서는 김성일 선교사의 교육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한편 필요한 선교비를 지원하였다. 김성일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우두교회 교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편 2007년 8월 2~10일에는 그가 개척한 선교지에서 단기선교로 그를 지원하기로 하고 담임목사외 9명이 다녀오기도 했다.


일본인에게 전도하는 선교팀(1997년)

일본의 경우도 일본선교에 헌신하기로 한 본 교회 출신 조영상 선교사를 위하여 1991년 3월 17일 저녁 예배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재정적인 도움을 약속하였고 매월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춘천지역에는 조영상 선교사를 위한 일본복음선교회가 조직되었다. 일본복음선교회는 춘천지역 기독 청년들로 구성되어 드라마와 찬양으로 일본 복음화에 목표를 두고 모이고 있었다. 1992년 3월 22일에는 일본복음선교회 주관 찬양예배를 드렸다.

1997년에 우두교회에서는 조영상 선교사를 지원하고 젊은이들에게 일본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찬양선교단을 중심으로 한 일본단기선교팀이 구성되었다. 기간은 7월 1일(화)부터 9일(수)까지로 조영상 선교사가 선교하는 지역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2003년 9월 24일에는 한일교회지도자 교류 친선대회가 우두교회에서 열렸는데, 조영상 선교사가 주관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일본 목사의 설교와 평신도 지도자의 간증을 듣기도 하였다.

한편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도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베트남에는 2002년 1월 2일부터 18일간 예수전도단 아동부 선교훈련인 King's Kids 훈련을 받고 있는 아동부 이성민, 장은지가 다녀왔고 박인철 부담임목사 부부는 1월 7일부터 25일까지 중국과 동남아 지역 단기선교 여행을 하였으며, 김성일 선교사 부부는 2003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캄보디아로 단기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한편 박대성 전도사는 2007년 6월 25일 단기선교 사역차 출국하여 11월 말에 귀국하였다. 그곳은 캄보디아 깜뽕짬으로 하비스트선교회의 김해준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였다. 이와같이 우두교회가 단기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온 이유는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의 선교를 지원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보다 우두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와같이 우두교회는 더욱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로 세계를 무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적·물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수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안창원 선교사가 2011년까지 국내 여러 곳의 후원을 얻어 교회와 학교를 건축한 것만 본다면 이래와 같다.

- 카비태주 아귀날도교회(춘천동지방 지원, 1995년 봉헌)
- 카비테주 트레세교회(춘천동지방 남선교회 지원, 1996년 봉헌)
- 카비테주 실랑신성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지원, 1997년 봉헌)
- 카비테주 빅토리아교회(춘천동지방 지내리교회 지원, 1997년 봉헌)
- 카비태주 멘데즈교회 (춘천동지방 신성교회 지원, 1997년 봉헌)
- 카비태주 사랑과 평화의집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지원, 1998년 봉헌)
- 불라칸주 생수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지원, 1998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 달라히칸교회(춘천북지방 우두교회, 1999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 당가이 3000교회(원주삼천교회, 2000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 당가이선교관(우두교회 원주의대 이규재 교수, 2000년 봉헌)
- 서민도로주 선한사마리아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2001년 봉헌)
- 동민도로주 만살라이 아마가갈보리교회(춘천북지방 지내리교회, 2002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 달라히칸초등학교(춘천북지방 우두교회, 2002년 봉헌)
- 동민도로주 만살라이 아마가초등학교(춘천북지방 우두교회, 2002년 봉현)
- 서민도로주 싼타쿠르즈신성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2002년 봉헌)
- 카비태주 하나님께영광순복음교회(수원순복음제일좋은교회, 2003년 봉헌)

- 동민도로주 마카톡존웨슬리교회(춘천북지방 우두교회, 2005년 지원)
- 동민도로주 누가교회(인천순복음교회 임재용 권사, 2006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 복된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2007년 봉헌)
- 롬불론 임마누엘교회(춘천북지방 사회평신도부, 2008년 봉헌)
- 롬불론 빠실라곤교회(춘천북지방 우두교회, 2008년 봉헌)
- 동민도로주 로하스교회(춘천동지방 신성교회, 2009년 1월 봉헌)
- 카비테나익주 나익교회(정선지방 여선교회, 2009년 12월 15일 봉헌)
- 동민도로주 빅토리아교회(춘천동지방, 2011년 봉헌)

라고 할 정도로 필리핀 선교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2. 장로교와 춘천지역 교회

1) 춘천동부교회

콜롬비아 선교지로 돌아간 이영하 선교사는 원주민 선교보다는 후사신학교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원주민 신학생들을 훈련해 원주민 교역자에게 선교를 하게 하는 전통적인 선교전략이었다. 후사신학교는 1994년에 한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보고타신학교의 분교였다.

이영하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신학교를 후원하는 사업을 의미했으며, 춘천동부교회는 이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동인이 된 것은 신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영하 선교사의 요청이었다. 거의 1년 뒤에 춘천동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창간호에 실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약에 금년 내 건축이 된다면 앞으로 신학교 발전은 물론 이곳 이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콜롬비아 사회에서 정식으로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춘천동부교회 당회장님과 여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사신학교 건축(약 4만 달러 소요)에 대해 후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만약 춘천동부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신학교 건축과 일부분 운*

영을 지원해 주시면 4·5년 내 외부 도움 없이 자체 내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후사신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콜롬비아 국가에 크게 공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쁜 소식과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신학교 건축에 드는 경비와 신학교 운영비를 후원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기쁜 소식과 답변'을 기다린다는 마무리는 춘천동부교회로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00년 6월 30일에 모인 당회는 이 요청에 대해 논의한 뒤 지원하기로 하고 선교부에서 지원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일임한다.

이에 선교부는 후사 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8월 13일 주일을 '해외선교주일'로 지키며 특별 봉투를 비하여 해외선교헌금을 해 줄 것올 교인들에게 부탁한다. 이날 해외선교헌금 명목으로 2,943,000원이 헌금되었는데, 후사신학교 후원금으로 사용되었다. 당회는 또한 조재혁 집사 피아노 독주회를 9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당에서 개최하여 수입금을 후사신학교 후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청년부와 대학부 젊은이들이 이영하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일일찻집을 교회 친교실에서 개최하였다.

후사신학교를 후원하는 행사는 2002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하게 실시된다. 이것은 임신영 목사가 후사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원주민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2월 5일에 선교지를 방문하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가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교회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첫 번째는 청년부와 대학부 주관으로 '선교레스토랑'올 운영한 것이다. 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개최하였다. 두 번째는 '사랑의 1불 모금' 운동으로 교회에 마련된 모금함에 사랑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모금된 것이 약 750인분의 식사비와 1달러 후원금올 합해 약 300만 원 정도의 이익금, 개인적인 헌금, 그리고 교회의 지원금으로 임신영 목사는 후사신학교에 "책걸상 60개, 2층 침대 15개, 볼펜 200개, 셔츠 60개 등의 물품지원과 함께 7,000달러의 선교특별활동비를 지원하였다.

임신영 목사는 2004년 2월 2일에 콜롬비아로 출국하여 다시금 후사신학교를 방문한다. 그 당시 후사신학교에는 대학원생(MA) 16명과 학부생 56명이 등록하

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교회는 2004년에는 5명의 신학생에게 그리고 2005년에는 10명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3월 7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춘천동부교회 교인 한 사람이 5년간 4명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하고 재정부에 기금을 기탁하였다. 학생 1인당 1년간 장학금은 36만 원이었기에 720만 원을 후원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이영하 선교사의 후원은 후사신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후원과 운영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이었다. 이 일에 춘천동부교회 교인들은 기도는 물론 장학금을 기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교회 젊은이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해외 단기 선교 여행에 춘천동부교회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기울지 않을 수 없었다. 2000년 2월 11일자 『당회록』에 보면 "청년부장 강동구 장로가 청년·대학부의 해외단기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3층 친교실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시험가동 중임을 보고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보고에 의하면 해외단기선교여행은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청년부와 대학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하고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천동부교회의 첫 번째 해외 단기 선교여행은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은 박의범 장로의 소개 때문이었다. 일종의 비전트립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 이 해외단기 선교여행에는 총 12명이 참여하여 쌍압산팀과 하얼빈팀으로 나뉘어 활동하였다. 비록 12명의 적은 인원이 참가한 해외단기선교 여행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12사도처럼 춘천동부교회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개척자들이 되었다.

제2기도 중국 하얼빈(13명, 2001년 7월 30일~8월 10일)과 위구르(5명, 2001년 8월 8일~14일) 지역을 다녀왔다. 위구르 지역 참가자였던 청년 김정혜는 단기선교 후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 *"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꽃과 복음사역을 시작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칩니다. 집에 와서 마당의 풀 한 포기가 예사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광활한 사막에 풀 한 포기가 없음을 보고 오니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아주 작은 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땅 끝이고 항상 깨어서 그들을 중보하고 후원하고 스스로 성결케하여 주님이 다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라는 감동적이고 성숙한 믿음의 표적을 남겼다.

제3기 해외단기선교는 중국팀(신장 위구르, 2002년 8월 5~16일, 7명)과 인도팀(비하르주 파트나, 2002년 8월 4~13일, 7명), 제4기는 구자라트팀(인도 북서부 구자라트, 2003월 8월 1~13일, 10명), 비하르팀(인도 북동부 비하르, 2003월 8월 1~13일, 7명) 등이 진행되면서 2000년부터 시작된 해외단기 선교여행은 대학부와 청년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영적각성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한편 1999년 11월 30일에 모인 당회는 춘천시 조양동 137번지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곳에서 교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본 뒤 만드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 일을 맡아 추진하던 기획위원회(위원장 박의범 장로)는 교회의 홈페이지(도메인명 http://www chdongbu.or kr)를 만들어 인터넷 시장에 춘천동부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다. 이렇게 하여 2000년은 춘천동부교회를 온라인상에 새롭게 개척한 원년이 되었다.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해 당회는 기획위원회 하에 정보영상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정보영상팀은 2001년에는 정보영상위원회로 별도의 위원회로 조직되어 홈페이지 운영 외에도 교회의 소식지인 『아름다운 이야기』 발간도 추진하였다.

2) 춘천제일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도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원로장로 추대(1999년 5월 7일)를 하면서 해외선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 1월 2일 방인선 선교

사를 중국선교사 파송하였다. 방인선 목사는 김선중과 결혼하였는데, 김선중 사모는 고 김용화 장로의 셋째 자녀로 강원대 중어중문학과 출신이다. 이를 도화선으로 2001년 3월 15일 교회설립 62주년 기념으로 몽골 선서글렁제일교회를 기공하고 최근욱 선교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춘천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박상호)가 지난 23일 기념예배를 갖고 올 한해 표어와 실천지침에 따라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제일교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제일교회와 함께 하는 아낌없이 주는 마임' 공연을 갖는다.

또 내달 14일 오후 3시에는 교회에서 '송 언더 플레이노우 찬양팀'을 초청해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찬양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교회 70주년사' 작업도 진행중이다. 지난 16일에는 '70주년 기념 제일예술제'를 개최해 교회 역사 사진전을 비롯해 시화전과 미술전을 펼치기도 했다.

도내 장로교회의 모태가 된 제일교회는 춘천동부교회(담임목사 박창운)와 함께 지난 1939년 5월 7일 박민식 장로의 집에서 드린 예배로 시작됐다. 첫 명칭은 춘천읍장로교회로, 이후 소양로에 있던 홍아여관 2층으로 이전하면서 소양장로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듬해인 1940년 조택수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으며 다시 춘천장로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지난 1946년 동부교회와 분리됐으며 춘천시 낙원동 현 위치에 성전을 개축키로 결정하고, 방효정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947년 교회당 신축과 함께 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노회에 가입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교회당이 전소돼 판자교회 시절을 거쳐 1954년 교회를 재건했다. 교육에도 힘을 써 1952년 성수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를 받았다.

창립 50주년이 되던 1989년 11월 현재의 교회를 건립해 입주했으며 1994년에는 창립 55주년 기념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를 갖기




몽골흐틀명운교회(2007년 3월 14일)와 몽골평안교회 헌당(2014년 3월 2일)

도 했다.

2001년에는 교회설립 60주년 기념 몽골 선교지 선서글렁제일교회를 기공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한 해외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175]

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근욱 노상희 선교사가 몽골 평안교회에 파송되어 있어서, 본 교회에서는 선교사 사역을 돕기 위하여 제1회부터 10회까지 10년간 몽골 단기선교(몽골 평안교회, 선서글렁교회, 흐틀명운교회를 중심으로) 14~22명 내외의 대원으로 약 250여 명이 봉사하였다. 또한 교회 건축도 위의 세 교회를 건축하였는데, 선서글렁교회(5,000만원, 교회가 부담하였고), 흐틀명운교회(3,000만원 김형태 한정애 부부가 헌납), 평안교회(12,500,000원 교회헌금으로 건축)이다. 2002년에는 일본 삿포로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고 단기선교 시 교회시설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2004년 7월 28일에는 제1회 일본 단기선교를 실시(8월 13일까지, 삿뽀로 교회)하여 14명이 참여하여 235명을 전도, 결신시켰다. 그 후부터 일본단기선교는 매년 가게 되었는데 선교희망자를 모집한 후 1년간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선교훈련을 받는다. 즉 기초 일본어 교재와 일본어 찬양, 일본요절과 전도문 외우기 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거의 외울 정도가 된다. 이 선교팀의 지도는 김진현 장로

175) 『강원도민일보』(2009.5.26), 「춘천제일장로교회 창립 70주마임 공연 등 기념행사 다채」.

(강원대 법대교수), 황병호 장로(강원대 산림대 교수), 김세환 집사(강원대 체육대 교수) 등이 2022년까지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주었다. 이 일본선교팀의 멤버 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선교사로 활동 중인 사람과 일본 현지 목사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도 있다. 또한, 일본 대학으로 유학하여 졸업 후 일본 현지 일본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있으며,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현재까지 결신자의 수는 약 6,000여 명이며 매일 명단을 보며 중보기도하고 있다. 본 일본단기선교팀은 한국 유일의 선교팀임을 확증할 수 있으며 자랑스럽다. 경비는 자비량이며 교인들의 단기선교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1월 23일 필리핀 단기선교(1월 23~29일 퇴계2구역) 11명이 다녀온 후, 2007년 필리핀 2차 단기선교(퇴계2구역) 13명이 현지에서 큰 봉사를 하면서 선교현장의 어려움을 체험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 있다. 2007년 1월 10일에는 성지순례(1월 10~19일)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은혜롭게 19명이 다녀왔다.

양성찬 목사를 2007년 1월 10일 몽골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여 최근욱 선교사를 크게 협력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최근욱, 노상희 부부를 몽골선교사로 파송하고, 박상호 목사님은 몽골장로교신학교 후원이사장으로 취임하시어 강의와 신학생을 격려하시기도 하셨다.

2013년 1월 5일에는 인도 단기선교로 1명 파송하였다(김홍주 목사). 그 후에 3차례 인도 단기선교로 파송하게 되었다. 2013년 미얀마 단기선교 4명 파송(1월 11~19일)과 2015년 미얀마 단기선교 8명 파송하여 선교사를 도왔다. 2014년에는 몽골 평안교회 준공 및 헌당예배에 박상호 담임목사와 해외선교위원장 황병호 장로가 참석하였으며, 건축비는 125,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었다.

3) 춘천성광교회

춘천성광장로교회도 선교 열풍에 동참하여 1888년 8월 7일 서신길 협동선교사 아랍에미레이트로 파송한 이래 1990년 4월 29일 한유민 협동선교사를 방글라데시로 파송하였고 1995년 정요한 협동선교사를 중국으로 파송하였으며, 1996년 1

월 7일 김한호 협동선교사를 독일로 파송하였다.

1995년 석사동 교회부지(1,860평)을 매입하고 2001년 12월 13일 청와건설과 성전건축 계약을 맺고 2002년 3월 15일에는 기공예배를 드리고 2003년 10월 19일 새성전(석사동 171-2) 입당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1년 1월 1일 전충국(몽골), 김주림(남아프리카공화국)을 협동선교사로 파송하였고 2013년 9월 4일에는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에 성광마하메루교회(1층 22평, 중층 9평, 헌당은 2014년 5월 28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레타빌레('빛'이라는 뜻)교회(29평 규모, 헌당은 2015년 9월 13일)를 건축하였다.


태국 강유진 선교사의 선교사역 관계자와 기념(2017년)

태국의 강유진 선교사도 후원한다. 강유진 선교사는 현 조용아 담임목사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10년, 담임으로 15년 목회한 후 선교사가 되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 되었다가 SNS 매체를 통하여 열결이 되어 기도와 후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태국 현지교회와 협력사역을 하고 있으며, 예배 봉사라든지 성찬과 성례 같은 예식인도, 환우심방 및 전도, 현지 개척교회 재정지원과 건축, 어린이 사역을 위한 풍선놀이기구 기증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176]

4) 신북교회

신북장로교회는 조덕준 담임전도사가 2002년 10월 6일 부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변모해 가기 시작하였다. 부임 다음 해 초에 새성전 부지(율문리 258-18, 1500평)를 매입하고, 2009년 11월 22일에 헌당(조덕

176) 『행복한 사람들』(춘천성광교회, 2017.5.15), 「강유진 선교사(태국)」.


이창봉 목사

준 목사 위임, 김봉우, 김종찬, 김규식, 오인환 장로 임직)하며 신북교회가 일취월장 성장해 가는 중에 조덕준 소천(2010년 12월 26일)과 이석진 목사 부임 및 사임, 조현석 목사 부임(2015년 3월 1일)과 소천(2016년 4월 6일)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창봉 목사가 12대 담임목사로 부임(2016년 7월 31일)하며 신북교회는 성도들이 신북지역 중심에서 춘천시 일원으로 확장 분포하며, 교육관 건축(2019년 10월 6일)을 계기로 교회의 영적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친화적인 목회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2012년 2월 26일 '신북기부천사'를 발족한 이래, 10년째 총 1억 원 이상 기부)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이에 관련한 강원CBS 진유정 기자의 글을 소개한다.

신북장로교회가 운영하는 '신북기부천사 운동'은 2012년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신북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금을 모아 신북읍 소재 경로당에 생필품을 지원하면서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교회 중심 운동에서 벗어나 소외계층 발굴 활동의 업무와 후원자를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신북읍, 신북읍 이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회와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운동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기금은 1구좌에 5천 원씩 신북장로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을 위주로 하고 이장협의회와 외부 후원자들의 후원금, 신북교회 사랑의 빵 모금, 교회 재정 지원 등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혜자 인원이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후원 참여 구좌는 230여 구좌이며 1004구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금된 돈은 월정액 지원과 입원비, 주택 수리비 등 긴급을 요하는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추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월동연료지원증서 전달하는 이창봉 목사(2020년 11월 24일)

석 명절 선물, 월동 연료 지원, 도시락 지원, 신북읍 소재 각급 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창봉 신북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신북 기부천사 운동에 신북읍 주민들이 후원자로 많이 참여하고 주민이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177]

현재 교회창립 70주년(2023년 10월 7일)을 기념하며 전교인 성경 700회 통독, 지역사회 섬기기, 교회 70년사 편찬, 필리핀 팔라완에 신북 인테리어처치 건축 등으로 선교의 내실을 다지고 그 지경을 확대해 가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3. 성결교와 춘천지역 교회의 선교와 사회봉사

1) 춘천중앙교회

춘천중앙성결교회는 이웃과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 겨울이 되면 사랑의 연탄나눔을, 명절이 되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했으며, 약자를 위한 위문차원의 춘천교도소 방문도 하였고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서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아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2015년 10월 31일 춘천중앙성결교회 나눔위원회(대표 남장우 장로) 40명과 약

177) 『노컷뉴스』(2020.11.24), 「춘천 신북장로 교회,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금 1억원 돌파」.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모습(2015년 10월 31일)

사명동 봉사단 30명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로 연탄 2천 장(1백만 원 상당)을 불우이웃 10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선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었다. 1992년 5월 31일 최관용, 정애순 선교사를 대만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린 이후 1994년 7월 3일에는 김태옥·안은숙 선교사를 네팔 도티병원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후 신동조·강영희 선교사 러시아 파송(1997년), 최웅락·이민숙 선교사 케냐 파송예배와 멕시코 아드미라블레교회 건축 봉헌(1998년)을 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2003년 김월림·고춘옥 선교사 카메룬에 파송하였고 2009년 7월 26일에는 8월 1일까지 청년대학부가 베트남 단기선교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어서 캄보디아 단기선교(2014년 7월 6일~12일), 베트남 단기선교(2017년 1월 8~14일), 청년부 일본 비전트립(2019년 8월 7~9일)을 다녀오고 2019년 11월 24일에는 최조영 선교사를 알바니아로 파송하였다.

2) 나눔교회

나눔교회는 처음부터 사명선언문을 "춘천성시화와 하나님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로 춘천시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하였다.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CBS, 홀리클럽, 대학생선교단체들과 긴밀히 연합하였고, 강원재활원, 월드비전춘천지부등 복지기관을 후원하였다.

나눔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서 교회 경상비의 11%를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비전트립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선교지(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동북아 등)에 파송하였다. 또한 2011년을 시작으로 의료선교팀(내과, 소아과, 치과 등)을 구성하여 알바니아, 세네갈, 태국등 의료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힘썼다.

현재 7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했으며, 15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이순복 목사를 프랑스(~2013년)에 파송하여 프랑스 리용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세네갈(~2021년) 사역을 지원했다. 또한 2022년에는 지푸름·김나무 선교사 가정을 V국에 파송하였다.

3) 춘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선교사와 복지시설

김익환 선교사(이향우 선교사)의 '마닐라한국아카데미'는 1994년 오지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 자녀(Mission Kid)들을 위하여, 한국인의 정체성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국제인으로서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이다.

이진석선교사(정은숙 선교사,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Autazes)는 2018년부터 아마존 강가에 거주하는 인디오 부족과 28개 마을 선교, 2011년 중국에서 5년간 사역을 한 바 있다.

이현정 선교사(백승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는 2009년 보츠나와에서 사역하였다. 이현정 선교사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신 남부 아프리카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선교의 일과 전도와 교사들을 제자 삼고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습니다. 저희에게 선교사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아공 국가 이동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살리러 가는 것이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동산(나눔카페(김재숙) 대표이사 백성분)에서는 정신지체 자매들을 돌보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과 취업까지 연계하는 복지시설이다.

4.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춘천교회는 2002년에는 만천성전으로 이전하고 2003년에는 혜민사랑의 집(대표 조남진 장로)을 개관했으며, 2004년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시작으로 두란

노 어머니학교, 두란노 부부학교를 잇달아 개설했다.

춘천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던 김성수 목사가 2001년 1월 15일에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아름다운교회'를 창립하였고 교회에서는 창립기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약 3년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북강원도에 자전거 천 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였다. 강원도 기독교연합회(회장 권오서 목사)가 북강원도에 자전거 천 대를 보내기로 하고 모집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본교회에서는 15대를 배정받아 자전거 15대분을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했다.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강원도와 함께 북강원도에 자전거 3천 대를 기증했다.

수재의연금 3백만 원을 언론사에 전달하였다.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이재민을 위한 의연금을 거두어 신문사와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도왔다. 의연금은 5백만 원이 모여 국민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1백만 원씩 전달하고 나머지 2백만 원은 큰 불행을 당한 교회 성도 가정에 전달되었다.



혜민사랑의집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2011년)

2003년 5월 5일 '혜민사랑의집' 문을 열었다. 혜민사랑의집이 문을 연지 만 6개월이 지난 2003년 12월 말에 사랑의 집을 방문해 점심공궤를 받은 노인은 모두 2만6백5명이며 들어온 성금은 5천1백63만8천 원에 이르렀다. 순복음춘천교회가 효자동에서 이곳 만천리로 옮겨 오면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 시작한 혜민사랑의집 사업은 이 운동의 취지에 뜻을 같이한 (주)삼양사 염민웅 사장과 부인 민혜정 권사에 의해 2억 상당의 사랑의 집 건물을 기증받게 되었고 온 성도들이 많게는 1백만 원 이상으로부터 2십만 원, 1십만 원, 5만 원 등 힘 있는 대로 성금을 보내와 그동안 2만 명의 노인들의 점심공궤를 하고도 남을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 이후 6년간 20만 명의 어르신들을 대접한 것과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6년 11월 5일 오후 3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수 선교사의 선교보고회가 있었다. 캄보디아선교 6년째인 김준수 선교사는 그동안 미국에 있는 캄보디아 선교후원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아 몇 사람의 선교사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도 세웠으며 중 · 고등학교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김준수 선교사와 함께 온 일행은 부인과 제자들로서 밝은 미래학교' 교장인 터치 라이 씹(39세)씨를 비롯해서 반 티어(26세) · 몬 촘(26세) 전도사와 잉 쑥째(24세) 신학생 등 5명이다. 김준수 선교사는 춘천교회에서 중 · 고등 · 대학부 과정을 마쳤으며, 예수사랑찬양단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여선교회 후원하여 김주환 목사 등이 베트남 퀴년 빈뜨엉 교회 봉헌 헌당 예배 참석했다.

총여선교회(전 회장 최순녀 권사 현 회장 조기숙 권사)가 사염을 해서 모은 돈 천만 원 중 7천만 원은 교회에 헌납하고 2천만 원으로 베트남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현지답사를 통해서 퀴년에 있는 빈뜨영 교회를 돕기로 하여 그동안 2천만 원 가까운 자금을 드려 2010년 9월 28일 봉헌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교회 창립을 위한 단기선교팀이 김주환 목사 내외를 비롯해 백원일 장로 내외, 최순녀 · 조기숙 총여선교회 신 · 구회장 등이 지난 3월 베트남 현지를 다녀왔으며 퀴년 빈뜨엉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첫 성금 5백만 원과 그 후 공사진척에 따라 1천 7백만 원을 헌금한 결과 교회 준공과 함께 헌당을 보게 된 것이다.



순복음춘천교회 베트남 빈뜨엉교회 봉헌예배 위해 출발할 때 모습(2010년)

김영명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성경 시편 126편을 신현우 목사가 봉독하였고 김주환 목사는 설교에서 "순복음춘천교회가 헌금하여 오늘 봉헌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40여 년 전 한국군 맹호부대가 주둔했던 이 지역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교회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사명을 다 할 것과 교회의 무궁한 성장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씀했다. 설교에 이어 빈뜨엉교회 담임 교역자인 희유 목사의 축하기도가 있었고 이은준 목사의 축도로 봉헌예배를 마쳤다.

2012년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예배가 1월 29일 오후 2시 파송선교사 염동철 목사를 비롯한 온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다. 김주환 담임목사의 파송설교에 이어 교회 장로회, 교역자, 군선교회, 여선교회에서의 선교비 전달, 꽃다발 증정이 있은 후 염동철 목사는 인사에서 중·고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고 목사님 권유로 신학교 진학을 했으며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로 10년간 교회를 섬겼다고 인사한 후 교단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종교비자도 받게 되고 순복음춘천교회 40년사에 처음 기록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인사했다.

2013년 5월 17일 김주환 원로목사 추대 및 이수형 담임목사 취임으로 순복음춘천교회는 제2의 부흥과 도약,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춘천교회는 교회창립 43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해외선교사를 초청하여 5월 3일(주일)~5일(화)까지 2015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본교회 출신으로 1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해외선교사 25가정을 초청, 그중 11개국의 18가정(35명)이 참석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교의 열정을 충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선교사들의 왕복 항공료와 기타 체류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소정의 선교 후원금을



2015순복음춘천교회 선교대회 모습(2015년)

본교회가 지원하였다.

이수형 목사가 담임이 되어 직접 파송한 선교사는 2015년 12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파송한 김준수·고은영(은혜) 선교사와 2017년 2월 26일에 필리핀 앙헬레스에 파송한 홍영기·김미애(현지, 운총, 은혜) 선교사가 있다.

전 성도들의 사랑이 모여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에 교회와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물적 지원이 이뤄졌다.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대만, 중국 단기선교 활동 및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호주, 미국으로의 비전트립 등 총 30여 차례 진행했다.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는 해외선교사는 아래 표와 같다.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는 해외선교사(2022년)

구분	선교사
정기후원 (17명)	길대섭 선교사(멕시코), 김도형 선교사(일본), 김성수 선교사(대만), 김종국 선교사(필리핀), 김준수 선교사(캄보디아), 김학봉 선교사(태국), 김현우 목사(미국), 나오로 목사(필리핀), 박수현 선교사(캄보디아), 박철환 선교사(필리핀), 서정복 선교사(베트남), 염동철 선교사(호주), O00 선교사(C국), 이경준 선교사(몽골), 이요셉 선교사(필리핀), 정수복 선교사(필리핀), 홍영기 선교사(필리핀)
비정기후원 (11명)	김종양 선교사(에스와티니), 심용재 선교사(필리핀), 박윤호 선교사(태국), 송호영(박현미) 선교사(볼리비아), 엘마 목사이영석(지진명) 선교사(몽골), 정운교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국), 정은경 선교사(인도), 최동수 선교사(헝가리), 최원금 선교사(인도네시아), 허대영 이사장



논산연무대 진중세례식 모습

다음 세대 가정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모여 있는 군부대는 선교의 황금어장이다. 진중세례식, 군교회 연합찬양제, 21사단 전방초소에 사랑의 독서카페 기증 등을 비롯하여 군 장병들을 위한 종교안보교육과 군종병 수련회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

면서 군선교를 통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논산연무대에서 진중세례식을 2015년 7월 25일 3,382명, 2016년 7월 23일 4,012명, 2017년 8월 6일 2,878명, 2018년 7월 21일 4,829명, 2019년 8월 10일 3,217명 등에게 거행했다. 21사단 신병교육대에도 2014년 8월 30일 272명, 2015년 9월 12일 200여 명, 2018년 10월 13일 200여 명에도 세례를 거행하였다.

5. 구세군춘천교회와 북춘천교회

구세군춘천교회(현 담임사관 윤영숙)는 코로나19 발병 전까지 주위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해왔다. 2022년 10월부터는 '구세군과 함께 라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웃 사람들을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오전 9~11시까지 무료로 라면을 정성껏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석사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위해 바이오그램 의료기를 교회 1층에 비치해 놓았다. 식사를 하고 건강체크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어르신들이 교회와 행복복지센터에 감사한다는 미담이다.

구세군 북춘천아동센터(사우5길 13, 사농동)와 2009년부터 운영한 구세군 소양지역아동센터(춘천시 금강로13번길 12-7, 옛 소양로3가 60번지)가 2017년까



「구세군과 함께 라면」 프로그램에서 함께 라면 드시고 건강체크하는 어르신들(2022년)

지 운영되었다. 구세군 교단은 병설기관으로서 사농동의 구세군북춘천영문에는 구세군 북춘천 다문화센터를(2017년 5월 17일), 석사동의 구세군춘천영문에는 구세군 춘천커뮤니티센터를(2021년 12월 1일) 새롭게 설립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 목회와 마을교회를 꿈꾸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 살맛나는 세상'을 기치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나는 생명운동과 성결운동을 확산해 나아가 있다. 더불어 교세의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회, 사람들과 소통하고 필요를 채우는 나눔의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구세군 북춘천영문과 춘천영문이 종소리를 울리며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 거리 모금행사 모습(2020년 3월 26일)

봄에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구세군 북춘천영문(교회)과 춘천영문은 2020년 3월 25일 낮 춘천 명동 입구에서 종소리를 울리며 마스크 기부 캠페인 '내 마음을 담다' 거리 모금행사를 시작했다. 구세군이 매년 겨울 전국적으로 진행해 온 장기모금 캠페인이 연말연시가 아닌 시즌에 진행되는 것은 국내 자선냄비 역사 9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늘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경비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13~19일 서울, 부산 등에서 처음 전개된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도내 첫 캠페인은 3월 24일 철원 갈말읍에서 시작됐고 25일 춘천이 이어받았다. 춘천과 철원의 구세군 모금은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 여유분의 마스크를 기부함에 넣거나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봉석 구세군 자선냄비 강원지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대중 서비스 일선에서 일



구세군북춘천영문 알콜프리데이 운영 모습(2021년 6월 8일)

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178]

북춘천영문에서는 2021년 6월 8일 알콜프리데이를 맞아 춘천시청 광장에서 '알콜프리데이'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 알콜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악영향을 소개하고 금주를 격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북춘천영문 군우들과 함께 100여 명의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와 음료를 나눠주며 알콜프리데이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였다.

알콜프리데이는 세계구세군 128개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알콜의 폐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 중독자들을 돕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음주의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은 구세군이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는 3월의 건강 생활(절제)캠페인에 이어 실천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캠페인이었다.

구세군북춘천영문에서는 2011년 7월 서울을 비롯해 중부권을 강타한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산사태가 발생한 춘천지역에 급식 차량과 자원봉사팀을 긴급 파견했다. 강태식 사관(구세군 북춘천영문 담임)은 산사태가 발생한 뒤 현장에 도착해 구조대원들에게 커피, 컵라면 등을 배급했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구세군은 인근 상천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11가구 22명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기도 하였다.

178) 『강원도민일보』(2020.3.26), 「92년만에 봄 종 울린 구세군 '마스크 기부로 마음 나눔'」.



구세군북춘천영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2022년 1월 24일)

구세군춘천교회 정성욱 담임사관은 2014년 9월 17일 유용태·이복훈 장로 등과 함께 시청을 방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375만 원 상당 양곡(10kg) 150포를 기탁했다. 2019년 1월 31일에는 저소득 이웃을 위한 설 명절 사랑나눔박스 30개 신사우동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구세군북춘천영문(담임사관 안진영)에서 2022년 1월 24일(월)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중범)에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풍성한 명절을 위한 식료품으로 구성된 '2022 아름다운 설 명절나눔' 선물세트 40박스를 전달했다.

한편, 나눔키트에는 지난해 구세군 자선냄비 등을 통해 모아주신 마음으로 마련되었으며, 떡국 재료와 과인,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즉석식품 밥과 국, 고구마 등 식자재로 구성됐다. 복지관은 구세군북춘천영문에서 받은 후원물품을 춘천, 양구, 화천 지역의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였다.[179]

6.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한국 사회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라고 제시할 수 있다. 다음 아래의 표는 2015년 기준 인구와 3대 종교의 인원 수이다.

179) 『강원종합복지신문』(2011.2.7), 「구세군북춘천영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2015년 한국사회 3대 종교 인원 비율

2015년(단위 : 명)				
계	종교있음-계	불교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
49,052,389	21,553,674	7,619,332	9,675,761	3,890,311

* 출처 : 통계청

통계청은 10년 기준으로 인원을 측정하기에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5년 자료를 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약 44% 정도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측정된다. 종교인의 비율 중에서 35% 정도가 불교, 45% 정도가 기독교(개신교) 18% 정도가 기독교(천주교)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에 새롭게 또 자료가 나오겠지만, 2015년까지는 기독교(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개신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기독교(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많기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180]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발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월 22일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96,877,399명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는 2,098,879 명이며, 지역별로는 아메리카 43,133,022명, 유럽 31,857,099명, 동남아시아 12,627,306명, 지중해동부 5,484,650명, 아프리카 2,437,945명, 태평양서부 1,336,632명이다.

이는 1817년 인도 벵갈(Bengal)에서 발병하여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까지 퍼져 뉴욕을 중심으로 대거 유행했던 콜레라에 의한 치명적 피해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수치이다. 당시 콜레라는 오염된 공기와 대면에 의한 전염으로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각 국가의 부(wealth)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vaccine)에 대한 접근과 분배를 위해 구성된 기구인 코벡스(COVAX)에 의하면 2021년 내 접종 가능한 20억 명분의 백신을 계약했고,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앞 다투어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 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180) 정의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학교종교교육 모형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쪽 참조.

금지, 시설폐쇄, 지역봉쇄 등으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상실, 우울 및 무기력 등과 같은, 소위 '코로나 블루'(corona blue)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 치명적 위기를 주고 있다. 특히 기독교 현장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초기 신천지 교회에서 드러난 방역수칙의 미준수와 확진 관련 정보의 은폐, 신천지 교회와 일반 교회와 동일시, 이후 일반 교회의 방역수칙 미준수 및 확진자 발생, 그리고 소수 목회자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치쟁점화 등으로 인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여론에 의한 냉소와 외면, 그리고 단절 및 신뢰의 상실을, 내부적으로는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에 의한 출석률 감소, 교인 이탈현상, 특히 교회학교 붕괴에 의한 교육기회의 상실에 직면해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충격은 감염을 통한 확진 환자와 사망자 통계의 세계적 분포를 볼 때, 현대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래 일어났던 역대 재해 중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은 감염 및 사망과 같은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두려움, 불안, 상실, 우울, 무기력 같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단절, 소외, 배제 등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불거졌던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냉소와 오해에 의한 내상(內傷),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신앙적 소명의 재확인과 실천을 위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충격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후유증으로부터 회복 및 극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북돋워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181]

2022년 12월 16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654,424,188명, 사망자 6,673,638명으로 약 2년 전인 2021년 1월 22일 96,877,399명에 비하여 6배 이상, 사망자는 2,098,879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반 이상인 21,385,746명이나 되었다.[182] 이는 세계는 점차 감소세이나 우리나라는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81) 김진영,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영성 연구」, 『신학과 실천』 제73호, 2021, 282~284쪽 참조.

182) 코로나공식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 참조.

춘천기독교120년사 도움주신 분들

교단 및 교회

- 감리교 : 김창수 목사(신성교회), 이석 목사(강촌교회), 김성호 목사(덕두원중앙교회), 성낙환 목사(은혜교회), 박인관 목사(광염교회), 문충기 목사(혈동교회), 이주헌 목사(동원교회), 안세현 목사(민들레교회), 김기태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 김종열 장로(신성교회)
- 장로교 : 김종익 목사(춘천광명교회), 이창봉 목사(신북교회), 홍동완 목사(도심리교회), 함영도 목사(기쁜교회), 박동주 목사(한신교회), 용석만 목사(강원총신교회), 장영우 목사(춘천동성교회), 김희균 목사(봄내교회) 정승남 목사(장자교회), 이원평 목사(돋움교회), 최금희 목사(드림장로교회),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장동길 장로(춘천동부교회), 황병호 장로(춘천제일교회)
- 성결교 : 피종호 목사(춘천나눔성결교회), 염윤호 목사(춘천평화교회),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이영규 목사(신북성결교회), 전석규 목사(벧엘교회), 김치홍 목사(교동교회)
- 순복음 : 이정하 목사(춘천순복음제자교회)
- 침례교 :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 이성훈 목사(거성교회)
- 그리스도의교회 : 하용수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 루터교회 : 원종호 목사(춘천루터교회)
- 성공회 : 김희철 신부(춘천성공회)
- 독립교단 : 이연희 목사(아미교회), 윤재선 목사(산천무지개교회)

기독교 기관 및 사회단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수형 목사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영명 장로
- 춘천기독교연합회 김수일 목사
- 춘천목회자연합회 차성회 목사
- 춘천장로교연합회 신현천 목사
-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송제성 장로
- 춘천홀리클럽 조경화 장로
- 국가조찬기도회 석광훈 장로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정기선 장로
- 춘천운전기사선교 박무영 장로
- 베드로선교센터 조은제 대표
- CCC 이병연목사, 장기영 장로
- IVF 최인기 간사
- DFC 김연희 간사
- 예수전도단 권혁준 간사
- 예수제자운동 윤태호 목사, 이승수 · 유경숙 간사
- 기독대학인회 춘천ESF 진용화 간사
- 한국 국제기드온협회 춘천캠프 남준섭 장로
- 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회 김마태 대표
- 예스컴 길선희 목사
- 광염회 황병호 장로
- 효신고등공민학교 방지각 목사, 엄두영 장로, 이수길 장로
- 강원대학교 교수선교회 오덕환 교수
- 사랑의 메아리 · 예수마을선교공동체 · 한아름선교회 조영춘 목사
- 백합공동체 최준호 대표
-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김진솔 목사
-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황재국 장로, 홍연화 집사
- CCF목회자회 박인관 목사
-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김원중 목사
- 춘천YMCA 허대영 이사장, 이원영 사무총장
- 춘천YWCA 이병옥 이사장, 이선엽 사무총장
-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신희경 관장
- 기아대책 강원본부 정규상 본부장
- 춘천연탄은행 정해창 대표
- 해비타트 춘천지회 박유식 본부장
- 홀트아동복지회 강원사무소 임미라 센터장
- 강원CBS 정예현 대표
-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남준섭 이사장, 이재준 이사장, 홍순신 상임이사, 엄규영 전무
-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지부 염노섭 회장
- 두란도어머니학교 춘천지부 김단옥 지부장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최중범 관장
-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 광림노인전문요양원 홍종환 원장
- 홈에버그린 박진숙 원장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김소영 관장
-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변영혜 관장
- 한국기독공보 최은숙 기자

자문위원 · 편집위원

-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 김종익 목사(춘천광명교회)
- 편집위원 : 이영규 목사(신북성결교회), 정덕현 목사(푸른초장교회), 지태성 목사(춘천장로교회) 최영조 목사(갈릴리교회)

춘천기독교 120년사 1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발행인 이수형
발행처 춘천기독교120년사 편찬위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괄편집 김 훈, 임대형
인쇄처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비매품

ISBN 979-11-86066-98-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종교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춘천교회 120년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춘천시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